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2호 2023. 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요동지역 청동기문화의 변동과 교류

- 최호현 ■ 요동지역 북방계통 청동기의 유입 양상 7
오대양 ■ 요동반도 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지역성과 그 의미
 - 고인돌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63
천선행 ■ 상마석상층문화의 시·공간과 문화성격 113
이후석 ■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후 요동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의미 147

논문

- 정동훈 ■ 『송사(宋史)』 고려전(高麗傳)의 사원(史源) 205
박해운 ■ 근대 초기 서양인들의 일본 인종론과 그 영향에 대한 시론
 - 일본 주재 독일 의사들의 연구와 메이지시대 초기 번역서를 중심으로 251
김경준 ■ 1920년 북간도에서의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 293
옥창준 ■ 이선근의 1930~1940년대 역사 해석과 ‘조선 정신’ 337
이행선 ■ 1980년대 리영희의 핵 인식과 반핵
 -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핵 불감증 비판, 군사 주권의 회복 369

자료소개

- 김윤미 ■ 전쟁 속에서 일상화된 강제동원을 읽는다 - 『每日新報로 본 강제동원』 411

서평

- 홍종욱 ■ 현해탄을 건너는 태평양 횡단 비평
 - 『냉전의 폐허: 미국의 정의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태평양횡단 비평』
 (리사 요네야마 저, 김려실 역,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433
조현제 ■ 오보가 만들어낸 대학살, 사라지지 않는 오보 - 『관동대지진, 학살 부정의 진상』
 (와타나베 노부유키 저, 이규수 옮김, 삼인, 2023) 449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69

Contents

Special Issue The Changes and Exchanges of Bronze Age Culture in Liaodong Region

- Choi Hohyun ■ Influx Patterns of Northern-style Bronzeware in the Liaodong Region 7
- Oh Daeyang ■ The Locality and Implications of Funerary Rituals of the Bronze Age in the Liaodong Peninsula Region: Focusing on the Interaction with Dolmen Culture 63
- Cheon Seonhaeng ■ Time-spat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Upper Shangmashi Culture 113
- Yi Huseok ■ The Cultural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Formation of Zhengjiaiwazi Assemblage in Liaodong Area 147

Articles

- Jung Donghun ■ The Historical Source of the Goryeo Section of the *History of Song* 205
- Park Haewoon ■ Examinations of the Early Modern Western Theories of the Japanese Race and the Introductory Study of Their Effects: Focusing on the Research of the German Doctors in Japan and the Translated Geographic Books in the Early Meiji Period 251
- Kim Kyungjun ■ Choi Jin-dong's Armed Struggle against Japan in North-Gando in 1920 293
- Ok Changjoon ■ Daewongun, Hwurangdo and Korean Spirit: Lee Seon-geun's Interpretation of Korean History during the 1930~1940s 337
- Lee Haengseon ■ Lee Young-hee's Nuclear Awareness and Anti-Nuclear in 1980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riticism of Nuclear Insensitivity, Restoration of Military Sovereignty 369

Introduction to Documents

- Kim Yunmi ■ Read about a Time When Forced Mobilization was Commonplace in Warfare: Forced mobilization as Seen in Maeilshinbo (毎日新報) 411

Book Review

- Hong Jongwook ■ Transpacific Critique Across the Strait of Korea 433
- Jo Hyeonje ■ A Genocide Created by Misinformation, an Unabated Misinformation 449



특집

요동지역 청동기문화의 변동과 교류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동지역 북방계통 청동기의 유입 양상

최호현 |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전담교원

- I. 머리말
- II. 요동지역 출토 북방계통 청동기 분석
- III. 요동지역 북방계통 청동기의 유입 양상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중국 동북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문화는 신석기시대 문화의 기초 위에 자연환경, 경제형태와 문화전통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원을 갖는 문화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발전 양상을 보이며 시작되었다. 그러나 무덤과 교장(매납유구) 등에서 각종 청동 무기, 도구와 함께 용기가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2000년기 후반이 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알려진 고고자료와 연구성과를 통해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기는 기원전 2000년에서 1100년으로 중원의 하상(夏商)시기에 해당한다. 후기는 기원전 1100년에서 300년으로 서주(西周) 초기에서 연(燕)이 5군을 설치하기 전으로 주대에 해당한다.¹ 그중 요동지역은 그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기원전 14~10세기경 비로소 청동문화가 발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무기와 도구를 중심으로 한 북방계통 청동기 요소와 청동 용기를 중심으로 한 중원계통 청동기 요소가 선후로 유입되면서 점차 토착문화와 융합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이후 지역성을 갖는 독자적인 청동문화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 투고: 2023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3년 11월 7일, 재심사 완료: 2023년 11월 30일, 게재 확정: 2023년 12월 1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3-기획연구-20)로 수행된 연구임.

1 趙賓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 郭大順, 1993, 「遼河流域“北方式青銅器”的發現與研究」, 『內蒙古文物考古』 1993-1, 2; 姜仁旭, 2009, 「기원전 13~9세기 카라숙계 청동기의 東進과 요동·한반도의 초기 청동기문화」, 『호서고고학』 21; 강인욱, 2021, 「고조선의 성립과 대륙하 유역 중원 청동예기의 재해석」, 『백산학보』 120; 楊建華·邵會秋, 2014, 「商文化對中國北方以及歐亞草原東部地區的影響」, 『考古與文物』 2014-3.

데, 요동지역은 그 이서 지역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요서와 기북 등지에서는 중원계통 청동 용기와 함께 북방계통 무기 및 도구가 다량 출토되는 데 반해, 요동과 기북 산지 및 요서회랑에서는 북방계통의 청동 무기, 도구와 장신구만 출토되는 특징이 확인된다. 이처럼 외래 문화요소가 유입되는 초기 단계에는 본포 범위와 매납 양상 등에서 토착문화와 강한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 문화와 복합되는 양상보다는 그 주변부에 분포하면서 이질화된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 단계에도 이어지는데, 요서와 일부 기북 지역에서 대략 기원전 9~4세기경 유행했던 십이대영자문화는 기본적으로 토광묘가 발달하고 비파형동검, 선형동부, 동착 등 청동기와 발형 토기 등이 표지유물로 인지된다. 또한 일부 중원계통 청동 예기와 차마구가 포함된 무덤이 발견되기도 한다. 요동지역의 경우 기원전 10~4세기경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묘제 및 토기문화 전통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문화가 설정되고 있는데 청동기는 북방계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요서지역과 대별된다. 학계에서 ‘비파형동검문화’ 단계로 분류되는 이 시기는 요서와 요동 등지의 다양한 고고문화는 서로 교류하면서도 독자적인 변천과정을 거쳐 이미 사회 복잡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³

그렇다면 중국 동북지역에서 재지계의 독자성을 갖는 청동단검을 포함한 청동 유물군의 출현은 그 이전 단계에 무기 및 도구를 중심으로 매장된 북방계통 청동기의 출현과 과연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또 지역별 차이가 형성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요하 유역에서 상말주초(商末周初) 시기 북방계통 청동기 혹은 북방계통 청동기 요소를 갖춘 청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그 전파경로와 현지 문화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⁴ 그러나 이후

3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오강원, 2012, 「동북아시아 속의 한국 청동기문화권과 복합사회의 출현」, 『동양학』 51; 이후석, 2019, 「요령지역 비파형동검의 등장과 그 배경」, 『한국고고학보』 111; 이후석, 2020, 「요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전개와 교류」, 『한국청동기학보』 27; 이후석, 2022, 「요령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네트워크와 교류」, 『고조선의 테트위크와 그 주변 사회』, 주류성출판사.

요동 북부와 남부 등지에서 관련 자료가 다소 증가하였고 주변지역과의 비교나 다음 단계인 비파형동검문화 단계와의 연계 등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요동지역에서 북방계통 청동 문화요소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기원전 14세기경부터 기원전 10세기경까지 북방계통 문화요소의 지역별·시기별 변천과정과 주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 요소가 유입되는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지역의 청동문화가 본격적으로 ‘비파형동검문화’의 범주에 들고 외래문화가 토착문화와 성공적으로 융합되기 이전까지로 시기를 한정하고, 요서의 위영자문화(혹은 유형), 기북(冀北)·기동(冀東) 지역의 위방3기문화와 장가원상층문화를 비롯하여 내몽골과 섬북고원 일대까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자료를 검토하여 청동 제작 기술을 소유한 집단의 등장과 주변지역 문화요소들의 복합관계 등을 통해 요동지역 북방계통 청동기가 갖는 성격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비파형동검문화 단계 청동문화의 기원을 밝히는 데 일부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요동지역 출토 북방계통 청동기 분석

1. 북방계통 청동기의 연구사 정리

청동기는 하나의 거대한 청동 메커니즘을 통해 제작되는데, 이를 통해 제사에 사용되는 준엄(峻嚴)하면서도 정교한 예기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전투에 사용되는 무기와 도구 및 장신구 등이 제작되었다. 그중 중국 북방지역에서 출토된 중원 출토품과는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 청동 무기와 도구 및 장신구 등에서 나름

4 郭大順, 2009, 「遼河流域“北方式青銅器”再認識」, 『顎爾多斯青銅器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科學出版社.

의 유사성을 갖는 청동기가 “북방계 청동기”⁵라 명명되었다.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시기별·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혼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고 최근의 연구 경향을 위주로 연구사를 정리해보자. 우선 내몽골 중남부와 동남부를 통합하여 “내몽골 장성지대”라고 부르거나, 동쪽으로 요서에서 서쪽으로 감숙까지를 포함하는 “장성지대 중단(中斷)의 청동문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후자는 요동과 요서회랑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몽골 오르도스(河套), 섬북(陝北)과 진서(晉西)의 황토고원, 기북·기동과 요서지역에서 출토된 상(商) 후기에서 서주 초기의 청동기는 “상주 사이의(商周之際) 북방청동기”라 하였으나 현재 이들 청동기는 대체로 상 후기에서 춘추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의 축적에 따라 청동기 편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전광진(田廣金) 등에 의해 처음 사용된 “오르도스식(鄂爾多斯式) 청동기”⁶ 혹은 “오르도스 청동기”라는 용어는 지리적으로 내몽골 중남부의 하투(河套)지역을 중심으로 영하(寧夏)와 섬북(陝北), 진북(晉北) 등지에서 출토된 중국 북방의 초원계 청동기를 일컫는 것으로, 일찍이 수원청동기(綏遠青銅器)⁷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마다 일컫는 용어가 다양하고 청동기의 주조 및 사용 시기와 분포 양상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분석 대상과 연구 시기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를 모두 포괄하여 북방계통 청동기라고 통칭하고 있다.⁸

- 5 林滢, 1998, 「早期北方青銅器的幾個年代問題」, 『林滢學術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이 글에서는 중국학계의 북방계 청동기를 한국학계의 용례에 따라 북방계통 청동기라 칭하였다.
- 6 田廣金·郭素新, 1986, 『鄂爾多斯式青銅器』, 文物出版社; 田廣金·郭素新, 1988, 「鄂爾多斯式青銅器的淵源」, 『考古學報』 1988-3.
- 7 J. C. Andersson, 1932, “Selected Ordos bronzes”, *Bulletin of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4; 江上波夫·水野清一, 1932, 「內蒙古長城地帶」, 『東方考古學叢刊』 乙種第一冊.
- 8 상대(商代) 중·후기에 이르면 각지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시베리아 초원지역이나 그 영향을 받은 중국 북방지역 고고문화의 청동기를 직접적으로 흡수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수수(獸首), 영수(鈴首), 관공(管鑿)의 도끼와 칼 등 청동 무기뿐만

다음으로 중국 학계에서 북방계통 청동기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오은악사도(烏恩岳斯圖)는 동쪽으로 산서 보덕 임차옥(林遮峪)에서 동쪽으로 길림 회덕 대청산(大靑山)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단검을 크게 3유형(I~Ⅲ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연대와 기원을 분석하였다. 그중 본문의 시간적 범위에 속하는 I형단검은 연대가 상 후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서주시기까지 연용되었다고 보았다.⁹ 이후 다시 북방지역에서 출토된 상 후기에서 서주 초기에 해당하는 청동기를 기종별로 분류한 후 분포 양상과 기원을 탐구하고, 각각의 속성과 카라숙 및 은허 청동기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¹⁰ 당시 한정된 자료를 통해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 북방지역 출토 청동기에 대한 연구는 그의 연구방법과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 양건화(楊建華)의 지리적 분구(分區: 문화권)를 통한 북방계통 청동기의 분포 양상과 조합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보다 다층적인 분석이 진행된다.¹¹ 그리고 근년 시베리아 미누신스크 분지를 중심으로 한 세이마-투르비노문화와 카라숙문화의 동진에 따른 중국 북방지역 청동문화의 변화·발전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¹² 이 외에도 통시적인 시각에서 유

아니라 차마기와 동경, 금제 장식 등이 적지 않게 유입되었고, 이를 통칭하여 북방계 청동기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북방(北方)’이라는 용어는 황하중하류의 ‘중원(中原)’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북방초원지역 고고문화의 체계가 어느 정도 확립된 시점에서 용어의 재정립 혹은 재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烏恩(烏恩岳斯圖), 1978, 「關於我國北方的青銅短劍」, 『考古』 1978-5.

10 烏恩岳斯圖, 1985, 「殷至周初的北方青銅器」, 『考古學報』 1985-2.

11 楊建華, 2002, 「燕山南北商周之際青銅器遺存的分群研究」, 『考古學報』 2002-2; 楊建華, 2007, 「商周時期中國北方冶金區的形成-商周時期北方青銅器的比較研究」, 『邊疆考古研究』 6, 科學出版社; 楊建華·邵會秋·潘玲, 2016, 『歐亞草原東部的金屬之路-絲綢之路與匈奴聯盟的孕育過程』, 上海古籍出版社.

12 邵會秋·楊建華, 2011, 「塞伊瑪-圖爾賓諾遺存與空首斧的傳布」, 『邊疆考古研究』 10, 科學出版社; 松本圭太, 2017, 「セイマ・トルビノ青銅器群分布の背景-ロストフカ墓地の分析から」, 『史淵』 154, 九州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院; 劉翔, 2021, 「塞伊瑪-圖爾賓諾遺存發現與研究」, 『西域研究』 2021-1.

라시아초원시대 전체의 문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¹³ 한편, 청동기시대 고고문화는 출토 토기를 위주로 하여 더욱 세분화되었는데, 요하 동쪽의 청동기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락상층문화, 순산둔유형, 마성자문화, 양두와문화를 포함시키고 있다.¹⁴ 이처럼 최근 중국 학계의 북방 청동기문화에 대한 연구는, 기존 중심 왕조의 자원 획득이나 예제(禮制)의 전파 등 주로 중원문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변 문화를 연구¹⁵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중국 북방지역의 청동문화를 체계적으로 편년하고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정립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유라시아초원의 동부에 위치하는 중국 북방지역 청동문화로써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 연구자들은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기원지로 남부 시베리아에 중점을 두고 그 경유지로 내몽골 중남부 오르도스지역에 관심을 가져왔다.¹⁶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 동북지역을 포함하여 한반도 초기 청동문화 연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라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교류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진행된 이후석의 연구는 세이마-트루비노계 청동기와 카라숙계 청동기가 중국 북방지역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찰하였는데 북방계통 청동기를 중심으로 한 동서문화 교류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¹⁷ 또한 요하 유역 출토 북방계통 청동기에 대한 연구사 정리¹⁸와 함께, 남부 시베리아-내몽골 중남부-요하 유역의 청동기문화를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중국 북방 및 동북지역 청동기

13 韓建業, 2021, 「早期東西文化交流的三個階段」, 『考古學報』 2021-3.

14 陳平, 2006, 『北方幽燕文化研究』, 群言出版社.

15 李海榮, 2003, 『北方地區出土夏商時期青銅器研究』, 文物出版社.

16 김정배, 2007, 「北方 青銅器文化和韓國 古代文化의 관계」, 『오르도스 청동기문화와 한국의 청동기문화』, 한국고대학회; 강인욱, 2009, 앞의 글.

17 이후석, 2023, 「비파형동검문화의 동모동부 등장과정 시론」, 『호남고고학보』 74.

18 이청규, 2009, 「요하유역 북방계 청동기의 출현」,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27; 강인욱, 2007, 「중국 오르도스 청동기의 개념과 초기연구에 대한 검토-골동학에서 신중국 성립이전까지」, 『중국사연구』 56.

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¹⁹ 이는 궁극에는 비파형동검문화 이전의 초기 청동기문화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유라시아 초원지대 청동기에 대한 연구는, 시베리아와 자바이칼지역으로부터의 유입과정 및 교류 루트에 주목하여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세이마-투르비노문화의 유입에 따른 중국 중원지역 및 중국 북방지역 청동문화의 체계와 교류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정한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문화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권역을 우리는 ‘문화권’이라 칭하는데, 지역 간에 문화적 유사성이 출현 혹은 유지된다는 것은 각 지역 간에 문화적 교류 혹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북방지역에서는 상 후기부터 문화의 통일성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화변력(花邊鬲)과 중원계통 청동 용기, 북방계통 청동 무기 등은 이미 많은 연구자가 주목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북방계통 청동기가 출토되는 가장 변방이면서 중원계통 청동 용기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 요동지역은 이러한 연구 사조에서 다소 소외되거나 누락되어 그 유입 경로 및 배경 그리고 이후 청동단검문화와의 연계가 모호한 상태이다. 이는 청동단검문화 전야에 해당하는 상 후기에서 서주 초기에 요동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기의 수량과 종류가 인접 지역에 비해 다소 빈약한 것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요동지역 청동문화의 기원과 유입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요동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를 정리해보고, 우선 그와 인접한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요동지역 출토 북방계통 청동기

중국 북방지역 동부는 연산(燕山)을 중심으로 하는데, 서쪽으로 태항산(太行山)

19 강인옥·김경택, 2020, 「유라시아-연해주 금속 루트와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계통」, 『인문학연구』 44.

까지, 동쪽은 의무려산까지, 북쪽은 서랍목륜하까지, 남쪽은 거마하(拒馬河)에 이르는 지역이다. 기원전 2000년기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공간으로 몇몇 문화 양상이 비슷한 청동기시대 문화가 존재했는데, 지리적 환경에 따라 다시 서요하 유역, 연산산지와 기북·기동의 경진당 충적평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서요하 유역은 연산 이북의 구릉지대로, 노로아호산을 경계로 동쪽은 대·소릉하 유역의 요서구릉지대이고 서쪽은 노합하 유역의 내몽골 동남부지역이다. 연산산지는 동쪽으로 산해관까지 닿고, 해발고도는 약 1,000~1,800m이며, 산지와 분지를 포함하고 있다. 경진당 지역은 연산이남에서 해하(海河) 사이의 지역이며, 주로 북경, 천진, 하북 당산 일대에 해당하며 완만한 구릉과 저지대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연산산맥은 그 남북 두 지역 간 문화교류의 천연 장벽으로 볼 수 있으나, 또한 계곡이 중요한 교통 통로가 되기도 하여 양 지역 고고문화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요서와 요동 지역에서 확인된 상말주초 시기 고고자료는 요하 유역과 대·소릉하 유역, 발해연안에 집중되어 있고, 요하 상류, 동요하 유역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요동지역에서 발견되는 기원전 14~10세기 전후에 북방계통 청동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어쩌면 아직 주변 지역과의 비교를 진행하기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요서지역과 섬북지역 등지와 중원 및 초원유라시아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일련의 연구성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요동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기의 유입 배경을 어느 정도 추정해볼 수 있게 되었다. 요하와 그 주변지역은 기원전 13세기에서 기원전 9세기 전후에 선비파형동검문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지역과 일정한 교류가 진행되면서 상사점과 상이점을 갖게 된다. 이에 요동지역에서 북방계통 청동기가 출토되는 지점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 이청규는 이들 지역을 크게 4개 지역권으로 세분화하였는데, 우선 요하 상류와 대릉하 상류를 합쳐서 요서 내륙지역으로, 요하 북부 평원지역 요하 중하류와 합쳐서 요하 중하류 저지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발해만 연안의 동서로 길게 형성된 요서회랑을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요동반도 남단과 천

산산맥 이남 황해 연안을 요남지역으로 구분하였다.²⁰

이를 참고하여 이 글에서는 요동지역에서 북방계통 청동기가 출토된 지역을 요하 종류와 그 지류인 수수하(秀水河), 유하(柳河)를 포함하는 하요하 유역의 요하평원 북부, 혼하와 태자하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요동 구릉, 벽류하 유역과 그 이남을 중심으로 하는 요동반도 남단(遼南) 지역 등으로 크게 3개 문화권으로 설정하고자 한다.²¹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출토 청동기에서 요동지역 출토품과 기형과 조합 등에서 상사성·상이성이 확인되는 요서회랑 및 일부 요서산지, 연산산맥과 그 이남의 기북(冀北)·기동(冀東) 지역 그리고 내몽골 동남부(蒙東南) 및 섬서와 산서 북부의 황하양안과의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요동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는 무기류와 도구류 및 장신구류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금제 장신구가 같이 출토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청동 용기와 차마구 등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으며, 법고 만류유적과 심양 북외유적과 같이 도범이나 석범이 함께 출토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의 시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중국 요동지역 전기 청동기시대 고고문화는 마성자문화, 고대산문화, 신락상층문화, 순산둔유형, 법고 만류유적²² 등이 대표적이다(표 1 참조).

20 이청규, 2009, 앞의 글.

21 楊建華(2007, 앞의 글) 분류안에 따르면 대체로 조합5~조합8에 해당한다. 이 글의 지리적 범위는 양건화가 분류한 8가지 조합 중에서 조합5~조합8의 대부분을 포함하며, 그중 요동지역은 대부분 조합5인 연산남북지역에 해당한다. 조합5는 서쪽으로 장가구 회안과 장북, 동쪽으로 북경, 청룡 초도구까지 동서로 좁고 긴 분포 양상을 보이며, 요서회랑을 따라 동북 방향으로 이어져 수중 풍가, 홍성 양하를 거쳐 북쪽으로 심양 신민, 법고 만류와 무순 망화까지 이어진다. 이 지역에서 청동기는 대부분 교장에서 출토되고, 연산 이북 지역에서는 중원 청동기와 북방과 중원의 문화요소가 융합된 관공과(管鑿戈) 등 기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청동기 중 곡병(曲柄) 수수검과 공내과가 특징적이고, 이 외에도 관공부, 관공월과 곡병의 수수, 영수, 환수도가 있다고 보았다.

22 고대산문화에 포함시키는 연구도 있다(郭大順·張星德, 2005, 『東北文化與幽燕文明』, 鳳凰出版社; 董新林, 1996, 「高臺山文化研究」, 『考古』 1996-6; 陳平, 2004, 「高臺山文化研究綜述」, 『北京文物與考古』 6).

〈표 1〉 중국 북방지역 청동기시대 고고문화 분기표(최호현, 2019, 수정)

연대	중원		몽 중남·섬북·진북	요서	기북·기동	요동	본문 분기
BC 16C ▶	이리두	1~2기					
		3~4기					
BC 14C ▶	이리강	1~2기	주개구	하가점하층	대타두	마성자 고대산 쌍타자1~2기	1기
		3~4기					
BC 12C ▶	은허	1~2기	이가에	위영자	위방3기	마성자 신락상층 쌍타자3기	2기
		3~4기					
BC 10C ▶	서주		서차	십이대영자	장가원 상층	쌍방	

1) 요하평원 북부

요하평원 북부와 요동 구릉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청동기는 대부분 무기와 도구 및 장신구가 있으며 청동 용기와 차마구는 출토되지 않았다(그림 1, 표 2 참조). 지리적으로 고대산문화와 마성자문화, 신락상층문화 등이 분포되는 지역이다. 그중 대표적인 마성자문화와 고대산문화의 존재기간은 대개 하(夏) 후기에서 상 후기까지로 보고 있다. 하요하 유역의 요하평원 북부와 요동 북부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조합관계와 형태적 특징이 유사하고, 분포범위도 매우 한정적이어서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하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한 요북지역은 요서와 요동의 접이지대로 문화 양상이 다종다양하게 확인되는데, 마성자문화 외에도 고대산문화, 신락상층문화와 순산둔유형, 망화유형 등 다양한 문화유적이 확인된다. 한편, 요동 북부와 하요하 유역의 상 후기에서 서주 전기의 고고문화를 모두 동일한 문화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²³

고대산문화는 하요하와 그 지류인 수수하 유역 등 요서 북부에 분포하는 청

동기시대 문화로, 요령성 부신(阜新), 창무(彰武), 신민(新民) 등지에서 주로 확인되며, 서쪽으로는 의무려산까지 동쪽으로는 요하에 이른다. 절대연대 측정치가 3,700~3,300BP에 집중하고, 대략 하 후기에서 상 후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²⁴ 그러나 문화 내용상 요서의 하가점하층문화에서 위영자문화, 하가점상층문화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존속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⁵ 지금까지 고대산문화 분포범위 내에서 확인된 청동기는 많지 않은데, 창무 평안보유적에서 출토된 동도, 나팔형 이식과 동편(H3104:6) 등 3점이 있고,²⁶ 부신 평정산(平頂山)유적에서 동도와 동이식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²⁷

요하의 동쪽에서는 순산둔(順山屯)유적과 범고 만류(灣柳)유적에서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순산둔유적은 강평진 서포자댐 변의 대지상에 위치하고 주거지와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발굴자는 하가점상층문화나 고대산문화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순산둔유형”이라 명명하였다.²⁸ 그중 순산둔유적에서 동축 1점이 출토되었다.

범고 만류유적은 요령성 범고현 만류가촌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1979년에 토기 관 2점이 채집되면서 발견되었다. 출토 유물은 토기와 석기가 대부분이며 청동기는 4차례에 걸쳐 확인되었는데, 1983년 문물조사 시 호, 관 등 토기와 함께 청동 영수도(鈴首刀) 1점이 수집되었다.²⁹ 1984년 정가방(丁家房) 벽

23 趙賓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195~218쪽.

24 董新林, 1996, 「高臺山文化研究」, 『考古』 19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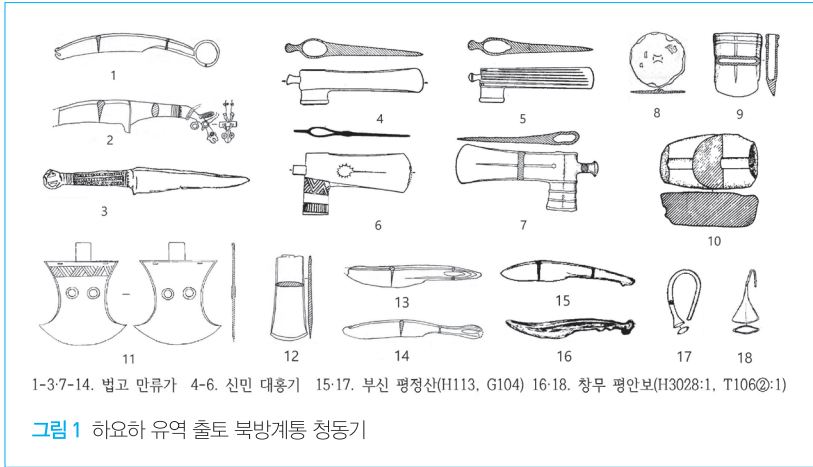
25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2020, 『동북아시아 고고학개설 I-선·원사시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262쪽.

2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係, 1992, 「遼寧彰武平安堡遺址」, 『考古學報』 1992-4.

2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係, 1992, 「遼寧阜新平頂山石城址發掘報告」, 『考古』 1992-5.

28 辛占山, 1988, 「康平順山屯青銅時代遺址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 1988-1.

29 曹桂林·許志國, 1988, 「遼寧法庫縣灣街遺址調查報告」, 『北方文物』 1988-2.



돌공장에서 취토하던 중 유적의 북부가 크게 파손되었는데, 1986년 철령시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1988년에 요령대학 역사계에서 발굴을 진행하였다. 청동기는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4점씩 수집되었는데, 환수도, 판상부, 공수부, 관공부와 동경 등 청동 무기와 도구가 다수 포함되었다.³⁰ 그리고 1990년 벽돌공장에서 취토 중 요동지역에서 처음으로 동월(銅鉞) 1점이 출토되었다.³¹ 이 외에도 신민 대홍기에서 관공부 3점(그림 1-4~6)이 수집되었다.³²

30 鐵嶺市博物館, 1990, 「法庫縣灣柳街遺址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 1990-1; 遼寧大學歷史系考古教研室·鐵嶺市博物館, 「遼寧法庫縣灣柳遺址發掘」, 『考古』 1989-12.

31 曹桂林·莊艷杰, 1997, 「法庫灣柳街遺址出土的青銅時代遺物」, 『遼海文物學刊』 1997-1.

32 喀左縣文化管·朝陽地區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97, 「遼寧省喀左縣山灣子出土殷周青銅器」, 『文物』 1977-12.

2) 요동 구릉(그림 2, 표 2 참조)

혼하(渾河)는 요령성 동부의 주요 하류 중 하나로, 무순시 청원만족자치현에서 발원하여 주로 청원, 신빈, 무순, 심양, 대안(臺安) 등을 경유한다. 삼차하에서 태자하와 합수한 후 남류하여 발해로 흐른다. 상말주초 시기 이 지역에는 신락상층(新樂上層)문화와 망화(望花)유형 등이 확인된다.

신락상층문화는 요령성 심양시 신락상층유적을 통해 명명되었으며, 주로 혼하 양안과 무순 등 혼하 북안의 비교적 낮고 편평한 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는 제1지점과 제5지점에서 관공부와 환수도가 각 1점씩 채집되었다.³³ 또한 최근 발굴·보고된 심양 북외(北巖)유적에서 석범과 청동기 파편이 출토되었다.³⁴ 유적은 심양시 법합우진 파도영자촌(巴圖營子村)에서 동북으로 900m 떨어져 있으며, 포하(蒲河) 좌안의 1급대지에 위치한다. 1980년대 전국제2차 문물조사에서 다량의 신락상층문화 토기편이 발견되었으며,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조사·발굴을 통해 주거지, 소토 퇴적, 회갱, 구상유구, 토광묘 등이 발견되었다. 그중 2017년 발굴에서 청동단검, 동탁(銅鐸), 동편(銅片) 등 3점(그림 2-2, 3, 5)이 출토되었는데, 동탁은 1호 회갱(H1)에서 동편은 2호 주거지(F2)에서는 출토되었으며, 발굴자는 이상의 청동기 출토 유구가 신락상층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검은 서주 전기 혹은 중기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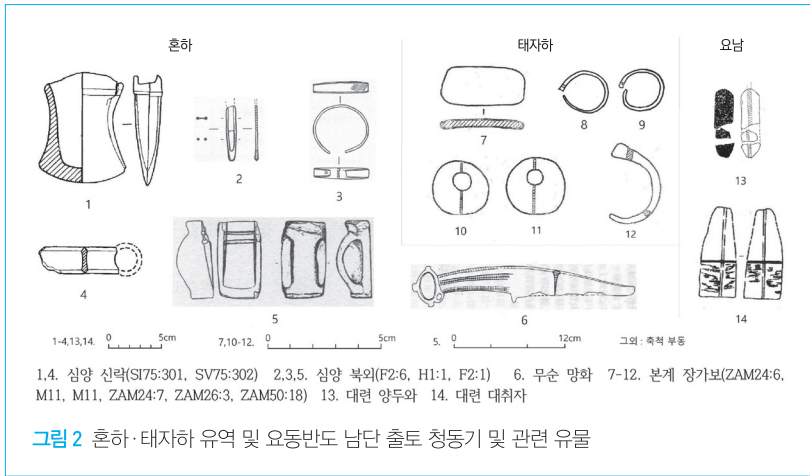
망화유형은 1975년 요령성 무순시 망화구 농기계 공장 내 망화유적을 통해 명명되었으며, 건물 기초공사 과정에서 환수도 1점이 출토되었다.³⁵ 시가(施家) 동산유적에서는 지층에서 동도 1점이 확인되었다.³⁶ 강평 승리촌에서는 1986년에 현의원(縣醫院)을 건축하면서 발, 완 등 토기와 석부 그리고 동환(銅環) 1점

33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78, 「瀋陽新樂試掘報告」, 『考古學報』 1978-4.

34 李樹義·蘇哲·趙曉剛·李一鵬·霍東峰, 2022, 「瀋陽市北巖遺址2017年考古發掘簡報」, 『瀋陽考古文集』 8, 科學出版社.

35 撫順市博物館, 1981, 「遼寧撫順市發現殷代青銅環首刀」, 『考古』 1981-2.

36 撫順市博物館考古隊, 1983, 「撫順市區早晚兩類青銅文化遺存」, 『文物』 1983-9.



을 발견하였는데, 동화는 지름 약 5.8cm, 두께 약 0.2cm이다.³⁷

태자하(太子河)는 요령성 무순시 신빈만족자치현 평정산의 북쪽 산줄기에서 발원한 북지(北支)와 본계만족자치현의 초모정자산 서록에서 발원한 남지(南支)가 있는데, 본계현에서 두 물줄기가 만나 본계시, 요양시, 안산시 등을 경유하여 훈하와 삼차하에서 만나 발해로 들어가게 된다. 마성자문화는 태자하 유역에서 상말주초 시기에 존재했던 청동기시대 고고문화이다. 1979년 요령성 문물조사에서 발견되어 처음에는 묘후산문화로 명명되었다가 마성자 B동에서 상층과 하층으로 중첩된 서로 다른 문화층이 확인되면서 마성자문화로 불리게 되었다.³⁸ 지금까지 마성자문화 범위 내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모두 본계 장가보 A동에서만 확인되었는데 4기 무덤에서 총 6점이 출토되었다. 구체적으로 M50(4층)에서 곡옥형(曲玉形) 청동기³⁹ 1점, M11(3층)에서 환형동식(銅環) 2점,

37 張少青, 1990, 「康平縣勝利村遺址及其附近的遺物」, 『遼海文物學刊』 1990-1.

38 李恭篤, 1992, 「本溪地區洞穴文化遺存的發現與研究」, 『北方文物』 1992-2.

39 장가보A동 M50 출토 곡옥형 청동기는 진주 옥방 5지구 출토품(이형구 편, 2001,

M24(3층)와 M26(2층)에서 원형 동패식 각 1점 그리고 M24에서 장방형 동패식 1점이 출토되었다.⁴⁰

마성자문화는 현재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다양한 편년체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세부 편년과 상·하한 연대는 연구자마다 일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어 참고할 만한데,⁴¹ 그중 청동기가 출토된 무덤은 3분기에서는 중기(2기/조)와 후기(3기/조)에 속하거나⁴² 전·중·후기에 모두 속하고,⁴³ 4분기에서는 1~3기⁴⁴ 혹은 2~4기⁴⁵에 포함된다. 그리고 2분기에서는 1조(전기)와 2조(후기)에서 모두 확인된다고 보았다.⁴⁶ 다만 장가보 A동 출토

『진주 대평리 옥방 5지구 선사유적』, 선문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이식(耳飾), 곡자형·도자형(刀字形) 청동기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출토 초기에는 형태에 따라, 최근에는 용도에 따라 명칭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실견한 진주 대평리 옥방 5지구 출토품의 경우 상하면이 평편하고 납작하여 장가보 출토품과는 형태상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물의 경도나 단면의 형태 등으로 볼 때 동도(銅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사시기에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각종 아식(牙飾) 및 곡옥(曲玉)과 유사하여 펜던트 등 장신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4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馬城子-太子河上游洞穴遺存』, 文物出版社, 115~148쪽. 장가보A동 M11에서 출토된 환형동식(동환) 2점은 피장자의 왼팔 아래쪽에서 출토되었는데 보고서에 정확한 크기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출토위치와 형태적 특징으로 볼 때 팔찌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장가보 A동에서 채집된 동이식 1점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 41 천선행·장순자, 2012, 「마성자문화 동굴묘 출토 토기 변천과 전개」, 『嶺南考古學』 63; 오대양, 2015,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양상과 전개-소위 쌍방·미송리문화를 중심으로-」, 『동양학』 61.
- 4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앞의 책.
- 43 段天璟은 마성자문화를 모두 3기로 나누었으며, 그중 청동기 출토 무덤은 1~3기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段天璟, 2008, 「馬城子諸洞穴墓葬遺存的分期與相關問題」, 『邊疆考古研究』 7, 科學出版社).
- 44 唐森, 2008, 「關於馬城子文化內涵認知的術評」, 『東北史地』 2008-6; 唐森, 2015, 「太子河上游地區洞穴墓葬的形制與分期研究」, 『東方考古』 11.
- 45 華玉冰, 2011,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科學出版社; 華玉冰, 2009, 「馬城子文化墓葬分期及相關問題」, 『新果集-慶祝林溪先生七十華誕論文集』, 科學出版社.
- 46 趙賓福, 2007, 앞의 글.

청동기는 모두 도면만 발표되고, 현재 박물관에도 전시되지 않아 정확한 연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⁴⁷ 그중 동환을 제외하면 모두 대타두문화에서 확인되어 제작연대 상한이 상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 후기 혹은 서주 시기까지 장신구로 사용되다가 무덤에 부장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요동반도 남단

요동반도 남단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매우 적은 편으로, 대련 대취자유적에서 발견된 동과와 동촉이 있고 단동 동항(구 동구현)에서도 공내과(鏜內戈, 혹은 啄戈라고도 함) 1점이 출토되었다고 하나, 후자는 도면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쌍타자1기문화에 속하는 대취자1기유적에서 출토된 동과 1점(T33④:21)은 봉부(鋒部)와 미부(尾部)가 파손되어 원부(援部)만 남은 상태이며, 보고자는 이 동과가 합범(合範)으로 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⁴⁸ 대련 양두와(羊頭窪)유적⁴⁹ 제12구(區) C단(段)에서도 3조각으로 파손된 청동기편 1점이 출토되었다(그림 2, 표 2 참조).

쌍타자1기문화의 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 이견이 많은데, 크게 소주산 5기문화와 선후로 계승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입장과 서로 다른 문화로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그중 전자는 쌍타자1기문화를 소주산5기문화의 지방유형으로 보거나,⁵⁰ 쌍타자1기문화가 소주산5기문화를 계승한 것⁵¹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

47 2023년 8월 23~24일 본계박물관(本溪博物館) 참관 시 장가보A동 출토 청동기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 토기의 경우 제시된 출토지에 오류가 있어 박물관 전시품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48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2000, 『大嘴子—青銅時代遺址1987年發掘報告』, 大連出版社, 108쪽. 대취자유적에서는 동과 외에도 제3기문화 유적에서도 동촉 1점(T13②:30)이 출토되었는데, 이미 청동단검문화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9 金關丈夫·三宅宗悅·水野清一 著, 李蓮 譯, 1942, 『羊頭窪』東方考古學叢刊乙種 第三冊, 東亞考古學會, 20~21, 64쪽.

50 王建華, 2005, 「試論遼東半島南部地區的史前文化」, 『遼寧師範大學學報』2005-4.

후자는 양자가 서로 병행 발전하면서 교류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⁵² 이 외에도 쌍타자1기문화가 산동 용산문화의 지방유형이라는 주장도 있다.⁵³ 쌍타자1기문화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대체로 연대 상한은 용산문화 후기까지 올라가고, 하대(夏代)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 대련 대취자유적 T13 출토 동축과 양두와유적 출토 청동기 편은 쌍타자문화 3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요하평원 북부의 하요하 유역과 혼하 및 태자하 유역을 중심으로 한 요동 구릉 등지에서 확인되는 청동기는 본계 장가보A동 무덤 출토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집 혹은 채집된 것이다. 또한 지층관계나 공반유물 등이 이미 유실된 상태여서 연대나 속성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계 장가보A동 출토 동패식 5점과 곡옥형 청동기 1점은 연산 이남의 대타두문화에서 유사한 기물이 출토되었고, 이 지역 출토품 중 유일하게 지층관계나 공반유물이 확인되어 하 후기 혹은 상 전기로 연대 추정이 가능하다.

그 외 채집·수습된 청동기는 모두 무기와 도구 일색이다. 예를 들어, 수수도와 환수도는 병부와 신부의 경계가 분명하고, 관부의 부신(斧身)이 넓은 편이며, 상부에는 주상돌기가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상 후기에 유행하는 것이다. 또한 부신에 구멍이 2개 뚫린 편평한 월(鉞)과 영수도 등 서주시기까지 내려가는 기물도 일부 발견되는데, 마성자문화에 속하는 것인지 혹은 그보다 늦은 하가점상층문화에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하가점상층문화에서 출토되는 일반적인 청동기와는 차이가 있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청동기는 소재의 특성상 사용기간이나 분포범위가 일정한 문화권이나 시기를 벗어나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금속 도구의 경우 시공간적 범위가 매우

51 樂豐實, 1997, 「遼東半島南部地區的原始文化」, 『海岱地區考古研究』, 山東大學出版社.

5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雙砣子與崗上-遼東史前文化的發現和研究』, 科學出版社.

53 王青, 1998, 「再論龍山文化郭家村類型」, 『北方文物』 1998-3.

〈표 2〉 요하평원 북부 및 요동지역 북방계통 청동기 출토 유적(*비북방계통)

분포	유적명	도구	무기	장신구·기타	수량	거푸집	분기
태자하	본계 장가보A동 M50			曲玉形 청동기1	1		1기
수수하	창무 평안보	刀1		耳飾(나팔형)1	2		
	부신 평정산	刀1		耳飾(나팔형)1	1		
요남	대련 대취자T33		*戈1		1		
	대련 양두와			불명기1	1		
태자하	본계 장가보A동 M11			環形 牌飾2	2		
	본계 장가보A동 M24			圓形 牌飾1, 長方形 牌飾1	2		
	본계 장가보A동 M26			圓形 牌飾1	1		
	무순 망화	環首刀(三凸)1			1		
혼하	심양 신락(상충)	環首刀(殘)1	管鑿斧1		2		
	심양 북외			鐮1, 불명기1	2	석범1	
하요하	강평 순산둔		*鉞(殘)1		1		2기
	강평 승리촌(縣醫院)			環1	1		
	신민 대흥기		管鑿斧3		3		
	범고 만류가(1983)		鈴首刀1		1		
	범고 만류가(1988)	環首刀1, 直鑿 斧1, 板狀斧1	管鑿斧1		4	도범3	
	범고 만류가(1989)	穿孔首刀2	獸首刀1	鏡1	4		
	범고 만류가(1990)		*鉞1		1		
	대련 대취자T13		*鉞1		1		
요남	단동 동향		*鑿內戈1		1		?
합계		9	11	13	33		
비율(%)		27.3	33.3	39.4	100		

유연하여 한 유적이나 유구에서 출토되는 기물의 수량이 적거나 단일한 경우 그 시간적 속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연구에

서도 100년 이상의 편차를 갖고 서술되는 기물들이 확인된다. 또한 어떤 기물이든 유형학적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요동지역은 출토된 청동 무기와 도구는 약 30여 점이고, 그중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종은 도(刀)와 부(斧)뿐이다. 요서와 기북·기동 등 일부 인접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연대 상한과 하한을 확대한다고 해도 검(劍)과 과(戈) 정도가 포함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표채집이나 수집된 기물이 대부분이고, 지역별로 조합관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요동지역 출토 청동기를 출토 배경 등을 고려하여 분기하고 시기별로 주변지역과의 비교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3. 분기

요하평원 북부와 요동지역에서 출토된 서주 전기 이전 청동기는 대부분 북방계통에 속한다. 출토된 청동기 수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지역별 편차도 큰 편이어서 범고 만류 출토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4점 이내이며, 1점만 출토된 유적도 적지 않다. 요동지역 전기 청동기시대 북방계통 청동기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고 주변지역과의 비교를 진행하기 위해, 유적 출토 토기와 청동기의 형태적 특징 및 조합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 후기를 기준으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기에 속하는 유적은 본계 장가보A동, 부신 평정산, 창무 평안보 유적과 대련 대취차 유적 등이 있으며, 주로 요하평원 북부와 태자하 유역에 주로 분포한다. 이 단계에 속하는 청동기는 도구와 장신구가 대부분이고, 청동용기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청동기가 출토된 본계 장가보A동 4기 무덤 중 M50이 이 시기에 해당하며 곡옥형 청동기만 1점 출토되었다. 부신 평정산 유적과 창무 평안보 유적에서는 동도와 동이식이 1점씩 출토되었으며 대련 대취차 유적 출토 동과 1점은 이 단계 요동지역에서 출토된 유일한 무기류에 속하나 중원계통 청동기이다.⁵⁴ 본계 장가보A동 M50은 지층관계와 공반된 호, 관, 발 등 토기를 근거로 마성자 전기, 즉 하 후기에서 상 전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시기

의 중심 연대는 기원전 14세기에서 12세기 전후로 판단되며 상한은 하 후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하한은 상 후기 이른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다.

2기에 속하는 유적은 요하평원 북부와 혼하와 태자하 유역의 요동 구릉지대에서 주로 확인되었는데, 서쪽으로 수수하에서 동쪽으로 혼하 북안의 무순 망하까지 포함된다. 이 단계에 속하는 청동기는 본계 장가보A동 출토품을 제외하면 도구류와 무기류가 대부분인데, 무기는 관공부, 영수도, 수수도와 과, 축 등이, 장신구류는 이식, 동환과 동경 등이 출토되었다. 도구는 칼이 대부분이고 직공부와 판상부는 1점씩 출토되었다. 동도는 형태가 다양하고 거꾸집과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아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시기는 대략 기원전 12세기에서 기원전 10세기에 해당되며, 일부 청동기의 경우 하한은 더 내려갈 수 있다. 신락유적 제3지점 출토 동도 파편은 환수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법고 만류에서 동월이 출토되었는데, 신부에 2개의 투공이 있고 견부에는 삼각집선문이 장식되어 있는 판상형(板狀形)으로 주변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태이다. 또한 법고 만류와 심양 북외에서 석범과 도범이 출토되어 이들 청동기가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청동기는 대부분 북방계통에 해당되는데 그중 장신구인 나팔형 이식은 유라시아 초원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기종으로 안드로노보문화에서 파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락제1지점 출토 동부는 채집품으로 정확한 제작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형태적 특징을 통해 볼 때 서주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3지점 출토 동도 파편 역시 시기가 내려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수도(鈴首刀)는 서주 중기 전후에 출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⁵⁵ 이 시기 요동지역 출토 청동 무기 중 과(戈)와 축(鑕)은 중원계통에 속한다.

지금까지 요하평원 및 요동지역에서 확인된 북방계통 청동기는 수량이 많지

54 단동 동구현에서도 북방계통 청동기가 출토되었다고 하나 도면 및 사진이 발표되지 않았다.

55 楊建華, 2007, 앞의 글.

않아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장에서 주변지역 출토 청동기와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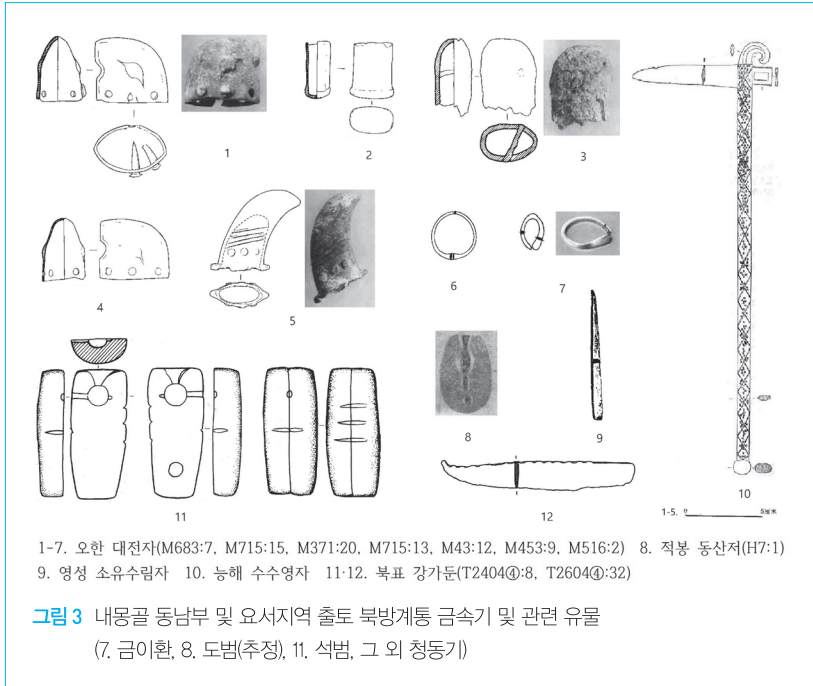
III. 요동지역 북방계통 청동기의 유입 양상

1. 주변지역 북방계통 청동기와의 비교

1) 내몽골 동남부 및 요서 지역 출토 북방계통 청동기: 하가점하층문화

하가점하층문화는 내몽골 동남부와 연산이북 요서지역에 분포하던 청동기시대 고고문화이다. 서쪽으로 난하, 남쪽으로 발해, 동쪽으로 의무려산과 북쪽으로 서랍목륜하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하며 노합하, 대·소릉하 유역에 집중분포한다. 절대연대는 대개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400년에 해당하며, 중원의 이리두문화에서 이리강하층문화 시기이다. 북방계통 청동기가 출토된 유적은 내몽골자치구 오한 대전자(大甸子),⁵⁶ 적봉 동산저(東山咀),⁵⁷ 영성 소유수림자(小榆樹林子),⁵⁸ 과이심 대산전(大山前),⁵⁹ 고륜 남포자(南泡子),⁶⁰ 요령성 북표 강가둔(康家屯),⁶¹ 능해 수수영자(水手營子)⁶² 등이 있다(그림 3, 표 3 참조).

-
- 5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大甸子-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57 李恭篤·高美駿·馮永謙, 1983, 「內蒙古赤峰縣四分地東山咀遺址試掘簡報」, 『考古』 1983-5.
- 58 內蒙古自治區文物工作隊, 1965, 「內蒙古寧城縣小榆樹林子遺址試掘簡報」, 『考古』 1965-12.
- 59 林滄, 2002, 「夏代的中國北方系青銅器」, 『邊疆考古研究』 1, 科學出版社.
- 60 郝維彬, 1996, 「內蒙古庫倫旗南泡子崖夏家店下層文化遺址調查簡報_郝維彬」, 『北方文物』 1996-3.
- 6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1, 「遼寧北票市康家屯城址發掘簡報」, 『考古』 2001-8.



하가점하층문화 시기 이 지역에서 출토된 북방계통 청동기는 60여 점이며 그중 대전자유적에서 이환 26점, 지환 25점을 비롯하여 총 58점의 가장 많은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청동 무기, 도구, 장신구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5%, 6.2%와 80.0%로 장신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이나, 청동기 출토 유적이 적어 의미 있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적봉 하가점하층유적 생토층 위에서 출토된 슬래그⁶³나 우하량 전산자(轉山子)유적에

62 齊亞珍·劉素華, 1991, 「錦縣水手營子早期青銅時代墓葬」, 『遼海文物學刊』, 1991-1.

6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4, 「赤峰藥王廟·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974-1.

〈표 3〉 내몽골 중남부 및 요서 지역 북방계통 청동기 및 관련 유물 출토 유적(*비북방계통)

유적	무기	도구	장신구	기타	합계	청동주조 관련	기타
오한 대전자			耳環26, 指環25	杖2, 杖首1, 冒2, 鐵1, 貝(鉛)1	58		金耳環1
과이십 대산전		刀2	耳環 1		3		
영성 소유수림자				釘1	1		
고륜 남포자		刀1			1		
적봉 동산저					0	도범1	
능원 우하량					0	노벽1	
능해 수수영자	*戈 1				1		
북표 강가둔		刀1			1	석범1쌍	
합계	1	4	52	8	65		
비율(%)	1.5	6.2	80	12.3	100		

서 출토된 노벽 잔편⁶⁴과 같이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에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북표 강가둔에서 석범 1쌍(2점)과 동도가 출토되었는데 간단한 도구나 장신구 등은 제작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적봉 동산저에서 발견된 토제 기물은 합범(合範)의 1편이라고 서술되었으나 사진상으로는 정확한 용도를 추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오한 대전자유적을 제외한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이환, 지환과 도, 정 등 비교적 간단한 장신구와 도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출토 수량도 대부분 4점 이내로 대전자유적 출토 청동기 수량과 편차가 큰 편인데, 이는 이 지역의 청동기 주조 기술의 유입 양상 및 유적 성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4 李延祥·韓汝玢·寶文博·陳鐵梅, 1999, 「牛河梁冶銅爐壁殘片研究」, 『文物』 1999-12.

2) 연산이남 지역 출토 북방계통 청동기: 대타두문화

대타두(大陀頭)문화는 주로 연산이남의 구릉지대에 자리하는데, 해하, 조백하, 난하 하류와 호류하 유역 등에서 모두 확인된다. 서쪽은 태항산 동록까지, 동쪽은 발해까지, 북쪽으로 연산, 남쪽으로 영정하 하류와 거마하에 이른다. 대타두문화는 초기에는 하가점하층문화가 연산이남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 하가점하층문화의 하위 유형으로 간주하여 “연남형(燕南型)”,⁶⁵ “해하형(海河型)”,⁶⁶ “설산형(雪山型)”⁶⁷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대타두유형이나 호류하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⁶⁸ 그러나 고고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하가점하층문화와는 다른 기원을 가진 문화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연산이남 지역의 하대부터 상 전기 유적이 대타두문화라고 불리게 되었다.⁶⁹

그중 비중원계통 청동기가 출토된 유적은 대창 대타두(大坨頭),⁷⁰ 당산 대성산(大城山)⁷¹·소관장(小官莊),⁷² 창평 설산(雪山),⁷³ 방산 류가점(劉家店),⁷⁴ 역현

65 李經漢, 1980, 「試論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與類型」, 『中國考古學會第一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66 張忠培·孔哲生·張文君·陳雍, 1987, 「夏家店下層文化研究」, 『考古學文化論集』, 文物出版社.

67 鄒衡, 2001, 「關於夏商時期北方地區諸隣境文化的初步探討」, 『夏商周考古學論文集』, 科學出版社.

68 李伯謙, 1998, 「論夏家店下層文化」, 『中國青銅文化結構體系』, 科學出版社.

69 韓嘉谷, 1984, 「京津地區商周時期古文化發展的一點線索」, 『中國考古學會第三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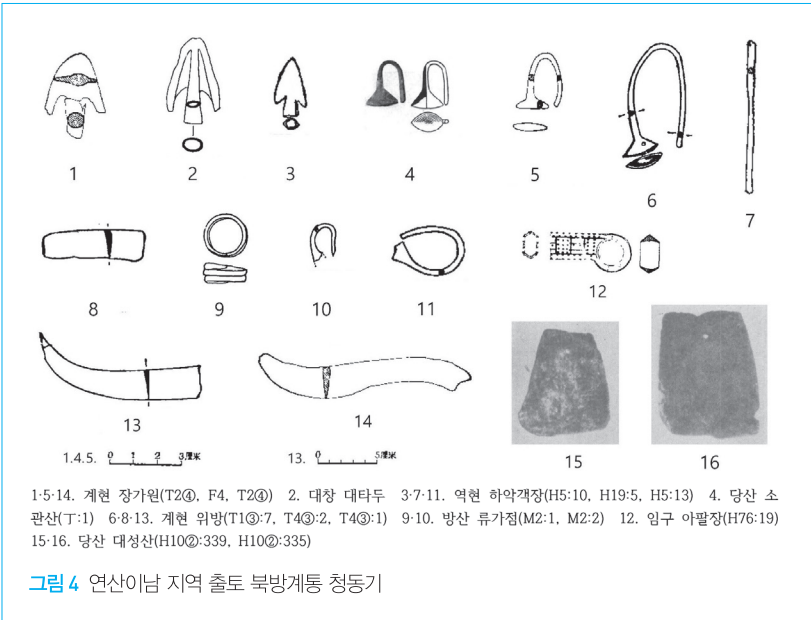
70 天津文化局考古發掘隊, 1996, 「河北大廠回族自治縣大坨頭遺址試掘簡報」, 『考古』1996-1.

71 河北省文物管理委員會, 1959, 「河北唐山市大城山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1959-3.

72 安志敏, 1954, 「唐山石棺墓及其相關的遺物」, 『考古學報』1954-7.

73 北京大學歷史系考古教研室商周組, 1979, 『商周考古』, 文物出版社.

74 北京市文物管理處·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房山縣文管局琉璃河考古工作隊, 1976, 「北京琉璃河夏家店下層文化墓葬」, 『考古』1976-1.



〈표 4〉 연산아남 지역 북방계통 청동기 출토 유적(*비북방계통)

유적	성격	무기	도구	장신구	기타	합계
대창 대타두	주거지	*鐵1				1
당산 대성산				牌2, 筭2		4
당산 소관장	석관묘			耳環1		1
창평 설산				耳環2		2
방산 류가점	무덤			耳環1, 指環1		2
역현 하악각장		*鐵1		耳環1, 筭1		3
임구 아팔장			刀1			1
울현 삼관				耳環1		1
울현 채집		*鐵1	刀1	耳環1		3
계현 위방			刀2	耳環1		3
계현 장가원M3	무덤	*鐵1	刀1	耳環2	片1	5
합계		4	5	16	1	26
비율(%)		15.4	19.2	61.5	3.9	100

하악각장(下岳各莊),⁷⁵ 임구 아팔장(啞叭莊),⁷⁶ 울현 삼관(三官)⁷⁷과 계현 위방(圍坊)⁷⁸·장가원(張家園)⁷⁹ 출토품과 울현 채집품⁸⁰ 등이 있다(그림 4, 표 4 참조). 지금까지 대타두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 중 비중원계통 청동기가 출토된 유적 10여 지점에서 모두 26점의 청동기가 확인되었다. 그중 장신구가 약 61.5%로 하가점상층문화와 마찬가지로 무기나 도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식(이환 포함), 지환과 비녀가 출토되었다. 그중 당산 소관산, 계현 장가원·위방 등에서 출토된 한쪽 끝단이 나팔형으로 벌어진 형태의 이식은 시베리아 안드로노보문화에서 가장 먼저 유행하였는데,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양자의 차이점은 안드로노보문화유적이거나 신강(新疆)지역 출토품은 전체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반면 대타두문화 출토품은 대체로 ‘U’자형을 이룬다. 그리고 방산 류가점에서 출토된 동사(銅絲)를 코일 형태로 감아올린 형태의 이식은 지금까지 합밀(哈密) 천산북로(千山北路)문화의 남만(南灣)묘지 출토품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외에도 향보보(香寶寶)묘지와 화소구(火燒溝)묘지 등에서 출토되어 기원전 2000년기 전반까지 올라간다. 상 후기에 이르면 내몽골 중남부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동주(東周)시기까지 유목문화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무덤에서 출토된다. 무기 및 도구는 축과 도만 출토되었는데, 축은 중원계통이다. 임구 아팔장에서 출토된 동도 파편(그림 4-12)은 요동지역 신락상층유적 출토품과 유사하고, 당산 대성산과 계현 장가원에서 출토된 상단에 구멍이 뚫린 장방형 동패(그림 4-15~16)와 계현

-
- 75 拒馬河考古隊, 1988, 「河北易縣涑水古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988-4.
 76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滄州地區文物管理所, 1992, 「河北省任邱市啞叭莊遺址發掘報告」, 『文物春秋』 1992年 增刊.
 77 張家口考古隊, 1984, 「蔚縣夏商時期的主要收穫」, 『考古與文物』 1984-1.
 78 天津市文物管理處考古隊, 1983, 「天津薊縣圍坊遺址發掘報告」, 『考古』 1983-10.
 79 天津市文物管理處, 1977, 「天津薊縣張家園遺址試掘簡報」, 『文物資料叢刊』 1.
 80 張家口考古隊, 1982, 「薊縣考古機略」, 『考古與文物』 1982-4.

위방과 장가원에서 출토된 곡자형 청동기(그림 4-13~14)가 마성자문화 장가보 유적 출토품과 유사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대타두문화 출토 청동기 중 비중원 계통은 대부분 장신구나 도구로, 대부분 시베리아 혹은 신강 등지에서 그 추형(雛型)이 발견되어 북방계통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3) 요서구릉 출토 북방계통 청동기: 위영자문화

소위 ‘위영자문화’는 요령성 조양시 조양현 육가자진 위영자촌에서 발견된 위영자유적을 통해 명명된 고고문화이다.⁸¹ 토기는 거의 협사홍도와 홍갈도이고 무문이 주를 이룬다. 기형은 고복력과 이중구연분, 발, 고령관 등이 기본조합을 이룬다. 도력의 구연부 혹은 영부에 부가되문이 장식된 화변력이 위영자문화의 표지 기물 중 하나이다. 광대순은 이를 하가점하층문화와 하가점상층문화 사이의 공백기에 비정하면서 “위영자유형”이라 명명하였으며,⁸² 이후 고고자료가 증가하면서 위영자문화라 부르기도 한다.⁸³

위영자문화의 분포범위는 서북쪽으로 서랍목륜하, 남쪽으로 연산산맥 남록, 동쪽으로 의무려산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소릉하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위영자문화에서는 교장과 무덤에서 다량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는데, 분포지역과 기종 조합 및 문화요소에서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 이를 다시 세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도 분포범위와 청동기 양식에서 확인되는 차이를 인정하여 주로 중원계통 청동용기가 매납된 교장과 북방계통 청동 무기 및 도구가 출토되는 유적으로 구분하고자 하는데, 각각 요서구릉과 요서하랑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위영자문화의 경우 하한연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향양령(向陽嶺)제4기유존”, 객좌 화상

81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77, 「遼寧朝陽魏營子西周墓和古遺址」, 『考古』 1977-5.

82 郭大順, 1987,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 1, 文物出版社.

8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9, 「遼寧省義縣向陽嶺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考古學集刊』 13; 董新林, 2000, 「魏營子文化初步研究」, 『考古學報』 2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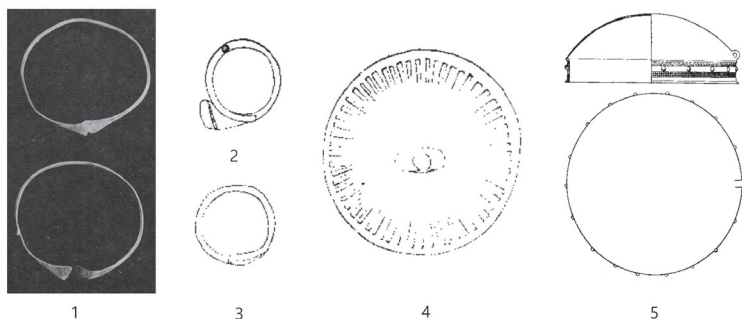
구(和尚溝) B, C, D 지점 무덤과 조양 위영자 서주시기 무덤 등의 귀속 여부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고, 더불어 문화 내함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향양령제4기유존과 객좌 화상구 B, C, D 지점 무덤 등이 위영자문화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연구자들은 연대 하한을 상말주초에서 서주 전기로 판단하고 있다.⁸⁴ 반면 이들 유적을 위영자문화에 포함시키는 연구자들은 하한연대가 서주 중기 혹은 서주와 춘추 사이까지 내려간다고 보는 입장이다.⁸⁵ 흥미로운 것은 위영자무덤에서 조양 위영자 서주 무덤까지 배제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⁸⁶ 위영자문화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도 이러한 견해를 견지하는 입장이며, 일부 청동 교장과 위영자유적 서주시기 무덤은 이 글의 범위보다 늦은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요서구릉과 요서회랑 출토 청동기는 중원계통의 청동 용기가 주를 이루고, 청동 혹은 금으로 제작된 장신구도 소수 출토된다. 전체 출토된 청동기 중 중원계통 청동 용기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무기나 도구는 출토되지 않는다(그림 5, 표 5 참조). 청동기는 대부분 교장에서 출토되었는데, 내몽골 극십극동 천보동(天寶同), 옹우특기 두패자(頭牌子), 적봉 서우파라(西牛波羅), 요령 객좌 북동(北洞) 1·2호, 산만자(山灣子), 고로구(咕嚕溝), 소파태구(小波汰溝)와 능원 마창구(馬廠溝), 의현 화이루(花爾樓) 교장 등이 있다. 이 외에 요령 대묘, 목두성자 등에서도 출토되었다고 하나 도면이 발표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교장 출토 청동기는 객좌 소파태구에서 출토된 북방 양식의 문양이 장식된 반구형(半球形) 청동기 1점을 제외하면 모두 중원계통인데, 그중 일부 기물에서는 북방 요소가 융합되어 확인되기도

8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9, 「遼寧省義縣向陽嶺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考古學集刊』 13,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85 董新林, 1993, 「魏營子文化的界定及相關問題略論」, 『靑果集-吉林大學考古專業成立二十周年論文集』, 知識出版社.

86 趙賓福, 2007, 「遼西山地夏至戰國時期考古學文化時空框架研究的再探討」, 『邊疆考古研究』 5, 科學出版社.



1. 객좌 화상구 2-4. 객좌 도호구 5. 객좌 소파태구

그림 5 요서구릉 출토 북방계통 금속기

〈표 5〉 요서구릉 북방계통 금속기 출토 유적(*비북방계통)

유적	성격	용기	장신구 등	합계	기타 금속·옥
객좌 화상구AM1	무덤	*盅1, *壺1		2	金臂釧2
객좌 도호구	무덤		耳環5, 鏡1	6	玉玦1
객좌 소파태구	교장	*鼎2, *簋1, *罍4, *盤1, 器蓋1		10	
합계		11	6	18	

한다. 또한 객좌 화상구A지점 1호묘⁸⁷와 고가동(高家洞)⁸⁸과 도호구(道虎溝)⁸⁹ 등 무덤에서도 청동 용기가 출토되었으며, 교장과 달리 금제·옥제 장신구나 토기가 함께 출토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교장과 무덤에서 출

8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喀左縣博物館, 1989, 「喀左和尚溝墓地」, 『遼海文物學刊』 1989-2.

88 郭大順, 1987,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1, 文物出版社.

8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8, 「遼寧喀左縣高家洞商周墓」, 『考古』 1998-4.

토된 청동 용기는 정(鼎), 언(甗), 력(鬲), 궈(簋), 제량유(提梁卣), 궤(甗), 호(壺), 준(尊), 부(甗), 반(盤) 등이 있는데, 수량은 일정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정·언 혹은 정·궈가 주요 조합을 이룬다.

교장과 무덤에서 출토품 중 청동 용기는 그 기종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나, 제작 시기는 무덤 출토품이 교장 출토품보다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⁹⁰ 이 외에 동제 이환(銅耳環)과 금제 팔찌(金臂釧), 옥결(玉珎), 녹송석 구슬 등 장신구와 동경(銅鏡)이 소량 출토되었는데, 요서구릉에서 상 후기에서 서주 전기 청동기가 출토되는 유적 중 이 같은 비중원계통 금속기는 객좌 일대에서만 확인된다. 도호구묘에서 출토된 동이환은 2점만 공개되었는데, 한 점은 한쪽 끝단이 편평한 삼각형이고 다른 한 점은 동사(銅絲)를 원형으로 1조 두른 형태이다. 전자는 안드로노보문화의 나팔형 이식이 장성지대에서 변형된 형태라고 보고 있으며,⁹¹ 후자는 신석기시대 용산문화 후기부터 줄곧 확인되는 것으로 분포범위 또한 매우 넓다. 화상구A지점 1호묘에서는 제량유(提梁卣)와 호(壺) 각 1점과 금제 팔찌(金臂釧) 2점이 출토되었는데, 요서구릉 출토 청동기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한다. 소파태구 교장 출토품은 제작시기가 그보다 늦은 상 후기 혹은 서주 전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

4) 요서하랑

요서하랑을 중심으로 연산 동부의 남록과 북록, 연산 이서의 적봉지역에서 북방계통 청동기가 발견되었는데, 유적이 단독으로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에는 요령성 수중 풍가(馮家)⁹²·동왕강대(東王崗臺),⁹³ 흥

90 최호현, 2019, 「요서지역 출토 상주(商周) 청동용기 연구-황하중류유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63.

91 林滢, 2002, 앞의 글.

92 王雲剛·王國榮·李飛龍, 1978, 「綏中馮家發現商代窖藏銅器」, 『遼海文物學刊』 1996-1.

93 成璟瑒·孫建軍·孟玲, 2016, 「遼寧綏中東王崗臺發現商周窖藏銅器」, 『文物』 2016-3.

성 양하(楊河)⁹⁴·선영사(仙靈寺),⁹⁵ 조양 파라직,⁹⁶ 건평 이십가자(二十家子),⁹⁷ 내몽골 오한 수천·우고토·오십가자,⁹⁸ 적봉 탐자구,⁹⁹ 나만 백음창·동리,¹⁰⁰ 하북 청룡 초도구(抄道溝),¹⁰¹ 위장 하가영¹⁰²·장북(張北),¹⁰³ 회안 사자구¹⁰⁴·승례,¹⁰⁵ 장가구¹⁰⁶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조양, 적봉 등지에서 채집된 검과 도 등이 있다.¹⁰⁷ 청동기는 대부분 교장에서 출토되었으며, 무덤에서 출토된 것은 소수이다. 요서구릉에서 청동 용기가 다수 출토된 데 반해 이 지역에서는 무기와 도구가 주로 출토되었으며 용기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부장된 청동기의 수량은 편차가 큰 편으로, 수중 풍가와 동왕강대 출토품이 각각 49점과 22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는 도 혹은 검이 1점씩 출토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그림 6, 표 6 참조).

지금까지 상말주초 시기를 전후하여 대·소릉하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중원

-
- 94 錦州市博物館, 1978, 「遼寧興城縣楊河發現青銅器」, 『考古』 1978-6.
- 95 高美璇, 1985, 「興城縣仙靈寺夏家店下層文化遺址」, 『中國考古學年鑑 1985』, 文物出版社.
- 96 許玉林, 1987, 「遼寧商周時期的青銅文化」, 『考古學文化論集』 3, 文物出版社.
- 97 建平縣文化館·朝陽地區博物館, 1983, 「遼寧建平縣的青銅時代墓葬及相關遺物」, 『考古』 1983-8.
- 98 邵國田, 1993, 「內蒙古敖漢旗發現的青銅器及有關遺物」, 『北方文物』 1993-1.
- 99 王未想, 1994, 「內蒙古林東塔子溝出土的羊首銅刀」, 『北方文物』 1994-4.
- 100 李殿福, 1983, 「吉林省庫倫·奈曼兩旗夏家店下層文化遺址分佈與內涵」, 『文物資料叢刊』 7.
- 101 河北省文物局文物工作隊, 1962, 「河北青龍縣抄道溝發現一批青銅器」, 『考古』 1962-12.
- 102 彭立平, 1993, 「圍場縣博物館收集一件青銅獸首彎刀」, 『文物春秋』 1993-3.
- 103 鄭紹宗, 1984, 「中國北方青銅短劍的分期及形製研究」, 『文物』 1984-2.
- 104 劉建忠, 1988, 「河北懷安獅子口發現商代鹿首刀」, 『考古』 1988-10.
- 105 鄭紹宗, 1994, 「長城地帶發現的北方式青銅刀子及其有關問題」, 『文物春秋』 1994-4.
- 106 河北省博物館·河北省文物管理處, 1980, 『河北省出土文物選集』, 文物出版社.
- 107 邵國田, 1993, 「內蒙古敖漢旗發現的青銅器及有關遺物」, 『北方文物』 1993-1.



계통 청동예기가 출토되는 유적과 북방계통 청동기가 출토되는 유적 분포범위가 일부 겹치고 청동기의 제작시기도 상말주초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문화로 보는 입장¹⁰⁸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후자에서 위영자문화와 공존하는 토기가 공반되지 않는 점과 출토 기물의 성격이 상반되는 점 그리고 주요 분포 지역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양자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이들을 하나의 문화로 통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¹⁰⁹

108 王立新, 2004, 「遼西區夏至戰國時期文化格局與經濟形態的演進」, 『考古學報』 2004-3.

109 위영자문화 범위에서 출토되는 청동기를 분석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견해로, 楊建華(2002, 앞의 글)는 기물의 조합과 분포지역, 유구 성격 상의 차이에 따라 연산남록의 서요하 유역 출토 청동기를 D와 E군으로 나누었고, 董新林(2000, 앞의 글)은 청동기의 문화요소 기원을 분석하면서 각각 중원(甲조)과 지방(乙조) 특색을 띠는 청동기로 구분한 바 있다.

〈표 6〉 요서하랑 및 주변지역 출토 북방계통 청동기 출토 유적

유적	성격	도구	무기	장신구 등	합계
흥성 양하	교장	環首刀3, 鉤形器1	管鋸斧1, 鋸內戈1		6
흥성 선영사	주거지(?)	刀1	鏃1	耳環2, 指環1	5
수중 풍가촌	교장	環首刀15, 鋸首刀2, 菌首刀2, 空首斧13, 齒形器2	管鋸斧2, 鋸內戈13		49
수중 동왕강대	교장	環首刀4, 菌首刀1, 空首斧7	管鋸斧3, 鋸內戈4, 鈴首劍1	劍鞘1, 장신구1	22
조양 파라적	불명	環首刀1			1
건평 이십가자	수집	獸首刀1			1
오한 수천	무덤	刀1	鈴首劍1	泡4	6
오한 우고토	교장	環首刀1, 空首斧1		泡1	3
오한 오십가자	불명	孔首刀1, 獸首刀1			2
적봉	채집	環首刀1, 鈴首刀1, 獸首刀1	鋸內戈1		4
나만 백음창	불명	環首刀1			1
나만 동리	불명	獸首刀1, 異形器3			1
조양 채집	채집	鈴首匕1, 人首匕1, 異形器2	管鋸斧1		5
적봉 탑자구	수집	獸首刀1			1
청룡 초도구	교장	環首刀3, 鈴首刀1, 獸首刀1	管鋸斧1, 鋸內戈1, 獸首劍1		8
장북	수집		獸首劍1		1
장가구	수집		獸首劍1		1
승례	수집	菌首刀1			1
회안 사자구	교장	獸首刀1			1
위장 하가영	수집	鈴首刀1			1
위장	수집	環首刀1			1
합계		77	34	10	121
비율(%)		63.6	28.1	8.3	100

5) 기북·기동 지역 출토 북방계통 청동기: 위방3기문화

경진당지역을 포함한 기북·기동 지역 출토 상대 청동기는 모두 5기로 분기되는데,¹¹⁰ 그중 제2기가 은허2기에서 상말주초 시기까지에 해당한다. 대략 기원전 14~10세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확인되는 고고문화는 “위방3기문화”¹¹¹와 “장가원상층문화”¹¹² 혹은 “장가원문화”¹¹³의 이른 단계가 포함된다. 위방3기문화와 장가원상층문화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양자가 서로 계승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¹¹⁴와 다른 전통을 갖는 2개의 고고문화라고 보는 입장이 제기되었는데,¹¹⁵ 이후 진강영과 탐조 유적이 발굴되면서 위방3기문화와 장가원상층문화가 서로 다른 고고문화이고 전자가 후자보다 이르다는 것이 점차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영정하(永定河)를 중심으로 그 이서지역은 계승관계로 보고, 이동지역은 대체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새롭게 제기되기도 하였다.¹¹⁶ 위방3기문화는 주로 연산 이남의 난하, 조백하와 해하 하류에 분포하고, 대체로 상전기에서 상 후기 혹은 서주 초기까지 유행하였다. 토기는 력, 언, 관, 분, 발 등이 주요 조합을 이루는데, 그중 력은 구연부 혹은 경부에 돌대를 두르고 압인문이 장식된 화변력이 가장 대표적이다.

110 李海榮, 1995, 「京·津·冀出土商代青銅器的分期及文化因素分析」, 『華夏考古』 1996-1.

111 沈勇, 1993, 「圍坊三期文化初論」, 『北方文物』 1993-3.

112 李伯謙, 1998, 「張家園上層類型若干問題研究」, 『中國青銅文化結構體系研究』, 科學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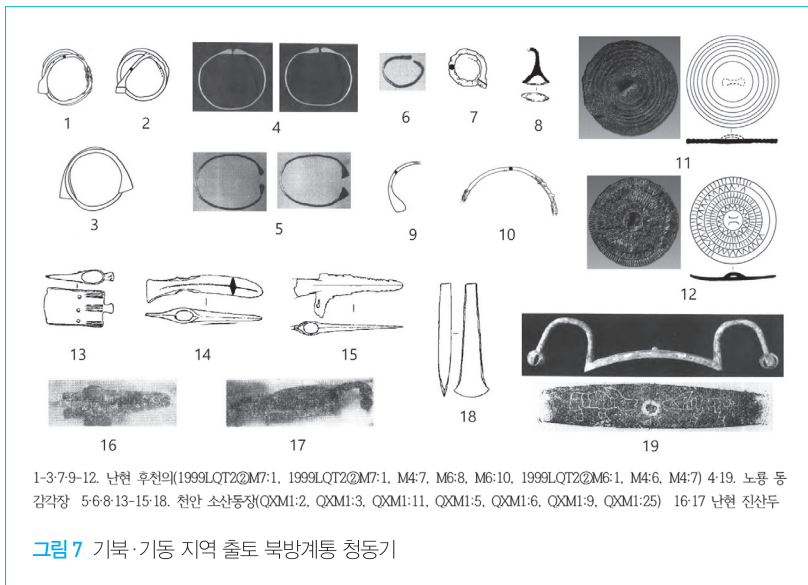
113 張立東, 1997, 「試論張家園文化」, 『北京建城3040年暨燕文明國際學術研討會專輯』, 北京燕山出版社.

114 韓嘉谷, 1984, 「京津地區商周時期古文化發展的一點線索」, 『中國考古學會第三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紀烈敏, 2002, 「燕山南麓青銅文化的類型譜係及其演變」, 『邊疆考古研究』 1, 科學出版社.

115 陳雍, 2004, 「考古的天津」, 『慶祝張忠培先生七十歲論文集』, 科學出版社, 558~570쪽.

116 蔣剛·王志剛, 2010, 「關於圍坊三期文化和張家園上層文化的再認識」, 『考古』 2010-5.

위방3기문화 유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청동기가 출토된 평곡 류가하(劉家河) 유적은 초기에는 상문화 혹은 하가점하층문화로 인식되었으나, 근년에는 위방3기문화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¹¹⁷ 위방3기문화에서 청동기는 대부분 무덤 부장품으로 중원계통의 청동 용기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구 및 무기와 함께 금속제 장신구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궁형기(弓形器), 당노(當廬) 등 차마기와 동제 이환과 팔찌 등 장신구 그리고 동경이 출토되었다. 소수의 주거지에서도 도, 착, 침, 축 등의 청동 도구·무기와 함께 장신구 중 이환이 출토되었다(그림 7, 표 7 참조).



117 劉緒·趙福生, 2001, 「圍坊三期文化的年代與劉家河M1的屬性」, 『蘇秉琦與當代中國考古學』, 科學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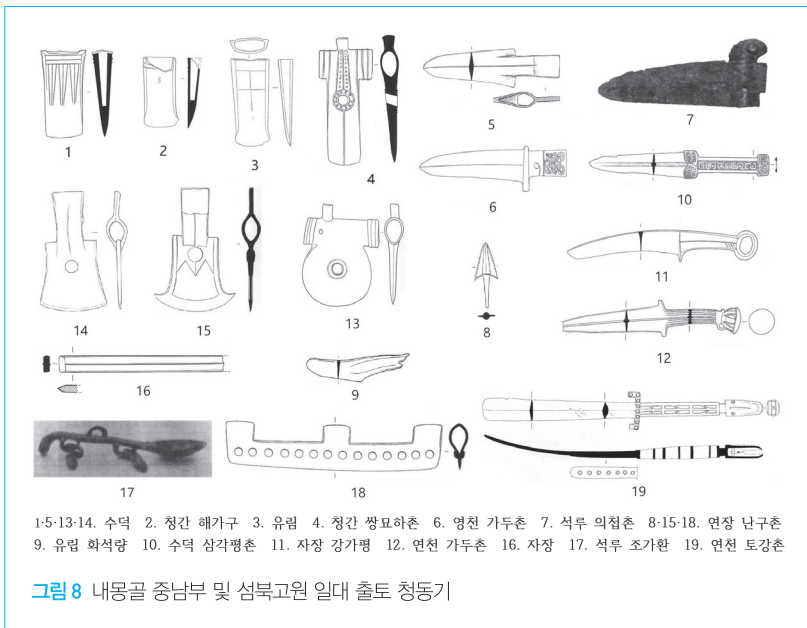
〈표 7〉 기북·기동 지역 북방계통 청동기 출토 유적(*비북방계통)

유적	성격	*용기	도구	무기	장신구·장식품	차마기	합계	기타 금속(금)
평곡 류가하M1	무덤	鼎5, 鬲1, 甗1, 爵1, 罍1, 甗1, 盃2, 盤2		鍼1	泡14	當盧1	32	耳環1, 臂釧2, 筭1, 片1
노룡현 동감각장		鼎1, 簋1				弓形器1	3	臂釧2
계현 장가원M1	무덤						0	耳環2
계현 장가원M3	무덤	鼎1, 簋1					2	耳環1
계현 장가원M4	무덤	鼎1, 簋1					2	耳環1
난현 진산두	무덤	鼎1, 簋1		管鋸斧1		弓形器1	4	
난현 소산동장M1	무덤	鼎2, 簋1	板狀斧3	管鋸斧1, 釜內戈1, *有鋸戈1	耳環1		10	耳環1, 臂釧2
난현 후천의99M2	무덤				耳環1		1	
난현 후천의99M4	무덤	鼎1, 簋1			鏡2		4	耳環2
난현 후천의99M5	무덤	鼎3, 簋1		管鋸斧1	鏡2, 泡2, 飾件5	弓形器1	15	耳環2, 箔片
난현 후천의99M6	무덤				耳環2, 項飾1		3	
난현 후천의99M7	무덤				耳環2		2	
난현 후천의01M1	무덤				耳環2		2	
난현 후천의01M2	무덤	鼎2					2	耳環1
난현 후천의	주거지		刀1	*鍼1	耳環1, 飾件1	鈴1	5	
계현 위방	주거지		鑿1				1	
당산 교야	주거지		刀1, 針1		耳環1		3	
내수 점촌	주거지		刀1		耳環1		2	
방산 탑조	주거지			*鍼1	耳環1		2	
방산 진강영	주거지		刀1				1	
합계		35	9	8	39	5	96	19
비율(%)		36.6	9.4	8.3	39.8	5.2	100	

6) 내몽골 중남부 및 섬북고원 일대: 이가애문화·서차문화

중국의 북방지역은 신석기시대 이래로 지역별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였고, 이는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원과 관중의 상문화와 북방의 초원문화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초원지역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해 끊임없는 문화변동과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된 상주시기 청동 용기에서보다 청동 무기와 도구, 장신구 등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북방계통 청동기를 정리하면 <그림 8>과 같다.

중국 북방지역에서는 상 후기가 되면 청동기 수량이 급증하는데, 특히 진섬고원에서는 갑자기 다종다양한 청동기가 출현했다가 상 말기를 전후하여 다소 감소한다. 이 지역에서는 청동 용기와 무기, 도구, 장신구에서 새로운 기종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수수(獸首), 영수(鈴首)의 도와 검 등이 가장 유행하였으며, 궁



형식(弓形飾)과 이환 등의 청동 장신구와 함께 금제 장신구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중국 북방지역 여러 권역 중에서 가장 많은 청동 용기가 출토되었는데, 은허1기 전후에 중원계통 청동기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상 후기까지 중원의 청동기 기종과 조합을 따르다가 은허4기, 즉 상 말기가 되면 중원양식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근 이가애(李家崖)문화를 비롯한 섬북과 진서 지역 출토 청동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중원계통 청동용기와 비교와 주조기술, 성분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청동재료 산지 추정과 유통 및 청동 주조 기술의 유입과 주변지역과의 교류에 대한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¹¹⁸ 이가애문화 청동기는 은허1기에서 상말주초 혹은 그보다 늦은 서주 전기의 형태적 특징을 보이며, 절대연대는 대개 기원전 14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에 해당한다. 출토 청동기의 납동위원소 검측 결과, 고방사성납과 보통납이 공존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가애문화 고방사성납은 은허를 포함하여 상대 기타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방사성납과 같은 광산에서 채굴된 재료를 사용하였고, 심지어 보통납 역시 은허 청동기와 같은 광산에서 채굴된 재료 혹은 그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¹¹⁹ 또한 출토된 다량의 청동 용기는 일부 중원에서 직접 유입된 것도 인정되나, 청간 이가애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슬래그¹²⁰나 신장(辛莊)유적에서 출토된 토제 범(範)과 모(模), 심(芯) 등 청동 주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물들로 보아 이 일대에 이미 상당한 규모와 기술력을 보유한 청동 주조 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가애문화 청동기의 발전 양상을 보면 이미 중원지역 기물의 모방·변조뿐만 아니라 재지요소를 적용한 용기와 무기, 도구, 장신구의 제작이 가능하였다.¹²¹

118 沃浩偉, 2008, 「晉陝高原商周時期青銅器分群研究」, 『公元前2千紀的晉陝高原與燕山南北』, 科學出版社; 常懷穎, 2014, 「山西保德林遮峪銅器墓年代及相關問題」, 『考古』 2014-9.

119 韓炳華, 2017, 『晉西商代青銅器』, 科學出版社, 572~639쪽.

120 陝西省考古研究院, 2013, 『李家崖』, 文物出版社.

121 최호현, 2019, 「진섬고원 출토 商代 청동기의 특징과 변화양상에 관한 고찰」, 『승

이가에문화는 적어도 상 말기에 이르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차(西岔)유적은 내몽골 중남부의 청수하현(清水河縣) 성관진(城關鎮) 서차촌(西岔村)에서 발견된 고고문화로, 발굴자는 그중 제3기유존을 서차문화¹²²로 명명하였고, 이가에문화 서차유형¹²³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문화는 대개 상 후기에서 서주 중기에 해당하며 청동기는 관공부와 공내과(鎛內戈) 그리고 추, 이환 등이 출토되었고, 청동 용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관공부와 영수도 등이 이가에문화 늦은 단계와 유사하여, 양자는 일정 기간 병행 발전하였고, 청동 주조와 관련된 기술은 이가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출토된 요동지역 출토 청동기 중에는 요서와 기북 등 인접지역에 서뿐만 아니라 멀리 몽중남 및 섬북고원 일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청동기가 포함되어 있다. 초기국가의 핵심구역에는 복수의 청동공방이 다양한 인적집단에 의해 분산적으로 운영되었고, 여기에서는 국가에 의한 일원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¹²⁴ 이러한 현상은 비핵심지역에서 청동기 주조 메커니즘이 정착하는 데에도 일정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기대해본다. 이와 더불어 지리적 위치와 출토 청동기의 기종과 수량 등을 고려할 때, 요동지역에 초기에 유입된 청동기와 주조기술은 시베리아 미누신스크 분지나 중원 등 핵심지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유입보다는 이가에문화, 서차문화 혹은 대타두문화, 위방3기문화 등을 통한 2차 파급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실사학』 43.

122 曹建恩, 2001, 「清水河縣徵集的商周銅器」, 『萬家寨水利樞紐工程考古報告集』, 遠方出版社.

123 呂智榮·孫戰偉, 2015, 「內蒙古西岔三期遺存的性質考察」, 『考古與文物』 2015-4.

124 류리·천싱찬 저, 김정열 역, 2019, 『중국고고학: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421쪽; 김정열, 2021, 「중국 초기국가시기 청동원료의 생산과 유통」, 『동양학』 83.

2. 유입 양상

이상에서 세이마-투르비노문화가 시베리아 미누신스크분지에서 동남쪽으로 전파되어 중국 북방지역으로 유입된 이후 요동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북방계통 청동기가 출토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중국 북방지역 출토 청동기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세이마-투르비노문화는 유라시아 초원지역에서 청동 주조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문화로, 약 300만m²의 넓은 범위에서 유적이 확인되거나 대부분의 자료가 흩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나마 자료가 풍부한 세이마, 투르비노와 로스토프카 등 세 묘지를 통해 대강의 문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세이마와 투르비노 두 묘지에서는 모두 청동 무기와 도구가 주로 출토되었는데, 단검(短劍), 도(刀), 관공부(管鑿斧), 공수부(空首斧)와 모(矛) 등이 있고, 이 외에도 낫짓바늘과 환형(環形) 장신구 등 청동기와 석도와 석촉 등 세석기가 부장되었다. 로스토프카 묘지는 이미 파괴되었으나 각종 재질의 도구와 무기가 출토되었으며, 청동기와 세석기가 주를 이룬다. 청동기는 공수부, 모, 도, 비(匕), 착(鑿), 추(錐) 등이 대부분이고, 골병동기(骨柄銅器)도 출토되었다. 또한 환형 장신구와 석범(石範), 도범(陶範) 그리고 석기와 골기, 옥기, 토기 등도 확인된다. 특히 청동 부, 도, 모 등은 기형뿐만 아니라 현문(弦紋)과 능형(菱形), 삼각형 등 장식과 손잡이 끝에 장식되는 사실성 있게 표현된 말, 양 등의 수수형(獸首形) 부조 등은 주변지역으로 널리 전파되었는데 중국 동북의 섬북, 진북과 요서의 일부지역에서도 유사한 기물이 확인된다. 이 문화의 연대문제는 아직 논쟁 중이나 주로 유행한 시기는 기원전 16~15세기로 보는 것이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고고문화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지역에서 특징이 분명한 일군의 유구 및 유물의 복합체라고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사용되었던 토기가 하나의 고고문화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와 달리 청동문화는 청동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조건을 갖춘 소수 지역에 한정되고, 기타 지역의 청동기 생산과 발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이른 단계로 갈수록 뚜렷하여, 서로 다른 청동문화 혹은 문화군 사이에서 서로 같거나 유

사한 기물이 출토되는 현상이 자주 확인된다. 그리고 늦은 시기로 갈수록 기술 유입과 수용에 따라 재지적인 요소들과 결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가장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요동지역의 청동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요동 지역에서 마성자문화 전기에 갑자기 출현한 청동기는 본계 장가보A동에서만 장신구가 출토되다가 대략 기원전 12세기를 전후하여 북방계통 청동 도구와 무기 등으로 기종이 다양해지고 수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주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요동지역 북방계통 청동기의 유입 양상을 살펴보자.

우선 이 글에서 1기는 상 전기를 중심으로 하며 상한은 하 후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하한은 상 후기 이른단계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대략 기원전 16세기에서 기원전 12세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 요동 지역에서는 본계 장가보A동 M50, 창무 평안보, 부신 평정산과 대련 대취자 등에서 청동기가 출토되었는데 각각 마성자문화, 고대산문화, 쌍타자문화1기에 해당한다. 그중 북방계통은 곡옥형 청동기 1점과 나팔형 이식 2점으로 도구 혹은 장신구만 확인되고, 대련 대취자유적에서 출토된 동축은 중원계통이다. 요서지역에서는 모두 8개 유적에서 북방계통 청동기가 확인되었으며 총 65점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그중 장신구가 53점으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무기는 1점에 불과하다. 장신구는 이환과 지환뿐인데, 그중 대부분이 오한 대전자유적 출토품이다. 능해 수수영자 출토 동과는 중원지역에서 출토되지는 않았으나 신부와 병부 장식 등으로 볼 때 중원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표 강가둔유적에서 출토된 석범과 적봉 동산자유적에서 출토된 도범 그리고 능원 우하량에서 확인된 노벽 등 청동 주조와 관련된 유물과 구조물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하가점하층문화에 속하는 유적에서 출토되었는데 전체 청동기 출토품의 약 79%가 오한 대전자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이 외의 유적에서는 3점 이내로 출토되어 향후 자료의 축적을 기대해 보아야 하나, 청동기가 소수 집단에 의해 독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연산이남의 대타두문화에서는 북방계통 청동기가 출토된 약 10개

유적에서 약 2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역시 장신구의 비중이 약 61.5%로 가장 높은 편이고 도구와 무기는 각각 15.4%와 19.2%를 차지한다. 장신구는 이환과 지환이 가장 많고 패식과 비녀도 출토되었으며, 도구와 무기는 동도, 동촉만 있는데, 동촉은 역시 중원계통에 속한다. 요동지역 출토품과 유사한 기물이 적지 않은데, 당산 대성산과 계현 장가원에서 출토된 상단에 구멍이 뚫린 장방형 동패와 계현 위방과 장가원에서 출토된 곡자형 청동기가 마성자문화 장가보유적 출토품과 유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수수하 유역의 창무 평안보와 부신 평안보 출토 나팔형 이식은 안드로노보문화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라시아 초원시대에서 광범위하게 출토되는 기종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 2기는 대략 기원전 12세기에서 기원전 10세기에 해당하며, 중원의 상 후기에서 서주 전기까지이다. 이 단계가 되면 요서와 기북지역에서 청동기의 수량이 전 단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중원계통 청동 용기뿐만 아니라 북방계통 청동 도구와 무기의 수량이 크게 증가하고 종류도 다양해진다. 위영자유형에 속하는 유적에서는 중원계통 청동용기가 대종을 이루고 북방계통 청동기가 출토된 유적이 많지 않다.¹²⁵ 청동 무기나 도구는 확인되지 않으며, 객좌 도호구유적에서 이환 4점과 거울 1점이 출토되었다. 객좌 소파태구에서는 뚜껑으로 보이는 북방계통 기물이 보고되었다.¹²⁶ 이 외에도 금제 혹은 옥제 장신구가 출토되었는데, 객좌 화상구와 도호구유적에서 각각 금제 비천(臂釧) 1쌍과 옥걸 1점이 출토되었다. 반면 요서회랑을 중심으로 이 글의 1기와 다른 양상이 전개되는데, 다량의 북방계통 청동기가 확인된다. 총 20개 유적에서 121점이 출토되었고, 그중 도구가 약 63.6%, 무기가 약 28.1%로 합치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전 시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장신구류는 10점으로 8.3%에 불과하다. 도구는 병부 끝단 장식이 환수, 균수, 수수, 영수 등으로 다양해지

125 이 글에서는 위영자유형의 성격 규정을 논외로 하였으나, 요서회랑을 중심으로 북방계통 청동기가 출토되는 유적을 위영자유형에서 분리하였다.

126 객좌 소파태구 교장에서 영수비 1점이 출토되었다고 하나 간보에 도면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고, 공수부와 치형기, 구형기 등도 추가되었다. 무기는 관공부와 공내과, 영수검, 수수검 등 새로운 기형이 출현하게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장식은 포(泡)만 출토되어 같은 시기 기타 지역에서 이환과 지환 등 장신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방계통 청동 무기와 도구가 주로 출토되는 요서회랑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교류 혹은 대립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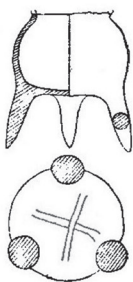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기북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주로 위방3기에 해당하는데 일부는 장가원상층이 포함된다. 북방계통 청동기가 출토된 유적 중 평곡류가하 M1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상 후기에서 서주 전기에 집중되어 있다. 기북 지역의 경우 중원계통 청동 용기가 출토되는데, 정과 궤가 주요 조합을 이루어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어 교장에서 일정한 조합을 이루지 않고 출토되는 위영자유형 출토 양상과 대별된다. 기종별 출토 비율을 보면 청동 장신구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청동용기가 36.6%로 많으며, 도구와 무기가 각각 9.4%와 8.3%로 적은 편이다. 이는 요서지역에서 장신구 비중이 크게 줄고 도구와 무기가 90% 이상 차지하는 것과 대조되는데, 전자는 교장 출토품이 많고 후자는 무덤 출토품인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요서지역과 달리 청동 무기는 중원계통의 유공과만 출토되다가 축과 북방계통의 관공부, 공내과 등이 출토되었고, 당로와 궁형기, 방울 등 차마구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임구 아팔장유적(그림 4-12)에서 신탕유적 출토품(그림 2-4)과 유사한 환수도가 출토되었으나 모두 병부만 일부 남아있어 같은 기형인지 정확한 판단은 어려워 보인다.

내몽골 중남부와 섬북고원 일대의 상 후기 유적인 이가애문화에서 출토되는 북방계통 청동 무기와 도구는 대부분 채집이나 수집된 것이어서 통계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림 8〉에서와 같이 관공월(管鑿鉞), 공내월(釜內鉞)과 축 등은 중원계통이거나 중원의 요소가 복합된 것이고 이 외에는 모두 북방계통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개구유적 출토품의 영향으로 보이는 단검(그림 8-10)과 서주 중기까지 내려가는 늦은 단계의 영수도(그림 8-12)가 출토되는 것 그리고 조

형과 제작기술에서 비교적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사수비(蛇首匕)나 영수비(鈴首匕) 등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서쪽으로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북방계통 청동기와 남쪽의 중원계통 청동기가 융합되어 발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관공부(그림 8-4)는 요동지역 출토품과 유사하다. 공내월(그림 8-15)은 인부 양단이 위로 들려 법고 만류 출토품(그림 8-11)과 유사하나, 후자는 내(內)가 형성되어 있어 자루에 장착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 사용 방식이 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종합해볼 때, 요동지역 출토 북방계통 청동기는 이 글에서 1기에는 주로 기북지역과의 교류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식과 지환, 동패 등 장신구류에서 확인되고, 청동 용기를 비롯한 중원요소의 북상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장가보 A동 출토 곡옥형 청동기는 계현 위방과 장가원 출토 동도(그림 4-13~14)와 유사해 보이거나 장가보 출토품은 도구보다는 장신구로서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2기가 되면 기북지역은 중원의 요소가, 요서지역은 북방계통 요소가 강화되는데, 이때 법고 만류유적 등 요동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기로 볼 때 요서지역의 북방계통 청동기가 청동 주조 기술과 함께 요동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고 만류유적 출토 도범 3점과 심양 북외유적 출토 석범 1점을 제외하면 청동 주조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적어 향후 자료의 축적을 기대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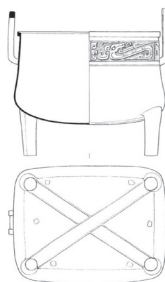
또한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요동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대부분 북방계통에 속하나 중원계통 청동 주조기술이 유용된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법고 만류유적 II구 3호 회갱에서 출토된 도력(陶甗)의 저부에 ‘x’자 형태의 덧띠가 부가되어 있는데, 상주시기 동정(銅鼎)의 저부가 연상된다. 청동 용기 중 정과 같이 바닥이 깊으면서 넓은 기물의 경우 저부 외벽에 청동 띠를 덧댈으로써 제작과정에서 주조의 완성도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 시 음식물의 하중과 가열로부터 기물이 파열되는 것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조 시 도범이 서로 맞물리면서 형성되는 범선(範線)과 달리, 기물의 응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가된 것으로 가강근(加強筋)이라 한다. 가강근의 형태는 주조



법고 만류



객좌 산만자(요령성박물관, 2023.8)



부풍 장백촌

그림 9 법고 만류유적 출토 도력(陶甎)과 서주시기 동정(銅鼎)의 저부 비교

기법의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상 후기에서 서주 중기에는 주로 방사형 혹은 십자형이 유행한다. 그런데 법고 만류 출토 도력의 바닥에서 객좌 산만자 교장과 섬서 부풍 장백촌(莊白村) 출토 청동기와 유사한 십자형의 가강근이 확인되는 것이다(그림 9 참조). 이것으로 볼 때, 요동지역에서 비록 당시의 청동 용기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요서지역의 위영자문화나 기북지역의 위방3기문화 혹은 장가원상층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중원계통 청동 제작 기술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IV. 맺음말

이 글은 중국 요동(遼東)지역 북방계통 문화요소의 지역별 시기별 변천과정과 주변지역과의 교류 관계를 통해 이들 요소가 유입되는 양상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이 지역 청동문화가 본격적으로 ‘비파형동검문화(琵琶形銅劍文化)’의 범주에 들고 외래문화가 토착문화와 성공적으로 융합되기 이전까지, 즉 기원전 14세기경부터 기원전 10세기경까지로 한정하고, 요서(遼

西), 기북(冀北)·기동(冀東), 몽중남(蒙中南) 및 섬북고원(陝北高原) 일대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자료를 검토하여, 청동 제작 기술을 소유한 집단의 등장과 주변지역 문화요소와의 복합관계 등을 통해 요동지역 북방계통 청동기가 갖는 성격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요동지역에서는 이 글의 1기에 해당되는 마성자문화 전기에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가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요서와 내몽골 동남부 등 주변 지역과 달리 아직 북방계통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곡옥형 청동기와 장신구, 도구 및 무기의 형태적 특징과 기종 등으로 판단할 때 의무려산 이서의 요서지역보다 연산이남의 기북지역과의 친연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대타두문화와 위방3기문화와 달리 요동지역에서는 청동 주조와 관련된 문화전통이 연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기원전 14세기를 전후하여 상 후기 은허문화 혹은 선주(先周)문화가 이 지역에 유입되기 전까지 청동기술 유입이 단절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2기인 상 후기에서 서주 초기에 이르면 유라시아 초원의 가장 동쪽에 해당되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청동 무기와 도구 등이 급증하는데, 특히 이 시기는 요서와 기북·기동 등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초원지역과 중원 및 관중(關中)지역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해 문화변동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동 용기에서보다 청동 무기와 도구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법고 만류유적과 심양 북외유적에서 출토된 다수의 청동기와 거푸집 등을 통해 이미 청동 주조기술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요서지역과의 교류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주 시기가 되면 연문화가 연산산맥을 넘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북방계통 청동문화와 중원계통 청동문화가 융합을 이루게 되면서 중원의 주조 기술과 유라시아초원의 무기류가 복합되어 비파형동검문화가 출현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글에서는 원래 기원전 14세기에서 기원전 1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유라시아 초원문화의 가장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요동지역에서 청동문화가 형성된

배경과 유입 경로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요동과 그 주변지역 청동문화와의 비교분석에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유입 양상에 집중되고, 유라시아 초원지역까지 시야를 확대하여 유입 경로 및 주조 기술의 정착과정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향후 이어지는 연구에서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2020, 『동북아시아 고고학개설 I-선·원사시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류리·천싱찬 저, 김정열 역, 2019, 『중국고고학: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
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楊建華·邵會秋·潘玲, 2016, 『歐亞草原東部的金屬之路-絲綢之路與匈奴聯盟的
孕育過程』, 上海古籍出版.

李海榮, 2003, 『北方地區出土夏商時期青銅器研究』, 文物出版社.

林梅村 주편, 2019, 『塞伊瑪-圖爾賓諾文化與史前絲綢之路』, 上海古籍出版社.

趙賓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陳平, 2006, 『北方幽燕文化研究』, 群言出版社.

논문

강인옥, 2007, 「중국 오르도스 청동기의 개념과 초기연구에 대한 검토-골동학에서 신
중국 성립이전까지」, 『중국사연구』 56.

_____, 2009, 「기원전 13~9세기 카라숙계 청동기의 東進과 요동·한반도의 초기 청
동기문화」, 『호서고고학』 21.

_____, 2021, 「고조선의 성립과 대릉하 유역 중원 청동예기의 재해석」, 『백산학보』 120.

강인옥·김경택, 2020, 「유라시아-연해주 금속 루트와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계통」,
『인문학연구』 44.

김정배, 2007, 「北方 青銅器文化와 韓國 古代文化의 관계」, 『오르도스 청동기문화와
한국의 청동기문화』, 한국고대학회.

오강원, 2012, 「동북아시아 속의 한국 청동기문화권과 복합사회의 출현」, 『동양학』 51.

오대양, 2015,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양상과 전개-소위 쌍방·미송리문화를 중
심으로-」, 『동양학』 61.

- 이창규, 2009, 「요하유역 북방계 청동기의 출현」,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이후석, 2019, 「요령지역 비파형동검의 등장과 그 배경」, 『한국고고학보』 111.
- , 2023, 「비파형동검문화의 동모동부 등장과정 시론」, 『호남고고학보』 74.
-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천선행·장순자, 2012, 「마성자문화 동굴묘 출토 토기 변천과 전개」, 『嶺南考古學』 63.
- 최호현, 2019, 「요서지역 출토 상주(商周) 청동용기 연구-황하중류유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63.
- , 2019, 「진섭고원 출토 商代 청동기의 특징과 변화양상에 관한 고찰」, 『송실사학』 43.
- 郭大順, 1993, 「遼河流域“北方式青銅器”的發現與研究」, 『內蒙古文物考古』 1993-1, 2.
- , 2009, 「遼河流域“北方式青銅器”再認識」, 『額爾多斯青銅器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科學出版社.
- 段天璟, 2008, 「馬城子諸洞穴墓葬遺存的分期與相關問題」, 『邊疆考古研究』 7, 科學出版社.
- 邵會秋·楊建華, 2011, 「塞伊瑪-圖爾賓諾遺存與空首斧的傳布」, 『邊疆考古研究』 10, 科學出版社.
- 楊建華, 2002, 「燕山南北商周之際青銅器遺存的分群研究」, 『考古學報』 2002-2.
- , 2007, 「商周時期中國北方冶金區的形成-商周時期北方青銅器的比較研究」, 『邊疆考古研究』 6, 科學出版社.
- 王建華, 2005, 「試論遼東半島南部地區的史前文化」, 『遼寧師範大學學報』 2005-4.
- 王立新, 2004, 「遼西區夏至戰國時期文化格局與經濟形態的演進」, 『考古學報』 2004-3.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馬城子-太子河上游洞穴遺存』, 文物出版社.
- 劉翔, 2021, 「塞伊瑪-圖爾賓諾遺存發現與研究」, 『西域研究』 2021-1.
- 林洪, 1998, 「早期北方青銅器的幾個年代問題」, 『林洪學術文集』, 中國大百科全書

出版社.

鄭紹宗, 1994, 「長城地帶發現的北方式青銅刀子及其有關問題」, 『文物春秋』 1994-4.

韓嘉谷, 1984, 「京津地區商周時期古文化發展的一點線索」, 『中國考古學會第三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韓建業, 2021, 「早期東西文化交流的三個階段」, 『考古學報』 2021-3.

華玉冰, 2009, 「馬城子文化墓葬分期及相關問題」, 『新果集-慶祝林滄先生七十華誕論文集』, 科學出版社.

松本圭太, 2017, 「セイマ・トルビノ青銅器群分布の背景-ロストフカ墓地の分析から」, 『史淵』 154, 九州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院.

요동지역 북방계통 청동기의 유입 양상

최호현

이 글은 중국 요동지역 북방계통 문화요소의 지역별 시기별 변천과정과 주변지역과의 교류관계를 통해 이들 요소가 유입되는 양상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이 지역 청동문화가 본격적으로 비파형동검문화의 범주에 들고 외래문화가 토착문화와 성공적으로 융합되기 이전까지, 즉 기원전 14세기경부터 기원전 10세기경까지로 한정하고, 요서, 기북·기동, 몽중남 및 섬북고원 일대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자료를 검토하여, 청동 제작 기술을 소유한 집단의 등장과 주변지역 문화요소와의 복합관계 등을 통해 요동지역 북방계통 청동기가 갖는 성격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이 글의 1기에 요동지역은 북방계통 문화요소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 장신구와 무기의 형태적 특징 및 기종 등으로 판단할 때 기북지역과의 친연성이 두드러져 보이나, 요동지역에서는 아직 청동주조와 관련된 문화전통이 연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원전 14세기를 전후하여 은허문화 혹은 선주문화가 이 지역에 유입되기 전까지 청동기술의 유입이 단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글의 2기인 상 후기에 이르면 유라시아초원의 가장 동쪽에 해당

되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무기와 도구 등 청동기가 급증하는데, 특히 이 시기는 요서와 기북·기동 등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초원지역과 중원 및 관중 지역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해 끊임없는 문화변동과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동 용기에서보다 청동 무기와 도구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법고 만류유적과 심양 북외유적에서 출토된 다수의 청동기와 거푸집 등을 통해 이미 청동 주조기술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요서지역과의 교류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주 시기가 되면 연문화가 연산산맥을 넘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북방계통 청동문화와 중원계통 청동문화가 융합을 이루게 되면서 중원의 주조 기술과 유라시아초원의 무기류가 복합되어 비파형동검문화가 출현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주제어: 요동지역, 상말주초, 변방, 북방계통 청동기, 유입

ABSTRACT

Influx Patterns of Northern-style Bronzeware in the Liaodong Region

Choi Hohyun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x patterns of the northern-system cultural elements in China's Liaodong region. The regional and chronological transitions of these element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the surrounding areas are explored. The temporal scope is set from around the 14th to the 10th century BCE, before the bronze culture of this area was fully integrated into the Mandolin-shaped Bronze Dagger Culture and before the successful fusion of foreign and indigenous cultures. The materials from Liaoxi, Northern and Eastern Hebei, Central and Southern Inner Mongolia, and the Northern Shaanxi Plateau that show similar patterns are reviewed.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to deduce the nature of Liaodong's northern-system bronze artifacts by considering the emergence of groups with bronze-making technology and their complex relationships with the surrounding cultural elements.

During the first phase of this study, the Liaodong region began to witness the emergence of northern-system cultural elements, but no

substantial influx of bronze ware was observed. Based on the typological features and categories of bronze ornaments and weapons, a close affinity with the Northern Hebei region is evident. However, in Liaodong, the continuity of the bronze casting culture seems disrupted. This study presumes that the influx of bronze technology was interrupted around the 14th century BCE,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Yin Ruins or Pre-Zhou cultures.

However, by the second phase, in the late Shang dynasty,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bronze weapons and tools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was observed, which corresponds to the easternmost part of the Eurasian Steppe. Particularly during this period, continuous cultural change and development occurred through sustained contact and exchange not only with nearby regions such as Liaoxi and Northern-Eastern Hebei but also with the Eurasian Steppe, Central Plains, and the Guanzhong area. Compared to bronze vessels, this is more distinctly observed in bronze weapons and tools. The discovery of numerous bronzes and molds at the Bangliu and Beiwai sites in Shenyang indicates that bronze casting technology had already been introduced. The interaction with the Liaoxi region appears to have intensified during this period. By the Western Zhou period, with the influx of Yan culture across the Lian Mountains and the fusion of northern-system and Central Plains bronze cultures, a foundation was laid for the emergence of the Bipa-Form Bronze Sword Culture, blending Central Plains casting techniques with weaponry from the Eurasian Steppe.

Keywords: Liaodong region, the End of Shang and the Beginning of Zhou, frontier, Northern-style Bronzeware, Influx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동반도 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지역성과 그 의미

— 고인돌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오대양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전담 조교수

- I. 머리말
- II. 묘제의 종류와 문화성격
- III. 묘제의 지역성과 상호작용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요하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요하(遼河)를 경계로 크게 요서와 요동 문화권으로 구분된다. 요동 문화권은 다시 태자하(太子河)를 경계로 남·북 2개의 분포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글에서 요동반도 지역이란 대체적으로 요동 문화권의 남부지역에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태자하 이남의 천산산지 서남부와 발해 및 황해 연안지역을 포괄한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발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쌍타자문화이다. 대략 기원전 20세기 무렵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며, 전체 3시기로 획기되어 각기 쌍타자1~3기문화로 구분된다.¹ 이후 비파형동검문화기에 접어들면, 요동반도 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중심 묘제 및 부장품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다시 반도 남단과 벽류하유역 등 2개의 소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² 먼저 반도 남단은 발해연안의 대련시 일대가 중심이 되며 적석묘제에 바탕한 강상문화를 거쳐 윤가춘유형기(묘제: 토광묘)에 접어들어 초기 철기시대에 진입한다. 그리고 벽류하유역권은 천산산맥 서남부의 반도 중심부에 해당되며 고인돌을 중심에 둔 쌍방문화에서 상마석유형기(묘제: 토광묘)를 거쳐 초기 철기시대에 진입한다. 동시기 요동 문화권의 북부지역 역시 이도하자문화(묘제: 석관묘)와 신성자유형(묘제: 고인돌) 등이 한동안 병존하다가 기원전

* 투고: 2023년 10월 11일, 심사 완료: 2023년 11월 2일, 게재 확정: 2023년 11월 17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3-기획연구-20)로 수행된 연구임.

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雙砣子與崗上-遼東史前文化的發見和研究』, 科學出版社, 53~54쪽; 趙賓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124~125쪽.

2 오대양, 2015a,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양상과 전개-소위 쌍방·미송리문화를 중심으로」, 『동양학』 61, 124쪽.

6~5세기 무렵 정가와자유형의 형성과 함께 토광(목관)묘제가 본격화되는데, 이는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로부터의 영향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비파형동검문화기 요동반도 지역은 당지의 토착묘제를 고수하는 한편 주변지역과의 다양한 교류상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지역색 강한 복합문화의 성격을 갖추게 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비파형동검문화기 요동반도 지역에서 전개된 청동기시대 묘제의 주요 특징과 성격 및 주변지역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지역성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묘제의 종류와 문화성격

1. 명칭과 개념 정리

비파형동검 문화기 요동반도 지역 청동기시대의 묘제는 고인돌과 적석묘, 석관묘, 토광묘 등이다. 먼저 고인돌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청동기시대의 중심 묘제로서, 이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지석묘나 석봉, 대석개묘 등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석묘로 분류되는 유적 중에는 실제 무덤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제단적 기념물이나 묘표석 등의 특성을 가지는 것도 다수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무덤적 측면이 강조된 지석묘보다는 보다 포괄적 의미에서 고인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석봉과 대석개묘는 주로 중국의 요동과 길림지역에 분포한 탁자식이나 개석식 고인돌을 특정하는 명칭이다. 북한학계에서의 소위 오덕형(탁자식)이나 묵방형(개석식) 고인돌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다. 이 중 대석개묘는 대체로 우리 학계의 개석식 고인돌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위치한 것이 많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되는 사실은 이러한 개석식 고인돌은 그의 상징성을 가지는 덮개돌이 유실될 경우 석관묘나 토광묘 등과의 구분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반면 탁자식(석붕·오덕형) 고인들은 하부구조가 파괴되거나 덮개돌이 유실되었더라도 받침돌의 형태와 구조 상 그의 성격과 원형을 추론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그간 고인돌과 매장주체부 구조가 유사한 여타의 무덤을 구분하는 방식 및 이를 토대로 고인들의 형식을 재설정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왔다.³ 향후의 논지전개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동안의 고민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덧붙여 새로 보완된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대안을 제시해보겠다.

첫째, 무덤 상부의 커다란 덮개돌은 다른 종류의 묘제와 구분되는 고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동시기성을 가지는 석관묘 역시 유사한 형태의 개석부가 존재하지만 규모가 다소 소략한데 이는 덮개돌의 기능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외부에 노출될 목적으로 마련된 고인들의 덮개돌은 가능하면 웅장하게 제작될수록 그의 가시적 효과가 배가된다. 반면 석관묘의 개석부는 고인돌(덮개돌)과 같이 외부에 노출될 목적·묘표나 제단적 기능은 없이 단순히 묘실을 덮어 마감하는 역할만 부여된 듯하다. 이는 결국 각 묘제의 주요 기능이나 문화성격(배경)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어 중요하다.⁴ 요컨대, 가시적 효과로서, 외부에 노출될 목적에 집중하여 마련된 덮개돌의 존재성을 통해 고인돌과 여타 묘제의 구분이 가능하며, 이러한 덮개돌이 잔존하지 않을 때에는 덮개돌의 하중으로부터 매장주체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축 시설의 흔적 여부에 따라 상호 간의 판별이 가능하다.⁵

3 오대양, 2014, 「북한지역 고인돌유적의 특징과 성격」, 『선사와 고대』 40; 오대양, 2015b, 「북한지역 석관묘유적의 특징과 성격」, 『한국사학보』 61; 오대양, 2017, 「요동지역 석관묘문화의 특징과 전개양상 검토」, 『한국사학보』 66; 오대양 2019, 「요동과 길림, 서북한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전개양상 검토」, 『백산학보』 115; 오대양, 2020, 『북한지역의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조선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등.

4 오대양, 2014, 위의 글, 74~75쪽.

5 오대양, 2015b, 앞의 글, 349쪽.

둘째, 분류의 제1기준으로 매장주체부의 축조방식과 재료를 제시한다. 후대적 요인으로 외형이 쉽게 변형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상부 구조물(덧개돌 혹은 적석부)과 달리 지하에 매설된 매장주체부는 그 원형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었을 뿐 아니라 시·공간에 따른 변이와 형식적 다양성이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⁶ 특히 요동반도 지역에서는 이러한 매장주체부의 구조적 차이에 따라 각 형식별 묘제의 지역별 분포 양상 및 출토 유물상에서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동시기 길림과 서북한지역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발견되므로 각 지역별 묘제의 성격과 전개상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장점이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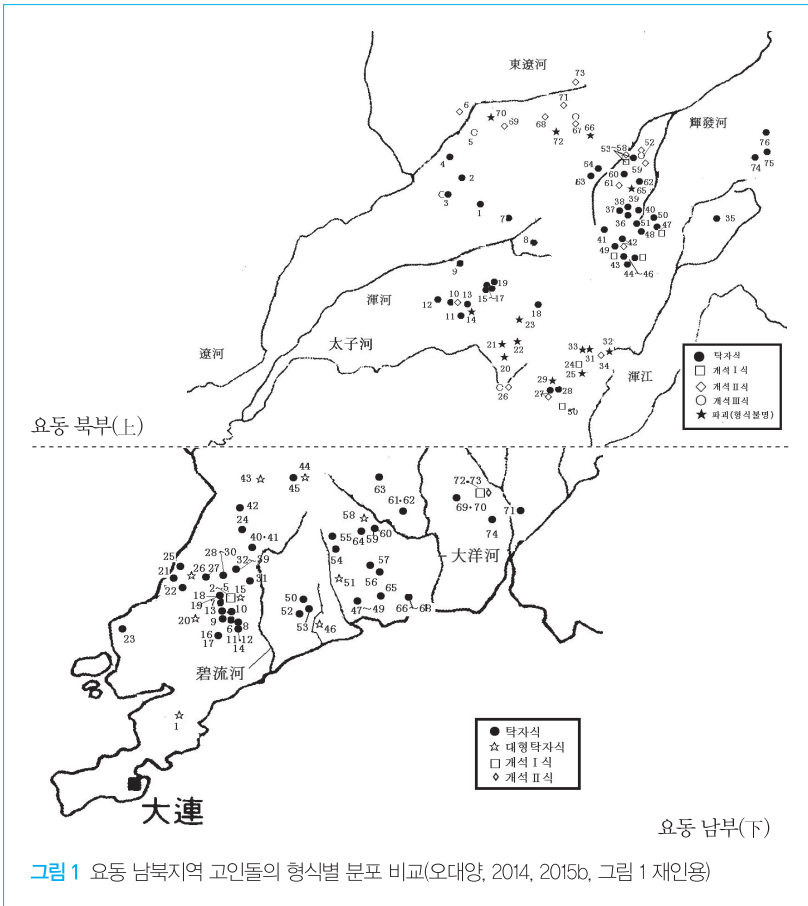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처음 제시한 이 지역 고인돌의 형식은 판석형, 토광형, 할석형, 혼축형 등 4가지로 구분하는 방식이었다.⁸ 여기서 판석형이란 여러 장의 판석재를 이어 세워 매장주체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우리 학계의 탁자식이나 북한의 오덕형, 중국의 석봉 등과 유사한 구조이다. 다만 기존에 일부 개석식으로 분류되던 것 중에는 이처럼 판석 여러 장을 깊거나 얇은 토광 내에 이어 세운 형태가 있어 이들까지를 모두 통합하여 판석형 고인돌로 범주화하였다.

다음 할석형과 혼축형, 토광형 등은 기존의 개석식이나 묵방형(북한), 대석개묘(중국) 등으로 불리던 것으로 토광 내 할석재를 쌓아 매장주체부를 구성하거나(할석형), 판석재를 혼용한 것(혼축형), 별다른 시설물 없이 토광으로만 되어 있는 것(토광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하부구조의 차이에 따라 분류할 경우 각 형식별 고인돌의 지역별 분포상이 확연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시 출토유물상과 비교하여 각 형식별 고인돌의 문화성격 및 편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각 형식별(I·Ⅱ식) 고인돌의 시·공간적 변이에 따른 세부형식의 지역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6 오강원, 2008, 『서단산문화와 길림 지역의 청동기문화』, 학연, 200쪽.

7 오대양, 2017, 앞의 글, 10~13쪽; 오대양 2019, 앞의 글, 191~200쪽.

8 吳大洋, 2013, 「朝鮮半島北部地區石構墓葬研究－兼論中國東北地區之比較」,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이후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 우리 학계에서 보편적인 기본 분류 방식에 맞춰 일부의 내용을 수정·발표한 바 있다.⁹ 다만 당시의 분석대상 유적이 요동과 길림, 서북한지역에 한정되었기에 당지의 주요 형식인 탁자식과 개석식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폈는데, 여기에서의 탁자식이란 판석 여러

9 오대양, 2014, 앞의 글, 74~80쪽; 오대양, 2015b, 위의 글, 345~3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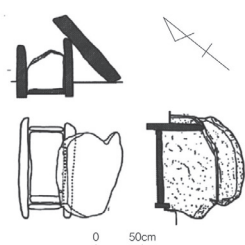
개를 세워 묘실을 조성하고 그 위에 한 장의 판돌을 두어 덮개돌로 한 것으로서 기존 필자의 판석형 고인돌과 유사한 개념이다. 대부분 받침돌이나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드러난 것이 많지만 일부는 지하에 조성되기도 한다.

반면 개석식은 대부분 매장주체부를 지하에 조성하지만 일부 중에는 지상에 드러난 것도 있다. 이는 다시 매장주체부의 구조에 따라 토광을 그대로 사용한 것(I식: 기존 토광형), 할석재를 쌓은 것(II식: 기존 할석형), 할석재와 판석재를 혼용한 것(III식: 기존 혼축형) 등 3식으로 구분하였다. 즉, 매장주체부의 구성을 판석재로 사용한 것은 모두 탁자식에, 나머지 기존 토광형과 할석형, 혼축형 등은 개석I~III식으로 재조정된 것이다. 이처럼 고인돌의 형식을 하부구조의 차이에 따라 재조정하게 되면서 <그림 1>과 같이 요동지역에 분포한 고인돌의 지역별 분포상 및 시·공간에 따른 변이와 형식적 다양성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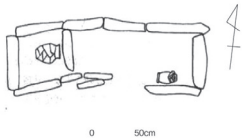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분류 역시 한계가 있었다. 기존 탁자식 고인돌에 대한 우리 학계의 보편적 인식 속에서 필자의 탁자식-판석형 고인돌의 개념이 그의 대안으로 수용되지 못한 측면이다. 즉, 기존 개석식으로 분류되던 쌍방6호묘(대석개묘)나 침촌리유적 고인돌(침촌형)을 매장주체부의 구조에 따라 탁자식(묘실 판석형)에 포함-필자안-시킴에 따라 기존의 인식과 상당한 격차가 발생되었다. 또한 개석I식으로 분류한 토광형은 요동반도 지역에서는 개석식의 가장 빠른 형식이 되지만, 요동 북부나 길림, 한반도 등지에서는 가장 늦은 시기까지 존속된 소멸기 형식이기도 한 점에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적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좀 더 보완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지만,¹⁰ 필자의 탁자식 고인돌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여전히 기 성과들과 잘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고인돌의 기본 형식은 우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탁자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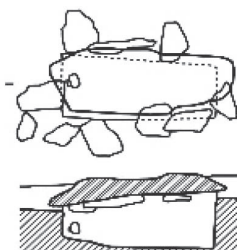
10 오대양, 2019, 앞의 글, 191~200쪽; 오대양, 2020, 『북한지역의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조선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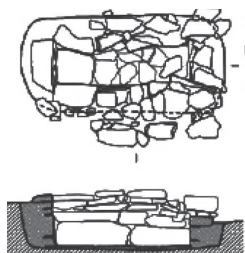
탁자식
(개주 화가와보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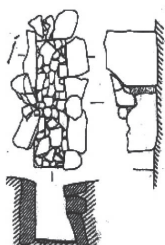
개석 I 식
(보란점 핵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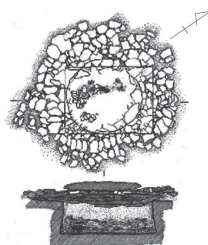
개석 II a식
(봉성 동산2호)



개석 III 식
(본계 신성자9호)



개석 IV 식
(개원 건재촌26호)



개석 II b식
(신빈 왕청문3호)

그림 2 요동지역 고인돌 형식 비교

개석식 및 기반식의 3분류법을 따르고자 한다.¹¹ 탁자식 고인돌이란 그간 우리 학계에서 통용되어오던 전형의 것들만 대상으로 한다. 북한의 오덕형과 중국의 석봉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덮개돌 하단 4벽에 두꺼운 판석재 1장씩(받침돌)을 세워 묘실을 조성하여 외형상 탁자식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다음 개석식은 지표상에 덮개돌만 드러난 형태로 중국의 대석개묘와 유사한 개념이다. 매장주체부의 구조에 따라 다시 4식으로 구분한다. I식(묘실 판석형)은 토광 내 여러 매의 얇은 판석재를 장방형으로 이어 세워 매장주체부를 구성

11 다만 이 글의 주요 비교 대상 지역인 요동과 서북한지역에서는 기반식 고인돌이 확인된 바 없어, 이 글에서는 탁자식과 개석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 1〉 고인들의 형식 분류 조정안

학위논문 (오대양, 2013)	수정논고 (오대양, 2014, 2015b)	본고	
판석형	탁자식	탁자식	
		개석Ⅰ식 (판석형)	
토광형	개석Ⅰ식	개석Ⅱ식 (토광형)	개석Ⅱa식 (초기식)
			개석Ⅱb식 (후기식)
할석형	개석Ⅱ식	개석Ⅲ식 (할석형)	
혼축형	개석Ⅲ식	개석Ⅳ식 (혼축형)	

한 것으로 사용된 판석재는 4매 이상이다. 학위논문에서 판석형에 분류된 것으로 북한의 침촌형과 유사하다. Ⅱ식(묘실 토광형)은 토광을 그대로 묘실로 활용한 것인데 시간적 변이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따라 초기식(Ⅱa식)과 후기식(Ⅱb식)으로 세분한다.

현재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개석Ⅱa식은 이러한 묘실 토광형 고인들의 발생 기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며, 토광 바닥과 벽체 일부 구간에 간헐적으로 석재를 둔 형태가 보편적이다. 아래에서 상술할 봉성 동산유적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개석Ⅱb식 고인들은 토광 내 별다른 구조물이 확인되지 않지만, 덮개돌 주변으로 다량의 적석부가 잔존하며, 토광의 바닥부 형태나 잔존유기물의 정황상 목관의 사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역시 아래에서 상술하겠지만 신빈 용두산유적에서 확인되듯이 부장품 구성 면에서 초기 철기시대의 요소가 복합되어 이 지역 고인들의 소멸기적 현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다음 개석Ⅲ식(묘실 할석형)은 토광 4벽에 할석재를 쌓은 형태이며, 개석Ⅳ식(혼축형)은 할석재가 주축이 되지만 일부 구간에는 두꺼운 판석재를 혼용하여

쌓는 방식이다. 북한의 묵방형과 중국의 대석개묘는 대체로 이러한 개석Ⅲ식과 개석Ⅳ식에 속한 사례가 많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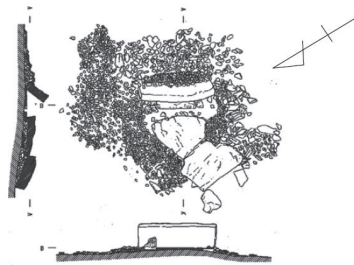
2. 무덤의 상부구조와 문화성격

다음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은 무덤 주변의 적석시설과 상부구조이다. 먼저 고인돌 주변의 적석부가 현상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확인된다. 주요 사례로서 개주 화가와보의 탁자식과 봉산 동산의 개석식(Ⅱa식) 및 늦은 시기의 무순 하협심(탁자식)과 신빈 용두산(개석Ⅱb식) 등을 대표로 한다. 이처럼 덮개돌 하부의 적석부가 현상은 이른 시기와 늦은 시기의 탁자식과 개석식 고인돌에서 모두 확인되는데, 각 형식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어 부연이 필요하다.

탁자식은 지표 위에 드러난 받침돌 주변에 적석하여 하부구조를 보강-받침돌의 한쪽 쓸림 현상을 방지하거나 묘역의 범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개석식 고인돌의 적석부 역시 묘역의 표시 기능도 겸하지만 덮개돌 하부의 적석부가 덮개돌 하단부와 맞닿아 그의 하중을 받치는 역할, 즉 받침돌의 역할이 보다 부각된다. 이러한 적석부의 구조와 기능은 무덤의 상부구조와 마찬가지로 유적의



개주 화가와보 파괴 고인돌
(탁자식) 적석부 잔해



무순 하협심 1호(탁자식)
고인돌 적석부 잔존 모습

그림 3 탁자식 고인돌의 적석부 잔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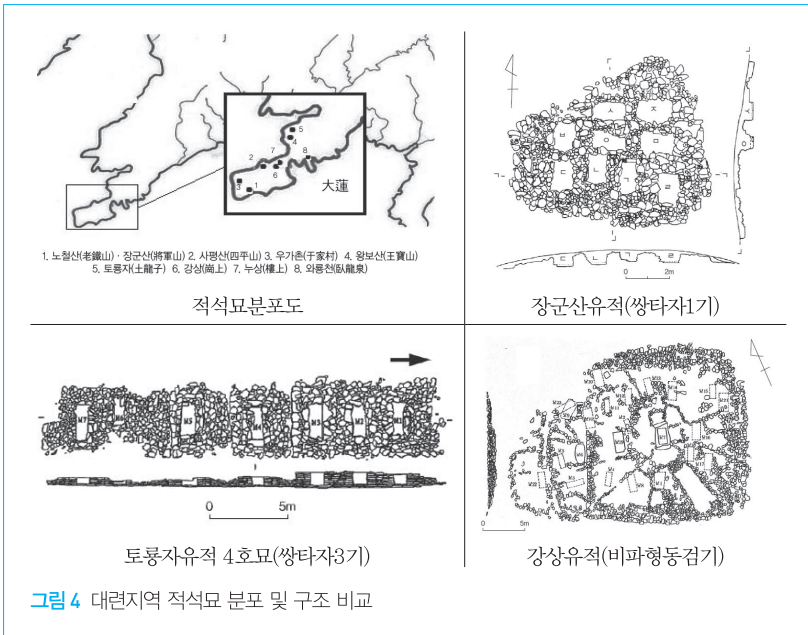
상황에 따라 잔존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원형적 모습을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형식분류의 한 요소로 참고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적석부의 주요 기능이 거대한 덮개돌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묘역의 범위를 표시하는 역할을 겸한다는 점에서 해당 무덤의 성격을 판별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확인된 대부분의 적석부가 무덤은 고인돌과 적석묘에 한정된다. 반면 요동과 길림, 서북한지역에서 확인된 거의 대부분의 석관묘에는 이러한 적석시설이나 벽석부 보강시설이 마련되지 않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의 분포권역이 상당히 제한적인 적석묘(요동반도 남부권)의 경우 고인돌과의 공존상이 보고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지만, 요동 북부지역에서 분포권역이 겹치는 고인돌과 석관묘는 덮개돌이 유실되거나 소략한 경우 양자의 구분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석묘의 분포권역이 아니면서 덮개돌은 없이 적석부만 잔존한 석관형 무덤일 경우 확률상 고인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 요동반도 지역 청동기시대 적석묘의 가장 큰 특징은 지표 위에 매장주체부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산 정상부나 사면부를 평탄하게 정리한 후 묘광을 파지 않고 지표 위에 그대로 묘실을 마련한 후 벽석 주변과 상부 묘실 내부에 적석하여 묘역과 봉분(석재 활용)을 조성한다. 매장주체부의 대부분은 할석으로 4벽을 쌓거나 혹은 판석재를 혼용한 구조이다. 대부분 하나의 묘역 내에 여러 개의 묘실이 일렬 혹은 다열 혹은 방사상이나 무규칙하게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즉, 하나의 묘역에 여러 개의 묘실이 배치된 다실묘적 전통을 공유한다.¹²

이처럼 하나의 적석묘역 내 다실묘적 성격을 보이는 청동기시대의 공동묘역은 서북한의 침춘리유적에서 조금 변이된 형태로 확인되어 참고된다. 북한에서 소위 ‘침춘형’ 고인돌로 분류되는 것으로 일찍이 석광준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

12 하문식, 2013, 「요남지역의 돌무지무덤연구」, 『선사와 고대』 38; 오대양, 2016, 「대련지역 초기적석총유적의 현황과 특징」, 『백산학보』 105, 9~12쪽.



한 종류의 고인돌 무덤은 기존의 인식-수혈식 매장주체부-과는 다르게 대부분 지표상에 먼저 적석한 후, 그 내부에 판석재 여러 매를 활용하여 무덤방을 조성한 지상식 무덤이라는 것이다.¹³ 물론 평양 표대유적 1호 고인돌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보고된 유적 중에는 얇은 토광을 판 후 그 내부에 판석재를 세우고 그 둘레에 원구상의 적석부를 둔 후 덮개돌을 덮어놓아 이러한 적석부가 받침돌의 역할을 겸비한 사례도 존재한다.¹⁴

하지만 표대유적은 적석시설 내에 1기의 고인돌만 조성된 사례로, 침촌형 고인돌의 개념과 같이 하나의 적석묘역 내에 여러 개의 고인돌이 배치된 다실묘적 성격의 공동묘역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징의 침촌형 고인돌은 적석부의

13 석광준, 1974, 「오덕리고인돌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110~118쪽.

14 박철, 2010, 「표대유적에서 발굴된 고인돌무덤」, 『조선고고연구』 1, 10~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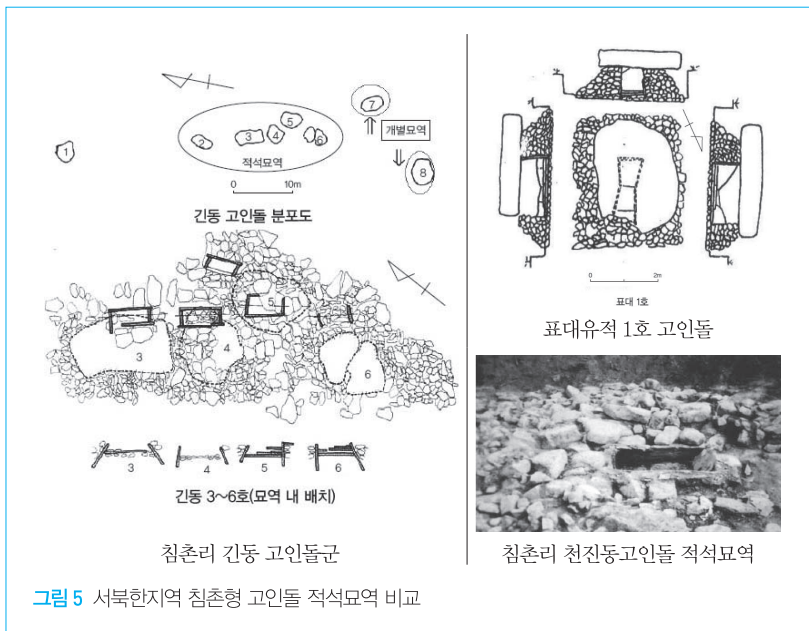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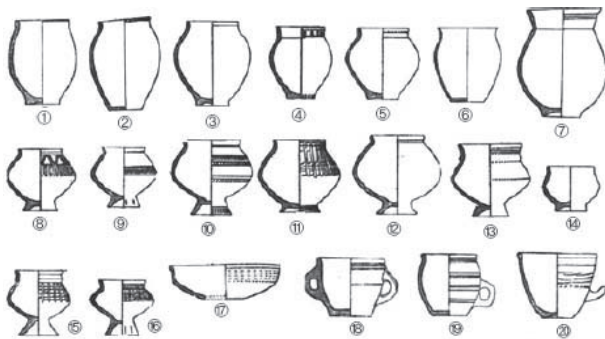


그림 5 서북한지역 침촌형 고인돌 적석묘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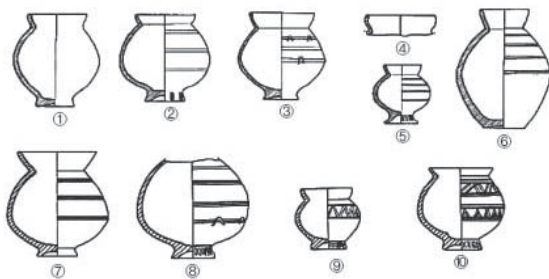
형태나 구조, 묘역 내 묘실의 위치(지표위)나 배치상 등에서 적석묘적 특성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다만 개별 묘실의 상부 마감으로 커다란 덮개돌을 사용하였는지(고인돌) 아니면 묘실 내부에도 적석을 하여 원구상의 개별 봉분이나 봉석하여 마감하였는지(적석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침촌리유적에는 적석묘적 특성의 적석묘역부와 묘실이 지표상에 위치한 현상 및 커다란 하나의 덮개돌이라는 고인돌적 특성이 복합된 양상이다. 특히 적석하여 마련된 단일 묘역 내에 여러 개의 묘실이 공존하는 다실묘적 성격의 공동묘역이 형성된 점에서 그의 묘제적 전통(공동묘역)이 기본적으로 적석묘적 특성에 닿아 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서북한지역에서 이러한 묘제 전통이 형성되는 배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요동반도 남부권의 적석묘유적은 당지의 신석기시대 문화 후기부터 등장하지만 그의 중심연대는 초기 청동기시대로 인식되는 쌍타



적석종 출토토기 각종



적석종 출토 현문호(미송리형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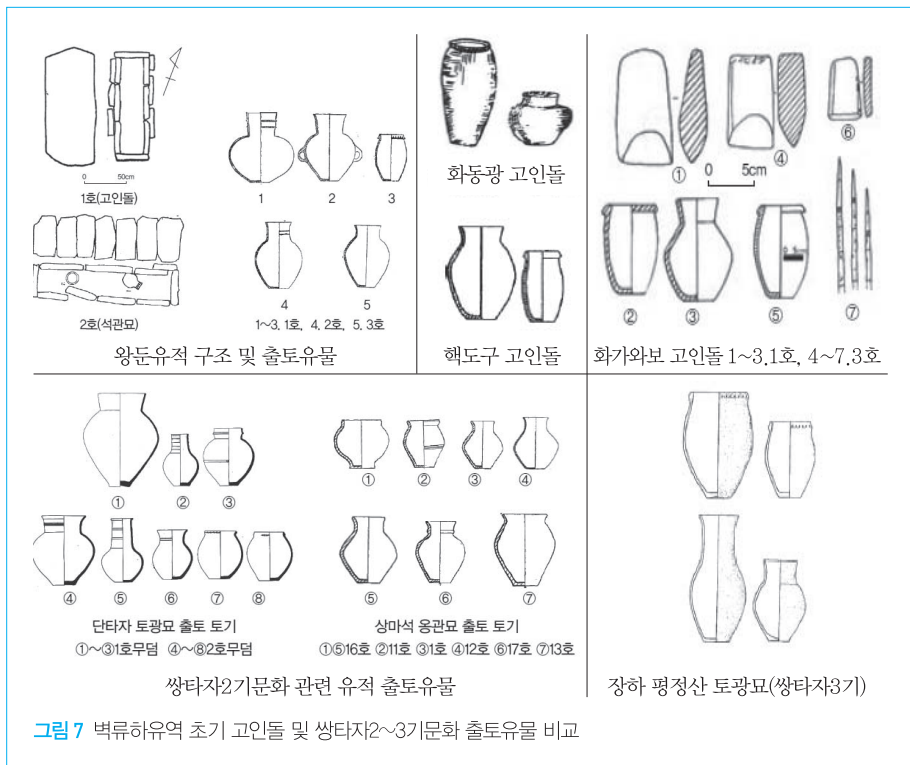
그림 6 대련 우가촌 타두 적석묘(쌍자타3기) 출토유물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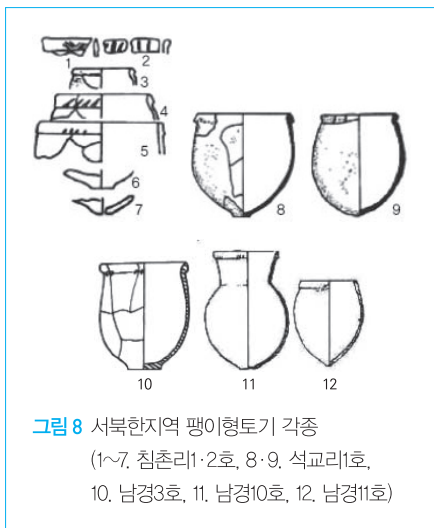
자1기문화로 평가된다. 이후 쌍타자2기문화기에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쌍타자3기문화에 다시금 등장하여 비파형동검문화기의 강상유형기까지 지속된다. 이 중 서북한의 침촌리유적에 대응되는 시기는 쌍타자 3기문화(기원전 15~10세기 사이) 단계로 볼 수 있다.¹⁵ 이 시기의 주요 유적은 대련 우가촌 타두 유적과 금주 토룡자 적석묘유적이 있다. 두 유적의 부장품 구성은 대략 쌍타자 3기문화의 취락인 쌍타자3기층 및 대취자 상층유적과 유사한데, 주요 기종 각

15 오대양, 2020, 앞의 책, 474쪽, 480~482쪽.

종의 심발형토기와 단경호, 권족발(두형토기) 등으로 문양과 기종 면에서 지역적 특색이 강한 편이다.

한편 쌍타자2기에서 쌍타자3기 문화 사이의 쌍타자문화권에 포함되는 요동반도 북부권의 벽류하유역에서는 출현기적 특징을 보이는 고인돌유적이 다수 보고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란점 왕둔과 그에 인접한 핵도구유적 및 개주 화가와보, 와방점 화동광유적 등이다. 위 유적의 부장품 구성은 이중구연에 단사선문이 있는 심발형토기와 무문의 단경호 조합이 특징적인데 이는 벽류하 하류역에서 지역화된 쌍타자2~3기 사이의 전형유물이다. 대표적으로 단타자로 광묘와 상마석 웅관묘, 장하 평정산토광묘 출토품과 비교된다.





주목되는 점은 벽류하유역의 이러한 초기 고인돌유적 중 개주 화가와보(쌍타자3기)의 탁자식 고인돌에서 받침돌 주변으로 묘역화된 적석부의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된 점이다(그림 3 참조). 이러한 적석부가 현상은 고인돌의 축조과정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기술적 진보로 이해할 수도 있기에 이를 반드시 적석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시까지 요동반도권에서

적석을 둘러 묘역을 표시하는 방식은 적석묘에서만 확인되던 현상으로 화가와보유적의 문화내용과 시간성이 쌍타자2~3기와 연관되었다는 점에서도 양자의 연관성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다.

아울러 침촌리유적 역시 서북한지역에서 고인돌이 축조되는 초현기유적으로 그의 시간성은 쌍타자3기문화 후반부에 위치한다. 침촌리유적 고인돌의 부장품 구성은 팽이형토기와 석부, 석검, 석촉류이다. 이 중 심발형의 팽이형토기는 당지의 토착적인 바닥부 형태(침저)를 제외하면 화가와보유적의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와 상당히 흡사하며, 주변 취락에서 그와 공반되는 호형의 팽이형토기 역시 이른 시기 고인돌에서 자주 공반되는 무문 단경호와 연관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점은 침촌리유형계의 고인돌에서 공반되는 석검류의 조형이 주로 쌍타자2~3기유적군에서 확인되는 점이다. 이중구연에 단사선문을 표현한 토기류는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시대에 상당히 광역적 분포상을 보이기에 그의 연원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와 공반되는 단경호류의 형태나 발전상이 쌍타자2기문화와 연관되는 점, 나아가 관련 유적의 분포상이 주로 쌍타자문화권에 포함되며, 유경식의 석검류 역시 당시 쌍타자문화권에서만 유



행된 점으로 미뤄 볼 때 서북한지역에서 침촌형 고인돌의 조성과정에는 쌍타자 문화의 영향성도 충분히 고려된다. 그중에서도 벽류하유역의 초현기 고인돌유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목한다.

이러한 점은 두 지역에서 조사된 고인돌의 매장주체부 구조를 비교해볼 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현재까지 조사된, 쌍타자문화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고인돌유적은 모두 매장주체부를 여러 개의 판석재를 세워 만든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는 필자의 분류안에 따라 탁자식과 개석I식(묘실 석관형)으로 분류되는데, 탁자식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유적은 개주 화가와보유적과 보란점 화동광유적이며, 개석I식(석관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보란점 왕둔1호묘와 핵도구 고인돌로, 모두 기존의 논고에서 제안되었던 판석형 고인돌에 해당된다.

이와 유사한 시간성을 보이는 서북한지역의 초현기 고인돌유적은 대체적으로 팽이형토기문화 1기에 속하는데 주요 유적은 대동강 하류지역의 황해남도 석교리와 황해북도 침촌리 침촌중학 고인돌, 침촌리 긴동·천진동·신대동·극성동, 평양 표대유적의 고인돌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북한학계에서 침촌형 고인돌로 분류되는 적석묘역이 부가된 다실묘적 특성의 고인돌유적으로 매장주

체부의 구성이 모두 여러 개의 판석재를 이어 세운 공통점을 보인다. 보다 엄격하게 구분할 경우 하나의 적석묘역에 여러 기의 고인돌이 밀집한 경우는 모두 필자의 개석Ⅰ식(석관형)에 해당되며, 단독으로 위치한 경우는 대부분 탁자식 고인돌에 가깝다.

이러한 고인돌문화의 초현기, 요동반도와 서북한지역 모두 매장주체부가 토광형이거나 할석형태인 개석Ⅱ~Ⅳ식 고인돌은 조성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된다. 후술하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개석Ⅱ~Ⅳ식 고인돌의 문화적 배경이 요동 북부 문화권의 마성자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형식의 고인돌 중 가장 빠른 시간성을 보이는 것은 봉성 동산(전 10세기 이전)과 서산유적(전 9세기 전후)으로 개석Ⅱa식과 개석Ⅲ식이 공존한다. 이들이 자리한 지역은 마성자문화¹⁶의 주요 분포권인 태자하 상류지역에 근접해 있으며, 내부의 부장성 역시 마성자문화 후기의 전형유물이 공반된다는 점에서 조성집단의 성격과 문화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서북한지역의 침춘형 고인돌유적에서 확인되는 다실묘적 성격의 공동묘역(적석부)은 쌍타자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당지에서 지역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적석묘적 특성의 공동묘역을 조성하는 묘제전통에 기반하여 거석덧개(덧개돌)로 상징되는 새로운 신앙체계(조상숭배)¹⁷가 복합된 형태로서 지역화(서북한)된 흔적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적석묘 및 고인돌 등과 동시기성을 보이는 석관묘유적에서는 이처럼 공동묘역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적석부가 현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16 천선행·장순자, 2012, 「마성자문화 동굴묘 출토 토기 변천과 전개」, 『영남고고학』 63; 하문식, 2014, 「고조선 시기의 동굴무덤 연구」, 『백산학보』 98; 오대양·백종오, 2015, 「마성자문화 동굴묘의 형식과 전개양상」, 『동아시아고대학』 40; 김태연·하문식, 2017, 「마성자문화관련 유적 출토 가락바퀴 연구」, 『선사와 고대』 52; 하문식, 2020,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연구 ②-신빈 지역 동굴무덤의 신자료」, 『선사와 고대』 63.

17 오대양, 2022, 「금강하류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제사·의례적 성격 고찰」, 『한국고고학보』 125, 752~754쪽 참조.



그림 10 대련 왕보산유적 적석묘 묘실 개석(상)과 발굴 후 모습(하)

에 유의된다. 그러나 이 지역 석관묘의 형태가 마성자문화의 동굴묘에 기반한다는 점¹⁸에서 그와는 조금 다른 방식, 이를테면 동굴 내부라는 한정된 공간을 활용한 공동묘역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동굴과 적석묘역을 활용한 공동묘역 내에서의 개별 무덤들에는 고인돌과 같이 거석덧개를 활용한 제

18 오강원, 1999, 「서단산문화 석관묘유적의 연대편년」, 『선사와 고대』 13; 이종수, 2008, 「서단산문화 석관묘의 특징과 기원에 대하여」, 『선사와 고대』 28.

의적 기능이 부가된 개석부(덮개돌)가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고려된다.¹⁹

예외적으로 요동반도 남부권의 금주 토룡자와 왕보산 적석묘에서는 두꺼운 판석재를 덮어 개석부를 둔 후 그 위로 다시 개별 봉분을 마련한 사례가 있어 유 의된다.²⁰ 다만 이러한 형태의 개석부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서풍 성신촌 석관묘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²¹ 이 역시 모두 개석부(묘실덮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 장의 거석으로 마련된 고인들의 덮개돌과는 그 기능과 성격 면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적석묘의 경우 그러한 제의적 공간역의 상징성을 공동묘역을 표현하는 적석부에 둔 것으로 이해되며, 개별 묘실의 상부 구조가 원구상의 봉분(석재활용)으로 처리된 점에서 고인들의 덮개돌과 기능적 차이가 있다. 비록 요동반도 지역에서는 석관묘나 토광묘제의 상부구조(원형)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지만 적석묘의 사례와 같이 개별 봉분(봉토)의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된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묘에 대한 숭배-덮개돌을 활용한-의식은 없어 보인다.

이상과 같이 각 묘제에서 확인되는 상부구조의 차이는 해당 묘제의 성격, 즉 묘제의 기능적 차이와 연관되었을 것으로 본다. 해당 집단의 고유한 신앙관이나 생계방식이 상당부분 작용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곧 믿음체계로서 공동체적 이데올로기의 반영, 즉 집단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19 고인들의 상징성을 가지는 거석덮개(덮개돌)의 출현(성격)은 그의 제의적 기능과 관계된 것으로, 이는 집단 내 신격화된 선조의 무덤을 제단화함으로써 집단 내 공통 조상의 숭배의식, 즉 시조신앙의 흔적으로 이해한다(오대양, 2023, 「묘제를 통해 본 고조선문화의 정체성과 지역성 고찰」, 『고조선단군학』 50, 115~120쪽 참조).

20 대련 왕보산적석묘는 1991년 시굴 조사 후, 약보고된 바 있다(王冰·萬慶, 1996, 「遼寧大連市王寶山積石墓試掘簡報」, 『考古』 3). 이후 2013년 전면 발굴되는 과정에서 조사 당시의 현장을 답사할 기회가 있었다. 아직 정식발굴보고서가 나오기 전이지만, 묘실 구조 및 개석부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 성신촌 석관묘(遼寧省西豐縣文物管理所, 1995, 「遼寧西豐縣新發見的幾座石棺墓」, 『考古』 2)의 개석부와 유사한 형태가 요동지역의 석관묘에서는 드물게 확인되지만, 한반도 남부지역 특히 송국리유형기 금강 하류지역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기에 그의 원형적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

지하다시피 보다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요구되는 덮개돌의 마련에는 그에 충당하는 명분과 필요성이 수반된다. 여기에 신앙적 이유는 복합사회로의 성숙도가 미약하였던 지역 사회에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한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² 이는 결국 자신들을 타자와 구분 짓는 표징이 되어 공동체의 전통(묘제)으로 고착되었고 나아가 집단 정체성의 형성과정에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²³

이러한 추론은 비파형동검문화기 요동반도 지역에서 각 묘제의 분포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분위기를 환기할 겸 자리를 옮겨 지속하고자 한다.

III. 묘제의 지역성과 상호작용

1. 요동반도 지역 청동기문화의 지역성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비파형동검문화기에 접어들면 요동지역의 청동기문화는 요동반도 지역의 강상문화와 쌍방문화 및 요동 북부지역의 이도하자문화 혹은 신성자문화 등으로 나뉘어 전개된다. 이러한 구분은 대체로 이 지역 청동기문화의 표지유물인 비파형동검의 형식과 공반유물상 및 중심유구(묘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동시기 요서지역에서는 십이대영자문화가 길림지역에서는 서단산문화 그리고 서북한지역에서는 미송리(형토기)문화(혹은 유형) 등이 병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파형동검문화기의 각 지역별 문화·유형의 개념과 범위,

22 김장석, 2007,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복합과정 연구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17, 19~21쪽; 김경택, 2014, 「청동기시대 복합사회 등장에 관한 일 고찰-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46, 19~20쪽.

23 오대양, 2021, 「송국리유적 석관묘의 특징과 성격 재검토」, 『한국청동기학보』 28, 90~95쪽 참조.

명칭 등은 개별 연구자의 관점이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발생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상문화 혹은 강상유형 그리고 쌍방문화나 혹은 유형, ~식유적군(중국어: 遺存) 및 미송리문화와 미송리식토기문화, 미송리유형 등 누군가 ○○문화로 명명한 대상에 대하여 혹자는 ○○유형이나 ○○유존 혹은 ~식유적군 등의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이는 결국 연구자가 다루는 전문분야의 상이성에 따른 것으로, 주로 비파형동검문화에 기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와 공반되는 미송리형토기계 요소나 그러한 유물상이 공반되는 중심 유구로서 묘제유형에 초점을 두었는가에 따라 이견이 발생된 듯하다.

아울러 요동과 서북한지역에 분포한 비파형동검문화기의 관련 유적에서는 비파형동검이나 그와 관계된 청동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유적이 다수 포함된다. 당시 사회에서 청동기의 사용주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 유적 모두에서 비파형동검계 청동기가 모두 출토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문화요소가 공반되는 경우 이러한 비파형동검문화의 범주에서 배제시키기도 어렵다.

보통 요동과 한반도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범위에는 청동기가 출토되지 않더라도 무문토기시대에 진입과 함께 청동기시대가 개시된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²⁴ 이러한 무문토기시대의 개념을 청동기시대와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하는 인식에서 요동과 서북한지역에서 비파형동검과 동시기성을 보이거나 공반되는 미송리형토기계 요소 역시 비파형동검문화기 이 지역 청동기시대의 표지유물로 삼게 된 것이다. 나아가 그것의 상징성을 가지거나 처음 발굴된 유적명에 따라 문화·유형을 설정(명칭)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유사한 문화 양상을 보이는 비파형동검문화기 요동 남북과 서북한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크게 강상문화와 쌍방문화(혹은 유형) 그리고 이도하자나 신성자문화(혹

24 김정학, 1967, 「한국무문토기문화의 연구」, 『백산학보』 3; 이청규, 2015, 「총설_한국 청동기문화의 시·공간적 위치」,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6), 진인진; 천선행, 2022, 「무문토기문화권에서의 청동기시대 시작과 끝」, 『호남고고학보』 71, 8~10쪽 참조.

은 유형) 및 미송리(형토기)문화 등으로 구분되어 연구되는 추세이다.

먼저 강상문화는 기본적으로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강상유적의 적석묘유적을 표지로 한다. 강상유적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은 요서의 십이대영자식 동검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겨져 그의 출현연대는 십이대영자식과 같거나 조금 늦은 기원전 8세기 무렵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²⁵ 쌍방문화 역시 기본적으로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쌍방유적의 고인돌을 표지로 한다.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쌍방 6호는 개석식(이 글의 개석I식: 석관형) 고인돌이지만 동일유적 내 지근거리에 탁자식(2호) 고인돌이 위치하기 때문에 고인돌의 형식과 상관없이 요동반도 지역에서 확인되는 관련 유적은 대체로 쌍방문화에 포함시켜 이해되었다.

이러한 쌍방문화는 1980년대 중국학계에서 제안된 쌍방유존(遺存: ~식 유적군)²⁶의 개념에 바탕하지만, 기존 벽류하의 하류역에서 쌍타자3기문화의 지역유형으로 인식되어오던 상마석상층유형이나 양두와유형의 범주 속에서 이해되기도 한다.²⁷ 이후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상의 문화유형을 포괄한 쌍방문화의 개념이 제안²⁸되면서 국내에서도 점차 보편화되는데, 주요 내용은 비파형동검계 문화소(동검·모·부·촉)와 미송리형토기계 요소가 공반되며, 또한 삼족기계통이 조합되지 않는 요동 각지의 청동기시대 중후반부 문화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²⁹

이와 함께 최근 자주 거론되는 요동 북부지역의 신성자문화는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쌍방문화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비파형동검문화기 요동 북부지역은 마성자문화에서 연속되는 독자적인 문화권역으로서 이를 대표하는 신

2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앞의 책, 110~118쪽, 145~148쪽; 趙賓福, 2009, 앞의 책, 125~130쪽.

26 朱永剛, 1982, 「東北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文化區系」, 『考古學報』 2, 139쪽; 王巍, 2004, 「雙房遺存研究」, 『慶祝張忠培先生七十歲論文集』, 科學出版社.

27 陳光, 1989, 「羊頭窪類型研究」, 『考古學文化論集』(二), 文物出版社.

28 趙賓福, 2009, 앞의 책, 158~159쪽.

29 오대양, 2015a, 앞의 글, 140~145쪽.

성자문화를 분리해야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되었다.³⁰ 이러한 신성자문화의 범 위에는 표지유적인 고인돌과 함께 석관묘가 중심이 되는 기존 우리 학계의 이도 하자유형³¹의 범주 역시 포괄된 것으로, 문화내용의 중심성을 비파형동검이나 묘제보다는 그와 공반되는 미송리형토기계 문화소(무문의鉢口壺, 横耳罐 등 조합)에 중심성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이도하자유형의 범주 속에는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형토기계 요소가 공반되는 석관묘유적이 중심이 되었다면, 신성 자문화의 내용 속에는 요동 북부지역의 특징적인 개석식 고인돌문화를 포함시 키면서 그의 표지유적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신성자문화의 개념은 요동 남북 지역의 비파형동검과 미송리형토기 가 공반되는 관련 유적을 하나의 단일한 문화로 인식하는 시각(쌍방문화)에 반대 하여 제안된 것으로, 요동 남부와 요동 북부지역의 청동기문화를 구분할 필요성 에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만, 그의 전형 유적으로 삼은 본계 대편지 신성자의 고인돌유적은 2010년에야 비로소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³² 그와 관계된 유적군에서는 비파형동검계 청동유물이 단 1건도 출토된 바 없기 때문에 기존 우리 학계에서 통용되어오던 이도하자유 형을 대체하거나 당지의 청동기문화를 대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형이라는 표현은 시공간 변이의 산물이며, 고고학자가 복잡한 물질 자료의 변이에서 시공간 분포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설정한 것 이다.³³ 최근 국내 다수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상위 개념으로서 소위 ‘고 고학적 물질문화’를 제시하는데, 특정한 ○○문화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한 후,

30 華玉冰, 2011,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科學出版社, 186~187쪽.

31 오강원, 2003,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지역간 교섭관계」,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오강원, 2013, 「요령 지역의 청동기·초기 철기시대 복합사회의 형성과 사회 변동」, 『선사와 고대』 38, 158~159쪽.

32 本溪市博物館, 本溪縣文物管理所, 2010, 「遼寧本溪縣新城子青銅時代墓地」, 『考古』 9.

33 성춘택·문수균·양해민, 2018, 「물질문화의 유형과 고고학 분석의 단위-」, 『한국 고고학보』 109, 335쪽.

그와 관계된 지역문화로서 시간적 변이를 내포한 개념으로 자주 사용된다.³⁴ 결국, 그간 한국 고고학에서 유형으로 개념화했던 것은 사실상 지역문화의 한 부분으로 작용되거나³⁵ 혹은 ‘무문토기문화’라는 대범주하에서 미사리문화, 송국리문화 등과 같이 좀 더 작은 단위로서 ‘소문화’³⁶로 파악할 수 있다는 시각이 보편화되는 듯하다.³⁷ 이를테면 무문토기문화 혹은 청동기시대문화, 고인돌문화, 비파형동검문화 등과 같이 보다 상위의 포괄적 문화 개념 아래 지역문화라는 개별 단위를 두어 유형이 지니는 시·공적 변이상을 강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³⁸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요동반도 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전개를 비파형동검문화의 전과 후로 나누고, 이중 비파형동검문화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묘제상과 그 상호관계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이 절의 중점사항인 요동지역 청동기문화의 지역성 문제에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의 상징성을 가지는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전형유적을 표지로 하여 그 안에 내재된 다양한 양태의 관계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합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비파형동검문화기 요동지역의 청동기문화를 <표 2>와 같이 크게 강상문화와 쌍방문화 그리고 이도하자문화로 구분 지어 그의 지역성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강상문화의 관련 유적은 요동반도 남단의 해안지역 일대에 분포하며,

-
- 34 이창규, 2016, 「공렬토기문화와 역삼동유형」, 『역삼동유형의 시공간적 위치 및 문화적 의의』, 제10회 한국청동기학회학술대회 자료집, 16쪽.
 - 35 임상택, 2017, 「한국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신석기·청동기시대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2, 225쪽.
 - 36 배진성, 2015, 「무문토기문화의 설정과 경계」, 『영남고고학』 72, 7~10쪽.
 - 37 이상의 내용은 성춘택·문수균·양해민, 2018, 앞의 글, 350~355쪽에서 보다 상세하게 분석된 바 있다.
 - 38 이상 한국고고학에서 물질문화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범주화하는 문제는 이 글의 중점 논의와 다소 벗어나기에,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의 검토 및 그 대안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 2〉 요동지역 청동기문화의 구분과 지역성 비교

지역 구분		요동 남부지역				요동 북부지역						
소권역		요동반도 남단	벽류하 유역		대양하 유역		태자하 상류 / 동요하 상류 / 휘발하 상류		태자하 중상류/ 혼하~동요하 상류		요하 하류~ 태자하 유역	
문화·유형		강상문화	쌍방문화		동산유형		신성자유형		이도하자문화		정가와자유형	
연대범위 (최대)		전 9~4c	전 10~4c		전 12~9c		전 10~3c		전 10~4c		전 6~3c	
중심연대		전 8~5c	전 9~7c		전 10c		전 9~7c		전 9~7c		전 6~5c	
선행문화와 관계성		쌍타자 3기	왕둔·화가 와보유형		마성자3기· 왕둔유형		마성자4기· 동산유형		마성자4기· 신락상층문화		십이대영자 문화	
묘제		적석묘	고인돌		고인돌		고인돌		석관묘	목곽묘 토광묘		
			탁 자식	개석 I 식	개석 II a식	개석 III 식	개석 III 식	개석 IV 식				
출토 유물 조합	청동기	동검·동부· 동촉· 장식품	동검	동검·동부· 동촉	—		—		동검·동모· 동부· 동촉	동경·동검· 동부· 동도· 동촉· 동포· 의기· 장식품		
	토기	그물문· 미송리형호(무문)· 황이관	그물 문호	미송리형호 (현문)· 이중 구연관	미송리형호 (현문)· 황이 관, 발 등		미송리형호 (무· 현문)· 황이관, 발 등		미송리형호 (무문· 현문)· 장경호· 두· 황이관· 발 등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무문장경호 등		
	석기	장식품· 석부· 석촉· 검파두식	석부	석부	석부		석부		석검· 석촉· 석부· 검파두식	검파두식 등		

주요 묘제는 적석묘이다. 이러한 양상은 비파형동검문화기 전단계의 쌍타자3기 문화와 대체로 유사한데, 부장품 구성에서 토기의 양식과 형식 변이의 계통성이 인정되어 상호 연속적인 문화유형으로 평가받는다. 발굴된 주요 유적은 강상과 누상 및 와룡천적석묘 등이며, 쌍타자유적의 파괴된 석재무덤에서도 비파형동검과 함께 미송리형토기와 유사한 속성의 무문호가 공반된 사례가 있어 이 역시 강상문화 초반기 적석묘 잔해로 추정된다.³⁹⁾ 아직까지 이시기에 해당되는 취락

유적의 발견이 없어 구체적인 문화내용과 양상을 알 수 없지만 비파형동검의 형식변화에 따른 편년상 중심연대는 기원전 8~5세기 무렵에 비정된다.

다음 요동반도 지역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벽류하유역에서는 개석I식과 전형의 탁자식 고인돌이 중심모제가 되는 쌍방문화가 병행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쌍방문화 역시 기본적으로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쌍방유적의 고인돌을 표지로 하며, 주요 유적으로는 개주 패방과 수암 백가보촌 등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고인돌유적 및 그와 관계된 청동도끼(용범)나 이중구연토기가 부장된 보란점 벽류하유적(유둔·교둔), 이 외에 비록 부장유물은 없지만 이 지역 탁자식 고인돌의 전형유적으로 평가받는 개주 석봉산과 보란점 석봉구 등 덮개돌의 길이가 6~8m 사이에 이르는 초대형 고인돌 역시 쌍방문화의 범주에서 논의된다.

주시하다시피 쌍방문화의 주요 특징은 이러한 고인돌유적과 함께 그의 표지가 되는 쌍방6호 출토 비파형동검과 동부(용범) 및 미송리형토기와 공반된 이중구연토기 등이다. 이처럼 단일유적 내 다양한 부장성을 보이는 유적이 쌍방6호 묘에 한정되긴 하지만, 주변지역에서 그와 관계된 유물이 단편적이거나 확인될 경우 일괄적으로 해당(쌍방) 문화에 포함시키는 경향이다.

연구 초창기 이러한 쌍방유적 출토 비파형동검을 고식으로 보아 그와 관계된 유적들의 시간성이 기원전 9세기 이전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⁴⁰ 하지만 점차 관련 연구의 진전에 따라 비파형동검의 조형을 요서지역에서 찾는 견해가 많아지면서, 쌍방식의 비파형동검의 편년 역시 기원전 9세기 이후로 조정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최근 쌍방식의 비파형동검이 신라상층문화기의 신민 복외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⁴¹ 관련 문화의 하한연대가 대체로 기원전 10세기

3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앞의 책, 51~53쪽.

40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4, 402~404쪽; 이영문, 1991, 「한반도출토 비파형동검 형식분류 시론」, 『발물관 기요』 7, 69~70쪽.

41 신민 복외유적 출토 비파형동검에 대한 분석과 문화성격 및 그 시간성에 대한 기존 논의는 아래 이후석의 글에서 상세하게 분석된 바 있다.

무렵⁴²이라는 점에서 쌍방고인들의 연대 역시 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복외유적의 보고서가 정식으로 출간되지 못하였기에, 이 글에서는 쌍방문화의 중심연대를 기원전 9세기 무렵으로 잠정하지만, 그의 상한연대는 보다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참고로 쌍방6호묘에 인접하여 자리한 쌍방2호묘(탁자식)에서는 쌍타자3기 문화의 전형유물인 그물문양(망격문)호가 1점 출토되었다. 이러한 특징의 토기는 쌍타자3기의 적석묘유적인 우가촌 타두유적에서 다량 확보된 바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저부(굽)에 얇은 대각을 두는 방식의 소위 권족호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특징적인 형태의 저부방식은 쌍방6호묘 출토 미송리형토기에도 적용되어 상호 영향관계가 인정된다. 특히 타두유적에서는 이러한 저부방식(권족)을 유지하면서 미송리형토기와 거의 동일한 기형과 문양구성을 가진 현문호류가 여러 점 출토된 바 있다(그림 6 참조). 따라서 쌍방6호묘에서 출토된 미송리형토기의 시간성 역시 이러한 쌍타자3기문화 후반부에 제작된 부장전용 토기·망격문·현문호류 등·과의 관계상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쌍방문화의 하한연대에 대해서는 고인돌에서의 출토유물이 매우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이 유보된다. 다만 수암 백가보촌과 개주 패방유적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의 형태가 당지에서 후속하는 상마석유형 및 요동 북부지역 정가와자유형기의 요양 탐만촌 출토품과 대체로 유사한 점에서 기원전 5~4세기 무렵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기 요동 북부지역과 서북한지역에서는 고인들의 축조가 한층 활성화되며,⁴³ 한반도 남부지역의 경우 김해 구산동유적과 같이 기원 전후 무렵까지 고인들이 사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쌍방문화계 고

이후석, 2019, 「요령지역 비파형동검의 등장과 그 배경」, 『한국고고학보』 111; 이후석, 2021,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청동 네트워크와 교류」, 『선사와 고대』 66.

42 霍東峰·華陽, 2008, 「試論新樂上層文化」, 『遼寧省博物館館刊』; 付永平, 2011, 「關於新樂上層文化相關問題的探討」, 『東北史地』 2; 李樹義, 2014, 「關於新樂上層文化墓葬相關問題的探討」, 『草原文物』 1.

43 오대양, 2019, 앞의 글, 180~190쪽 참조.

인돌 역시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청동기문화가 주로 비파형동검문화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와 관계된 쌍방문화의 연대 범위는 최대 기원전 10~4세기 무렵 정도로 잠정하고자 한다.

쌍방문화의 시간성을 이와 같이 규정하게 된다면 기존에 논의되어오던 쌍방문화의 분포권역 역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요동반도 동북단의 대양하유역에서는 봉성 동산유적과 서산유적류의 개석IIa식(토광형 초기식)과 개석III식(할석형) 고인돌이 확인된다.⁴⁴ 두 유적은 소하천을 경계로 서로 마주 보는 형상의 지근 거리에 위치하는데, 동산유적에서는 개석IIa식(토광형 초기식)과 개석III식(할석형)이 모두 확인되며, 서산유적에서는 개석III식(할석형)만 조사되어 고인돌 형식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앞선 검토와 같이 이러한 동산유적과 서산유적에서는 모두 마성자문화 후반부의 전형토기로서 수이호와 횡이관, 고식의 미송리형토기 등이 공반되며, 무덤의 바닥처리나 벽석부 조성 방식이 동굴묘적 전통에 가까워 그의 문화성격이 마성자문화에 보다 근접함을 알 수 있다.

관련 연구의 초창기 두 유적은 벽류하유역의 보란점 쌍방유적과 마찬가지로 대석개묘류의 무덤으로 분류되어 우리 학계에서의 개석식 고인돌과 유사한 범주에서 다뤄지곤 하였다.⁴⁵ 특히 3곳의 유적 모두 공통적으로 미송리형토기가 공반된 점에서 문화성격 역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위논문에서 고인돌의 형식을 매장주체부의 구조에 따라 판석형과 토광형, 할석형, 혼축형 등으로 구분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만약 기존의 시각과 같이 위의 세 유적을 단일하게 개석식 고인돌로 범주화할 경우 이 지역 고인돌 문화의 성격과 출현 배경 및

44 許玉林, 崔玉寬, 1990, 「風城縣大石蓋墓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崔玉寬, 1997, 「風城東山, 西山大石蓋1992年墓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中日考古合作研究測量組, 1997, 「遼寧省風城縣東山大石蓋墓墓地考古勘測」, 『東北亞考古學研究-中日合作研究報告書』, 文物出版社.

45 許玉林·許明綱, 1981, 「遼東半島石棚綜述」, 『遼寧大學學刊』 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4, 『遼東半島石棚』, 遼寧科學技術出版社.

시·공간적 변이에 따른 각 형식별 변이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요동반도 지역에서는 매장주체부가 판석형(본고의 탁자식과 개석I식: 석관형)인 고인돌은 모두 벽류하유역에서만 확인되며, 동산과 서산유적이 자리한 요동반도 동북부의 대양하유역에서는 모두 토광형과 할석형(이 글의 개석IIa·III식)만 확인되는 등 각 형식별 고인돌의 분포상이 명확하다. 나아가 요동반도 지역 개석식 고인돌의 분포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란점 벽류하유적의 개석식 고인돌과 보다 세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보란점 벽류하유적은 다시 유둔과 교둔유적으로 구분되며 상호 800m의 거리에 위치한다.⁴⁶ 아울러 쌍방유적과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점에서 상호 연관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벽류하유적에서는 모두 11기의 고인돌(보고서: 대석개묘)이 발굴되었으나 보고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구체적인 형식을 알기 어렵다. 다만 약보고에서는 대부분의 고인돌은 토광을 파거나 혹은 토광을 파지 않고 지표 위에 몇 개의 석재를 놓고 덮개돌을 덮었다는 설명이 있다. 또한 개별 무덤의 소개가 이뤄진 교둔의 21호묘와 23호묘는 공통적으로 2개의 대석판이 겹쳐진 상태로 조사되었고, 덮개돌 하부에서 소규모의 토광이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겹쳐진 2개의 대석판을 덮개돌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겹쳐진 2개의 대석판 외에 덮개돌이 별도로 존재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유적의 개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몇 개의 석재를 놓고 덮개돌을 덮었다는 설명에서 추론해보건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해당 무덤은 탁자식의 무너진 모습일 수 있다.

이외에 교둔유적의 24호묘는 커다란 덮개돌 하부에 장방형의 토광과 함께 얇은 판석재 3개를 세운 상자형의 석상이 확인되었고, 유둔유적의 15·16호묘에서는 덮개돌과 토광은 없이 유사한 규모의 상자형 석상만 조사되었다. 기존 논고에서는 이러한 24호묘의 묘실 구조에 따라 토광형으로 분류한 바 있지만, 엄격히 따져보았을 때 이는 이 글의 개석I식(석관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46 旅順博物館, 1984, 「遼寧大連新金縣碧流河大石蓋墓」, 『考古』 8, 709~711쪽.

아울러 유적 주변에서는 반
침돌이 무너진 탁자식 고인
돌이 다수 분포하는데, 특히
앞서 본 교둔 21호와 23호가
탁자식 고인돌로 추정되는
만큼, 해당 유적에는 이 글의
탁자식과 개석I식(석관형) 고
인돌이 공존한 것으로 여겨
진다.

이러한 양상은 벽류하유
적 내 부장품 구성이 대부분
쌍타자3기(유둔16호⁴⁷)와 쌍
방문화기(교둔23호: 이중구연
토기, 교둔21호: 동부용범)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탁자식과

개석I식이 공존한 쌍방유적과 동일하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탁자식
인 쌍방유적의 2호묘에서도 쌍타자3기계의 그물문양(망격문)호가 출토되었고, 개
석I식의 쌍방6호에서는 교둔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형태의 청동도끼와 단
사선문이 없는 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되었다. 이에 상호 2km 미만 거리에 인접한
벽류하유적과 쌍방유적은 동시기성을 가진 쌍방문화의 초기유적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벽류하유역에 중심한 쌍방문화의 고인돌(탁자식과
개석I식)은 쌍타자3기문화에 연속되거나 병행되는 측면이 강하며, 대양하유역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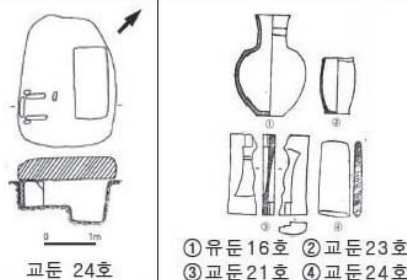


그림 11 보란점 벽류하유적 고인돌군

47 장경호의 경부에 2조의 침선문이 둘러져 있어 쌍타자2기문화에 유행한 철룡문 장경호와 유사하다. 상마석 웅관묘와 단타자·고려채 유적 등 쌍타자 2기문화의 관련 유적에서 자주 보이며, 이러한 형태가 대취자 상층의 쌍타자3기문화에서도 간헐적으로 확인된다. 교둔21호묘 출토품은 장경호의 경부 변화와 침선문의 퇴화상에서 대취자상층(쌍타자3기층)의 것에 가깝다.

의 동산(개석Ⅱa식·Ⅲ식)과 서산류(개석Ⅲ식) 고인돌은 마성자문화에 보다 친연성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산유적에서 매장주체부 상부의 커다란 덮개돌은 분명-보다 빠른 시간성을 보이는-벽류하유역의 고인돌문화(개석Ⅰ식:석관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두 지역 개석식 고인돌 축조집단의 교류나 영향관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개석Ⅱa식·Ⅲ식이 주로 조성되며, 내부에 미송리형토기와 횡이관류가 공반되면서 비파형동검이 누락된 봉성동산과 서산류의 유적은 쌍방문화의 형성 직전 대양하유역에서 지역화된 초기 고인돌문화의 한 분파로서 동산유형에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산유형의 상한연대는 마성자문화3기의 전형유물이 공반되는 점에서 대략 기원전 12세기 무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쌍타자2기에서 3기문화로의 전환기(전 16~14c) 벽류하유역에서는 왕둔유형(입지: 구릉 사면부)의 개석Ⅰ식과 화가와보유형(산 정상부 고지대)의 전형 탁자식 고인돌이 서로 입지를 달리하며 병존하는데,⁴⁸ 비파형동검문화기에 접어들면 이러한 개석Ⅰ식과 탁자식이 단일 유적 내 동일 입지상에 공존하기 시작한다(쌍방유적, 벽류하유적 등).⁴⁹

48 이 시기 왕둔유적(개석Ⅰ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사례는 보란점 핵도구 및 개주패방촌의 파괴된 석판묘 등이 있으며, 화가와보유적류(탁자식)로는 와방점 화동광유적이 대표적이다. 묘실 내에서는 벽류하 하류지역 쌍타자2~3기문화의 전형유물로서 단타자토광묘 및 상마석옹관묘, 고려채유적 등 출토품과 동일한 무문의 사경호와 구연부 철릉문호, 이중구연관 등이 개별적인 조합을 보인다.

49 이러한 요동반도 지역 초기 고인돌의 지역성과 유형화에 대한 문제는 지면관계상 후속 논고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것이다. 다만 이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논지를 보충하면 벽류하유역 초기 고인돌문화를 대표하는 개석Ⅰ식 고인돌의 전형유적인 왕둔유형과 탁자식 고인돌의 전형유적인 화가와보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이들은 대략 기원전 16~14세기 무렵 벽류하상류지역에서 쌍타자2~3기문화와 병행되며, 비파형동검문화기 쌍방유적에서 두 유형(개석Ⅰ식과 탁자식)이 공존하는 쌍방문화로 전환된다. 필자의 주요 논지는 고인돌의 발생기적 형태를 보이는 이러한 왕둔유형(개석Ⅰ식)의 출현은 묘실구조 및 부장품 구성에서 마성자문화의 확장성과 관계되지만, 점차적으로 당지의 쌍타자3기문화 요소가 보다 강화되면서 적석묘역이 부가된 화가와보유형(탁자식)이 우세해진 것으로 파악한다. 여기에 거석덮개를 중심에 둔 의례활동, 즉 집약농경과 조상숭배에 기반한 시조신앙이 본격화(오대양, 2022, 앞의 글)되면서 고인돌의 규격이 점차 대형화된 것으로 본다.

동산유형의 개석Ⅱa·Ⅲ식 고인돌은 쌍방문화의 형성 직전인 마성자문화의 후반부에 즈음하여 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벽류하유역에 먼저 정착한 왕둔유형의 개석(I)식 고인돌과 접촉하여 모제를 활용한 제사의례에 거석 덮개의 기능과 규격을 차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왕둔유적에서 발굴된 1~3호묘 모두 묘실 구조가 마성자문화2기(전 16~14c)부터 확인되는 여러 개의 판석을 세워 묘실을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⁵⁰ 내부 공반유물 중 수이호 1점(왕둔1호)이 당시 마성자문화에서만 확인되던 양식인 점에서, 왕둔유형의 개석Ⅰ식 고인돌의 출현 배경 역시 마성자문화와의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왕둔유형에서는 대부분 쌍타자문화계의 특징적 토기류가 공반되며, 벽류하유역이 줄곧 쌍타자2~3문화의 권역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문화적 배경에는 쌍타자문화의 색채가 보다 농후할 것으로 본다. 이는 결국 동산유형이 형성되는 시점(전 12c)과 맞물려 태자하의 중하류지역(요양 집관청·본계 대가보자 등)에서 동굴묘적 전통에서 탈피한 석관묘문화가 파생되는 점⁵¹과 연동되어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요컨대, 마성자문화의 후반부 전통적인 방식의 동굴묘제에서 탈피되는 과정 중 태자하 중상류지역에서는 석관묘문화가 새롭게 태동되며, 태자하 상류에 인접한 대양하유역에서는 그와 상호작용하였던 왕둔유형에 영향을 받아 거석덮개를 활용한 묘제방식, 즉 동산유형의 개석Ⅱa·Ⅲ식 고인돌이 파생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동산유형은 쌍방문화의 표지유적인 쌍방유적에 비해 그 상한연대가 다소 앞서 있지만, 인접한 서산유적(1호묘: 동산유형)의 경우 쌍방6호의 미송리 형토기와 동일한 외형 및 문양구성의 것이 부장된 점에서 양자가 동시기에 병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내용에 바탕 한 주변지역과의 상호작용 및 그 의미하는 바는 아래에서 연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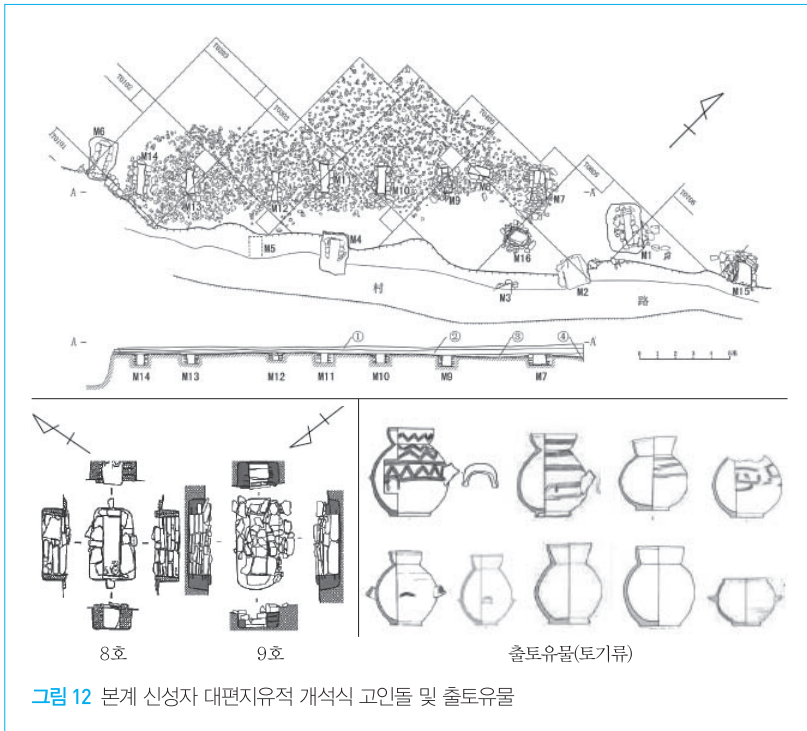
5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馬城子』, 文物出版社, 286~287쪽 참조.

51 오대양, 2015b, 앞의 글, 355~360쪽 참조.

2.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상호작용과 그 의미

앞서 검토된 요동반도 지역의 동산유형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개석식 고인돌이 요동 북부 태자하상류의 본계 신성자유적에서도 조사되었다. 고인돌의 형식은 모두 개석Ⅲ식(할석형)과 개석Ⅳ식(혼축형)으로 미송리형토기와 황이관류가 공반되면서 비파형동검이 누락된 공통점-동산유형과-을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요동지역 청동기(비파형동검)문화의 한 분파로 인식되던 신성자문화를 재고하여 동산유형에서 확장된 요동 북부지역 개석식 고인돌의 한 지역형으로서 신성자유형을 제안한다.

관련 유적은 본계 신성자유적을 전형으로 하며, 동요하 상류의 동요 려명(개



석Ⅲ식)과 요원 고고촌(개석Ⅲ·Ⅳ식), 철령 건재촌·무순 산용유적(탁자식과 개석Ⅲ·Ⅳ식 공존) 등이 포함된다. 주요 특징은 작은 소하천 주변에 형성된 저평한 구릉사면과 그 말단부에 중소 군집을 이루며 주로 개석Ⅲ·Ⅳ식이 중심이지만, 후기에 이르면 탁자식과 공존하게 된다. 이러한 신성자유형에 속한 고인돌유적에서는 아직까지 비파형동검의 출토 사례가 보고된 바 없지만, 미송리형토기와 함께 마성자문화의 후기요소가 잔존하는 무문의 장경호와 관류가 복합되어 그 중심연대는 기원전 9~8세기 무렵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신성자유형의 하한연대는 비교적 늦은 시간성을 보이는 개석Ⅱb식 고인돌과 비교하여 살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빈 왕청문유적(개석Ⅱb)에서는 동병철검과 철부, 동탁, 파수부 점토대토기 등이 공반되어 기원전 2세기 무렵으로 편년된다. 인접한 환인 광복촌유적에서도 관련 유물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기암부를 깊고 넓게 판 묘광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묘광 둘레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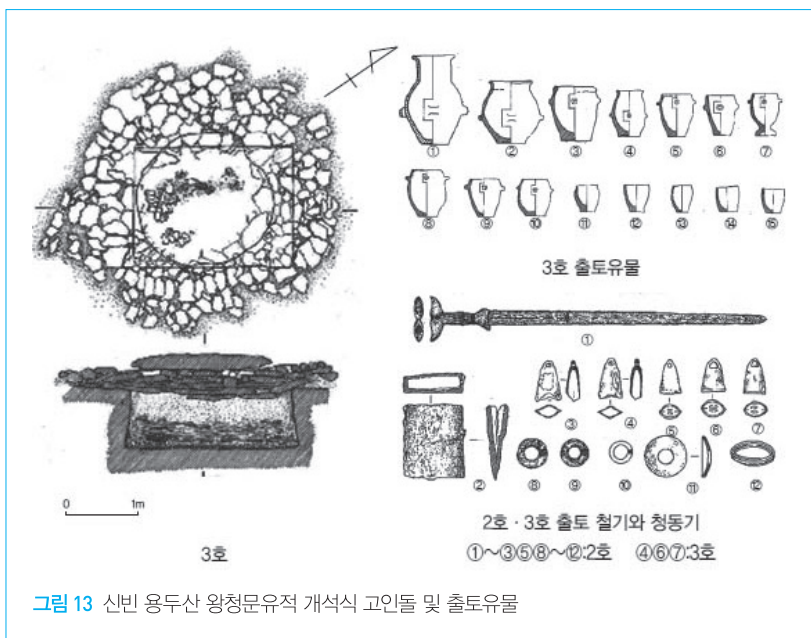


그림 13 신빈 용두산 왕청문유적 개석식 고인돌 및 출토유물

량의 적석시설이 남아 있거나 혹은 묘광바닥부에 목재흔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에 이 지역 고인들의 소멸기적 현상을 보이면서, 동병철검과 철부 등 초기 철기 문화가 공반된 개석Ⅱb식 고인들은 신성자유형과 별개로 왕청문유형으로 구분하며, 이를 토대로 신성자유형의 하한연대는 기원전 3세기까지로 잠정한다.

다음 요동 북부지역에서 탁자식 고인들은 대체로 기원전 7~6세기 무렵부터 신성자유형과 공존한 것으로 파악된다. 편년 가능한 유물이 확인된 유적 중 미송리호토키의 후기식과 동도 등이 수습된 혼하 상류 개원 건재촌유적의 사례가 가장 빠른 시간성을 보인다. 이곳에서는 수습여 기의 개석Ⅲ·Ⅳ식 고인들이 탁자식과 함께 구릉 사면부를 따라 여러 줄로 배열된 양상을 보이는데, 입지와 분포 패턴 및 묘실 구조와 출토유물상에서 대양하의 동산유적 및 태자하 상류의 신성자유적과 거의 흡사하다. 다만 탁자식 고인들이 공존하는 양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쌍방문화계 탁자식 고인들이 뒤늦게 요동 북부지역에 확산되는 과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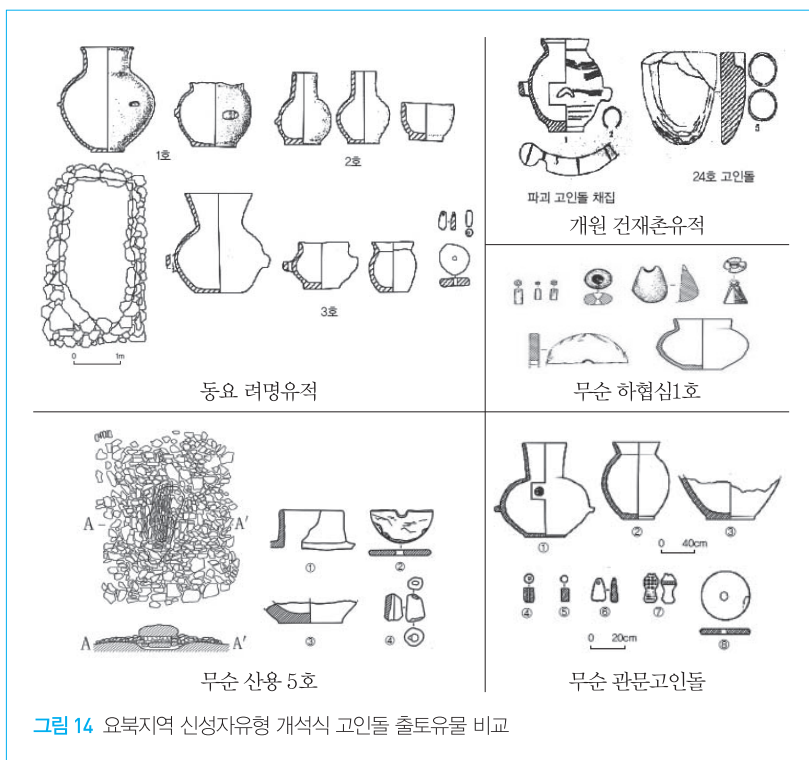
주요 사례로서 혼하 중류의 무순 하협심유적은 대규모의 적석시설이 부가된 탁자식 고인돌군이다. 출토유물은 당지의 특징적인 호형토기와 관류로서 중심 연대는 기원전 6~4세기로 편년된다.⁵² 요북지역에서 이처럼 시간성이 명확한 탁자식 고인들의 발굴 사례가 부족하여 확인하기 어렵지만, 인접한 무순 관문(전 6~5c)⁵³과 산용유적(전 5~3c)⁵⁴에서도 유사한 부장성의 탁자식 고인들이 조사되어 참고가 된다.

52 참고로 하협심유적의 2호 고인돌에 잔존하는 다량의 적석시설 내에서는 철확(부)가 수습된 사례가 있지만, 이와 함께 북송대의 동전이 다수 수습된 정황에서 이를 그대로 편년의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벽석부 내에서 출토된 당지의 전형토기류 및 유사한 구조의 관문 고인돌에서 출토된 정가와유형계 호형토기 등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원전 6~5세기 무렵의 편년안을 수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撫順市博物館, 2008, 「撫順河夾心墓地發掘簡報」, 『遼寧省博物館學刊』 3, 334쪽 참조).

5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7, 「趙家墳石棚發掘簡報」, 『北方文物』 2.

54 武家昌, 1997, 「撫順山龍石棚與積石墓」, 『遼海文物學刊』 1.

앞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요동 북부지역은 마성자문화의 영향이 강한 지역색을 보인다. 후술할 이도하자문화 역시 마성자문화와 연속성 강한 모체전통(석관묘)을 고수하며, 고인돌의 형식 역시 그와 관계된 개석Ⅲ·Ⅳ식(신성자유형)이 주종을 이룬 점에서 동굴묘적 전통에서 확장된 의례활동이나 신앙체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부장토기 중에서 마성자문화 후기의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는 호형토기가 상당기간 존속하는데, 그러한 요소가 환인 오녀산성의 청동기시대 후기문화층을 비롯하여 신성자와 건재촌유적을 거쳐, 하협심과 관문 및 산용 등의 고인돌유적에까지 적용되는 점에서 역시 이 지역 일대 고인돌문화의 전개상에는 당지의 토착문화가 강하게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범마성자문화계 요소가 다소 약화되기 시작하는 기원전 7~6세기



무렵이 되면 남부지역의 특징적인 탁자식 고인돌과의 공존상이 인상적이다.

아울러 이 시기에 즈음하여, 요하 하류와 태자하 중하류 사이의 심양과 본계 등지에서는 요서지역의 영향성이 인정되는 정가와자유형이 태동하는 점에 주목한다. 요동지역에서 요서계 청동기문화소가 확인되는 시점은 본계 양가촌 1호묘(파괴)로 볼 수 있다. 파괴된 석묘 내부에서 십이대영자식의 다뉴조문경과 비파형동검이 공반되어 대체로 기원전 7세기 무렵으로 편년된다. 이후 기원전 6~5세기 무렵부터는 이와 관계된 것으로 여겨지는 정가와자유형계 목곽묘와 토광묘제가 요하 하류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인다.

이처럼 기원전 7~6세기 무렵의 요동북부 지역은 그동안 지배적이던 토착 문화의 영향력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주변지역과의 교류상이 다소 강화된 문화 복합도가 인상적이다. 아마도 이시기에 즈음하여 요동 북부의 혼하 중상류 일대에서 탁자식 고인돌을 활용한 의례활동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원전 6~5세기 무렵 요서계 청동기문화에 기반한 정가와자유형의 발전상과 맞물려, 이를테면 그의 반동작용으로서 신성자유형의 주요 권역 내에서도 탁자식과 개석식 고인돌이 공존하게 된 배경으로 파악한다.⁵⁵ 이는 결국 상당기간 기층문화(묘제와 장속) 및 거석덧개를 활용한 의례활동을 공유해온 요동 각지 제 집단의 결속을 초래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요컨대, 문화배경이나 신앙적 계통을 달리하였던 요서계 청동기문화의 확장성(정가와자유형의 전개)은 그간 기층문화를 공유해온 요동지역 토착 제 집단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이는 결국 거석덧개에 기반한 무덤제사(조상숭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지역적·혈연적 기반이 부각되는 집단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관련하여, 요동 북부지역에서 고인돌과 석관묘제가 단일유적에 공존하는

55 이러한 사실은 최근까지의 조사성과에 기초한 것으로, 아직까지 요동 남북의 두 지역에서 확인된 고인돌유적에서는, 적어도 기원전 7세기 무렵까지는 이 글에서 재정 의한 탁자식과 개석Ⅱ·Ⅲ·Ⅳ식 고인돌이 단일유적 내 공존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는 점에 근거한다. 후속 조사를 기대한다.



그림 15 요동 북부지역 석관묘 분포도(오대양, 2016, 지도 1 재인용)

유일한 발굴사례로서 앞서 검토한 무순 하협심유적을 들 수 있다. 앞서 요동 북부지역의 청동기(비파형동검)문화의 대표성은 석관묘유적이 중심이 되는 이도하자문화를 제안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도하자문화의 성격은 전단계의 마성자문화와 연속이 강하며, 모두 석관묘유적이면서 비파형동검과 동모, 동부 등이 미송리형토기와 황이관 및 발류, 석부와 석검 등과 개별적으로 공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동시기 개석식 고인돌이 중심이 되는 신성자유형과도 분포상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아직까지 관련 문화·유형의 초기(전 9~7c) 유적 중 고인돌과 석관묘 등 두 묘제가 단일유적에서 공존된 사례가 없어 양자의 구분은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하협심유적의 석관묘 2기 모두 부장유물이 없어 조성시점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유적 내 다량의 적석묘역이 부가된 4기의 탁자식 고인돌과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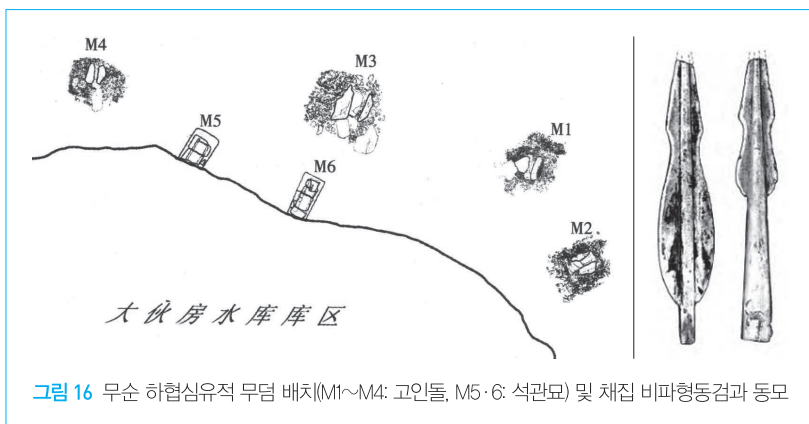
상⁵⁶으로 볼 때 양자의 문화적 상관성이 인정된다. 다만 하협심유적의 채집품으로 보고된 비파형동검의 형식이 신민 북외유적이나 철령 대산취차 출토품과 닮아 있는 점에 유의하게 된다.⁵⁷ 앞서 간략히 살핀 바와 같이 신민 북외유적의 비파형동검은 신라 상층문화기에 속하는 것으로 그의 하한연대는 기원전 10~9세기 무렵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시간성을 보이는 이도하자문화기의 서평성신촌석관묘에서도 북외 및 하협심유적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의 비파형동검이 미송리형토기와 공반되어 하협심 석관묘(2기)의 시간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하협심유적의 석관묘와 고인돌의 배치상을 고려할 때에도, 하천부단애면에 접해 있는 이도하자문화기의 석관묘군이 먼저 조성된 후, 추가로 탁자식 고인돌 4기가 배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글에서 하협심유적의 탁자식 고인돌은 기원전 6~4세기로 편년하기에, 요북지역에서 이처럼 다양한 묘제의 공존상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가와자유형의 전개가 주요하게 작용된 것으로 본다.

주목되는 점은 쌍방문화기 요동반도 지역에서도 석관묘유적이 발굴된 명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관련연구의 초창기,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쌍방 6호묘를 석개석관묘로 명칭하거나 개주 패방촌의 파괴된 고인돌(이 글의 개식I식) 다수가 판석묘로 보고된 이유로 요동반도 지역에서 비파형동검문화기의 석관묘가 존재한 것으로 오인된 측면이 있다. 특히 늦은 시기의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패방 1호 고인돌 주변에서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파괴된 판석묘의 잔해가

5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撫順市博物館, 2008, 「撫順河夾心墓地發掘簡報」, 『遼寧省博物館學刊』 3, 334쪽.

57 그간에 채집품으로 알려진 하협심유적 비파형동검과 동모는 조사자의 의견상 채집 지점에 바로 접하여 조사된 석관묘의 부장품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시의 조사과정 및 관련 유물의 채집 상황은 蕭景全·鄭辰의 2014년 글(「遼東地區青銅時代考古學文化的相關問題研究-以撫順地區的考古資料爲中心」, 『遼寧省博物館』 館刊號) 19쪽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일부 소개된 바 있는데,⁵⁸ 약보고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판석묘의 잔해 주변에는 다량의 적석부가 잔존하며, 그 주변에서 탁자식 고인돌의 잔해도 다수 확인된다고 한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요동과 서북한 등지의 석관묘유적에서는 이러한 적석시설이 부가된 석관묘유적이 발굴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패방 등지에서 보고된 판석묘들은 탁자식 고인돌이거나 이 글의 개석I식(석관형) 고인돌의 잔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파형동검문화기 요동반도 지역에서는 석관묘제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파형동검문화기 요동지역 석관묘문화의 중심성 역시 마성자문화에서 연속된 이도하자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도하자문화와 동시기성을 가지는 신성자유형 역시 그의 묘제적 전통(개석Ⅲ·Ⅳ식 고인돌)과 장속 특징은 마성자문화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는 상당한 친연성-계통적·혈연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쌍방문화(탁자식과 개석I식)의 형성 배경에는 남부지역의 특징적인 쌍타자3기문화의 요

58 馮永謙 主編, 1996, 『營口市文物志』, 遼寧民族出版社, 96~98쪽, 372쪽.

소가 주요하게 작용한 점을 상기한다면, 요동지역 초기 고인들의 형식과 분포상 및 문화성격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즉 그 지역성의 문제 역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요동반도 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형식 특징 및 그의 분포권역에서 일정한 차이-지역성의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각 묘제의 문화적 배경과 연동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거석덧개(고인돌)를 활용한 무덤제사와 의례활동 등에서 예상되는 신앙체계의 한 양태로서 단일 묘역(성소) 내 여러 성격의 묘제가 복합된 공동묘역이 형성되는 배경에는 공동의 조상을 대상하여 제 집단의 결속을 다지고자 한 시대적 배경도 간략히 되짚어보았다.

그러한 공동묘역 내 제사의례의 중심성은 외형적 특수성 및 주변과의 경관적 효과를 고려하여 배치된 탁자식 고인돌에 부여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는 결국 요동반도의 벽류하유역에서 지역화된 초대형 고인돌의 존재성, 나아가 그것에 부여되었을 제사·의례적 기능이 요동 북부지역으로 확장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시대적 동인은 문화배경이나 신앙적 계통을 달리하였던 요서계 십이대영자문화의 확장(정가와자유형의 전개) 속에서 그동안 기층문화(묘제와 장속)를 공유해온 토착 제 집단의 결속이 강화되었고, 이는 결국 거석덧개에 기반한 무덤제사(조상숭배)를 공유하거나 이를 강조(시조신앙)하는 방식으로 지역적·혈연적 기반이 부각되는 집단 정체성-공동체적 이데올로기-이 형성되는 배경으로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아마도 사서에서 예나 맥, 혹은 예맥으로 표현되었던 하유역 일대 토착집단의 형성과정 및 한국사의 초기국가로서 고조선이나 부여의 성립과정과 맞물려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 오강원, 2008, 『서단산문화와 길림 지역의 청동기문화』, 학연.
오대양, 2020, 『북한지역의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조선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4, 『遼東半島石棚』, 遼寧科學技術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馬城子』, 文物出版社.
趙賓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雙砬子與崗上』, 科學出版社.
馮永謙 主編, 1996, 『營口市文物志』, 遼寧民族出版社.
華玉冰, 2011,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科學出版社.

논문

- 김경택, 2014, 「청동기시대 복합사회 등장에 관한 일 고찰」, 『호남고고학보』 46.
김장식, 2007,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복합과정 연구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17.
김정학, 1967, 「한국무문토기문화의 연구」, 『백산학보』 3.
김태연·하문식, 2017, 「마성자문화관련 유적 출토 가락바퀴 연구」, 『선사와 고대』 52.
박철, 2010, 「표대유적에서 발굴된 고인돌무덤」, 『조선고고연구』 1.
배진성, 2015, 「무문토기문화의 설정과 경계」, 『영남고고학』 72.
백종오·오대양, 2015, 「마성자문화 동굴묘의 형식과 전개양상」, 『동아시아고대학』 40.
석광준, 1974, 「오덕리고인돌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성춘택·문수균·양해민, 2018, 「물질문화의 유형과 고고학 분석의 단위」, 『한국고고학보』 109.
오강원, 1999, 「서단산문화 석관묘유적의 연대편년」, 『선사와 고대』 13.
——, 2003,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지역간 교섭관계」,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013, 「요령 지역의 청동기·초기 철기시대 복합사회의 형성과 사회 변동」, 『선

- 사와 고대』 38.
- 오대양, 2014, 「북한지역 고인돌유적의 특징과 성격」, 『선사와 고대』 40.
- _____, 2015a,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양상과 전개-소위 쌍방·미송리문화를 중심으로」, 『동양학』 61.
- _____, 2015b, 「북한지역 석관묘유적의 특징과 성격」, 『한국사학보』 61.
- _____, 2016, 「대련지역 초기적석총유적의 현황과 특징」, 『백산학보』 105.
- _____, 2017, 「요동지역 석관묘문화의 특징과 전개양상 검토」, 『한국사학보』 66.
- _____, 2019, 「요동과 길림, 서북한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전개양상 검토」, 『백산학보』 115.
- _____, 2021, 「송국리유적 석관묘의 특징과 성격 재검토」, 『한국청동기학보』 28.
- _____, 2022, 「금강하류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제사·의례적 성격 고찰」, 『한국고고학보』 125.
- _____, 2023, 「묘제를 통해 본 고조선문화의 정체성과 지역성 고찰」, 『고조선단군학』 50.
- 이종수, 2008, 「서단산문화 석관묘의 특징과 기원에 대하여」, 『선사와 고대』 28.
- 이영문, 1991, 「한반도출토 비파형동검 형식분류 시론」, 『발물관기요』 7.
- 이창규, 2015, 「충설_한국 청동기문화의 시·공간적 위치」,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중앙문화재단연구원 학술총서 26), 진인진.
- _____, 2016, 「공렬토기문화와 역삼동유형」, 『역삼동유형의 시공간적 위치 및 문화적 의의』, 제10회 한국청동기학회학술대회 자료집.
- 이후석, 2019, 「요령지역 비파형동검의 등장과 그 배경」, 『한국고고학보』 111.
- _____, 2021,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청동 네트워크와 교류」, 『선사와고대』 66.
- 임상택, 2017, 「한국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신석기·청동기시대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2.
- 천선행, 2022, 「무문토기문화권에서의 청동기시대 시작과 끝」, 『호남고고학보』 71.
- 천선행·장순자, 2012, 「마성자문화 동굴묘 출토 토기 변천과 전개」, 『영남고고학』 63.
- 하문식, 2013, 「요남지역의 돌무지무덤연구」, 『선사와 고대』 38.
- _____, 2014, 「고조선 시기의 동굴무덤 연구」, 『백산학보』 98.
- _____, 2020, 「초기 고구려의 기층문화연구 ②- 신빈 지역 동굴무덤의 신자료」, 『선사와 고대』 63.

- 霍東峰·華陽, 2008, 「試論新樂上層文化」, 『遼寧省博物館館刊』.
-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4.
- 武家昌, 1997, 「撫順山龍石棚與積石墓」, 『遼海文物學刊』 1.
- 本溪市博物館·本溪縣文物管理所, 2010, 「遼寧本溪縣新城子青銅時代墓地」, 『考古』 9.
- 付永平, 2011, 「關於新樂上層文化相關問題的探討」, 『東北史地』 2.
- 旅順博物館, 1984, 「遼寧大連新金縣碧流河大石蓋墓」, 『考古』 8.
- 吳大洋, 2013, 「朝鮮半島北部地區石構墓葬研究-兼論中國東北地區之比較」,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7, 「趙家墳石棚發掘簡報」, 『北方文物』 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撫順市博物館, 2008, 「撫順河夾心墓地發掘簡報」, 『遼寧省博物館學刊』 3.
- 遼寧省西豐縣文物管理所, 1995, 「遼寧西豐縣新發見的幾座石棺墓」, 『考古』 2.
- 王冰·萬慶, 1996, 「遼寧大連市王寶山積石墓試掘簡報」, 『考古』 3.
- 王薺, 2004, 「雙房遺存研究」, 『慶祝張忠培先生七十歲論文集』, 科學出版社.
- 李樹義, 2014, 「關於新樂上層文化墓葬相關問題的探討」, 『草原文物』 1.
- 朱永剛, 1982, 「東北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文化區系」, 『考古學報』 2.
- 中日考古合作研究測量組, 1997, 「遼寧省風城縣東山大石蓋墓墓地考古勘測」, 『東北亞考古學研究-中日合作研究報告書』, 文物出版社.
- 陳光, 1989, 「羊頭窪類型研究」, 『考古學文化論集』(二), 文物出版社.
- 崔玉寬, 1997, 「風城東山, 西山大石蓋1992年墓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 許玉林·崔玉寬, 1990, 「風城縣大石蓋墓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 許玉林·許明綱, 1981, 「遼東半島石棚綜述」, 『遼寧大學學刊』 1.

요동반도 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지역성과 그 의미

— 고인돌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오대양

이 글은 요동지역 청동기시대문화의 전개상에 반영된 주요 묘제의 변화상에 집중하여, 지역별 문화유형의 특징 및 그것을 향유한 지역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그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특히 요동반도 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형식 특징 및 그의 분포권역에서 일정한 차이-지역성의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각 묘제의 문화적 배경과 연동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거석덧개(고인돌)를 활용한 무덤제사와 의례활동 등에서 예상되는 신앙체계의 한 양태로서 단일 묘역(성소) 내 여러 성격의 묘제가 복합된 공동묘역이 형성되는 배경에는 공동의 조상을 대상으로 하여 제 집단의 결속을 다지고자 한 시대적 배경도 간략히 되짚어보았다. 그러한 공동묘역 내 제사의례의 중심성은 외형적 특수성 및 주변과의 경관적 효과를 고려하여 배치된 탁자식 고인돌에 부여되었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결국 요동반도의 벽류하유역에서 지역화된 초대형 고인돌의 존재성, 나아가 그것에 부여되었을 제사·의례적 기능이 요동 북부지역으로 확장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동인은 문화배경이나 신앙적 계통을 달리 하였던 요서계 십이대영자문화의 확장(정가와자유형의 전개) 속에서 그동안 기층

문화(묘제와 장속)를 공유해온 토착 제 집단의 결속을 초래하였고, 이는 결국 거석덧개에 기반한 무덤제사(조상숭배)를 공유하거나 이를 강조(시조신앙)하는 방식으로 지역적·혈연적 기반이 부각되는 집단 정체성-공동체적 이데올로기-이 형성되는 배경으로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사서에서 예나 맥, 혹은 예 맥으로 표현되었던 요하유역 일대 토착집단의 형성과정 및 한국사의 초기국가로서 고조선이나 부여의 성립과정과 맞물려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주제어: 요동반도지역, 청동기시대묘제, 고인돌문화, 비파형동검문화, 쌍방문화, 강상문화

ABSTRACT

The Locality and Implications of Funerary Rituals of the Bronze Age in the Liaodong Peninsula Region: Focusing on the Interaction with Dolmen Culture

Oh Daeyang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hanges in major funerary rituals during the Bronze Age in the Liaodong region.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cultural types and the interactions and implications among local communities that practiced them. In particular, the study delves into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Bronze Age funerary rituals in the Liaodong Peninsula. It also explores the causes of certain differences in their distribution areas, addressing the issue of locality in particular, in conjunction with the cultural background of each funerary ritual.

Communal cemeteries, a combination of different types of cemeteries within a single site, emerged as part of a belief system associated with funerary rituals and ritual activities utilizing megalithic covers (dolmens). This study briefly review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se practices, emphasizing the strengthening of group cohesion through common ancestors. The core of the rituals in such cemeteries likely centered on table-type dolmens, considering their external specificity and the landscape effect on the surrounding area.

This phenomenon may be a consequence of the presence of localized giant dolmens in the Biliu River Basin of the Liaodong Peninsula and the extension of their ritual and ceremonial functions to the northern Liaodong region. These motivators led to the cohesion of indigenous groups sharing a substrate culture amidst the expansion of the Shiertaiyingzi Culture of the Liaoxi region. This cohesion fostered a group identity that emphasized regional and kinship bases by sharing or emphasizing funerary rituals based on a megalithic cover of dolmens.

In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linked to the process of formation of indigenous groups in the Yoha basin, historically represented as Ye (穢), Maek (貊), or Yemaek (濊貊). It also relates to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Gojoseon or Buyeo as the earliest states in Korean history.

Keywords: Liaodong Peninsula Area, Bronze Age Tombs, Dolmen culture, Mandolin-shaped Bronze Dagger Culture, Shuangfang Culture, Gangshang Cultur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마석상층문화의 시·공간과 문화성격

천선행 |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조교수

- I. 머리말
- II. 상마석상층문화 연구성과 및 문제제기
- III. 상마석상층문화의 시간성
- IV. 상마석상층문화 형성과 공간성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상마석상층문화는 요동반도 남단 동검문화단계의 상마석(上馬石)유적을 표지로 설정되었다. 상마석유적은 1932년 미야케 순조(三宅俊成)에 의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1941년(日本學術振興會), 1977년(遼寧省博物館·旅順博物館), 1978년(遼寧省博物館·旅順博物館·長海縣文化館)에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상마석상층문화는 1941년 조사의 A구·BⅡ구 3층·C구 2층, 1978년 조사 1구 2층을 표지로 하고, 상마석상층문화의 출현과 시점, 내용, 분포범위에 대해 일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마석상층문화의 형성시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1978년 조사 보고자는 상마석상층문화를 우가촌(于家村)상층, 쌍타자(雙砦子)상층, 양두와(羊頭洼)유적과 관련되는 시기로 보았으나,¹ 이후 쌍타자문화와는 다른 별개의 문화로 쌍타자문화 이후에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²

한편, 상마석상층문화 시기에 요동 일대에는 윤가촌 2기문화, 노호층유형, 화가와보-쌍방유형, 신성자문화, 동산문화 등 다양한 문화요소가 혼재한다. 가령 무덤 종류는 적석묘, 석관묘, 석봉, 개석묘, 토광묘 등 다양³하고, 무덤에서

* 투고: 2023년 10월 12일, 심사 완료: 2023년 11월 6일, 게재 확정: 2023년 11월 17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3-기획연구-20)로 수행된 과제임.

1 遼寧省博物館·旅順博物館·長海縣文化館, 1981, 「長海縣廣鹿島大長山島貝丘遺址」, 『考古學報』 1期.

2 宮本一夫, 1985, 「中國東北地方における先史土器の編年と地域性」, 『史林』 第68卷第2号; 宮本一夫, 1991, 「遼東半島周代併行土器の変遷-上馬石貝塚A・B・Ⅱ区を中心に-」, 『考古学雑誌』 第76卷第4号; 大貫靜夫, 2007,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平成16年度~平成18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

3 적석묘를 제외한 무덤들을 화가와보(伙家窩堡)문화계통으로 지칭하기도 한다(하

는 첩순관, 현문호, 청동 단검, 청동 도끼, 청동 투겁창 등 다양한 문화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문화 특징과 시공간적 범위가 분명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마석상층문화에 대하여 이중구연이라는 공통성으로 인해 화가와보문화계통⁴으로 부르기도 하고, 기원전 9세기~기원전 5세기경 요동 남단에서 유행하던 전기 비파형동검문화인 강상문화에 포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⁵ 전자는 벽류하 유역 및 요동반도 동안을 구분포권으로 하는 상마석상층문화의 특징적인 이중구연 요소의 연관성, 즉 언제부터 상마석상층문화로 할 것이며 그 이전의 이중구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후자도 강상문화나 상마석상층문화와의 유사성이 확인되지만, 계승관계와 특징, 동일 문화로 포괄할 수 있는지, 어떤 요소를 대표 요소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처럼 상마석상층문화의 내용을 정의하고, 성격과 시공간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상마석유적 및 유사한 내용을 가진 단타자 퇴적층, 고려채유적이 모두 패총이거나 퇴적층 출토품으로 시간성과 조합상을 분명하게 추출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들 유적만으로 당시의 주거, 무덤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최근에 1941년 조사 내용이 재보고되어 출간되면서 상마석상층문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근의 성과

-
- 옥빙, 2013, 「青銅器~初期鐵器時代 遼東과 韓半島의 文化交流」, 『中國 東北地域과 韓半島 南部의 交流』, 第22回 嶺南考 古學會 學術發表會, 1~18쪽).
- 4 華玉冰, 2013, 「青銅器~初期鐵器時代 遼東과 韓半島의 文化交流」, 『中國 東北地域과 韓半島 南部의 交流』 제2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6쪽. 이에 따르면, 이른 시기의 화가와보유형은 대략 기원전 19세기에서 기원전 11세기 전후로, 늦은 시기의 쌍방유형은 기원전 11세기 전후에서 기원전 6세기 정도로 추정된다. 화이빙 저, 하문식 옮김, 2019, 『중국 동북지구 석봉 연구』, 한강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8, 사회평론, 355쪽.
- 5 이후석, 2020, 「Ⅴ. 요동지역의 후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동북아시아 고고학 개설 I-선·원사시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282~283쪽.

를 종합하여 먼저 상마석유적의 퇴적상과 구조, 출토유물을 분석하여 상마석상층문화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상마석상층문화 전후 시기의 주변문화와의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상마석상층문화의 형성과정과 시공간성을 추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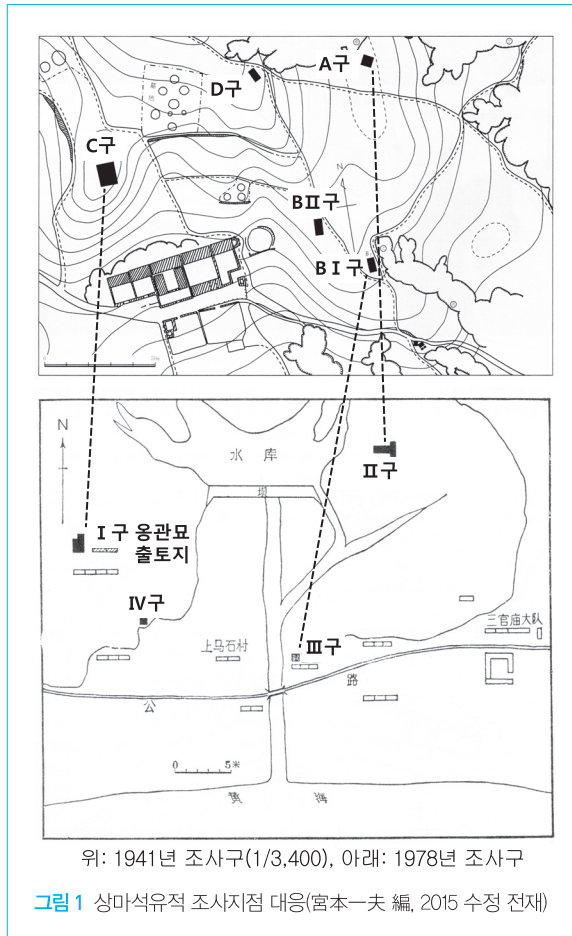
II. 상마석상층문화 연구성과 및 문제제기

1. 상마석유적 발굴조사 내용

상마석유적은 요령성 대련시 장해현(長海縣) 대장산도(大長山島) 상마석에 위치한다. 1932년 발견된 이후, 1941년, 1977년, 1978년에 조사가 진행된 바 있지만, 현재 각 조사지점이 명확하지 않다. 유적에서 패층, 주거, 옹관묘 및 토광묘가 확인되는데, 패층은 1941년 A·BI·BII·C·D구의 5개 지점, 1978년 I~IV구의 4개 지점이 조사되었다. 각 지점별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1941년 A구는 1978년 II구, BI구는 III구, C구는 I구에 해당하고, 1977년과 1978년에 수습된 옹관묘와 청동단검이 출토된 토광묘는 I구 부근에 위치한다(그림 1).⁶ 1978년 조사에서 패층은 상마석상층, 상마석중층(소주산상층), 상마석하층(소주산하층)의 3개 문화층으로 나누어졌다. 이후 1941년 조사 내용이 재정리되면서 유물의 형식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쌓타자문화기가 추가되어 4개 문화층으로 나누어진다.⁷ 구체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상마석하층(소주산하층)은 BI구 4층, BII구 일부 유물, D구 4층, III구 4층, 집자리 1기(1978년 조사)가 해당하고, 상마석중층(소주산상층)은 BI구 2층과 3층, C구 3층, I구 3층과 4층, III구 2층과 3층이 해

6 宮本一夫 編, 2015, 『遼東半島上馬石貝塚の研究』, 九州大学出版会, 18~20쪽.

7 그 밖에 BI구, D구 상층(2·3층)에서 편보문화 유물이, BII구와 C구에서 윤가촌 2기 유물이 출토된다고 한다(宮本一夫 編, 2015, 위의 책, 35쪽)



당하며, 쌍타자문화는 C구 3층, D구 2층과 3층, BII구 일부 유물이 해당한다. 상마석상층은 A구 상층과 하층, BII구 3층, C구 2층, I구 2층이 해당한다. 여기에서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쌍타자문화기와 상마석상층이다(그림 2).

패총 외에도 웅관묘 17기(1977년 16기, 1975년 1기), 토광묘 10기(1977년 5기, 1978년 5기)가 드러났다. 모두 I구 근처에서 확인되었고,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웅관묘는 I구 3층을 파괴하고 조성되었고, 청동단검이 출토된 무덤은 2층을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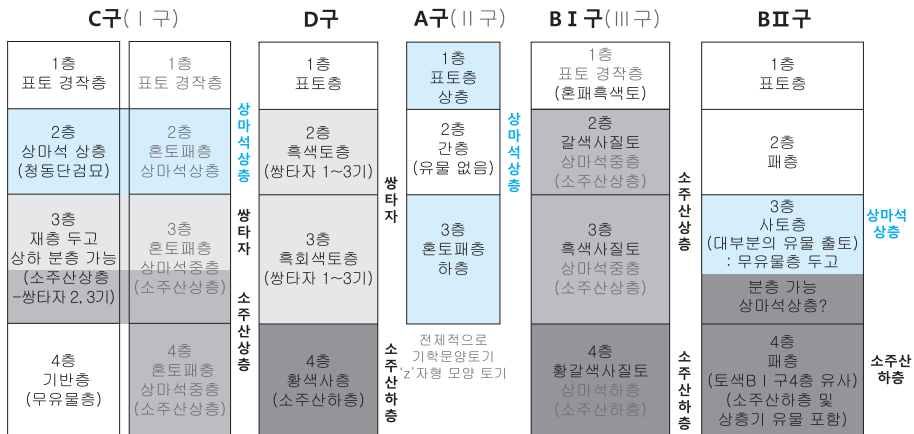


그림 2 상마석유적 지점별 층위 양상(宮本一夫 編, 2015를 참조하여 작성)

괴하고 설치되었다고 한다.⁸ 구조를 살펴보면, 옹관묘는 원형 수혈로 아동 또는 미성년을 매장한 것으로 미성년의 경우 이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옹관은 놓는 방식에 따라 직치한 것이 6기(1호·2호·8호·11호·15호·17호)로 구연은 판석으로 막음하였고, 도치되어 옹관 구연이 아래로 향하는 것은 나머지 11기(3~7호·9호·10호·12호~14호·16호)이다. 유물은 관 3점, 호 7점, 옹관 2점, 석촉 2점, 조개 구슬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옹관묘가 3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어 상마석중층(소주산상층) 단계로 파악하였으나,⁹ 최근의 토기 분석을 통해 단타자유적과의 유사성이 지적되면서 철릉문을 근거로 쌍타자 2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¹⁰ 청동담검이 출토된 무덤은 모두 토광

8 遼寧省博物館·旅順博物館·長海縣文化館, 1981, 「長海縣廣鹿島大長山島貝丘遺址」, 『考古學報』 1期; 旅順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82, 「遼寧長海縣上馬石青銅時代墓葬」, 『考古』 6期.

9 旅順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82, 위의 글.

10 陳光, 1989, 「羊頭洼類型研究」, 『考古學文化論集』 二, 文物出版社.

묘로 양신장 6기(1~3호·6호·7호·10호), 측신굴지장 2기(5호·9호), 부신장 2기(4호·8호)가 확인되었다. 무덤 규모는 길이 1.64~1.88m, 너비 0.66~0.84m 이고, 2호와 3호에서 동검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동검 형태를 기반으로 전국(戰國) 초로 추정하였다.

연구대상인 상마석상층의 문화양상을 좀 더 살펴보자. 토기는 협사갈도가 중심으로, 관(罐), 완(碗), 배(杯), 쌍이호(雙耳壺), 고경호(高頸壺), 연(甌), 파수 등이 출토되고, 기면에 돌대문으로도 불리는 부가퇴문(附加堆文), 각획문이 시문된다. 특히 각획문이 횡대로 구획하고 내부를 사격자문 등으로 채우는 등 횡방향의 문양대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 밖에 구연부의 형태를 살펴보면 이중구연[첩순(疊唇)]이 확인되는데 단면 삼각형을 이룬다. 석기는 석부, 석본(石鏃), 석검, 석촉, 어망추, 방추차 등으로, 그 밖에 골제 낚싯바늘, 골촉, 골제 단검 등이 출토되었다.

이상의 조사 내용을 볼 때, 후술하듯이 상마석상층문화의 세부 편년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상마석상층문화는 층위적으로 쌍타자문화 이후로, 비파형 동검문화 단계와 병행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상마석상층문화 연구성과와 논의점

앞서 설명하였듯이 상마석상층문화는 요동반도 남단에 분포하는 동검문화단계에 해당한다. 1978년 조사 당시에는 상마석상층, 소주산상층, 소주산하층으로 나누어졌고, 상마석상층은 대체로 우가촌상층, 쌍타자상층, 양두와유적과 관련되는 시기, 즉 쌍타자 3기문화로 인식되어 왔다.¹¹ 이는 당시의 문화권 설정이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양두와유형을 조기와 만기로 나누고, 조기의 근거가 3색 채색토기가 출토되는 사실을 이용한다. 그런데 해당 채색토기의 출토지가 단타자(單砮子) 출토품¹²이다. 즉, 당시 쌍타자 3기문화의 공간적

11 遼寧省博物館·旅順博物館·長海縣文化館, 1981, 앞의 글.

범위는 요동반도 동안 일대를 포괄하고 있어, 현재 상마석상층문화 분포지역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토기편년 연구가 진행되면서 변화하는데, 기존에 양두와유형(쌍타자 3기문화)에 포함되었던 우가촌 타두적석묘를 3단계로 세분하여 2단계와 3단계가 상마석상층문화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쌍타자 3기와 상마석상층기의 관계가 논의되기에 이르렀다.¹³ 여전히 우가촌 타두적석묘의 소속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쌍타자 3기에 포함되고, 뒤를 이어 상마석상층문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⁴

상마석상층문화 단계의 시간적 위치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는 부분은 상마석상층문화 내 세부 편년이다. 편년 연구상의 논점은 상마석유적 BⅡ구의 시간적 위치라고 볼 수 있다.¹⁵ 먼저 미야모토(宮本)는 호형토기에 시문된 Z문 간소화·무문화·경부축소를 근거로 「상마석 A구 하층-A구 상층(정가와자6512묘)-BⅡ구(강상묘)」로 변한다고 보고, BⅡ구 출토유물이 늦은 것으로 본다.¹⁶ 반면, 오오누키(大貫)는 BⅡ구가 이르다고 편년하는데, 「BⅡ구-A구 하층-A구 상층」으로 보아야 동검편년과 부합한다고 보았다.¹⁷ 그리고 C구는 소주산하층 유물과 혼재하지만, 구순상파수, 횡교상파수, 언이 많은 점을 근거로 BⅡ구 및 I구 2층(상층)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쌍방M6-상마석 C구·BⅡ구·78년 상층(강상묘)-상마석 A구 하층(누상M3)-상마석 A구 상층-상마석동검묘-윤가촌M12’ 순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12 陳光, 1989, 앞의 글, 1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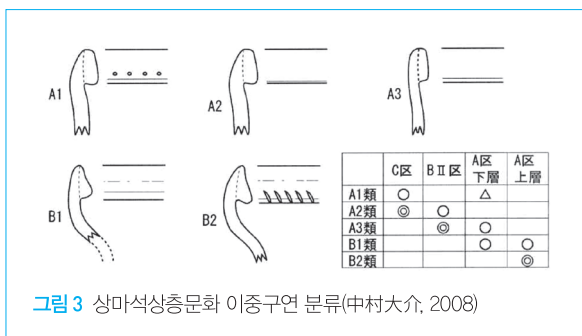
13 宮本一夫, 1991, 「遼東半島周代併行土器の変遷—上馬石貝塚A・B・Ⅱ区を中心に—」, 『考古学雑誌』 第76卷 第4号.

14 宮本一夫, 1991, 위의 글; 大貫靜夫, 2007, 앞의 책; 中村大介, 2008,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編年과 年代」, 『한국고고학보』 68; 천선행, 2014a, 「요동반도 남부 청동기시대 토기문화의 전개」, 『영남고고학』 70; 천선행, 2014b,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형성기의 중국동북지역과의 관계」, 『호남고고학보』 48.

15 천선행, 2014a, 위의 글, 52쪽.

16 宮本一夫, 1991, 앞의 글.

17 大貫靜夫, 2007, 앞의 책.



상마석상충문화의 세분편년은 오오누키의 견해에 따르고 있는데, 나카무라(中村)는 이중구연의 형태를 세분¹⁸하고 근거를 보완하여 오오누키와 동일하게 ‘C구-BII구-A구 하층-A구 상층’으로 편년하였다.¹⁹ 반면 안재호는 나카무라의 이중구연 변화에 문제를 제기²⁰하며 C구의 위치를 A구 하층과 상층 사이로 파악한 데에 차이가 있다.²¹

편년연구 외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바로 상마석상충문화의 형성과정과 공간성이다. 상마석상충문화는 쌍타자 3기문화 이후에 출현하기 때문에 쌍타자 3기문화와 계승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쌍타자 3기 양두와유형을 계승하는 것은 목양성(牧羊城)유적²²임이 드러나면서, 상마석상충문화와 쌍타자 3기문화의 계승관계를 인정하

18 이중구연단면이 방형인 것(A형), 삼각형인 것(B형)으로 분류하고, A형은 외반하고, 자돌문이 시문된 것(A1형), A1형에 무문인 것(A2형), 외반하지 않고, 무문인 것(A3형)으로 분류하였으며, B형은 외반하고 이중구연이 차지고 무문인 것(B1형), B1형에 각목이 있는 것(B2형)으로 분류하였다(中村大介, 2008, 앞의 글).

19 中村大介, 2008, 위의 글.

20 中村의 A3를 A1 및 A2보다 이르게 본다(安在皓, 2010, 「韓半島 青銅器時代の時期區分」, 『考古學誌』第16輯).

21 安在皓, 2010, 위의 글, 23쪽.

22 中村大介, 2008, 앞의 글; 천선행, 2014a, 앞의 글.

지 않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²³ 또한 벽류하 중상류 일대에는 석봉을 중심으로 한 화가와보유형이 전개되는데, 상마석상층문화 이전에 이중구연이라는 요소가 확인되고 있어, 이들 이중구연요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²⁴

뿐만아니라, 쌍타자문화의 뒤를 이어 본격적으로 요동반도 일대에는 비파형동검문화가 전개된다. 요동반도 동안으로 한정되었던 상마석상층문화 외에도 벽류하 중상류 일대에는 동검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 문화로 인식되는 쌍방유형²⁵이 전개되는데, 상마석상층문화와는 이중구연관을 공통요소로 하고 있어 이들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한편으로 요동반도 남단에는 “비파형동검문화기 요동 남단지역의 적석묘-이중구연토기문화를 가리키는 문화개념”인 강상문화가 전개되어 상마석상층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²⁶ 즉, 상마석상층문화 출현 이후, 요동반도 남부 일대에는 쌍방유형, 강상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전개되고 있고, 이들과 상마석상층문화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상마석상층문화는 토착 이중구연토기문화를 바탕으로 쌍타자 3기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주변의 여러 동검문화와 관련되며 전개된다. 연구자에 따라서 쌍타자문화와 동일 문화로 혹은 쌍방유형과 동일문화로, 강상문화와 동일 문화로 여기다보니 상마석상층문화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즉, 적석묘를 비롯하여, 석관묘, 석봉, 개석묘, 토광묘가 포괄되며, 출토유물도 첩순관을 비롯하여 현문호, 비파형동검 등

23 천선행, 2014a, 위의 글.

24 화가와보유형의 석봉(고인돌)이 기원전 14세기에 등장하고, 쌍타자 3기문화권에 포함시켜 이해하기도 하고(오대양 2019, 「요동과 길림, 서북한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전개양상 검토」, 『백산학보』 115, 179쪽), 이후의 쌍방유형 및 강상유형을 쌍방문화로 지칭하기도 한다(오대양, 2017, 「요동지역 석관묘문화의 특징과 전개양상 검토」, 『한국사학보』 66, 23쪽).

25 이후석, 2020, 앞의 글, 286쪽.

26 이후석, 2020, 위의 글, 301쪽.

다양한 문화요소가 포함된다. 상마석상층문화가 시공간적으로 고정된 형태가 아니겠지만 쌍타자 3기문화 이후에 상마성상층문화가 형성되면서 시공간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으며 전개되는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III. 상마석상층문화의 시간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마석상층문화는 쌍타자 3기문화 다음에 전개되는 문화이다. 그리고 상마석상층문화의 변화상은 각 지점별 패총 출토유물을 근거로 설정되어 있으며, 편년 설정에서 BII구의 시간적 위치가 논쟁의 하나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상마석상층문화 출토 토기들의 특징은 이중구연과 횡대구획문에 있고, 각각의 세분에 따라 편년이 좌우된다. 최근에 상마석유적에 대한 재보고가 이루어지면서 토기의 형태 변화가 자세하게 논의된 바 있으므로²⁷ 여기서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각 지점별 출토토기를 통해, 쌍타자 3기와 A구 하층의 광구호와 단경호 문양의 연속성을 통해 A구 하층은 상대 후기 병행의 쌍타자 3기에 가까운 것으로, BII구는 춘추기 병행기로 파악하고 있다.²⁸ 상마석상층문화와 관련한 유물 변화만 살펴보면,²⁹ 광구호는 구연단 면이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구경부가 외경하는 것에서 외반하는 것으로, 경부의 문양대가 없는 것에서 횡침선 내 집선문대를 채우는 것에서 점차 거칠어져 사격자문대로 변화하고 다시 간략화되어 문양대가 이동해간다고 보고 있다. 단경호는 횡침선 구획대 안에 사격자문을 채운 것에서 구획대가 사라지고 사선문만 남는 형태로 변하고 차츰 문양이

27 宮本一夫, 2015, 「第5章 遼東半島土器編年と上馬石貝塚出土土器の位置づけ」, 『遼東半島上馬石貝塚の研究』, 九州大学出版会, 124~178쪽.

28 宮本一夫, 2015, 위의 글, 127쪽.

29 宮本一夫, 2015, 위의 글, 150~1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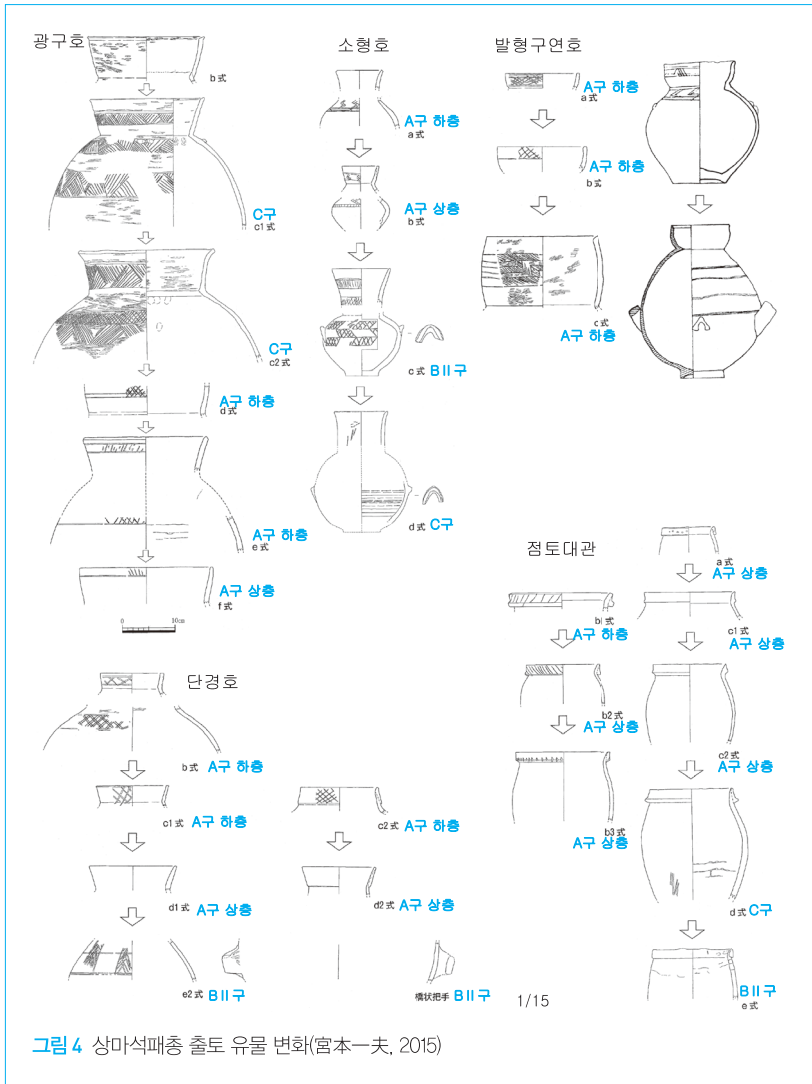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발형구연호는 얇은 발형구연에 횡침선 사이에 사격자문을 시문한 것에서 발형구연이 깊어지고, 1조의 횡침선에 사격자문이 시문된 것으로 변화하며 점차 장경화된다고 보고 있다.³⁰ 소형호는 동부의 횡침선 사이에 지그재그문을 채운 것에서 점차 Z자문으로 변화하고, 점차 구경부가 장경화되어 동부에 횡대구획문이 발달하는 형태로 변하며, 점차 무문화되어간다. 점토대관은 단면 방형용대에 점열문을 시문한 것이 쌍타자 2기 및 3기에 출현하고, 변화상이 분명하지 않지만, 용대상에 사선문이 시문된 것에서 단면 삼각형 점토대를 덧붙인 형태로, 점차 방형상으로 변화해간다고 보고 있다(그림 4).

상마석상층문화에 해당하는 유물은 현재, A구 하층과 상층, C구 2층, BII구에서 확인된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A구는 간층을 두고 하층과 상층으로 나뉘기 때문에 선후관계에 참고가 된다. A구는 상층과 하층의 유물 구성이 유사하지만, 상층은 무문화가 상당히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BII구는 소형호의 구경부에 횡대구획대 문양이 활발히 시문되고, 호형토기의 동상부에 다양한 침선문이 시문되는 등 상대적으로 쌍타자문화기 양상에 더욱 가깝다. 그리고 미야모토는 소형호는 지그재그문에서 ‘Z’자문으로, 횡대구획문이 발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경부의 다양한 횡대구획문의 존재, 호형토기 견부의 문양 요소들이 대취자 3기(3D기)³¹와 매우 유사하고, A구의 횡대구획문은 사격자문 또는 사선문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더구나 미야모토가 문제 삼은 윤가촌 2기의 특징이자 편년의 열쇠가 되는 봉상파수가 BII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A구 하층과 상층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점토대관의 형태에 대해 재보고서에 언(鬚)의 구연으로 분류된 것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더라도 A구 하층과 상층은 단면이 삼각상으로 아래로 처지는 형태 및 구연부가

30 그리고 발형구연호가 장경화됨으로 인해 미송리형토기가 출현한다고 보고, 미송리형토기가 상마석 A구 상층 단계에 출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宮本一夫, 2015, 위의 글, 154쪽).

31 천선행, 2014a, 앞의 글.



꺾여 외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BII에는 구연이 내경하거나 단면이 방형상을 띠는 것이 함께 확인된다. 따라서 패총이라는 특성상, 각 구에 전후 시기의 유물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앞서 설명한 무문화의 과정, 다양한 문양에서 단

순한 사격자, 사선문 등으로의 변화, 점토대 구연의 외반 및 형태를 감안할 때, BⅡ구가 A구 하층보다 시기적으로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³²

따라서 상마석상층문화의 토기 변화는 광구호의 횡대구획문 및 점토대관 형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광구호의 횡대구획문이 BⅡ구에 구연부가 분명하게 남아 있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소형호의 구경부에 시문된 횡대구획문, 그리고 호형토기의 견둥부면에 남아 있는 문양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먼저 BⅡ구의 호형토기 견부는 횡대로 구획하고 그 내부를 침선문으로 채운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상마석유적 C구 쌍타자문화기에서 나타나는 요소이다. 소형호에 시문된 횡대구획문은 횡침선을 돌리고 그 사이를 사격자문, 사선문으로 채웠는데, 횡대구획대가 복수인 것도 있다. A구 하층에서는 횡대구획대가 남아 있으나, 침선이 1조이거나 횡침선 없이 횡대 문양대가 시문되는 경우도 있다. 횡대구획대의 문양은 사격자문을 중심으로 사선문이 있고, 일부에서는 ‘Z’자 문양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A구 상층은 무문화가 진행되고, 사선문의 횡대구획문, ‘Z’자문 정도가 남아 있다. 점토대관의 경우, 비교적 형태가 다양하여 비율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미야모토가 분류한 언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BⅡ구에는 이중구연의 하단이 비교적 돌출하지 않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A구 하층에서는 구연단 단면이 삼각형 형태로 하단부가 치지고, 구연이 꺾여 외반하는 형태가 등장하여 A구 상층에 점차 많아진다(그림 5).

이를 바탕으로 주변 유적을 포괄하여 상마석유적 출토품을 비교하여 설정한 것이 <표 1>이다.

쌍타자단검묘, 강상묘 출토품이 상마석유적 BⅡ구 출토품과 유사하고, 누상묘과 윤가촌(尹家村)하층 1기는 상마석유적 A구 하층과 유사하다. 이상의 단계

32 재보고에서 BⅡ구의 경우, 상마석상층유물이 출토되는 층은 3층인데, 중간에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청회색토층이 있어 분층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宮本一夫編, 2015, 앞의 글, 24쪽). BⅡ구의 봉상 파수 등 윤가촌 2기의 것이 이를 대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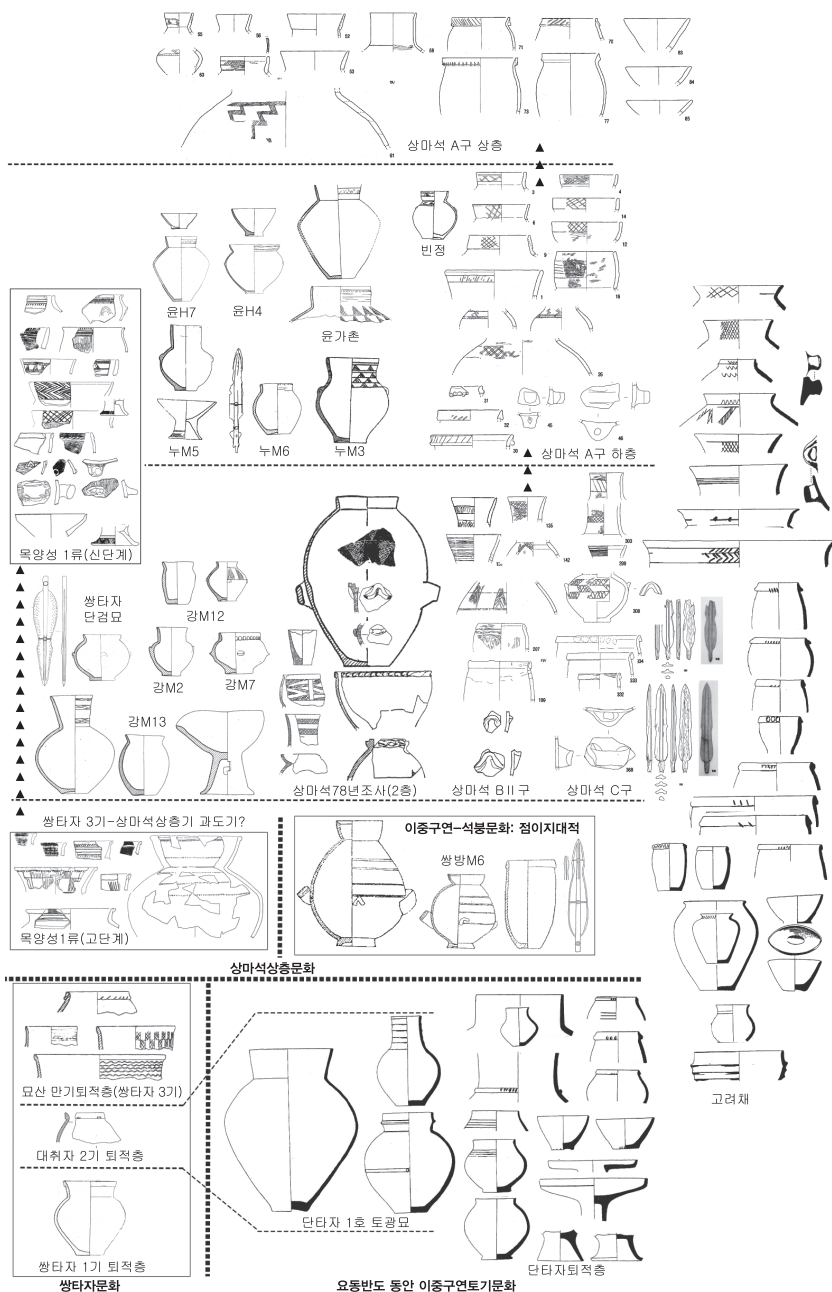


그림5 상마석상층문화 토기 변화(윤가촌 1/20, 나머지 1/15)(윤: 윤가촌, 강: 강상, 누: 누상)
(천선행, 2014a, 수정 전재)

는 기존의 상마석상층문화 세분 성과와 동일하지만,³³ 약간 달라진 내용도 있다.³⁴ 먼저 쌍방유적의 편년적 위치 확정이다. 전고에서 쌍방M6호 출토품을 상마석상층문화 유물과 직접적 비교가 어려워, 현문호가 출토되는 마성자 3기와의 병행관계를 고려하여 추정한 바 있다.³⁵ 그러나 이번에 재보고된 유물을 검토하면서 파수의 조합에 각 구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C구와 BⅡ구에서는 현문호에 부착되는 구순상파수가 공반하는 데 비해, A구에서는 확인되는 않는 점이다. 게다가 이전 단계로 파악되는 우가촌 타두 적석묘에서 출토되는 현문이 시문된 관에는 삼각상의 구순상 파수와 유사한 삼각상의 파수와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고, 형태적으로 쌍방M6호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타두적석묘 이후, 구순상파수가 확인되는 상마석 C구 및 BⅡ구에 걸치는 동안의 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목양성1류는 비후구연 내지 이중구연의 A류(고단계)와 홀구연의 B류(신단계)로 나뉘는데,³⁶ 후자의 경우 기존에 상마석A구 하층에만 병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각상의 구순상 첩이가 확인되는 등 BⅡ구의 요소가 적지만 일부 포함되어 있어 BⅡ구 단계와도 약간 겹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구순상파수가 확인되지 않는 A구 하층단계부터 정가와자기에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조금 소급시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마석상층문화는 쌍타자 3기 이후부터 정가와자유형이 출현한 일부 시점까지 시간 폭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천선행, 2014a, 앞의 글.

34 고려채유적의 위치이다. 전고의 본문에서 고려채유적이 사격자문의 단순화, 횡대구획이 침선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마석상층기까지 시간 폭을 가진다고 설명(천선행, 2014a, 63쪽)하면서도 정작 편년표에서는 상마석상층기 이전으로 표현되어 있어 정정한다.

35 천선행, 2014a, 앞의 글.

36 大貫靜夫, 2007, 앞의 책, 58쪽.

〈표 1〉 요동반도 남단 쌍타자문화~상마석상층기 변형관계

요북지역		요동산지		요동반도 남단				벽류하 중상류	요동반도 동안 일대		한반도 남부	
조공가기 평정산 2기		마성자하층 4기		소주산상층				?	석불산 고		신석기 시대	
				쌍타자 1기					단타자	석불산 중		
평안보 2기	고대산 1단계	마성자 1기		쌍타자 2기								
평안보 3기1단	고대산 2단계	마성자 2기	전 업	쌍타자 3기	양두와유형 (노철산 주변)	양두와유형 (영성자 주변)		대취자 유형	화가와보 3호석봉 왕둔 1호개석	고려채	석불산 신	조기
					 양두와 	 대타자 F4/F5	 쌍F12?	3A기				
							쌍F7/F17	3B기				
						대타자 F8/F6	쌍F4	3C기				
							우가촌 F1	대타자 2층				
	타두 1단계	쌍F1·퇴적층/강상하층										
	타두 2단계	?										
	타두 3단계											
	고대산 3단계	후 업										
3기2단	4단계 신락상층	마성자 3기		상마석 상층	목양성 1류(고)	?	—	쌍방 M2·M6	고려채			
3기3단					목양성 1류(신)	쌍타자단검묘 강상묘	—		상마석 C·BⅡ구			중기
북외 ?		신성자	목양성 1류(신) 윤가촌하층 1기		누상묘	—	?	상마석 A구 하층 빈정				
			정가와자		탐만촌	와룡천		—	?	상마석 A구 상층		

(천선형, 2014a; 이후석, 2020 수정)

* 쌍: 쌍타자유적을 의미함.

IV. 상마석상층문화 형성과 공간성

1. 상마석상층문화 성립 이전의 양상

상마석상층문화로 일컫는 유적들의 공통점은 이중구연관, 횡대구획문이 시문된 광구호(소형호 포함)이다. 이중구연이라는 요소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 자체로는 신석기시대부터 동북아시아 일대에 폭넓게 분포하고, 상마석상층문화 형성을 전후하여서도 벽류하 중상류 및 요동산지의 마성자 3기, 단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어 문화 특징으로 삼기에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중구연 자체의 존재보다는 이중구연이 부가되는 기종 및 기형적 특징, 공반하는 유물 구성을 포함하여 문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마석상층문화의 특징은 이중구연관 및 횡대구획문이 시문되는 호형토기로 볼 수 있다.

상마석상층문화가 형성되는 전후에 요동반도 남단 일대에는 쌍타자 3기문화를 비롯하여 강상문화, 화가와보유형, 쌍방유형, 신성자문화, 동산문화 등 다양한 토기구성을 갖춘 문화들이 전개된다. 상마석상층문화가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 요동반도 남단의 동부 해안 및 도서 지역이어서³⁷ 주체적인 문화로 인식되기보다 동시기 요동반도의 비파형동검문화기를 일컫는 강상문화의 범주에 포함되어 파악되기도 한다.³⁸ 강상문화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무덤유적인 탕도 있지만, 점토대관(이중구연관, 첩순관)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현문호, 횡대구획문을 갖춘 광구호 및 소형호, 소형관 등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되어 상마석상층문화의 본질과 공간적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상마석상층문화와 관련짓기도 하는 쌍방유형도 쌍타자문화, 마성자문화의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문화 내용이 달라지듯³⁹ 상마석상층문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37 천선행, 2014a, 앞의 글.

38 이후석, 2020, 앞의 글, 301쪽.

상마석상층문화 형성 전후의 지역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광구호 문양의 유사성을 근거로 일찍부터 쌍타자문화와의 관련성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중구연요소는 쌍타자 3기문화의 양두와유형, 대취자유형 어디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일부 비후구연, 이중구연 등 어디까지나 객체적 요소로 확인될 뿐으로, 쌍타자 3기의 분포범위는 요동반도 남단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이중구연은 벽류하유역을 중심으로 한 고려채유적에서 다수 확인된다. 벽류하 하류역의 고려채 출토품은 포함층이라 여러 시기의 유물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중구연관, 횡대구획문이라는 상마석상층문화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고려채유적을 상마석상층기로 파악하거나,⁴⁰ 경부의 사격자문양대를 근거로 쌍타자 3기 후반으로 보기도 한다.⁴¹ 쌍타자 1기에서 쌍타자 2기로 여겨지는 단타자 포함층⁴²은 채색토기편, 철물문,

39 이후석, 2020, 위의 글, 282쪽.

40 許明綱·許玉林은 고려채하층으로 명명하고 우가촌상층유형과 상마석단검묘 사이의 상마석상층유형으로 파악하였다(許明綱·許玉林, 1980, 「新金双房石柵和石蓋石棺墓」, 『遼寧文物』 1期). 大貫靜夫는 삼각집선문의 존재를 근거로 강상묘 단계로 파악하였고(大貫靜夫, 2007, 앞의 책). 宮本一夫는 고려채유적을 상마석 A구 하층으로 판단하였다(宮本一夫, 1991, 앞의 글). 그 밖에도 古澤義久는 고려채유적의 자돌이중구연은 상마석 C구, 무문 이중구연관은 강상묘보다 이른 쌍방6호, 광구호 점열은 대취자F3의 계보를 잇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삼각집선문, 연의 존재로 BII구에 대비된다고 보았다. 특히 고려채 B구 출토품은 쌍타자 3기 직후에서 윤가촌하층 1기까지(상마석 A구 하층)로 판단하였다(古澤義久, 2007a, 「東京大學文學部所藏高麗墓資料」,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平成16年度~平成18年度 科学研究費補助金).

41 1조는 쌍타자 2기 특징의 기개 꼭지와 내면에 능선을 가지는 고배로 대표되는데, 즉 쌍타자 2기=상마석옹관으로 파악하였고, 2조는 주형기로 대표되며 양두와에 대비하였다. 3조는 이중구연관의 존재로 쌍방유형에 포함시켰다(陳光, 1989, 앞의 글).

42 교토대와 도쿄대에 소장되어 있다. 단타자 포함층의 연대에 대해서는 후루사와(古澤)의 논문(古澤義久, 2007, 앞의 글, 93~94쪽)에 잘 설명되어 있다. 즉, 단타자 포함층 연대에 대해 쌍타자 1기와 쌍타자 2기에 걸치는 것으로, 오오누키는 쌍타자 1기, 서광휘는 쌍타자 2기로 파악한다. 후루사와는 도쿄대 소장의 단타자 포함층 유물을 저부에 각목한 사례와 현문관이 있음을 근거로 쌍타자 1기로 파악한다(古澤義久, 2007b, 「遼東地域と韓半島西北部先史土器の編年と地域性」, 『東京大

이중구연관이 공반하므로 쌍타자 2기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쌍타자유적 하층퇴적층에서 호형토기에 이중구연이 있는 예가 한 점 확인되어 쌍타자1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한다.⁴³ 이 외에 대취자유적 2기 퇴적층에서 이중구연발이 1점 확인되는 등 고려채의 이중구연관은 적어도 쌍타자 2기까지 소급될 것으로 생각된다.⁴⁴

뿐만 아니라, 2003년 대련 장하(庄河) 평정산(平頂山)유적에서는 집자리 11기, 회갱 9기, 무덤 2기가 확인되었고, 이중구연관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유물은 대체로 홍갈도로 분, 호, 관, 반, 완 등이고, 반이, 교상이 등이 부착되거나 관 구연에 부가퇴문이 있거나 획문이 있는 것도 있다. 보고서의 부가퇴문이라 일컫는 형태는 이중구연에 가까운 형태로, 보고자는 출토유물을 통해 쌍타자 3기와 유사하다고 보았다.⁴⁵ 출토유물을 상세히 살펴보면, 구연이 꺾인 두형토기의 반부는 쌍타자 2기로 대표되는 단타자 출토품과 유사하고, 무덤에서 출토된 장경호도 쌍타자 2기 양상과 유사하다.⁴⁶ 반면, 퇴적층 출토 유물 가운데, 현문과 거치문이 시문된 사례들은 쌍타자 3기에서 나타나는 요소로, 유적 자체는 쌍타자 2기에서 쌍타자 3기에 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광구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고, 쌍타자 2기 문화상이 더욱 우세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마석상층문화 형성 이전 요동반도 동안 일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이중구연요소는 벽류하 중상류역의 화가와보유형에서도 확인된다.

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第21号).

43 裴眞晟, 2012, 「可樂洞式土器의 初現과 系統」, 『考古廣場』 11, 부산고고학연구회, 1~26쪽.

44 천선행, 2014a, 앞의 글, 63쪽.

4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1, 「大連庄河平頂山青銅時代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 1期.

46 장하 평정산유적을 근거로 쌍타자 2·3기의 분포범위가 대양하 이서(요동반도 동안)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오대양, 2019, 앞의 글, 179쪽), 쌍타자 2기와 쌍타자 3기의 문화 파급 양상이 다를 수 있고, 지역관계에 따라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일대를 쌍타자문화 분포범위로 포괄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이르게 여겨지는 자료가 개주 화가와보 3호 석봉, 왕둔 1호 석관묘로 연대는 상대 전기의 기원전 16~15세기로 여겨진다.⁴⁷ 화가와보 3호 석봉에서는 이중구연관 1점, 1호 석봉에서는 이중구연관 1점, 호형토기 1점, 보란점 왕둔 1호 석관묘에서는 이중구연관 1점, 호형토기 2점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이 많지 않아, 이들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시기와 문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왕둔 1호 무덤에서 호형토기의 경부가 길고 그 중간에 돌대문이 2줄 돌려져 있는 양상은 쌍타자 2기와 대비될 수 있고, 수교이가 부착된 호형토기는 마성자문화 2기와 대비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화가와보의 경우, 이중구연관만으로는 시기를 판별하기 어렵다. 이중구연 하단부의 돌출 정도가 다양한 사례가 여러 시기에 걸쳐 공통적으로 확인되므로, 제한된 이들 자료만으로는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중구연관 단독, 혹은 이중구연관과 호형토기의 조합은 앞서 설명한 왕둔 2호 석관묘, 장하 평정산의 토광묘와 공통되는 요소이다. 더구나 쌍방 2호 석봉에서 출토된 권족궤의 형태는 쌍타자 3기의 우가춘타두적석묘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성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이들 석봉은 쌍타자 3기, 나아가 쌍타자 2기 단계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을 종합하자면, 상마석상층문화가 출현하기 이전에 요동반도는 쌍타자 3기문화 중심의 요동반도 남단, 벽류하 유역을 기준으로 그 북쪽으로는 이중구연관 중심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중구연관 중심의 문화⁴⁸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볼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관찰되는 유물의

47 화이빙 저, 하문식 옮김, 2019, 앞의 책, 351쪽.

48 요동반도 동안의 이중구연토기문화는 재지 신석기시대인 소주산상층, 석불산유형의 이중구연토기를 계승하고 이는 곧 편보문화에서 이어진다. 다만 소주산상층기의 이중구연토기들은 구연이 외반 내지 직립하는 발형이지만, 단타자와 고려채출토품은 구연이 내만하는 형태가 압도적이며, 이중구연하단이 도드라지고 각목이 새겨진 것이 많다는 차이점이 있다(천선행, 2014b, 앞의 글, 22쪽). 벽류하 중상류의 이중구연관도 신석기시대 말기의 편보문화계통에서 파생되어 발전한 것으로 추정(華玉冰, 2013, 앞의 글, 6쪽)되는데, 그렇다면 벽류하 중상류와 벽류하 하류 및 동안 일대는 무덤 구조, 공반유물 차이가 분명하므로, 이중구연요소는 동일한 편보유형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개별 문화로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성과 특징으로 볼 때, 다시 석봉을 중심으로 하는 벽류하 중상류, 토광묘를 중심으로 하는 단타자 및 고려채 등 벽류하 하류와 요동반도 동안 해안지역의 문화권으로 지역 차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2. 상마석상층문화 형성과 분포범위의 변화

이러한 공간적 양상은 상마석상층문화 형성기에 변화를 맞이한다. 즉, 이중구연관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새롭게 횡대구획문을 갖춘 호형토기가 등장하는 것이다.⁵⁰ 횡대구획문의 대부분은 침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양 구성은 이전 시기의 요동반도 남단 쌍타자 3기문화에서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쌍타자 3기문화는 침선 중심의 대취자유형, 횡조선과 점열문 중심의 양두와유형으로 분류되고, 전자에서 삼각집선문, 사격자문 등 침선문양대가 활발하게 조성되어 상마석상층문화의 횡대구획문과 매우 유사하다.⁵¹

사실 상마석상층문화에서는 대취자유형에서 보이지 않던 언 등의 삼족기가 보이고, 횡대구획문이 시문되는 호형토기를 제외하고 대취자유형에 유행하던 대부토기, 분 등이 출토되지 않으며, 쌍타자 3기문화에는 이중구연 요소가 극히 적기 때문에 상마석상층문화는 쌍타자문화를 그대로 계승하는 후속문화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쌍타자문화의 대취자유형은 요동반도 남단 가운데서도 동안에 치우진 곳에 집중 분포하는데 이전의 벽류하 하류역 및 동안 일대에 널리

49 천선행, 2014a, 앞의 글, 63쪽.

50 기존 논고(천선행, 2014a, 위의 글, 73쪽)에서 상마석상층문화의 공통분모로, 이중구연관 외에도 현문호, 횡이를 추가하여 설명하였으나, 더 이상 현문호와 횡이를 상마석상층문화의 구성 내용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당시 쌍방유적을 어디에 포함시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중구연관의 존재를 통해 상마석상층문화로 포괄시켰고, 자연히 동반하는 현문호가 포함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현문호의 출현이 요동산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점에서도 쌍방유적 모든 요소를 상마석상층문화로 포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1 천선행, 2014a, 위의 글, 53쪽.

분포하는 이중구연토기 문화분포권과 접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벽류하 하류역 및 동안 일대 이중구연토기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요동반도 동안과 비교적 가까운 대취자유형문화 집단과의 교류와 융합 속에서 이중구연관 및 횡대구획문의 호형토기로 대표되는 상마석상층문화가 출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이중구연관 및 횡대구획문으로 대표되는 상마석상층문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전과 같이 요동반도 동안 일대로 한정되지 않는다. 즉, 쌍타자문화 대취자유형 분포권은 물론이고, 동일한 쌍타자문화에 속하면서도 문양구성을 달리하던 양두와유형에 해당하던 윤가촌, 강상, 누상 무덤들에서도 상마석상층문화 요소가 확산되어 나타난다. 요동반도 남단이 이중구연관 및 횡대구획문 호형토기로 재편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요동반도 남단의 토기문화 변동으로 설명한 바 있다.⁵² 즉, 쌍타자 3기 전반에는 대취자유형과 양두와유형이 지역성을 가지며 전개되나 양자 간의 교류관계가 활발히 지속되는 데 비해, 후반기부터 지역관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단절되기 시작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대취자유형, 양두와유형의 양극화 속에서 쌍타자문화가 쇠퇴되고, 대취자유형과 벽류하 유역 일대 이중구연중심의 문화가 융합되어 상마석상층문화가 형성되어 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마석상층문화 분포권을 중심으로 비파형동검문화가 유입되어 전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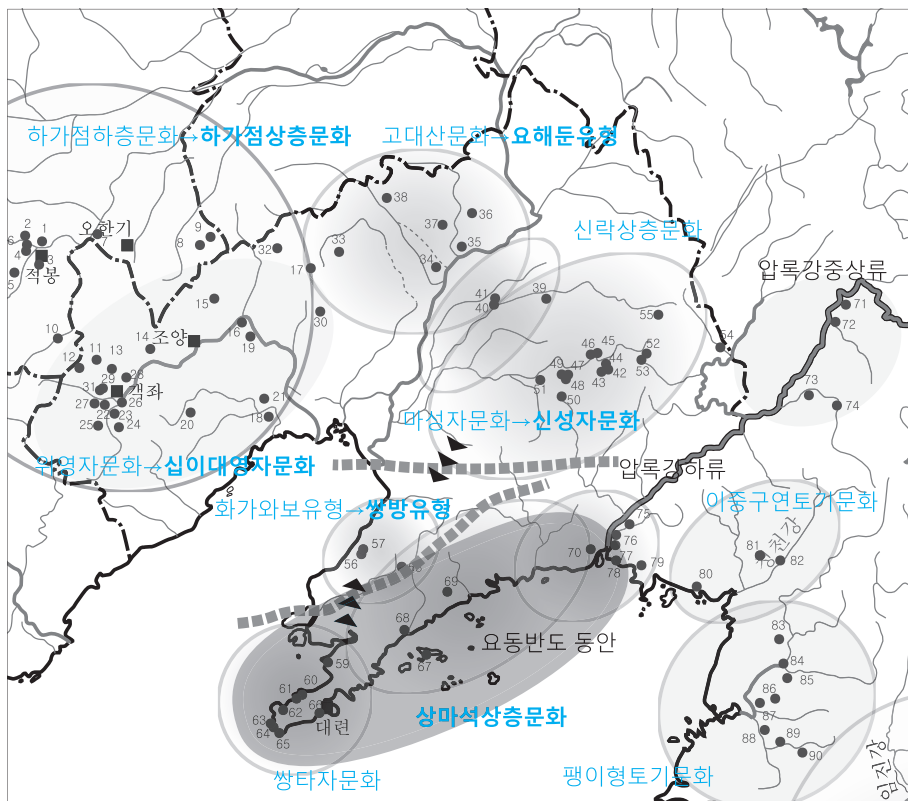
한편, 상마석상층문화와 쌍방유형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마석상층문화와 쌍방유형을 비교할 수 있는 직접적 자료가 없다. 6호 개석묘에서 출토된 이중구연관이 있지만, 이 형태는 이전 시기부터 이어지는 토착문화로 볼 수 있기에 상마석상층문화와 직접 대비시키기 어렵다. 현문호 역시 기존 연구에서는 상마석유적에서 현문호의 특징적인 구순상 파수편 등이 확인되어 상마석상층문화 범주에 포함시켰던 바가 있지만,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제외시키기로 한다. 현문호의 형성시점과 지역은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호형토기의 다용, 횡교상 파수의 존재, 그리고 이후 유행하는 분포권을 감안할 때, 마성자문화 및 그

52 천선행, 2014b, 앞의 글, 23쪽.

후속문화와 관련이 깊다. 쌍방유적 6호 무덤의 경우도 현문화의 존재로 직접적으로 마성자문화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성자문화 및 신성자문화의 파급과정에서 등장하는 교류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쌍방유적 외에도 상마석유적에서도 현문화의 흔적이 확인되는데, 바로 구순상 파수의 출토이다. 그러나 이들 요소는 상마석 C구와 BⅡ구에서만 일부 나타나고 뚜렷한 현문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역시 두 문화의 접촉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는 쌍방유형 자체를 상마석상층문화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쌍방유형이 분포하는 벽류하 중상류 일대가 요동 산지 및 북부와 요동반도 남단의 점이지대적 위치에 해당하므로 토착의 석봉, 이중구연요소를 바탕으로 주변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물질 자료들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자면, 상마석상층문화가 형성되기 이전의 요동반도는 고대산문화 2단계, 마성자 2기, 쌍타자 3기, 벽류하 중상류의 이중구연관 및 석봉 문화, 요동반도 동안의 이중구연토기문화, 석불산 신단계 등 토착의 지역문화 형성이 가속화되던 시기였다.⁵³ 이러한 상황이 상마석상층문화 형성에 이르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기존에 별개의 문화로 존재했던 요동반도 남단과 요동반도 동안 일대를 포괄한 상마석상층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요중 요북지역의 신성자문화, 요동반도 남부의 상마석상층문화로 대별되며, 그 사이는 벽류하 중상류의 쌍방유형이 점이지대적 문화특성을 가지며 전개되었다. 이들 문화는 초반에는 이중구연이라는 동질적 문화 전통을 공유한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동질적 토기문화를 바탕으로 비파형동검문화가 파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후반기에 들어서 요중 및 요북지역 일대는 현문호를 중심으로 한 호형토기 중심의 문화로, 상마석상층문화 일대는 이중구연관 및 호형토기 중심의 문화로 가속화되어 가는 양상이 나타난다.

53 천선행, 2014a, 앞의 글, 69쪽.



하가점하층문화 - 1: 夏家店, 2: 蜘蛛山, 3: 藥王廟, 4: 東山咀, 5: 大山前, 6: 康家灣, 7: 南臺地, 8: 大甸子, 9: 范仗子
 10: 小榆樹林子, 11: 喀喇沁河東, 12: 三官甸子城子山, 13: 南溝門, 14: 水泉, 15: 豐上, 16: 康家屯, 17: 西灰同
위영자문화 - 18: 水手營子 **화가와보유형** - 19: 向陽嶺, 20: 魏營子, 21: 山河營子, 22: 高家洞, 23: 北洞, 24: 山灣子, 25: 馬廠溝
 26: 南溝門, 27: 小波汰溝, 28: 和尚溝, 29: 後墳, 30: 花爾樓, 31: 咕嚕溝, 32: 平頂山, **고대산문화** - 33: 勿歡池
 34: 高台山, 35: 公主屯后山, 36: 灣柳, 37: 叶茂臺, 38: 平安堡, **신락상층문화** - 39: 望花, 40: 新樂, 41: 老虎冲
마성자문화 - 42: 馬城子, 43: 北甸, 44: 近邊寺, 45: 趙甸, 46: 丁家峪, 47: 張家堡, 48: 山城子, 49: 本溪水洞
 50: 虎溝석관묘, 51: 代家堡子, 52: 東升, 53: 窟窿砬子山, 54: 大梨樹溝, 55: 老城, **화가와보유형** - 56: 석봉산
 57: 화가와보, 58: 쌍방, **쌍타자문화** - 59: 廟山, 60: 雙타자, 61: 崗上/樓上, 62: 大타자, 63: 羊頭洼, 64: 于家村타두
 65: 牧羊城, 66: 大嘴子, **요동반도 동안** - 67: 上馬石, 68: 高麗寨, 69: 장하 평정산, 70: 석불산, **압록강 중상류** -
 71: 장성리, 72: 토성리, 73: 심귀리, 74: 공귀리, **압록강하류** - 75: 미송리, 76: 용연리, 77: 신암리, 78: 쌍학리
 79: 도봉리, **청천강유역** - 80: 당산, 81: 세죽리, 82: 구룡강, **대동강 유역** - 83: 남경, 84: 표대, 85: 금탄리
 86: 고연리, 87: 석탄리, 88: 침촌리, 89: 신흥동, 90: 주암리

그림 6 상마석상층문화 형성 전후 각 문화의 분포 양상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최근에 재보고된 상마석유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편년을 실시하고, 주변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상마석상층문화가 형성되는 과정과 형성 전후의 지역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상마석상층문화는 이중구연관 및 횡대구획문이 시문된 호형토기가 특징적이며, 이중구연관이 중심인 벽류하 하류역 및 요동반도 동안 일대의 이중구연토기문화를 바탕으로 쌍타자문화의 대취자유형과의 관계 속에서 출현한다고 보았다.

상마석상층문화가 출현하기 전에 요동반도 일대는 요동반도 남단의 쌍타자문화, 그리고 그 이북의 이중구연을 중심으로 한 토기문화, 요동산지 일대의 마성자문화 등 다양한 지역문화가 전개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역관계는 쌍타자문화가 쇠퇴하면서 벽류하 하류역의 이중구연관을 기저로 하는 상마석상층문화가 출현하면서 요동반도 남단까지 아우르는 이중구연이라는 동질적 문화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중구연과 공반하는 유물 구성 및 무덤 구조의 차이가 분명하여, 요동반도 남단 일대의 상마석상층문화, 태자하유적의 마성자문화-신성자문화가 전개되고 그 사이에 석봉을 중심으로 한 쌍방유형이 점이지대적 문화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동질적 이중구연토기문화권으로 동검문화가 유입되어 파급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상마석상층문화는 강상문화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지금껏 쌍방유형이나 강상유형 등 동검문화에 가려져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 동검문화 못지않게 중요한 동검문화의 기저문화로 존재하였던 토기문화는 이중구연이라는 동질적 문화권 속에서의 유구 구성, 무덤 구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동검문화의 다양한 기층문화를 확인하고 그 전개과정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상마석상층문화는 동검문화단계의 다양한 지역관계를 엿보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기존 성과를 흡수하면서 상마석상층문화의 문화적 특질과 그 형성 과정 및 공간성을 시점별로 파악하려 하였지만, 여전히 벽류하 중상류의 화가와 보유형과 쌍방유형과의 관계성, 이중구연토기의 계통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정리해가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보고서

- 郭大順·張星德 著, 김정열 譯, 2008a,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상)』,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08b,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하)』,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2020, 『동북아시아 고고학개설 I -선·원사시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 裴眞晟,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 화이빙 저, 하문식 옮김, 2019, 『중국 동북지구 석봉 연구』, 한강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8, 사회평론.
-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2000, 『大嘴子-青銅時代遺址1987年發掘報告』, 大連出版社.
_____, 2018, 『于家村砦頭墓地』, 科學出版社.
- 宮本一夫 編, 2015, 『遼東半島上馬石貝塚の研究』, 九州大学出版会.
- 金關丈夫, 1942, 『羊頭洼-關東州旅順鳩灣內的史前時代遺址』, 東方考古學總刊 乙種 第3冊.
- 東亞考古學會, 1931, 『牧羊城-南滿洲老鐵山麓漢及以前遺迹』, 東方考古學總刊 第2冊.
- 東亞考古學會, 1933, 『南山里-南滿洲老鐵山麓的漢代磚墓』, 東方考古學總刊 第3冊.
- 大貫靜夫, 2007,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平成16年度~平成18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
- 浜田耕作, 1929, 『貔子窩-南滿洲碧流河畔の先史時代遺蹟-』 東方考古學叢刊 第一冊, 東亞考古學會.

논문

- 裴眞晟, 2009, 「압록강 청천강 유역 무문토기 편년과 남한-조기 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64.
- _____, 2012, 「可樂洞式土器의 初現과 系統」, 『考古廣場』 11, 부산고고학연구회.
- 安在皓, 2010, 「韓半島 青銅器時代의 時期區分」, 『考古學誌』 第16輯.
- 오대양, 2017, 「요동지역 석관묘문화의 특징과 전개양상 검토」, 『한국사학보』 66.
- _____, 2019, 「요동과 길림, 서북한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의 전개양상 검토」, 『백산학보』 115.
- 이후석, 2020, 「Ⅴ. 요동지역의 후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동북아시아 고고학개설 I-선·원사시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 中村大介, 2008,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編年과 年代」, 『한국고고학보』 68.
- 전선행, 2014a, 「요동반도 남부 청동기시대 토기문화의 전개」, 『영남고고학』 70.
- _____, 2014b, 「한반도 무문토기문화 형성기의 중국동북지역과의 관계」, 『호남고고학보』 48.
- 전선행·장순자, 2012, 「마성자문화 동굴묘 출토 토기 변천과 전개」, 『영남고고학』 63.
- 華玉冰, 2013, 「青銅器~初期鐵器時代 遼東과 韓半島의 文化交流」, 『中國 東北地域과 韓半島 南部의 交流』 제2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遼寧師範大學歷史文化旅遊學院, 2006, 「遼寧大連大砬子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2期.
- 旅大市文物管理組, 1978, 「旅順老鐵山積石墓」, 『考古』 2期.
- 旅順博物館, 1962, 「旅大子長海縣新石器時代貝丘遺址調查」, 『考古』 7期.
- _____, 1983, 「大連于家村砬頭積石墓地」, 『文物』 9期.
- _____, 1984, 「遼寧大連新金縣碧瀏河大石蓋墓」, 『考古』 8期.
- 旅順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82, 「遼寧長海縣上馬石青銅時代墓葬」, 『考古』 6期.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1, 「大連庄河平頂山青銅時代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 1期.
- 遼寧省博物館·旅順博物館·長海縣文化館, 1981, 「長海縣廣鹿島大長山島貝丘遺址」, 『考古學報』 1期.
- 張翠敏, 2006, 「大嘴子第三期文化聚落遺址研究」, 『華夏考古』 3期.

陳光, 1989, 「羊頭洼類型研究」, 『考古學文化論集』二, 文物出版社.
許明綱·許玉林, 1980, 「新金双房石棚和石蓋石棺墓」, 『遼寧文物』1期.

古澤義久, 2007a, 「東京大學文學部所藏羊頭洼資料」, 『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平成16年度～平成18年度 科学研究費補助金.

———, 2007b, 「遼東地域と韓半島西北部先史土器の編年と地域性」,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第21号.

宮本一夫, 1985, 「中國東北地方における先史土器の編年と地域性」, 『史林』第68卷第2号.

———, 1991, 「遼東半島周代併行土器の変遷-上馬石貝塚A・B・Ⅱ区を中心に-」, 『考古学雑誌』第76卷 第4号.

澄田正一, 1986・1988・1989, 「遼東半島の先史遺跡(調査抄報)-大長山島上馬石貝塚-(1)(2)(3)」, 『人間文化』2-4.

상마석상층문화의 시·공간과 문화성격

천선행

이 글은 동검문화의 다양한 기층문화를 확인하고 당시의 다양한 지역관계를 엿보는 데 상마석상층문화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는 입장에서 작성되었다. 상마석상층문화의 세분편년, 주변 지역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 성과를 흡수하면서 상마석상층문화의 문화적 특질과 그 형성과정 및 공간성을 시점별로 파악하려 하였다.

그 결과, 상마석상층문화는 이중구연관 및 횡대구획문이 시문된 호형토기를 특징으로 하며, 이중구연관이 중심인 벽류하 하류역 및 요동반도 동안 일대의 이중구연토기문화를 바탕으로 쌍타자문화의 대취자유형과의 관계 속에서 출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상마석상층문화가 출현하기 전, 요동반도는 요동반도 남단의 쌍타자문화, 그리고 그 이북의 이중구연을 중심으로 한 토기문화로 대별되었으며, 요동산지 일대 마성자문화 등 다양한 지역문화가 전개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역관계는 쌍타자문화가 쇠퇴하고 상마석상층문화가 성립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요동반도 남단까지 아우르는 이중구연이라는 실질적 문화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중구연과 공반하는 유물 및 무덤

구조의 차이가 분명하여, 요동반도 남단 일대의 상마석상층문화, 태자하유적의 마성자문화, 신성자문화, 그리고 그 사이에 석봉을 중심으로 한 쌍방유형이 점이지대적 문화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동질적 이중구연토기문화권으로 동검문화가 유입되어 파급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제어: 상마석상층문화, 쌍타자문화, 쌍방유형, 이중구연관, 횡대구획문

Time-spat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Upper Shangmashi Culture

Cheon Seonhaeng

This article assumes upper Shangmashi culture takes a significantly prominent position in examining various basic cultures in the bronze dagger culture and looking over different local relations at that time. Subdividing upper Shangmashi culture chronologically and comparing it to other remains in surrounding area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cultural traits, how it's developed and spatiality over time based on existing research findings.

It turns out upper Shangmashi culture features jar-shape pottery with double rim and horizontal pattern and it makes its appearance in the relationship with Dazuizi type of Shuangtuozi culture, specifically based on the double-rimmed pottery culture in the downstream of Biliu River and eastern Liaodong Peninsula where the double-rimmed pottery is dominant.

Before upper Shangmashi culture comes into being, Liaodong

Peninsula could be classified into Shuangtuozi culture in the southernmost area of Liaodong Peninsula and double-rimed pottery centered culture of the north. Also, various local cultures are developed in the mountain land of Liaodong including Machengzi culture. As Shuangtuozi culture declines, followed by advent of upper Shangmashi culture, such local relations begin to turn around. It's faced with homogeneous culture area, called 'the double-rimed pottery' that encompass even southernmost area of Liaodong Peninsula. For a clear difference between relic and tomb structure that appear with the double-rimed, upper Shangmashi culture in the southernmost part of Liaodong Peninsula, Machengzi culture of relics found in Taizi River, Xinchengzi culture and Shuangfang culture in between characterized by table stones work as a transitional zone. And this study assumes that bronze dagger culture is drawn to such homogeneous double-rimed pottery culture and spreads out.

Keywords: Upper Shangmashi Culture, Shuangtuozi Culture, Shuangfang, Double-Rimed pottery, Horizontal Patter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후 요동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의미

이후석 |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후 요서계통 유물군의 확산
- III. 정가와자유형 주요 유적군의 편년과 변천
- IV. 정가와자유형 정착 과정에서 요동지역 문화변동의 의미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정가와자유형(鄭家窪子類型)은 요동지역(遼東地域)에서 형성되었으나 요서계통 물질문화 분포권에 포함시켜 이해되고 있다.¹ 또한 1990년대 이래 요동 서부지역이나 요하평원(遼河平原) 동쪽 변에 있는 심양(瀋陽) 정가와자(鄭家窪子), 신민(新民) 공주둔(公主屯) 등의 유적들에 근거하여 고고학적 문화 또는 문화유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² 최근에도 관련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³

정가와자유형은 보통 기원전 6~4세기경 요중지역(遼中地域)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비파형동검문화(琵琶形銅劍文化)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유행 시기와 직접적인 확산 범위 및 그 성격 규정에는 여러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⁴

* 투고: 2023년 10월 16일, 심사 완료: 2023년 11월 8일, 게재 확정: 2023년 11월 17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3-기획연구-20)로 수행된 연구임.

1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 창계; 이청규, 2008,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연구 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1982-4.

2 이청규, 1997, 「청동유물의 분포와 사회」, 『한국사 3: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국사편찬위원회; 郭大順, 1993, 「遼東地區青銅文化的新認識」, 『馬韓百濟文化』 13,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3 金美京, 2009, 「遼東地域 青銅器時代 土器文化圈 設定에 관한 再檢討-涼泉文化를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21, 湖西考古學會; 이후석, 2020b, 「정가와자유형 네트워크의 확산과 상호작용」, 『白山學報』 118, 白山學會; 范佳微, 2021, 「鄭家窪子類型初步研究」, 遼寧大學碩士論文; 成璟瑒, 2019, 「鄭家窪子類型小考」, 『文物』 2019-8.

4 정가와자유형 조사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최근 논고(金美京, 2009, 위의 글; 이후석, 2020b, 위의 글)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먼저 유행 시기와 관련되는 시간성을 살펴보면, 상한연대는 춘추 후기(또는 기원전 6세기경) 무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 남한지역의 탄소연대치를 고려하여 춘추 중기(또는 기원전 7세기경) 무렵으로 보는 시각⁵ 역시 있다. 하한연대는 전국 중기(또는 기원전 4세기대 후반) 무렵으로 보는 것이 다수 견해지만, 이때 이미 요동군(遼東郡)이 설치되어 전국연계(戰國燕系) 물질문화로 대체되었다고 보는 연구 또한 제시되어 있다.⁶ 상·하한 연대를 올려보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 학계의 연대 상향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⁷

다음으로 확산 범위와 관련되는 공간성의 경우, 요동 서부지역 또는 요중지역에서 등장하여 주변부로 확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구체적으로는 요동 일부 지역⁸ 또는 요동 거의 전역⁹으로 범주화한 연구, 요동 서부지역에서 교통로를 따라 요동-북한 접경지역을 거쳐 북한 서부지역까지 유적군이 형성되었음을 논한 연구¹⁰ 등이 제시되어 있다. 정가와자유행은 확산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재지적인 요소들과 복합되는 예가 많아 직접적인 확산 범위 역시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외에도 토기문화를 중시하는 시각에서 소위 ‘양천유형(涼泉類型)’¹¹ 개념

5 이창희, 2010, 「점토대토기의 실연대-세형동검문화의 성립과 철기의 출현연대」, 『문화재』 43-3(통권49호), 국립문화재연구소.

6 이광명, 2019, 「전국시기 연의 요동 진출 연구」, 부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이외에도 정가와자유행의 중심연대를 기원전 6~5세기경으로 본다거나(이청규 2008), 기원전 4세기대 후반에는 세형동검문화 단계로의 문화 정체성이 바뀐 것으로도 인식하며(이후석, 2020b, 앞의 글), 심지어는 기원전 3세기경까지 지속되었다고 보는 연구(范佳微, 2021, 앞의 글)까지 나온 상황이다.

8 이청규, 2008, 앞의 글.

9 오강원, 2006, 앞의 책.

10 이후석, 2020b, 앞의 글.

11 ‘양천유형’은 1981년 孫守道가 양천(涼泉) 두도배(頭道背) 유적 수습 유물들을 바탕으로 설정했던 개념이다(周向永, 2016, 「鐵嶺青銅文化的淵源與流變」, 『遼寧省博物館館刊(2016)』). 이에 비해 ‘양천문화’는 1995년부터 辛巖 등이 사용했던 명칭이다(辛巖, 1995,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初探」, 『遼海文物學刊』 1995-1).

에서 점토대토기문화에 상응하는 것만 인정하여 요북지역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연구¹², 청동유물을 중심으로 요서계통 유물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요서지역(遼西地域)까지 일부 포함시킨 연구¹³ 또한 제시되어 있다. 전자 연구가 고고학적 문화 개념인데 비해 후자 연구는 단순 유물복합체에 근접하는 개념이다.

한편 정가와자유형의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된 유물에는 흑도장경호와 점토대토기발, 환형·삼각형의 파수, 두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요서식의 비파형 동검과 선형동부, 다뉴뇌문동경 등의 요서계통 청동유물이 지목된다. 다만 정가와자유형의 요소들은 요동지역 토착문화 속에 다양하게 복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정가와자유형의 정착 과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았으며, 요서계통 유물들의 요동지역 확산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던 문화변동(문화변용/문화접변)의 맥락 하에 접근해야 함을 보여준다.

정가와자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천 과정이나 점토대토기문화의 확산 맥락에서 접근하였는데, 이는 대개 급격하게 진행됐던 문화변동으로 인식됐던 것이 사실이다.¹⁴

그렇지만 정작 정가와자유형의 형성 배경이나 확산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 이에 정가와자유형의 변천 과정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서계통 물질문화의 확산 과정부터 전국연계 문화요소의 유입 양상까지 요동

12 金美京, 2009, 앞의 글; 周向永, 2016, 앞의 글. 다만 金美京은 ‘정가와자문화(鄭家窪子文化)’로 범주화하였고, 周向永은 ‘단산문화(團山文化)’로 범주화하였다.

13 成璟璫, 2019, 앞의 글; 范佳微, 2021, 앞의 글. 흥성(興城) 주가촌(朱家村) 등의 요서지역 일부 유적군을 ‘정가와자유형(鄭家窪子類型)’으로 포괄하는 견해이다.

14 朴淳發, 2004, 「遼寧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定着過程」, 『錦江考古』 創刊號, 忠清文化財研究院; 吳江原, 2006, 앞의 책; 金美京, 2009, 앞의 글; 金玟燮, 2014, 「遼寧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변천과 파급」, 『韓國青銅器學報』 15, 韓國青銅器學會; 李健茂, 1994, 「韓國式 銅劍文化의 性格 - 成立背景을 中心으로」, 『東아시아의 青銅器文化』, 제5회 문화재연구 국제학술회의,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지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됐던 물질문화의 점진적인 변동과정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후 요동지역의 문화변동에는 고조선의 등장이나 변천 과정이 일정하게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후 확인되는 여러 문화변동의 양상들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여기서는 정가와자유형으로 연결되는 요서계통 유물군과 주요 유적들의 시공간적 변천 양상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추정되는 문화변동의 의미까지 추정하여 고조선의 역사문화상을 복원하는 데에 일조하려 한다.

II.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후 요서계통 유물군의 확산

1. 요동지역 유물군의 변화와 획기

요동지역에는 정가와자유형 형성 이전부터 동검, 석제검파두식 등의 요서계통 유물들이 확인된다. 정가와자유형 정착 과정에는 요서계통 유물들이 더욱 증가하여 이때에는 토기문화까지 일부 전해진다. 이후 요동지역에는 요서계통 초기 세형동검문화 요소 외에 전국연계 문화요소까지 수용된다. 이에 여기서는 요동 지역 유물군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비파형동검문화의 획기를 살펴보고,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후 확인되는 청동무기와 청동의기를 중심으로 요서계통 유물들의 출토 맥락과 특징 및 시공간성 등을 살펴보려 한다.

요동지역(특히 요충지역) 비파형동검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유물군의 변화와 획기는 미송리식토기류와 점토대토기류로 대표되는 거시적인 토기문화의 변동 및 동검으로 대표되는 청동유물군의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그림 1).

먼저 비파형동검문화의 초기(기원전 10~9세기) 및 전기(기원전 9~7세기) 단계에는 미송리식토기류가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쌍방식’의 동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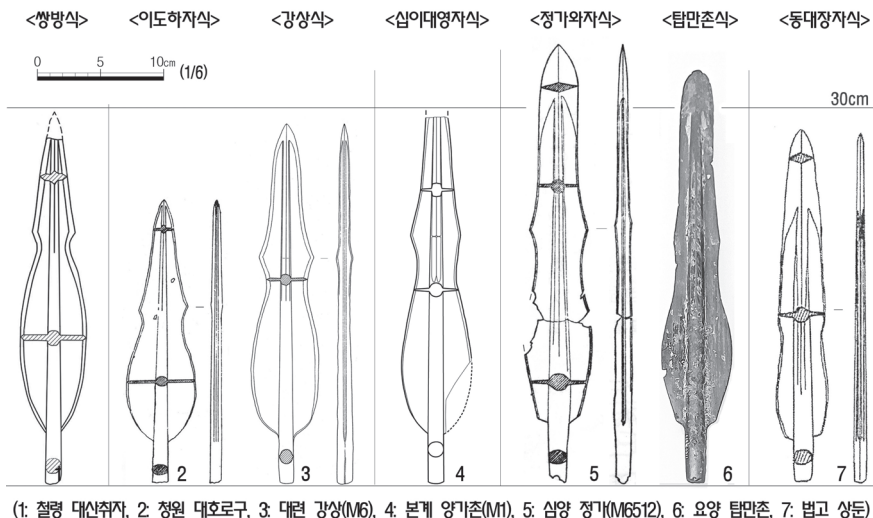


그림 1 요동지역 비파형동검의 주요 형식(이후석 2022 수정)

및 청동검과두식 조합으로 알려진다.¹⁵ 최근 철령(鐵嶺) 대산취자(大山嘴子) 유적¹⁶ 및 신민(新民) 북외(北威) 유적¹⁷에서 비파형동검의 층위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쌍방식’이 ‘이도하자식’에 비해 선행하며, 늦더라도 기원전 10세기경에 등장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를테면 철령 대산취자 2층이나 2층과 1층의 경계에서는 요해둔유형(遼海屯類型)과 마성자문화(馬城子文化)의 3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형동검(단뉴동검) 및 흑색현문호가 출토되고, 신민 북외 3층과 4층 사이에서는 위영자문화(魏營子文化)의 후기 단계와 병행하는 청동난령(2020M28) 및 이도하자유형(二道河

15 이후석, 2022, 「요령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네트워크와 교류», 『고조선의 네트워크와 그 주변 사회』, 주류성.

16 許志國, 2011, 「遼寧鐵嶺大山嘴子青銅文化遺址調查」, 『北方文物』 2011-2.

17 李守義 外, 2022, 「瀋陽市北威遺址2017年考古發掘簡報」, 『瀋陽考古文集』 8.

子類型) 직전 단계의 대부발(2017H25)이 출토되어 서주 전기~중기 경에 비파형동검이 출현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전기에는 ‘쌍방식’과 ‘이도하자식’이 함께 확인된다. 이는 대련(大連) 조왕촌(趙王村) 유적¹⁸에서 두 형식의 동검들이 공반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유엽형동모나 파인형검신과 같은 하가점상층문화(夏家店上層文化)의 요소들도 일부 확인된다. 이른 시기에는 쌍방식이, 늦은 시기에는 이도하자식이 각각 우세한데, 이와 함께 지역별로 ‘십이대영자식’과 ‘강상식’도 확인된다. 대련 강상(崗上)·누상(樓上) 유적 출토품을 통해 청동환형검파두식 외에 석제침형검파두식 역시 점차 전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그러므로 전기 전반에는 요동계통 동검문화 요소들이 유행하였으며, 전기 후반에는 요서계통 동검문화 요소들이 점차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파형동검문화의 후기(기원전 6~5세기) 및 말기(기원전 4세기) 단계에는 점토대토기류가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후기에는 옥황묘문화(玉皇廟文化)나 남동구유형(南洞溝類型)의 요소들이, 말기에는 연하도문화(燕下都文化)와 동대장자유형(東大杖子類型)의 요소들이 일부 확인된다. 요서지역의 남동구유형과 동대장자유형은 기본적으로는 선후 관계를 나타내나, 기원전 5세기 대 후반 경을 전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서로 공존하는 지역유형이다.²⁰ 요동지역의 정가와자유형에는 기원전 400년경을 전후하여 교류 관계가 전환된다.

후기에는 정가와자유형을 대표하는 ‘정가와자식’과 ‘탐만촌식’이 차례대로 등장하여 크게 유행하였으며, 일부 재지화되거나 변형되는 것도 일부 확인된다. 청동검병이나 청동검초 및 석제검파두식(침형/요조형/수유형) 같은 요서계통 검부속구가 유행하며, 각종 기하학문이나 동물모양 청동장식 역시 이때부터

18 許明綱, 1993, 「大連市近年來發現青銅短劍及相關的新資料」, 『遼海文物學刊』 1.

19 이후석, 2022, 앞의 글.

20 이후석, 2020a, 「요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전개와 교류 - 십이대영자문화를 중심으로」, 『韓國青銅器學報』 27, 韓國青銅器學會.

증가하는 요서계통 요소이다. 요서계통 청동유물군이 급증하는 것과 달리 요동계통 청동유물군은 급감한다. 옥항묘문화의 요소들은 대개 마구류에 집중되나, ‘만륜(慢輪) 기법’처럼 재지화된 토기 제작기법 역시 일부 확인된다.

말기에는 ‘탐만촌식’의 변형으로 추정되는 것도 일부 확인되나, ‘동대장자식’과 이에 상응하는 초기세형동검 단계 동검군이 주로 확인된다. 청동검병, 석제검파두식 등의 검부속구가 지속되었는데, 석제검파두식은 이전 시기보다 크기와 무게가 줄어들며, 형태 역시 일부 변화되어 연대 설정에 참고된다. 요령식 동과와 세신형동모는 동대장자유형과의 교류 관계를 나타내는 요서계통 유물이며, 다뉴동경 역시 구획문경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유물들은 늦더라도 기원전 4세기대 후반부터 확인되는 것들이며,²¹ 세형동검문화로의 전환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에는 전국연계 무덤들이 요양이나 심양 일대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어 인적 교류까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²

이와 같이 요동지역 토기문화의 변동이나 동검으로 대표되는 청동유물군의 변천 양상으로 보아 요동지역의 청동단검문화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른 시기에는 청동검파두식과 조합되는 쌍방-이도하자식과 같은 요동계통 동검군이 우세하며, 늦은 시기에는 석제검파두식과 조합되는 정가와자-탐만촌식 및 동대장자식과 같은 요서계통 동검군이 우세하다. 이른 시기에는 하가점상층문화의 요소들이, 늦은 시기에는 옥항묘문화나 연하도문화의 요소들이 일부 보이는데, 요서지역에서 재지화된 이후 재확산된 것이 많다.

2. 요서계통 유물군의 유입과 확산

1) 요서계통 동검

요동지역에는 요서계통 동검군이 정가와자유형 형성 이전부터 요중지역이나

21 이후석, 2022, 앞의 글.

22 이후석, 2020b,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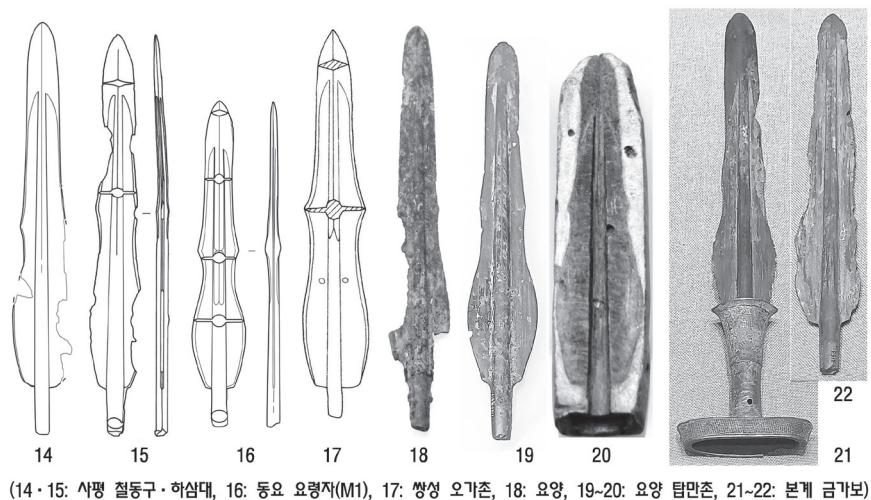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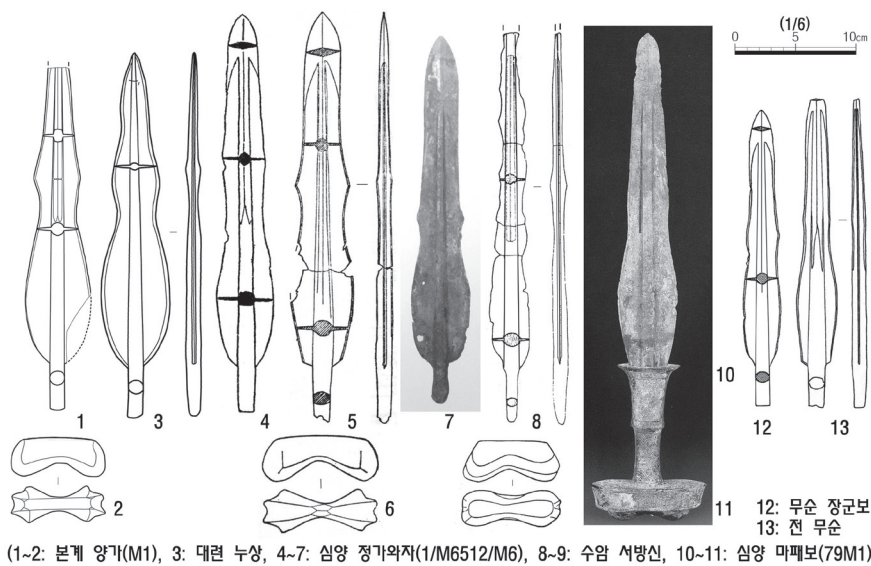


그림 2 요동-길림지역 요서계통 비파형동검의 출토 사례

요남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그림 2).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에 확인되는 요서계통 동검에는 전형적인 십이대영자식(本溪 梁家 M1)이 주목되며, 이외

에도 십이대영자식의 변형이나 복합 형식으로 추정되는 강상식(대련 강상·누상)과 파인형(波刃形)의 누상식(대란 누상 M3)도 확인된다. 또한 정가와자식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일부 확인된다.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의 요동지역에서 확인되는 요서계통 동검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주목되는 것은 이전 단계 요동계통 토착 동검군이 쇠퇴하는 것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특히 정가와자유형 형성 이전부터 요중지역에는 이도하자유형(二道河子類型), 요남지역에는 쌍방유형(雙房類型) 등의 토착문화 동검군이 쇠퇴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요중 평원지역(심양-요양 일대)에는 요양(遼陽) 하평주(下平州) 석관묘를 제외하면 기원전 7세기경 이래 요동계통 비파형동검문화와 관련되는 유적이 거의 없다. 또한 요중 구릉지역(무순-본계 서부)에도 기원전 7세기경부터 본계 양가 1호묘로 대표되는 요서계통 비파형동검문화와 관련되는 유적 출현 이후 요동계통 비파형동검문화의 유적들이 급감한다.²³ 그나마도 본계 신립둔(新立屯)과 같이 동검 없이 선형동부 등의 다른 청동유물이나 토기류만 확인되는 정도이다.

다음으로 요남지역(대련 일대)에서 지역화된 요서계통 동검군이 확인된다. 대련 강상·누상 등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강상식’은 요서계통 동검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형식이며,²⁴ 이후 대련 누상 유적(M3)에서 확인되는 파인형의 변형 동검 역시 오한기(敖漢旗) 청룡산(靑龍山)과 같은 요서 북부지역 출토품과

23 본계 양가 1호묘에서는 십이대영자식의 동검, 침형 석제검파두식, 다뉴뇌문동경 등의 요서계통 유물만이 확인된다. 출토유물 모두 조양 십이대영자 유적(M2~M3)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편년 역시 선후 관계로 설정된다. 십이대영자 유적으로 도출되는 양가 1호묘의 편년관은 대략 춘추전기 후반 또는 기원전 700년경 전후인데(이 후석, 2022, 앞의 글), 유물들의 전세 가능성을 인정하여 기원전 6세기경으로 편년하는 견해(오강원, 2006, 앞의 책) 역시 제기되어 있다. 그렇지만 비파형동검의 전세 예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연대는 기원전 7세기경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24 姜仁旭, 2018, 「초기 고조선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파형동검문화」, 『한국고고학보』 106, 韓國考古學會.

비교하면 요서계통 동검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⁵ 그러므로 정가와자유형 형성 이전에도 요동지역에는 요서계통 동검군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가와자유형 동검군은 대개 요서계통 동검이다. 보통 길이 30cm 이상으로, 돌기부가 검신 중앙부나 약간 아래 쪽에 위치하며, 검신 기부 쪽은 점차 각이 지는 것이 특징이다. 요동지역 정가와자유형 동검군은 요서지역 십이대영자 유형의 동검군에 비해 돌기부를 포함하여 검신 폭이 다소 좁아졌고, 곡률 또한 줄었으며, 기부가 약간 각지면서 봉부가 길어져서 서로 구분된다. 정가와자유형 동검군을 대표하는 것은 정가와자-탐만춘식인데, 동대장자식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²⁶ 정가와자-탐만춘식이 비파형동검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동대장자식과 이에 상응하는 동검들은 초기세형동검²⁷에 해당되는 형식이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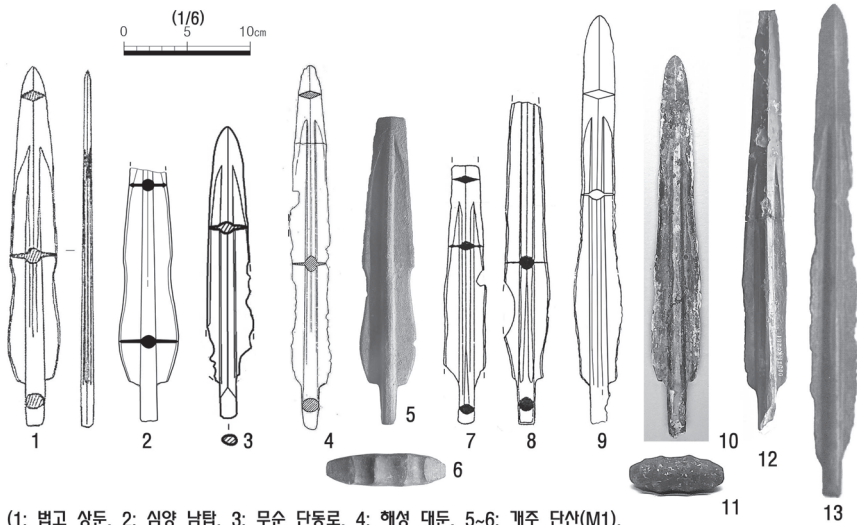
먼저 정가와자-탐만춘식은 가장 널리 분포한다(그림 2). 요중지역(훈하~태자하권; 심양-본계)에서 주로 확인되나, 북으로는 요북-길림 접경지역(동요하권; 사평-요원)을 거쳐 길림-흑룡강성 일대(송화강권; 쌍성)까지, 남으로는 요남-북한 접경지역(압록강권; 단동-의주)을 거쳐 한반도의 중부지역(북한강권; 춘천) 및 남부지역(낙동강권; 상주)까지 각각 분포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므로 기원전 6~5세기경에는 요서계통 동검군의 분포권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요중지역에는 요동계통 유물군이 거의 사라지고, 요서

25 대련 누상 유적(M3)에는 전형적인 강상식과 함께 소위 파인형에 해당되는 누상식의 변형 동검 역시 1점 확인된다. 돌기부가 검신 상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요동지역 동검군에 연결되나, 파인형의 검인 형태는 요서지역 동검군에 연결되는 속성이다. 또한 요서계통 청동유물이 다수 공반되고 있어 요동지역 확산 맥락에서 충분히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이때부터 요서계통 유물군이 요동지역으로 본격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

26 이후석, 2020b, 앞의 글.

27 이청규, 2014, 「청동기와 사회」,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道具論』, 서경출판사; 이후석, 2018, 「요령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연구동향 - 청동무기 연구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41, 崇實史學會.

28 이후석, 2022, 앞의 글.



(1: 범고 상둔, 2: 심양 남탑, 3: 무순 단동로, 4: 해성 대둔, 5-6: 개주 단산(M1), 7-8: 요양 양감산(M1/M3), 9: 본계 사역, 10-11: 심양 마패보(21M1), 12: 해성 하협하, 13: 단동 망강촌)

그림 3 요동지역 초기세형동검 출토 사례

계통 유물군이 널리 확산되었는데, 이는 결국 정가와자유형 형상으로 귀결되는 현상이다.

다음으로 동대장자식과 이에 상응하는 동검들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그림 3). 다만 요동지역 출토품은 요서지역 출토품에 비해 크기가 약간 작아지는 것도 있어 일정하게 변용되었음도 알 수 있다. 요중지역에는 철령~요양 일대(法庫 上屯, 瀋陽 南塔, 海城 大屯)에서 주로 확인되며, 요남지역(벽류하권; 蓋州 團山 M1)이나 요남-북한 접경지역(압록강권; 丹東 望江村, 청천강권; 順川 北倉面)에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대장자식과 이에 상응하는 동검들은 요서지역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하에 요동지역을 벗어나서 북한지역까지 일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주 단산 1호묘에서는 동대장자유형 동검 외에 석제 검파두식까지 조합되고 있어 이와 같은 초기세형동검 단계 동검군의 변화 양상이 동대장자유형 유물군의 요동지역 확산 양상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요동지역에는 대략 전국중기 무렵으로 편년되는 요서계통 세형동

검들이 확인된다(그림 3). 윤가촌식이나 상보촌식으로 명명되는 세형동검인데, 주로 초기철기시대 세형동검문화(윤가촌유형/상보촌유형)에서 확인되는 것이지만, 기원전 4세기대 후반부터 요서지역에서 요동지역으로 전이되는 것이 확인된다.²⁹

윤가촌식은 요서 남부지역(建昌 東大杖子, 錦州 紫荊山)에서 등장하여 요중지역(瀋陽 馬貝堡 21M1, 遼陽 亮甲山 M1, 海城 夏夾河) 및 요남지역(大連 尹家村)으로 확산되었는데, 기원전 3세기경 이후에는 요중지역에는 사라지고 요남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이 특징이다. 상보촌식은 검신 하부가 약간 등글거나 미약하게 단이 지는 ‘고식’만이 확인된다. 요중지역(遼陽 亮甲山 M3, 本溪 沙窩)에만 분포하며, 기원전 3세기경에는 요동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서부지역까지 분포권이 확대된다. 그러므로 정가와자유형의 동검군은 동대장자유형 같은 요서계통 동검군의 영향으로 초기세형동검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요서계통 검부속구

요동지역에는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후부터 요서계통 동검군과 조합되는 청동검병, 석제검파두식 등의 검부속구가 확인된다. 청동검병은 파부와 반부가 직각으로 연결되어 평면 T자형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인데,³⁰ 이는 찌르거나 찌는 사용방식과도 관련되는 구조이다.³¹ 요서지역에는 기원전 7세기경 이래 초보적인 검병부속(朝陽 木頭溝 M1)이 출토되어 등장 시기를 짐작하게 하며, 요동지역에는 기원전 6세기경부터 요중지역(심양-요양 일대)과 요남지역(대련 일대)을 중심으로 확인된다.³²

29 이후석, 2018, 앞의 글.

30 李健茂, 1995, 「韓國式銅劍의 組立式 構造에 대하여」, 『考古學志』 7, 韓國考古美術研究所.

31 조진선, 2017, 「세형동검의 기능과 그 의미」, 『한국고고학보』 105, 한국고고학회.

32 吳江原, 2003, 「琵琶形銅劍~細形銅劍 T字形 青銅製劍柄의 型式과 時空間的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1, 韓國上古史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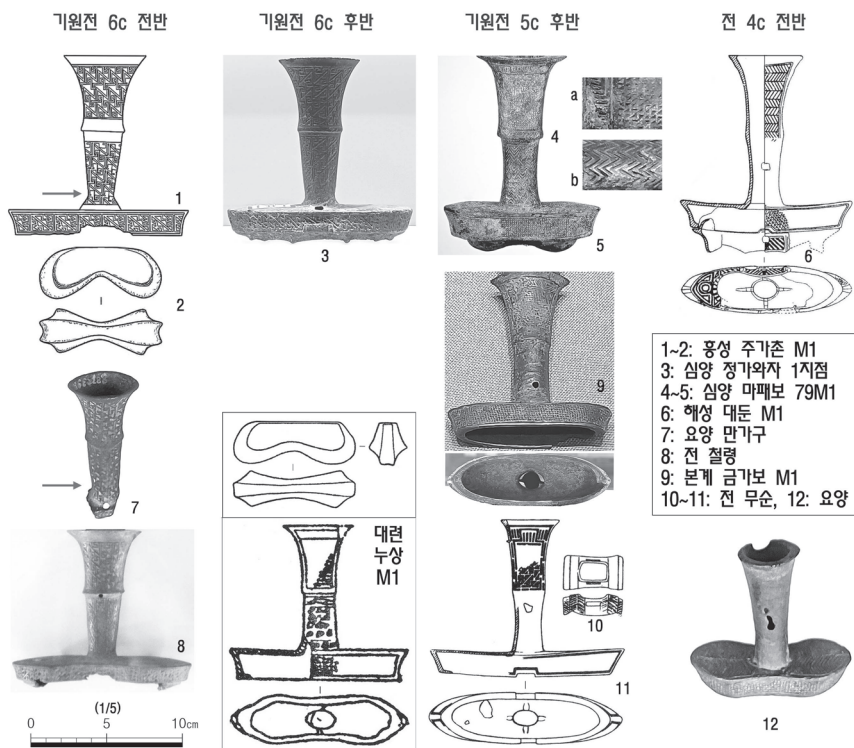


그림 4 요동(요중)지역 청동검병의 계보와 변천

요동지역 청동검병의 등장 과정은 기원전 6세기대 전반으로 편년되는 홍성(興城) 주가촌(朱家村) 유적(M1) 출토품을 기준으로 볼 때, 요양(遼陽) 만가구(萬家溝) 유적이나 전 철령(鐵嶺) 및 심양 정가와자 1지점의 청동검병을 통해 알 수 있다(그림 4). 청동검병들은 전면 시문되어 있는 뇌문 속성이나 파부 하단 형태 및 반부 평면 형태 등의 속성으로 보아 같은 형식으로 분류된다. 특히 요양 만가구와 전 철령 출토품은 정가와자 1지점 출토품에 비해 조금 일찍 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³³ 또한 대련 누상 유적(M1) 출토품은 검병 반부 형태 및 이와 조합되

33 홍성 주가촌 유적(M1) 출토품과 전 철령 출토품은 심양 정가와자 유적(1지점) 출토

는 석제검파두식 형태 등의 속성으로 보아 홍성 주가촌 유적(M1) 출토품에 비해 후행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청동검병은 기원전 6세기대 중엽 전후부터 요서지역에서 요중지역(철령~요양 일대)으로 전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요동지역에는 전국시대 이후 청동검병 반부 형태와 파부 문양에서 획기적인 변화 양상이 확인된다. 반부 기울기는 수평 상태 외에 파부 방향으로 약간 굽은 것이 확인되며, 평면 형태는 8자형인 것과 함께 타원형인 것도 확인된다. 파부 상단에는 ‘ㄴ’형구획선(瀋陽 馬貝堡 79M1, 本溪 金家堡 M1, 大連 臥龍泉, 長海 上馬石 M3)과 점선 또는 ‘ㄴ’형구획선(傳 撫順, 瓦房店 曲屯 M1)과 점선으로 이루어진 이중문양대의 안에 뇌문계열 문양들이 시문되고, 파부 하단에는 거치문이 시문된다거나 무문양인 것도 확인된다.

특히 초기세형동검 단계에는 반부가 파부 방향으로 약간 굽고, 반부 평면 형태가 타원형인 것이 주로 확인된다. 파부 상단에는 간략화된 뇌문이나 단사선문(遼陽 市內, 旅順 官屯子) 또는 엽맥문(海城 大屯)이 시문되며, 파부 하단에는 무문양인 것이 대세이다.

결국 청동검병은 정가와자유형 형성 과정에서 요서지역에서 요중지역으로 파급되었으며, 거의 같은 때에 요남지역까지 전해진다. 이후 청동검병은 정가와자유형 확산 과정에서 재지화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더욱 보급되었는데, 북한 서부지역에도 출토 예(傳 信川)가 알려진다. 비파형동검과 공반되는 단계에는 반부가 수평 상태 또는 검파두식 착장부 쪽으로 약간 굽은 상태에서 뇌문계 문양이 유행하며, 초기세형동검 단계에는 반부가 파부 방향으로 굽은 상태에서 단사선계 문양이나 무문양이 유행한다.

석제검파두식에는 마고형(蘑菇形), 과릉형(瓜稜形), 침형(枕形), 요조형(凹槽形), 수유형(獸乳形) 등이 있다.³⁴ 모두 요서계통으로 가장 많은 것은 침형이

품에 비해 실제로는 반부가 검파두식 착장부 쪽으로 약간 굽어 있다. 또한 홍성 주가촌 유적(M1) 출토품과 요양 만가구 유적 출토품은 오목하게 생긴 파부 하단 형태가 동일하여 더욱 유사하다.

34 李健茂, 1995, 앞의 글;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

며, 요조형과 수유형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마고형과 과릉형은 가장 희소하다.³⁵ 요동지역에는 정가와자유형 형성 이후 본격 확산되는 것이지만,³⁶ 침형이나 요조형은 그 이전부터 전이됐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5).

먼저 침형 검파두식(그림 5의 상)은 십이대영자유형에서 출현하였는데, 요동 지역에는 정가와자유형 형성 이전부터 확인된다. 요중지역(遼陽 三道壕, 本溪 梁家 M1)과 요남지역(大連 崗上 M13)에서 보이는데, 특히 십이대영자식 동검 등과 공반되는 본계 양가 1호묘 출토품과,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품에 근접하는 요양 삼도호 유적 출토품은 기원전 7~6세기경의 연대 폭에 포함된다. 대련 강상 13호묘 출토품은 기원전 8~7세기경 침형계통 검파두식이 전이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정가와자유형 형성 이후에는 검파두식 정면 및 바닥 형태 등이 변화된다. 정면 요철흔이 뚜렷하고 바닥 접지면이 좁은 형태(심양 정가와자 M6512, 대련 누상 M1) → 정면 요철흔이 미약하고 바닥 접지면이 약간 넓어지는 형태(岫巖 西房身, 심양 마패보 79M1) → 정면 요철흔이 사라지고 바닥 접지면이 넓은 소형(심양 정가와자 묘지)으로 변화하는 것 같다. 다만 심양 정가와자 묘지 출토품은 부신(阜新) 출토품과 함께 건창(建昌) 동대장자(東大杖子) 유적(M5·M25) 출토품에 연결되는 것일 수가 있다.

다음으로 요조형 검파두식(그림 5의 중)은 오금당유형에서 출현하였는데, 요동지역에는 정가와자유형 형성 단계부터 보이지만, 이전부터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요북지역(開原 清水河邊)과 요남지역(普蘭店 馬小店)에서 보이는데,

化遺存(上)」, 『考古學報』 1982-4.

- 35 오강원, 2004, 「遼寧~韓半島地域 琵琶形銅劍과 細形銅劍의 劍柄頭飾 研究」, 『北方史論叢』 2, 高句麗研究財團. 마고형은 능원(凌源) 왕팔개자(王八蓋子) 출토품과 법고(法庫) 박수구(柏樹溝) 출토품의 예가 있고, 과릉형은 객좌(喀左) 소영자(小營子) 출토품과 서풍(西豐) 방목하변(房木河邊) 출토품의 예가 확인된다.
- 36 김동일, 2015, 「중국 동북 지역 출토 검파두식 연구-검파두식을 통해 본 비파형동검의 계통에 대하여」, 『嶺南考古學』 71, 嶺南考古學會.

문화로의 전환 과정에서 요서지역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하에 재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침형이나 요조형이 간략화된 형식 중에 등면 중앙부가 오목하고 양단부가 편평사면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은 전국시대 이후 요서지역(건창 동대장자, 부신)에서 먼저 확인되며, 요동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것이 확인된다. 남한지역 기준으로 보면 소위 산요형(山凹形)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등면 중앙부의 가공(연마) 상태에서 차별성이 확인되고 있어 서로 같은 배경 하에 등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의 수유형 검파두식(그림 5의 하)은 다른 종류와는 달리 쌍유형과 4유형의 두부류로 대별된다.³⁷ 요서지역(建平 九間房, 건평)에도 정가와자유형 직전 단계에야 등장하였으며, 요동지역(西豐 沙河村, 심양 정가와자, 法庫 石柱子村)에는 초기세형동검 단계부터 확인된다. 다만 북한지역(平壤 新城洞) 출토품을 고려하면 요동지역에도 기원전 6~5세기경에는 등장하였다고 생각된다.³⁸

청동검초 역시 정가와자유형에서 확인되는 요서계통 기종으로 상위등급 무덤에만 부장되는 것이어서 주목되나, 구체적인 조사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많지 않다(그림 6). 요서지역(阜新 葫頭溝 M5, 전 요서)에는 기원전 7세기경 이후 등장하였으며, 요동지역에는 기원전 6~4세기경 정가와자유형 및 기원전 4~3세기경 세형동검문화(윤가촌유형/상보촌유형) 단계 수장묘에서만 확인된다.

정가와자유형의 것으로는 전 봉천(奉天)³⁹ 출토품(國立故宮博物院所藏)과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품(3점)이 있다. 목제검초의 청동부속으로 판단되

37 수유형계 검파두식은 바닥 상태가 ‘볼록→편평→오목’으로 바뀌면서 접지면의 상태 역시 ‘첨저→말각평저→평저’ 방향으로 변화한다(斬楓毅, 1982, 앞의 글).

38 북한지역이나 남한지역의 수유형계 검파두식은 전국 전기 무렵으로 편년되는 평양 신성동 유적 출토품이 가장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金玟燮, 2014, 앞의 글; 이후 석, 2020b, 앞의 글; 中村大介, 2010, 「粘土帶土器文化と彌生文化」, 『季刊考古學』 113, 雄山閣 참조).

39 奉天(省)은 심양 일대 또는 요하평원부터 천산산맥 일대까지 포괄하는 20세기 전 반경의 지명이다. 출토 맥락이 불분명한 점이 문제지만, 정가와자유형 청동검초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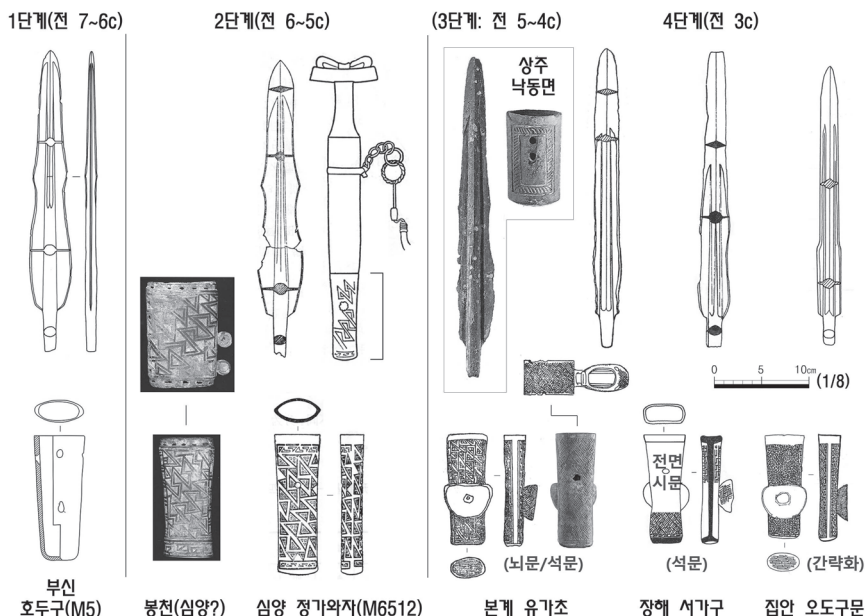


그림 6 요동지역 청동검초의 계보와 변천(이후석 2022 수정)

며, 상부 부속의 경우 전 봉천 출토품은 원형장식품이 붙어 있는 것에 비해 정가와자 6512호 출토품은 청동고리만이 남은 상태이다. 하부부속의 경우, 전 봉천 출토품은 하단 외에 측면에도 문양대가 있는 것에 비해 정가와자 6512호 출토품은 상·하단에 문양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전 봉천 출토품은 정가와자 6512호 출토품에 비해 선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 후면의 뇌문 문양에는 유사성이 높아 큰 시기차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정가와자유형의 청동검초는 남한지역까지 확산된다. 영남지역(상주 낙동면)에서 보이는데, 탐만촌식 동검 및 간략화된 장식문양이 있는 청동검초가 조합되고 있어 기원전 400년경 전후 정가와자유형 확산 과정에서 전이되었다고 생각된다. 본계 유가초(劉家哨) 출토품은 상보촌식(고식) 동검 및 한면에는 뇌문, 다른 한면에는 석문이 시문되어 있는 청동검초와 조합되고 있어 기원전 300년경 전후 양식으로 추정된다. 이후 장해(長海) 서가구(徐家溝)와 집안(集安) 오도구

문(五道溝門) 출토품은 기원전 3세기경을 대표하는 청동검초이다.

3) 다뉴동경과 이형동기

다뉴동경은 요서계통 비파형동검문화를 대표하는 청동의기이다. 기원전 8세기경 요서지역(대릉하권; 조양 일대)에서 등장하였으며, 기원전 7세기경에는 요중지역(태자하권; 요양-본계 일대)으로 전이된다. 다만 이때까지 다뉴동경의 주된 분포권은 요서지역이다. 기원전 6세기경에는 요서지역에서 점차 사라지는 대신 요중지역(혼하 중하류권; 심양 일대)에서 재지화되면서 다뉴동경의 분포권이 크게 달라진다. 이때부터 다뉴동경의 구획대상 단위 문양(뇌문)이 점차 간략화되면서 크기(지름) 역시 축소된다.⁴⁰

요동지역에는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후 요중지역에만 다뉴뇌문경이 보이는데, 본계 양가 1호묘와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품이 각각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계 양가 1호묘 출토품은 조양 십이대영자 3호묘 출토품의 문양 모티브를 반전시킨 형상인데, 요서계통 다뉴동경의 제작 정보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품은 본계 양가 1호묘나 건평(建平) 대랍한구(大拉罕溝) 881호묘 출토품과 문양 모티브가 유사하나, 두께(1.0cm)가 매우 두꺼우며, 꼭지 사이 문양선이 잘 확인되지 않는 상이 점도 확인된다. 이전 단계 다뉴동경 문양 모티브를 재지화하면서 요동지역에서 자체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⁴¹

요중지역에는 아직 다뉴동경 출토 예가 적어 구체적인 계승 관계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에 이미 그 상징성과 양식성이 수용됐을 가

40 이후석 2022, 앞의 글.

41 이양수, 2010, 「다뉴뇌문경의 제작기술과 사회-일본 교토국립박물관·고려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35, 湖南考古學會. 그의 뇌문동경 분류안에 따르면, 대형으로 다치구 콤파스를 사용하여 제도하는 것이 A군이고, 소형으로 콤파스를 사용하지 않고 제도하는 것이 B군이다. 본계 양가 1호묘 출토품은 A군에 해당되며,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품은 B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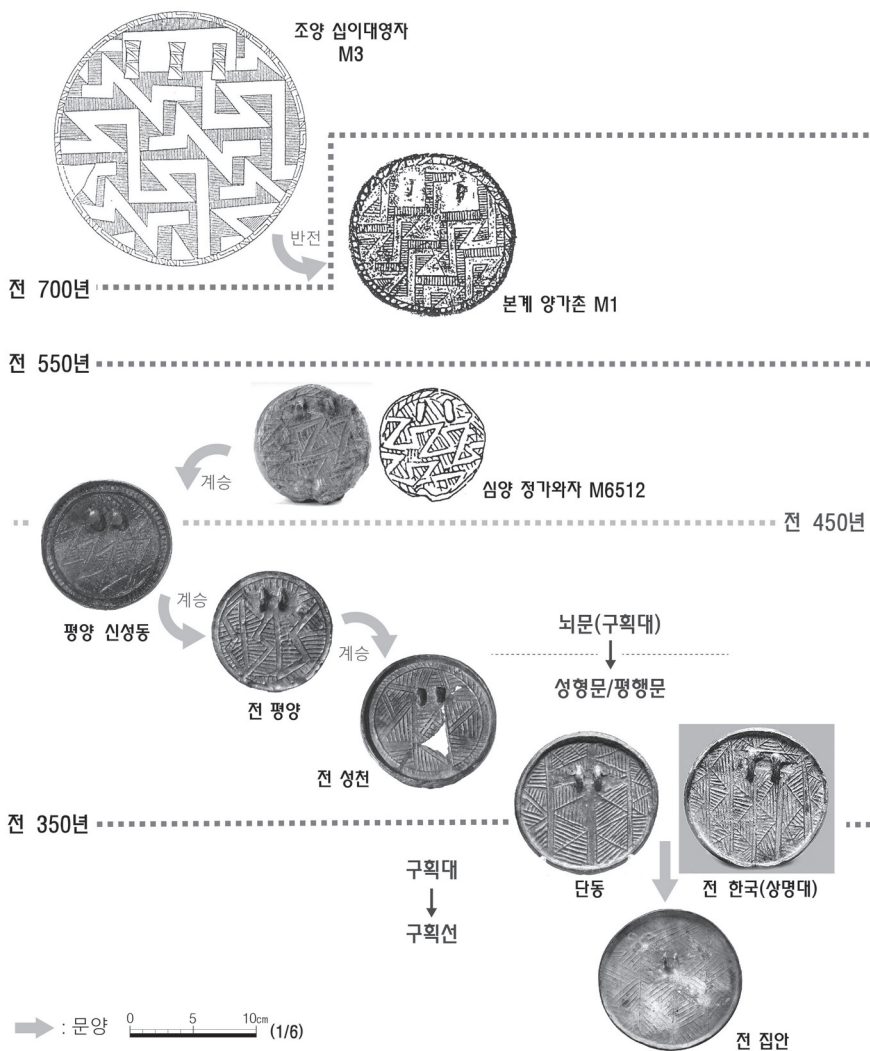


그림 7 요동지역 다뉴동경의 계보와 변천(이후석 2022 수정)

능성도 충분하다. 이후 정가와자유형 확산 과정에서 다뉴동경의 분포권은 요남-북한 접경지역(압록강권)과 북한 서부지역(대동강권)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크게 변모한다. 특히 동대장자식에 상응하는 초기세형동검 단계에는 Z자상의

구획대문이 종상 평행 구획대문으로 변화하였으며, 이후 평행 구획선문으로 다시 바뀌면서 남한지역까지 전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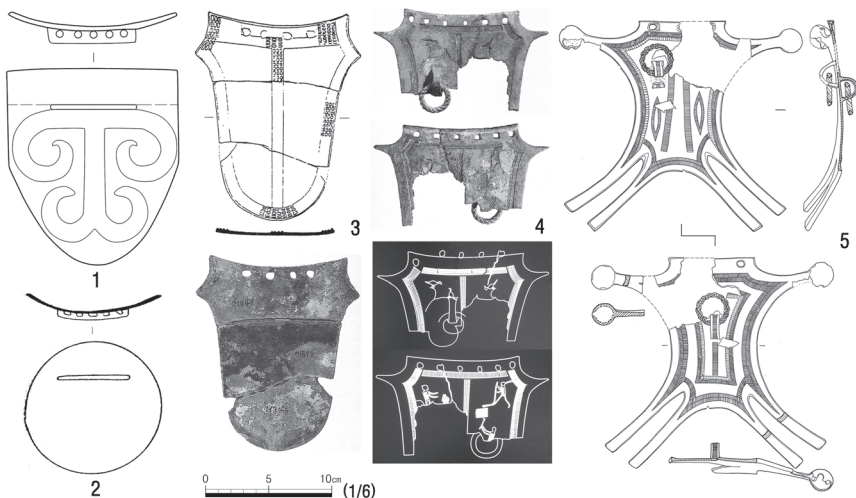
요남-북한 접경지역(단동 일대)에는 평행 구획대문경(丹東)과 구획선문경(傳 集安)이 차례대로 확인되고 있어 기원전 4세기경의 지역 거점으로 추정되며, 북한 서부지역(평양 일대) 역시 구획대문경(平壤 新城洞, 傳 平壤, 傳 成川)이 함께 확인되는 한편 중형상의 구획선문경(延安 小雅里)도 확인되고 있어 역시 기원전 5~4세기경의 지역 거점으로 생각된다(그림 7).

‘이형동기’는 남한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연구 과정에서 초기 단계의 문양 있는 청동의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⁴² 다만 다뉴동경이나 동탁처럼 어느 정도 구별되는 것은 제외시키기도 한다.⁴³ 정가와자유형에서 기원하는 이형동기에는 견갑형동기와 방패형동기가 있다. 나팔형동기는 요서지역이나 하북-내몽고의 접경지대에서 기원하는 기종이며, 원개형동기와 경형동기 역시 하북-내몽고에 걸친 북방지역에서 출토되는 것이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정가와자유형에서 직접 기원하며, 요동지역과 남한지역의 무덤에서 1점씩만 확인되는 방패형동기와 견갑형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먼저 방패형동기는 호로도(胡蘆島) 오금당(烏金唐) 유적 출토품과 같은 요서 지역의 일부 당로형동기와 비슷하다. 다만 요서지역의 당로형동기와 요동지역의 방패형동기는 장식 차이가 현저하여 현재로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상정하기 쉽지 않다. 요동지역에는 심양 정가와자 1지점과 3지점의 6512호묘 출토품이 알려진다. 1지점의 것은 원개형을 띠고, 6512호묘의 것은 말각오각형에 가까워서 서로 다른 기종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내외면의 굴곡도와 외면 중상

42 李健茂, 1992, 「韓國 青銅儀器의 研究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28, 韓國考古學會; 이양수, 2020, 「한반도의 이형동기」, 『2020 한국의 청동기문화』,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시도록.

43 이후석, 2023b, 「남한지역 세형동검문화의 형성과정」, 『한국고고학보』 2023권 3호, 한국고고학회.



1: 심양 정가와자 M6512(1점), 2: 同 정가와자 1지점(1점), 3: 대전 괴정동(1점), 4: 전 대전(1점), 5: 아산 남성리(1점)

그림 8 요동지역 방패형동기의 변천과 전이

위에 있는 횡방향의 고리쇠에 종방향의 원형 구멍 5개가 뚫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기종으로 판단된다. 또한 크기(너비) 역시 각각 14.0cm와 14.6cm로 서로 비슷하다(그림 8).

남한지역에는 대전 괴정동과 전 대전, 아산 남성리 출토품이 있다. 모두 상단에만 장방형의 구멍 2~4개가 뚫려 있어 매달아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변천 관계로는 전후면의 문양·고리 유무 등이 주요 속성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전면에만 문양 있는 것이 고식(대전 괴정동)이고, 후면에도 문양 있는 것이 신식(전 대전, 아산 남성리)이며, 또한 고리가 전면에만 있는 것이 고식(전 대전)이고, 후면에도 있는 것이 신식(아산 남성리)으로 이해된다(그림 8).⁴⁴

44 이양수, 2020, 앞의 글, 272쪽. 전 대전 출토품의 문양에는 대전 괴정동의 출토품과 같은 것이 확인되나, 고리 모양으로 보면 예산 동서리의 검파형동기와 흡사하여 전후 관계를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요동지역과 남한지역의 방패형동기를 비교하면, 형태 및 문양장식 등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확인된다. 다만 말각오각형에 근접하는 방패형이라는 전체 형태 측면이나 외면에만 문양이 있고 내면에는 문양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품과 대전 괴정동 유적 출토품은 어느 정도 친연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방패형동기의 변천 과정은 ‘정가와자 1지점→3지점(M6512)→(?)→괴정동→(전 대전)→남성리’로 설정된다.

다음으로 견갑형동기는 요서지역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기종으로 요동지역에는 정가와자유형 유적에만 분포한다. 심양 정가와자 3지점 6512호묘와 본계 금가보 1호묘 출토품이 알려진다.⁴⁵ 전반적인 크기는 물론 장식과 문양이 주요 속성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면 가장자리의 문양 구성이 일변하는 것이 확인되며, 이는 모두 요서지역의 다른 기종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를테면,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 출토품의 ‘대상반화살문(⇔)’은 조양 십이대영자 3호묘의 다뉴뇌문동경에서 먼저 확인되며, 본계 금가보 1호묘 출토품에 있는 ‘삼각·사각복합문’은 홍성 주가촌 1호묘의 나팔형동기의 투조 문양에서 먼저 확인된다(그림 9).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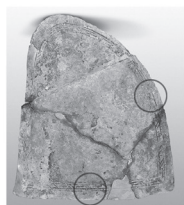
남한지역에는 전 경주 출토품(東京國立博物館)⁴⁷이 유일하다. 요동지역 출토품과 비교하면 형태와 장식·문양에서 많은 차이점이 확인된다. 우선 전체 크기가 커지면서 측면 곡률 역시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쪽 약 1/3 지점에 있던 턱이 지는 굴곡부가 가장자리 쪽에 더욱 치우쳐서 돌대화되었고, 외면 중

45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와 본계 금가보 1호묘의 견갑형동기는 2021년 이래 瀋陽博物館과 本溪博物館에 각각 전시되고 있다. 2023년 8월 중국 요동지역 현지조사 당시 두 유적 출토 견갑형동기와 공반유물들을 필자 등이 직접 확인하였음을 밝혀둔다.

46 이후석, 2023b, 앞의 글, 4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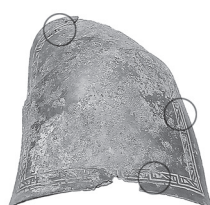
47 전 경주 출토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호서-호남지역 출토품일 가능성이 높다.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1964)의 유물들은 대부분이 불분명한 입수 과정을 거친 것들이며, 현재까지 남한지역에서 좁은 의미의 이형동기류로 분류되는 것은 모두 호서-호남지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심양 정가와자 M6512



(내면뉴 3개)

본계 금가보 M1



(내면뉴 3개)

(호서)

?

전 경주



(내면뉴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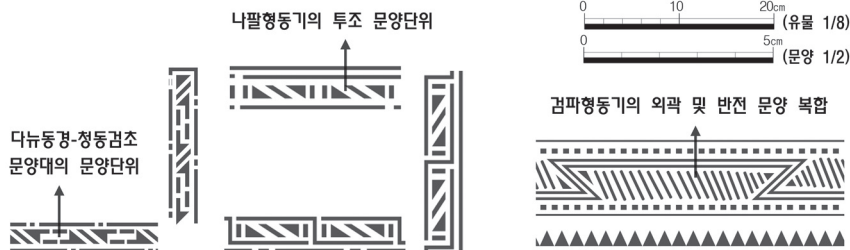


그림 9 요동지역 건갑형동기의 변천과 전이(이후석 2023b 수정)

양부에 종방향의 문양대가 처음 나타나는 점이 지목된다.⁴⁸ 문양 측면에서 가장 자리 문양대의 삼각거치문과 점열문은 신출 요소이며, 문양대의 중앙부에 있는 ‘ㄷ’형의 구획대문은 남한지역에만 있는 검파형동기의 가장자리에서 찾아지는 문양이다. 이에 전 경주 출토 건갑형동기는 아산 남성리 유적 출토 검파형동기에 비해 후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요동지역과 남한지역의 건갑형동기를 비교하면, 요동 동부지역이나 호서지역에서 아직 중간 단계의 것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동지역 건갑형동기의 가장자리 문양에서 확인되는 ‘ㄷ’자형 구획문은 남한지역 초기 검파형동기의 외곽 문양에서 확인되는 ‘ㄷ’자형 구획문과 유사하여 서로 연결되는 문양으로 생각된다(그림 9). 그러므로 건갑형동기의 변천 과정은 ‘정가와자 3지점(M6512)→금가보(M1)→(호서?)→전 경주’로 이해된다.

48 이후석, 2023b, 앞의 글, 491쪽.

이와 같이 정가와자유형에서 기원하는 이형동기(방패형동기/견갑형동기)를 대상으로 요동지역의 것과 남한지역의 것을 비교하면, 형태, 문양·장식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두 지역 간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틈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요동지역 것은 공구류와 함께 출토되어 피장자의 경제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위세적인 장식류로 판단되며,⁴⁹ 남한지역의 것은 집단 의례에서 이용되는 제사장의 종교적 권위를 보여주는 의기류로 생각된다.⁵⁰ 그럼에도 두지역권 모두 수장급의 무덤에만 부장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장층의 권력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III. 정가와자유형 주요 유적군의 편년과 변천

1. 정가와자유형의 문화요소와 분포 맥락

정가와자유형의 분포권은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된 묘제, 주거 양식, 특징적인 유물들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정가와자유형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확인되는 예는 드물지만, 요서계통 물질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요동지역의 토착문화 속에 다양하게 복합되고 있으므로 분포권의 범주화는 요동지역의 문화변동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정가와자유형의 묘제와 주거 양식에 대한 인식 문제이다. 정가와자유형의 주된 묘제에는 대개 목질 장구가 사용되는 토광묘가 지목된다. 이는 심양 정가와자 유적에서 목곽묘가 확인되고, 그 기원지인 요서지역에는 목질 장구를 주로 사용하는 무덤들이 다수 분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요서지역에는 단순 석관묘와 석곽묘는 물론 적석목관묘형 분묘 등도 확

49 이후석, 2020b, 앞의 글; 이후석, 2023b, 위의 글.

50 李健茂 1992, 앞의 글; 이양수, 2020, 앞의 글; 이후석, 2023b, 위의 글.

인된다. 그러므로 정가와자유형의 묘제 관념은 훨씬 다양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가와자유형의 주거지는 부뚜막식 화덕이 벽가 쪽에 시설되어 있는 수혈 주거 양식으로 알려진다. 다만 신민(新民) 공주둔(公主屯) 유적에서 확인되어 있는 주거지 2기(F1·F2)만을 제외하면, 다른 주거 유적들은 거의 찾아지지 않고 있다. 무순(撫順) 연화보(蓮花堡)와 철령(鐵嶺) 구대(邱臺) 유적에서 확인되는 초기철기시대의 주거지가 정가와자유형으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현재로는 정가와자유형의 주거 양식을 한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가와자유형의 주거 양식은 더욱 다양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가와자유형의 문화 정체성은 특징적인 토기류와 청동유물 등의 유물군을 중심으로 이해되며, 그와 같은 유물복합 양상들은 정가와자유형의 확산 맥락으로 연결된다. 특히 흑도장경호와 점토대토기발, 환형·삼각형의 파수(또는 파수부호), 두형토기 등의 점토대토기류와 요서식의 비파형동검과 선형동부, 다뉴늬문동경, 이형동기 등의 청동유물군이 주목된다.

정가와자유형의 분포권은 기원전 6~4세기경의 요중지역(훈하-태자하권; A군)을 중심으로 요북-길림 접경지역(동요하권; D군)이나 요남-북한 접경지역(압록강권; B군)에서 확인되는 유적들을 포괄한다. 다만 요중지역 외곽 유적군(B·D군)은 토기문화가 일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렇지만 북한 서부지역(대동강권; C군)에도 요중지역(A군)처럼 ‘동검+다뉴동경’ 부장묘와 점토대토기류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교통로의 결절점에 위치하는 요남-북한 접경지역(B군) 유적들은 정가와자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그림 10).

한편 요북-길림 접경지역(D군)은 대개 기원전 6~5세기경으로 편년되는 동검 출토 분묘유적인데 비해 그 주변부의 소위 ‘양천문화(涼泉文化)’⁵¹ 또는 ‘단산문화(團山文化)’⁵²로 언급되는 유적군과 ‘연화보문화(蓮花堡文化)’⁵³로 지칭되는

51 辛巖, 1995,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初探」, 『遼海文物學刊』 1995-1; 許志國, 2009,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再探」, 『遼寧省博物館館刊(2009)』.

52 周向永, 2016, 앞의 글.

〈표 1〉 정가와자유형 주요 분묘 및 출토유물(이후석 2020b 수정)

유적	주요 유구	출토유물	
		청동기(석범 포함)	석기·토기·기타
심양 정가와자	1지점묘	동검1, 동병1, 원개형동기2, 방패형동기1, 경형동기5, 동부1, 동착1, 동도1, 동추2, 청동절약8, 쌍월형동식8	
	2지점묘	동검1	
	3지점 목곽묘 (M6512)	동검3, 동초3, 동촉169, 다뉴동경1, 원개형동기2, 경형동기12, 활대동포130, 신발동포180, 방패형동기1, 견갑형동기1, 동부1, 동착1, 동도1, 동추1, 동함4, 동포8, 청동절약16, 나팔형동기4, 동식1, 동관33, 동환1, 동포7, 동갑1, 동소1	석제검파두식3, 천하석제경식(반결옥1, 타원옥46, 관옥33), 골표8, 골침1, 골갑1, 장경호3 / 소뼈
	3지점 토광묘 (M659)		골검1, 환형골기1, 장경호1 / 소뼈
	3지점 기타묘	동검3, ?	석제검파두식1, ?
	토광묘(M2)	동검1	석제검파두식1, 장경호1
	토광묘(M1)		장경호1
심양 마패보	토광묘(79M1)	동검1, 동병1, 동부1, 동착1, 동식12	석제검파두식1, 지석1
	토광묘(21M1)	동검1(윤가촌식)	석제검파두식1, 장경호1
심양 납탐	토광묘?	동검1(동대장자식)	
심양 열료로	토광묘(5기)	동검1, ?	석제검파두식1 등
법고 상둔	토광묘?	동검1(동대장자식)	
전 철명	토광묘?	동병1	
무순 단동로	토광묘?	동검1	
무순 장군보	토광묘?	동검1	
전 무순	토광묘?	동검1, 동병1, ?	

요양 탑만촌	토광묘(2기?) (1981/1990)	동검1, 동검석범2쌍(양면), 동부·동추석 범1쌍－동식석범1쌍(양면), 동착석범1쌍 (정면)－동과석범1건(측면)	
요양 만가구	토광묘?	동병1, ?	
전 요양	토광묘?	동검1, ? / 동병1, ?	
요양 양갑산	토광묘(6기)	동검3(우도구식)	점토대발8, 장경호4
본계 금가촌	토광묘 (저석판)	동검2, 동병1, 경형동기1, 원개형동기2, 견갑형동기1, 동도1, 동착1, 청동패식4, 청동장식1, 동호1 등 15점	석제검파두식1(유실?), 천하석제장식1
본계 화방구	석관묘	동표1	무문토기 잔편
본계 사와	석관묘	동검1(우도구식)	
해성 대둔	토광묘	동검1(동대장자식), 동병1	석제검파두식1
해성 하협하	토광묘?	동검1(윤가촌식)	미상

이는 요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두형토기 연대관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특히 가장 널리 확인되는 소위 착점문(戳點文) 장각두형토기는 주로 초기철기시대에 유행하는 것이어서 현재로는 전국 중기 이전으로 올려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요중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초기 두형토기, 즉 단각두형토기 역시 전국 시대 이후에야 등장하는 것이어서 참고된다. 두형토기 연대관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⁵⁴

54 요북지역의 개원(開原) 단산(團山), 서풍(西豐) 사하촌(沙河村), 무순(撫順) 소청도(小青島) 등의 일부 유적에는 철기 공반단계 유물들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기원전 4세기경의 정가와자유형(정가와자 2기)에 포함되는 것일 수 있다.

원래 정가와자유형의 구분포권인 요중 서부 평원지역은 신락상층문화가 유행하는 곳이었고, 요중 동부 산간지역은 이도하자유형이 유행했던 곳이었다. 점토대토기문화와 삼죽기-사이장동호문화나 형이현문화(미송리식토문화)가 공반되는 예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에는 병행기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⁵⁵ 특히 심양 일대에는 신락상층문화 이후 기원전 8~7세기경의 물질문화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요양 일대에는 기원전 7세기경부터 이도하자유형이 급격하게 쇠퇴한다. 그러므로 기원전 7세기경 이후 정가와자유형이 형성되는 문화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정가와자유형 표지 유적 문화층과 무덤 편년

정가와자유형 유적군의 변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지 유적이라 할 수 있는 심양 정가와자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편년관이 중요하며, 이와 비교되는 주변 유적군의 편년적인 위치 역시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가와자 유적군의 중요성에 비해 6512호묘의 연대관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분묘군의 변화 과정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정가와자 유적군이 정가와자유형이 유행하는 기원전 6~4세기경 동안 시종일관 거점 유적으로 기능하였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정가와자유형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늦더라도 기원전 4세기경부터 심양 또는 요양 일대에는 전국연계 무덤들이 조영되기 시작한다. 이때 이후 심양 일대에는 상위등급 무덤들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고민해야 하며, 약간 이르지만 요양-본계 접경지대에는 정가와자 유적군을 계승하는 상위 유적군이 확인되는

55 西豐 忠厚屯 석관묘에서는 점토대토기편이 미송리식토기편과 공반되었다고 알려지나(朴淳發, 2004, 「遼寧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定着過程」, 『錦江考古』 創刊號, 忠清文化財研究院), 이와 같은 토기편은 실제 구연부가 강화되어 있는 요해둔유형의 토기편일 가능성이 높다.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정가와자 1~3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정가와자 유적군에 대한 편년안을 마련하여 변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자료로서 활용하려 한다.

정가와자 유적군은 우선 직경 2km 남짓 범위 안에 걸쳐 있는 정가와자 1~3지점을 중심으로 한다. 1지점은 주변 수습 유물까지 고려하면 분묘 2기 내 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2지점은 분묘 1기 정도만이 알려진다. 3지점은 6512호묘 등 무덤 14기가 조사되어 있는 중국측의 발굴구역(묘지) 외에 문화층과 무덤 2기 등이 확인되어 있는 북한측의 시굴구역(유지)을 포괄한다. 3지점에서는 청동유물이나 석제동부용범 등의 유물들이 다수 수습되고 있어 원래 훨씬 많은 무덤들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정가와자 유적 주변으로 직경 10~15km 범위에는 여러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유적 동쪽 방면에는 동검 등이 출토되는 소규모 분묘군인 열로로(熱鬧路) 유적(무덤 5기)과 동검 1점만이 수습되어 있는 남탑(南塔) 유적(무덤 1기) 등이 위치한다. 또한 유적 서쪽 방면에는 동검, 청동검병, 동부 등이 출토되는 소규모 분묘군(무덤 2기 이상)인 마패보(馬貝堡) 유적이 위치한다. 이외에도 동쪽 약 20km 처에 있는 청장자(靑樁子)의 석제검파두식 역시 원래 무덤 부장품일 가능성이 높다.

정가와자 유적군의 중핵지는 역시 3지점의 묘지인데, 무엇보다 무덤 2기(M6512·M652)가 다른 무덤 12기와 입지 및 배치, 크기 측면에서 차별성이 확인된다. 또한 무덤 크기와도 일정하게 연동되는 묘제 측면에서 목곽묘(M6512)는 상위등급이고, 목관묘(M652)나 적석목관묘형 분묘(M656, M6503)들은 중위 등급 이상이며, 단순 토광묘는 중위등급 이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목곽묘에서는 동검, 다뉴동경, 청동재갈, 이형동기 등의 수백 점의 청동유물들이, 목관묘나 적석목관묘형 분묘에는 동검 등의 유물 1점 이상, 토광묘에서는 동검이나 동부 1점 또는 토기류와 같은 비금속제 유물 1~2건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3지점의 묘지에는 차별화된 권위를 지닌 수장묘와 그 이하 계층에 속한 무덤들은 서로 구역을 달리하여 매장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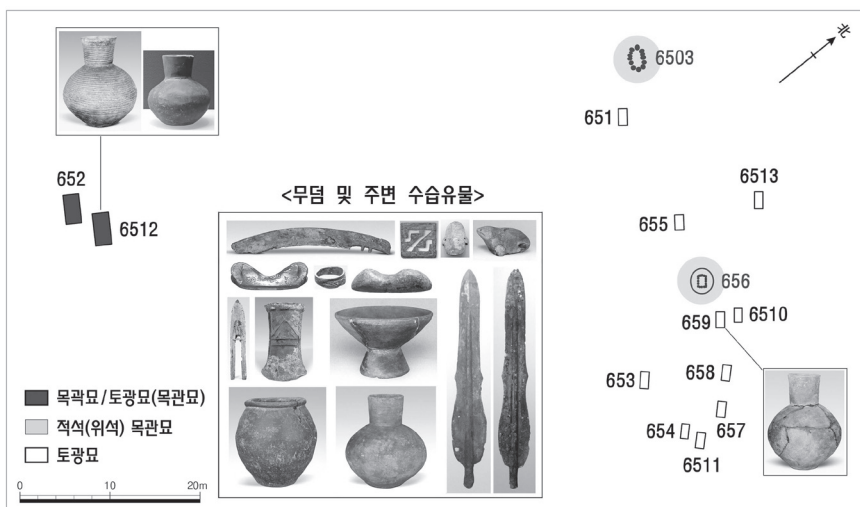


그림 11 심양 정가와자 3지점 묘지 무덤 배치 및 주요 출토유물

심양 정가와자 유적 편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비파형동검문화에 해당되는 무덤들의 상대편년과 세형동검문화 단계 무덤 및 문화층의 편년적인 위치이다(그림 12). 이를테면 비파형동검문화를 대표하는 3지점(중국발굴구역)의 정가와자 6512호묘를 기준으로 1지점묘와 2지점묘는 같은 시기로만 인식되어 왔던 것이 문제이다. 또한 세형동검문화 단계를 대표하는 것을 3지점(북한시굴구역)의 2호묘로 인식하는 것이 논란이다. 층위 관계로는 잘 설명되지 않고 모순되기 때문이다.

먼저 춘추후기 무렵으로 인식되는 정가와자 무덤 간의 상호 편년 관계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검토했던 동검 및 검부속구, 이형동기 등의 유물들을 통해 파악된다. 특히 동검 돌기부의 위치, 청동검병의 속성 비교, 방패형동기의 형태 변화 등이 판단 기준이 되는 속성이다. 이를 고려하면 1지점묘가 선행하고, 6512호묘가 후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가와자 1지점묘와 6512호묘보다 선행하는 흥성(興城) 주가촌(朱家村) 목관묘가 북경(北京) 옥황묘(玉皇廟) 156호묘나 151호묘와 같은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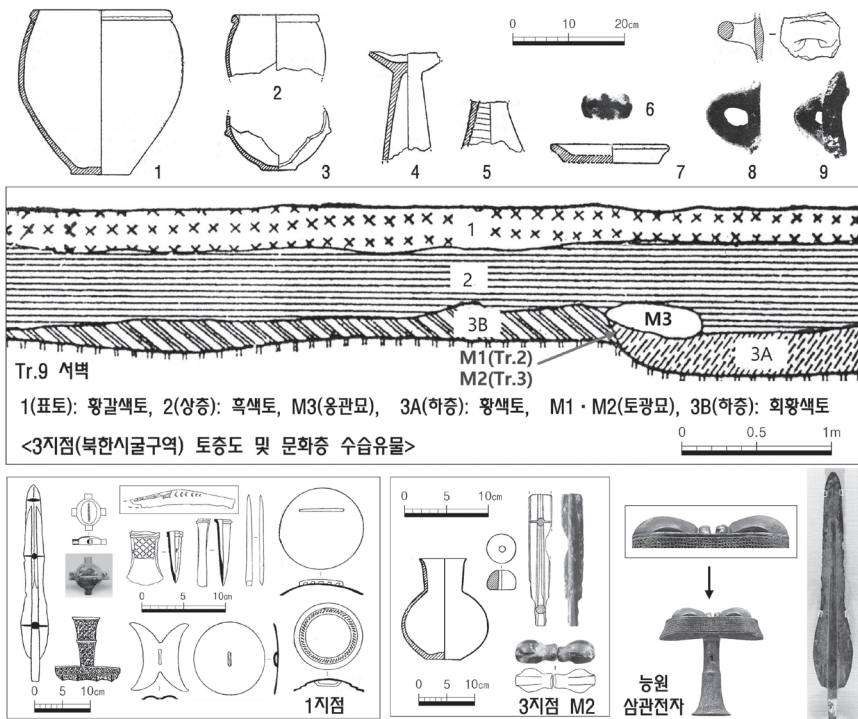


그림 12 심양 정가와자 3지점(유지) 문화층과 주요 출토유물 비교

의 청동재갈을 반출하고 있어 기원전 6세기대 전중엽경으로 연대관이 고정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면 정가와자 1지점묘와 3지점의 6512호묘는 기원전 6세기대 중후엽경으로 볼 수 있다. 2지점묘는 중간 단계였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동검 한점만으로는 구체적인 편년 관계를 논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음으로 전국중기 무렵으로 인식되는 정가와자 3지점의 2호묘(북한M2)와 출토 동검에 대한 편년 문제이다. 2호묘에서는 검신 상부 결실 및 인부 재연마가 심한 동검, 분리형의 철광석제 침형검파두식, 동체 편구형의 흑도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과거에는 북한학계의 형식관과 연대관을 수용하여 주로 동검만을 대상으로 편년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정가와자 2호묘의 동검편은 초기세형동검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제시됐던 북한학계⁵⁶의 견해들이 1980년대 이래 남한학계⁵⁷에 수용되어 세형동검(한국식)에 선행하는 초기세형동검(윤가촌식동검)으로 오인되었으나, ‘초기좁은놋단검’(윤가촌식)이 ‘좁은놋단검’(세형동검)에 비해 형식학적으로 선행하는 것이 아닌⁵⁸ 지역적인 양식 차이⁵⁹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최근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윤가촌식 동검에는 예외없이 검신 봉부가 길고, 검신 하부에 결입부와 비교되는 미요부가 남은 것이 특징인데,⁶⁰ 정가와자 2호묘는 그와 같은 특징들이 전혀 없고 반복적인 재연마로 인한 형태변이가 확인되는 것이어서 같은 형식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⁶¹

정가와자 2호묘의 동검편은 원래 초기세형동검보다 말기비파형동검에 가까웠던 형식임에 틀림없다. 이는 공반되는 분리형의 철광석제 침형검파두식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된다. 정가와자 2호묘의 침형검파두식은 원래 일체형의 검파두식으로 제작되었으나, 중앙부가 깨진 후에 두 조각의 결실부를 연마하여 만든 것을 다시 조립했던 재가공품이다. 이와 같은 분리형의 검파두식은 그 크기와 형태는 물론 재가공법과 그 착장방식 특징으로 볼 때 계통이나 시공간성 역시

-
- 56 김용간·황기덕, 1967,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 2; 박진욱, 1987, 「초기좁은놋단검문화의 내용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 57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이청규, 1997, 「청동유물의 분포와 사회」, 『한국사 3: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국사편찬위원회.
- 58 李健茂, 1990, 「초기철기시대유적」, 『북한의 문화유산(I)』, 고려원; 趙鎭先, 2005, 「北韓地域 細形銅劍文化的發展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47, 韓國上古史學會.
- 59 李厚錫, 2008, 「中國 東北地域 細形銅劍文化 研究 - 遼寧式細形銅劍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21, 崇實史學會; 이후석, 2018, 「요령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연구동향 - 청동무기 연구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41, 崇實史學會.
- 60 오강원, 2006, 앞의 글; 이후석, 2008, 앞의 글.
- 61 최근 제기되는 ‘초기세형동검론’(이청규, 2014, 「청동기와 사회」,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道具論』, 서경출판사; 이후석, 2018, 앞의 글)은 세형동검(한국식/요령식)으로 연결되는 동일 계통상의 과도기적 초기 형식군에 한정된다.

매우 한정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정가와자 2호묘의 것과 같은 분리형의 침형검파두식은 능원(淩源) 삼관전자(三官甸子) 석곽묘의 청동검병 착장품은 물론 보란점 고려채(高麗寨) 유적 채집품에서도 찾아진다. 특히 능원 삼관전자 석곽묘(2기)는 출토되는 청동예기·동과 등을 통해 기원전 400년경 전후 한세대의 범위 내로 편년되고 있다.⁶² 그러므로 분리형의 검파두식은 전국 전기 무렵 요서지역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가와자 2호묘의 재가공된 검파두식은 검신 크기에 비해 어울리지 않게 크고, 세형동검문화 단계의 일반적인 검파두식보다 커서 역시 말기 비파형동검에 더욱 어울린다. 이에 동검이나 석제검파두식 모두 비파형동검문화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2).⁶³

정가와자 3지점의 2호묘와 1호묘는 모두 1964년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북한)의 시굴조사 당시 찾아졌다.⁶⁴ 정가와자 3지점의 북한 시굴구역은 중국 발굴구역의 남동 방향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상문화층(또는 2층)과 하문화층(또는 3층)으로 구분되는 문화층이 시굴구역 전체에서 퇴적 양상을 달리 하며 분포한다. 한대 문화층에 해당되는 상층에서 옹관묘인 3호묘(Tr.9)가 찾아졌고, 토착 문화층에 속한 하층에서 1호묘(Tr.2)와 2호묘(Tr.3)가 찾아져서 층위선후 관계는 명확하다.

하문화층(3층)은 다시 3A층과 3B층으로 세분되었는데, 2호묘는 두 층 사이에 위치한다. 또한 하문화층(3층)의 편년적인 위치는 앞서 분석했던 2호묘와 대

62 이후석, 2020a, 앞의 글. 능원 삼관전자 유적에서 공반되는 청동예기(銅鼎)가 전국 전기말~중기초 단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거의 없다.

63 이외에도 정가와자 2호묘의 흑도장경호가 약간 편구형을 띠는 것이라는 점이 참고된다. 다시 말해 구형이나 장동형을 띠는 요양 양갑산 유적(M5·M7) 출토품보다는 주판알형을 띠는 6512호묘 출토품에 가깝다는 점이 고려된다(이후석, 2020b, 앞의 글, 163쪽 〈그림 6〉 참조).

64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지역의 유적발굴보고 1963-1965』, 사회과학출판사;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89, 「瀋陽肇工街和鄭家窪子遺址的發掘」, 『考古』 1989-10.

부분의 유물들이 수습되었다는 3A층 유물들을 통해 파악된다. 일단 3A층은 수유형계 검파두식이나 장각두형토기 등의 유물들로 보아 전국중기 또는 기원전 4세기경으로 파악된다.⁶⁵ 세부적으로는 2호묘의 동검-석제검파두식 연대관에 따라 결정되겠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국전기 또는 기원전 400년경 전후 무렵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3A층은 세형동검문화에 속한 정가와자 2기 단계라면, 3B층은 비파형동검문화에 속한 정가와자 1기 단계에 속한 문화층이라고 할 수 있다.

정가와자 3지점의 조사지점(중국/북한) 연대 관계를 비교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분묘군이 점차 확장 또는 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굴구역 무덤들과 시굴구역 하문화층 하층(3B층)은 기원전 6~5세기경이 중심 연대이고, 시굴구역 하문화층 상층(3A층)은 기원전 4세기경이 중심 연대이다. 앞서 검토했던 정가와자 1지점묘와 3지점의 주요 분묘(M6512)까지 적용하면, 주요 무덤 및 문화층의 선후 관계는 ‘1지점묘→3지점묘(M6512→M656/M6514→M1·M2)→3지점 하문화층(3A층)’의 변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심양 일대에는 전국연계 무덤까지 확인된다. 심양 열애리(熱愛里)와 신광로(新光路) 유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그림 13).⁶⁶ 일단 신광로에서는 기원전 300년경 전후 무렵으로 편년되는 전국연계 도제예기들이 출토되어 정가와자유형 소멸 후의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열애리에서는 중심연대가 기원전 4세기대 전반경인 전국연계 도제예기만이 출토되어 정가와자유형 쇠퇴 이전 단계의 것이 틀림없다.⁶⁷ 다만 소형 단장목곽묘에 출토유물 역시 빈약하여 중위

65 정가와자 하층(3층) 출토유물에서 확인되는 수유형계 소형(長7.2cm) 석제검파두식(그림 12-6)은 앞서 분석하였듯이 전국 중기 무렵으로 편년되며, 장각두형토기 역시 이때부터 확인된다(金玟燦, 2014, 앞의 글; 이후석, 2020b, 앞의 글).

66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93, 『瀋陽市文物志』.

67 연하도(燕下都)와 비교하여 전국전기(배현준, 2017, 「春秋戰國時期 燕文化의 중국동북지역 확산 및 토착집단과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87, 한국고대사학회) 또는 전국중기(이후석, 2017, 「고고자료를 통해 본 만변한-전국시대 고조선과 연의 경계 변화」, 『東北亞歷史論叢』 57, 동북아역사재단) 무렵으로 편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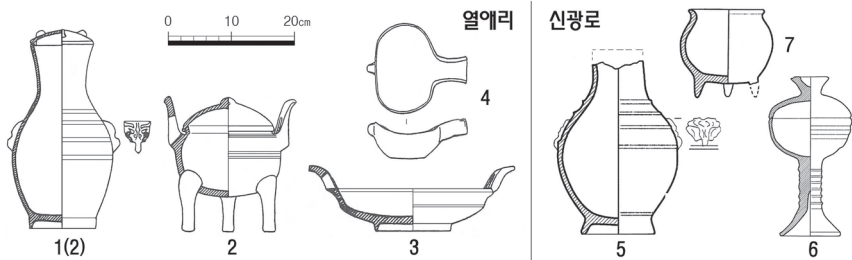


그림 13 심양지역 전국연계 분묘 출토유물

계층 이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심양 일대 정가와자유형을 대표하는 정가와자 유적군은 기원전 6~5세기경의 정가와자 1기(3지점 3A층 단계)에는 최고 수장묘가 포함되는 상위 등급 무덤들이 확인되나, 기원전 4세기경의 정가와자 2기(3지점 3B층 단계)에는 최고 수장묘가 확인되지 않고 전국연계 무덤들이 조영되기 시작한다. 정가와자 1~2기의 과도기는 3지점의 2호묘로 대표된다.⁶⁸ 이는 정가와자 유적군의 위상 변화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정가와자 2기에는 심양 일대보다 요양-본계 일대 유적군이 부상하며, 전국연계 무덤까지 일부 조성된다.

3. 정가와자유형의 지역 거점과 유적군의 변천

정가와자유형은 정가와자 유적군의 변천이나 문화층의 퇴적 양상으로 보아 크게 정가와자 1기와 2기로 구분된다. 1기문화는 비파형동검문화에 속한 1~3지

68 정가와자 3지점의 ‘과도기’는 두형토기가 복합되어 점토대토기류가 완비되는 때이기도 하다. 단각식은 수습유물 속에 일부 보이는데, 기원전 400년경의 건창 동대장자 16호묘 출토품과 같은 형태이다. 장각식은 하문화층(3A층)에서 확인되었는데, 장해 상마석 3호묘와 병행하는 패층(A구상층)에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두형토기가 등장하는 ‘과도기’는 전국전기 후반 또는 기원전 400년경으로 추정된다(이후석, 2020b, 앞의 글, 165쪽).

점의 분포군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동검 형식으로 보면 정가와자-탑만촌식 동검 단계이다. 2기문화는 세형동검문화에 속한 3지점의 하문화층(3A층)과 함께 초기세형동검 단계 동검군이 출토되는 마패보(21M1)나 남탑 등의 주변 유적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검 형식으로 보면 초기세형동검 단계의 동대장자식과 세형동검 단계의 윤가촌식 동검 등이 출토되는 단계이다. 3지점의 시굴구역 2호묘는 물론 발굴구역 흑색마연점토대옹 추정무덤은 대응 자료 부족으로 일단 ‘과도기’로 설정한다.

앞장에서 검토하였듯이 정가와자유형 형성 과정에서 정가와자 유적군에 선행하는 요서계통 유적·유물들이 본계·요양·철령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어 정가와자유형의 형성 배경으로 주목되며, 형성 시기 역시 다시 설정해야 함도 보여준다. 여기서는 잠정적이지만 정가와자유형의 ‘여명기’로 설정하려 한다. 정가와자 1기문화와 2기문화는 각각 정가와자유형의 ‘발전기’와 ‘재편기’로 설정되며, 1기문화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세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는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후 나타나는 문화변동과 거점 변화에 더욱 주목하려 한다.

정가와자유형의 여명기는 기원전 8~7세기경 비파형동검문화의 공백기가 확인되는 심양 일대, 기원전 7세기경 요서계통 비파형동검문화의 요소들이 정착하는 요양-본계 일대에서 설정된다. 다시 말해 늦더라도 춘추중기 또는 기원전 7세기경에는 요중 서부지역에서 정가와자유형이 형성되는 문화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가와자유형에서 일찍부터 최고 수장묘가 출현하는 배경으로 이해된다. 물론 요양 삼도호나 본계 양가 유적의 청동유물 외에 토기문화가 어느 수준만큼 전이되었는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⁶⁹ 그렇지만 요서계통 ‘동검+다뉴동경’으로 대표되는 수장층의 정치적·종교적 권력 기반이 요중지역에 수용되었음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69 遼寧省博物館과 瓦房店博物館에는 요동반도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점토대 토기옹이 전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현재로는 춘추시대보다 전국시대로 편년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정가와자 1기문화에는 앞서 설명했던 심양 일대의 정가와자 유적군을 빼면 요양-본계 접경지역의 탑만촌-금가보 유적군이 가장 주목된다. 탑만촌-금가보 유적군은 만가구, 탑만촌, 요양(2개소), 금가보, 화방구 등의 유적들이 포함된다(그림 10). 석범들이 다수 확인되는 ‘탑만촌’과, 이형동기 등이 확인되는 ‘금가보’가 상위등급 유적이며, 그 주변에는 동검, 청동검병, 동표 등의 청동무기 부장묘가 적지 않게 분포한다. 요중지역을 모두 포함하면 1기문화 전반기는 정가와자 1지점묘, 2지점묘, 3지점묘(M6512 등), 만가구 등이, 후반기는 3지점묘(M6 등), 마패보(79M1), 탑만촌, 금가보, 화방구, 계관산 등이 대표적인 유적이다(그림 14, 그림 15).

1기문화 단계 상위등급 유적에만 한정하면, 전반기는 정가와자 1지점과 6512호묘, 후반기는 탑만촌과 금가보로 나타난다. 1기 전반과는 달리 후반에는 청동검초, 다뉴동경, 이형동기 등의 중요 유물들이 확인되지 않는 심양 일대보다 생산-의례 관련 유물군이 확인되는 요양-본계 접경지대가 더욱 주목된다. ‘과도기’를 거치면서 거점 유적군이 바뀌거나 추가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에는 요중지역을 벗어나서 단동-의주 일대 및 개천-평양 일대까지 유적군이 형성되는 것도 주목된다. 그러므로 1기에는 정가와자유형의 발전 과정에서 요중지역 정치체가 북한 서북 방면 교통로를 따라 지역 수장층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정가와자 2기문화에는 아직 수장묘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이하 청동유물 부장묘는 더욱 증가하는 것이 주목된다. 심양 일대에는 전국연계 무덤들이 조영되기 시작하고, 토착문화 유적들은 해성~본계 일대 및 단동-의주 일대, 평양 일대에서 주로 확인된다. 다만 다뉴동경이나 동과 출토 예(단동, 단동 망강촌, 전성천)로 보면 단동이나 평양 일대 유적군이 지역 거점으로 부상하는 것 같다. 요중지역을 모두 포함하면 상둔, 단동로, 남탐, 마패보(21M1), 대둔, 하협하, 양갑산 등과 같은 동검 부장묘가 다수 확인된다(그림 10).

2기문화 단계 상위등급 유적들이 희소하여 현재로는 거점 유적군의 구체적인 존재 양상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심양 일대에서 지역 거점으로서의 위

상으로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과 대비되게 요양 주변이나 단동 일대에서 관련 유물이나 유적들이 집중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지역 거점 중에 요양-본계 일대 유적군이 심양 일대보다 단동 일대 유적군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2기에는 정가와자유형의 변천 과정에서 요양-본계 일대를 거점으로 하는 상위 정치체가 단동-의주 일대 및 평양 일대 단위 정치체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며 성장하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정가와자유형은 거점 유적군과 주변 유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처음에는 심양, 나중에는 요양-본계 접경지대에서 지역 거점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단동-의주 일대, 개천-평양 일대까지 유적군을 형성하며 확산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거점 유적군에서는 동검, 동과, 동표 등의 무기류와 다뉴동경, 이형동기 등의 의기류를 권력 기반으로 삼는 수장층과 정치체가 성장하였는데, 3~4개층으로 계층화된 군장사회(君長社會)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정치체는 요중지역을 벗어나서 연맹체적 관계 하에 주변 지역의 단위 정치체나 집단들을 결속시켜 연나라와 경쟁하는 정치체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IV. 정가와자유형 정착 과정에서 요동지역 문화변동의 의미

정가와자유형은 요서계통 비파형동검문화가 기원전 6~5세기경 요중지역에서 정착하여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한세대의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났던 문화교체 현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최소 한세기가 넘는 점진적인 문화변동으로 나타났던 정치체의 형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가와자유형의 정착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으며, 요중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간에는 대개 심양 정가와자 유적만을 대상으로 논의하였기에 정가와자유형의 형성 과정을 기원전 6~5세기경 급격하게 진행됐던 문화변동으로 인식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가와자유형 이전 단계의 기원전 7세기대 이래 철령-심양-요양-본계 일대를 연결하는 요동 서부지역에서 요서계통 비파형동검문화가 확산 되는 것이 일부 확인된다. 또한 정가와자유형의 거점 유적군이 기원전 400년경 전후 심양 일대에서 요양-본계 접경 지역으로 변동되었음도 확인된다. 이후 기원전 4세기경에는 세형동검문화로의 전환 과정에서 태자하권(해성~본계)에서 압록강권(단동-의주)까지 관련 유적들이 더욱 증가하는 한편 심양 일대에는 전국연계 무덤들이 일부 조영되는 것도 확인된다.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야(여명기)에는 이미 요양-본계 일대에서 요서계통 주민들이 일부 유입되었거나 요중지역 토착 주민들이 요서계통 물질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양상들이 확인된다. 이를테면 본계 양가 1호묘의 ‘동검(석제검파두식 포함)+다뉴동경’은 요서지역 물질문화와 기술적·이념적 요소들을 수용했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요서지역 청동유물군의 상징성을 적극 수용하여 정치적·종교적 권력 기반이 갖춰지는 지역 유력자의 모습 역시 그려진다. 전 철령 청동검병, 요양 삼도호 철광석제 침형검파두식 등을 통해 요중지역의 문화 정체성이 점차 요서계통으로 전환되었음도 알 수 있다. 고조선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정가와자유형임을 고려하면, 이는 고조선의 등장 과정으로 연결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정가와자유형 형성 이후(발전기)에는 정가와자 유적군(1~3지점)을 중심으로 심양-요양 일대에서 정치체가 형성된다. 정가와자 6512호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집묘와 그 주변부의 유적들은 수장묘를 정점으로 성장하는 정치체의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전면 발굴되지 않았거나 자세하게 보고되지 않은 무덤들이 많아 현재로는 무덤 간의 구체적인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⁷⁰ 그럼에도 1지점과 3지점의 출토유물들을 비교하면 1지점묘가 3지점

70 2023년 현재 심양 정가와자 유적 출토유물 대부분은 瀋陽博物館에 전시되고 있다. 다만 심양 마패보 유적 등의 다른 유적 출토 유물들이 일부 섞여 있으므로 유

묘(특히 M6512)에 비해 약간 일찍 조영됐을 가능성이 높고, 1기문화 위주였던 3지점의 북쪽구역(중국 발굴구역)보다 2기문화 위주였던 남쪽구역(북한 시굴구역)의 문화층이 양상으로 보면 수 km 범주 하로 추정되는 정가와자 유적군은 점차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장되었음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요양-본계 접경지대에도 정가와자 유적군에 버금가는 거점 유적군이 있었음이 요양 탐만촌과 본계 금가보의 무덤들로 점차 밝혀지고 있다. 요양 탐만촌과 본계 금가보는 각각 생산(석범) 및 의례(이형동기) 거점으로 볼 수 있는 유적이며,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의 권력 기반을 계승하는 유적으로 주목된다(그림 15). 두 유적 모두 복수 무덤들이 분포하는 군집묘로 추정된다. 정가와자유형의 지역 거점이 요양-본계 접경지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시기에 해당되는 요양 일대 수습 청동유물이나 본계 화방구나 동구 유적 출토 청동유물 등은 관련 유적군의 분포 정형을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다.

정가와자유형 1기문화에서 2기문화로의 변천 과정(재편기)은 ‘과도기’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세형동검문화로의 전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수장묘를 포함하는 거점 유적군의 변화 양상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심양~요양 일대에는 전국연계 유물들만 부장하는 무덤들이 조영되기 시작하고 있어 연나라계 사람들의 왕래 또는 이주까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고조선과 연나라가 물적·인적으로 다양하게 교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⁷¹ 이때 해성-요양-본계 일대에서 초기세형동검 단계 유적들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거점 유적군은 요양-본계 접경지대에서 그리 멀지 않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가와자유형은 기원전 6~5세기경 심양 일대만을 거점으로 했던 요충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기원전 7세기경 이래 요서계통 물질문화가 토착문화를 점차 대체하는 정착 과정을 거

의해야 한다.

71 이후석, 2017, 앞의 글; 이후석, 2020b,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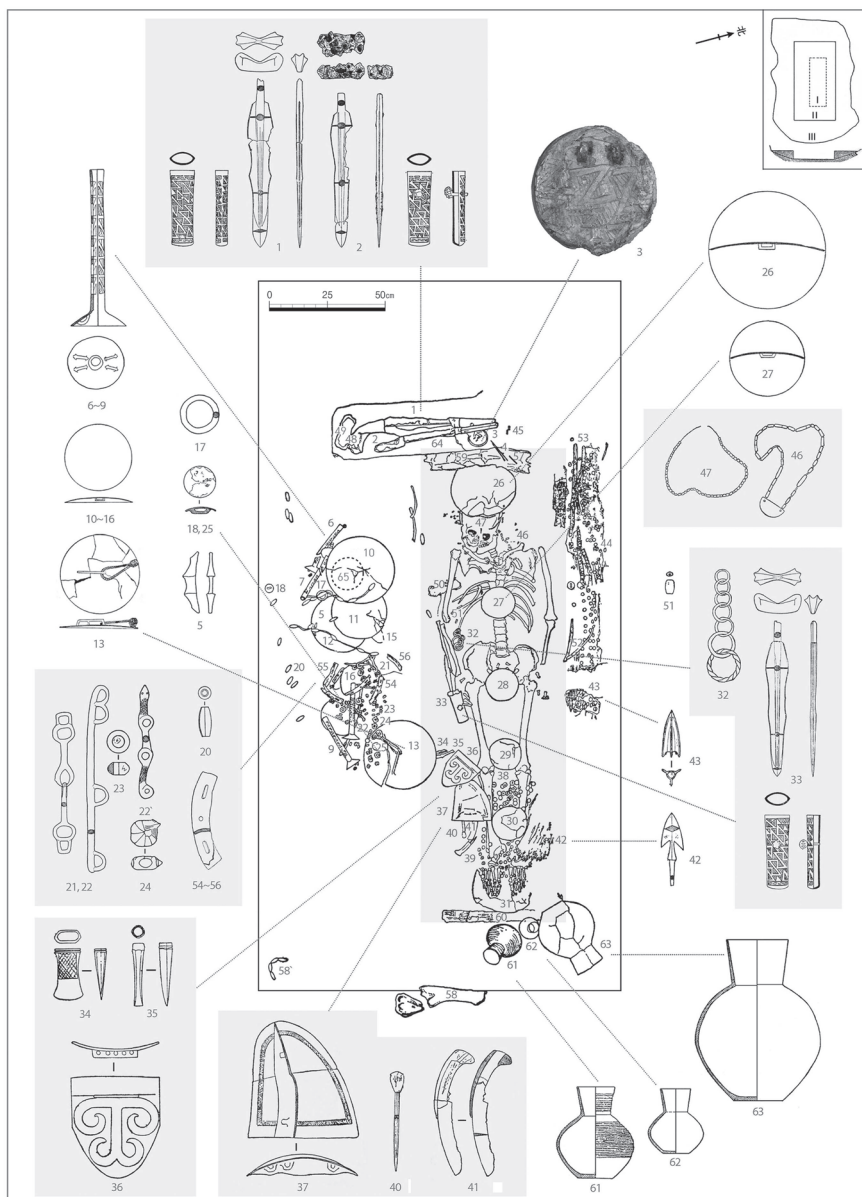


그림 14 심양 일대 수장묘와 출토유물-정가와자 6512호묘(이후석 202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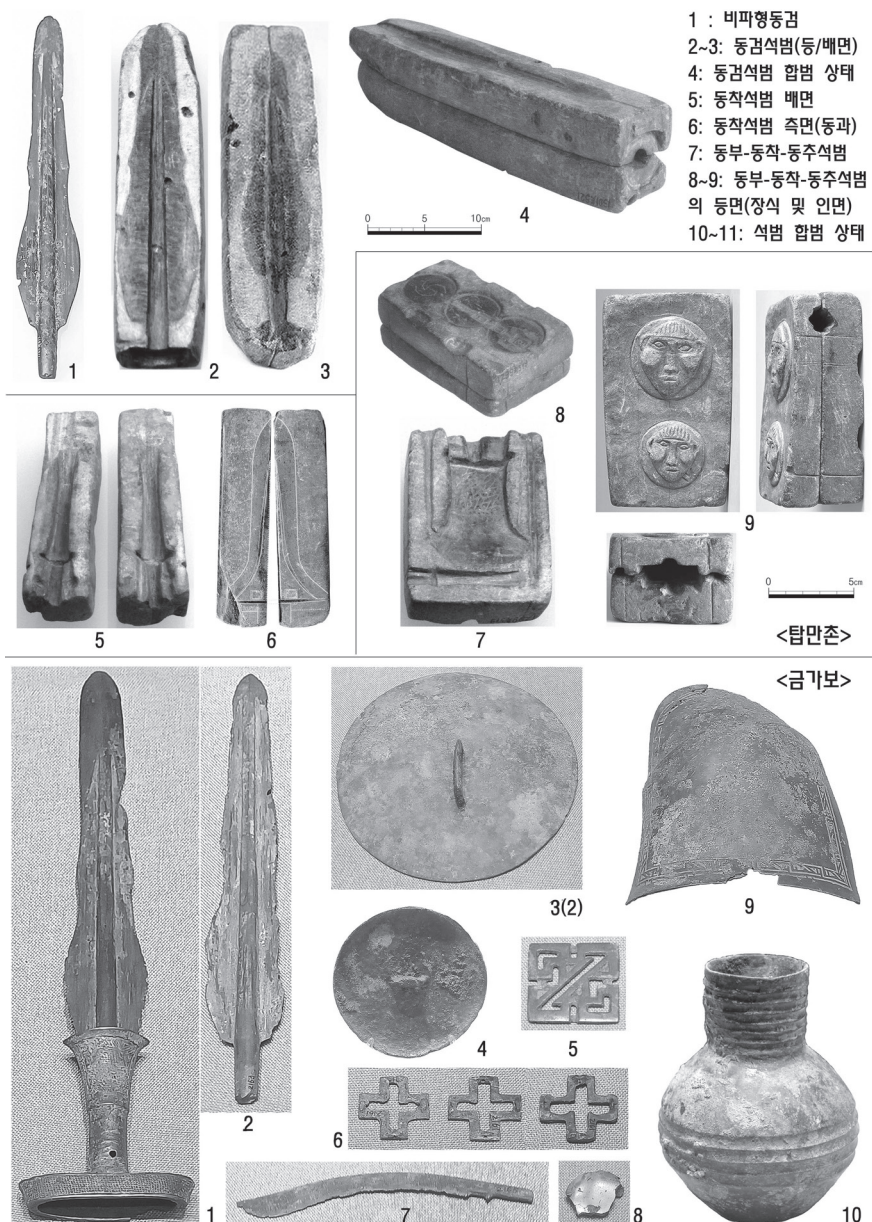


그림 15 요양-본계 일대 수장묘의 주요 출토유물

쳤기에 기원전 6~5세기경 요중지역을 넘어 북한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여러 곳의 거점 유적군을 아우르는 정치체는 ‘국’을 넘어 연맹체로 성장하는 고조선을 떠올리게 한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요중지역에서 수장묘가 있는 거점 유적군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지만, 유적 수가 증가하고, 전국연계 무덤까지 일부 확인되고 있으므로 연맹체적 정치체는 연나라와 교류하며 더욱 발전하였다고 생각된다.

V. 맺음말

정가와자유형은 요서계통 물질문화가 요중지역으로 전입되어 형성됐던 기원전 6~4세기경의 지역문화이다. 과거부터 요서계통 청동단검문화로 인식되어 산용·동호 등의 북방계통 집단들과 연결시켜 보는 견해들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고고학적 문화로도 인식되어 예맥계통의 독자적인 정치체인 고조선의 중심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야에는 요서지역에서 요동지역으로 대개 동검이나 다뉴동경 등의 일부 청동유물 및 석제검파두식만이 전이되었으나, 형성 이후에는 토기문화까지 전이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가와자유형의 거점 지역인 요중 서부 지역에는 요서 계통 문화요소가 강하지만, 그 주변 지역에는 요동 계통 문화요소가 상당부분 복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정가와자유형의 확산 과정은 요서 계통 물질문화의 기술-이념 요소들이 요동지역의 토착문화 속에 융합되어 변형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가와자유형은 비파형동검 단계의 1기문화와 초기세형동검 단계의 2기문화로 구분된다. 1기문화는 춘추후기~전국전기 무렵으로 편년되는 정가와자유형의 전형이며, 2기문화는 전국중기 무렵으로 편년되는 세형동검문화로의 전환기에 해당된다. 요서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 관계 속에 문화복합 양상 역시 지역별로 다양하게 확인된다. 일찍부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요북-길

림 접경지역이나 요남-북한 접경지역에도 유적군이 형성되며, 남한지역까지 관련 유물들이 전해진다.

정가와자유형의 전형 유적들은 주로 요중지역에서 확인되며, 주변 지역에는 관련 유물군이 다양하게 복합된다. 정가와자유형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물로는 점토대토기발, 흑도장경호, 환형·삼각형파수, 두형토기 등의 점토대토기류와 정가와자-탐만촌식이나 동대장자식에 상응하는 동검, 다뉴뇌문동경, 기하학문 선형동부 등의 청동유물군이 지목된다. 처음에는 정가와자 유적으로 대표되는 심양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나중에는 탐만촌 유적이나 금가촌 유적으로 대표되는 요양-본계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정가와자유형의 주된 문화요소들은 대개 요서지역과의 교류 과정에서 수용되었는데, 청동유물 외에 토기문화와 매장문화까지 전이되는 양상으로 보아 정보 교류 외에 장인 등의 주민 이주까지 있었다고 생각된다. 정가와자유형 유물군이 요동 외곽지역까지 멀리 확산되고 있어 다른 물질문화에 비해 가장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고조선이 춘추시대부터 성립하였다면, 기원전 7세기경 이래 요중지역에서 발전했던 요서계통 비파형동검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원전 6~5세기경 정가와자유형은 천산산맥을 넘어 북한 서부지역까지 확산된다. 시공간적 측면에서 고조선과 관련되는 고대 중국 문헌 기록을 충족하는 한편 다음 단계와의 문화 연속성과 계승성을 고려하면 비교되는 지역문화가 없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요동지역의 고고학적 정황들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조선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되기 힘든 현상이다. 고조선은 요중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대외 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에도 알려졌다. 다만 고조선이 ‘왕’을 자처하는 기원전 4세기경의 세형동검 단계 수장묘가 요동지역에는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회 관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후의 요서지역 물질문화에 대한 역사적인 성격 규정 역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규명해 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宮里修,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지역의 유적발굴보고 1963-1965』, 사회과학출판사.

- 蕭景全·邢啓坤·金輝 編, 2018, 『新賓滿族自治縣文物志』.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編, 2008, 『瀋陽考古發現六十年』, 遼海出版社.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93, 『瀋陽市文物志』.
周向永, 2022, 『鐵嶺地區青銅時代考古遺址調查』, 遼寧人民出版社.

연구논문

- 姜仁旭, 2018, 「초기 고조선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파형동검문화」, 『한국고고학보』 106, 韓國考古學會.
김동일, 2015, 「중국 동북 지역 출토 검파두식 연구 - 검파두식을 통해 본 비파형동검의 계통에 대하여」, 『嶺南考古學』 71, 嶺南考古學會.
金美京, 2009, 「遼東地域 青銅器時代 土器文化圈 設定에 관한 再檢討-涼泉文化를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21, 湖西考古學會.
金玟燦, 2014, 「遼寧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변천과 파급」, 『韓國青銅器學報』 15, 韓國青銅器學會.
金元龍, 1975, 「瀋陽 鄭家窪子의 青銅短劍墓 - 예맥통구스의 기원」, 『東洋學』 7,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김용간·황기덕, 1967,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 2.
朴淳發, 2004, 「遼寧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定着過程」, 『錦江考古』 創刊號, 忠清文化財研究院.
박진옥, 1987, 「초기좁은숫단검문화의 내용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 배현준, 2017, 「春秋戰國時期 燕文化의 중국동북지역 확산 및 토착집단과의 관계 - 고고학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87, 한국고대사학회.
- 成瑋瑯·徐韶鋼, 2021, 「최근 20년 간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의 조사와 연구」, 『崇實史學』 46, 崇實史學會.
- 吳江原, 2003, 「琵琶形銅劍~細形銅劍 T字形 青銅製劍柄의 型式과 時空間의 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1,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04, 「遼寧~韓半島地域 琵琶形銅劍과 細形銅劍의 劍柄頭飾 研究」, 『北方史論叢』 2, 高句麗研究財團.
- 李健茂, 1990, 「초기철기시대유적」, 『북한의 문화유산(I)』, 고려원.
- _____, 1992, 「韓國 青銅儀器의 研究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28, 韓國考古學會.
- _____, 1994, 「韓國式 銅劍文化의 性格 - 成立背景을 中心으로」, 『東아시아의 靑銅器文化』, 제5회 문화재연구 국제학술회의,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 _____, 1995, 「韓國式銅劍의 組立式 構造에 대하여」, 『考古學志』 7,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_____, 2003, 「韓國式 銅劍文化의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광명, 2019, 「전국시기 연의 요동 진출 연구」, 부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양수, 2010, 「다뉴뇌문경의 제작기술과 사회 - 일본 교토국립박물관·고려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35, 湖南考古學會.
- _____, 2020, 「한반도의 이형동기」, 『2020 한국의 청동기문화』, 국립청주박물관 특별 전시도록.
- 이창희, 2010, 「점토대토기의 실연대-세형동검문화의 성립과 철기의 출현연대」, 『문화재』 43-3(통권 49),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청규, 1997, 「청동유물의 분포와 사회」, 『한국사 3: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8,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연구 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4, 「청동기와 사회」,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道具論』, 서경출판사.
- _____, 2015, 『다뉴경과 고조선』, 단국대학교출판부.
- 李厚錫, 2008, 「中國 東北地域 細形銅劍文化 研究 - 遼寧式細形銅劍을 중심으로

- 로」, 『崇實史學』 21, 崇實史學會.
- , 2017, 「고고자료를 통해 본 만변한 - 전국시대 고조선과 연의 경계 변화」, 『東北亞歷史論叢』 57, 동북아역사재단.
- , 2018, 「요령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연구동향 - 청동무기 연구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41, 崇實史學會.
- , 2020a, 「요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전개와 교류 - 십이대영자문화를 중심으로」, 『韓國青銅器學報』 27, 韓國青銅器學會.
- , 2020b, 「정가와자유형 네트워크의 확산과 상호작용」, 『白山學報』 118, 白山學會.
- , 2022, 「요령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네트워크와 교류」, 『고조선의 네트워크와 그 주변 사회』, 주류성.
- , 2023a, 「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한국고대사연구』 109, 한국고대사학회.
- , 2023b, 「남한지역 세형동검문화의 형성과정」, 『한국고고학보』 2023-3, 한국고고학회.
- 趙鎮先, 2005, 「北韓地域 細形銅劍文化의 發展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47, 韓國上古史學會.
- , 2017, 「세형동검의 기능과 그 의미」, 『한국고고학보』 105, 한국고고학회.
- 郭大順, 1993, 「遼東地區青銅文化的新認識」, 『馬韓百濟文化』 13,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1982-4.
- 范佳微, 2021, 「鄭家窪子類型初步研究」, 遼寧大學碩士論文.
- 成璟瑒·徐韶鋼, 2019, 「鄭家窪子類型小考」, 『文物』 2019-8.
- 蕭景全·周向永, 2007, 「遼吉兩省相鄰地區早期鐵器時代文化的發現與研究」, 『遼寧省博物館館刊(2007)』.
- 辛巖, 1995,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初探」, 『遼海文物學刊』 1995-1.
- 瀋陽故宮博物館, 1975, 「瀋陽鄭家窪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 1975-1.
- 瀋陽市文物工作組, 1964, 「瀋陽地區出土的青銅短劍資料」, 『考古』 1964-1.

李守義·蘇哲·趙曉剛·李一鵬·霍東峰, 2022, 「瀋陽市北崑遺址2017年考古發掘簡報」, 『瀋陽考古文集』 8.

李新全, 2014, 「狍人遺存的考古學考察」, 『2014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 초청 학술발표회』, 울산문화재연구원.

李曉鐘, 2007, 「瀋陽地區戰國秦漢考古初步研究」 『瀋陽考古文集』 1.

周向永, 2016, 「鐵嶺青銅文化的淵源與流變」, 『遼寧省博物館館刊(201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89, 「瀋陽肇工街和鄭家窪子遺址的發掘」, 『考古』 1989-10.

許明鋼, 1993, 「大連市近年來發現青銅短劍及相關的新資料」, 『遼海文物學刊』 1.

許志國, 2009, 「遼北地區青銅時代文化再探」, 『遼寧省博物館館刊(2009)』.

——, 2011, 「遼寧鐵嶺大山嘴子青銅文化遺址調查」, 『北方文物』 2011-2.

宮本一夫, 2020, 「遼東の遼寧式銅劍」, 『東アジア青銅器時代の研究』, 雄山閣.

大貫靜夫, 2017, 「彌生開始年代論」, 『季刊 考古學』 138, 雄山閣.

中村大介, 2010, 「粘土帶土器文化と彌生文化」, 『季刊 考古學』 113, 雄山閣.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후 요동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의미

이후석

요동지역에는 요서계통의 물질문화가 요중지역으로 확산되는 기원전 7세기경부터 정가와자유형의 형성 기반이 마련된다. 이후 기원전 6~5세기경에는 요중지역을 중심으로 요서계통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지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문화변동은 결국 정가와자유형의 정착 과정으로 귀결된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세형동검문화로의 전환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더욱 강화된다.

정가와자유형 형성 전야에는 요서지역에서 요동지역으로 대개 청동유물 등의 일부 청동유물만이 전이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토기문화까지 전이되며 다양하게 복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정가와자유형의 확산 과정은 요서 계통 물질문화의 기술-이념 요소들이 요동지역의 토착문화 속에 수용되어 다양하게 변형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가와자유형은 비파형동검문화에 속한 1기문화와 세형동검문화 단계에 속한 2기문화로 구분된다. 1기문화는 요서계통 물질문화가 정착되는 정가와자유형의 전형이며, 2기문화는 전국연계 물질문화 요소가 유입되고, 정가와자유형이 다양하게 변형되는 시기이다. 처음에는 심양 일대의 정가와자 유적군이

거점이었으나, 나중에는 요양-본계 접경지대의 탑만촌-금가보 유적군이 거점으로 부상한다.

정가와자유형은 요중지역에서 북한 서부지역까지 교통로를 따라 확산되었는데, 지역별로 거점 유적군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사회분화가 더욱 진척되어 연맹체적 정치체가 형성된다. 요동지역에서 이와 같은 문화변동을 주도했던 집단들은 고대 중국에도 전해져서 ‘조선’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높다.

주제어: 정가와자유형, 비파형동검문화, 요서계통, 요동지역, 문화변동, 고조선

ABSTRACT

The Cultural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Formation of Zhengjiawazi Assemblage in Liaodong Area

Yi Huseok

Zhengjiawazi Assemblage is Liaoxi style's the Mandolin-shaped Bronze Daggers culture was formed by the transfer to Liaodong area. The center of Zhengjiawazi Assemblage is formed at Liaozhong area, and In the phase of the Slender Bronze Dagger culture, interaction with the surrounding area is further strengthened.

Before the formation of Zhengjiawazi Assemblage, only some bronze artifacts, such as bronze daggers and its parts, were spread, but after that, pottery culture was passed down and combined in various way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spreading process of Zhengjiawazi Assemblage is a process in which the technological and ideological elements of Liaoxi style's the material culture are accepted into the indigenous culture of the Liaodong area and transformed in various ways.

On the other hand, the remains are divided into the first culture (the phase of Mandolin-shaped Bronze Dagger) and the second culture (the phase of Slender Bronze Dagger). The first culture is a time when the Liaoxi style's material culture is settled and the Zhengjiawazi Assemblage develop, and the second culture is a time when some elements of Yan's material culture in the Warring State Period are introduced, and Zhengjiawazi Assemblage are variously transformed. At first, the Zhengjiawazi site group in the Shenyang district was the base, but later, the Tawanchun-Jinjiabao site group in the area connecting Liaoyang and Benxhi emerged as the base.

It is found that Zhengjiawazi Assemblage has gradually spread from Liaozhong area of China to the western part of North Korea during its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forming base historical groups by region, the network was strengthened, and social differentiation was further advanced. As a result, a coalitional polity was formed in the Liaodong area. As the spatial-temporal nature of Zhengjiawazi Assemblage does not greatly conflict with documentary records of ancient China related to Gojoseon and its cultural contents have strong continuity and propagation it may be considered as the material culture of Gojoseon.

Keywords: Zhengjiawazi Assemblage, Mandolin-shaped Bronze Dagger Culture, Liaoxi style, Liaodong, Cultural Changes, Gojose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송사(宋史)』 고려전(高麗傳)의 사원(史源)

정동훈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 I. 문제의 소재
- II. 송 대의 역사 편찬과 『송사』의 완성
- III. 『송사』 고려전의 구성과 사원
- IV. 『송사』 고려전의 서사 구도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문제의 소재

역사 연구에서 사료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료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역사적 사실도 파악할 수 없고, 어떠한 역사상도 구성할 수 없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송사(宋史)』 권487, 열전 246, 외국 3, 고려(이하 『송사』 고려전)는 고려와 송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료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고려사(高麗史)』에 전하지 않는 기록이 실려 있기도 하다. 예컨대 『고려사』 세가의 성종(成宗) 9년(990) 6월 조에는 송에서 사신 시성무(柴成務) 등을 파견하여 국왕에게 추성순화공신(推誠順化功臣)의 직함과 식읍(食邑) 1,000호(戶), 식실봉(食實封) 400호를 추가로 부여했다고만 전한다.¹ 그리고 『고려사』 예지(禮志), 빈례(賓禮) 조에는 이때 고려 정부가 음양설(陰陽說)에 구애되어 길일을 택해 조서를 받으려 시일을 끝다가 시성무의 힐책을 받고 이튿날 바로 문서를 접수하였다는 일화가 언급되어 있다.² 그런데 『송사』 고려전에는 이때 송의 사신 시성무가 고려국왕에게 보낸, 158자에 달하는 문서가 인용되어 있다.³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중요한 사료임에 틀림없다.

시성무의 문서는 어떻게 해서 『송사』 고려전에 실리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먼저 『송사』 고려전의 편찬자들이 이 문서를 직접 보

* 투고: 2023년 10월 13일, 심사 완료: 2023년 11월 13일, 게재 확정: 2023년 11월 17일

- 1 『高麗史』 권3, 成宗 9년 6월, “宋遣光祿卿柴成務, 太常少卿趙化成等來, 加冊王推誠順化功臣, 食邑一千戶·食實封四百戶, 餘如故. 王受冊, 赦絞罪以下.”
- 2 『고려사』 권65, 禮志 7, 賓禮, “成宗九年六月 宋遣光祿卿柴成務·太常少卿趙化成等來冊王. 國俗拘忌陰陽, 每朝廷使至, 必擇月日受詔. 成務在館, 踰月, 詰責之, 翌日, 王乃出拜命. 自是, 止擇日迎之.”
- 3 『宋史』 권487, 外國 3, 高麗, 淳化 원년(990).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서를 받은 고려 측에서, 혹은 시성무의 후손이나 그의 후배, 제자들이 이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송사』를 편찬할 때 제출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송 순희(淳熙) 9년(1182)에 이도(李燾)가 편찬한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이하 『장편』으로 칭함)에도 이 문서의 일부가 실려 있으니,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문서 실물을 남송 때 이도가 한 번 보고 원 소장자에게 돌려주었다가, 1344년 무렵에 다시 제출했을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송 대의 주요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여, 훗날 『송사』 편찬에 중요한 전거의 하나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장편』에서 해당 구절을 발견해서 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송사』 고려전에 실린 내용이 『장편』의 해당 기사보다 두 배 이상 자세하므로 이 가능성 역시 배제해야 한다. 짧은 편찬 기간을 고려하면, 『송사』의 편찬자들이 송의 역대 실록이나, 이에 앞서 편찬되었던 기거주(起居注), 시정기(時政記), 일력(日曆) 등을 직접 참고했을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다. (후술)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겠지만, 『송사』 고려전의 해당 기사는 아마도 진종(眞宗) 대종상부(大中祥符) 9년(1016)에 완성된 태조(太祖)·태종(太宗)의 『양조국사(兩朝國史)』에 포함된 고려 열전에 한 번 실린 후, 『송사』를 편찬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바람에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 연구에서는 원형에 가까운 사료, 혹은 사건 발생 시기와 생산 시기가 가까운 사료,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작성한 사료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원형에 얼마나 가까운지, 사건 발생으로부터 얼마나 이른 시기에 작성되었고, 얼마나 직접 연관된 사람이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1차 사료, 2차 사료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송사』 고려전은 과연 몇 차 사료라고 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시성무가 고려 성종에게 보낸 문서를 예로 들어보자. 문서의 원본은 당연히 수신자인 고려 측에 건네졌다가 어느 시점엔가 사라졌을 것이다.

4 『續資治通鑑長編』 권31, 淳化 원년(990) 정월 庚寅.

그 내용이 설령 시성무의 문집에 실려 있었다 한들 『송사』 편찬 때에는 이미 남아 있지 않았다.⁵ 이 사건은 『송사』 편찬으로부터 350여 년 전에 발생하였으니 시기상으로도 차이가 크다. 『송사』를 편찬한 이들은 1004년에 사망한 시성무와 특별한 혈연, 학연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기사가 가진 정보의 가치와 무관하게 사료의 원형성에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송사』 고려전은 사료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송과 고려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연구결과물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1343년에서 1345년에 걸친 『송사』 편찬 과정에서 그 찬자들이 당시까지 그들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과 고려의 관계를 정리한 결과라는 것이다. 물론 당시의 편찬자들이 송나라가 존재했던 때와 가까운 시기를 살았으니 유형, 무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⁶ 그러나 직접 행위자가 아닌 후대의 역사가들이, 자신이 확보한 사료를 토대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송사』 고려전이나 현대 연구자들의 고려-송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고려전을 포함한 『송사』 전체가 1차 사료라기보다는 여러 차례의 편찬 과정을 거친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특정 서술이 정확하게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따져 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송 대는 구양수(歐陽修)와 사마광(司馬光), 그리고 주희(朱熹) 등 중국 사학사상 최고의 대가들이 활동했던 고대 사학의 극성 시기라고 칭해지는 시기이며,⁷ 『송사』는 그 시대에 생산된 수많은 기록물, 역사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종합판으로 평가되는 만큼 일찍부터 송 대의 역사 편찬 작업에 대한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져왔다.⁸ 좀 더 구체적으로 『송사』

5 『송사』 권306, 열전 65, 柴成務에 따르면 그는 문집 20권을 남겼다고 하는데, 『文獻通考』 經籍考나 『宋史』 藝文志 등에는 그와 관련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문집은 늦어도 14세기 초에 이미 逸失되었던 것이다.

6 예컨대 현재는 그 전모를 알 수 없는 송의 역대 實錄, 國史, 會要 등이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룰 것이다.

7 이계명, 2014, 『(개정판)中國史學史要綱』, 전남대학교출판부, 330쪽.

의 각 부분의 사원(史源)을 구명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예컨대 스도 요시유키(周藤吉之)는 송의 역대 국사(國史) 편찬 경과에 대해 살핀 후, 현전하는 『송사』 열전과 식화지(食貨志)가 이들 국사의 열전, 식화지를 바탕으로 쓰였음을 밝혔다.⁹ ‘사원’에 대한 관심은 중국 학계에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¹⁰ 최근에는 예컨대 『송사』 문원전(文苑傳)이나 만이전(蠻夷傳)의 사원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다.¹¹

이 글의 관심과 직접 관련해서는 구홍이(顧宏義)가 『송사』 고려전이 어떤 기록을 참고해서 쓰였는지를 매우 면밀하게 분석하여, 역대 국사의 고려전과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등이 중요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파악한 바 있다.¹² 또한 쑨하오(孫昊)는 『송사』 고려전에 실린 거란-고려 전쟁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그것이 전쟁 당시, 혹은 그 직후에 고려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쓰였을 것임을 논증하였다.¹³ 양자 모두 매우 훌륭한 실증적

- 8 대표적인 연구로 蔡崇榜, 1991, 『宋代修史制度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王盛恩, 2008, 『宋代官方史學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平田茂樹, 2012a, 「宋代の政治史料-「時政記」と「日記」-」, 『宋代政治機構研究』, 東京: 汲古書院이 있다.
- 9 周藤吉之, 1969a, 「宋朝の國史編纂と國史列傳-「宋史」との關聯に於いて-」 및 1969b, 「宋朝國史の食貨志と「宋史」食貨志との關係」, 『宋代史研究』, 東京: 東洋文庫.
- 10 특히 五代나 거란, 금과 같이 관련 사료의 총량이 적은 시기의 자료를 대상으로 그 史源을 찾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성과로 郭武雄, 1987, 『五代史料探源』,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邱靖嘉, 2017, 『《金史》纂修考』, 北京: 中華書局; 苗潤博, 2020, 『《遼史》探源』, 北京: 中華書局; 陳曉偉, 2022, 『《金史》叢考』, 北京: 中華書局 등을 참조. 최근 중국 역사학계의 史源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정동훈, 2023a, 「『遼史』高麗傳의 史源」, 『東洋史學研究』 163, 53~55쪽 참조.
- 11 錢建狀, 2014, 「《宋史·文苑傳》的史料來源與史料價值」, 『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24; 林健, 2020, 「《宋史·蠻夷傳》史料來源及其體例產生原因」, 『中南民族大學學報』 人文社會科學版, 40-4.
- 12 顧宏義, 2007, 「《宋史·高麗傳》史源考」, 『中國邊疆史地研究』 17-4.
- 13 孫昊, 2016, 「《宋史·高麗傳》契丹伐高麗事辨正」, 『中國史研究』 2016年 第3期.

분석을 담고 있다. 다만 근거로 삼은 자료 가운데서 특정 구절이 어떤 이유로 선택되었거나 혹은 배제되었는지, 그 속에 담긴 일련의 서사, 혹은 편찬자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최근 찰스 하트먼(Charles Hartman)은 송 대에 생산된 각종 역사서와 『송사』의 편찬 과정에 활용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담긴 서사 구도를 잡아내고자 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¹⁴ 그의 연구는 실증적인 분석은 물론, 특히 각 사서가 해당 시점의 특수한 정치 상황, 그리고 편찬자들의 정치적·사상적 입장에 따라 서사 구도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편찬’되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따라서 그는 『송사』의 특정 구절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구절에 대한 ‘고고학적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⁵

따라서 이 글은 『송사』 고려전이 과연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지, 또 그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쓰였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송사』 고려전은 송 대에 편찬된 역대 국사(國史) 가운데 고려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는 식으로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각각의 시기마다 담고 있는 고려에 대한 관점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본론에 앞서 이러한 추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먼저 설명하자면, 현재 『송사』 편찬의 주된 사원이 되었던 송의 역대 국사는 모두 사라져서 확인할 수 없다. 여러 차례 편찬되었던 회요(會要) 가운데 현전하는 부분을 모아놓은 『송회요집고(宋會要輯稿)』에도 ‘고려’ 항목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장편』이나 『건염이래계년요록(建炎以來繫年要錄)』(이하 『요록』으로 칭함)과 같은 사찬(私撰)의 편년체 사서에 고려와 관련된 기록이 드물지 않게 남아 있는데, 그 편찬자인 이도와 이심전(李心傳)은 간혹 자신이 해당 구절을 어떤 사료에 근거해서 기

14 Charles Hartman, 2020, *Making of Song Dynasty History: Sources and Narratives, 960-1279 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 Charles Hartman, 2020, 위의 책, 13쪽.

술했는지를 주석으로 밝혀두었다.¹⁶ 이를 통해 국사와 회요, 나아가 역대 실록에 원래 뭐라고 기재되어 있었는지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엿볼 수 있다. 즉 『송사』 고려전의 편찬자들이 검토하였을 원자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후술하듯이 『문헌통고(文獻通考)』의 고구려 항목 역시 『송사』 고려전과 거의 비슷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양자를 비교해보면 『송사』 고려전의 작성 과정을 어렵게나마 추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장편』과 『요록』 등 기타 사서를 통해 원자료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하여, 그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삭제되거나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단계의 사서 편찬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다. 말 그대로 ‘고고학적 분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II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송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송 대의 사서 편찬 과정,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고려와 관련된 기록의 존재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송사』 고려전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쓰였는지를 추적해볼 것이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송사』 고려전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해당 부분의 원 자료가 고려 관련 기록을 그렇게 남겨두었던 이유를 추측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는 『송사』 고려전을 1차 사료로서가 아니라 『송사』의 편찬자들, 거슬러 올라가 송 대의 역사 편찬자들의 고려에 대한 관점을 가득 담고 있는 일종의 연구물임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6 최근 『續資治通鑑長編』 가운데 고려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역주한 결과가 출판되었으며, 이 글 역시 그 성과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다만 이 책에서는 『長編』의 正文 부분만 번역하였을 뿐 細注는 제외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0, 『選譯 續資治通鑑長編-사료로 본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II. 송 대의 역사 편찬과 『송사』의 완성

현재 『송사』 고려전에서 볼 수 있는 기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실리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송 대 정부의 기록 관리, 역사 편찬 제도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고려에 대한 정보가 생산·수집되고 어떤 기록물에 수록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의 편찬 과정에서 취사선택되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착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송 대에는 기거주(起居注), 시정기(時政記), 일력(日曆), 실록(實錄), 국사(國史), 그리고 회요(會要) 등 수많은 관찬 사서가 편찬된 것으로 유명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준 높은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¹⁷ 논지 전개의 편의를 위해 II장에서는 먼저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다.¹⁸

1. 기거주(起居注)

기거주는 정치와 관련된 황제의 말과 행동을 날짜별로 기록한 책을 말한다. 송은 국초부터 기존의 제도를 계승하여 황제의 곁에 사관(史官)을 두고서 황제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기록하게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황제의 언동은 원풍(元豐) 연간(1078~1085)의 관제 개혁 이전까지는 기거원(起居院), 그 이후 남송 말까지는 기주안(記注案)이라는 관서에서 모아 기거주라는 책으로 편찬하였다. 여기에는 기거랑(起居郎), 기거사인(起居舍人) 등 담당 관원이 직접 들은 황제의 말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각 관청에서 기거원·기주안에 보낸 업무 보고, 관료가 황제와 직접 대면하여 상주를 올리고 비답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사후에 기거원·기주안에 통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때때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원칙

17 주 8) 및 주 14) 참조.

18 이하 이 장의 서술은 특별한 주석이 없는 한 蔡崇榜, 1991, 앞의 책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적으로 기거주는 1개월 단위로 편찬해서 그 즉시 사관(史館)에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현전하는 송 대의 고려 관련 기록 가운데 기거주에서 직접 인용했음을 밝힌 사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송사』 고려전에서 황제의 직접적인 행위를 묘사한 부분, 예컨대 천희(天禧) 3년(1019), 등주(登州)에서 고려 사신단이 탄 배가 뒤집혀 공물(貢物)을 잃어버렸다고 보고한 데 대해 진종이 내신(內臣)을 파견하여 그를 위로하게 하였다는 기록¹⁹ 등은 아마도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천희 3년 9월의 기거주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2. 시정기(時政記)와 일기(日記)

시정기는 재신(宰臣)이 국가의 중요 사안에 대해 남긴 일종의 업무 일지이다. 송 대에는 태조 개보(開寶) 7년(974)부터 남송의 멸망 때까지 거의 빠짐없이 시정기를 작성하였다. 예컨대 남송의 마지막 황제 공제(恭帝)의 1년 6개월 재위 기간에 대해서는 총 45책에 달하는 『덕우사적일기(德祐事跡日記)』가 작성되었다고 한다. 물론 미뤄지는 때도 있었지만, 규정상 시정기는 매달 수찬해서 황제에게 보고한 후 사관으로 넘기게 되어 있었으며, 남송 효종(孝宗) 건도(乾道) 7년(1172)부터는 그 간격이 열흘로 줄어들었다.

시정기는 중서성(中書省)과 추밀원(樞密院)에서 각각 민정(民政)과 군정(軍政)의 일을 나누어 편찬하였다. 중서성과 추밀원은 각각 시정기방(時政記房)을 두어 재상이 황제와 나눈 대화를 비롯해서 스스로 남긴 메모, 중서성과 추밀원이 자체 생산하거나 처리한 문서, 중서성과 추밀원을 경유한 각 관부와 관료들의 상주문 등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 대 초기에는 중서성의 참지정사(參知政事)와 추밀원의 추밀부사(樞密副使)의 책임하에, 원풍 관계 개

19 『송사』 고려전, (天禧) 三年九月, “登州言, 高麗進奉使禮賓卿崔元信至秦王水口, 遭風覆舟, 漂失貢物, 詔遣內臣撫之.”

혁 이후로는 별도로 설치한 전담관이 책임지고 각각의 시정기를 집필하였다.

시정기가 관청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사관에 제출하도록 규정된 기록물이었다면, 정사에 참여한 대신들은 스스로 일기를 남겼다. 말하자면 사찬(私撰)의 비망록으로, 사마광(司馬光)의 『일기(日記)』나 왕안석(王安石)의 『일록(日錄)』이 대표적이다.²⁰ 각 대신들은 시정기에는 차마 담지 못한 개인적인 견해를 일기에 상세히 남기기도 하였다. 일기 역시 사관에 수집되어 훗날의 사서 편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신종실록(神宗實錄)』을 다섯 차례, 『철종실록(哲宗實錄)』을 두 차례 편찬하면서 신법당(新法黨)의 의견을 반영할 때에는 왕안석의 『일록』을, 구법당(舊法黨)이 편찬을 책임질 때에는 사마광의 『일기』를 주된 사원으로 활용했다고 한다.²¹

송 대의 시정기 가운데 현재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장편』의 신종·철종 부분이나 『요록』의 주석 부분에서 시정기, 그리고 각 대신의 일기를 인용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송 대의 정치 운영에서는 재신이 황제와 대면하여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일반 관료의 상주(上奏) 역시 중서성과 추밀원을 거쳐 황제에게 보고되고, 황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재신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였다.²² 따라서 문서 행정 과정에 개입하고,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재신이 남긴 시정기는 정치 사안에 대해 가장 폭넓고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었다. 이에 역사 기록의 측면에서 송 대를 ‘시정기의 시대’라고 평할 정도이다.²³

20 平田茂樹, 2012a, 앞의 글, 358~369쪽에서 현재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18종의 송 대 日記를 정리하였다.

21 近藤一成, 1984, 「洛蜀黨議」と哲宗實錄, 早稻田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編, 『中國正史の基礎的研究』,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312~313쪽.

22 平田茂樹, 2012b, 「宋代の政策決定システム-對と議-」, 앞의 책 참조.

23 平田茂樹, 2012b, 위의 글, 351쪽.

송 조정에서 고려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듯 『송사』 고려전에는 고려와의 관계에 대해 황제와 대신들의 논의 내용이나 각 대신들의 상주문 등이 많이 남아 있다.

예컨대 『송사』 고려전에는 철종 원우(元祐) 7년(1092)에 고려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책을 구입하고자 한다고 청한 데 대해 당시의 예부상서(禮部尙書) 소식(蘇軾)이 적극 반대 의사를 밝히자 황제가 그의 뜻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있다.²⁴ 『송사』 본기에 따르면 이때의 논의에 증서문학성의 재신 역시 참여했다고 한다.²⁵ 이때 소식이 올린 상주문은 그의 문집에도 전하고,²⁶ 그 요지가 『장편』에도 실려 있다.²⁷ 그의 문집에 실린 주소(奏疏)에 따르면 소식이 이 문서를 올리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고려의 사신이 관반(館伴), 즉 자신의 접대를 담당한 송 측 관원에게 서적을 구입하고자 한다는 뜻을 알렸다. ② 관반이 국자감(國子監)에 문서를 보내 이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국자감에서는 규정에 따라 이 사실을 상서성(尙書省)에 보고하였다. ④ 상서성에서 처리 방안에 대해 예부에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⑤ 소식의 지휘에 따라 예부에서 반대 의사를 상서성에 제출하였다. ⑥ 그러나 3성 및 추밀원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전례에 따라 이미 매입한 서적은 가지고 가도록 허용하기로 하였다. ⑦ 이에 소식이 장문의 반대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²⁸ 또한 『장편』의 해당 기사 주석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한 황제의 최종 명령은 같은 해 3월 6일에 내려졌다

24 『송사』 고려전, “(元祐)七年, 遣黃宗慤來獻黃帝鍼經, 請市書甚衆, 禮部尙書蘇軾言, ‘高麗入貢, 無絲髮利而有五害, 今請諸書與收買金箔, 皆宜勿許.’ 詔許買金箔, 然卒市冊府元龜以歸.”

25 『宋史』 권17, 哲宗 元祐 7년(1092) 2월 辛亥, “禮部尙書蘇軾言, ‘高麗使乞買歷代史及策府元龜等書, 宜卻其請不許.’ 省臣許之, 軾又疏陳五害, 極論其不可, 有旨, ‘書籍曾經買者聽.’”

26 『蘇軾文集』 권36, 〈論高麗買書利害劄子三首〉.

27 『續資治通鑑長編』 권481, 元祐 8년(1093) 2월 辛亥.

28 이 문서 해석에 대해서는 李瑾明, 2017, 「蘇軾 高麗 관련 논설의 譯註(3)」, 『中國史研究』 107, 213~230쪽을 참조하였다.

고 한다.²⁹

이 사안을 둘러싼 문서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에는 예부상서 소식만이 아니라 3성과 추밀원의 재신들, 그리고 황제까지 모두 얽혀 있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문서 행정과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을 시정기방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기에 참여한 재상들이 직접, 혹은 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시정기에 적혔을 것이다. 이 사실은 『송사』 고려전과 본기에는 각각 원우 7년과 8년 2월의 일로 합쳐져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원우 7년 11월에 고려의 사신이 도착한 일,³⁰ 그리고 이듬해 2월 1일과 15일, 16일 3회에 걸쳐 소식이 반대 상소를 올린 일, 그리고 재신들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월 6일에 황제가 명령을 내린 일이 각각 그달의 시정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합쳐서 하나의 기사로 만든 것이다.

3. 일력(日曆)

일력은 상술한 기거주·시정기를 비롯해서 각 관청에서 제출한 업무 기록, 관료들이 제출한 행장(行狀)이나 묘지명(墓誌銘) 등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날짜별로, 다시 사안별로 배치하여 편찬한 기록물이다. 송은 건국 초부터 일력소(日曆所)를 두고 저작랑(著作郎)과 저작좌랑(著作佐郎)에게 책임을 맡겨 매일매일의 기거주, 매월 작성된 시정기, 각 부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력을 편찬하였다. 『송사』 예문지(藝文志)에 따르면 고종(高宗) 재위 35년(1127~1162)의 일력이 1,000권, 효종 재위 27년(1162~1189)의 일력이 2,000권에 달했다고 할 정도로,³¹ 일력은 대단히 풍부한 내용의 자료집이었다. 특히 후술할 실록이 전

29 『長編』 권481, 元祐 8년(1093) 2월 辛亥 기사의 細注, “詔高麗買書自有體例, 編敕乃禁民間, 令依前降指揮, 新錄系之三月六日, 今並附此.”

30 『長編』 권478, 元祐 7년(1092) 11월 甲申.

31 『宋史』 권203, 藝文志 2, 史類 1, 編年類.

대의 역사를 정리한 결과물인 것과 달리 일력은 해당 황제의 재위 중 동시에 편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를 보존할 수 있었고, 집정자의 입김이나 후대 편찬자들의 주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일력은 훗날의 실록, 국사, 그리고 회요 집필의 기본 전거가 되었다.

일력의 편찬은 당 대인 80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오대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훗날의 원·명·청 대에도 일력을 편찬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일력의 존재는 송 대 역사 편찬 제도, 관찬 사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³²

4. 실록(實錄)

주지하듯이 실록은 전대 군주 치세에 있었던 일을 편년체로 기술한 사서(史書)이다. 송 대의 실록은 일력을 바탕으로 하여 기거주나 시정기, 수시로 취합된 각 관서의 편찬물이나 문서, 예컨대 조보(朝報), 관료명부, 호구 통계, 외교사절의 명부와 외교문서 등, 그리고 관료 개인들이 수집해둔 기록 등을 자료로 삼아 편찬되었다. 그 체제는 기본적으로 일력과 동일한데,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졸기(卒記)와 마찬가지로 고위 관료가 사망한 날짜에는 그의 집안에서 제출한 행장이나 묘지명을 바탕으로 간단한 그의 열전을 신기도 하였다.

송은 태조부터 영종(寧宗)까지 13명 황제의 실록을 편찬하였으며 이종(理宗, 재위 1224~1264)의 실록은 초고는 있으나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태종·철종·휘종(徽宗) 및 남송의 효종·광종(光宗)의 실록은 두 차례씩, 태조와 신종의 실록은 각각 네 차례와 다섯 차례 편찬되었다. 실록이 거듭 편찬된 것은 편찬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전대에 대한 평가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종실록』은 첫 번째로 철종 즉위 직후인 원우 원년(1086)에 편찬이 개시되어 6년(1091)에 완성되었다. 이때는 철종이 아직 어려 고태후(高太后)가 섭정을

32 蔡崇榜, 1991, 앞의 책, 38, 53쪽.

펼치며 사마광을 필두로 한 구법당이 집권하여 왕안석이 시행했던 신법을 모두 폐지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때의 『신종실록』은 사마광이 지은 『속수기문(涑水記聞)』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왕안석의 개혁 조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인식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철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신법당을 재차 기용하면서 소성(紹聖) 원년(1094)부터 3년(1096)에 걸쳐 『신종실록』 중수(重修) 작업이 이루어졌다. 1차 편찬 책임자들은 모두 펴출되었고, 새로운 책임은 열렬한 신법 추진파였던 장돈(章惇)이 맡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왕안석이 저술한 『일록』의 시각에 따라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 근거한 『신종실록』을 편찬하였다.³³

송 대의 실록 가운데 유일하게 『송태종실록(宋太宗實錄)』이 전체 80권 중 20권 남아 있다. 그 가운데는 고려와 관련된 기록이 5건 실려 있다.³⁴ 이 가운데 권35의 옹희(雍熙) 3년(986) 2월 계묘 조에는 고려 국왕, 즉 성종에게 보낸 조서가 인용되어 있다. 이 조서는 『송사』 고려전³⁵과 『고려사』 세가³⁶에 실려 있어, 해당 자료가 인용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다.³⁷ 또 다른 예로 권32, 옹희 2년(985)의 두 기사를 『송사』 고려전 및 『고려사』 세가와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송태종실록』에는 고려국왕에게 검교태부(檢校太傅)의 책봉호를 더해준 일과 이를 알리기 위해 사신을 파견한 일을 각각이 행해진 날짜에 기록하였다. 아마도 『일력』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서술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송사』 고려전과

33 『神宗實錄』을 다섯 차례나 편찬한 경과에 대해서는 蔡崇榜, 1991, 앞의 책, 82~98쪽 및 黃漢超, 1966, 「宋神宗實錄前後改修之分析」上·下, 『新亞學報』 7-1·2 참조.

34 『宋太宗實錄』 권29, 太平興國 9년(984) 3월 乙卯; 권31, 태평흥국 9년(984) 11월 壬子; 권32, 雍熙 2년(985) 정월 甲戌; 권32, 雍熙 2년(985) 2월 壬午; 권35, 옹희 3년(986) 2월 癸卯.

35 『송사』 고려전, 雍熙 3년.

36 『고려사』 권3, 成宗 4년 5월.

37 顧宏義, 2007, 앞의 글, 128~129쪽.

〈표 1〉 옹희 2년(985) 기록의 비교

『송태종실록』 권32, 雍熙 2년	『송사』 고려전, 雍熙 2년	『고려사』世家, 成宗 4년 5월
(정월 甲戌) 制加高麗國王王治檢校太傅. (2월 壬午) 以翰林侍書左拾遺王著·翰林侍讀著作郎呂文仲, 使高麗.	加治檢校太傅, 遣翰林侍書王著·侍讀呂文仲充使.	宋遣太常卿王著·秘書監呂文仲, 來加冊王. 詔曰, (후략)

『고려사』 세가는 위 두 기사를 합쳐서 하나의 기사로 서술하였다. 송이 파견한 사신의 이름, 왕저(王著)와 여문중(呂文仲)은 세 자료가 모두 일치한다. 그러나 그들의 관직은, 왕저의 경우만 보면 한림시서 좌습유(翰林侍書 左拾遺), 한림시서, 태상경(太常卿)으로 모두 차이가 있다. 『송사』 고려전, 혹은 그 사원이 된 자료에는 전체 관직명 가운데 좌습유를 생략하고 한림시서만 기록하였고, 『고려사』의 바탕이 된 고려 측의 기록에는 그가 띠고 온 임시직인 태상경 쪽만 남겼기 때문에 생긴 차이일 것이다.

한편 송의 역대 실록은 『속자치통감장편』 편찬의 기본 사료가 되었으며, 그 찬자 이도는 자신이 어떤 실록을 보고 그와 같이 서술하였는지를 주석을 통해 상세히 밝혀두었다. 그 가운데는 고려에 관련된 기록도 있는데, 예컨대 다음과 같다.

가-1) 그 신하 김양감(金良鑑)을 파견해와서, … 또한 표문을 올려 의(醫)·약(藥)·화(畫)·소(塑) 분야의 공인(工人)을 보내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게 해 달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나중(羅拯)에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도록 하였다.³⁸

가-2) 강희발운사(江淮發運司) 나중(羅拯)이 말하기를, 천주(泉州)의 상인 전

38 『송사』 고려전, 熙寧 7년(1074), “遣其臣金良鑑來, … 又表求醫藥畫塑之工, 以教國人, 詔羅拯募願行者.”

선(傳旋)이 고려 예빈성(禮賓省)의 첩(帖)을 가지고 와서 악인(樂人)과 예인(藝人)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였다. 황제가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이미 교방(敎坊)으로 하여금 빌려줄 만한 자제 10인을 시험하게 하였다. 4부(醫·藥·畫·塑: 인공자)의 사람들을 불러 색옷과 꾸미는 데 쓸 돈을 지급하고 나중의 뜻에 따라 조서를 써주어 가지고 가게 하라. 전습이 끝나면 속히 돌아오게 하라. 화공과 소공은 고려의 사신이 입조하기를 기다렸다가 보내도록 하라.” 추밀원에서 재차 진정(進呈)하였으므로 이에 그만 두고 보내지 않았다. 【『주사(朱史)』에서는 기록할 만하지 않다고 하여 삭제하였고, 『신사(新史)』도 이를 따랐다. 여기서는 『구사(舊史)』에 따른다.】”³⁹

『송사』 고려전의 가-1)은 희녕(熙寧) 7년(1074)에 고려에서 사신을 보내 의사와 약사, 화공과 소공(塑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황제가 나중에게 지시하여 고려로 가기를 원하는 자를 모집하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기록만 보면 송에서 모집한 의사 등을 고려에 보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경과는 가-2)를 봐야만 알 수 있다.

가-2)의 『장편』에 따르면 가-1)의 기사는 다음의 몇 가지 일련의 사건을 축약하여 기록한 것이다. ① 희녕 6년(1073) 10월 임진일에 고려의 사신이 도착했음을 명주(明州)에서 보고하였다. ② 이듬해 정월 을축일에 고려의 진봉사(進奉使) 김약감 일행이 수궁전(垂拱殿)에서 황제를 알현하였다. ③ 2월 계유일에는 권지고려국왕(權知高麗國王), 즉 문종(文宗)이 중서성과 추밀원에 문서와 함께 선물을 보냈으므로 그 처리를 지시하였다. ④ 2월 계미일, 권지고려국왕이 표문을 올려 의·약·화·소 네 분야의 기술자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황제

39 『長編』 권261, 神宗 熙寧 8년(1075) 3월 丙午, “江淮發運司羅拯言, 泉州商人傳旋持高麗禮賓省帖, 乞借樂藝等人. 上批, ‘已令敎坊按試子弟十人可借, 呼第四部給色衣·裝錢, 作拯意奉詔遣往. 傳習畢, 早令還朝. 畫塑工俟使人入朝遣往.’ 樞密院再進呈, 乃罷不遣.【朱史以爲無足書, 刪去, 新史從之. 今從舊史.】”

가 나중에게 명하여 자원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⁴⁰ 장편에는 ①부터 ④를 모두 최종 행위의 주체가 황제가 된 날짜에 배치하였다. 즉 ①은 정확히는 사신이 도착한 날짜가 아니라, 명주에서 그 사실을 보고한 것이 황제에게 전달된 날짜에, ④는 사신이 표문을 제출한 날짜가 아니라 그에 대한 황제의 비답이 내려진 날짜에 실었다. 가-1)은 ④를 중심으로 앞의 ①~③을 합쳐서 하나의 기사로 만든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후술할 『문헌통고(文獻通考)』 고구려 항과도 완전히 동일하다.⁴¹

가-2)는 희녕 8년(1075) 3월의 기사로, 위 기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고려가 악인과 예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황제가 이를 승인하였으나, 추밀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도는 이 기사에 세주(細注)를 붙여, 이 기록이 『주사』와 『신사』에는 없으나, 자신은 『구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도가 말한 『주사』란 소성 3년(1096)에 완성된 증수본 『신종실록』을 말하고, 『신사』란 소흥(紹興) 연간에 네 번째로 편찬된 『신종실록』을 말하며, 『구사』란 원우 6년(1091)에 완성된 첫 번째 『신종실록』을 가리킨다.⁴²

이 기사와 특히 세주는 송 대의 역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에 관련된 기록이 어떻게 실리게 되었고, 어떻게 전승되었는지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고려의 문서를 접수한 후 황제의 지시와 추밀원의 건의가 이어졌으니, 이 기록은 아마도 추밀원에서 작성한 희녕 8년 3월의 시정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신종 당대에 편찬된 일력에도 포함되어었을 것이다. 철종 즉위 직후 시작된, 구법당이 주도한 『신종실록』 편찬 과정에서는 일력을 토대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하였고, 『장편』은 『신종실록』의 기사를 그대로

40 『長編』 권247, 熙寧 6년(1073) 10월 壬辰; 권249, 熙寧 7년 정월 乙丑; 권250, 熙寧 7년 2월 癸酉; 癸未.

41 『文獻通考』 권325, 四裔考 2, 高句麗, 熙寧 7년. 다만 『文獻通考』에서는 고려 사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使”라고만 하였다.

42 燕永成, 1996, 「《續資治通鑑長編·神宗朝》取材考」, 『史學史研究』 1996年 第1期, 62쪽 참조.

해당 날짜에 배치하여 실었을 것이다.⁴³ 그러나 소성 연간(1094~1098)에 신법당이 주축이 된 『신종실록』 증수 과정에서는 이 기사가 “기록할 만하지 않다고 하여 삭제하였다[無足書, 削去].” 그러고는 철종 승녕(崇寧) 3년(1104)에 완성된 『신종정사(神宗正史)』, 이를 바탕으로 효종 순희(淳熙) 13년(1186)에 완성된 『사조국사(四朝國史)』의 고려 열전은 증수본 『신종실록』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가-2)의 기사는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조국사』를 그대로 인용한 『송사』 고려전에도 해당 기사는 실리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송 대의 실록은 고려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황제의 조치가 내려진 날짜에 그 사실을 수록하였다. 현재 『장편』에서 확인되는 고려와 관련된 기록은 대부분 실록을 바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를 한 번 더 가공하여 연대별로 배치한 국사 고려전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송사』 고려전에 비해 훨씬 상세하다.

5. 국사(國史)

송은 태조·태종·진종의 『삼조국사(三朝國史)』[천성(天聖) 8년(1030) 완성], 인종(仁宗)·영종(英宗)의 『양조국사(兩朝國史)』[원풍(元豐) 5년(1082) 완성], 신종·철종·휘종·흠종(欽宗)의 『사조국사(四朝國史)』[순희(淳熙) 13년(1186) 완성], 고종·효종·광종·영종(寧宗)의 『중흥사조국사(中興四朝國史)』[순우(淳祐) 2년(1242) 일단 완성] 등 총 네 차례 국사를 편찬하였다. 이 밖에 나중에 『삼조국사』에 포함되었지만 진종 때에 일찍이 태조·태종의 『양조국사(兩朝國史)』를 완성한 일이 있었고, 신종 때에는 『삼조국사』와 『양조국사』를 합쳐서 태조부터 영종(英宗)까지의 『오조국사(五朝國史)』 편찬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송 때

43 『長編』의 편찬 경과와 그 史源에 대해서는 周藤吉之, 1969c, 「南宋の李燾と『續資治通鑑長編』の成立」, 『宋代史研究』, 東京: 東洋文庫 및 裴汝誠·許沛藻, 1985, 『續資治通鑑長編考略』, 北京: 中華書局, 39~72쪽 참조.

에는 북송 전체 시기를 다룬 『구조국사(九朝國史)』, 그리고 남송 말년에는 『이종국사(理宗國史)』 편찬을 시도하기도 하였다.⁴⁴

송의 역대 국사는 제기(帝紀)와 지(志), 열전을 갖춘 기전체(紀傳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열전 가운데에는 외국 열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송사』 하국전(夏國傳)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주목된다.

나) 과거 송의 구사(舊史)에는 여직전(女直傳)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금사(金史)』를 지었으니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국(夏國)은 비록 향배가 일정하지 않지만 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으므로 구사의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다.⁴⁵

여기서 『송사』의 편찬자들이 ‘구사’라고 한 것은 송의 역대 국사를 가리킨다. 즉 송의 국사에 여직전, 즉 여진(女眞)에 대한 열전과 하국전이 있었는데, 『금사』가 이미 편찬되었으므로 전자는 생략하고 후자의 기록을 그대로 살려 『송사』 하국전을 짓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한편 국사에는 고려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장편』의 대중상부 3년(1010) 11월 임진 조에는 거란이 고려를 공격한 사실을 싣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도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다) 회요에 따르면 고려왕 순(詢)이 대중상부 7년(1014) 12월에 표문을 올려, 경술년에 번병(蕃兵)이 성 아래로 들이닥쳐 순은 승주(升州)·나주(羅州)로 옮기고 군사를 동원하여 여섯 성을 지켰다고 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대중상부 3년 거란이 대거 침입하였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대중상부 3년은 곧 경술년인

44 송 대의 國史 편찬에 대해서는 周藤吉之, 1969a, 앞의 글; 葛兆光, 1982, 「宋官修國史考」, 『史學史研究』 1982年 第1期 및 蔡崇榜, 1991, 앞의 책, 117~148쪽 등을 참조.

45 『송사』 권485, 外國 1, 夏國, “前宋舊史有女直傳, 今既作金史, 義當削之, 夏國雖徭鄉不常, 而視金有間, 故仍舊史所錄存.”

데, 순의 표문에 어째서 이렇게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서는 국사 고려전을 따른다. 혹 거란이 이 해에 고려를 두 번 정벌하였는데, 처음에는 이겼다가 뒤에 패배했던 것인가? 따져 보아야 하겠다.⁴⁶

이 기사가 실린 대중상부 3년(1010)은 진종의 재위 기간이었으므로, 이도가 근거했다고 하는 국사는 그 시기를 다룬 『삼조국사』를 말한다. 이미 태조와 태종 시대를 다룬 『양조국사』에 우란(于闐) 등 13국의 외국 열전 9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니,⁴⁷ 송에서 편찬한 첫 번째 국사부터 고려전이 있었던 것이다.⁴⁸ 그리고 후술하듯이 『송사』 고려전은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6. 회요(會要)

회요는 정치, 군사, 재정, 의례, 형법 등 등 한 시대의 제도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자료집을 말한다. 송 대에는 경력(慶曆) 4년(1044)을 시작으로 남송 말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회요를 편찬하였다. 원본은 모두 사라졌으나, 명 대에 간행된 『영락대전(永樂大全)』에 그 일부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19세기에 서송(徐松) 등이 집록하였다가 20세기에 들어서 『송회요집고(宋會要輯稿)』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다.⁴⁹

46 『長編』 권74, 大中祥符 3년(1010) 11월 壬辰, “【據會要, 高麗王詢, 大中祥符七年十二月所上表, 稱庚戌年, 蕃兵奄至城下, 詢徙居升·羅州, 調兵守六城, 又云, 大中祥符三年, 契丹大舉來伐. 按, 大中祥符三年, 卽庚戌年也, 不知詢表何以如此差誤. 今從國史高麗傳, 或契丹是歲兩伐高麗, 初勝後敗邪, 當考.】” 이 주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孫昊, 2016, 앞의 글 참조.

47 『玉海』 권46, 蔡崇榜, 1991, 앞의 책, 119쪽에서 재인용.

48 顧宏義, 2007, 앞의 글, 123쪽 참조.

49 송 대의 會要 편찬 경과에 대해서는 蔡崇榜, 1991, 앞의 책, 149~172쪽 및 Charles Hartman, 2020, 앞의 책, 23~48쪽 참조. 『宋會要輯稿』로 정리되기까지의 과정

일력-실록-국사는 후자가 전자를 인용, 요약하는, 비교적 한 방향으로의 편찬 과정을 거쳤다면, 회요는 양방향으로 기록을 주고받으며 편찬되었다. 즉 회요를 편찬하면서는 일력을 주된 전거로 하면서도 동시에 실록, 국사의 기록을 모두 참조하였는데, 반대로 실록이나 특히 국사의 지(志) 부분은 역시 편찬 당시 완성되어 있던 회요의 각 부분을 인용하기도 하였다.⁵⁰

현재 활용되는 『송회요집고』의 맨 마지막 부분은 번이류(蕃夷類)로서, 거기에는 요(遼)와 여진을 비롯해 총 34개에 달하는 송 주변의 정치집단과의 관계를 편년체로 서술하고, 맨 마지막에 〈역대조공(歷代朝貢)〉 항목에서 여러 주체가 조공을 보낸 사례를 열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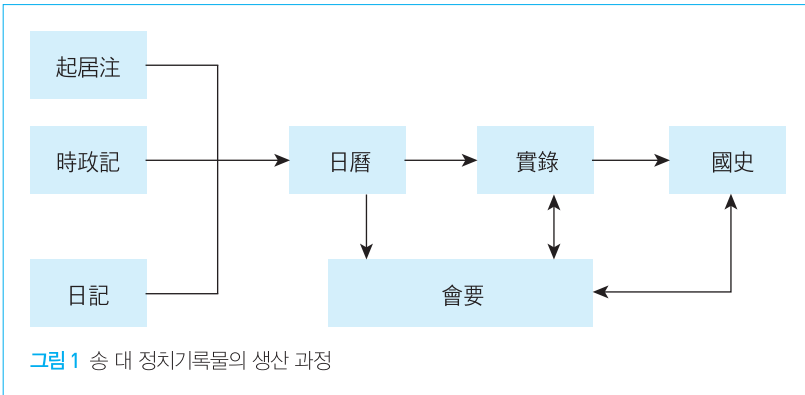
아쉽게도 여기에는 송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 가운데 하나였던 고려, 그리고 서하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송회요집고』 변이 3-2, 여진의 진종 대 중상부 7년(1014) 기사에, “장군 대천기(大千機)를 파견하여 고려 사신을 따라 입공하였다.”라고 하고서 그 주석에 “[이 일에 대해서는 고려전에 실려 있다(事具高麗)]”라고 한 것을 보면, 『송회요』에 고려 항목이 있었음은 분명하다.⁵¹ 이 밖에도 『장편』과 『요록』의 고려 관계 기사 곳곳에서 회요를 참조했다는 주석이 확인된다. 예컨대 『요록』 소흥 6년(1136) 11월 임진 조에는 고려에서 사신을 파견하기 위해 먼저 지첩관(持牒官) 김치규(金稚圭) 등을 보내왔다는 기사를 싣고, 그 주석에 “일력에는 이 기록이 없으나, 여기서는 회요 및 오불(吳芾)의 주의(奏議)를 참고하여 써넣었다.”라고 밝혔다.⁵² 이 기사는 서술을 조금 달리 하여 『송

에 대해서는 陳智超, 1995, 『解開《宋會要》之謎』,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24쪽 참조. 이 글에서는 1957년 中華書局에서 영인 출판한 판본을 이용하였다. 徐松 輯, 1957, 『宋會要輯稿』, 北京: 中華書局.

50 平田茂樹, 2012a, 앞의 글, 351쪽.

51 孫昊, 2019, 「宋官方對高麗信息的獲取及認知-從宋會要高麗門的的佚文線索說起-」, 『文史』 128, 199쪽.

52 『要錄』 권106, 紹興 6년(1136) 11월 壬辰, “【日曆無此. 今以會要及吳芾奏議參考修入.】”



사』 고려전에도 수록되었다.⁵³

이상 송 대의 관찬 사서 편찬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⁵⁴ 이러한 흐름을 거치면서 고려와 관련된 사실은 기록되고, 축약되면서 옮겨져 최종적으로는 국사의 고려전에 실리게 되었다.

7. 『송사(宋史)』

송을 포함하여 거란과 금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몽골제국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송사』를 중심으로 하고 거란과 금의 역사를 열전(列傳), 혹은 세가(世家)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송사』와 『요사(遼史)』·『금사(金史)』를 각각 편찬할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는 원(元)이 자신을 선행했던 세 나라 가운데 어느 쪽을 계승한 국가로 자임할 것인지,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논쟁이

53 『송사』 고려전, “(紹興) 六年, 高麗持牒官金稚圭至明州, 賜銀帛遣之, 懼其爲金間也.”

54 <그림 1>은 蔡崇榜, 1991, 앞의 책, 1~8쪽, 平田茂樹, 2012a, 앞의 글, 350쪽과 352쪽 및 Charles Hartman, 2020, 앞의 책, 5쪽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이어지면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⁵⁵ 결국 지정(至正) 3년(1343)에 이르러 서야 3사(史)를 나란히 편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요사』와 『금사』는 이듬해에, 『송사』는 지정 5년 11월에 편찬이 완성되었다.

몽골제국의 역사학자들이 『요사』와 『금사』를 편찬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자료의 부족이었다. 특히 두 책이 참조했던 사서(史書)들 가운데 고려의 역사, 혹은 거란·금이 고려와 맺었던 외교관계의 우여곡절을 정리한 기록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요사』와 『금사』 고려전은 전적으로 14세기에 재정리된 기사라고 할 수 있다.⁵⁶ 반면 『송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누차 편찬되었던 국사 및 회요에는 고려 열전이라고 할 만한 항목이 있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된 『송사』는 전체 496권으로, 훗날 간행된 『원사(元史)』나 『명사(明史)』 등을 제치고 중국 역대 정사 가운데 최대 분량을 자랑한다. 그러나 명 초부터 이 책 내용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한때는 재간행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현대의 역사학에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자료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 오류를 발견하거나 거기에 담긴 필자의 의도를 지적하고 있다.⁵⁷

그렇다면 고려전 부분은 어땠을까? 이 책이 참조한 여러 단계의 사서, 공식 기록 가운데 어떤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 혹은 재가공하여 『송사』 고려전이 작성되었을까. 장을 바꾸어 조금 더 자세하게 추적해보겠다.

55 이 과정에 대해서는 Hok-Lam Chan, 1981, “Chinese Official Historyography at the Yüan Court: The Composition of the Liao, Chin, and Sung Histories,” In John D. Langlois, Jr. (ed.), *China under Mongol Rul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金陽燮, 1989, 「遼·金·宋 三史編纂에 대하여」, 『中央史論』 6; 이개석, 2007, 「정통론과 13-14세기 동아시아 역사서술」, 『大丘史學』 88 등을 참조.

56 정동훈, 2023a, 「『遼史』 高麗傳의 史源」, 『東洋史學研究』 163, 57~60쪽; 정동훈, 2023b, 「『金史』 高麗傳의 史源」, 『史林』 85, 102~103쪽.

57 이에 대해서는 Charles, Hartman, 2020, 앞의 책, 172~173쪽 참조.

Ⅲ. 『송사』 고려전의 구성과 사원

『송사』 고려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앞에는 고려의 출자(出自)와 오대까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요약하였다. 맨 마지막에는 고려의 풍속과 지리 등에 대한 박물지(博物志) 성격을 담은 서술로 마무리된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태조부터 남송 효종 때까지 송과 고려의 관계를 시간 순으로 서술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서술하였지만 『송사』 고려전은 송의 역대 국사 고려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정도로 작성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 점을 논증하면서, 송의 국사가 구획하는 네 시기, 즉 『삼조국사』가 다루는 태조·태종·진종 시기, 『양조국사』의 인종·영종(英宗) 시기, 『사조국사』의 신종·철종·휘종·흠종 시기, 마지막으로 『중흥사조국사』의 남송 고종·효종·광종·영종(寧宗) 시기 각각에서 『송사』 고려전의 서술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검토해보겠다.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송사』 고려전의 내용이 『문헌통고』 고구려 항의 송대 부분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⁵⁸ 예를 들면 송 태종 순화(淳化) 5년(994)에 고려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거란의 침입을 알리면서 원병을 요청했으나 송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고, 이때부터 고려가 조공을 중단하였다는 내용을 알리는 기사는 『송사』 고려전과 『문헌통고』 고구려, 그리고 『고려사』 세가에 각각 <표 2>와 같다.

앞의 두 기사를 비교해보면, 후자에 굵은 글씨로 표시한 “夷狄相攻，固其常” 부분만 후자에 더 있고, 이탤릭체로 표시한 “賜”와 “回”에 차이가 있을 뿐,

58 『文獻通考』 권325, 四裔考 2, 高句麗. 『文獻通考』 高句麗 항은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를 건국 신화부터 남송 慶元 연간(1195~1200)까지 시대순으로 서술하였다. 이 항목의 고구려 부분은 『史記』부터 『新唐書』까지 正史의 高句麗傳 혹은 高麗傳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正史를 직접 참고한 것 같지는 않고, 『通典』이나 『太平實字記』와 같이 중간에 한 번 정리된 자료를 다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헌통고』 고구려 항목의 史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표 2〉 순화 5년 기록의 비교

『宋史』 고려전, 淳化 5년(994) 6월	『文獻通考』 高句麗, 淳化(994) 5년 6월	『고려사』 권3, 世家 3, 成宗 13년(994) 6월
遣使元郁來乞師, 懇以契丹寇境. 朝廷以北鄙甫寧, 不可輕動干戈, 爲國生事, 但賜詔慰撫, 厚禮其使遣還. 自是受制于契丹, 朝貢中絕.	遣使元郁來乞師, 懇以契丹寇境. 朝廷以夷狄相攻, 固其常, 北鄙甫寧, 不可輕動干戈, 爲國生事, 但詔慰撫, 厚賜其使遣還. 自是受制於契丹, 朝貢中絕.	遣元郁如宋乞師以報前年之役. 宋以北鄙甫寧, 不宜輕動, 但優禮遣還. 自是, 與宋絕.

* 이탤릭체는 차이가 나는 부분, 굵은 글자는 해당 사료에만 등장하는 부분

두 기사는 거의 동일하다. 한편 『고려사』 세가는 이 기사를 같은 해, 같은 달에 배치해두었는데, 자구에 차이는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다. 이를 보면 『고려사』 세가 편찬 당시에 『송사』 고려전을 참고한 것이 아닐까 추측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송사』 고려전과 『문헌통고』 고구려 항의 서술이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은 매우 많다. 단적인 예로 고려 숙종(肅宗)의 이름이 원래는 희(熙)였는데 거란 군주의 이름자를 피휘하여 옹(頤)으로 개명하였다거나, 그의 성품이 탐욕스럽다는 평가는 양자의 서술이 자구까지 동일하다.⁵⁹ 양자의 일치는 연대기적 서술의 맨 마지막 기사, 경원(慶元) 연간(1195~1200)에 송 상인들이 고려에 동전을 수출하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까지 계속 이어진다.⁶⁰

그렇다면 『송사』 고려전의 찬자가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문헌통고』(1307년 간행)의 해당 부분을 직접 참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혐의가 곧바로 떠오른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일부 기사는 『문헌통고』 고구려 항에 아예 실려 있지 않거나, 또 어떤 기사는 『송사』 고려전 쪽이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59 『송사』 고려전, “熙後遼遣主諱, 改名顯. 顯性貪吝, 好奪商賈利, 富室犯法, 輒久磨責贖, 雖微罪亦輸銀數斤.”

60 『송사』 고려전, “慶元間, 詔禁商人持銅錢入高麗, 蓋絕之也.”; 『문헌통고』 고구려, “慶元間, 詔禁商人博易銅錢入高麗, 朝廷亦絕之也.” 인용문에서 이탤릭체는 양쪽의 기록이 다른 부분을 의미한다.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송사』 고려전에만 있고 『문헌통고』 고구려에는 없는 기록은 태조 건륭(建隆) 4년(963) 9월의 기사부터 총 6건에 이른다.⁶¹ 『송사』 고려전이 더 자세한 정보를 담은 기사 역시 많은데, 특히 고려나 송 양측의 사신의 관직과 이름은 『문헌통고』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것을 『송사』 고려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⁶²

이들 두 자료의 공통점은 둘 다 특정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연도, 혹은 간혹 월까지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장편』과 비교해보면, 두 자료 모두 여러 날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을 압축해서 하나의 기사로 싣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송사』 고려전은 원풍 2년(1079)의 일로 ① 송에서 고려에 사신 왕순봉(王舜封)과 의사를 파견하자, ② 고려에서 사은사 유홍(柳洪) 등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이 중간에 풍랑을 만나 공물을 잃어버렸으나 황제가 칙서를 내려 그들을 위무하였고, ③ 곧이어 고려가 일본에서 제작한 수레를 진헌하였다는 내용을 하나의 기사로 서술하였다.⁶³ 그런데 『장편』에는 ①~③의 사건이 각각 원풍 원년(1078) 10월 계해, 3년(1080) 정월 을유와 2월 무신 조에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⁶⁴ 같은 사건을 『문헌통고』 고구려 항에서도 싣고 있는데, 왕

61 『송사』 고려전, 建隆 3년(963) 9월; 端拱 원년(988); 淳化 원년(990); 乾興 원년(1022) 2월; 紹興 원년(1131) 10월; 紹興 2년(1132) 윤4월의 두 번째 기사 등. 이 밖에 雍熙 3년(986)에 송에서 사신 韓國華를 파견하여 거란에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한 사실에 대해, 『송사』 고려전에는 그때 전달한 詔書의 내용을 싣고 있지만 『문헌통고』는 이를 싣지 않았다.

62 예컨대 元豐 원년(1078)에 송에서 거의 100년 만에 고려에 파견한 사신의 명단을 두고, 『문헌통고』에서는 “始遣安燾·陳睦往使.”라고만 하였는데, 『송사』 고려전에서는 “始遣安燾假左諫議大夫·陳睦假起居舍人往聘.”이라고 하여 그들에게 假官을 부여한 내역까지를 밝혔다.

63 『송사』 고려전, “(元豐) 二年, 遣王舜封挾醫往診治. 徽又使柳洪來謝, 海中遇風, 失所貢物. 洪上章自劾, 敕書安慰. 尋獻日本所造車, 曰:「諸侯不貢車服, 故不敢與土貢同進.」前此貢物至, 輒下有司估直, 償以萬緡, 至是命勿復估, 以萬緡爲定數.

64 『장편』 권293, 元豐 원년(1078) 10월 癸亥; 권302, 원풍 3년(1080) 정월 乙酉; 2월 戊申.

순봉과 유흥이라는 송과 고려 사신의 이름을 생략한 것, 풍랑으로 공물을 잃어버렸으나 황제가 이를 용서하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자구까지 거의 동일하다.⁶⁵ 여러 날짜에 걸쳐 일어난 사건, 아마도 『신종실록』의 여러 날짜에 흩어져 기록되어 있었을 내용을 우연하게도 『송사』 고려전과 『문헌통고』 고구려 항의 편찬자가 동일한 문장으로 요약했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둘은 공통의 자료를 보고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여 서술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료는 바로 국사 고려전이였다.

가장 직접적인 단서라고 할 만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라-1) 고종이 즉위(1127)하고서는, 금나라 사람이 고려와 통할까 우려하여 적공랑(迪功郎) 호려(胡蠡)를 가종정소경(假宗正少卿)으로 삼아 고려국사(高麗國使)로 임명하여 정탐하게 하였다. 호려가 돌아온 일은 사(史)에서 기록을 빠뜨렸다.⁶⁶

라-2) 융흥(隆興) 2년(1164) 4월, 명주에서 말하기를 고려에서 입공할 것이라고 했다. 사(史)는 인견(引見)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서(彝敘)가 속인 것과 같이 않았을까 한다.⁶⁷

라-1)은 『송사』 고려전과 『문헌통고』 고구려의 기록에 약간의 출입이 있으나, 내용은 대개 동일하다. 라-2)는 양자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 앞서 살펴

65 『문헌통고』 고구려, “(元豐) 二年, 遣使挾醫往診治. 徽遣使致謝, 尋獻日本所造車, 曰: “諸侯不貢車服, 故不敢與土貢同進.” 前此貢物至, 輒下有司估直, 償絹萬緡, 至是命勿復估, 以萬緡爲定數.

66 『송사』 고려전, 高宗即位, 慮金人通於高麗, 命迪功郎胡蠡假宗正少卿爲高麗國使以問之. 蠡之回, 史失書. 같은 내용을 『문헌통고』 고구려 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高宗建炎元年五月即位, 卽遣胡蠡等爲高麗國信使, 朝廷蓋憂其通金人, … 蠡之回, 史失書.”

67 『송사』 고려전, “隆興二年四月, 明州言高麗入貢. 史不書引見日, 恐同彝敘之詐.”

본 것처럼 두 자료의 편찬자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했음이 분명하다면, 위 기사들 역시 거기서 따온 구절일 것이다. 여기서 말한 ‘사(史)’는 호려가 귀환한 일, 그리고 고려 사신의 인견 날짜를 기록해야 했을 사료, 즉 앞서 살펴본 시정기나 그를 바탕으로 편찬된 일력, 혹은 실록일 것이다. 따라서 실록을 토대로 기사를 재배치한 국사, 이 경우에는 고종 대와 효종 대의 일을 정리한 『중흥사조국사』의 고려전에서 이 점을 지적한 것을 양자가 똑같이 인용한 것이다. 라-2)에서 “이서(彝敘)가 속인 것”이란 소흥 2년(1132) 12월에 고려에서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홍이서(洪彝敘) 등 65인을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다는 일을 말한다. 31년의 시차가 있는 일을 굳이 언급한 것을 보면, 이 기사의 사원은 고려라는 매우 특수한 관심 사항에 대해 기사를 추출, 정리한 자료임이 틀림없다.⁶⁸ 『중흥사조국사』의 고려전이 바로 그것이다.

『송사』 고려전과 『문헌통고』 고구려 항이 모두 국사 고려전을 인용한 것임을 보여주는 다른 방증으로, 고려의 지리와 문물 등을 소개하는 부분의 사원을 들 수 있다. 『장편』의 원풍 6년(1083) 9월 경술 조에서 왕휘(王徽), 즉 고려 문종의 죽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고려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한 후 그 기사의 출전을 소개하였다.

마) 조서를 내렸다. “고려국왕 왕휘가 죽었으므로, 명주로 하여금 본주, 혹은 정해현(定海縣)에서 큰 사찰을 택하여 승려 37명으로 하여금 한 달 동안 도량(道場)을 열게 하고, 파하기 전날 저녁에 수륙회(水陸會)를 열게 하라.”
왕휘는 재위한 지 무릇 36년이다. 그 나라의 경계는 동남쪽으로는 바다에 임

68 『송사』 고려전, “聞高麗遣知樞密院事洪彝敘等六十五人來貢, … 既而卒不至.” 흥미로운 점은 『문헌통고』 고구려 항에서는 이 사건을 서술하면서 洪彝敘의 이름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즉 馬端臨은 소흥 2년의 사건을 인용할 때에는 인명을 생략했다가, 후에 융흥 2년의 기사를 인용할 때에는 그대로 실었던 것이다. 『문헌통고』 고구려 항만 읽는 독자는 “彝敘之詐”라는 구절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고 서북쪽으로는 거란·여진·흑수(黑水)와 접한다. 왕건(王建)이 신라·백제의 땅을 병합하고서 이때에 이르기까지 170여 년이다. 왕은 촉막군(蜀莫郡)에 사는데 개주(開州)라고 하며 개성부(開城府)라고 칭하였다. … 흑산(黑山)에서 섬을 따라 들어가면 순풍을 따라 가면 7일이면 경구(京口)에 이르고, 육지로 2개 역을 가면 개주에 이른다.【주본(朱本)과 묵본(墨本)이 모두 동일하다. 정사(正史) 고려전에 실린 지리(地理)는 실록과 같지 않아 따져 보아야 한다.】⁶⁹

『장편』은 고려 문종의 사망 소식을 확인한 날짜의 기사에 문종의 재위가 36년이었다고 언급하였다.⁷⁰ 그 뒤로 고려의 위치와 지리, 관제와 풍속 등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기사를 실었는데, 이는 마치 실록에서 고위 관료가 사망한 날짜에 그의 졸기를 신는 것과 비슷한 형식이었다. 이 기사의 주석에서 『장편』의 저자 이도는 주본, 즉 소성 연간의 중수본 『신종실록』과 묵본, 즉 원우 연간 완성된 초수본 『신종실록』에 고려에 관한 일반 정보가 동일하게 실려 있으나, 정사, 즉 훗날 『사조국사』의 바탕이 되었던 『신종정사』의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⁷¹ 아쉽게도 이도가 실록과 정사 가운데 어느 쪽 기록을 인용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된다.

위에서 인용한 고려에 대한 박물지적인 정보는 『송사』 고려전과 『문헌통고』 고구려에도 유사하게 실려 있는데, 두 자료의 내용은 거의 일치하나 『장편』의

69 『長編』 권339, 元豐 6년 9월 庚戌, “詔, ‘高麗國王王徽卒, 令明州就本州或定海縣擇廣大僧寺, 以僧三十七人作道場一月, 罷散前夕, 作水陸一會.’ 徽立凡三十六年, 其境東南臨海, 西北接契丹、女真、黑水, 自王建並新羅、百濟之地, 至此蓋百七十餘年. 王居蜀莫郡, 曰開州, 號開城府. … 自黑山入島嶼, 安行便風, 七日至京口, 陸行兩駟至開州. 【朱、墨本並同, 正史高麗傳所載地里, 與實錄並不同, 當考.】”

70 실제 고려 문종의 재위 기간은 1046년부터 1083년까지로 38년이다. 『송사』 고려전과 『문헌통고』 고구려 항은 모두 38년으로 기록하였다.

71 『神宗正史』의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蔡崇榜, 1991, 앞의 책, 126~128쪽 참조.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예컨대 평양에 대하여 『장편』에서는 “平壤曰鎭州, 爲西京.”이라고 하였고, 『송사』 고려전에서는 “平壤爲鎭州, 號西京.”이라고 하였다. 고려의 과거 제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장편』에서 말한 “蠟八兩”과 『송사』 고려전의 “簾前重試”는 다른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양자의 사원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는 실록, 다른 하나는 자연히 정사를 인용한 것이 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송사』 고려전과 『문헌통고』 고구려에서 해당 기사를 실은 위치이다. 전자는 고려전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 기사를 배치했는데, 『문헌통고』 고구려 항에서는 흠종까지의 내용을 서술한 후에 이 부분을 기록하고, 다시 고종 즉위 이후의 기사로 넘어간다. 이는 해당 기사가 애초에 신종부터 흠종까지의 치세를 다룬 『사조국사』에 실려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문헌통고』의 저자 마단림(馬端臨)은 『사조국사』를 바탕으로 신종부터 흠종까지의 연대기적 기사를 옮겨 적고 박물지 내용까지를 모두 그대로 옮긴 후, 이어서 고종 이후의 일을 『중흥사조국사』를 인용하여 서술하였던 것이다. 반면 『송사』 고려전의 편찬자는 이러한 구성이 조금 어색하다고 판단하여 흠종 다음에 곧바로 고종 대의 사실을 기록하고, 박물지 내용은 맨 뒤로 위치를 옮겼던 것이다. 그렇다면 『송사』 고려전과 『문헌통고』 고구려는 『사조국사』,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바탕이 되었던 『신종정사』를 인용하였던 것이며, 자연스럽게 이도는 『장편』을 서술하면서 『신종정사』보다는 『신종실록』의 정보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²

72 『神宗實錄』과 『四朝國史』에 고려에 관한 정보가 다르게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神宗實錄』의 朱本, 즉 重修本이 완성된 소성 3년(1096)과 『四朝國史』가 완성된 淳熙 13년(1186) 사이에 고려에 대한 기본 정보가 송 측에 유입된 경로로는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을 떠올릴 수 있다. 실제로 『장편』의 위 기사에는 없고, 『송사』 고려전에만 있는 고려에 대한 일반 정보 가운데 상당 부분은 『高麗圖經』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고려의 지방행정 구역을 “三京, 四府, 八牧, 郡百有十八, 縣鎭三百九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 등은 『고려도경』 권3의 郡邑을 참조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송사』 고려전은 송의 역대 국사 고려전을 거의 그대로 옮기는 정도로 작성된 까닭에, 현재 『송사』 고려전의 내용은 1345년의 편찬 무렵, 원 대 찬자의 특별한 의도나 관심이 반영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맨 마지막, 고려에 대한 박물지적인 일반 정보를 실는 첫머리에서 언급한 소식의 견해, 즉 “옛날 소식이 선조(先朝) 때에 말한바, 고려가 조공을 바치는 데에는 다섯 가지 손해가 있다고 한 것이 이 때문이다”라는 서술도 『문헌통고』에 그대로 보이는 것을 보면,⁷³ 이 역시 『송사』 편찬 단계가 아니라 그에 앞선 국사 고려전의 서술을 그대로 살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송사』 고려전의 편찬자가 국사 고려전을 인용하며 주체성을 발휘한 부분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바) 원우 4년(1089), 그 왕자 의천(義天)이 승려 수개(壽介)로 하여금 항주(杭州)에 와서 죽은 승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국모(國母)가 2개의 금탑(金

최근 김난옥은 『송사』 고려전이나 『문헌통고』, 『장편』 등이 『고려도경』의 내용을 인용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김난옥, 2019, 「중국 문헌의 『高麗圖經』 ‘인용’ 양상과 고려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6). 경청할 만한 의견이지만, 馬端臨이나 李燾, 독도를 필두로 한 『송사』의 편찬자들이 『고려도경』을 직접 인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徐兢의 보고서는 아마도 『四朝國史』 고려전에 포함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재차 인용되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남아 있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일찍이 顧宏義는 『송사』 고려전에 등장하는 고려에 관한 그릇된 정보, 특히 고려 초기 왕위 계승에 대한 정보 오류가 『宣和奉使高麗圖經』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추측하였고(顧宏義, 2007, 앞의 글, 126~127쪽), 최근 김난옥도 비슷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김난옥, 2019, 위의 글, 177~179쪽).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徐兢은 이러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李燾나 馬端臨은 물론, 서경도 고려에 대한 기본 정보를 國史 고려전에 서 얻어, 그 오류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닐까 한다.

- 73 『송사』 고려전, “昔蘇軾言于先朝, 謂高麗入貢有五害, 以此也.”; 『문헌통고』 고구려, “蘇軾言於先朝, 謂高麗入貢有五害, 以此也.” 두 자료 모두 이 언급에 바로 이어서, “생각하건대 吳會에 國都를 정한 후부터는 사정이 東都 때와 같지 않다[惟是國於吳會, 事異東都.]”고 한 것을 보면 이 구절은 南宋 이후에 편찬된 자료, 즉 『中興四朝國史』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塔)을 가지고 가서 양궁(兩宮)의 장수를 빌게 하였다고 했다. 지주(知州) 소식
이 상주하여 이를 물리쳤다. 그 이야기는 소식의 열전에 실려 있다.⁷⁴

이 기사는 다른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문헌통고』 고구려 항에 정확히 같은
자구로 실려 있는데, 맨 마지막의 “그 이야기는 소식의 열전에 실려 있다[語在
軾傳]”는 네 글자는 『송사』 고려전에만 보인다. 『문헌통고』에는 소식의 열전이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장편』에는 이 사실에 대해 훨씬 상세한 정보,
특히 소식의 상주 내용을 상세하게 실은 후 주석에서 “이는 소식의 묘지에 근거
하였고, 또 소식의 주장(奏狀)을 취하여 조금 더해서 실었다.”라고 하였다.⁷⁵ 이
도가 말한 소식의 주장이란 『소식문집(蘇軾文集)』 권30에 실린 〈논고려진봉장
(論高麗進奉狀)〉을 가리킨다.⁷⁶ 『장편』이 완성된 건도(乾道) 4년(1168)은 『사조
국사』가 완성된 순희 13년(1186)보다 약 20년 전이었으므로, 이도는 국사의 소
식 열전이 아니라 소식의 묘지나 문집과 같은 원형에 더 가까운 자료를 직접 인
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조국사』에도 분명 소식의 열전이 있었을 것이다. 『장편』을 지은
이도가 이 국사의 편찬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이었음을 생각하면, 『장편』에서 상세
히 소개한 소식의 이 주장은 국사의 소식 열전에도 요약 형태로나마 소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송사』 열전의 대부분이 역대 국사 열전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다는 기존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면,⁷⁷ 현재의 『송사』 권338의 소식 열전
은 『사조국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語在軾傳”
네 글자 또한 애초에 『사조국사』의 고려전에 있던 구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74 『송사』 고려전, “元祐四年, 其王子義天使僧壽介至杭州祭亡僧, 言國母使持二
金塔爲兩宮壽, 知州蘇軾奏却之, 語在軾傳.”

75 『장편』 권235, 元祐 4년(1089) 11월 甲午, “【此據軾墓志, 仍取軾奏狀稍增入之.】”

76 이 문서의 해석은 李瑾明, 2015, 「蘇軾 高麗 관련 논설의 譯註(1)」, 『中國史研
究』 97, 403~410쪽 참조.

77 周藤吉之, 1969a, 앞의 글, 539~563쪽.

『송사』 고려전의 맨 마지막 연대기적 서술은 경원 연간(1195~1200)의 일이며,⁷⁸ 이 바로 앞 서술은 라-2)에서 인용한 융흥 2년(1164)의 일이다. 그 기사는 “그 후 사명(使命)이 드디어 끊어졌다”라고 명시하였다.⁷⁹ 한편 『문헌통고』 고구려 항에서는 이 구절을 “효종·광종·영종(寧宗) 3조(朝)를 거치면서 사명이 드디어 끊어졌다”라고 표현하였다.⁸⁰ 실제로 『고려사』 세가에서도 의종(毅宗) 18년(1164)에 고려에서 사신 조동희(趙冬曦) 등을 파견하였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⁸¹ 양국의 공식적인 사신 왕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⁸² 그러나 그 이후로도 국초 이래의 송상(宋商)의 왕래는 단절되지 않았다.⁸³ 특히 남송의 보경(寶慶) 연간(1225~1227)에 편찬된 명주의 지방지인 『보경사명지(寶慶四明志)』에서는, “본부(本府)는 그 나라 예빈성과 문첩(文牒)으로 서로 교류한다”라고 언급하였다.⁸⁴ 13세기 이후로도 송의 명주와 고려 예빈성 사이에서 첩(牒)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관계는 남송의 거의 마지막 시점인 이종 개경(開慶) 원년(1259)까지도 지속되었음이 『개경사명속지(開慶四明續志)』에 수록된 〈수자여국송환인(收刺麗國送還人)〉이라는 문서에서도 확인된다.⁸⁵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송사』 고려전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 사

78 『송사』 고려전, “慶元間, 詔禁商人持銅錢入高麗, 蓋絕之也.”

79 『송사』 고려전, “隆興二年四月, 明州言高麗入貢. 史不書引見日, 恐同彝敘之詐. 其後使命遂絕.”

80 『문헌통고』 고구려, “歷孝光寧三朝, 使命遂絕.”

81 『고려사』 권18, 의종 18년 3월 壬寅.

82 남송 이후의 양국 교섭에 대해서는 정동훈, 2016, 「고려-남송 외교 관계에서 商人의 역할」, 『동서인문학』 51 참조.

83 李鎮漢, 2009,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 景仁文化社.

84 『寶慶四明志』 권6, 市舶, “本府與其禮賓省, 以文牒相酬酢.” 張東翼, 2000,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출판부, 118쪽에서 재인용.

85 『開慶四明續志』 권8, 〈收刺麗國送還人〉. 이 문서에 대해서는 黃時鑒, 1997, 「宋-高麗-蒙古關係史에 관한 일고찰-〈收刺麗國送還人〉에 대하여-」, 『東方學志』 95; 張東翼, 1997, 「宋代的 明州 地方志에 수록된 高麗關係記事 研究」, 『歷史教育論集』 22; 李善洪, 2006, 「〈高麗國對南宋牒〉 研究」, 『北華大學學

안이 『송사』 고려전의 마지막 사원이 되었던 『중흥사조국사』가 다루고 있는 영종 대(1194~1224), 그리고 이 책이 편찬된 1242년 이후에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⁸⁶

IV. 『송사』 고려전의 서사 구조

마지막으로 『송사』 고려전에 담긴 고려에 대한 인식의 단편을 살펴보자. 『송사』 고려전은 사실 송의 역대 국사 고려전을 그대로 옮겨 작성되었으므로, 원 대에 『송사』를 편찬한 이들의 특수한 관점이나 인식을 담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송 대 국사 편찬자들의 인식을 살필 수 있다.

우선 태조·태종·진종 때의 일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서 서술된 핵심적인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옹희 3년(986), 송에서 고려에 한국화(韓國華)를 파견하여 거란에 맞선 동맹을 제의하자 고려가 승낙하였다. 그러나 정작 실행 단계에서 고려는 송의 요청을 묵살하였다. 8년 후인 순화(淳化) 5년(994), 이번에는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당하여 원병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송이 거절하자 고려는 곧바로 조공을 중단하였다. 함평(咸平) 6년(1003), 고려가 재차 거란을 견제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송이 다시 거절하였다. 1010년대에 고려는 거란과 전쟁을 겪은 후 천희 5년(1021)에는 거란과 수호(修好)를 맺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후 인종 때의 일로, 천성(天聖) 8년(1030) 이후 송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다. 요컨대 거란이라는 강적에 맞서 송과 고려가 군사적 제휴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양국이 처한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번번이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報』(社會科學版) 7-5; 정동훈, 2022, 『고려시대 외교문서 연구』, 혜안, 164~167쪽 등을 참조.

86 顧宏義, 2007, 앞의 글, 124쪽.

물론 실제 사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러한 서사는 『삼조국사』를 편찬했던 1030년 당시 송이 지난 60년(960~1022)가량의 고려와의 관계를 어떻게 요약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송 인종 때에는 거란과 맺은 전연(澶淵)의 맹(盟)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시기이다. 당시 송은 고려와 거란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초를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려와의 통교 중단 상황을 타개할 만한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⁸⁷ 말하자면 현상 유지를 위한 현실주의적 외교책을 발휘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몇 차례 도모했던 고려와의 전략적 동맹은 결국 실패로 끝났으며, 이는 고려의 반복무상함 탓이었다는 서사 구도를 중심으로 고려를 묘사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리는 굳이 그것을 재차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당시의 판단에 경험적·역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인종과 영종의 재위 기간(1022~1067)에는 실제로 양국 관계가 거의 단절되었으므로 그 시대를 다룬 『양조국사』 고려전에는 『삼조국사』 이후 특별히 추가할 만한 기사가 없었을 것이다.

신종에서 흠종의 재위 기간(1067~1217)에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서술된 것은 신종 대에 고려와의 통교를 재개한 일이었다. 다양한 사건과 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논의가 있었겠으나, 『송사』 고려전에서 가장 힘주어 구성한 서사는 황제가 그들에게 후왕박래(厚往薄來)의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 그리고 고려와의 통교가 중앙과 지방에 많은 폐해를 끼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철종 때에는 “고려가 들어와 조공하는 것이 터럭만큼의 이익도 없고 다섯 가지 손해만 있다”는 소식의 주장을 두 번이나 인용하였다.

이처럼 고려와의 통교를 바라보는 뼈막한 시선은 해당 시기를 다룬 『사조국

87 이 무렵 거란이 송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를 정벌하는 데 군사를 빌려줄 것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재상이었던 呂夷簡이 극력 반대하여 실현되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朱熹, 『五朝名臣言行錄』 6-1, 〈丞相許國呂文靖公〉, 張東翼, 2000, 앞의 책, 185~186쪽에서 재인용). 呂夷簡은 『三朝國史』의 편찬 책임자이기도 하였다.

사』 고려전의 기본 관점이 그대로 실린 것이었다. 신종 때 신법당의 대외 정책은 고려와 연계하여 거란을 견제한다는 기조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구법당은 줄기차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⁸⁸ 그리고 남송 때 『사조국사』의 편찬자들은 신종 대의 정치에 대해 대체로 구법당의 관점에 따라 서술하였다고 한다.⁸⁹ 『사조국사』의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도가 『장편』에서 소식과 소철(蘇轍)이 올린 고려와의 통교 반대 상소를 비롯해 적극적인 대외정책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주장을 상세히 인용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고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남송 대의 사안을 다룬 『송사』 고려전, 그리고 그 부분의 사원이었던 『중흥사조국사』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거기서는 고종 대 초반에 송을 찾은 고려의 사신들을, 그들이 금을 위해 염탐할 것이라는 혐의를 품고 박대하였던 일이나, 고려에 길을 빌려 휘종과 흠종과 소식을 통하고자 했으나 고려국왕, 즉 인종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였다는 일화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당시 남송 조정에서 고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공분을 일으켜, 우복야(右僕射) 황잠선(黃潛善)은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를 공격하자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했음을 특기하였다. 독자에게 고려의 배은망덕함을 인상깊게 전달하기 좋은 소재들을 중심으로 배치하였던 것이다. 『중흥사조국사』가 완성된 1242년 무렵은 이미 양국의 공식적인 왕래가 100년 이상 중단된 채 몽골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가해지던 때였다. 송 조정이나 사서의 집필자들이 고려에게 느꼈을 법한 실망감, 배신감 등이 고스란히 드러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송의 역대 국사는 각각을 편찬한 시점에 편찬자들이 고려에 대해 품었던 인상, 감정을 전제로 깔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사를 담고 있었다. 이것이 『송사』 고려전에도 고스란히 계승되었던 것이다.

88 申泰光, 2002, 「北宋 變法期の 對高麗政策」, 『東國史學』 37; 李瑾明, 2015, 앞의 글.

89 蔡崇榜, 1991, 앞의 책, 137쪽.

V. 맺음말

이 글은 『송사』 고려전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쓰였는지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밝히기 위해 송 대의 여러 사서의 편찬 과정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송사』 고려전의 직접적인 사원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소 복잡한 논증을 거쳤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송은 정치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안을 기록하고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 여러 단계의 사서를 편찬하였다. 황제의 언동을 중심으로 기록한 기거주, 중서성과 추밀원 재신들의 업무 관련 일지인 시정기와 비망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일기,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날짜순으로 중요 사안을 배치한 일력,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한 황제의 재위가 마무리된 이후 편찬된 실록, 몇몇 황제 대를 다시 묶어서 편찬한 국사 등이 그것이다. 고려와 관련된 사건들은 기거주부터 실록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발생한 날의 기사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태조·태종·진종의 『삼조국사』, 인종·영종(英宗)의 『양조국사』, 신종·철종·휘종·흠종의 『사조국사』, 고종·효종·광종·영종(寧宗)의 『중흥사조국사』는 각각 고려전을 서술하여 고려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주요 사안을 정리해서 서술하였다. 『송사』 고려전은 바로 이 송의 역대 국사 고려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는 식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송사』 고려전에 반영된 고려에 대한 시각과 인식은 역대 국사 편찬자들이 그때그때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송사』 고려전과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통고』 사예고(四裔考)의 고려 항을 집필한 마단림은 그 말미에 고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생각하건대 고려가 중조(中朝)를 신하로서 섬긴 것은 중화의 풍속을 흠모하여 해마다 내리는 사여(賜與)를 이롭게 여겼기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중국이 고려를 불러들인 것은 먼 곳 사람들을 회유함으로써 태평한 것으로 꾸미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국운이 꼭 막히게 되고 강한 오랑캐가 안으로 침범하였으니, 빙문

(聘問)하는 일은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찮은 섬 오랑캐가 옛날에는 대개 요(遼)를 섬기는 것으로 스스로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강퍽한 자들(금: 역자)은 이미 요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였고 또 중화를 아금야금 잠식하여 신경(神京, 개봉: 역자)을 뒤엎었는데, 고려가 그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양응침[楊應忱, 『송사』 고려전의 양응성(楊應誠: 역자)의 사행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주(朱) 승상(朱勝非: 역자)이 말하기를, “저들은 금과 이웃하고 있고 중국과는 바다를 사이에 끼고 있어 멀고 가까움, 이익과 손해가 매우 분명합니다. 과거에 그들을 매우 후하게 대우하였다고 해서 이제 와서 어떻게 보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진실로 타당합니다.⁹⁰

마단림은 정강(靖康)의 변(變) 직후 남송 조정에서, 금에 잡혀 간 두 황제의 안부를 묻기 위해 고려에 길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양응침(楊應忱), 즉 양응성(楊應誠)을 파견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과거에 후대했다고 해서 어찌 그 보답을 요구하겠는가?”라는 재상 주승비(朱勝非)의 말이 타당하다고 평하였다. “멀고 가까움, 이익과 손해가 분명”하므로 고려가 송의 편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현실주의적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사평(史評)의 첫 문장에서는 “고려가 중조를 신하로서 섬긴 것은 중화의 풍속을 흠모하여 해마다 내리는 사여를 이롭게 여겼기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다분히 냉소적으로 단정하였다. 마단림은 고려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알미운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를 숨기지 않았던 것이다.

90 『문헌통고』 고구려, “按, 高麗之臣事中朝也, 蓋欲慕華風而利歲賜耳. 中國之招來高麗也, 蓋欲柔遠人以飾太平耳. 國運中否, 強胡內侵, 則聘問之事可以已矣. 曩爾島夷, 昔日蓋臣遼以自存者也. 今之強暴, 既滅遼而有之, 且薦食中華, 傾覆神京矣, 而謂高麗能御之邪. 然則楊應忱之行, 甚無謂也. … 朱丞相言, ‘彼與金爲鄰, 與中國隔海, 遠近利害甚明, 此乃曩時待之太厚, 今安能責報.’ 此語固得之.”

한국의 현대의 연구자들 역시 고려의 대송(對宋) 외교를 평가하여 ‘실리외교’였다고 입을 모은다.⁹¹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의 연구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⁹² 한국사의 입장에서라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거란-금, 그리고 훗날 몽골제국과 군신관계를 맺고 그들의 정삭을 받들면서도,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송과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던 고려의 외교를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당시 송의 당국자들, 지식인들의 눈에 송과의 관계에서 실리는 실리대로 챙겨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와주지 않는 고려가 어떻게 보였을지 생각해보자. 터럭만큼의 이익도 없고 다섯 가지 손해만 있다는 소식의 역설이나, 금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주지 않았다 하여 수만의 군사를 동원해 고려를 정벌하자는 황잡선의 주장도 심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고려가 송을 상대로 ‘실리외교’를 펼쳤다는 공통적인 평가는, 그것을 뼈뼉하게 바라보았던 『송사』 고려전, 그리고 그 사원이 되었던 송의 역대 국사 고려전 편찬자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91 최근의 종합적인 견해로 이진한, 2018, 「송과의 외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려편),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92 대표적으로 楊渭生, 1997, 『宋麗關係史研究』, 杭州: 杭州大學出版社.

참고문헌

사료

- 『高麗史』.
- 『宋史』(脫脫 等 撰,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85).
- 『宋太宗實錄』[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
- 『續資治通鑑長編』(李燾 著, 黃以周 等 輯補, 『續資治通鑑長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 『建炎以來繫年要錄』(李心傳 撰, 王雲五 主編, 『建炎以來繫年要錄』, 上海: 商務印書館, 1936).
- 『文獻通考』(馬端臨 撰, 『文獻通考』, 北京: 中華書局, 1986).
- 『宋會要輯稿』(徐松 輯, 『宋會要輯稿』, 北京: 中華書局, 1957).

단행본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0, 『選譯 續資治通鑑長編-사료로 본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2018,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려편), 동북아역사재단.
- 이계명, 2014, 『(개정판)中國史學史要綱』, 전남대학교출판부.
- 李鎭漢, 2009,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 景仁文化社.
- 張東翼, 2000,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동훈, 2022, 『고려시대 외교문서 연구』, 혜안.
- 郭武雄, 1987, 『五代史料探源』,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 邱靖嘉, 2017, 『《金史》纂修考』, 中華書局.
- 苗潤博, 2020, 『《遼史》探源』, 北京: 中華書局.
- 裴汝誠·許沛藻, 1985, 『續資治通鑑長編考略』, 北京: 中華書局.
- 楊渭生, 1997, 『宋麗關係史研究』, 杭州: 杭州大學出版社.

王盛恩, 2008, 『宋代官方史學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陳智超, 1995, 『解開《宋會要》之謎』,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陳曉偉, 2022, 『《金史》叢考』, 北京: 中華書局.
 蔡崇榜, 1991, 『宋代修史制度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Hartman, Charles, 2020, *Making of Song Dynasty History: Sources and Narratives, 960-1279 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

- 김남옥, 2019, 「중국 문헌의 『高麗圖經』 ‘인용’ 양상과 고려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6.
- 金陽燮, 1989, 「遼·金·宋 三史編纂에 대하여」, 『中央史論』 6.
- 申泰光, 2002, 「北宋 變法期の對高麗政策」, 『東國史學』 37.
- 이개석, 2007, 「정통론과 13-14세기 동아시아 역사서술」, 『大丘史學』 88.
- 李瑾明, 2015, 「蘇軾 高麗 관련 논설의 譯註(1)」, 『中國史研究』 97.
- , 2017, 「蘇軾 高麗 관련 논설의 譯註(3)」, 『中國史研究』 107.
- 李善洪, 2006, 「〈高麗國對南宋牒〉研究」,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7-5.
- 張東翼, 1997, 「宋代的 明州 地方志에 수록된 高麗關係記事 研究」, 『歷史教育論集』 22.
- 정동훈, 2016, 「고려-남송 외교 관계에서 商人의 역할」, 『동서인문학』 51.
- , 2023a, 「『遼史』 高麗傳의 史源」, 『東洋史學研究』 163.
- , 2023b, 「『金史』 高麗傳의 史源」, 『史林』 85.
- 黃時鑒, 1997, 「宋-高麗-蒙古關係史에 관한 일고찰-〈收刺麗國送還人〉에 대하여-」, 『東方學志』 95.
- 葛兆光, 1982, 「宋官修國史考」, 『史學史研究』 1982年 第1期.
- 顧宏義, 2007, 「《宋史·高麗傳》史源考」, 『中國邊疆史地研究』 17-4.
- 孫昊, 2016, 「《宋史·高麗傳》契丹伐高麗事辨正」, 『中國史研究』 2016年 第3期.
- , 2019, 「宋官方對高麗信息的獲取及認知-從宋會要高麗門的的佚文線索說起-」, 『文史』 128.

- 燕永成, 1996, 「《續資治通鑑長編·神宗朝》取材考」, 『史學史研究』 1996年 第1期.
- 林健, 2020, 「《宋史·蠻夷傳》史料來源及其體例產生原因」, 『中南民族大學學報』
人文社會科學版, 40-4.
- 錢建狀, 2014, 「《宋史·文苑傳》的史料來源與史料價值」, 『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
科學版)』, 224.
- 黃漢超, 1966, 「宋神宗實錄前後改修之分析」上·下, 『新亞學報』 7-1·2.
- 近藤一成, 1984, 「「洛蜀黨議」と哲宗實錄」, 早稻田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 編,
『中國正史の基礎的研究』,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 周藤吉之, 1969a, 「宋朝の國史編纂と國史列傳-「宋史」との關聯に於いて-」, 『宋代
史研究』, 東京: 東洋文庫.
- _____, 1969b, 「宋朝國史の食貨志と「宋史」食貨志との關係」, 『宋代史研究』, 東
京: 東洋文庫.
- _____, 1969c, 「南宋の李燾と「續資治通鑑長編」の成立」, 『宋代史研究』, 東京:
東洋文庫.
- 平田茂樹, 2012a, 「宋代の政治史料-「時政記」と「日記」-」, 『宋代政治機構研究』,
東京: 汲古書院.
- _____, 2012b, 「宋代の政策決定システム-對と議-」, 『宋代政治機構研究』, 東
京: 汲古書院.
- Hok-Lam Chan, 1981, "Chinese Official Historyography at the Yüan Court: The
Composition of the Liao, Chin, and Sung Histories," In John D. Langlois, Jr.
(ed.), *China under Mongol Rul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송사(宋史)』 고려전(高麗傳)의 사원(史源)

정동훈

송은 정치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안을 기록하고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 여러 단계의 역사서를 편찬하였는데, 기거주(起居注), 시정기(時政記), 일력(日曆), 실록(實錄)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송은 기전체(紀傳體)의 역사서인 국사(國史)를 총 네 차례에 걸쳐 편찬하였는데, 여기에는 고려 열전이 실려 있었다. 『송사』 고려전은 역대 국사 고려전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는 『문헌통고(文獻通考)』 고구려 항목의 송 대 부분 서술과 『송사』 고려전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송사』 고려전에 반영된 고려에 대한 시각과 인식은 송의 역대 국사 편찬자들의 관점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그런데 송의 역대 국사는 주로 고려와의 통교에 반대했던 구법당(舊法黨) 계열 인사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송사』 고려전은 주로 고려가 거란이나 금에 대해 연합을 제의했던 송에게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던 일, 고려와의 통교 때문에 송이 겪었던 폐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즉 전반적인 서술에 고려에 대한 부정적 묘사와 비평의 관점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고려의 송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현대의 연구는 대체로 고려의 외교가 ‘실리

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어쩌면 『송사』 고려전에 담긴, 고려의 실리 추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송의 역사학자들의 평가를 뒤집어 수용한 것인지도 모른다.

주제어: 『송사(宋史)』 고려전(高麗傳), 국사(國史), 『문헌통고(文獻通考)』, 사원(史源), 역사 편찬

The Historical Source of the Goryeo Section of the *History of Song*

Jung Donghun

The Song Dynasty undertook the meticulous compilation of multilayered historical records, encompassing a comprehensive account of political developments and the systematic organization of associated documents. This compilation comprised various categories, including *Diaries* (日曆), *Memoirs* (備忘錄), *Monthly Political Reports* (時政記), and *Veritable Records* (實錄).

Furthermore, the Song Dynasty produced a series of four *National Histories* (國史), complete with chronicles and biographical content, and sequentially compiled sections within these historical volumes to describe their diplomatic interactions with the neighboring Goryeo dynasty. Notably, the Goryeo section in the *History of Song* corresponds extensively with the Goryeo segment in the *National Histories*. This alignment is substantiated by the remarkable congruence between the Goryeo entries found in encyclopedias

contemporaneously compiled.

Consequently, the Goryeo section within the *History of Song* predominantly mirrors th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interpretations of Goryeo as perceived by Song Dynasty historians. However, the Song Dynasty's historical account of Goryeo is widely regarded as a representation of the viewpoints held by conservatives who opposed diplomatic and trade relations with Goryeo. As a result, the Goryeo section in the *History of Song* primarily emphasizes Goryeo's uncooperative stance towards the Song Dynasty, particularly concerning the proposal for a coalition against the Khitan Empire and Jin Dynasties. It highlights the challenges and difficulties that the Song Dynasty faced in its interactions with Goryeo. In essence, the overarching narrative adopts a critical and negative portrayal of Goryeo, emphasizing its perceived hindrance to Song Dynasty interests.

Contemporary analyses of Goryeo's diplomatic interactions with the Song Dynasty typically portray Goryeo's diplomacy as 'pragmatic.' This assessment can be seen as a departure from and an acknowledgment of the Song historians' critical appraisal of Goryeo's pragmatic approach, as documented in the Goryeo section of the *History of Song*.

Keywords: the Goryeo Section of the *History of Song*, *National History*,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Literature*, historical source, history compilation

근대 초기 서양인들의 일본 인종론과 그 영향에 대한 시론

— 일본 주재 독일 의사들의 연구와 메이지시대 초기
번역서를 중심으로

박해운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

- I. 들어가며
- II. 데지마의 독일인 의사들이 판단한 일본인의 기원과 신체적인 특징
- III. 메이지 정부 출범 직후 일본 번역물에 반영된 서구 중심의 인종관
- IV. 뤼네츠와 벨츠가 제시한 일본인의 신체적 특징
- V. 나오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들어가며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가 설립한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서 수학했던 『시사신보(時事新報)』 기자 다카하시 요시오(高橋義雄, 1861~1937)는 1884년 출간한 『일본인종개량론(日本人種改良論)』에서 일본인이 서구인에 비해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양인과의 결혼을 통해 훌륭한 후손을 남겨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혼혈인에 의한 일본 인종의 개량이라는 다카하시의 주장은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서양 중심의 인종관이 반영된 것이었다.

메이지시대 초기 서구인들이 주장했던 위계적 인종관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일본에 소개되었다. 첫째, 후쿠자와의 『세계국진(世界國盡)』으로 대표되는 계몽론자들이 서구에서 출판된 지리서를 번역한 서적에는 블루멘바흐(Johann Friedrich Blumenbach, 1752~1840)와 퀴비에(Georges Cuvier, 1769~1832) 등이 고안한 인종 간의 등급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둘째, 당시 일본에 주재했던 서양, 특히 독일 의사들은 일본인의 신체적 특징을 측정 후 일본인과 서양인을 비교하여 일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열등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다카하시가 후쿠자와의 제자라는 점과 도쿄대학 의학부 교수인 독일인 의사 벨츠(Erwin Baelz, 1849~1913)가 1883년에 발표한 「일본인의 체질적 특징(Die Koerperlichen Eigenschaften der Japaner)」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했음에 주목해야 한다.¹

벨츠는 일본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서양인에 비해 열등하며 일본인의 조상은 중국과 한반도에서 이주한 몽골인(Mongolen)과 중국 남부를 거쳐 이주한

* 투고: 2023년 10월 10일, 심사 완료: 2023년 11월 9일, 게재 확정: 2023년 11월 17일

1 高橋義雄, 1884, 『日本人種改良論』, 東京: 石川半次郎, 102~103쪽.

말레이인(Malyen)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일본인의 상류층은 주로 전자의 신체적인 특징을 지니며 하층민은 후자의 신체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벨츠의 생각은 그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에도시대부터 일본에 주재했던 캠퍼(Englebert Kaempfer, 1651~1716), 지볼트(Phillip Franz von Siebold, 1796~1866), 도니츠(Friedrich Karl Wilhelm Doenitz, 1838~1912)가 제시한 일본인의 혼혈인종론을 당시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있던 인체측정학(anthropometry)을 통해 인종주의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8세기 말 서양 의사들은 피부색, 모발의 형태, 신장과 같은 신체적인 특징을 측정하는 인체측정학의 방법론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들은 두개골의 형태가 인종 간의 신체적·정신적인 차이를 결정한다고 판단하였다. 18세기 말 네덜란드의 해부학자 캠퍼(Petrus Camper 1722~1789)는 안면각(facial angle) 이론을 고안하였다. 그는 안면각이 80도를 넘는 고대 그리스인을 미적으로 완벽한 존재로 설정했으며 오랑우탄의 안면각인 58도에 가까운 흑인을 열등한 존재로 분류하였다.² 비슷한 시기 독일인 의사 블루멘바흐는 호모 사피엔스를 피부색과 두개골의 특징에 따라 5개 인종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인종의 단일기원론(monogenism)을 바탕으로 아담과 이브가 코카서스산맥으로 내려왔다고 판단하고, 코카서스인(Caucasian, 백색)이 모든 인간의 공통 조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인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종이 분화됐는데, 몽골인(Mongolian, 황색)과 에티오피아인(Ethiopian, 흑색)은 코카서스인에서 분화되었으며 말레이인(Malayan, 갈색)과 아메리카인(American, 붉은색)은 몽골인에서 다시 파생되었다고 제시하였다.³

2 P. Camper, 1821(1791), translated by T. Cogan, *The Work of the Late Professor Camper,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Science of Amatory, and the Arts of Drawing, Painting, Satuary & c.*, London: C. Dille, pp. 36~44, pp. 81~83.

3 T. Bendyshe(ed.), 1865, *The Anthropological Treatises of Blumenbach and*

1842년 스웨덴의 해부학자 레지우스(Anders Retzius, 1796~1860)는 두개 계수(頭蓋係數, cephalic index)에 따라 두개골의 형태를 장두형(dolichocephalic)과 단두형(brachycephalic)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장두형은 골인, 켈트인, 게르만인, 스칸디나비아인 등과 같은 유럽인의 특징이고, 단두형은 슬라브인, 핀란드인, 몽골인, 말레이인의 주요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⁴ 19세기 중반 이후 인체측정학과 두개계측법(craniometry)에 기반한 체질인류학은 우생학과 결합하여 인종 간의 우열뿐만 아니라 같은 인종에 속한 사람들의 계급, 신분, 직업에 따른 신체적 특징과 범죄 성향 등을 판단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백인 중심의 인종관, 특히 블루멘바흐의 인종 분류는 메이지시대 초기 번역서를 통해 급속히 일본 사회에 확산되어갔으며 인체측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역시 1874년 『백과전서(百科全書)』의 「인종편(人種篇)」이 출간되면서 일본의 지식인들은 일본인이 서양인보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약한 존재임을 소위 과학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인의 신체를 직접 측정할 벨츠가 제시한 일본 인종의 기원과 혼혈, 그리고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인종 간 우열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현재 일본 인종주의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쿄인류학회(東京人類學會)의 창시자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 1863~1913)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쓰보이의 인종론은 한편으로는 「인종편(人種篇)」,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물학자인 모스(Edward Morse, 1838~1925)와 영국의 지질학자인 밀른(John Milne, 1850~1913)이 소개한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진화론에 기반하고 있었다.⁵ 실제 당대 일본 사회에 더 큰 영향을 준 서양 학자는 벨츠였다. 하지만 국내에 되니츠와 벨츠가 제시한 유형론은 오구마 에이지

Hunter, London: Longman, Green, Longman, Roberts, & Green, p. 312.

4 N. Grindle, 1997, "Our own imperfect knowledge: Petrus Camper and the search from an "ideal form"", *RES: Anthropology and Aesthetics*, 31.

5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해운, 2023, 「모스 대 밀른 - 일본 최초의 고고학 조사와 일본 인종 논쟁의 서막 -」, 『사립』 84 참조.

의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에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이것들이 ‘과학적’ 일본민족론의 전부였다. 구미 인류학의 맥락을 답습한 일본민족론을 일본인 자신이 전개한 것은 1880년대의 반을 지나면서부터였다”라고 소개된 것이 거의 전부이다.⁶ 그리고 그 또한 그 반발을 쓰보이와 도쿄인류학회 회원들이 벌인 ‘코로폭쿠루(コロポックル, koropokkuru)’ 논쟁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당시 구미 인류학, 특히 벨츠가 제시한 인종주의적 체질인류학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메이지시대 초기 지리서에 대한 연구 역시 일본인이 바라본 세계의 인종, 정치체, 풍물 등에 대해 접근하고 있지만 그 지리서의 원본이 내포하고 있는 백인 중심의 인종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⁷ 따라서 당대 일본인들이 가진 위계적 인종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인종주의가 어떻게 일본에 유입되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벨츠가 어떤 관점으로 일본 인종의 신체적·정신적인 특징을 정의했느냐는 점이다. 둘째, 일본의 지식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벨츠의 인종관을 곧바로 수용했느냐는 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벨츠에게 영향을 준 에도시대 데지마(出島)에 주재하며 일본을 직접 관찰한 후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긴 캠퍼와 지볼트가 제시한 일본인의 인종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메이지시대 초기 일본 지식인이 번역한 지리서에 나타나는 인종관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문부성(文部省)에 고용되어 의학 교육을 담당했던 되니츠가 제시한 일본인의 기원과 혼혈에 대한 가설을 벨츠가 어떻게 증명했는지에 대해 시간순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6 오구마 에이지 저, 조현설 역, 2003,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40~47쪽.

7 김연옥, 2017, 「세계지리교과서 『興地誌略』에 보이는 문명관과 아시아인식」, 『일본역사연구』 45.

II. 데지마의 독일인 의사들이 판단한 일본인의 기원과 신체적인 특징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 신부 호드리게스(João Rodrigues, 1561~1634)는 동아시아인들을 직접 관찰한 뒤 당대 일본인이 고대 저장성과 푸젠성이 중국에 병합되기 이전 이 지역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 즉 후대에 말레이계라 분류된 사람들과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 구성된 혼혈인의 후손이라 주장한 최초의 서양인 학자였다.⁸ 1577년 일본에 도착한 호드리게스는 일본어와 한문을 익혀 예수회·포르투갈 상단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협상할 때 통역으로 활동하였다. 1614년 일본에서 추방된 호드리게스는 이후 중국 난징 인근의 선교를 담당했으며 1631년 베이징에서 정두원(鄭斗源, 1581~?)을 필두로 한 조선사신단을 만났다. 하지만 호드리게스가 작성한 『일본 교회의 역사(*Historia da Igreja do Japão*)』의 자필 원고는 후대에 사라졌으며, 이를 필사한 마닐라 사본이 약 1900년경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후대의 유럽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⁹

에도 막부는 포르투갈과 관계를 끊은 후 당시 바타비아(자카르타)에서 동인도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네덜란드와 협상하여 1641년 나가사키의 인공섬인 데지마에 상관을 개설하였다. 데지마에는 상인들과 함께 의사도 상주하고 있었는데, 200년 동안 약 90명의 의사가 이곳을 거쳐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사들은 상인들에 비해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이들은 데지마를 벗어나 나가사키의 다이묘(大名)와 같은 유력자들의 집에 초청받아 갈 수 있었으며 데지

8 J. Rodrigues, 2001, translated by Cooper M., *João Rodrigues's Account of Sixteenth-Century Japan*, Bath: The Bath Press, pp. 49~57.

9 M. Cooper, 2001, "Introduction", translated by Cooper, M., *João Rodrigues's Account of Sixteenth-Century Japan*, Bath: The Bath Press, pp. XV~XX; S. Park, 2000, "The Introduction of Western Science in Korea: A Comparative View with the Cases of China and Japan", *Northeast Asian Studies* 4, pp. 32~33.

마 밖의 학교에서 일본인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었다. 또한 네덜란드 상관장은 매년 쇼군(將軍)을 접견하기 위해 에도를 방문할 때 의사와 동행하였다.¹⁰ 따라서 이들은 데지마에 출입하던 일본인 통역관, 관료, 유곽의 여인들이 아닌 일본인들을 만나고 일본을 여행하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서양 지식인이었다.

이들 중 두 명의 의사가 일본인의 체질적 특징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흥미롭게도 이 두 명 모두 네덜란드인이 아니라 국적을 속여 데지마에 들어온 독일인이었다.

신성로마제국 리페후국(Fürstentum Lippe)에서 태어난 캠퍼는 카스피해 연안, 페르시아, 인도의 고아를 거쳐 1689년 바타비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1690년 5월 나가사키행 상선에 탑승한 후 이후 2년 동안 데지마에 거주하며 에도로 가는 사행단의 일원이 되어 일본을 관찰한 기록을 남겼다.¹¹ 영국의 의사 슬로안(Hans Sloane, 1660~1753)은 자필로 남긴 기록을 수집·정리하여 1727년 『일본사(*A History of Japan*)』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다.¹²

캠퍼는 일본인을 순혈인이라고 보았다. 그는 일본의 언어가 중국이나 한국과 다른 순수한 형태이며, 일본인들은 이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종교와 관습을

10 E. Ma, 1959, "Japan's Encounter with Western Medical Science: "The Beginning of Dutch Study," Being the Memoirs of an 18th-Century Doctor",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33, pp. 315~317; M. Wolfgang, 2011, "Glimpses of medicine in early Japanese-German intercourse", 日本国際医学協会 編, 『黎明期の日本近代医学・薬学』, 東京: 日本国際医学協会, 77~78쪽.

11 J. G. Scheuchzer, 1906(1727), "The Life of the Author", E. Kaempfer, translated by J. G. Scheuchzer, *The History of Japan Together with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1690-92*, Glasgow: James MacLehose and Sons.

12 J. Bowels, 1966, "Engelbert Kaempfer: Physician, Explorer, Scholar, and Author",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21(3), pp. 240~245.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단일한 인종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성경의 내용을 끌어들었다. 바벨탑이 무너진 후 언어의 혼란이 벌어졌고 일본어를 쓰는 집단이 최초의 거주지인 카스피해 연안을 출발해 빠른 속도로 중앙아시아와 중국 북부,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던 한반도의 동부 해안을 거쳐 일본 열도에 도달했다고 가정하였다. 즉, 일본인은 바벨탑이 무너질 당시 사람들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이다.¹³

이와 동시에 그는 일본인들이 신분과 지역에 따라 다른 신체적 특징을 보이며, 이는 ‘다른 계통의 사람들이 유입된 결과’라는 상당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분에 따라 일본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일본인들, 특히 평민은 매우 못생긴 모습, 작은 체구, 강하고 두꺼운 다리, 황갈색, 납작한 코, 두꺼운 눈꺼풀(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눈은 이마에서 그다지 깊게 들어가 있지 않음)인 반면에 가장 오래된 최고위의 귀족 가문, 그리고 제국의 왕자와 귀족 후손들의 생김새와 얼굴은 오히려 유럽인과 가깝게 좀 더 장엄하다.¹⁴

위의 글에서 캄퍼는 일본인을 비교적인 단일 인종으로 분류하면서도 상류층과 평민이 다른 계통의 인종이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소수의 상류층은 바벨탑이 붕괴한 후 빠른 속도로 이주하여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당대 유럽인과 비슷한 체형을 지녔으며, 그렇지 않은 다수의 평민은 그들과는 다른 인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일본과 접촉했던 것을 일시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이 일본인의 혈통 구성에 그다지 큰 영향을

13 E. Kaempfer, 1906(1727), translated by J. G. Scheuchzer, *The History of Japan Together with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1690-92*, Glasgow: James MacLehose and Sons, pp. 135~140, pp. 144~145.

14 E. Kaempfer, 1906(1727), 위의 책, p. 151.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그는 일본인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캠퍼는 상류층의 우아하고 장엄한 신체적 특징을 유럽인과 연관시키면서 유럽인이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당시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인종관이었다.

둘째, 지역을 기준으로 일본인의 신체적 특징을 구분하였다.

사쓰마, 오스미, 휴우가 지방의 주민들은 중간 체구인데 주로 용기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 남을 무시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고 말해서는 오즈 지방을 제외하면 이러한 특징은 혼슈 북부 지방에서 일부 나타난다. 규슈의 일부 지방, 특히 히젠의 주민들은 작고 날씬하나 잘생겼고 매우 미모가 뛰어나며 매우 친절하다.¹⁵

신분에 따른 체형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캠퍼는 왜 지역에 따라 신체적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체형과 성격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일본인에게 적용한 최초의 서양인의 사였다는 점이다. 그가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인종 분류와 인체측정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일 것이다.

캠퍼가 일본을 떠난 지 약 130년 후인 1823년 8월, 독일인 의사 지볼트가 데지마에 상륙하였다. 이해 12월 나가사키 부교(長崎奉行)가 지볼트의 데지마 밖 활동을 허락했는데, 이후 그는 수많은 일본인 환자를 치료했으며 학교를 열어 일본인 학생들에게 의학을 가르쳤다. 당시 지볼트의 학생들은 일본의 역사, 지리, 자연 환경, 식물상, 동물상, 관습, 문화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네덜란드어로 번역하여 그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지볼트는 1826년 에도 방문 기간 중

15 E. Kaempfer, 1906(1727), 위의 책, p. 151.

부유한 상인을 통해 마미야 린조(間宮林藏, 1780~1844)가 작성한 사할린의 지도와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 1745~1818)가 작성 중 사망한 대일본해역지도(大日本沿海輿地全図)를 입수하였다. 1828년 자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지도가 적발되어 스파이 혐의를 받은 지볼트는 1829년 데지마에서 추방되었다.¹⁶ 그는 유럽으로 돌아가 일본에서 수집한 자료 중 지리, 역사, 민족, 문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1832년부터 『일본(Nippon)』이란 제목으로 출간하였다.

나가사키로 출발하기 전 지볼트는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 캠퍼의 『일본사』를 참조하였다. 그런데 지볼트가 저술한 『일본』의 내용 중 인종과 언어에 관련한 항목을 살펴보면, 캠퍼 사후 서양에서 정립되고 있던 인종 분류 체계와 비교언어학(comparative philology)을 통해 일본인의 기원을 추적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지볼트는 동아시아인을 몽골 인종(Mongolischen Rasse)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 크리스토프 지볼트(Christoph Siebold, 1767~1798)의 스승이었던 블루멘바흐가 정립한 인종 분류 체계를 적용한 것이었다.¹⁷

지볼트는 비록 일본에서 두개골 표본을 수집하거나 일본인의 신체를 자세하게 측정할 수 없었으나, 일본인을 상대로 외과 수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일본인의 신체적 특징을 잘 알고 있었다.¹⁸ 그리고 일본인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일본인과 그 주변의 아이누인 및 한국인의 신체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지볼트는 아이누인을 실제 본 적이 없었지만 학생들은 그에게 아이누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네덜란드어로 번역해서 제공하였다. 한편, 지볼트는 나가사키에서 한국인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16 H. Plutschow, 2007, *Phillip Franz von Siebold and the Opening of Japan: A Re-evaluation*, Kent: Global Oriental Ltd, pp. 16~21.

17 H. Plutschow, 2007, 위의 책, p. 2; P. F. Siebold, 1897a, *Nippon*(revised edition), Erster Band, Würzburg und Leipzig: Verlag der K. U. K. Hofbuchhandlung von Leo Woerl.

18 S. Hiki and Hiki Y., "Siebold as Surgeon, Physician and Medical Teacher in Japan", In A. Thiede, Y. Hiki, and G. Keil(eds.), *Philipp Franz von Siebold and His Era*, Heidelberg: Springer, pp. 75~77.

1828년 전라도 강진을 출발한 세 척의 배가 규슈의 서쪽 해안에 표류하였다. 어부, 선원, 상인, 여행객 등 36명으로 구성된 조선인 표류민은 나가사키로 이송되어 쓰시마의 상관에 머무르고 있었다. 같은 해 3월 17일 지볼트는 부교의 허락을 받은 후 여러 차례 화가를 대동하여 상관을 방문하였다. 그는 상인 허사침, 학자 김치윤을 포함한 6명의 조선인과 면담하고 조선의 언어, 문화, 학문, 예술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¹⁹

그가 일본인에 대해 “전형적인 몽골인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 것과 눈의 경사도를 측정하여 ‘일본, 한국, 중국, 코친차이나의 사람들의 경우 눈꺼풀의 경사가 심하고 눈썹이 관자놀이로 향하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 말레이인의 경우 큰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때 등장하는 것 외에는 일본인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누인과 한국인에 대한 그의 묘사를 통해 그가 파악한 일본인의 신체적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²⁰ 우선 에조(蝦夷, 홋카이도)의 아이누인에게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들은 일본인보다 신장이 크며 강인한 신체를 지니고 있다. 에조의 남자들은 매우 두꺼운 머리칼과 가슴, 다리, 팔에도 나 있는 두꺼운 털을 특징으로 한다. 여자들은 역시 일본인보다 키가 크고 강인한 신체를 지니고 있다. ... 모든 아이누인들은 ... 긴 세로 방향의 다소 커다란 연갈색의 눈(일본인의 눈보다 더 연갈색)을 가지고 있으며 약간 올라간 광대뼈, 앞으로 돌출된 강한 이마 ... 를 가지고 있다.²¹

한편, 지볼트는 한국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19 하우봉, 2008, 「19세기 초 조선과 유럽의 만남-지볼트와 조선표류민의 교류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0, 245~247쪽.

20 P. F. Siebold, 1897a, 앞의 책, pp. 301~302.

21 P. F. Siebold, 1897b, *Nippon* (revised edition), Zweiter Band, Würzburg und Leipzig: Verlag der K. U. K. Hofbuchhandlung von Leo Woerl, pp. 236~237.

비록 5 1/2 파리 피트(paris feet)를 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신장이 크고 건장하며 신체의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차분하고 민첩하다. 한국인의 얼굴은 광대뼈가 튀어나온 넓고 거친 얼굴, 편평한 콧날과 넓은 날개형 코 ... 가는 턱수염의 일반적인 몽골 인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인 특징은 한국인이 동북아시아의 거주민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²²

지볼트는 아이누인을 일본인과 다른 인종으로 보고 이들을 일본의 선주민(先住民)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동북아시아의 몽골 인종이라는 같은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일본에 상륙했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볼트는 눈의 경사도 분석을 통해 코친차이나인을 포함한 몽골 인종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는 한편으로 북부 중국인(만주), 일본인, 한국인을 동북아시아인으로 규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가 신체적인 특징과 함께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비교언어학을 적용하여 일본인의 기원을 추적했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 존스(William Jones, 1746~1794)가 리그베다에서 인도유럽어의 원형을 발견한 이후, 유럽에서는 비교언어학이 유행하였다. 비록 대부분의 비교언어학자들이 인도유럽인의 기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일부는 소위 바벨탑 붕괴 이후 언어의 분화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티베트어와 알타이어가 다른 어족에 속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타이어족에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목민이 쓰는 타타르어, 한국어, 일본어가 포함되었다.²³ 지볼트는 일본어와 아이누어, 한국어, 만주의 타타르어(Tatten)를 비교한 후 일본어의 원형이 만주의 타타르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²⁴ 한편으로

22 P. F. Siebold, 1897b, 위의 책, p. 305.

23 L. Campbell and W. J. Poser, 2008, *Language Classification: History and Meth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5~236.

24 P. F. Siebold, 1897a, 위의 책, pp. 289~292.



일본인 소년



김치운(몽골형)



허사침(코카서스형)



북부 중국인

그림 1 지볼트의 『일본』에 수록된 동북아시아인의 초상화(Siebold, 1897a, p. 300, p. 302; 1897b, p. 319, p. 325)

그는 블루멘바흐의 언어의 분화 과정에 대한 견해를 따라 아메리카인이 일본인의 후손일 가능성과 일본인이 오키나와를 포함한 마리아나 제도와 필리핀 등 태평양의 여러 섬, 즉 말레이어를 쓰는 지역에 이주했을 가능성도 제시하였다.²⁵

캠퍼와 마찬가지로 지볼트도 일본인이 비교적 단일 인종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몽골 인종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닌 “진한 갈색”과 “어두운 색조의 금발”의 머리칼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완만한 안면 각”과 “검은 피부”를 지닌 사람들도 있다고 서술하였다.²⁶

지볼트는 일본인의 체질적 다양성에 대한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나가사키에서 만난 6명의 한국인을 일단 몽골인으로 분류한 후 다시 얼굴형에 따라 전형적인 몽골인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과 코카서스인에 가까운 사람들로 재분류하였다. 지볼트는 ‘유럽인의 얼굴형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몽골인들의 거친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종의 귀족적 “고귀함(Adel)”을 볼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²⁷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볼트가 몽골형으로 분류한

25 P. F. Siebold, 1897a, 위의 책, p. 292.

26 P. F. Siebold, 1897a, 위의 책, p. 289, p. 292.

27 P. F. Siebold, 1897b, 앞의 책, pp. 306~307.

3인 중 1명이 학자 김치윤이었으며 코카서스형으로 분류한 사람들의 직업은 상인 2명(허사첨 외 1인)과 선원이었다는 점이다. 지볼트는 특히 상인 허사첨에 대해 “명랑하면서도 진지한 사람”이라고 극찬했으며 김치윤에 대해 “교활해 보이고 학자 같지 않은 천박한 용모”를 지니고 있다고 악평하였다. 특히 지볼트는 그가 허사첨에게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 질문했을 때 ‘허사첨이 김치윤을 지목했으며 자신이 상위 계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대답한 사실을 언급하였다.²⁸ 이 지점에서 지볼트가 가진 인종관의 두 가지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신체적 특징이 정신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는 점과, 둘째, 유럽인의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우월하다는 점이다.

지볼트는 블루멘바흐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본인과 한국인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고 말레이인과 아메리카인이 몽골인의 후손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블루멘바흐는 분화 과정을 ‘퇴보(degener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해 설명했지만 ‘태양 아래 소위 야만 민족이라 불리는 민족은 없으며 지구상의 가장 문명화된 민족 중 하나가 흑인’이라고 설명하는 등 소위 인종 간의 우열을 제시하지는 않았다.²⁹ 지볼트의 『일본』에는 왜곡된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지볼트가 허사첨을 높게 평가한 것은 바로 그가 몽골인으로 분화되기 전 인류의 공통 조상인 코카서스인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볼트는 앞에 언급한 일본인이 보여주는 신체적 다양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인종관을 고려하면 소위 하층민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을 인종의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퇴화형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의 기원과 인종 문제에 대한 지볼트의 생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화에 묘사된 일본인의 선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은 중국인과 혼혈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몽골계 타타르인의 후예로 선주민이자 원주민인 아이누인을 정복하였다. 둘째, 당대 일본인은 한국인 및 북부 중국

28 P. F. Siebold, 1897b, 위의 책, p. 311.

29 T. Bendyshe(ed.), 1865, 앞의 책, p. 312.

인과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일본인들 중 상류층은 최초의 인류인 유럽인과 유사한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하층민은 퇴화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인들은 일본 하층민의 선조가 과거에 이주하여 분화된 인종일 가능성이 있다.

에도시대 데지마에 체류했던 이 두 독일인 의사의 일본인의 기원과 인종에 대한 관점이 개항 이후 일본 지식인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을 직접 방문해서 작성한 이 둘의 저작은 19세기 일본에 관심이 있던 서양인들에게 필독서로 자리매김했으며, 당시 서양에서 출판된 서적의 저자들은 이 둘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본과 일본인을 묘사하였다.³⁰ 그리고 메이지시대 초기 근대 의학을 도입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초청했던 고용 외국인들은 특히 지볼트가 제시한 견해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Ⅲ. 메이지 정부 출범 직후 일본 번역물에 반영된 서구 중심의 인종관

1854년 쇄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에도 막부는 결국 미국 페리 제독(Admiral Perry, 1794~1858) 함대의 무력 시위에 굴복하여 개항하였다. 1858년 천황의 칙령 없이 일련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반발로 막부와 서양 세력을 타도하자는 존황양이(尊皇洋夷)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시모노세키 전쟁(1863~1864)에서 패배한 이후 서양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 속에서 일본이 나약한 약소국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존황양이파는 서양의 물리적 힘을 직접 경험한 후 결국 양이를 포기하고 존황에 집중한 대정봉환론(大政

30 R. Kower, 2000, "'Lighter than Tellow, but not Enough': Western Discourse on the Japanese 'Race', 1854-1904", *The Historical Journal*, 43(1), pp. 107~108.

奉還論)을 제기하였다. 1868년에는 마침내 메이지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해 4월 6일 교토어소(京都御所)에서 반포된 메이지 정부의 기본 방침 ‘5개조의 서약문(五箇条ノ御誓文)’의 마지막 조항은 바로 “지식을 세계에서 구하여 황기를 크게 진기할 것(一 智識ヲ世界ニ求メ大ニ皇基ヲ振起スベシ)”이었다. 이는 바로 신일본정부가 자국의 자주적인 독립과 발전을 위해 서구식 근대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메이지 정부가 추구했던 국가의 존립을 위한 소위 ‘부국강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서양의 과학, 기술과 함께 사회, 제도, 역사, 정치 체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당시 일본에서 가장 빠르게 서양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서양 서적을 번역하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양인들의 위계적 인종관이 일본에 유입되었다.

당시 일본에 번역된 서양의 지리서들은 완역본이 아니었으며 역자들의 생각까지 담겨 있었다. 이 중 가장 이른 것은 후쿠자와가 1869년에 출간한 『세계국진』이다. 일설에 의하면 『세계국진』은 100만 부가 인쇄되었다고 전해지며 메이지시대 초기 대표적인 계몽서였다.³¹

이 책은 후쿠자와가 미국의 미첼(August Mitchell, 1792~1868)이 1865년에 출간한 지리서를 발췌 번역한 것이었다.³² 중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교과서로 간행된 이 책에서 미첼은 앞에 언급한 블루멘바흐의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각 인종에 속하는 “민족(nations)”을 단계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후쿠자와는 『세계국진』에서 영어 “race”를 “인종(人種)”으로 “nation”과 “state”의 경우 구분 없이 “국(國)”으로 번역하였다. 또한 각 사회 발전 단계에 대한 명칭을 “야만(野蠻, savage)”, “미개(未開, barbarous)”, “반개(半開, half-civilized)”, “문명(文明,

31 竹沢泰子, 2019, 「研究ノート」明治期の地理教科書にみる人種・種・民族, 『人文學報』114, 209~210쪽

32 福澤諭吉, 1926a, 「世界國盡」, 時事新報社 編, 『福澤全集』第二卷, 東京: 国民図書, 681쪽.

civilized)”, “개화(開化, enlightened)”라는 용어로 번역하였다.

『세계국진』은 미첼의 지리서의 내용을 상당 부분 축약한 의역본이지만, 원저에서 서술한 서구의 인종관이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오세아니아와 아메리카 원주민 등이 속한 “최하등한 민(最も下等の民, the lowest stage)”인 야만인들의 성품에 대해 “자비심이 없고(慈悲の心なくして, cruel)”, “인육을 먹는(人の肉を喰ふ, eat human fresh)”다고 묘사하고 있다. 반면 “문명개화국(the half-civilized and enlightened state)” 단계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 “예의를 중시하고 올바른 이치를 중요하게 여기며(禮儀を重んじ正義を貴び, the great progress in morals, justice)”, “새로운 학문의 길이 다달이 앞으로 나아가며(新にし學問の道はて月に進み, the sciences are diligently cultivated)”라고 긍정적으로 설명하였다.³³

후쿠자와는 『세계국진』에서 원본에 수록된 블루멘바흐의 분류 체계와 중국과 함께 반개화로 분류한 일본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³⁴ 이 지점에서 이 책이 어린이, 주부를 포함한 일반 독자를 위한 계몽서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³⁵ 따라서 후쿠자와가 코카서스인이 아닌 일본인도 문명개화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독자들에게 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 그의 생각에 일본이 따라가야 할 모델이 전근대시대 문명국인 중국이 아닌 서양이기 때문에 일본을 고의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비서구문화 전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인종과 국가 간에 등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네덜란드에서 귀국 후 대학남교(大學南校)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우치

33 福澤諭吉, 1926b, 「世界國盡付祿」, 時事新報社 編, 『福澤全集』第二卷, 東京: 国民図書, 783~787쪽; A. Mitchell, 1865, *Mitchell's New School Geography: A System of Modern Geography, Physical, Political and Descriptive*, Philadelphia: H. Butler & Co., pp. 35~38.

34 福澤諭吉, 1926b, 앞의 책, 787쪽.

35 福澤諭吉, 1926a, 앞의 책, 683쪽.



그림 2 호리카와가 제시한 인종의 등급

다 마사오(内田正雄, 1839~1876)는 1870년 해외에서 출간된 서양에서 발간된 여행기와 여러 학생용 지리서를 참조하여 『여지지략(輿地誌略)』을 출간하였다. 이 『여지지략』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과서나 계몽서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인종을 ‘莫古種(Mongolian)’, ‘高加索種(Caucasian)’, ‘以日阿伯啞(Ethiopian)’, ‘巫来由種(Malay)’, ‘亜米利加種(American)’의 5종으로 구분함으로써 블루멘바흐의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한 인종에 따른 등급 차이에 대한 내용이 일 본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

였다.³⁶

1872년 호리카와 겐사이(堀川建齋)는 프랑스의 탐험가 코르탕베르(Eugène Cortambert, 1805~1881)의 지리서를 발췌해서 번역한 『지구산물잡지(地球産物雜誌)』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삽화인 〈그림 2〉를 보면 “백종(百種)”을 “제1등”, “황종(黃鍾)”을 “제2등”, “흑종(黑種)”을 “제3등”으로 분류하고 있다.³⁷ 이는 프랑스의 동물학자 퀴비에(Georges Cuvier, 1769~1832)의 분류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블루멘바흐가 지역에 따라 인종에 대한 명칭을 부여했다면 퀴비에에는 피부색을 기반으로 인종을 구분하였다. 특히 퀴비에에는 백인종이 타 인종을 지배하는 가장 문명화된 인종이고 황인종의 문명은 정체되어 있으며 흑인종은 항상 미개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림 2〉

36 竹沢泰子, 2019, 앞의 글, 210쪽.

37 堀川建齋, 1872, 『地球産物雜誌』, 東京: 和泉屋半兵衛.

는 바로 이를 반영한 것이었다.³⁸

1873년 문부성은 영국의 체임버스 형제가 간행한 『체임버스의 백과사전 (Chamber's Information for the Peoples)』의 1867년 판을 번역하여 『백과전서』라는 제목으로 출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백과전서 번역 사업은 당시 문부성이 기획한 가장 큰 프로젝트로 양학자들이 원서의 각 항목을 번역한 원고를 국학자와 한학자들이 교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³⁹ 문부성은 91개 항목을 1873년부터 순차적으로 간행하였는데 이 중 아키야마 쓰네타로(秋山恒太郎, 1842~1911)가 번역한 「인체의 역사-인종(Physical History of Man-Ethnology)」은 「인종편」이라는 제목으로 1874년에 출간되었다.

큰 틀에서 「인종편」에 서술되어 있는 블루멘바흐와 퀴비에의 분류법에 기초한 서구 중심의 인종관은 앞에 설명한 『세계국진』, 『여지지략』, 『지구산물잡지』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앞의 책들과는 달리 「인종편」은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인체측정학에 기반을 둔 인종 간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일본에 소개하였다.

〈그림 3〉은 원저와 번역본 모두 두개골 용량에 따라 코카서스인-몽골인-말레이인-아메리카 원주민-에티오피아인 순으로 인종의 등급을 설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원저는 “고대 그리스인의 조각상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신체 비례를 보여준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인종편」에서는 “조각가들이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인류 중 가장 아름다운 모범으로 삼는 것이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 …(彫像家常ニ基模範トスル希臘古像ノ長ヶ恰好ヲ以テ方今宇宙間ニ在ル人類中ノ最モ美 …)”이라고 번역하였다.⁴⁰ 또한 원저자는 인종 간의 정신적 위

38 B. Douglas, 2008, “Climate to Crania: science and the racialization of human difference”, In B. Douglas and C. Ballard(eds.), *Foreign Bodies*, Canberra: The ANU Press, p. 46.

39 나가누마 미카코 지음, 김도형·김태진·박삼현·박은영 옮김, 2015, 『번역된 근대: 문부성 〈백과전서〉의 번역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88~89쪽.

40 W. Chambers and R. Chambers(eds.), 1867, “Physical History of Man-

Races.	No. of Skulls.	Mean Internal Capacity in Cubic Inches.	Largest in the Series.	Smallest in the Series.
1. Caucasian,	52	87	109	75
2. Mongolian,	10	83	93	69
3. Malay,	18	81	89	64
4. Aboriginal American,	147	80	100	60
5. Ethiopian,	29	78	94	65

亞 非 利 加 人 種	米 利 堅 土 人 種	馬 來 人 種	蒙 古 人 種	高 加 索 人 種	種 族
二十 九	百 四 十 七	十 八	十	五 十 二	數 頭 總 ノ 總
七 十 八	八 十	八 十 一	八 十 三	八 十 七	ノ 最 大 ノ 容 積 ノ 最 小 ノ 容 積
九 十 四	一 百 零 々	八 十 九	九 十 三	百 零 九	最 大 頭 ノ 容 積 ノ 最 小 ノ 容 積
六 十 五	六 十	六 十 四	六 十 九	七 十 五	最 小 頭 ノ 容 積 ノ 最 大 ノ 容 積

그림 3 두개골의 용량에 따른 인종의 위계(왼쪽: 『체임버스의 백과사전』 p. 9, 오른쪽: 「인종편」 553쪽)

계 순서를 ‘유럽인-몽골인-북아메리카인-흑인(Negro)’ 순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역시 번역본에 반영되어 있다.⁴¹ 한편으로 원저자는 영국의 비교언어학자인 라탐(Robert Latham, 1812~1888)의 학설을 인용하여 일본인과 한국인을 “반도의 몽골인종(Peninsular Mongoloid)”으로 분류함으로써 중국인과는 다른 부류로 정의하였다.⁴² 그런데 이 라탐의 주장은 바로 지볼트가 『일본』에서 서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⁴³ 그리고 이 내용은 번역본[한국인의 경우 “고려인

Ethnology”, *Chambers’s Information for the People*,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Co., p. 10; ウィルテム・チャンブル・ロベルト・チャンブル 編, 秋山恒太郎 譯, 1884~1885(1874), 「人種篇」, 文部省 摘訳, 『百科全書 中巻』, 東京: 丸善, 555쪽.

41 W. Chambers and R. Chambers(eds.), 1867, 위의 글, p. 14; ウィルテム・チャンブル, 로벨트・チャンブル 編, 秋山恒太郎 譯, 위의 글, 567~568쪽.

42 W. Chambers and R. Chambers(eds.), 1867, 위의 글, p. 5.

43 R. G. Latham, 1858, *Descriptive Ethnology* Vol. 1, London: John Van Voorst, Pathermnoster Row, pp. 496~501.

(高麗人)”으로 번역됨]에도 수록되어 있다.⁴⁴

이 「인종편」의 내용은 일본인이 서양인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열등한 몽골인임을 당시 과학적 방법론으로 인정받고 있던 인체측정학을 기반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조상에서 분리된 것으로 제시하고 중국인과는 다른 계통의 인종으로 분류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인종편」이 바로 정부 기관인 문부성에서 발간됐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독자들은 이 책의 내용을 정부가 인정한 과학적인 사실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번역서들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지리 수업을 위한 교과서로 채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⁴⁵ 메이지 정부는 교육 근대화 정책에 따라 1872년 ‘학제(學制)’를 반포하고 공교육 제도의 토대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기초 교육의 보급을 위해서 초등학교의 경우 남녀의 구별과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가하였다.⁴⁶ 따라서 메이지 정부 수립 직후 신체의 특징에 기반을 둔 인종우열론적 사고방식은 지식인 집단뿐만 아니라 후에 일본 사회의 중추가 될 어린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어갔다.

IV. 되니츠와 벨츠가 제시한 일본인의 신체적 특징

일본인들이 인체측정학을 기반으로 한 인종주의를 막 접하고 있던 1870년대 중반 당시, 도쿄의학교(東京醫學校)에서는 일본 정부에 고용된 독일인 의사들이

44 ウィルhelm・チャンブル, ロベルト・チャンブル 編, 秋山恒太郎 譯, 1884~1885(1874), 앞의 글, 537쪽.

45 竹沢泰子, 2019, 앞의 글, 209~214쪽.

46 이권희, 2012, 「메이지(明治) 후기 국민교육에 관한 고찰: 창가(唱歌)를 통한 신민(臣民)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9-1, 114쪽; 竹沢泰子, 2019, 위의 글, 208~209쪽.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중 1873년부터 해부학 담당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베를린대학 출신의 되니츠는 일본인의 신체를 최초로 직접 측정하여 이들의 기원, 혼혈, 그리고 신체적 특징을 독일동아박물학민족학협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가 발간하던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이로써 일본에서 소위 과학적 인종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되니츠는 해부학 실습에 이용된 사형수들과 화장된 죄수들의 두개골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표본은 도쿄와 그 인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의 두개골이었다. 이 외에도 그는 홋카이도 인근 혼슈 북부의 에치고(越後)에서 보내온 4개의 표본과 독일동아박물학민족학협회가 소장하고 있던 1개의 아이누인 두개골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일본 정부에 허락을 받아 아이누인 소년 5명의 신체를 직접 관찰하고 측정하였다.⁴⁷ 되니츠는 이 결과를 정리하여 1876년까지 독일동아박물학민족학협회의 협회지에 세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되니츠는 우선 아이누인이 서유럽인의 한 갈래라는 당시 서양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들의 얼굴은 낮고 넓은 코, 편평한 얼굴, 광대뼈의 돌출 등과 같은 몽골인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아이누인의 두개골을 살펴보면 몽골인의 특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본인과는 다르다고 설명하였다.⁴⁸ 그는 아이누인 두개골의 특징인 “이중광대뼈(Die Verdoppelung des Iochbeins)”가 에치고인의 표본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제외한 46개의 표본에서

47 F. K. W. Doenitz, 1874, “Bemerkungen über Aino's”, In: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Band I (1873-1876), Heft 6, p. 61; F. K. W. Doenitz, 1875, “Über die Abstammung der Japaner” In: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Band I (1873-1876), Heft 8 p. 39; F. K. W. Doenitz, 1876, “Über drei verschiedene Typen unter Japanerschädeln”,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Band II (1876-1880), Heft 12, p. 69.

48 F. K. W. Doenitz, 1874, 위의 글, p. 64.

는 단지 9개의 사례에서만 발견된 점에 주목하여 이들이 일본인과 아이누인의 혼혈인의 후손일 가능성을 주장하였다.⁴⁹

되니츠는 표본들에 대한 두개계수를 측정하여 장두형에 가까운 형태와 단두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두형의 표본 및 일본 남쪽 출신 사람들에게 말레이인의 얼굴 형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몽골인의 전형적인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은 중국 북부와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후예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되니츠는 기원전 약 1190년부터 여러 언어를 쓰는 타타르인들이 중국 사료에 나타난다는 이유로 몽골인인 이들 중 일부가 일본에 유입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지볼트가 『일본』에서 주장한 내용과 흡사하다.⁵⁰ 실제 되니츠는 논문에서 지볼트를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지볼트의 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되니츠는 지볼트와는 반대로 말레이인은 일본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고 일본 열도로 이주해 온 혼혈 인종 일본인의 조상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인종의 다중기원론(polygenism)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볼트의 사고는 블루멘바흐가 제시한 인종의 단일기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18세기 식민지의 확대와 교역의 증대로 인해 소위 유색인과의 접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볼테르(Voltaire, 1694~1778)와 같은 유럽의 지식인들은 흑인이나 황인과 같은 야만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조상에서 파생했다는 기독교적 단일기원론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초반 이후에는 블루멘바흐가 인체측정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한 인종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다는 사고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⁵¹

49 F. K. W. Doenitz, 1875, 앞의 글, pp. 39~40.

50 F. K. W. Doenitz, 1875, 위의 글, p. 41.

51 J. P. Jackson and N. M. Weidman, 2004, *Race, Racism, and Science: Social Impact and Interaction*, Santa Barbara, ABC-CLIO, Inc, pp. 39~57.

되니츠는 인종의 다중기원론을 바탕으로 일본을 타타르인과 말레이인의 최종 종착지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유입의 시간적 순서와 관련하여 그는 타타르인이 선주민인 아이누인을 북쪽으로 몰아냈으며 그 후 남쪽에서 이주한 말레이인의 후손인 진무천황(神武天皇)의 군대가 북상했다는 설을 제시하였다. 즉, 당대 일본인은 몽골인과 말레이인의 혼혈이며 몽골인이 먼저 일본 열도로 이주했지만 그 후에 이주한 말레이인이 주류가 되었다는 것이다.⁵²

이를 증명하기 위해 되니츠는 독일에서 바스티안(Adolf Bastian, 1826~1905) 등에 의해 정립되고 있던 민족지적 방법론(ethnography)을 당시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는 땅속에 직접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구멍을 설치한 일본 전통 가옥의 구조가 말레이 지방의 수혈주거지와 유사한 점, 그리고 사원 등에 나타나는 중국과 한반도의 건축 양식은 역사 시대에 유입했다는 점을 들어 당시 일본 사회의 기층문화가 말레이 지방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⁵³

한편, 되니츠는 지볼트와 마찬가지로 두형을 기준으로 두고 상류층에서 주로 유럽인과 비슷한 “아름다운 장두의 타원형(lange schoen ovale Gesicht)”이 나타나고 가장 낮은 계층에서 단두형 사람들이 자주 보인다고 서술하였다.⁵⁴ 이는 위에 언급한 단두형의 말레이인이 타타르게 몽골인을 복속시킨 정복자라는 설명과는 모순된다. 그는 일본인에게 단두형의 말레이인보다 몽골인의 형상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몽골인이 정복당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렇다면 단두형인 말레이인의 특징이 상류층에서 나타나고 비교적 장두형인 몽골인의 모습이 하류층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되니츠는 이 모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조사한 사례와 증거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였다.⁵⁵ 1876년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 되

52 F. K. W. Doenitz, 1875, 앞의 글, p. 41.

53 F. K. W. Doenitz, 1875, 위의 글, p. 41.

54 F. K. W. Doenitz, 1876, 앞의 글, p. 70.

니츠는 도쿄의학교를 떠났다. 그는 1886년까지 일본에 머물렀지만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한 글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되니츠 역시 지볼트와 마찬가지로 서양인과 유사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우월하다고 하였으며 일본에서 최초로 두개계수를 측정하여 이를 증명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후 독일동아박물관학민족학협회에서 되니츠와 함께 활동하던 벨츠는 이 주제에 대해 보다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내과학을 강의하던 벨츠는 1876년 일본 정부와 계약을 맺고 도쿄의학교 내과학과 생리학 담당 교수로 임명되었다. 캠퍼와 지볼트의 조사 내용을 알고 있던 벨츠는 일본에 도착한 뒤 약 6년 동안 일본인 약 2,500명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⁵⁶ 되니츠는 주로 도쿄 인근의 적은 수의 표본만 조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가설로만 제시하였다. 반면에 벨츠는 그가 진료한 환자뿐만 아니라 일본 각지에서 온 도쿄의학교와 그의 후신인 도쿄대학 의학부의 학생들, 그리고 징집된 군인들의 신체를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계층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⁵⁷ 한편으로 그는 조선에서 온 사절단을 직접 만나 관찰할 수 있었으며 아이누인의 표본 3개를 입수하였다.⁵⁸

벨츠는 1883년 우선 그가 측정한 일본인 두개골 표본 64개의 두개계수와 14개체의 골격에 대한 계측치를 발표하였다. 이후 1885년에는 실제 살아 있는

55 F. K. W. Doenitz, 1876, 위의 글, p. 70.

56 T. Baelz(ed.), 1931, translated by Eden and Cedar Paul, *Awakening Japan: The Diary of a German Doctor: Erwin Baelz*, New York: The Viking Press, pp. 14~15.

57 E. Baelz, 1883, "Die Koerperlichen Eigenschaften der Japaner"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Band III (1880-1884), Heft 28 p. 332; E. Baelz, 1885, *Die Körperlichen Eigenschaften der Japaner II. Teil*, Yokohama: Buchdruckerei Des "Echo Du Japon", p. 1.

58 E. Baelz, 1883, 위의 글, p. 340.

일본인의 두개골과 얼굴 각 부분의 수치와 함께 피부색, 신장, 몸무게, 팔과 다리의 길이, 골반의 둘레, 장골능선의 최대 거리, 발목의 둘레 등 총 79개 항목의 측정치를 제시하였다. 벨츠가 제시한 일본인의 신체 각 부분의 구체적인 치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그가 설명한 일본인의 인종적 특징과 기원 및 혼혈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벨츠의 인종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일본인을 묘사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우선 신장과 몸무게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몸무게와 신장을 비교하면 일본 성인의 평균 신장인 158~159cm일 경우 유럽인은 49kg이 평균 체중이지만 일본인은 55kg이다. ... 이것으로 일본인이 유럽인보다 일반적으로 더 큰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럽인은 16세에 이 신장에 도달하는데 이후 170cm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⁹

위의 글을 보면 벨츠가 작고 왜소한 일본인과 크고 장대한 유럽인을 비교하며 설명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신체적 특징을 논의할 때 벨츠는 거의 모든 항목의 수치를 유럽인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 이유는 서양인 독자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양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면 벨츠는 그리스의 조각상과 당대 벨기에인의 예를 들어 유럽인의 등신(等身), 즉 머리와 몸의 비율은 7을 넘는데 일본인은 유럽인보다 체구가 작고 머리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즉, 벨츠는 캠페르 이후 유럽의 체질인류학자들이 입증하려 했던, 고대 그리스인이 가장 이상적인 신체 비례를 보여준다는 사고를 공유하였다.⁶⁰

특히 그는 독일인을 묘사할 때 “아름다운 독일인(schöngebauten Deutschen)”이라 서술하였으며, 고대 그리스·로마의 조각상과 중세 독일의 회화를 예를 들

59 E. Baelz, 1885, 앞의 책, pp. 37~38.

60 E. Baelz, 1885, 위의 책, pp. 25~26.

어 독일인과 켈트인이 프랑스 남부인이나 이탈리아인보다 고대 그리스인에 가까운 신체를 보여준다고 하고, 일본인의 신체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⁶¹ 이 지점에서 벨츠 스스로 자신의 인체측정법이 피르초프(Rudolf Virchow, 1821~1902)와 브로카(Paul Broca, 1824~1880)의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다중기원론자였던 프랑스의 해부학자 브로카는 1850~1860년대에 각 인종을 생물학적으로 기원이 다른 종(species)로 정의하였다. 그는 호모속(genus Homo)에 속하는 종들이 각 지역의 서로 다른 환경에 의해 개별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브로카는 흑인(Negros)이 코카서스인보다 지능, 기력, 미적으로 아주 열등한 종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저지르고 있던 흑인종, 아메리카인종 등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였지만 이는 그가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코카서스인종이 열등한 타 인종을 멸종시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⁶² 브로카는 독일인, 켈트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아랍인 등을 코카서스종에 속하는 아종, 즉 인종으로 분류하였다.

브로카는 당대 독일의 해부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던, 단두형이 장두형보다 열등하다는 견해를 표면적으로는 부정하였다. 그러나 인종 간의 혼혈에 대한 그의 이론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그 역시 장두형을 우월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1860년대 브로카는 소위 ‘과학적 인종주의’의 창시자라 불리는 고비노(Arthur de Gobineau, 1816~1882)가 1850년대에 주장한 설, 즉 큰 키에 금발의 벽안을 가진 고대 그리스인을 닮은 장두형의 게르만인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종이며, 근대 프랑스가 귀족층인 게르만인과 평민인 켈트인과 라틴인의 혼혈에 의해 타락했다는 설을 거부하였다.⁶³ 실제 단두형이었던 브로카는 프랑스

61 E. Baelz, 1885, 위의 책, pp. 28~29, p. 40.

62 P. Broca, 1864, *On the Phenomena of Hybridity in the Genus Homo*, London: Longman, Green, Longman, & Roberts, Paternoster Row, pp. 70~71.

63 P. Broca, 1864, 위의 책, pp. 1~3.

인이 게르만인과 켈트인의 혼혈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켈트인의 열등성을 지우기 위해 그는 혼혈인 후손의 다산성(fecundity)을 기준으로 인종 간의 서열을 재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유럽인과 흑인의 혼혈로 탄생한 자손들이 다시 혼혈로 얻은 자손을 보면 다산성, 지능,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제시하였다.⁶⁴ 특히 브로카는 켈트인이 게르만인보다는 단두형의 두개골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인종이 장신과 금발을 지녔다는 점에서 공통 조상에서 기원했다고 보고, 켈트인과 게르만인의 혼혈로 인해 형성된 프랑스인의 높은 출생률을 근거로 프랑스인의 생물학적 우월성을 증명하려 하였다.⁶⁵ 그리고 그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기간 동안 이들의 일파가 에스파냐에 도달했으나 그들의 신체적 특징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대 에스파냐인이 게르만인보다 열등하다고 간주하였다.⁶⁶

1871년 독일의 통일에 반대하던 프랑스의 생물학자 카트르파지(Armand de Quatrefages, 1810~1892)는 통일을 주도한 프로이센인의 본류가 문명인인 아리아인이 아닌 핀란드인과 슬라브인의 후예이며, 이들을 정복한 아리안계 튜튼 기사단이 후대 이들에게 인종적으로 흡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프로이센 출신의 의사 피르초프는 1876년 독일인의 인체측정치를 기반으로 프로이센인이 가장 완벽한 고대 아리아인 전사의 신체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반박하였다.⁶⁷

일본인의 기원과 혼혈에 대한 벨츠의 설명을 검토하면 그가 특히 브로카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벨츠는 “피부색이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북부 유럽인에 가까운 유럽인과 일본인의 혼혈아가 일본에서 가장

64 P. Broca, 1864, 위의 책, p. 29.

65 P. Broca, 1864, 위의 책, p. 10.

66 P. Broca, 1864, 위의 책, p. 17.

67 F. Schiller, 1979, *Paul Broca, Founder of French Anthropology, Explorer of the Brai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California Press, pp. 236~240.

아름다운 아이들”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⁸ 브로카는 지중해인에게 게르만인의 신체적인 특징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1881년 일본인 여성 도다 하나코(戸田花子, 1864~1937)와 결혼한 벨츠는 그 지중해인들에 비해 일본인이 보다 우월한 인종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벨츠는 일본인을 단일한 인종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1883년 벨츠는 자신이 측정한 일본인을 재분류하여 장신에 하얀 피부를 지닌 비교적 장두형의 초슈인(Chōshuaner)과 단신에 검은 피부, 그리고 단두형의 특징을 보이는 사쓰마인(Satsumaner)으로 구분하고, 일본인은 이 두 집단의 혼혈이라고 판단하였다.⁶⁹ 그는 사쓰마인을 정확하게 말레이인종과 닮은 몽골인종으로 정의하였지만, 초슈인의 인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몽골인종과는 다른 장두형이라고만 설명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의 조상이 바벨탑 사건 이후 형성된 집단이라고 생각한 캄퍼를 언급하며, 일본어가 속한 우랄-알타이어가 셈어파와 언어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초슈인의 조상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인(Akkadier), 혹은 문명의 중심지인 메소포타미아 인근에서 이주한 사람들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⁷⁰

특히 벨츠는 아카드인을 “문화민족(Kulturvolk)”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19세기 중후반 독일의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를 반영한 것이었다.⁷¹ 당시 클렘(Gustav Klemm, 1802~1867)과 같은 독일 민족주의 사상가들은 ‘민족(volk)’을 당대 독일인과 같이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문화민족과 무질서하며 수동적인 소위 무법상태의 야만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자연민족(Naturvolk)”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들의 능력이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⁷²

68 E. Baelz, 1885, 앞의 책, p. 6.

69 E. Baelz, 1883, 앞의 글, pp. 341~343.

70 E. Baelz, 1883, 위의 글, pp. 344~346.

71 E. Baelz, 1883, 위의 글, p. 345.

72 B. Trigger, 2006,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2~233.

벨츠는 사쓰마인을 자연민족이라 칭하지는 않았으나, 초슈인과 사쓰마인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유럽인과 비슷한 아름다운 신체를 지닌 초슈인의 경우 육체적으로 강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외교적 재주와 세련된 기교를 보여주며, 사쓰마인은 육체와 몸가짐이 투박하나 투쟁적이고 선량하며 정직하다”고 설명하며 사쓰마인 역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벨츠는 초슈번(長州藩)과 사쓰마번(薩摩藩)의 역사적인 대립을 알고 있었다. 이런 시각에서 강인한 육체를 지닌 사쓰마인을 과거로부터 훌륭한 무장, 즉 사무라이라고 보았고, 초슈인을 선천적으로 외교술이 뛰어나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존재로 보았다.⁷³

벨츠는 이 두 인간형을 당대 일본의 사회 계급과 연결하여 사쓰마인의 열등성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아카드인의 후예일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화족(華族) 가문과 부유한 부르주아를 “상위 계층(höheren Ständen)”으로 보고, 그 외 도시의 하층민과 사무라이를 비롯해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일본인은 말레이에서 기원한 이민자의 후손이라고 하였다.⁷⁴

심지어 벨츠는 천황가도 말레이 계열로 분류하였다. 이는 그가 초슈인과 사쓰마인 조상의 이주 순서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도니츠와 마찬가지로 벨츠는 일본 최초의 주민을 아이누인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신체적 특징은 소수의 일본인에게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중국 북부 및 한국의 상위 계층과 닮은 유럽인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몽골인이 한반도를 거쳐 이즈모(Idzumo, 出雲)에 상륙한 후 확산되었으며, 사서에 근대 일본인보다 풍성한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 진무천황으로 상징되는, 육체적으로 강인한 말레이인이 규슈에 상륙한 후 북진하여 일본을 정복했다는 것이다.⁷⁵

벨츠는 피정복자의 후손이자 신체적으로 약하고 비교적 순수한 초슈형의 신

73 E. Baelz, 1883, 앞의 글, p. 342.

74 E. Baelz, 1885, 앞의 책, p. 31.

75 E. Baelz, 1883, 앞의 글, p. 346.

체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일본의 상위 계층을 구성할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마토시대부터 가마쿠라 막부 시기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 때 패한 많은 기사들이 전국 각지로 이주했고, 이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사무라이이며, 승리자였던 최상위 무사인 다이묘의 후손이 당대 일본의 화족이라고 판단하였다.⁷⁶ 그리고 그는 초슈형의 육체가 사쓰마형보다 선천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고, 도쿠가와 막부가 이들을 억누르기 위해 실행한 정책과 양육법에 의해 후천적으로 퇴화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화족 조상의 신체가 강인했었음을 암시하였다.⁷⁷

또한 그는 일본인이 정복자인 말레이인의 언어가 아닌 피정복민의 언어인 우랄-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을 차지한 바이킹의 후예 노르만족이 프랑스어를 채용한 것과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⁷⁸ 이를 통해 그는 초슈인의 신체적·문화적 우월성을 증명하려 하였다. 즉, 문화민족이자 어쩌면 신체적으로도 사쓰마인들보다 더 우월했을 수도 있는 초슈인이 결국 최종 승리자라는 것이다.

벨츠가 제시한 일본인의 기원과 신체적 특징은 결국 캄퍼와 지볼트의 생각을 인종주의적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이다. 첫째, 캄퍼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그중에서도 상류층은 고대 문명의 기원지에서 분화된 집단의 직계 후손으로 중앙아시아와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상륙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단일기원론자였던 지볼트와는 다르게 하층인인 사쓰마인에 대해 초슈형의 퇴화형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그는 지볼트와 마찬가지로 초슈형의 신체는 아리아인에 가깝고, 이들은 선천적인 문화민족이며, 선주민 아이누인은 일본인과는 다른 인종이라고 하고, 일본인의 신체에서 이들의 특징은 아주 미약하게 나타난다고 주장

76 E. Baelz, 1883, 위의 글, pp. 342~343.

77 E. Baelz, 1885, 앞의 책, pp. 21~22.

78 E. Baelz, 1883, 앞의 글, p. 343.

하였다. 벨츠가 최종 정리한 일본인의 인종적 특징은 되니츠의 가설을 방대한 양의 인체측정치를 기반으로 하여 증명한 것이다. 결국 당시 서구의 과학적 방법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일본의 지식인들은 벨츠가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에 기반한 인종주의적 편견이 가득한 일본 인종에 대한 시각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V. 나오며

서구 문명의 무력에 의해 개항하고 불평등조약을 맺은 일본은 유신 이후 그들을 굴복시킨 서구의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근대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와중에 후쿠자와로 대표되는 계몽주의자들은 당대 인종 간의 우열이 반영된 서양의 지리서들을 번역하였고, 그 결과 벨츠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일본인이 인종적으로 서구인에 비해 열등하다는 사고가 일본에 확산되었다.

되니츠와 벨츠는 일본인의 인종적 특징과 기원을 독일어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게재한 독일동아박물학민족학협회의 협회지는 독일이 아닌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독일인 학자들이 요코하마에서 발간하고 있던 학술지였다. 특히 이 협회에는 독일인뿐만 아니라 가쓰라 다로(桂太郎, 1848~1913), 아오키 슈조(青木周蔵, 1844~1914), 미야케 히데(三宅秀, 1848~1938) 등 일본인 정치가와 학자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당대 일본 지식인들은 이 둘의 연구 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었다.

앞에 언급했듯이 오구마는 ‘18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학자들이 구미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일본인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은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벨츠가 소개한 인종론의 핵심은 신체는 정신을 반영하며 인종의 위계는 이에 따라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지식인들은 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서구 학자들이 제시한 소위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해 일본과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도쿄의학교에서 벨츠 밑에서 수학하고 독일 유학 후 귀국한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교수 코가네이 요시키요(小金井良精, 1859~1944)는 1887년 부산, 초량, 동래에서 수집한 4개의 조선인 두개골 표본에 대한 두개계수를 측정한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인체측정학에 기반한 체질인류학이 시작되었다. 당시 쓰보이는 선사시대 일본의 원주민이 ‘코로폭쿠루’라 주장하였다. 이에 코가네이는 아이누인의 신체측정치를 기반으로 예조의 아이누인이 일본에 최초로 도착한 종족의 후손이라 반박하면서 소위 코로폭쿠루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⁷⁹ 한편, 벨츠가 주장한 일본 인종 혼혈론은 1890년대 초반 도쿄 제국대학 국사과에 재직 중인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지지하던 고증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소위 ‘쿠메의 필화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⁸⁰ 당시 코로폭쿠루 논쟁과 일선동조론의 핵심은 바로 신체적 특징을 기반으로 인종을 분류한 후 선원사시대 일본에서 우월한 인종의 이주와 정복에 의해 열등한 인종의 소멸, 이주, 혼혈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인종 간의 우열성에 대한 벨츠의 영향은 단지 학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제2차 이토 내각의 농상부차관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郎, 1853~1942)는 영국의 사회진화론자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에게 보낸 1892년 8월 26일자 편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현재 우리(일본) 학자들과 정치인들을 몹시 뒤흔들고 있는”, “일본인과 외국인의 통혼”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⁸¹ 이는 일본인 거주지(内地)에 외국인의 거류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지잡거(内地雜居) 논쟁의 해결책을 스펜서에게 문의한 것이었다. 찬성론자인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 1855~1905)는 일본인이 이미 혼혈

79 박해운, 2023, 앞의 글, 112~113쪽.

80 세키네 히데유키, 2021,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와의 비교를 통한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의 한반도 도래인에 대한 인식」, 『동아시아고대학』 63, 404~406쪽.

81 D. David, 1908, *Life and Letters of Herbert Spencer*, London: Methuen & Co., pp. 322~323.

인종이며 정부 요인이나 화족들은 중국이나 조선에서 이주해 온 도래인이라 주장한 반면에, 반대파인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 1856~1944)는 일본인의 주류가 남양(南洋)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후손이며 조선이나 중국에서는 소수만 이주했기 때문에 일본인은 열등한 인종이라 반박하였다.⁸² 1901년에 일본인이 아리아인의 후손이라고까지 주장한 다구치에게 일본인의 주류는 화족, 즉 중국 북부와 한반도를 거쳐 들어온 사람들의 후예였다.⁸³ 따라서 이는 인종적으로 코카서스인과 비슷한 일본 상류층과 서양인의 혼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벨츠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일본인의 대다수가 열등한 말레이인의 후손이라 판단한 이노우에는 우열종의 이종교배에 의한 일본인의 소멸을 두려워한 것이다.

일본인의 인종적 열등감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인해 점차 변모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패망 때까지 일본의 인종적 관점은 서구의 인종관을 일본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즉, 모든 인종이 평등하다는 시각이 아니라, 일본이 점령한 지역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일본인의 타고난 우월성을 증명하고 서구인에 대한 열등의식(inferiority complex)을 인정하거나 극복하고자 하였다. 벨츠는 인종의 위계를 일본에 최초로 뿌리내리게 한 바로 장본인이었다. 그의 일본인에 대한 관점은 캠퍼, 지볼트, 되니츠가 제시한 일본인의 특징이 메이지시대 초기 일본인들이 객관적이라 생각했던 소위 과학적 방법론, 즉 인체측정학을 통해 구체화된 것이었다.

82 오구마 에이지 저, 조현설 역, 2003, 앞의 책, 68~67쪽; 井上哲次郎, 1889, 『内地雜居論』, 東京: 哲學書院, 9~16쪽.

83 李凱航, 2017, 「明治末期における言語学と人種論の交錯 - 森鷗外・田口卯吉・新村出・藤岡勝二をめぐって」, 『或問』, 31, 101~102쪽.

참고문헌

단행본

나가누마 미카코 지음, 김도형, 김태진, 박삼현, 박은영 옮김, 2015, 『번역된 근대: 문부
성 <백과전서>의 번역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오구마 에이지 저, 조현설 역, 2003,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高橋義雄, 1884, 『日本人種改良論』, 東京, 石川半次郎.
堀川建斎, 1872, 『地球産物雜志』, 東京, 和泉屋半兵衛.
福澤諭吉, 1926a, 「世界國盡」, 時事新報社 編, 『福沢全集』第二卷, 東京: 国民図書.
_____, 1926b, 「世界國盡付録」, 時事新報社 編, 『福沢全集』第二卷, 東京: 国民図書.
井上哲次郎, 1889, 『内地雜居論』, 東京: 哲學書院.

Baelz, E., 1885, *Die Körperlichen Eigenschaften der Japaner II. Teil*,
Yokohama, Buchdruckerei Des “Echo Du Japon”.
Baelz, T.(ed.), 1931, translated by Eden and Cedar Paul, *Awakening Japan: The
Diary of a German Doctor: Erwin Baelz*, New York: The Viking Press.
Bendyshe, T.(ed.), 1865, *The Anthropological Treatises of Blumenbach and
Hunter*, London: Longman, Green, Longman, Roberts, & Green.
Broca, P., 1864, *On the Phenomena of Hybridity in the Genus Homo*, London:
Longman, Green, Longman, & Roberts, Pathernoster Row.
Campbell, L., and W. J. Poser, 2008, *Language Classification: History and
Meth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per, P., 1821(1791), translated by T. Cogan, *The Work of the Late Professor
Camper,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Science of Amatory, and the Arts of
Drawing, Painting, Satuary & c.*, London: C. Dille.
David, D., 1908, *Life and Letters of Herbert Spencer*, London: Methuen & Co.

- Jackson, J. P., and N. M. Weidman, 2004, *Race, Racism, and Science: Social Impact and Interaction*, Santa Barbara: ABC-CLIO, Inc.
- Kaempfer, E., 1906(1727), translated by J. G. Scheuchzer, *The History of Japan Together with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1690-92*, Glasgow: James MacLehose and Sons.
- Latham, R. G., 1858, *Descriptive Ethnology* Vol. 1, London: John Van Voorst, Pathernnoster Row.
- Mitchell, A., 1865, *Mitchell's New School Geography: A System of Modern Geography, Physical, Political and Descriptive*, Philadelphia: H. Butler & Co.
- Plustschow, P., 2007, *Phillip Franz von Siebold and the Opening of Japan: A Re-evaluation*, Kent: Global Oriental Ltd.
- Rodrigues, J., 2001, translated by Cooper M., 2001, *João Rodrigues's Account of Sixteenth-Century Japan*, Bath: The Bath Press.
- Schiller, F., 1979, *Paul Broca, Founder of French Anthropology, Explorer of the Brai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California Press.
- Siebold, P. F., 1897a, *Nippon*(revised edition), Erster Band, Würzburg und Leipzig: Verlag der K. U. K Hofbuchhandlung von Leo Woerl.
- _____, 1897b, *Nippon*(revised edition), Erster Band, Würzburg und Leipzig: Verlag der K. U. K Hofbuchhandlung von Leo Woerl.
- Trigger, B., 2006,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

- 김연옥, 2017, 「세계지리교과서 『輿地誌略』에 보이는 문명관과 아시아인식」, 『일본역사연구』 45.
- 박해운, 2023, 「모스 대 밀른-일본 최초의 고고학 조사와 일본 인종 논쟁의 서막-」, 『사람』 84.
- 세키네 히데유키, 2021,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와의 비교를 통한 구로이타 가쓰미 [黒板勝美]의 한반도 도래인에 대한 인식」, 『동아시아고대학』 63.
- 하우봉, 2008, 「19세기 초 조선과 유럽의 만남-지볼트와 조선표류민의 교류를 중심으로

로-」, 『사학연구』 90.

竹沢泰子, 2019, 「研究ノート」明治期の地理教科書にみる人種・種・民族, 『人文學報』 114.

ウィルヘルム・チャンブル, ロベルト・チャンブル 編, 秋山恒太郎 譯, 1884~1885(1874), 「人種篇」, 文部省 摘訳, 『百科全書 中巻』, 東京: 丸善.

李凱航, 2017, 「明治末期における言語学と人種論の交錯-森鷗外・田口卯吉・新村出・藤岡勝二をめぐって」, 『或問』, 31.

Baelz, E., 1883, “Die Koerperlichen Eigenschaften der Japaner”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Band III (1880-1884), Heft 28.

Bowels, J., 1966, “Engelbert Kaempfer: Physician, Explorer, Scholar, and Author”,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21(3).

Chambers, W., and R. Chambers(eds.), 1867, “Physical History of Man-Ethnology”, *Chambers’s Information for the People*,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Co.

Cooper, M., 2001, “Introduction”, translated by Cooper, M., *João Rodrigues’s Account of Sixteenth-Century Japan*, Bath: The Bath Press.

Doenitz, F. K. W., 1874, “Bemerkungen über Aino’s”, In: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Band I (1873-1876), Heft 6.

_____, 1875, “Über die Abstammung der Japaner” In: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Band I (1873-1876), Heft 8.

_____, 1876, “Über drei verschiedene Typen unter Japanerschädeln”,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Band II (1876-1880), Heft 12.

Grindle, N., 1997, “Our own imperfect knowledge: Petrus Camper and the search from an “ideal form””, *RES: Anthropology and Aesthetics*, 31.

- Hiki, S., and Hiki Y., “Siebold as Surgeon, Physician and Medical Teacher in Japan”, In A. Thiede, Y. Hiki, and G. Keil(eds.), *Philipp Franz von Siebold and His Era*, Heidelberg: Springer.
- Koganei Y., 1888, “Uber vier Koreanerschadel”, *Mitt. d. med. Fak. d. Kaiserl. Univ. Tokyo*, 1, Bd 2, Heft.
- Kower, R., 2000, “‘Lighter than Yellow, but not Enough’: Western Discourse on the Japanese ‘Race’, 1854–1904”, *The Historical Journal*, 43(1).
- Ma, E., 1959, “Japan’s Encounter with Western Medical Science: “The Beginning of Dutch Study,” Being the Memoirs of an 18th-Century Doctor”,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33.
- Park, S., 2000, “The Introduction of Western Science in Korea: A Comparative View with the Cases of China and Japan”, *Northeast Asian Studies* 4.
- Scheuchzer, J. G., 1906, “The Life of the Author”, E. Kaempfer., translated by J. G. Scheuchzer, *The History of Japan Together with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1690–92*, Glasgow, James MacLehose and Sons.
- Wolfgang, M., 2011, “Glimpses of medicine in early Japanese–German intercourse”, 日本国際医学協会 編, 『黎明期の日本近代医学・薬学』, 東京: 日本国際医学協会.

근대 초기 서양인들의 일본 인종론과 그 영향에 대한 시론

— 일본 주재 독일 의사들의 연구와 메이지시대 초기 번역서를 중심으로 —

박해운

1868년 메이지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은 서구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 1860년대 말에서 1870년대 초 일본의 계몽론자들은 서구의 지리서를 번역하여 일본인들에게 소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고 있던 인체측정학을 바탕으로 한 소위 과학적 인종주의가 일본 사회에 유입되었다. 1880년대 일본지식인들은 당대 일본인이 서양인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열등한 인종이며 일본인의 조상이 단일 인종이 아닌 중국 동북지방에서 출발하여 한반도를 거쳐 온 집단과 말레이 지방에서 출발하여 중국 동남부 해안을 따라 이주한 사람들의 혼혈인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사고는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가 아니라 당시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벨츠가 제시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벨츠가 제시한 일본인의 기원과 일본 인종의 열등성에 대한 설명 역시 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에도시대가 나가사키 데지마에 거주하며 일본인을 관찰한 독일인 의사 캠퍼와 지볼트가 기록한 내용과 메이지시대 초기 도쿄의학교 해부학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독일인 의사 되니츠가 제기한 가설을 실제 일본인의 신체를 측정하여 증명하려 한

것이였다. 당시 서구의 과학적 방법론이 객관적 사실을 담보한다고 믿었던 일본인들은 벨츠의 인종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우열을 기반으로 한 인종주의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할 때까지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였다.

주제어: 일본인의 기원, 인종의 위계, 과학적 인종주의, 인체측정학, 캠퍼, 지볼트, 도니츠, 벨츠

ABSTRACT

Examinations of the Early Modern Western Theories of the Japanese Race and the Introductory Study of Their Effects: Focusing on the Research of the German Doctors in Japan and the Translated Geographic Books in the Early Meiji Period

Park Haewoon

After the Meiji Restoration in 1868, the Japanese government pursued “Enrich the Country, Strengthen the Armed Forces” through the westernization. In the late 1860s and early 1870s, Japanese enlightenment thinkers introduced so-called the scientific racism based on anthropometry to the Japanese by translating western geographic books. In 1880s, Japanese intellectuals thought that the Japanese were physically and mentally inferior race than Westerners, and that their ancestor was not the homogeneous race but the mixed race of people migrated from northeastern China via the Korean Peninsula and Malay along the southeast coast of China. However, their mind was not based on the study of Japanese scholars, but on the contents of articles

presented by Baelz, a German doctor who was the professor at the Imperial University Medical College at the time. However, Baelz' explanation of the origin of the Japanese and the inferiority of the Japanese race was not his own idea. He tried to prove the physical and 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race observed by Kaempfer and Siebold, German doctors who resided in Dejima in Nagasaki in the Edo Period, and the hypothesis raised by Doenitz, a German doctor who was the professor of Anatomy at Tokyo Medical School in the early Meiji Period. At that time, the Japanese, who believed that Western scientific methodology guaranteed objective facts, uncritically accepted Baelz' view of race. Moreover, the racism, based on physical and mental characteristics, served as an ideology that dominated the Japanese society by the end of World War II.

Keywords: origin of the Japanese, racial hierarchy, scientific racism, anthropometry, Engelbert Kaempfer, Philipp Franz von Siebold, Friedrich Doenitz, Erwin Baelz

1920년 북간도에서의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

김경준 |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II. 대한군무도독부 결성과 온성 작전

III. 대한북로독군부 성립과 봉오동 전투

IV. 북로독군부 해체와 러시아 이동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의 해’ 선포 후 우리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로 평가받는 ‘봉오동 전투’는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 및 신민단(新民團) 등 북간도 지역에 산재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벌인 전투였다. 그리고 최진동(崔振東)은 대한북로독군부의 수장으로서 봉오동 전투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다.¹

그러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이끈 전투’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는 듯하다.² 사실 봉오동 전투 당시의 활약뿐만 아니라 최진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홍범도에 비해 대중들에게는 낯선 것이 사실이다. 학계에서도 봉오동 전투 및 홍범도에 대한 연구 성과가 꾸준히 이뤄져온 반면에,³ 최

* 투고: 2023년 7월 14일, 심사 완료: 2023년 8월 16일, 재심사 완료: 2023년 11월 13일, 게재 확정: 2023년 11월 17일

** 이 글은 2022년 12월 9일 (사)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주최로 개최된 ‘홍범도 장군 순국 79주기 및 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 전승 102주년 기념 학술회의-홍범도와 그의 동지들(2)’에서 발표한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이상훈, 2020, 「‘봉오동부근전투상보’를 통해 본 봉오동전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7쪽; 장세운, 2021,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 선인, 235~237쪽; 김용진, 2022, 「남만주(南滿州) 독립군의 ‘국내진 공작전’에 대한 시론적 검토: 이진무(李振武)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 45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38쪽.

2 2019년에 개봉한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도 홍범도(洪範圖) 장군이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등장하면서 전투를 홍범도 홀로 지휘한 것처럼 묘사된 바 있다.

3 최근 5년 사이 봉오동 전투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주백, 2018a, 「봉오동전투에 관한 기억의 流動과 새로운 기억을 향한 접근-지역으로서 동북아와 근원적 사실을 향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신주백, 2018b, 「석고화한 기억의 재구성 and 봉오동전투의 배경」, 『만주연구』 26, 만주학회; 신주백, 2019,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다시 보기」, 『역사비평』 127, 역사비평사; 이상훈, 2020, 앞의 글; 장세운, 2021, 「1920년 봉오동전투와

진동에 관한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 이는 최진동의 친일 의혹으로 인한 터부(Taboo)가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⁴

최진동에 관한 최초의 연구 성과물은 2006년 연변 학자들에 의해 발간된 『최진동장군』이다.⁵ 이 책은 최진동의 삶을 전기(傳記) 형식으로 정리했다. 그의 출생과 성장배경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최진동의 삶을 가장 자세히 다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진동 중심의 서술로 인해 오히려 그의 역할이 과장 서술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⁶ 따라서 책에서 언급되는 최진동의 공적이나 활동에 대해 보다 엄밀

청산리독립전쟁의 주요 쟁점 검토」, 『재외한인연구』 54, 재외한인학회; 조필균, 2021, 「봉오동·청산리 독립전쟁의 군사사학적 고찰」, 『한국군사학논총』 19, 미래군사학회; 김영환, 2023, 「군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봉오동 독립전쟁 당시 독립군 지휘권에 관한 고찰」,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제8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임철균, 2023, 「군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봉오동 독립전쟁 당시 독립군과 일본군 전투 수행」,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제8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홍범도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장세운, 2007,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의 독립전쟁』, 역사공간; 김주용, 2014, 「홍범도의 항일무장투쟁과 역사적 의의」, 『한국학연구』 32,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반병률, 2014, 『홍범도 장군-자서전 홍범도 일지와 항일무장투쟁』, 한울; 윤상원, 2017, 「홍범도의 러시아 적군 활동과 자유시사변」, 『한국사연구』 178, 한국사연구회).

4 말년의 그는 일본 관동군(關東軍) 간도 선무부(宣撫部) 도문본부 부장 이기권(李基權)과 함께 귀순 공작에 앞장서는 등 완전히 변절하여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최진동」(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사료건 ACN011_36_01C0000_123; https://archive.history.go.kr/id/ACN011_36_01C0000_123).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는 최진동의 친일 혐의에 대한 반박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최진동이 관동군에 협조했다는 기록에 대해 장우순은 “그(최진동-인용자 주)는 병마로 인해 선무공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최진동에게 덧씌워진 부역 혐의를 일제의 조작이라 주장한 바 있다(장우순, 2022, 「대한북로독군부 총사령관 최진동의 생애와 친일 논쟁」,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제7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130쪽).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문헌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5 김춘선·안화춘·허영길, 2006, 『최진동장군』,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6 예컨대 1920년 2월 2,000여 명이나 되는 최진동 등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회령의 일본군 군영을 기습하여 300명의 전사자를 내고 400명을 패퇴시켰다고 하는데 후

한 검토가 요구된다.

장우순은 최진동의 생애를 성장기-애국계몽운동기-무장항일투쟁기-수감 및 평화적 민족운동기로 정리했다.⁷ 최진동의 삶과 민족운동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최진동 연구에 또 한 번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최진동장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소 과장된 서술이 보이며, 그의 삶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시기별 혹은 사건별로 최진동의 삶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진동 형제가 봉오동을 독립군 근거지로 일궈나가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다.⁸ 해당 연구들에서는 최진동 형제가 가산을 털어 봉오동을 개척하고, 대한군무도독부·대한북로독군부를 조직하게 되는 과정을 정리했다. 특히 봉오동 전투의 현장이라는 규정을 넘어 독립군 무장기지로써 봉오동의 성격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 북간도 지역 독립군 통합과 분열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과 등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최진동과 당시 북간도 지역 독립군 지도자들 사이의 통합과 갈등 양상을 엿볼 수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최진동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유추해볼 수 있게 됐다.⁹

술하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또 3월의 ‘온성 작전’ 당시 최진동 부대가 참전한 것은 맞지만 모든 전투를 최진동이 지휘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미산 현병감시소 습격을 주도한 것은 ‘양하청(梁河淸) 부대’였다. 그러나 이 역시 최진동이 지휘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당시 현병감시소의 전화선이 탄환에 맞아 끊어진 것 역시 최진동의 사격 솜씨 때문이었다고 하는 등 그에 대한 영웅적 묘사에 치중한 나머지 근거 없는 주장들이 다소 등장하고 있다.

7 장우순, 2022, 앞의 글.

8 신주백, 2018b, 앞의 글; 이계형, 2022, 「1910~1920년대 북간도 봉오동 개척과 독립군 근거지로 변모 과정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영환, 2022, 「독립군 무장기지 ‘봉오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평가-최진동·최운산 형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54, 육군군사연구소.

9 반병률, 2014, 앞의 책; 오세호, 2021, 「1920년 독립전쟁’ 시기 독립군들의 동향 재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96, 한국근현대사학회.

이처럼 최진동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진척을 이루고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다. 1920년 전후로 두만강 일대에서 줄기차게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만큼 그의 삶과 민족운동을 상세하게 규명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학계 일각에서 ‘봉오동 전투 당시 지휘관이 누구였는가’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홍범도가 아닌 최진동이야말로 봉오동 전투를 이끈 총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¹⁰ 봉오동 전투 당시 실질적 군사지휘관은 홍범도였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¹¹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1920년 독립군 사령관으로서 최진동이 북간도 지역(두만강 일대)에서 전개했던 항일무장투쟁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그가 이끌었던 대한군무도독부·대한북로독군부·대한총군부 등의 결성과 해체 과정을 살펴 보면서 독립군 사령관으로서 그가 수행한 항일무장투쟁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다만 봉오동 전투의 전개 과정 및 전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선행 연구가 축적됐기에 이 글에서는 굳이 해당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려 한다. 대신 기존 연구가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한 홍범도와 최진동 사이의 지휘권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봉오동 전투 당시 신민단을 이끌고 참전했던 박승길의 구술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¹² 해당 자료는 봉오동 전투 참전자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봉오동 전투의 배경 및 전개 등을 살펴보고자 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해당 자료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재검토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10 김영환, 2023, 앞의 글.

11 장세운, 2021, 앞의 책, 165쪽.

12 박승길 구술, 박원일 대필, 2018, 『간도독립군약사』, 『희산 김승학 선생 독립운동 자료 정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II. 대한군무도독부 결성과 온성 작전

1. 대한군무도독부의 성립

최진동은 1883년 함경북도(咸鏡北道) 온성군(穩城郡) 영와면(永瓦面)에서 최우삼(崔友三)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최명록(崔明錄)인데 중국으로 귀화한 뒤 최희(崔喜) 혹은 최진동(崔振東)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한다.¹³

최진동이 태어났을 무렵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에서는 삼정의 문란 등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청나라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청나라 정부 역시 간도 지역에 대한 봉금(封禁)을 해제하고 조선인들의 이주를 허용하는 이른바 이민실변(移民實邊)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간도 일대에서는 조선인들에 의한 개척이 이뤄지기 시작했다.¹⁴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1884년 무렵 최우삼 일가도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로 이주하여 연길(延吉) 국자가(局子街)에 정착했다.¹⁵ 동남로변무공서(東南路邊務公署) 왕청현독찰(汪淸縣督察)에 취직한 최우삼은 봉오동(鳳梧洞) 일대의 미개간지를 사들여 가산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편, 장남 최진동을 점산호(占山戶)¹⁶인 허춘빈(許春彬)의 양자로 보냈다. 한국말과 중국말에 능통했던 최진동은 왕청현공서 토지관의 눈에 띄어 통역으로 발탁됐는데, 이때부터 간도

13 박승길 구술, 박원일 대필, 2018, 앞의 책, 68쪽; 김춘선·안화춘·허영길, 2006, 앞의 책, 10쪽; 그의 출생연월일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다르다.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1882년 7월 17일생으로 나타난다. 『최진동장군』에는 1883년생으로, 군사편찬위원회에 소장 중인 「최진동」(사료건 ACN011_36_01C0000_123)에는 1887년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최운산이 1885년생이므로 1887년생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다(최성주, 2020, 『최운산, 봉오동의 기억』, 필로소픽, 91쪽).

14 김춘선·안화춘·허영길, 2006, 앞의 책, 12~14쪽.

15 김영환, 2022, 앞의 글, 37쪽.

16 중국인 대지주를 의미함.

로 이주해 온 조선인 농민들이 중국인 지주의 땅을 소작하거나 토지를 구입할 때 중개인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북간도 한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¹⁷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1915년 7월 최진동은 왕청현 춘화사(春化社) 간민사무소(懇民事務所)의 사장(社長)으로 임명됐다.¹⁸ 최진동은 조선인 이주민들의 토지 매매와 임대를 중재하는 한편 봉오동 일대의 땅을 매입하면서 지주로 성장했다.¹⁹

봉오동은 서쪽으로 연길과 통하고 남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함경북도 6진과 마주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혼춘(琿春)을 거쳐 러시아 국경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고려령(高麗嶺)의 험한 산줄기와 산봉우리들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다.²⁰

최진동은 일찌감치 봉오동 일대를 무장독립운동을 위한 기지로 조성하고자 했던 것 같다. 1911년 6월 무렵 봉위동(蓬葦洞: 봉오동의 오기로 보임-인용자 주) 최진동의 집에 러시아 지역 의병들이 찾아와 곧 러시아에서 의병 수백 명이 올 터이니 음식 준비를 부탁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²¹

17 김춘선·안화춘·허영길, 2006, 앞의 책, 7~18쪽; 한편, 이에 대해 다소 엇갈리는 기록이 있다. 「최진동」(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사료건 ACN011_36_01C0000_123)에 의하면 최우삼 일가는 식솔이 많고 가세가 빈한하여 어린 최진동이 ‘허가’라고 하는 중국인 지주에게 방목꾼(머슴)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일을 시켜보니 중국말도 곧잘 하고 총명하고 담대하여 그를 양아들로 삼고 중국 국적으로 귀화시켰다 한다. 아들을 중국인 지주의 양자로 보냈다는 점에서 최우삼이 이 시기에 봉오동 일대의 땅을 매입하며 가산을 불릴 정도로 재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18 在間島 總領事代理領事, 「間島ニ於ケル支那官公署ニ就職セル鮮人名簿送附ノ件」(1916.12.4), 국사편찬위원회, 200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0.

19 김춘선·안화춘·허영길, 2006, 앞의 책, 19쪽; 한편 봉오동 일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진동의 다른 형제들 역시 크게 기여했다 전해진다. 즉 최진동 형제(최진동·최운산·최치홍)가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봉오동을 독립군 기지로 발전시켜나갔다는 것이다(이강훈, 1975, 『武裝獨立運動史』, 서문당, 67쪽).

20 김춘선·안화춘·허영길, 2006, 앞의 책, 82쪽.

21 間島 吉田 大尉, 「暴徒ノ行動ニ關スル件」(1911.6.12.), 국사편찬위원회, 2003.

이는 최진동이 어린 시절에 중국 국적으로 귀화하여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식민지로 전락한 모국에 대한 애국심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일제 첩보에 의하면 최진동은 1912년 북간도 지역 한인 자치조직인 왕청현 간민회(懇民會) 부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는데, 일제의 표현을 빌리면 극단적인 배일파(排日派)로서 각 지방을 배회하며 배일사상을 고무하고 다니므로 일제가 경계하는 요주의 인물이었다.²²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3월 26일 북간도 지역에서도 조선인 약 200명, 중국인 약 100명가량이 참여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일제는 해당 시위운동의 수괴자 중 한 명으로 최진동을 지목했다.²³ 이를 계기로 최진동은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다. 이 무렵 그는 중국 육군에서 배장(排長)²⁴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1919년 5월 관직을 사임한 뒤 봉오동으로 돌아와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항상 피스톨(권총)을 휴대한 채 낮에는 사냥을 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부하들로 하여금 병기를 휴대하고 밤새 파수를 세우며 대안(對岸) 일대의 땅에서 배일학교(排日學校)를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 자금 모금에 몰두했다. 또 항상 “조선 내 헌병주재소는 약 50인으로써 공격하면 능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총기의 매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일제는 최진동을 ‘격렬한 배일자’로 규정하며 경계했다.²⁵ 한편 최진동은 유순대(遊巡隊) 대관(隊官) 겸 총계사(總稽查)로서 한인 무장단체들의 활동을 비호하면서 그들이 중·일 양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²⁶ 그는 공교도(孔敎徒)들이 조직한 항일무장단체 광복단(光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9.

22 堺與三吉, 「横尾警部に 대한 排日 鮮人の 言動報告 寫本送付의 건」(1914.7.20.).

23 上林敬次郎, 「騷擾事件ニ關スル件」(1919.4.6.).

24 일본군의 소대장(小隊長)급.

25 咸鏡北道長官, 「地方騷擾ニ關スル件」(1919.5.24.).

26 秋洲郁三郎, 「決死隊의 入鮮道路에 관한 건」(1919.10.4.); 최진동이 말았다는

復團)의 단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1920년 1월 무렵 사임하고 고문이 되었다.²⁷

1919년에서 1920년 사이 최진동은 봉오동에서 형제들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군대인 ‘대한군무도독부(大韓軍務都督府)’를 창설했다. 최진동이 사령관이 되고 동생들은 참모 역할을 맡았다.²⁸

다만 군무도독부의 성립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창설 시기에 대해서는 ‘1919년 창설론’,²⁹ ‘1920년 창설론’³⁰ 등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김춘선 등이 집필한 『최진동장군』은 바로 앞에서 도독부의 성립 시기를 1920년이라고 설명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서술을 하고 있으며,³¹ 1920년 창설론의 경우도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³²

최진동의 옛 부하들이 일제에 피체됐을 당시 그들의 예심 결과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1920년 1월에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에 합류했다는 기록이

유순대 대관 겸 총계사라는 직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7 間島派遣員, 「國外情報: 琿春縣下ニ於ケル義勇團ノ横行ニ關スル件」(1920.1. 30.); 최진동의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노선상의 차이’로 인한 사임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광복단은 공화제를 반대하고 전제군주제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복벽주의 단체였다(반병률, 2009,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23~124쪽). 그러나 최진동은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 단체 통합운동에 참여했는데, 그가 복벽주의자였다면 임시정부가 주도하는 통합운동에 참여했을 리가 없다.

28 이강훈, 1975, 앞의 책, 67쪽.

29 김춘선·안화춘·허영길, 2006, 앞의 책, 266쪽.

30 이숙화, 2019, 「1910~1920년대 북간도지역의 독립군단체 조직 및 상호관계」, 『대한군무도독부 창설 10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40쪽; 이계형, 2022, 앞의 글, 23쪽.

31 김춘선·안화춘·허영길, 2006, 앞의 책, 83쪽.

32 이숙화는 최진동이 광복단장을 사임한 뒤 1920년 2월경 도독부를 설립했다고 주장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계형은 김춘선 등이 집필한 『최진동장군』을 인용하여 1920년 설립을 주장했기에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이숙화, 2019, 위의 글, 40쪽; 이계형, 2022, 앞의 글, 23쪽).

있다. 일제가 생산한 기록들에서도 1920년 이후에나 도독부의 존재가 언급된다.³³ 따라서 창립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1919년 연말에서 1920년 연초 사이에 조직된 게 아닌가 한다.

일제 기록에 의하면 군무도독부 장병들은 과거 최진동이 단장을 맡았던 광복단과 동일하게 공교도들이 중심이 되었고 대원은 약 100여 명에 이른 것 같다.³⁴ 과거 광복단 단장을 역임하며 거느렸던 부하들과 일찌감치 봉오동의 무장기지를 추진하며 양성했던 사병들이 모여 군무도독부의 병력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첫 국내진공작전, 온성 작전

무장투쟁을 결심한 최진동은 1919년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두만강의 물이 어는 결빙기(結氷期)가 오면 국내진공작전을 실시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1919년 8월 이래 두만강 일대에서는 대안 중국령에 주둔하고 있는 독립군 단체들이 결빙기를 이용, 도강하여 조선 내지를 습격한다는 풍문이 파다했다.

두만강 맞은 편에 있는 그들의 두목 홍범도(洪範圖), 구춘선(具春先), 서일(徐一), 최명록(崔明錄), 양하청(梁河淸) 등은 얼음 얼을 때가 오기만 하면 조선 내지를 음습할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작년 팔월 이래로 소위 군자금의 필요를 말하고 지나 방면에 이주하여 사는 조선사람은 물론이요, 조선 내

33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國外情報-國境地方 不逞鮮人 動靜」(1920.3.23.); 「一光軍豫審 間島事終結」, 『매일신보』, 1927.12.12.

34 朝鮮總督府 警務局 高等警察課, 「間島地方 韓族獨立運動 機關의 所在 및 首腦者 名單」(1920.3.16.); 경상북도 경찰부, 1934, 『고등경찰요사』, 113쪽; 다만 『고등경찰요사』에서는 군무도독부 병력이 600~700명에 이르렀다고 기록했는데, 훗날 대한북로독군부 출범 당시 군무도독부와 국민회 병력이 모두 280명이었다는 기록을 고려해보면 이는 잘못된 숫자로 보인다(국가보훈처, 1997, 『北間島 지역 獨立軍團名簿』, 257~258쪽).

지에도 비밀히 사람을 보내어서 돈내이기를 강성한 곳도 있었더라.³⁵

두만강 대안의 독립군이 주로 노린 지역은 온성이었다. 함경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온성은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화룡(和龍)·혼춘(琿春)·왕청(汪清) 등과 마주하고 있었다. 주로 이 3개 현(縣)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군에게 온성은 치고 빠지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었다.

결빙기가 오자 1920년 1~3월 사이 온성 지역으로 독립군의 침습이 빈번하게 벌어졌다.³⁶ 그러나 3월 초까지만 해도 10명 이하의 소단위 침투였고, 되도록 일제 군경과의 교전을 피하면서 군자금 모금 활동만 수행한 뒤 철수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³⁷

한편, 『최진동장군』에 의하면 1920년 2월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를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 2,000여 명이 회령(會寧)의 일본군 진영을 기습 점령했는데 이때 일본군 전사자가 300명에 달하고 400명이 패주했다고 한다.³⁸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 자료는 『독립신문』 1920년 2월 17일자 기사가 유일하다.³⁹ 하지만 해당 기사 외에 어디에도 이만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음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회령 전투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독립군이 본격적으로 부대 단위로 기습하여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는 양상이 시작된 것은 3월 중순에 이르러서였다. 3월 15일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의 ‘풍리동 전투’가 그 서막이었다.

이날 저녁 8~9시경 최진동이 이끄는 200여 명의 군무도독부 군사가 온성을 기습했다. 봉오동에서 출발한 이들은 관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산간의 셋

35 「武裝團體의 穩城郡 侵入」, 『동아일보』, 1920.5.1.

36 齋藤(朝鮮總督), 「不逞鮮人 侵入 一覽」(1920.3.29.).

37 齋藤(朝鮮總督), 「不逞鮮人 侵入 一覽」(1920.3.29.).

38 김춘선·안화춘·허영길, 2006, 앞의 책, 96쪽.

39 「獨立軍勝捷」, 『독립신문』, 1920.2.17.

〈표 1〉 1920년 1월~3월 초 사이 독립군의 온성 지역 침투 현황

일시	장소	인원	성과	소속	비고
1월 22일	유포면(柔浦面) 세선동(世仙洞)	10명	夜警 2명을 포박 후 군자금 강탈	未詳	
	영충면(永忠面) 영충동(永忠洞)	4명		未詳	교전 없었음
1월 25일	유포면 풍서동(豐西洞)	6명	군자금 획득	未詳	교전 없었음
1월 26일	유포면 아츠크우洞	6명	군자금 획득	未詳	교전 없었음
1월 27일	유포면 세선동	8명	군자금 획득	未詳	교전 없었음
3월 5일	온성면(穩城面) 심청동(深淸洞)	9명		未詳	교전 없었음
3월 11일	유포면 남양동(南陽洞)	9명	군자금 획득	未詳	교전 없었음

출처: 齋藤(朝鮮總督), 1920.3.29, 「不逞鮮人 侵入 一覽」,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15.

길로 이동했으며 아직 녹지 않은 두만강 위를 그대로 도강하여 온성군 유포면(柔浦面) 풍리동(豐利洞)까지 진격했다.

풍리동에는 일본 경찰관 주재소가 위치하고 있었다. 풍리동을 습격한 최진동 부대는 주재소를 포위한 채 관헌들의 출동을 막고, 그 사이 민가에 가서 군자금(露貨 300루블·日貨 8엔)을 모금했다. 당시 주재소에서는 조선인 야경(夜警) 2명을 인근 남양동(南陽洞)의 주재소로 파견하여 응원을 요청했다. 명령을 받고 남양동 주재소로 급히 달려가던 야경 2명은 미리 매복하고 있던 독립군의 기습 사격을 받았다. 이때 야경 김계풍(金桂豐)이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⁴⁰

40 在間島總領事代理, 「穩城對岸方面 支那軍隊 및 鮮人騷擾 視察 復命의 件」(1920.4.22.);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4.28.); 1920년 5월 6일 함경북도지사는 이때 전사한 야경의 유족에게 구휼비 명목으로 500원을 지급했는데,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서는 사망한 야경의 이름이 '김계풍(金桂豐)'으로 나온다. 그런데 당시 야경을 사살한 혐의로 피체된 박태완(朴泰完)에 대한 공판 소식을 보도한 1926년 4월 25일자 기사에서는 해당 야경의 이름이 '김주풍(金柱豐)'으로 등장한다. 사건 직후 보도된 이름이 정확한 명칭이라 판단하여 김계풍이라 표기했다(「夜警團功勞者 유족에게 오복원」, 『조선일보』, 1920.5.26; 「山麓에서 망을 보다 密告者를 銃殺」, 『동아일보』, 1926.4.25).

당시 풍리동 주재소에는 조선인 순사 4명이 있었는데 1시간 동안이나 교전한 끝에 독립군을 격퇴했다고 한다. 일제는 “즉시 응전하여 격퇴했으나 촌민에 위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충분한 행동을 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해를 주지 못한 것 같다”고 기록했다. 해당 기록을 그대로 따른다면 독립군 측의 사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풍리동에 침입한 군무도독부 독립군들은 러시아 신식(新式)·구식(舊式) 5연발 총과 일본 38식 소총 등으로 무장했고, 모두 흑색(黑色) 중국옷(支那服)을 입고 있었다.⁴¹

이어서 3월 18일 오전 1시경 양하청(梁河淸)이 이끄는 50여 명의 독립군이 온성을 기습했다. 이들은 둘로 나뉘어 20명은 미포면(美浦面) 장덕동(長德洞)을, 30명은 월파동(月坡洞)과 풍교동(豐橋洞)을 습격했다.⁴² 둘로 나뉜 부대는 아침 6시경 다시 합류하여 한 무리를 이룬 뒤 미산(美山)⁴³ 현병감시소를 습격하여 40~50분간 교전 끝에 혼춘 방면으로 철수했다.⁴⁴

18일 오전 9시 30분경 부하 2명을 이끌고 말을 탄 채 유포면 향당동(香棠洞)⁴⁵

41 在間島總領事代理, 「穩城對岸方面 支那軍隊 및 鮮人騷擾 視察 復命의 件」(1920. 4.22.);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4.28.).

42 在間島總領事代理, 「穩城對岸方面 支那軍隊 및 鮮人騷擾 視察 復命의 件」(1920. 4.22.).

43 일부 문건에서는 미점(美占)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러 문헌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미산을 가리키는 듯하다[在間島總領事代理, 「穩城對岸方面 支那軍隊 및 鮮人騷擾 視察 復命의 件」(1920.4.22.);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4.28.)].

44 在間島總領事代理, 「穩城對岸方面 支那軍隊 및 鮮人騷擾 視察 復命의 件」(1920.4.22.); 「武裝團體의 穩城郡 侵入」, 『동아일보』, 1920.5.1; 양하청 부대의 미산 현병감시소 습격에 대해서는 신호승이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신호승, 2021, 「3.1운동 후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온성전투의 전개와 일본군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45 사건 직후 함북지사가 발송한 전보에 의하면 ‘세선동(世仙洞)’이라 알려졌으나, 이 후 발표된 보고서 및 기사에서는 모두 향당동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향당동이 맞는 것 같다[警務局長, 「不逞鮮人侵入兇行의 件」(1920.3.19.);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4.28.); 「武裝團體의 穩城郡 侵入」, 『동아일보』, 1920.5.1.].

을 기습한 최진동은 일경과 교전 끝에 총상을 입고 퇴각했다.⁴⁶ 이어서 오전 10시경 유포면 풍서동(豊西洞)에 최진동 부대로 추정되는 30명의 독립군이 침입했지만 일경의 응전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퇴각했다.⁴⁷

온성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독립군의 무력 행동에 일제도 비상이 걸렸다. 함경북도 제3부장(경찰부장)⁴⁸이 경찰관 50여 명을 이끌고 출동했고 중성(鍾城)에서 일본군 1개 중대도 급히 출동했다.⁴⁹ 그러나 이미 독립군은 대안으로 철수한 뒤였다. 철수한 독립군은 이날 저녁 5시경 다시 온성 대안 양수천자(涼水泉子) 부근에서 또다시 강을 넘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대략 200명 정도였다. 그러나 18일 오전의 전투로 인해 국경 경비가 강화되어 온성 부근에는 이미 경찰 30명·헌병 13명·군대 26명이 배치, 경계 중이었다. 이에 독립군은 월강을 포기하고 후퇴했다.⁵⁰

15·18일에 걸친 독립군의 공습에 놀란 일제는 3월 20일경 온성 부근 일대에 병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회령수비대에서 중대장 이하 65명을 중성으로, 중성수비대로부터 중대장 이하 40명을 온성으로 증원하고 하사지(下社地)·유원진(柔遠鎭)·남양동·미산 등 온성 부근 각지에 각 하사 이

46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4.28.).

47 警務局長, 「不逞鮮人侵入兇行의 件」(1920.3.19.); 해당 인원들 역시 최진동 부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에 의하면 18일 오전 9시 반경 대안에 있던 불령선인 약 30명 중 3명(최진동 포함)이 향당동에 들어왔다가 최진동이 부상을 입고 퇴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풍서동에 30명의 독립군이 기습했다는 점에 비춰보아 해당 부대는 건너지 않았던 최진동 부대의 잔여 병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된다.

48 이때 함경북도 제3부장의 이름은 도미나가 가즈지(富永一二)로 확인된다(「조선총독부 직원록」).

49 警務局長, 「不逞鮮人侵入兇行의 件」(1920.3.19.).

50 政務總監, 「對岸 不逞鮮人의 來襲」(1920.3.21.);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4.28.); 1920년 5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헌병의 수가 3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武裝團體의 穩城郡 侵入」, 『동아일보』, 1920.5.1.).

하 10명씩의 소부대를 배치한 것이다.⁵¹

온성 부근의 병력 증원으로 독립군의 국내 진공은 어려움을 맞게 됐다. 실제로 26일 저녁 8~9시경 최진동 부대는 50여 명의 인원을 이끌고 상탄동(上灘洞)을 거쳐 남양동(하탄동)에 침입하여, 하탄(下灘) 헌병감시소를 향해 사격을 개시했으나 교전 20분 만에 퇴각했다.

이때 마침 출장 중이었던 함경북도 제3부장은 직접 경찰대를 지휘하여 독립군에 응전했는데, 헌병대 및 수비대까지 가세했다. 교전 끝에 독립군이 물러가자 일제는 “우리에게는 하등의 사상(死傷)이 없고 그들의 사상은 불명(不明)이지만 적어도 중상(重傷) 1명, 경상(輕傷) 3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여 성공적으로 독립군을 패퇴시켰다고 기록했다.⁵²

이튿날인 27일 저녁 8시 30분경에도 두만강 대안에서 남양동을 향해 수차례 사격을 개시했으나 건너편 일제의 경비가 삼엄하므로 독립군은 도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⁵³

온성 작전 당시 15일 풍리동·18일 향당동·26일 남양동을 습격한 부대는 최진동 부대였고 18일 장덕·월파·풍교·미산 등지를 습격한 부대는 양하청 부대였다.⁵⁴ 당시 독립군이 입고 있던 군복의 비교를 통해서도 15일 풍리동을 기습한 부대와 18일 미산을 습격한 부대가 전혀 다른 부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5일 풍리동 습격 당시 독립군은 모두 ‘흑색 중국옷(支那服)’을 입고 있었다.⁵⁵ 그러나 18일 미산을 습격한 독립군은 ‘연두색(淺黃

51 宇都宮太郎, 「電報: 穩城 부근의 형세와 일본군 배치」(1920.3.20.); 朝鮮軍參謀部, 「3月 1일부터 3月 31일까지의 鮮内外一般 狀況」(1920.4.5.).

52 在間島總領事代理, 「穩城對岸方面 支那軍隊 및 鮮人騷擾 視察 復命의 件」(1920.4.22.);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4.28.); 朝鮮軍參謀部, 「3月 1일부터 3月 31일까지의 鮮内外一般 狀況」(1920.4.5.); 그러나 해당 전과 보고는 일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53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4.28.).

54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4.28.).

55 在間島總領事代理, 「穩城對岸方面 支那軍隊 및 鮮人騷擾 視察 復命의 件」

〈표 2〉 1920년 3월 15~26일 최진동·양하청 부대의 온성 작전 일람

일시	장소	인원	성과	소속	비고
3월 15일	유포면 풍리동	200여 명	夜警 1명 사살· 군자금 획득	최진동 부대	
3월 16일	유포면 남양동	3명		未詳	교전 없었음(척후 활 동을 위해 잠입)
3월 18일	미포면 장덕동	20여 명	군자금 획득	양하청 부대	장덕·월파·풍교동 을 습격한 부대들이 1단(團)을 이뤄 미산 습격
	미포면 월파·풍교동	30여 명	군자금 획득		
	미포면 미산동	50여 명	헌병보 1명 중 상·전선 절단· 군자금 획득		
	유포면 향당동	기마(騎馬) 3명	未詳	최진동 부대	최진동 부상
	유포면 풍서동	30여 명	未詳	최진동 부대 (추정)	
3월 20일	유포면 향당동	1명		최진동 부대	15일 풍리동 습격 당시 참전한 인물로 잠입 도중 일제에 피체
3월 26일	유포면 남양동	50여 명	未詳	최진동 부대	

출처: 齋藤(朝鮮總督), 「不逞鮮人 侵入 一覽」(1920.3.29.); 在間島總領事代理, 「穩城對岸方面 支那軍隊 및 鮮人騷擾 視察 復命의 件」(1920.4.22.);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4.28.)를 토대로 재구성함.

色)의 옷깃이 밝은 옷(結襟服)’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⁵⁶ 박승길은 군무도독부 군사들의 군복에 대해 중국군과 같은 빛깔의 회색복을 착용하여 언뜻 보기에 중국군과 구별하기 곤란하다고 회고한 바 있다.⁵⁷ 이로 미뤄보아 풍리동 습격 당

(1920.4.22.).

56 朝鮮憲兵隊司令官, 「不逞鮮人團 國境憲兵監視所 來襲狀況의 件 報告」(1920.4.10.).

시 독립군은 군무도독부 군대로 짐작되며, 한편으로 양하청 부대원들은 연두색의 밝은 색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온성 작전 당시 홍범도 부대 등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독립군 부대들의 참전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채근식의 『무장독립운동비사(武裝獨立運動秘史)』에서는 홍범도 부대가 1920년 무렵 온성과 무산(茂山) 등지에 전후 8회나 기습해 왔다고 기록했다.⁵⁸ 이를 근거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한민족독립운동사』에서는 3월 15~18일 사이에 전개된 온성 작전의 주체를 아예 ‘홍범도가 거느리는 대한독립군 200명’이라 못 박았다.⁵⁹

일제 기록에는 홍범도 부대가 온성 작전 당시 참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록들이 보인다. 당시 일제가 간도에 보냈던 파견원의 보고에 의하면 온성 작전에 투입된 독립군에 대해 “최명록을 수령으로 하는 도독부원 약 50명 및 홍범도의 부하 약 500명”이라고 기록한 것이다.⁶⁰ 또 “홍범도 및 부하 약 200명은 북삼차구(北三岔口) 및 하마탕(蛤蟆塘) 부근에 있으면서 최명록의 도독부와 연락하여 4월 초순 조선 내지 습격을 계획하고 있는데 묵하 피복과 식량을 준비 중”이라고 하여 최진동과 홍범도가 긴밀한 연락 관계를 가지고 국내진입작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⁶¹ 이에 따라 일제는 “최명록과 양하청의 배 후에는 러시아·중국 방면에서 가장 세력이 큰 이범윤·홍범도 등과 연락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⁶²

그러나 홍범도는 온성 작전 직전까지 하마탕 상촌에서 개최된 독립군 단체

57 박승길 구술, 박원일 대필, 2018, 앞의 책, 68쪽.

58 채근식, 1985, 『武裝獨立運動秘史』, 대한민국 공보처, 72쪽.

59 국사편찬위원회, 1988, 「독립군의 국내작전과 그 활약의 양상」, 『한민족독립운동사』 4.

60 朝鮮總督, 「間島派遣員의 報告電文 轉電」(1920.4.5.), 국사편찬위원회, 2006,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61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國外情報-國境地方 不逞鮮人 動靜」(1920.3.25.).

62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4.28.).

대표들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홍범도 부대가 두만강변의 국경지대로 진출한 것은 그해 4월 무렵으로 당시 홍범도 부대가 최진동 부대와 함께 온성 작전에 참전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⁶³ 홍범도의 회상에서도 봉오동 전투 이전 최진동 부대와 연합 작전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⁶⁴

온성 작전이 끝난 뒤 일제는 관현의 피해가 적다는 점을 들어 독립군의 목표가 관현의 습격에 있지 않고 오로지 ‘금전 강요’를 위한 강도적 행위라고 애써 그 의미를 폄훼했다.⁶⁵ 그러면서 “조선 내지 무력 침입 등을 표방하여 군자금을 모금해온 관계상 소위 명목상 침습을 감행한 것으로 헛되이 다수를 거느렸으나 우리 소수의 경찰, 헌병 때문에 쉽게 격퇴했다”고 하여 독립군의 무력을 저평가했다.⁶⁶

하지만 15일 200여 명의 대단위로 독립군이 기습한 것을 시작으로 18일 미산 헌병감시소 습격, 26일 하탄 헌병감시소 습격에 이르기까지 온성 작전 당시 독립군의 행보를 보면 이는 단순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자금 모금 활동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군 기습 역시 목표로 상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제는 독립군의 무력을 낮게 평가하며 강도적 행위로 폄훼했지만 이미 군 병력을 동원하여 경계를 엄중히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온성 작전 당시 독립군은 모두 러시아로부터 입수한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⁶⁷ 무장한 독립군의 존재는 일제 입장에서 위협적일 수밖에 없

63 반병률, 2014, 앞의 책, 164쪽.

64 홍범도는 “19년 10월 14일 불엄 20년 3월 초3일에 무단봉에 나가 사흘 유숙하고 있다가 행군하여 봉오골 최진동 진과 연합하여 1920년 4월 초3일 일병과 접전하여 일병 370명 죽고...”라면서 최진동과의 연합 과정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온성 작전에 대한 언급 없이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만 회상하고 있다(반병률, 2014, 앞의 책, 122~123쪽).

65 在間島總領事代理, 「穩城對岸方面 支那軍隊 및 鮮人騷擾 視察 復命의 件」(1920. 4. 22.).

66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 4. 28.).

67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 4. 28.).

었다.

따라서 일제는 독립군의 근거지를 토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러나 독립군은 중국령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일본이 마음대로 도강하여 토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일제는 지속적으로 중국 당국에 독립군에 대한 수색과 체포를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독립군을 적극적으로 토벌할 의사가 없었다. 때로는 방관하거나 오히려 원조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18일 저녁 양수천사에서 200여 명의 독립군이 도강을 시도할 당시에도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 중이던 중국 군대 및 경찰은 그저 관망만 했다.⁶⁸

26일 군무도독부의 남양동 습격 당시에도 일제는 유원진 대안 굴룡산(窟窿山)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에 독립군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으나 중국군 측은 “해당 지역은 우리 관할 밖인 연길현 관할”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일제는 다시 연길현 소반령(小盤嶺) 주둔 병력에 독립군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으나 이들 역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⁶⁹ 이와 같은 중국 당국의 비호는 독립군에 대한 동정도 일정 정도 작용했겠지만, 최진동이 중국군에서 근무하며 쌓은 상호 관계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일제는 온성 작전 당시 침투한 독립군의 수량이 최진동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의 근거지인 봉오동 일대에 대한 토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번 온성군 관하에 내습한 불령선인은 항병길 및 홍범도와 최명록의 부하로 판단되며 그들은 다 같이 왕청현 봉오동 부근에 잠시 머무르며 각 방면에 출동하여 폭위를 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단원은 모두 30명 내지 50명 정도로 미루어 짐작되며 봉오동은 그 근거지로 의심된다.⁷⁰

68 朝鮮總督府 警務總長, 「穩城地方侵襲에 관한 詳報」(1920.4.28.).

69 在間島總領事代理, 「穩城對岸方面 支那軍隊 및 鮮人騷擾 視察 復命의 件」(1920.4.22.).

70 在間島總領事代理, 「穩城對岸方面 支那軍隊 및 鮮人騷擾 視察 復命의 件」(1920.

이에 일제는 다시 한번 중국 당국에 봉오동 일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서 그 수괴인 최진동에 대한 체포를 촉구했다. 이에 중국 측은 마지못해 최진동을 체포하기 위해 재(在)간도 일본 총영사관 국자가 분관의 와쿠이(和久井) 경부 등 일경 3명과 함께 봉오동 내 최진동의 가택을 습격했다. 하지만 이미 최진동은 피신한 뒤였다. 와쿠이는 봉오동 주민들에게 최진동과 독립군의 자취를 캐물었으나 모두 입을 다문 채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⁷¹

와쿠이 경부는 “중래 조선민과의 교분상 및 배일선인의 수령이 귀화 선인으로 칭하며 친중파(親中派)에 속하는 이들이 많은 관계상 엄중한 취체를 함에 주저하는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측이 최진동에게 미리 체포 작전에 대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당시 독립군은 한인을 중국군 혹은 순경에 지원토록 하여 내부에서 중국 관헌의 독립군 단속 방침 및 계획 등을 밀탐하도록 하거나 상부에 독립군에 관한 허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의 교란책을 구사하고 있었다.⁷² 이처럼 독립군이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둔 것 역시 최진동이 중·일 양국의 체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의 방관적 태도에 일제는 자신의 군경을 동원하여 국경을 넘어 중국령으로 들어가 직접 독립군을 토벌할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꼈다.⁷³ 실제로 일제는 중국 당국에 봉오동 토벌을 위한 일·중 공동 작전을 교섭하는 동시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신의 단독 행동마저 염두에 두고 있었다.⁷⁴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온성 작전처럼 부대 단위로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

4,22.).

71 在間島總領事代理, 「穩城對岸方面 支那軍隊 및 鮮人騷擾 視察 復命의 件」(1920. 4,22.).

72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不逞鮮人을 支那軍人 또는 巡警으로 하는 건」(1920.4. 23.).

73 政務總監, 「對岸 不逞鮮人의 來襲」(1920.3.21.).

74 總領事代理, 「不逞鮮人 根據地 掃蕩에 關한 件」(1920.4.16.), 국사편찬위원회, 2006,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기는 어려워졌다. 그러나 최진동은 지속적으로 국내진공작전의 기회를 노렸다. 계절이 바뀌어 두만강의 얼음이 다 녹아버린 5월 무렵에는 도강을 위해 봉오동 일대에서 나룻배(渡船)를 제조한 뒤 대규모 부대를 편성하여 다시 한번 온성 진격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다.⁷⁵ 일제는 최진동에 대해 “조선 내지에 가장 빈번하게 무력 침격을 감행했다”고 하면서 1920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무려 36회나 국내진공작전을 펼쳤다고 기록했다.⁷⁶

Ⅲ. 대한북로독군부 성립과 봉오동 전투

한편, 이 무렵 북간도 지역 독립군들은 지속적으로 통합을 논의하고 있었다. 당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한 뒤, 독립전쟁 준비를 위해 북간도 지역 독립군 단체들을 통합하여 임시정부의 지휘 아래 복속시키고자 했다.⁷⁷

북간도 지역 단체들 역시 대규모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단체들을 통합하거나 연합시켜 강대한 부대로 재편성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⁷⁸ 온성 작전 이후 일제의 경계가 엄중해짐과 동시에 봉오동 등 독립군 근거지가 위협받게 된 상황 역시 독립군들이 단일대오 결성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는 3월 25일 홍범도가 이끄는 의군단(義軍團)의 참모 고평(高平)이 이영근(李英根) 등을 동반하고 최진동과 홍범도의 통합을 협의하기 위해 봉오동을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⁷⁹ 그러나 이는 일제의 착오인 듯하다.

75 강덕상, 1977a, 『現代史資料』 27, 미즈즈書房, 651~653쪽.

76 강덕상, 1977b, 『現代史資料』 28, 미즈즈書房, 708쪽.

77 이숙화, 2019, 앞의 글, 43~44쪽.

78 장세윤, 2021, 앞의 책, 233쪽.

홍범도는 의군단을 이끈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⁸⁰ 다만 봉오동 전투 당시 의군단도 참전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통합 논의를 위해 의군단 측에서 방문했던 것만큼은 사실로 보인다.

대신 홍범도 본인은 3월 30일 부하 십수 명을 거느리고 하마탕의 구춘선(具春先)에게 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와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짐작된다.⁸¹

마침내 5월 19일 군무도독부(부장 최진동)·국민회 군무위원회(軍務委員會: 위원장 안무)의 연합으로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가 성립됐다(부장: 최진동·부관: 안무). 이어 홍범도가 이끄는 정일제1군사령부(征日第一軍司令部: 대한독립군)⁸²가 합류하면서 북로독군부 산하 ‘북로정일제1군사령부(北路征日第一軍司令部: 사령부장 홍범도)’로 개편된 듯하다. 그런데 이때 정일제1군은 명목상 북로독군부 아래 편제됐으나 일종의 ‘외번(外藩)’ 격으로서 지휘명령권이 북

79 在間島 總領事代理領事, 「義軍團及都督府ノ活動ニ關スル件」(1920.4.8.); 해당 문건에서는 홍범도의 의군단과 최진동의 도독부가 통합하여 그 명칭을 군무도독부로 부르기로 했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그러나 군무도독부라는 명칭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해왔다[朝鮮總督府 警務局 高等警察課, 「間島地方 韓族獨立運動 機關의 所在 및 首腦者 名單」(1920.3.16.)], 바로 아래 설명하겠지만 홍범도가 의군단을 이끌었다는 기록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80 장석홍은 의군단(의군부)이 홍범도가 정식으로 대한독립군의 창설을 선포하기 전이었던 1919년 9월경 이끌던 독립군 단체라고 주장했다(장석홍, 2013, 「만주 독립군의 형성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한국근현대사연구』 66, 한국근현대사학회, 54~55쪽). 실제로 일제 첩보에서는 홍범도를 의군단의 단장으로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朝鮮總督府 警務局 高等警察課, 「間島地方 韓族獨立運動 機關의 所在 및 首腦者 名單」(1920.3.16.)]. 그러나 박승길의 회고에 따르면 이후 벌어질 봉오동 전투에서는 홍범도 부대와 의군단 부대가 별개로 인식되고 있다(박승길 구술, 박원일 대필, 2018, 앞의 책, 66~69쪽). 따라서 이는 일제 첩보의 오류로 보인다.

81 在間島 總領事代理領事, 「義軍團及都督府ノ活動ニ關スル件」(1920.4.8.).

82 정일제1군 사령관(혹은 사령장관)이라는 직책은 홍범도가 국민회로부터 군사기관 의 총지휘관 지위를 위임받으면서 부여받은 이름으로 보인다[間島總領事代理領事, 「不逞鮮人 根據地 및 各團 組織에 관한 건」(1920.8.10.)].

로독군부장이나 국민회장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⁸³ 오히려 홍범도는 국민회 병력과 도독부 병력에 대한 지휘권을 일정 부분 위임받아 행사했던 것 같다.⁸⁴

이 시기 봉오동에 집결한 대규모 독립군을 먹이고 입히는 문제가 만만찮았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최진동 형제의 공이었다. 최진동은 자신의 가솔들을 하마탕으로 피난시키고 쌓아두었던 양식을 풀어 독립군에게 공급했다. 또 사재를 털어 군복을 지어 입혔다.⁸⁵

최진동이 북로독군부의 대표를 맡게 된 것은 이처럼 봉오동에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갖고 있던 최진동 형제가 북로독군부 성립에 기여한 공이 매우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최진동은 중국 관현들과 친분이 있었으므로 그가 대표가 되는 것이 중국 기관과의 교섭에도 유리했다.⁸⁶ 어쨌든 통합 부대의 근거지는 봉오동이었고 그 봉오동 일대의 주인이 최진동 형제였기에 최진동이 대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로독군부의 성립으로 봉오동에는 700~800명 내외의 대규모 독립군이 집결하게 된다.⁸⁷ 박승길의 회고에 따르면 이 무렵 봉오동에는 북로독군부 외에

83 국가보훈처, 1997, 앞의 책, 256~262쪽.

84 間島總領事代理領事, 「不逞鮮人 根據地 및 各團 組織에 관한 건」(1920.8.10.).

85 「최진동」(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사료건 ACN011_36_01C0000_123); 이강훈, 1975, 앞의 책, 67쪽.

86 김재규, 1958, 「의군부」, 『回想記(俄領과 中領에서 進行되던 朝鮮民族解放運動)』, 80쪽; 장세운, 2021, 앞의 책, 233~234쪽.

87 이 무렵 봉오동에 집결한 북로독군부의 정확한 병력 수는 알 수 없다. 봉오동 전투 승전보를 전하는 『독립신문』 기사에서는 봉오동 전투 당시 독립군의 병력 수를 700명으로 보도했다. 한편, 일제는 북로독군부 출범 당시 북로정일제1군(대한독립군) 병력을 약 460명으로, 북로독군부(군무도독부+국민회 군무위원회) 병력을 약 280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국가보훈처, 1997, 앞의 책, 257~258쪽). 봉오동 전투 직후인 1920년 8월 일제가 파악한 북로독군부의 병력수는 약 670명(최진동 부대), 약 550명(홍범도 부대)이었다. 전투 이후 초모 활동을 통해 병력이 증강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기록마다 병력 수가 판이하다[「獨立軍勝捷」, 『독립신문』, 1920.6.22; 間島總領事代理領事, 「不逞鮮人 根據地 및 各團

도 신민단과 의군부(의군단) 부대가 집결해 있었다고 한다.⁸⁸ 한편, 러시아 지역 무장단체인 이홍단(二紅團) 역시 소속 단원들을 봉오동에 보내 군사교육을 받게 했는데, 이 무렵 봉오동은 북간도 지역 무장 단체들의 기지로 완전하게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⁸⁹

이렇듯 봉오동에 여러 독립군 단체가 집결하면서 일제는 봉오동 토벌을 위해 도강의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마침내 봉오동 전투의 도화선이 된 ‘새불 전투(삼둔자 전투·간평 전투)’가 발발했다.⁹⁰

1920년 6월 4일 신민단이 온성에 파견한 모연대원 중 일부가 몰지각한 행위를 했다 하여 사령관 박승길(朴升吉)이 이를 진압할 목적으로 부하 20명을 데리고 오전 5시경 새불(間坪)⁹¹에 도착했다. 도강하려 할 때 두만강 대안에서 일본군 병력이 신민단군을 발견하고 사격하니 신민단 군사들은 작전상 일단 후퇴하여 뒷산에 올라 추격해 오는 일본군 부대를 집중 사격하여 두만강 일대에서 사살했다(1차 새불 전투).^{92 93}

組織에 관한 건」(1920.8.10.)]. 그런데 봉오동에는 북로독군부 외에 신민단·의군부 등 다른 무장단체들도 모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최소 700~800명 이상의 병력이 집결해 있었던 것 같다. 전투의 상대방이었던 야스카와 추격대 역시 “봉오동은 이 방면의 근거지로서 확실하게 700~800명이 모여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安川追擊隊, 『鳳梧洞附近戰鬪詳報』).

88 박승길 구술, 박원일 대필, 2018, 앞의 책, 66~67쪽.

89 강덕상, 1977a, 『現代史資料』 27, 652쪽.

90 당시 언론 보도나 기존 연구들은 이때의 전투를 ‘삼둔자 전투’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 당사자인 박승길은 삼둔자가 아닌 새불이라는 우리 식 지명과 간평(間坪)이라는 한자식 지명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해당 전투 역시 ‘간평전쟁’과 ‘새불전쟁’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91 삼둔자(三屯子)라고도 함. 두만강변 마패하(馬牌下) 마을. 도문(圖們)에서 10리 지점으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강양(江陽)이 자리하고 있다(박승길 구술, 박원일 대필, 2018, 앞의 책, 66쪽; 육군군사연구소, 2020,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73쪽).

92 박승길 구술, 박원일 대필, 2018, 앞의 책, 66쪽; 박승길은 이 당시 일본군 19사단 1개 대대 병력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 300명의 전사자를 냈다고 회고했으나 이는 매우 과장된 주장으로 보인다. 당시 신민단이 상대했던 병력은 강양동을 지키던 헌병

이군의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남양수비대장(南陽守備隊長) 니이미 지로(新美二郎)는 부하 10명·헌병 4명·경관 2명을 데리고 독립군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같은 날 정오 무렵 새불 부근에서 독립군과 2차 교전이 벌어졌다(2차 새불 전투).⁹⁴

한편, 일본군은 남양수비대를 응원하기 위해 19사단 야스카와 사부로(安川三郎) 소좌⁹⁵를 대장으로 하는 월강추격대(越江追擊隊)를 조직했다. 이들은 6일 오후 3시 반 남양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다.⁹⁶ 그런데 그날 오후 10시 우리 독립군과 남양수비대 사이에 3차 교전이 벌어졌다. 남양수비대의 추격 소식을 접한 최진동이 휘하의 1개 소대를 새불 서남방 수풀 속에 숨어 있게 한 후에 약간의 병력을 내어 일본군을 유인한 뒤 매복 지점으로 들어오자 급사격으로 부대를 패퇴시켰던 것이다(3차 새불 전투).⁹⁷

이에 야스카와의 월강추격대는 남양수비대와 함께 7일 오전 봉오동으로 진격했다.⁹⁸ 오전 3시 50분경 후안산(後安山) 부근에서 신민단과 교전을 치른 뒤,

군조 후쿠에 산타로(福江三太郎)가 인솔한 1소대 병력이었다[북간도에 잇는 우리 독립군의 전투정보(1)], 『신한민보』, 1921.2.].

93 한편 『독립신문』, 『동아일보』는 독립군이 두만강을 건너 조선 내지에 침입하여 헌병보초소 대원들과 교전했다고 보도했다(「國境方面의 排日派侵入詳報」, 『동아일보』, 1920.6.20; 「北壘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鬥情報」, 『독립신문』, 1920.12.25.).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새불 전투 당시 국내 습격이 이뤄진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육군군사연구소, 2020, 앞의 책, 74쪽). 그러나 당시 전투를 이끌었던 박승길은 “도강하려 할 때 두만강 대안의 일본군이 먼저 발견하고 공격해 옴에 따라 작전상 후퇴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전투 당사자의 회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승길의 회고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94 「國境方面의 排日派侵入詳報」, 『동아일보』, 1920.6.20.

95 당시 보도에 의하면 월강추격대장의 이름은 야스카와 지로로 알려졌지만(「國境方面의 排日派侵入詳報」, 『동아일보』, 1920.6.20) 1920년 당시 일본 육군의 장교 명단을 분석한 이상훈의 연구에 의하면 야스카와 사부로(安川三郎)가 정확한 이름이라고 한다(이상훈, 2020, 앞의 글, 10~11쪽).

96 「國境方面의 排日派侵入詳報」, 『동아일보』, 1920.6.20; 이상훈, 2020, 앞의 글, 30~31쪽.

97 「北壘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鬥情報」, 『독립신문』, 1920.12.25.

다시 6시 30분경 고려령에서 독립군의 유인 작전에 휘말린 일본군은 그대로 봉오동까지 진출, 오후 1시경 마침내 봉오동 상촌에 들어섰다.⁹⁹ 이에 따라 북로독군부와 신민단, 의군부 부대는 봉오동 골짜기로 들어온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전개했다. 당시 신민단은 봉오동 동쪽 산 입구 찻코봉에 진을 치고, 서북방 고지는 홍범도 부대, 서쪽 하단 고지는 의군부 부대가 배치됐다.¹⁰⁰

최진동 역시 북로독군부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직할 부대를 이끌고 한 고지를 맡아 전투를 수행했다. 이때 최진동은 온성 작전 당시 왼팔에 총을 맞아 생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부하들도 그의 부상을 모를 정도로 내색하지 않은 채 전투에 임했다 한다. 그는 부관 안무와 함께 동북산(東北山) 서쪽 사이 최고봉(最高峯) 독립수(獨立樹) 아래에 총지휘소를 설치해놓고 전투를 치렀다.¹⁰¹ 치열한 전투 끝에 독립군의 매복 공격을 견디지 못한 일본군이 마침내 퇴각하면서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의 승리로 끝났다.¹⁰²

한편, 학계 일각에서는 ‘봉오동 전투 당시 실질적 지휘관이 누구였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기존 연구 성과에 배치되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기존 연구서 및 개설서에서는 대체로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지휘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홍범도 단독지휘설’, 지휘권은 북로정일제1군사령부장 홍범도와 북로독군부장 최진동으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보는 ‘홍

98 이상훈은 공식적으로 봉오동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알려진 월강추격대·남양수비대 외에도 두만강 일대에 中村토벌대·중성수비대 등의 지원 병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봉오동에 투입된 병력이 400~500명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이상훈, 2020, 앞의 글, 22~31쪽).

99 安川追擊隊, 「鳳梧洞附近戰鬥詳報」; 「北嶽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鬥情報」, 『독립신문』, 1920.12.25; 在間島 總領事代理領事 界與三吉, 「越境追擊地方面ノ踏査復命書進達ノ件」(1920.7.21.), 국사편찬위원회, 2006,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2.

100 박승길 구술, 박원일 대필, 2018, 앞의 책, 66~67쪽.

101 「北嶽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鬥情報」, 『독립신문』, 1920.12.25; 이강훈, 1975, 앞의 책, 100쪽.

102 이상훈, 2020, 앞의 글, 45쪽.

범도·최진동 공동지휘설' 등으로 설명이 이뤄져왔다.¹⁰³

그런데 '사령관' 최진동이 동북산 서쪽 사이 최고봉 독립수 아래에서 전투를 지휘했고 홍범도는 휘하의 '연대장'에 불과했다는 1920년 12월 25일자 『독립신문』 기사를 근거로 전투를 총지휘한 주체는 북로독군부장 최진동이었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¹⁰⁴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연대장 홍범도'라는 표현에 대해 신용하는 당시 북로독군부에는 해당 직책이 없었고, 이는 청산리 전투 이후 임시정부가 구상했던 독립군 통합편제를 소급, 적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⁰⁵ 실제로 해당 『독립신문』 기사 뒤에는 청산리 전투 당시 제1연대장 홍범도, 제2연대장 김좌진, 제3연대장 최진동 등의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교전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정부가 구상했던 북로사령부(北路司令部) 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이러한 편제로 전투를 치른 것은 아니었다.¹⁰⁶ 그러므로 해당 기사를 근거로 홍범도의 지위를 연대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범도는 편제상 북로독군부 산하에 편입되어 있긴 했으나 외번격으로 그 어디에도 명령권이 속하지 않는 독자적 위상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였다. 실제로 일제는 홍범도가 이끄는 북로정일제1군(대한독립군)과 대한북로독군부(군무도독부+국민회 군무위원회)를 별개의 조직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⁰⁷ 또한 박승길의 회고에 의하면 봉오동 전투 직전 홍범도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봉오동에 모인 독립군 단체들에 작전태세와 대기명령을 발했다 한다.¹⁰⁸

103 홍범도 단독지휘설은 박민영의 연구(박민영, 2002,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한국사』 48, 218쪽); 홍범도·최진동 공동지휘설은 반병률의 연구(반병률, 2014, 앞의 책, 166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4 신주백, 2018a, 앞의 글, 326~330쪽; 김영환, 2023, 앞의 글, 19~21쪽.

105 신용하, 1985, 『韓國民族獨立運動史研究』, 을유문화사, 395쪽.

106 軍務總長兼攝 國務總理 李東輝, 「군무부의 역사보고 奉呈의 건」(1921.1.7.), 국사편찬위원회, 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애초에 최진동은 청산리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07 국가보훈처, 1997, 앞의 책, 257~258쪽.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봉오동 전투 당시 지휘권은 최진동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부대의 지휘관들 각자가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봉오동 전투 당시 홍범도가 퇴각 명령을 내리자 신민단 소속 군인들이 “우리는 다른 데서 온 군인들이다”라고 하며 홍범도의 명령을 거부한 일이 있었다.¹⁰⁹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보면 전투 당시 독립군 연합은 엄격한 상하 질서 아래 단일한 지휘명령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전투 당시 홍범도가 퇴각 명령을 발동한 일로 인해 전투 종료 후 최진동이 질책했다는 기록 역시 불분명한 지휘체계로 인해 빚어진 사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¹¹⁰

참전자였던 김재규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언을 하고 있다. 즉, 봉오동 전투 직전 봉오동에 모인 각 부대들이 ‘형식상으로’ 단합해서 총군부(總軍部: 독립군부의 잘못으로 보임-인용자 주)를 조직했는데, 봉오동이 중국 땅인 관계로 중국 기관과의 외교에 유리한 최진동을 총지휘자로 선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민심이나 군인들은 오랜 의병 대장인 홍범도와 허영장(허재욱-인용자 주)을 신임했고 두 의병 대장 역시 속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고 한다.¹¹¹

요컨대 봉오동 전투 직전 최진동은 명목상 통합 대한북로독군부의 총사령관으로 추대됐으나 이는 ‘형식상의 통합’에 불과할 뿐이고, 심지어 신민단과 의군부 등은 북로독군부의 편제 아래 들어가지도 않았다. 따라서 당시 참전 부대

108 박승길 구술, 박원일 대필, 2018, 앞의 책, 67쪽; 이 외에도 당시 참전했던 김재규, 이종학 등의 회고에서 홍범도의 명령에 따라 병력이 움직였다는 기록이 있다(김재규, 1958, 앞의 책, 82쪽; 이종학, 1958, 「홍범도 군대 독립군」, 『回想記(俄領과中領에서 進行되던 朝鮮民族解放運動)』, 112쪽). 김영환은 이종학이 본래 홍범도 부대원이었다는 이유로 회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김영환, 2023, 앞의 글, 16~17쪽). 그러나 박승길의 경우 홍범도의 지휘를 받지 않는 신민단 소속이었기에 그의 회고는 비교적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9 김재규, 1958, 앞의 책, 82쪽; 이종학, 1958, 위의 책, 113쪽.

110 間島總領事代理領事, 「大韓北路督軍府의 內訌에 관한 건」(1920.8.28.).

111 김재규, 1958, 앞의 책, 79~80쪽.

지휘관들은 전투 전 기본적인 전략·전술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쳤으며, 전투에 임해서는 총지휘관 최진동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각자 자신이 이끌던 부대에 대한 독자적 지휘권을 행사하며 능동적으로 전투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

IV. 북로독군부 해체와 러시아 이동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최진동은 이후로도 지속적인 무장투쟁을 추진했다. 당시 일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진동은 러시아에서 온 무기를 운반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대황구(大荒溝)·대평구(大平溝)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¹¹²

1920년 8월 당시 일제가 파악한 북로독군부 병력수는 최진동 부대 약 670명, 홍범도 부대 약 550명이었다. 무기 역시 소총 약 900정, 권총 약 200정, 기관총 2문, 폭탄 약 100개, 탄환 150발(1정당)을 소유하고 있었다.¹¹³

그러나 북로독군부를 지탱하고 있던 ‘삼단연합’(최진동·홍범도·국민회) 내의 갈등으로 북로독군부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우선 최진동과 홍범도 사이의 갈등이 1차 원인이었다. 봉오동 전투 당시 홍범도가 퇴각을 명령한 일이 있었는데, 전투가 끝난 뒤 최진동이 이를 문제 삼았다. 최진동은 전투 중 급속 퇴각을 명령한 것은 독립군의 의기를 좌절시킨 주요 원인이라 하여 홍범도를 몹시 질책했다. 홍범도는 부하 100명을 인솔하여 각 지방에서 시위 운동을 통해 사기 회복을 하겠다고 주장했고, 최진동이 이를 허락함으로써 홍범도는 명월구(明月溝)로 이동했다.¹¹⁴

112 琿春副領事, 「不逞鮮人 동정에 관한 건」(1920.6.19.).

113 間島總領事代理領事, 「不逞鮮人 根據地 및 各團 組織에 관한 건」(1920.8.10.).

114 間島總領事代理領事, 「大韓北路督軍府의 內訌에 관한 건」(1920.8.28.).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질적으로는 지휘권 문제로 인한 충돌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다른 일제 문서에서 드러나고 있다. 8월 7~8일 일량구(一兩溝)에서 독립군 단체 통일을 위해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를 제외한 각 단체의 수령들이 모여 연합대회가 열렸다. 이때 최진동과 홍범도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 결국 통일이 와해되고, 홍범도는 부하들을 인솔하여 명월구를 거쳐 무산 간도 방면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일제는 최진동과 홍범도가 충돌한 원인에 대해 ‘세력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¹¹⁵

이때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의견 충돌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당시 북간도 지역 독립군 통합운동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봉오동 전투 직후 임시정부에서 북간도에 파견한 안정근(安定根)·왕삼덕(王三德) 등은 임시정부의 대정방침에 입각해 북간도 독립군 단체를 민사(民事)와 군사(軍事)를 나눠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재편하는 데 주력했다.¹¹⁶

이에 따라 7월 20일 연길현 의란구(依蘭溝)에서 열린 각 단 대표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통일안이 도출됐다. 즉, 국민회가 민정(행정)을 담당하는 대한민단(大韓民團)으로, 군사기관으로는 북로군정서를 동도군정서(東道軍政署: 서장 서일·사령관 김좌진)로, 북로독군부를 동도독립군서(東道獨立軍署: 서장 겸 사령관 홍범도)¹¹⁷로 각각 개편한 것이다.¹¹⁸

그런데 문제는 동도독립군서의 편제였다. 동도독립군서는 홍범도 지휘 아래 총 4개 대대·포수대로 구성됐다.

115 間島總領事代理領事, 「不逞鮮人 根據地 및 各團 組織에 관한 건」(1920.8.10.).

116 이숙화, 2020, 「홍범도와 임시정부의 독립군 통합운동」,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여천 홍범도 장군 77주기 추모제 기념 학술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19쪽.

117 다른 기록들에서는 동도독군부(東道督軍部)라는 명칭으로도 등장한다[間島派遣員, 「國外情報」(1920.7.24.), 국사편찬위원회, 200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3].

118 界與三吉(間島總領事代理領事), 「不逞鮮人團의 統一에 관한 協議의 건」(1920.8.28.); 이숙화, 2020, 앞의 글, 20쪽.

〈표 3〉 동도독립군서 편제

직위	이름
사령관 겸 포수대장	홍범도
제1대대장	허근(許根)
제2대대장	방우룡(方雨龍) ¹¹⁹
제3대대장	<u>최진동</u>
제4대대장	김성(金星)

출처: 間島派遣員, 『國外情報』(1920.7.24.), 국사편찬위원회, 200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3.

최진동은 명목상 군무도독부·국민회 국무위원회·북로정일제1군사령부를 아우르는 대한북로독군부의 수장이었다. 따라서 본인이 홍범도의 휘하로 배치된 개편안은 최진동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었을 것이다.¹²⁰ 실제로 그는 7월 7일 일랑구에서 열린 연합회의에서 기존 조직(대한북로독군부)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한 바 있다.¹²¹ 최진동은 임시정부의 북간도 지역 통합운동의 대의(大義) 자체에는 찬동하여 통합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했으나 삼단연합을 통해 완성된 북로독군부 체제, 즉 본인이 총지휘관으로 있는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결국 이러한 개편안과 별개로 최진동은 아래와 같이 북로독군부를 4대로 나누는 독자적인 개편을 시도했다.

최진동의 개편안은 거꾸로 홍범도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었다. 봉오동 전투 당시 홍범도는 북로정일제1군 사령관으로서 북로독군부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진동이 북로독군부를 개편하면

119 원문에는 방위룡(方渭龍)으로 표기되어 있음.

120 오세호, 2021, 앞의 글, 77쪽.

121 在百草溝出張所 主任 板垣吉次, 『不逞鮮人行動報告』(1920.7.12.), 국사편찬위원회, 200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3.

〈표 4〉 북로독군부 개편안

직위	이름
제1대장	최문무
제2대장	<u>홍범도</u>
제3대장	강승범
제4대장	조권식 ¹²²

출처: 間島總領事代理領事, 「大韓北路督軍府의 內訌에 관한 건」(1920.8.2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21.

서 홍범도를 북로독군부장 아래 4대 중 한 대의 대장으로 편입시켰던 것이다. 결국 지휘권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충돌한 것이 결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¹²³

홍범도의 이탈 후 북로독군부의 남은 두 축이었던 도독부와 국민회 사이에도 균열이 일어났다. 둘 사이 갈등의 실체는 1920년 9월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 총재 서일이 발표한 「성포문(聲佈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봉오동 전투 직전 군무도독부와 국민회 군무위원회는 북로독군부를 결성하면서 각각 군사기관(북로독군부)과 행정기관(국민회)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은연히 독군부를 통제하려던 국민회가 심복군인들로 하여금 독군부의 장총 수백 정을 갖고 국민회로 귀환케 한 뒤 독군부 병력들과 개전한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¹²⁴

실제로 당시 제3대장 강승범(姜昇範)은 국민회 출신으로 구춘선의 명을 받아 행동한 바 있다. 이에 분개한 최진동은 태(答) 60대를 쳐서 강승범을 쫓아내

122 원문에는 趙某로 되어 있으나 조권식(曹權植)으로 추정됨(「北壘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鬥情報」, 『독립신문』, 1920.12.25.).

123 장석홍 역시 일량구에서 열린 연합 논의가 결렬된 원인을 국민회와 홍범도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한 최진동이 반발한 데서 찾고 있다(장석홍, 2013, 앞의 글, 59쪽).

124 在間島總領事代理, 「不逞朝鮮人團體의 聯合에 관한 건」(1920.6.21.); 「間情第自三三至三五號送付」(1920.10.29.), 국사편찬위원회, 200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3; 오세호, 2021, 앞의 글, 75쪽.

고 대장을 교체해버렸다. 그러나 제3대 대원 100명은 모두 새로운 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장을 포박한 뒤 그대로 도주하여 홍범도 부대에 합류해버렸다. 조권식(曹權植)이 이끄는 4대 역시 홍범도 부대에 합류했다.¹²⁵

대부분의 병력을 상실한 최진동은 이를 만회코자 국민회로 쳐들어가 동부총회장 양도헌(梁道憲)을 나포할 계획을 세웠으나 양도헌 역시 이를 간파하고 명월구의 홍범도 부대에 합류했다. 분개한 최진동은 국민회를 궤멸시키기 위해 1920년 8월 12일 1대장 최문무(崔文武)에게 부하 90명을 배속시킨 뒤 국민회 지부로 보냈다. 이에 홍범도 부대에 합류한 300명의 군사가 국민회의 복수를 위해 떠났다가 17일 최문무의 귀환대 병력과 마주하여 최문무와 채정옥(蔡正玉)을 결박하고 부하 40명의 무기를 압수하기에 이르렀다.¹²⁶

결국 최진동-홍범도, 최진동-국민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삼단연합이 해체되면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북로독군부 역시 해체되고 최진동 역시 독자적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대규모 토벌을 추진했다. 이른바 ‘간도지방 불령선인 토벌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은 독립군 토벌을 위한 일본군의 출병 구실을 만들고자 10월 2일 마적단을 동원하여 혼춘의 일본영사관을 습격, 방화하는 ‘혼춘 사건’을 일으키고 이를 구실로 한국 주둔 19·20사단, 연해주 주둔 11·13·14사단 등 5개 사단에서 차출한 2만 5,000여 명의 대규모 독립군 토벌부대를 편성했다.¹²⁷

일제는 중국 군벌이었던 장작림(張作霖)을 압박해 독립군 토벌에 나서도록 했다. 이에 장작림은 휘하의 맹부덕(孟富德)으로 하여금 독립군 토벌에 나서게 했으나 당시 독립군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맹부덕은 각 독립군 단체와 만나 삼림지대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8월 하순 무렵부터 독립군 단체들은 백두

125 間島總領事代理領事, 「大韓北路督軍府의 內訌에 관한 건」(1920.8.28.).

126 間島總領事代理領事, 「大韓北路督軍府의 內訌에 관한 건」(1920.8.28.).

127 장세윤, 2021, 앞의 책, 246쪽.

산의 삼림지대나 러시아 국경지대로 이동을 시작했다.¹²⁸

최진동 역시 맹부덕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오랜 근거지였던 봉오동을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김좌진·홍범도 부대가 청산리(靑山里) 방면으로 이동한 것과 달리 정반대에 위치한 나자구(羅子溝)로 이동했다.¹²⁹ 최진동 부대가 나자구로 이동한 까닭은 봉오동과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왕청현 일대에 최진동의 토지가 있어 근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돼 있었고, 유사시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¹³⁰ 한편으로 이미 삼단연합 해체로 홍범도 등과 결별한 최진동이 굳이 홍범도와 행보를 같이할 까닭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나자구로 이동한 최진동은 1920년 10월 대한공의단(大韓公義團)·대한광복단(大韓光復團)·대한의군부(大韓義軍府)·대한의사부(大韓議事部) 등의 북간도 지역 독립군 단체들과 연합하여 대한총군부(大韓總軍府)를 결성했다.¹³¹ 이때 최진동은 총군부의 사령관으로서 이들 모두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다.¹³²

그런데 나자구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당시 일본군 19사단 이소바야시(磯林) 지대는 3개 토벌대를 편성하여 토문자(土門子)·노흑산(老黑山)·혼춘·대항구·나자구 일대로 진출했다. 이때 아베(安部) 대대는 일본군 13사단 하뉴(羽入) 지대와 협동하여 나자구 방면의 토벌을 실시했다.¹³³ 같은 시기 청산리 일대에서 김좌진·홍범도 부대가 격전을 치르는 동안, 최진동이 이끄는 총군부 역시 나자구 일대에서 일본군과 만나 전투를 치렀다.¹³⁴

128 장우순, 2022, 앞의 글, 108쪽.

129 조선군사령부 저, 김연옥 역, 2019, 『간도출병사』, 경인문화사, 35쪽.

130 장우순, 2022, 앞의 글, 110쪽.

131 반병률, 2014, 앞의 책, 176쪽.

132 김재규, 1958, 앞의 책, 98~101쪽.

133 조선군사령부 저, 김연옥 역, 2019, 위의 책, 35쪽.

134 김춘선·안화춘·허영길, 2006, 앞의 책, 174쪽; 장우순, 2022, 앞의 글, 110쪽.

나자구 방면으로 향한 아베 대대는 10월 25일 나자구로 진출하여 부근 제(諸) 부락의 초토에 종사하였다. 10월 27일 다시로(田代) 기병 소위가 이끄는 보병·기병 약 30명의 초토반은 오후 2시 50분 노모저하(老母猪河)에서 약 150명의 적과 충돌·교전하였다. 이때 우연히 이곳에 진출했던 하뉴 지대의 보병 1중대 기관총 1소대의 증원을 받아 약 2시간 동안 교전한 후 적을 북방으로 격퇴시켰다. 얼마간 추격하였으나 삼림 속으로 들어갔고 곧 황혼이 되었으므로 추격을 중지하였다. 우리 측 손해는 없었다. 적(賊)은 나자구에 있는 대의전(大義甸) 의사회(義事會)에 속한 최정국(崔正國)이 이끄는 의군대(義軍隊)로, 본 전투에서 사체 5구를 유기하였다.¹³⁵

아베 대대는 자신들이 싸운 상대를 최정국의 의군대로 기록하고 있다.¹³⁶ 이들은 전투를 치른 직후 주민들을 심문한 결과 노모저하 북방 산중에 최진동 부대 외 각지에서 도피해 온 독립군 600여 명이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하뉴 지대와 함께 이튿날(28일)부터 연일 적을 수색하고 초토에 힘썼으나 이미 도피한 후였으므로 끝내 발견하지는 못했다.¹³⁷ 이는 나자구 전투에서 최진동 부대가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박승길의 회고에 의하면 나자구로 이동한 최진동은 일본군 토벌대와 전투를 하려다 나자구 일대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불뚝이 될 수도 있어 교전 없이 후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본군의 간도 출병 당시 나자구를 경유하여 동녕현(東三岔口)으로 가다가 나자구 노모저구(老母猪溝) 북방 사태봉(四太峰) 하곡에서 일본군 토벌대와 전투를

135 조선군사령부 저, 김연옥 역, 2019, 앞의 책, 55쪽.

136 아베 대대와 교전을 벌였던 최정국의 의군대는 총군부에 합류한 의사부와 동일한 조직으로 보인다[朝鮮總督府 警務總長, 「國外情報(間島地方 不逞鮮人團體의武力 준비상황과 首腦部の所在地)」(1920.6.16.)].

137 조선군사령부 저, 김연옥 역, 2019, 앞의 책, 55쪽.

하려다 동포 수천 호가 사는 나자구에 불이 떨어질까 염려하여 불붙는 마음을 억누르고 후퇴하여 동녕현으로 이동하여 그대로 러시아에 망명했다.¹³⁸

최진동이 나자구를 경유하여 노모저구(노모저하) 북방에 이르렀다는 박승길의 회고는 노모저구 북방에 최진동 부대가 도피해 있었다는 일본군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이는 훗날 최진동 혹은 최진동 측근에게서 박승길이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의군대와 전투 후 뒤늦게 최진동 부대의 존재를 파악하고 토벌에 나섰다 이미 떠나버려서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일본군 측 기록과, 나자구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교전 없이 후퇴했다는 박승길의 회고를 종합해 보면 최진동 부대는 나자구 일대에서 직접 전투에 참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후 나자구를 무사히 빠져나간 총군부는 밀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인 우수리강을 넘어 이만(Iman)에 도착했다. 그리고 1921년 초 원동공화국 자유시(自由市)에 도착했다.¹³⁹ 총군부를 시작으로 안무의 국민회군 그리고 홍범도와 이청천(李青天) 등이 이끄는 군대들이 속속 자유시에 도착했다.¹⁴⁰ 이들은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안전지대인 러시아로 건너간 뒤 그곳에서 한인 무장 부대 통일계획에 합류하고자 했다.¹⁴¹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1921년 6월 28일 통합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인 부대 간의 유혈 충돌로 인해 좌절을 맞이하게 된다. 이른바 ‘자유시 참변’이었다. 이는 한국독립운동사의 큰 비극이었으며 군무도독부 창립 이래 독립군의 단일대오 결성을 꿈꿔왔던 최진동에게도 불행한 사건이었다.

138 박승길 구술, 박원일 대필, 2018, 앞의 책, 69쪽.

139 김재규, 1958, 앞의 책, 104~105쪽; 반병률, 2014, 앞의 책, 176쪽.

140 반병률, 2014, 앞의 책, 183쪽.

141 임경석, 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321쪽.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1920년 북간도 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확인한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20년 3월 온성 작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 중 한 명이 최진동임을 확인했다. 최진동은 자신의 군무도독부 병력을 동원하여 양하청 부대와 함께 3월 15~26일 온성 각지를 습격하여 일제 군경과 교전을 벌였다. 이는 소규모 단위의 군자금 모금 활동에만 그치던 독립군이 비로소 일제 군경과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인 전투로서 그 의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봉오동 전투 당시 최진동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진동은 1920년 6월 6일 새불 일대에 매복하고 있다가 추격해 오는 남양수비대를 기습 공격으로 패퇴시킴으로써 봉오동 전투의 서막을 열었다. 또 봉오동 전투가 발발하자 최진동은 북로독군부의 대표로서 그 자신도 한 고지를 맡아 분전함으로써 승리에 기여했다. 한편 북로독군부와 연합을 이루고 있던 독립군 부대들은 각자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며 능동적으로 전투에 임했다.

셋째, 봉오동 전투 이후 북로독군부가 해체되고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러시아로 이동하게 되는 과정을 상세히 규명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러시아 이동 중 최진동이 나자구 일대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박승길의 회고와 일본군 측 기록을 종합해본 결과 최진동 부대는 동포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직접적인 교전을 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에서는 1920년 북간도(특히 봉오동)를 중심으로 한 최진동의 활동을 통해 그의 항일무장투쟁을 정리했다. 1920년으로 시기를 한정한 것은 1920년 한 해 동안 최진동의 생애 가장 활발한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됐지만, 정작 이 시기에 전개된 항일무장투쟁 당시 최진동의 역할이 온전히 규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리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1920년 항일무장투쟁사에서 최진동이 차지하는 위상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1920년은 대한민국 임시정

부가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하면서 북간도 일대에서 우리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해였다. 3~6월 사이 최진동은 국내외를 넘나들며 눈부신 활약을 선보였다. 특히 그는 ‘독립전쟁 제1회전’이었던 봉오동 전투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봉오동 전투 당시 그가 이끄는 부대가 한 축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형제들이 봉오동 일대에서 일궈놓은 기반을 토대로 다른 독립군 부대들이 안정적인 보급 아래 전투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전쟁사에서 그의 위상을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최진동은 러시아로 건너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무장투쟁을 추진했고, 근거지인 북간도로 귀환한 후에도 재기를 모색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그는 독립운동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말년에 이르면 일제 관동군의 귀순공작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 친일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처럼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1920년 이후 최진동의 삶과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자료

『독립신문』, 『동아일보』, 『신한민보』, 『조선일보』.

『大正八年 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 七冊ノ内五』.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1』.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5』.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 1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 1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 1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 1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 1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 2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 部』 2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 10.

경상북도 경찰부, 1934, 『고등경찰요사』.

安川追擊隊, 1920, 「鳳梧洞附近戰鬥詳報」.

「조선총독부 직원록」.

강덕상, 1977a, 『現代史資料』 27, みずず書房.

_____, 1977b, 『現代史資料』 28, みずず書房.

국가보훈처, 1997, 『北間島지역 獨立軍團名簿』.

국사편찬위원회, 2003,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9.

_____, 200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0.

_____, 2006,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_____, 200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3.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2006.

박정신·이덕일·김병기·김동환·정암·구미정·김명옥, 2018, 『희산 김승학 선생 독립운동 자료 정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이인섭, 1958, 『回想記(俄領과 中領에서 進行되던 朝鮮民族解放運動)』.

조선군사령부 저, 김연옥 역, 2019, 『간도출병사』, 경인문화사.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1988, 『한민족독립운동사』 4..

김춘선·안화춘·허영길, 2006, 『최진동장군』,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반병률, 2009,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_____, 2014, 『홍범도 장군-자서전 홍범도 일지와 항일무장투쟁』, 한울.

신용하, 1985, 『韓國民族獨立運動史研究』, 을유문화사.

육군군사연구소, 2020,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육군군사연구소..

이강훈, 1975, 『武裝獨立運動史』, 서문당.

임경석, 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장세윤, 2021,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 선인.

채근식, 1985, 『武裝獨立運動秘史』, 대한민국 공보처.

최성주, 2020, 『최운산, 봉오동의 기억』, 필로소픽.

논문

김영환, 2022, 「독립군 무장기지 ‘봉오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평가-최진동·최운산 형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54, 육군군사연구소.

_____, 2023, 「군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봉오동 독립전쟁 당시 독립군 지휘권에 관한 고찰」,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제8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김용진, 2022, 「남만주(南滿州)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에 대한 시론적 검토: 이진무(李振武)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 45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주백, 2018a, 「봉오동전투에 관한 기억의 流動과 새로운 기억을 향한 접근-지역으로서 동북아와 근원적 사실을 향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_____, 2018b, 「석고화한 기억의 재구성과 봉오동전투의 배경」, 『만주연구』 26, 만주학회.

- 신효승, 2021, 「3.1운동 후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온성전투의 전개와 일본군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오세호, 2021, 「1920년 독립전쟁' 시기 독립군들의 동향 재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96, 한국근현대사학회.
- 이계형, 2022, 「1910~1920년대 북간도 봉오동 개척과 독립군 근거지로 변모 과정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상훈, 2020, 「'봉오동부근전투상보'를 통해 본 봉오동전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숙화, 2019, 「1910~1920년대 북간도지역의 독립군단체의 조직 및 상호관계」, 『대한군무도독부 창설 10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 _____, 2020, 「홍범도와 임시정부의 독립군 통합운동」,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여천 홍범도 장군 77주기 추모제 기념 학술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 장석홍, 2013, 「만주 독립군의 형성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한국근현대사연구』 66, 한국근현대사학회.
- 장우순, 2022, 「대한북로독군부 총사령관 최진동의 생애와 친일 논쟁」,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제7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기타

-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유공자 공훈록」.
-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최진동」(사료건 ACN011_36_01C0000_123).

1920년 북간도에서의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

김경준

최진동은 홍범도와 더불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다. 그러나 홍범도에 관한 연구 성과나 주목도에 비해 최진동의 삶과 민족운동을 주목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최진동의 민족운동을 조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1920년 북간도 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항일무장투쟁을 규명하고자 했다.

1883년 함북 온성에서 태어난 최진동은 어린 시절 북간도로 이주한 뒤 중국인 지주의 양자가 되어 부를 축적했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항일무장투쟁을 결심한 최진동은 형제들과 함께 봉오동 일대를 무장독립운동을 위한 근거지로 조성하는 한편 사병 조직을 토대로 대한군무도독부를 결성하여 무장투쟁에 나섰다. 그는 1920년 3월 양하청 부대와 함께 온성 진공작전을 통해 일제 군경을 교란했다(온성 작전). 이후 북간도 지역 독립군 통합운동 결과 성립된 대한북로독군부의 부장으로서 홍범도 등과 함께 그해 6월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후 내홍으로 인해 북로독군부가 해체되자 독자적인 무장투쟁을 모색하던 최진동은 일본군의 간도토벌계획으로 근거지를 위협받게 되자 대한총군부를 결성해 러시아로 이동했다. 그러나 자유시 참변으로 최진동의 항일무장투쟁은 좌절을 맞이한다.

주제어: 최진동, 홍범도, 독립전쟁,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북로독군부, 온성작전, 봉오동 전투

Choi Jin-dong's Armed Struggle against Japan in North-Gando in 1920

Kim Kyungjun

General Choi Jin-dong(崔振東), along with General Hong Beom-do(洪範圖), was the main player who led the Battle of Bongodong(鳳梧洞) to victory. However, compared to the results of research on Hong Beom-do Island and the degree of interest, there are few studies that focus on the life of Choi Jin-dong and the national movement. In this study, as part of the work to shed light on the national movement of Choi Jin-dong,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was investigated, focusing on activities in the North Gando(北間島) in 1920.

Born in 1883 in Onseong(穩城), North Hamgyong Province, Choi Jin-dong moved to North Gando as a child and became an adopted son of a Chinese landlord and accumulated wealth. Choi Jin-dong, who decided to go on an armed struggle in the wake of the March 1 anti-Japanese demonstration in 1919, established the Bongodong area as a base for the armed independence movement with his brothers, and formed the Daehangunmudodokbu(大韓軍務都督府) based on the

Self-Defense Forces. In March 1920, he disturbed the Japanese military and police through a domestic advance operation to Onseong with the Yang-Hacheong(梁河淸)’s army. (穩城 作戰) Later, he was the head of the Daehanbukrodokgunbu(大韓北路督軍府), which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integration movement of the North Gando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won a great victory against the Japanese in Bongodong in June of that year with Hong Beom-do. (鳳梧洞 戰鬪) After the Bongodong Battle, Choi Jin-dong, who was seeking an independent armed struggle due to internal strife, formed the Daehanchonggunbu(大韓總軍府) and moved to Russia when he was threatened by the Japanese military’s plan to subjugation the North Gando. However, Choi Jin-dong’s anti-Japanese armed struggle faces a setback due to the disaster of Svobodny(自由市).

Keywords: Choi Jin-dong, Hong Beom-do, War of Independence,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aehanbukrodokgunbu, Operation of Onseong, Battle of Bongodong

이선근의 1930~1940년대 역사 해석과 ‘조선 정신’

옥창준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교수

- I. 머리말
- II. 주변부의 언저리에서
- III. 1930년대 조선 정신의 모색
- IV. 1940년대 조선 정신의 구축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1945년 12월, 정음사(正音社)는 이선근(李瑄根)의 『조선최근세사』(1931)를 복간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정음사가 식민지 시기 내내 조선어와 관련된 책을 줄곧 출판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출간은 다소 특별했지만, 그 복간의 이유는 명확했다. 이선근의 이 책이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이 집필한 거의 유일한 근현대사 연구였기 때문이다. 해방 정국이라는 신시대를 맞이하여 정음사는 이선근의 원고는 물론이거니와 권덕규의 『조선사』(1945), 홍이섭의 『조선과학사』(1946)를 정력적으로 선보이고 있었다. 정음사의 발빠른 기획은, 해방과 탈식민의 맥락에서 ‘국사’의 내용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그만큼 컸음을 보여준다.

『조선최근세사』의 발문(跋)을 통해 이선근은 이 책을 복간하는 회한을 이렇게 기록한다. “첫째, 학도의 솔직한 양심에 비추어 연구의 조사가 불충분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케 되는 것이오, 둘째로는 그 당시 가혹한 언론탄압과 검열망에 시달려 빈약한 필자의 사료이나마 자유로운 요리를 못 했다는 것이 억울하기 짝없었던 것이다.”¹ 이선근은 검양의 표현을 빌리면서 엄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료를 읽어내려가며 학도로서 ‘연구’를 수행했다는 자신감을 은근히 드러냈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는 쉽사리 허락되지 않았다. 이선근 자신이 『한성일보』 주필(1946~1947)에 이어 『대동신문』 주필

* 투고: 2023년 7월 23일, 심사 완료: 2023년 8월 16일, 심사 완료: 2023년 9월 4일, 게재 확정: 2023년 9월 5일

**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사려 깊고 세심한 논평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상의 제약과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모든 논평을 미처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고민을 이어나가면서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을 약속드립니다.

1 이선근, 1945, 「발문(跋)」, 『조선최근세사』, 정음사.

(1947)을 연달아 역임하면서 우익의 정치 문필가로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대동청년단에서 활동하던 이선근은 1947년 11월에 국립대학설치안 파동으로 혼란에 빠진 서울 문리대 정치학과 주임교수로 부임하며, 국립대학설치안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힘을 보탰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바쁜 시기에 이선근은 또 다른 ‘연구’를 세상에 선보인다. 1949년 출간된 『화랑도연구』는 1948년 12월 대한청년단의 출범에 발맞추어 청년운동의 역사적 계보를 한국사에서 찾는 작업이었다. “구미나 모든 외국류의 무슨 사상, 무슨 주의보다도 빛나고 알기 쉬우며 숭고하고도 실천하기 쉬운 진리와 이데올로기와 강령과 방안”이 바로 우리의 전통인 화랑도 속에 숨어 있었다.² 그는 신라의 화랑도(花郎徒)를 필두로 한국사 전반에 존재하는 ‘화랑의 도(花郎道)’를 과감하게 재구성했다. 그렇기에 이 책의 내용을 두고 기존의 한 연구가 ‘다소 예상 밖의 일’이라 평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³ 연구자로서 일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던 이선근이 자신의 전공 영역을 넘어서 한국사 전반을 두고 과감한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선근의 역사 해석을 둘러싼 일반적인 해석은 그가 역사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드러난 정치적 목적을 폭로하는 쪽에 가까웠다. 이와 같은 관점을 지닌 연구들은 이선근의 친일적 속성, 이승만 정권기나 박정희 정권기에 이선근이 보여준 어용적 역할에 주목했다.⁴ 이런 관점을 취하면, 식민지 시기부터 이선근이 축적한 여러 학술 작업의 의미는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축소된다. 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선근의 『조선최근세사』는 그 자체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선근이 역사를 수단으로 삼아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

2 이선근, 1954(초판 1949), 「서언」, 『화랑도연구』, 동국문화사, 3쪽.

3 이택휘, 2010, 「이선근」, 『한국사 시민강좌』 46, 192쪽.

4 대표적인 연구로는 구양근, 1994, 「이선근: 역대 부도덕한 정권의 밑받침이 되어준 이론가」, 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제3권, 청년사; 허은, 2008, 「안보위기관리의 제창자: 이선근」, 『내일을 여는 역사』 31.

정할 수 없더라도, 이선근은 진단학회의 한국사 편찬사업,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 또 훗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 등 역사 연구의 학술적 의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그가 남긴 여러 학술 작업의 ‘학술적’ 의의와 지적 유산을 도외시킬 수는 없다. 이선근이 남긴 방대한 학술 작업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지식과 현실의 간단치 않은 관계를 따져보는 일은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근래에 이선근이 창출해낸 ‘민족사학’의 한국사 서사가 ‘식민사학자’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논의를 필두로, 반공 교재나 국사 교과서 집필에 이선근의 역할, 국방부 정훈국장으로 근무했던 이선근의 경험과 냉전 사상전의 계보를 함께 다루는 작업, 이선근의 화랑도 담론 구축 등, 이선근의 행위자성을 분석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등장하면서 이선근을 둘러싼 해석의 폭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⁵ 이들 연구가 주로 해방 이후 이선근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글은 기존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조선최근세사』 집필 시기를 이선근의 역사 해석의 출발점으로서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최근세사』에서 이선근은 외부의 충격과 조선의 반응이라는 역사 해석틀의 원형을 제시했다. 이선근에게 외부의 충격에 대응하는 방식은 늘 내부의 자원동원이었다. ‘조선 정신’은 바로 이 맥락에서 발견되었다. 정신의 강조는 세

5 이선근을 복합적으로 해석하려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종준은 이선근의 역사학이 지닌 식민성과 파시즘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종준, 2013, 「이선근이 주장한 ‘민족사학’의 성격과 ‘식민사학’의 친연성」,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 아카데미즘』, 소명출판; 김종준, 2023, 『한국 근현대의 파시즘적 역사인식』, 소명출판. 또 이선근이 교과서 집필을 통해 교육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손수범, 2009, 「이선근의 『한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사교과서」, 『역사와 역사교육』 19; 후지이 다케시, 2013, 「1950년대 반공 교재의 정치학」, 『역사문제연구』 17-2; 이상록, 2018, 「이선근의 국난극복사관과 제3차 교육과정기 국사교육의 냉전사적 재해석: 사상전의 계보학을 중심으로」, 『청람사학』 28. 그리고 이선근의 화랑 담론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종현, 2006, 「국민국가와 ‘화랑도’: 애국개몽기~대한민국 건국기의 ‘화랑’ 담론과 활용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4; 박성현, 2015, 「박정희 정권의 ‘화랑도’ 교육: 내용의 연원과 관철의 방식」, 『역사와 현실』 96.

계사의 주변부 조선이 취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도는 『화랑도연구』의 역사 해석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즉, 『화랑도연구』는 『조선최근세사』에서 잠재되어 있던 서사를 해방 이후 자유롭게 드러낸 결과물이기도 했다. ‘조선 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최근세사』와 『화랑도연구』는 긴밀하게 연결된 작업이었다. 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 글은 이선근이 와세다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직후부터 『화랑도연구』의 출간 전후의 약 20년간을 주로 다루며, 기존의 연구들이 미처 활용하지 않은 자료들을 통해 기존 이선근 연구의 공백을 채울 것이다.⁶

II. 주변부의 언저리에서

1905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난 이선근은 부친 이연교(李淵敎)가 설립한 쌍빈의숙(雙斌義塾)에서 학문을 시작했다. 대한자강회와 기호흥학회에서 활동을 한 부친의 영향으로 이선근은 일찍이 신채호의 『이태리건국삼걸전』,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을 접하면서 역사에 관심을 지닐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⁷ 이후 이선근은 1918년 휘문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하여, 1922년 3월에 졸업했다. 휘문고보 졸업 이후 1년간 일본에서 준비 과정을 마친 이선근은 1923년 4월 와세다일고로 진학했다.

와세다일고 시절 이선근은 러시아 문학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 러시아 문학을 향한 관심은 꽤 진지했다. 그는 와세다대학으로 진학한 후에도 제2외국어로

6 이선근의 일대기와 그의 학문 체계를 폭넓게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찬승, 2008, 「이선근의 한국사 연구와 역사관」, 김용덕·미야지마 히로시 함께 엮음,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Ⅲ: 1945년 전후』, 아연출판부. 1950년대 이후 이선근의 삶과 학문 활동에 대해서는 함충범, 2018, 「이선근의 삶의 궤적과 시대담론, 그리고 역사인식: 1950년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61이 자세하다.

7 이선근, 「나의 이력서 2: 서울 유학」, 『한국일보』, 1975.1.22.

러시아어를 공부했다. 또 학교 수업 이외에도 이선근은 도쿄외국어학교 전수과(專修科)에 등록하여 매일 2시간씩 러시아어 공부를 하기도 했다.⁸ 그렇다면 왜 하필 러시아 문학이었을까. 이선근은 이미 휘문고보 시절 서양사 수업을 들으면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1917년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⁹ 러시아를 향한 그의 관심은 당대 진행 중이던 러시아 혁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로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서구화 속에서 러시아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근대의 여명기에 집중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선근은 러시아 문학, 그중에서도 19세기 국민 문학을 탐독했다.¹⁰

러시아를 바라보는 이선근의 고민은 외국문학연구회가 발간한 『해외문학』 제2호(1927)에서 수록된 「여명기 러시아(露西亞) 문단 회고」라는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에서 러시아를 바라보는 조선인의 시각이 맹목적 추종에 가깝다고 비판하면서, 이선근은 역사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문학 방면에 있어서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만큼 역사적 연구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 러시아 문학—곧 산문에 있어 고골 이후 혁명까지의 러시아문학—은 간혹 일문 중역(重譯)을 통해 소개된 바가 있으나 그 이전 여명기의 러시아 문학은 전연 소개되지 않았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성한 잎사귀나 꽃만을 감상하기 전에 그 줄기를 살펴보고 그 뿌리의 얼마나 깊은 것을 탐색해보아야 한다. 러시아 문학의 완성된 열매를 깨물어보는 동시에 그것을 심은 씨를 생각해봄도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곧 근대 러시아 문학을 꺾질만 훑아보지 말고 한 발걸음 더 고전적 연구에까지 미쳐보는 것이 참된 그것을 연구하는 순서일까 한다.¹¹

8 이선근, 「나의 이력서 11」, 『한국일보』, 1975.2.1.

9 이선근, 「나의 이력서 11」, 『한국일보』, 1975.2.1.

10 이선근, 「나의 이력서 8: 와세다 시절」, 『한국일보』, 1975.1.29.

11 이선근, 1927, 「여명기 러시아 문단 회고」, 『해외문학』 2, 6쪽. 일부 표현은 현대어로 저자가 수정했다.

러시아 문학을 다루고 있지만, 이 글은 현상을 파악하는 이선근의 기본적인 접근법을 잘 보여준다. 그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뿌리를 바라보는 감각, 즉 역사적 시각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었다. ‘앞사귀’와 ‘꽃’이 아닌 ‘줄기’와 ‘뿌리’를 봐야한다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고전 문학 작품을 번역하여 감상하고 비평하는 일을 넘어서, 문학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으로 이어졌다.¹²

러시아 문학이 걸어온 길을 보면서, 이선근은 근대라는 시간대를 바라보는 ‘주변부’ 사람으로서의 감각을 기른다. 이선근은 비서구의 근대가 서구를 모방하는 행위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학의 경우 근대화는 주로 서구 문학의 번역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러시아 문단의 발전 경로는 서구 문학의 번역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러시아 문단은 초창기에는 ‘외국문학 곧 서구학(西歐學)’의 번역, 혹은 모방, 개작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건전한 토대로 삼고 그 위에 러시아의 독특한 국민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창작’을 낳는 데 성공했다. “그네는 서구문학이라는 거울을 잘 닦아 그 앞에 자신의 창조력을 비추어보는 동시에 그로부터 새로운 창작을 찾아냈다는 것이다.”¹³

서구의 주변부라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서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섭취한 이후, 러시아적 근대화를 모색하는 것을 보면서 이선근은 근대의 여명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주변부의 과업을 정리했을 것이다.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선근은 가타카미 노보루(片山伸), 노보리 쇼무(昇曙夢) 등 와세다대학 노문과의 우수 교수진이 학교 당국과의 마찰로 총퇴진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자, 결국 노문과 진학을 포기하고 사학과를 선택한다. 그럼에도 사학과에서 이선근이 본래 지녔던 관심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학과에서 서양사를 공부하다가 학사졸업 논문을 고민하던 시절을 두고 이선근은 다음과 같은 회고를 남겼다.

12 이선근을 초기 러시아 문학도로서 접근한 연구로는 김진영, 2015, 「일본유학생과 러시아문학: 조선의 1세대 노문학도를 찾아서」, 『러시아연구』 25-1에 있다.

13 이선근, 1927, 앞의 글, 11쪽. 이선근은 특히 러시아 문학에서 푸시킨을 매우 중시했다. 푸시킨이 러시아 고전 문학을 완성하고, 후대 문학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선근, 「근대노문학의 시조: 푸시킨의 예술(1)」, 『조선일보』, 1929.5.26.

나는 러시아 혁명과 프랑스대혁명의 비교연구를 하겠다고 했더니 계무야마 센타로(煙山專太郎) 교수는 깔깔 웃으면서, “너, 그 나라 말들을 아느냐”고 물었다. “러시아어는 좀 압니다”는 말에 “일본어 번역서들을 읽고 졸업논문을 쓸 생각이군. 이보게 이군, 학문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법이네. 그 나라 말을 모르고 한다는 것은 무리야. 그리고 테마가 너무 커”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다음 번에 생각한 “발칸 반도의 약소민족 독립운동”도 (이선근이) 그리스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뼈아픈 말을 했다. “이군, 자네는 자네 나라 역사 공부를 했다. 너희는 역사까지 우리나라에 뺏겨있어”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서양사(학과) 졸업 논문에 조선사를 할 수도 없잖습니까”고 했더니, “무슨 상관이야, 와세다는 자유 학원이야”라는 대답이었다.¹⁴

이 회고글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일본의 다른 제국대학과 달리, 와세다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빼앗긴 역사’인 조선의 근현대사를 연구할 수 있었다는 이선근의 은근한 자부심이다. 이선근은 휘문과 같은 민족주의 사학에 이어, 와세다대학의 ‘자유’ 학풍 속에 일제의 관학과 거리를 두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줄곧 자부심을 드러냈다.¹⁵ 다음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사료를 읽어낼 수 있어야지만 국제적인 학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선근이 조선사를 연구 대상으로 한 이유이기도 하면서 이선근이 스스로의 아카데미즘을 세우는 방식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선근이 일찍부터 발칸반도의 민족운동과 같은 약소민족 독립운동을 역사 연구의 주제로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14 이선근, 「나의 이력서 16」, 『한국일보』, 1975.2.7.

15 이선근과 비슷한 시기에 와세다대학에 유학한 인물로는 이병도, 김상기, 이상백 등이 있다. 이선근, 1989, 「연의 삼국지가 준 교훈」, 『민족의 이념과 진로』, 휘문출판사, 455쪽. 이선근은 이병도, 이상백과 함께 진단학회가 주도한 『한국사』 집필에 참여한다.

이선근이 역사학을 자료에 기반한 학문인 동시에, 현상타파를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무야마 센타로 교수의 격려에 힘입어 이선근은 서양 근세의 물질 문명이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특히 조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가를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다. 이는 「대원군시대의 연구」라는 졸업 논문(1929)으로 마무리된다. 러시아 문학에서 러시아적 재해석에 주목했듯이, 이선근은 조선 근대사를 통해서 자신이 주로 대학에서 공부했던 서양사(세계사)와의 연관성을 다루면서, 조선의 대응에 주목했다. 졸업 논문 내용에 기초하여, 이후 『조선일보』에 연재되다가 1931년에 출간된 『조선최근세사』는 이선근의 첫 저서이지만, 서구의 충격과 조선 국가와 민족의 대응을 대원군 집권기를 통해 읽어내려는 구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¹⁶

III. 1930년대 조선 정신의 모색

이선근은 조선의 근세사와 최근세사를 대원군 집정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¹⁷ 우선 대내적으로 부패한 귀족정치가 왕실 중심의 중앙집권제로 이행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서구 문명과 종래의 쇄국주의가 맞부딪히면서 조선근세사의 총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¹⁸ 특히 대원군 집정기에 조선은 서구 세력과 조우했다.¹⁹ 조선의 오른편에는 프랑스(불란서)가 진출하고, 왼편에는 러시아(노서

16 『조선최근세사』는 훗날 형태를 달리하여 30년 후 『한국사: 최근세편』(1961), 40년 후 『대원군의 시대』(1974)로 이어진다. 『조선최근세사』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언: 조선최근세사의 권두에 서함, 안재홍/ 자서/ 제1장 말엽의 조선과 고종 즉위/ 제2장 대원군 집정과 내치, 외교/ 제3장 대원군의 실세(失勢)/ 부록: 대원군의 인물

17 이선근, 1931, 『조선최근세사』, 유성사, 11쪽.

18 이선근, 1931, 위의 책, 11~12쪽.

19 훗날 이선근은 한국사의 근대 기점을 두고 1860년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기점으로 삼는 1876년은 유럽 세력이 아닌 일본과의 조약 체결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아)가 등장했으며, 중국(지나)은 쇠퇴하고, 동시에 일본은 서구 세력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다.²⁰ 최근세사의 출발로서 서구 세력의 등장을 중시하면서도, 이선근은 조선 측이 일련의 대응을 보였다는 점을 함께 다루고자 했다. 조선은 서양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적·사상적으로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다. 대원군은 왕실 중심의 중앙집권제를 회복하면서 서구 세력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의 확충을 이루고자 했다. 또 사상적으로는 조선 정신에 기초한 동학이 등장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조선 정신’이다. 이선근은 조선 왕조가 약 400년간의 쇄국주의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부패해가던 은둔의 나라라 평가했다.²¹ 특히 이선근은 조선이 내부에서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어느 국가나 민족을 물론하고 그네가 멸망당하며 쇠퇴하게 됨에는 외세의 압력도 있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내부적으로 오랜 시일을 거쳐온 정치적 혹은 사회적 여러 가지 결함이 스스로 치명적 원인을 짓는 바이니 말세의 이조 조선도 내부적으로 이미 만성이 되어 여간 수술로는 고치기 어려운 각종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볼 때엔 고려 시대부터 발원한 보수적 유교사상과 이조 건국 초부터 국시(國是)가 되다시피한 사대적 한화주의의 산물로 부패한 문약정치와 그에 따른 사색당쟁의 폐해가 당시의 소위 정치를 극도로 혼란타락시켰으며...²²

그는 조선이 무너진 원인으로 사대적 한화(漢化)주의로 인한 문약 정치를 꼽았다. 이선근이 생각하는 ‘사대적 한화주의’는 조선의 주체성을 상징하는 ‘조선

문제가 있으며, 외부의 충격이 아닌 이에 맞선 민족의 사상적·정치군사적 대응을 함께 봐야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선근, 1988, 「근대화의 기점 문제와 1860년대 한국」, 『민족사의 혈맥』, 휘문출판사, 266쪽.

20 이선근, 1931, 앞의 책, 38쪽.

21 이선근, 1931, 위의 책, 19~20쪽.

22 이선근, 1931, 위의 책, 20쪽.

정신'을 무너뜨리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했다. 조선 왕조의 건국은 “조선 정신을 내버리고 속속들이 중국풍을 맹종한 모방사(模倣史)에 지나지 못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²³ 조선의 위정자들은 유교와 사대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다.²⁴ 그 결과 조선은 문약해지고 말았다. 이는 옛(古) 조선인의 서복을 압도 하던 무력적 강웅(強雄)과 동서(東西)에 부끄럽지 않은 문화적 건설에 비추어볼 때 누구나 분탄(憤嘆)을 금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²⁵

이처럼 이선근은 조선 왕조가 문약해진 원인으로 중국화를 꼽았다. 그러나 그가 한국사를 비판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었다. 희망은 조선 건국 이전의 한국 사에 있었다. 중국화가 되기 전 한국사에는 ‘조선 정신’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억압을 받기도 했지만, 조선 정신이 잠재된 형태로 늘 존재했다는 점을 저술 전반에서 은근히 강조했다. 동학의 창시는 조선 정신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였다. 이선근은 동학이 서교와 서학과 대립되는 조선 정신과 동양학을 주장한 종교 운동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의 양반 계급에 대한 민중의 반항 운동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동학에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했다.²⁶

동학이 서양에 대항하면서, 조선 정신의 부활을 모색하는 사상적 차원의 대응을 했다면, 대원군은 문약해진 조선을 개혁하여 정치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분투한 인물이었다. 이선근은 대원군이 조선 인민 전체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고, 조선이 약화된 원인을 일부 양반 계급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이선근이 『조선최근세사』에서 자주 참고했던 기쿠지 겐조(菊池謙讓)의 대원군 시대 서술과 비교해보면 그 특색이 좀 더 드러난다. 기쿠지 겐조는 반도의 백성들이 모두 “단 한 번도 자립한 강국의 백성이 된 때가 없었다. 그들은 옛날부터 고상한 문화와 선량한 교훈을 받아들이었으나 이것을 전혀

23 이선근, 1931, 위의 책, 21쪽.

24 이선근은 다른 글에서 조선을 고려와 대비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선근, 1986, 「조선사 상의 무인년」(1938), 『역사와 민족』, 하성학술재단.

25 이선근, 1931, 앞의 책, 22쪽.

26 이선근, 1931, 위의 책, 31쪽.

주고 교훈을 주었던 대륙은 약탈과 침략을 감행하여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은 마침내 강대국을 섬기고, 이용하는 지술(智術)으로써 복택을 받는 것을 최선의 국시(國是)로 삼았던 것이다.”²⁷

기쿠치 겐조와 이선근 모두 중국화의 결과로 조선이 문약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선근은 조선 왕조사와 한국사의 가능성을 분리하여 이해한다는 차이점이 눈에 띈다. 이선근에 따르면 대원군은 과단성 있게 양반 계급을 상대로 한 탄압 정책을 펼치면서, 왕권 강화에 힘쓰며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조선 정신을 약화시킨 원인이 사대주의에 있다면, 사대주의를 주창한 양반 계급을 탄압하는 일은 조선 정신 회복의 첫 걸음이었다.

그렇다면 조선 정신은 서세동점의 맥락 속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했을까. 조선 정신은 한국사에 내재된 사상 흐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학’을 의식할 때에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서구화 속에서 러시아적 정체성을 모색했던 러시아 문학의 사례가 일종의 기준점이 되었을 것이다. 이선근은 기존 전통에 입각한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접촉을 중시했다. 이를 역사에 적용해본다면, 당시 조선에 필요했던 것은 서구 세력과의 활발한 접촉이었다. 그러나 국내정치 면에서는 과단성이 있었던 대원군의 성향은 국제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단점으로 작용했다.²⁸

이선근은 『조선최근세사』의 후반부에서 대원군 시기의 대외관계사를 다룬다. 사대주의에 물든 조선 조정은 폭넓은 국제적 시야를 지니기 어려웠다. 외교는 기존의 중화 질서적 사대주의 논리가 아니라 외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선근이 보기에 서교(西敎)의 전래와 서교도의 존재는 조선의 국제정세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조선인의 서교 수용이 일정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는 조선의 서양 수용으로 이어지지 못

27 기쿠치 겐조의 『조선최근외교사 대원군전』(1910)은 『홍선대원군 자료취편』에 수록된 글을 활용했다. 석파학술연구원 엮음, 2005, 『홍선대원군 자료취편 제4권: 대원군전 외』, 현음사, 24~25쪽.

28 이선근, 1931, 앞의 책, 89쪽.

했다는 것이 이선근의 진단이었다. 그리고 실제 역사의 전개는 1866년 대원군의 서교도 탄압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귀결된다.²⁹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원군의 서교도 탄압이 국내 문제로 그치지 않고 프랑스와의 병인양요(1866)라는 국제정치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대원군이 한때 러시아 견제를 위해 조선-프랑스 동맹까지 구상한 현실적인 지도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였다. 그리고 병인양요 이후 공식적으로 서양 세력과의 접촉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선 사회 내부에서 형성되었다. 이후 일본과의 서계 갈등, 일본의 정한론 등으로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대원군의 시야는 더욱 배외적인 태도로 나아갔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도 신미양요(1871)를 겪는다. 서양을 수용하면서 조선 정신을 담지할 수 있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갱신을 기대했던 이선근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원군 시대를 독해할 때 드러난 시선은 당대 세계정치를 바라보는 이선근의 시각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선근은 『조선일보』에 이수석(李水石)이라는 필명으로 동시대 아프가니스탄 관련 연재 기사를 작성한다.³⁰ 1929년 10월에 연재된 「영리의 각축 하의 중앙: 아프간(아부한) 내란의 경위」는 표면상 192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발한 내란을 다루지만, 영국과 러시아 제국 사이에서 완충국 역할을 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정치를 역사적으로 다루었다. 이 기사에서 이선근은 자신이 대원군 시대를 바라보는 구도를 그대로 투사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를 독해한다. 이 기사를 통해 이선근이 대원군에게 어떤 정치적 역할을 기대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29 이선근, 1931, 위의 책, 98쪽. 그러나 이선근은 1860년대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대원군이 정치적 위험 속에서도 조선 내 서교도를 통해 프랑스와 접촉하고자 했으나, 러시아 위협론이 수그러드는 상황 속에서 굳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기에 서교도 탄압으로 노선을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30 이선근은 필명 내지 호가 3개나 있다고 밝혔는데, 즉 철산(鐵山), 수석(水石), 하성(霞城)이다. 이선근, 「나의 이력서 21: 천당과 지옥」, 『한국일보』, 1975.2.13.

먼저 아프가니스탄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쪽으로는 제국주의 영국의 생명선인 인도와 접해 있었고, 북쪽으로는 수세기 동안 적극적 남진책을 펼쳐온 러시아(露西亞)를 접해 있었다. 그렇기에 아프가니스탄은 언제나 양대 세력 각축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다.³¹ 아프가니스탄의 압둘 라흐만 칸(재위 1880~1901)은 “난마(亂麻)와 같은 봉건 세력을 두드려 부순 후 고투 십년(苦鬪十年)에 확고한 전제왕국을 세워 우선 지금까지 무상농락하던 영국국으로서도 1880년 아프가니스탄의 주권을 승인치 않을 수 없게 만든 위인이었다.” 그는 20여 년의 치세를 통해 안으로는 봉건적 모든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아프가니스탄 상비군을 건설하여 무력에 기초한 무단 전제정치를 결행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자국의 권익에 기초하여 영국과 러시아라는 양대 세력을 교묘히 조종하여 중간적 안전을 유지했다.³²

압둘 라흐만의 뒤를 이어 즉위한 아마눌라 칸은 인도 내의 반영 운동을 틈타서 인도 북쪽 경계선(北境)을 침입했다. 영국군의 반격으로 이와 같은 침입은 군사적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세계대전 이후의 분위기 속에서 국제정세는 영국의 종래와 같은 고압 정책을 유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완전 독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영국의 간섭을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선근은 아마눌라 칸의 인도 침입은 비록 군사적으로는 실패했어도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높이 평가했다.³³ 이선근이 대원군의 대내외정책에서 바란 최대치가 이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에 투사되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선근은 서양 세력과 투쟁하더라도, 이를 통해 정치적 결과인 ‘독립’을 얻어내는 지도자를 원했다.

1930년대 이선근은 대원군을 독일의 히틀러와 비교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이선근은 “히틀러는 대전 후 독일을 에워싼 국제정세가 전 국민으로 하여금 앞

31 이수석, 「영러 각축 하의 중아: 아프간 내란의 경위 1」, 『조선일보』, 1929.10.2.

32 이수석, 「영러 각축 하의 중아: 아프간 내란의 경위 1」, 『조선일보』, 1929.10.2.

33 이수석, 「영러 각축 하의 중아: 아프간 내란의 경위 4」, 『조선일보』, 1929.10.5.

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坐以待死)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매 이를 통찰하여 차라리 힘을 써 싸우다 죽을 것(力戰而死)하겠다는 각오에서 최후의 배수진세를 버리고 범투돌진하는 것이라 간주할 수 있는 것이요, 대원군의 쇄국양이는 국제적 무식의 소치로밖에 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히 외국에 포위된 상태에서 전쟁을 불사하는 히틀러가 나왔다면, 대원군이 직면했던 19세기 후반의 국제정세는 전쟁을 불사하는 강경 정책이 꼭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선근은 대원군 밑에 박영효와 김옥균이 결합했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기도 했다.³⁴ 조선을 에워싼 국제정세를 살펴가며 박영효가 군사와 국방을 맡고, 김옥균이 외교와 선전 및 교화를 맡은 후, 안으로는 오백 년 적폐를 뽑아버리고 밖으로는 무리한 외모(外侮)를 방지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만의 상상이었다.³⁵ 이와 같은 대원군관은 『조선최근세사』의 결론과 상통했다. 대원군의 외교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선근은 그 원인으로 대원군 주변에 세계대세를 살필 인물이 부족했고, 철저한 쇄국주의의 타성에서 대원군이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³⁶

정리하자면 이선근은 대원군이 조선의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면서, 조선이라는 국가가 억압한 조선 정신의 회복을 일정하게 이루어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대원군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더욱 경색된 대외관계 속에서 정권의 장기적·지속적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조선최근세사』에서 표명된 이선근의 해석들은 서세동점이라는 19세기의 세계사적인 세력 구도 속에서 기본적으로 조선 정신의 향방을 평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대원군 시대에 조선 정신의 부활은 일정하게 시작되었으나, 국제적 시야까지 확보하지 못한 조선 정신은 지속될 수 없었고, 이는 조선의 망국으로 이어졌다. 조선 정신은 이제 국가를 잃고 더욱더 잠재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34 이선근, 1934, 「대원군 인물론: 히틀러와 대원군」, 『신동아』 10월호, 6쪽.

35 이선근, 1934, 위의 글, 6쪽.

36 이선근, 1931, 앞의 책, 209~210쪽.

대원군이 지니지 못한 국제적 시선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을까. 1930년대 이선근은 국제정세 분석에 힘을 쏟았다. 1930년대 국제정세에 대한 관찰은 동향 개성 출신 공진항과 의기투합하여 발행한 『고려시보』(1933년 창간, 월 2회 발간)라는 지역언론 지면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진다.³⁷ 『고려시보』의 주필로서 이선근은 줄곧 이수석이라는 필명으로 국제정국 동태와 관련된 기사를 창간부터 1939년까지 작성했다. 이선근은 유럽 정세, 소련-일본 관계, 미국-일본 관계, 중국 내부의 사정을 소상하게 전달했다.

국제정세 분석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이선근의 시각은 일본 제국의 장래를 낙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갔다. 역사 연구에서 조선 정신을 강조했다라도, 조선 정신을 담지할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 정신을 강조하는 분석은 현실적 의미를 지니기 어려웠다. 1935년의 세계정국을 뒤돌아보는 한 기사에서 이선근은 유럽에서 히틀러 독일의 부상으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독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소련 역시 동방 정책에 소극적이며, 이는 일본에 유리한 정세 조성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국민당 정권 역시 일본과의 외교적 타협을 고려했고, 이는 일본과 만주국에 안정적인 정세를 의미했다.³⁸ 1939년 즈음에는 이제 ‘가지지 못한 나라’ 일본-독일-이탈리아의 반공 연합이 국제적 정국을 주도해오던 ‘가진 나라’들인 영국-프랑스-미국 등과 대립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정치적 대세를 리드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했다.³⁹

국제정세가 일본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선근은 만주로 활동의 중심지를 옮긴다. 이선근이 만주를 직접 방문한 건 이선근 자신의 기록에 따르면 1938년 2월의 일이었다.⁴⁰ 이선근은 만주로의 진출을 ‘조선 정신’의 부활로 정당화

37 『고려시보』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고려시보』와 『고려시보』의 주도적 엘리트에 대해서는 양정필, 2007, 「1930년대 개성지역 신진 엘리트 연구: 『고려시보』 동인의 사회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3이 있다.

38 이수석, 「국제정세의 회고와 전망」, 『고려시보』, 1935.5.1.

39 이수석, 「국제정국의 회고와 전망」, 『고려시보』, 1939.1.1.

했다. 이선근은 조선 민족이 만주에 공간적 활동의 중심을 두었을 때 ‘조선 문화’가 꽃을 피웠다는 사실을 강조했다.⁴¹ 만주를 지키던 고구려와 발해가 멸망한 이후, 조선 민족과 만주의 정치적 관계는 소원해졌다. 그러나 이선근에 따르면 조선 민족에게는 늘 만주가 관념적으로 존재했다. 고려가 국호를 고려로 정하고, 북진주의를 채택한 것은 만주를 우리의 고토로 생각하여 그 회복을 꿈꾸었던 사례였다. 또 이선근은 서희와 묘청 일파의 서경천도운동, 최영의 정명(證明) 요구를 언급하기도 했다.⁴²

문제는 다시 조선 시대였다. 국민을 통치지도하는 양반 유림들과 왕가에서부터 사대주의가 노골화되고 숭명한화주의가 왕성해져 국가적으로 진취기상을 잃었으며 소극적으로 미봉주의에 급급하게 되는 바람에 만주는 민족의 관념에서도 사라지고 만다.⁴³ 이선근은 자신의 만주 진출을 “머릿속에 박힌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이라는 경계선적 관념을 버리고, 이웃 동리, 우리 별판을 왕래하는 친밀 사협(私協)한 정신 아래 가장 용감한 개척민”의 진출로 정당화했다.⁴⁴ 이는 일본 제국 내의 조선 민족의 지위를 생각하면서, 조선 민족의 정치적 미래가 아닌 문화적 미래를 꿈꾸는 전략이었다.⁴⁵ 조선 정신의 역사적 사례로서 대원군과 동학을 언급했던 이선근은 이제 조선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만주-한반도라는 공간을 연결하면서 조선 정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조선 정신’이 조선이 직면했던 최근세사의 과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선근의 ‘조선 정신’은 1930년대 말부터 시공간적으로 대폭 확장되고 있었다.

40 이선근, 「주마간만주기」, 『고려시보』, 1938.2.16.

41 이선근, 1986, 「만주와 조선」(1939), 『역사와 민족』, 하성학술재단, 454쪽.

42 이선근, 1986, 위의 글, 455쪽.

43 이선근, 1986, 위의 글, 456쪽.

44 이선근, 1986, 위의 글, 457~458쪽.

45 이명중은 기존의 만주-단군강역론에서 만주가 조선의 주권을 의미했다면, 이선근의 대륙진출론에서 조선은 조선의 고유성을 버리면서 만주국으로 흡수되는 방식이라 예리하게 정리했다. 이명중, 2018,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 한양대학교출판부, 417쪽.

IV. 1940년대 조선 정신의 구축

이선근의 기대와 달리 전쟁은 일본 제국의 패배로 끝났다. 이선근 역시 동양에서 미일전쟁의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전쟁이 일어나도 승패의 향방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 일본의 이해관계가 절대적인 만큼 일본은 미국 측보다 강렬한 투지를 보일 것이고, 정치외교적으로 일본이 식민지 민족의 심리를 조종하기 어렵고, 열강의 관계에서 미국에 비해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력이 풍부한 미국이 유리하지만 전쟁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면 일본에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미국과 일본 모두에 관계되는 식민지 민족의 민족운동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했다.”⁴⁶

그러나 원자탄과 소련의 참전으로 미국-일본의 세력균형 상태는 급격히 변모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선근의 만주 생활은 위기에 놓인다. 이선근은 서울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9월 귀국했다. 서울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되고 발기인 명단에 이선근의 이름이 끼어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조심스레 귀국길에 오른 것이다.⁴⁷

귀국 후 이선근은 『조선최근세사』를 복간하면서, 자신의 연구자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는 동시에 활발한 집필 활동을 개시했다. 그는 국학전문학교 학생회 편집부에서 발간하는 『국학(國學)』 창간호에 「당쟁과 조선」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선근은 당쟁이 정강, 정책의 찬반이 아니라, 사리사욕과 정권욕에 나온 것으로 조선을 정치적 쇠망의 길로 끌고 갔다고 적었다. 당쟁은 “사대한화주의 자체의 모순으로서 공리공론으로 긴낫 긴밤을 보내던 사대, 한화, 송유주의의 양반지배계급들이 그들 자체 내의 모순을 역사적으로 폭로한 것”⁴⁸이었다.

46 「극동전운과 열강군비」, 『삼천리』 3권 10호, 1931.

47 이선근, 1978,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휘문출판사, 774쪽.

48 이선근, 1986, 「당쟁과 조선」(1946), 『역사와 민족』, 하성학술재단, 358쪽.

이미 『조선최근세사』에서 당쟁론은 양반 계급을 비판하는 논리로 활용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강조점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선근은 38선을 중심으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상황에서 당쟁과 비슷한 정치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 근거를 들어 비판하고자 했다. 양반 계급이 외부에서 온 사대환화주의에 의거해서 당쟁을 벌였듯이, 최근 좌파와 우파 모두 외래의 사상에 의거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민족적 입장을 망각하고 있었다. 이선근은 이와 같은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민족적 자주정신’을 제시했다. 이선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946년 작성된 『한성일보』의 사설은 분단과 신탁통치, 미소공동위원회 등 긴박한 정세 속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미소의 국내분할 점거가 가릴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의 자주독립 또한 연합 제국(諸國) 특히 미소 양국의 원조에 기대하는 바 많고 또 이에 제약되는 받음도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의 주장을 가지려는 자 아니다. 그러나 당면 불가피한 이 정세를 우리는 분명 우리의 자주적 독자적 입장에서 검토하여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취하고 해로운 것을 거부할 것이다. 전 민족적인 자주적 입장을 망각하고는 민족 전체의 이해득실의 논할 자격 없고 다만 자가의 이해 자당 자파의 득실에 국한한다. 자당자파만을 주장하고 고집할 때 민족 전체의 대사를 그르치게 됨은 리(理)의 당연한 자이다. ... 우리는 첫째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하고 둘째 소승적 자욕을 버리고 전체적 이익에 입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해방 완전한 독립을 가져야 하겠고 될 뻔한 해방에 안온할 수 없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독립은 물론이요, 해방은 아직 되지 않았다. 우리는 의연히 무거운 굴레를 뚫어쓰고 있다. 지도자도 민중도 대각 일변(一變) 조선으로서의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조선민족으로서의 자주정신을 양양하여 뭉쳐진 한덩이 뇌호(牢乎)한 자위력을 가짐으로써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고 진정한 해방에 이바지해야 한다. 진정한 해방에는 여하한 형태의 예측도 허용되지 않는다.⁴⁹

해방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진정한 해방을 위해 이선근은 ‘자주 정신’을 제창하면서, 그 주체로 민족을 매우 강하게 호명한다. 이선근은 1946년 말미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었다. “38선 분단은 매우 불리한 객관적 조건이었고, 내부의 상극이 이처럼 잔인한 때가 없었으니 과거사와 비교해봐도 공전(空前)의 위기였다. 이 공전의 위기를 극복할 자는 자본계급의 영리장, 프롤레타리아트 계급도 아니고, 국제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도 아니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어느 놈이든 큼직하고 힘센 놈에게 붙어서 살아보자는 주장에 다름없었다.”⁵⁰

바로 이때 이선근이 발견한 논리가 바로 ‘화랑도’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년을 떠나서 나라를 세운 민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선근은 통일 초신라의 이야기를 끌어온다. 흥미로운 대목은 삼국통일을 추진한 신라가 아니라, 당나라와의 전쟁을 선택한 신라를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통일 초의 신라때 우리 국민이 화랑도의 젊은 기백과 애국의 정열이 없었던들 동맹국의 미명하에 이 나라에 진주한 채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으려는 당나라의 8년 주병을 그 무엇으로 물리쳤을 것”⁵¹이라고 일갈했다. 그만큼 이선근이 해방 이후 강하게 의식하고 있던 것은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극복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 내부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선근의 판단이었다. 1946년 12월 4일 「민족의 위기와 청년의 진로」의 마지막 편에서 이선근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부잣집 도련님이 아무리 떠들어야 가난한 살림살이를 모르는 바이요, 과부라야 과부의 설움을 짐작하듯이 적색 소련은 제 아무리 약소민족의 동무라 해도 폴란드와 발틱 3국이나 만주나 혹은 다르다넬스에서 취해 온 행동과 취하고 있는 태도에 비

49 「사설: 민족적 자주정신의 양양」, 『한성일보』, 1946.4.9.

50 이선근, 1989a, 「민족의 위기와 청년의 진로」(1946), 『민족의 이념과 진로』, 휘문출판사, 394~395쪽.

51 이선근, 1989a, 위의 글, 395쪽.

추어 결코 좋은 동무라 믿을 수 없는 것이요, 미영은 미영대로 차이는 있으나 팔레스타인 문제를 통하여 인도의 현상이나 대한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부잣집 도련님의 견해를 청산치 못하고 있다.⁵²

이선근은 미국과 소련을 ‘부잣집 도련님’이라 모두 상대화하면서, 한국의 청년들이 참조할 수 있는 대상은 서쪽으로는 아일랜드, 북구 제국(발트 3국), 발칸으로부터 튀르키예, 인도와 중앙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제국(諸國)을 포함한 세계 약소민족이라고 말한다.⁵³ 조선을 포함한 약소민족은 외세에 기대지 않고 유럽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난관을 돌파해야만 했다. 특히 이런 세계 약소민족의 비애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38선’이며, 이런 비극을 알고 있는 한국의 청년이야말로 약소민족 단결의 선봉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38선은 인류의 천정(天頂)이자 인류의 지옥이기에 38선 문제를 해결한다면 세계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였다.⁵⁴ 약소민족의 경우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공산주의, 부잣집 도련님의 달콤한 꿈밖에 안 되는 자본주의 모두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구상을 찾아야 했다.⁵⁵

이와 같은 논리를 집약하면서 1949년 11월 이선근은 『화랑도연구』를 내놓았다.⁵⁶ 『화랑도연구』는 대한청년단의 결성과 함께 청년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52 이선근, 1989a, 위의 글, 418쪽.

53 미국과 소련을 상대화하는 발상은 이수석(이선근), 1946, 「쇠약한 산모의 비애(민족적 현실에 대한 나의 느낌)」, 『신세대』 1권 2호에도 나타나 있다. 이선근은 이 글에서 해방조선이라는 아이를 가까스로 출산한 산모(조선 민족)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홍(紅)씨 성을 지닌 산파(소련), 백(白)씨 성을 지닌 산파(미국)가 신탁, 후견, 원조를 해주겠다는 논리를 비판했다.

54 이선근, 1989a, 앞의 글, 418쪽.

55 이선근, 1989b, 「세계약소민족의 총궐기」(1947), 『민족의 이념과 진로』, 휘문출판사, 444쪽.

56 이선근, 1954(1949), 『화랑도연구』, 동국문화사, 1쪽. 『화랑도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언/ 제1장 신라의 융흥(隆興)과 화랑도/ 제2장 고려 건국 이후의 화랑도/ 제3장 사대 사상과 이조의 당쟁화(禍)/ 제4장 당쟁과 이조의 국난/ 제5장 최근

탐구하기 위해 서술되었다고 이선근 스스로 밝히고 있기에, 지금까지 이 책은 청년운동의 이념적 뿌리 찾기라는 좁은 의미에서만 독해되어왔다. ‘청년단’이라는 역사적 표상을 한국사에서 찾으려는 과정에서 화랑이 재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화랑도는 이전부터 무르익어가던 이선근의 사관, 즉 ‘조선 정신’의 기원 찾기로 재독해될 필요가 있다.⁵⁷

『화랑도연구』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이선근이 이 책을 통해 자신과 신채호의 역사 해석을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⁵⁸ 이선근은 신채호의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 사건」을 『화랑도연구』의 부록으로 실으면서, 신채호의 글이 국사의 근본문제를 논단한 탁견이자, 화랑도에 대한 유일무이한 귀중한 사료라 보았다.⁵⁹ 실제로 『화랑도연구』의 제2장인 「여조(麗朝) 건국 이후의 화랑도」의 내용은 전적으로 신채호의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 사건」에 의거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채호는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라 할 수 있는 낭가 사상이 묘청의 성급한 서경 천도 운동의 실패 이후 쇠락하고 말았다고 해석했다.⁶⁰

세의 독립운동과 화랑도/ 결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금후 방향/ 부록: 단재 신채호 선생과 화랑도 연구/ 해설을 대신하여: 단재 선생과 나/ 신채호, 「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 후기

57 이선근의 「후기」에 따르면 제4장까지는 이미 『대동신문』에 연재된 분량(『대동신문』 1949년 1월~3월 연재분)으로 추정된다. 『화랑도연구』의 제5장과 결론의 집필은 1949년 8월 15일 원고 탈고 직전 ‘악전고투’ 끝에 마무리되었다. 이선근은 스스로 읽어보아도 제5장 이전과 이후는 문체부터 어색하다고 고백했다. 이선근, 1954, 「후기」, 『화랑도연구』, 233쪽.

58 실제로 이선근은 훗날 『단재신채호전집』의 간행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신채호를 ‘민족사관’을 확립한 역사가로 평가했다. 이선근, 1972, 「우리 민족사관은 누가 확립하였나」, 『단재신채호전집』, 을유문화사. 신채호가 ‘역사’를 발견하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로는 박근갑, 2011, 「단재 신채호와 역사의 발견」, 『역사학보』 210이 있다.

59 이선근, 1954, 앞의 책, 225~226쪽. 이는 「해설에 대신하여: 단재 선생과 나」의 내용이다.

60 이선근, 1954, 위의 책, 232쪽. 이는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의 내용이다.

이선근이 신채호를 자신의 스승으로 거론하는 일은 만주에서의 ‘친일’ 행보를 지우기 위한 방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역사 해석의 측면에서 이선근의 논의와 신채호의 논의가 결합될 수 있는 여지가 컸다. 신채호가 낭가 사상의 쇠락을 묘사하듯이, 이선근 역시 조선 왕조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며, 조선 왕조의 사대 사상이 ‘조선 정신’을 억압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가 억누른 조선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는 민족적인 대각성이 필요했으며, 이선근은 이와 같은 대각성에 최제우의 동학을 배치했다. 이제 동학의 사상사적 의미는 민족의 지도 이념의 하나로서 화랑도를 부활시켰다는 점에 있었다.

『조선최근세사』에서 동학당이 서구의 충격에 맞서는 조선의 사상적 대응으로서 강조되었다면, 『화랑도연구』에서는 외부의 충격보다는 억압된 화랑도의 부활로서 동학이 주목되었다. 최제우는 최치원의 후손이면서, 호까지 고운 최치원을 본따 수운으로 지었으며, 유교, 불교, 도교와 기독교(가톨릭)에 이르기까지 모든 외래 종교와 사상을 연구해보았으나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하고 다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사상과 신앙 속에서 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종교와 사상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심한 인물이었다.⁶¹ 최제우는 민족의 양심 속에 숨어 있던 화랑도를, 안으로는 문약, 당쟁, 주구(誅求)에 국권이 위태해지고 밖으로는 남왜북화와 구미열강까지 또다시 덩벼들어 민족의 운명이 위난해지는 상황에서 보국안민의 대도(大道)를 부르짖어 동학이라는 형태로 부흥시켰다.⁶²

“동학도에게 허물이 있다면 일부의 종교가들의 논하는 것처럼 저 소위 종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왜 정치운동이나 혁명운동을 일으켰느냐고 탓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동학의 연원을 모르는 우론(愚論)이니 필자가 상술한 대로 동학은

61 이선근, 1954, 위의 책, 138~139쪽.

62 이선근, 1954, 위의 책, 142쪽.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이요, 전통인 화랑도의 계승임을 알아야 된다. 상시에는 정신과 육체의 수련을 위한 교단으로 그러나 민족과 국가에 위난이 닥쳐올 때에는 정치와 군사의 제1선에 나타나는 것이 화랑도였다면 이를 계승하여 입교하고 포교한 동학이 교조신원운동에서 만족하지 않고 보국구민의 대기치를 들어서 그 날 그 판국에서 거족적인 정치행동과 군사행동을 일으킨 것은 그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⁶³

동학을 통해 화랑도는 부활할 수 있었고, 이렇게 부활한 화랑도는 1919년 기미독립운동으로 분출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화랑도연구』의 결론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 대한 해설로 채워진다. 이선근은 제헌 헌법의 전문(前文)이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섰노라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는 자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곧 3·1 정신이라 해석한다.⁶⁴ 3·1 정신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전통이자 신앙인 화랑도-동학도-천도교도를 골격으로 하고, 이에 다시 수입된 근대 세계의 민주주의 사조를 살과 피로 하여 구성된 것이었다.⁶⁵ 이선근이 『화랑도연구』에서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의 사상적 계보는 <그림 1>과 같다.

『화랑도연구』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압박과, 여기에 부응하는 국내정치 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족 고유’의 서사를 발견하고자 했던 이선근의 시각이 강하게 투영된 결과물이었다. 이선근은 ‘조선 정신’과 화랑도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존하는 정치체로서 대한민국을 정당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를 위해 조선 정신의 구현체로서 3·1 정신을 강조했다.

63 이선근, 1954, 위의 책, 181쪽.

64 이선근, 1954, 위의 책 197쪽.

65 이선근, 1954, 위의 책, 198쪽.

연대	사상 계열
신라 중엽-고려 중엽	① 민족 고유의 독립정신 화랑도 ② 외래의 준독립정신 불교 ③ 외래의 사대사상 유교
고려 중엽-이조 현종	④ 외래의 비정치적 가톨릭교 ⑤ 민주독립사상 개화당 ⑥ 신교의 독립사상 독립협회
철종-고종-순종	동학 천도교
일제 시대	3·1 정신
	대한민국

그림 1 3·1 정신의 계보와 대한민국(이선근, 1954, 『화랑도연구』, 196쪽을 참고하여 재구성)

V. 맺음말

이 글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친 이선근의 지적 행보를 학술사적 측면에서 읽어내려 했다. 특히 이 글은 이선근의 『조선최근세사』(1931)와 대한민국 건국 직후 출간된 『화랑도연구』(1949)에 반영된 이선근의 역사 해석을 ‘조선 정신’을 연결고리로 삼아 재해석했다. 지금까지 대원군 시기를 분석하는 『조선최근세사』와 한국사 전반을 다루는 『화랑도연구』는 이선근 개인 사상의 반영물이라기보다는 이선근의 정치적 활동으로 이해된 측면이 크다.

『조선최근세사』는 대원군 시대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 이선근의 노력이 었다. 이선근은 세계사적인 구도 속에서 조선사를 파악했다. 특히 그는 서양 세 력의 팽창이라는 충격 속에서 동양의 최근세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러시아 근대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했던 이선근의 초점은 최근세라는 새로운 시대

의 도래 속에서 조선의 대응을 살피는 데 있었다. 『조선최근세사』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조선의 대응을 평가하는 준거로 조선 정신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선근은 최근세 시기에도 조선 정신은 사상적으로는 동학, 정치적으로는 대원군의 대내 정책으로 표현되었다고 독해했다. 하지만 이선근은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조선 정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았던 대원군의 대외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1930년대 여러 국제 기사를 통해 이선근은 일본 제국의 팽창이 계속 되리라 파악했고, 이후 이선근의 조선 정신은 제국 내의 최대한의 위상 확보를 의미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이선근은 세계사적인 구도와 조선 정신이라는 자신의 구도 속에서 조선 정신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 작업의 결과물이 바로 『화랑도연구』이다. 이 책에서 이선근은 화랑도를 빌려서, 신채호와 자신의 공통점을 강조했으며, 신채호의 고종세사 해석과 자신이 다룬 최근세사 해석(동학-독립운동-3·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을 계보적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같이 ‘정신’을 강조하는 이선근의 서사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보증해주는 정치적 효과를 낳았다.

분단과 냉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선근이 만들어낸 서사는 비단 한 개인의 연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 서사의 일부로 편입되어 힘을 발휘했다. 식민지의 상황 속에서 최근세사 속 ‘조선 정신’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던 한 지식인의 지적 행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귀결되는 조선 정신의 구축이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조선최근세사』에서 세계사적 흐름을 의식하면서 존재한 ‘조선 정신’이 갈수록 세계사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민족 고유의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굴절된 사실을 직시하고 그 맥락과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1940년대 『화랑도연구』를 1930년대 『조선최근세사』에 견주어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는 하나의 시도였다.

참고문헌

자료

『고려시보』.
『대동신문』.
『동아일보』.
『삼천리』.
『신동아』.
『신세대』.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성일보』.

이선근, 1927, 「여명기 로서아 문단회고」, 『해외문학』 2.
_____, 1931, 『조선최근세사』, 유성사서점.
_____, 1945, 『조선최근세사』, 정음사.
_____, 1954(초판 1949), 『화랑도연구』, 동국문화사.
_____, 1978,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휘문출판사.
_____, 1986, 『역사와 민족』, 하성학술재단.
_____, 1988, 『민족사의 혈맥』, 휘문출판사.
_____, 1989, 『민족의 이념과 진로』, 휘문출판사.

단행본

구양근, 1994, 「이선근: 역대 부도덕한 정권의 밑받침이 되어준 이론가」, 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제3권, 청년사.
김종준, 2013, 「이선근이 주장한 ‘민족사학’의 성격과 ‘식민사학’의 친연성」,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의 관학 아카데미즘』, 소명출판.
_____, 2023, 『한국 근현대의 파시즘적 역사인식』, 소명출판.

박찬승, 2008, 「이선근의 한국사 연구와 역사관」, 김용덕·미야지마 히로시 함께 엮음,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Ⅲ: 1945년 전후』, 아연출판부.

석파학술연구원 엮음, 2005, 『홍선대원군 자료취편 제4권: 대원군전 외』, 현음사.

이명중, 2018,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 한양대학교출판부.

논문

김진영, 2015 「일본유학생과 러시아문학: 조선의 1세대 노문학도를 찾아서」, 『러시아연구』 25-1.

박근갑, 2011, 「단재 신채호와 역사의 발견」, 『역사학보』 210.

박성현, 2015, 「박정희 정권의 ‘화랑도’ 교육: 내용의 연원과 관철의 방식」, 『역사와 현실』 96.

손수범, 2009, 「이선근의 『한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사교과서」, 『역사와 역사교육』 19.

양정필, 2007, 「1930년대 개성지역 신진 엘리트 연구: 고려시보 동인의 사회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3.

이상록, 2018, 「이선근의 국난극복사관과 제3차 교육과정기 국사교육의 냉전사적 재해석: 사상전의 계보학을 중심으로」, 『청람사학』 28.

이택휘, 2010, 「이선근」, 『한국사 시민강좌』 46.

정종현, 2006, 「국민국가와 ‘화랑도’: 애국개몽기~대한민국 건국기의 ‘화랑’ 담론과 활용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4.

함충범, 2018, 「이선근의 삶의 궤적과 시대담론, 그리고 역사인식: 1950년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61.

허은, 2008, 「안보위기론의 제창자: 이선근」, 『내일을 여는 역사』 31.

후지이 다케시, 2013, 「1950년대 반공 교재의 정치학」, 『역사문제연구』 17-2.

이선근의 1930~1940년대 역사 해석과 ‘조선 정신’

옥창준

이 글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친 이선근의 지적 행보를 사상 차원에서 면밀하게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이 글의 주된 분석 대상은 이선근의 『조선최근세사』(1931/1945)와 대한민국 건국 직후 출간된 『화랑도연구』(1949)이다. 지금까지 대원군 시기를 분석하는 『조선최근세사』와 한국사 전반을 화랑 정신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화랑도연구』는 사상의 반영물보다는 이선근 개인의 기회주의적 정치 활동으로서 이해된 측면이 컸다.

『조선최근세사』는 대원군 시대를 이해하고자 한 이선근의 지적 노력이 었다. 러시아 문학, 서양사를 섭렵했던 이선근은 특정한 시공간적 구도 속에서 조선사를 파악했다. 특히 그는 서양 세력의 팽창이라는 ‘충격’을 통해 동양의 최근세가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선근의 주된 관심과 초점은 근세의 누적이 아닌, 외부의 충격으로 최근세에 내던져진 조선의 전반적인 대응을 살피는 데 있었다. 『조선최근세사』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조선의 대응을 평가하는 준거로 ‘조선 정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선근은 정신을 억누른 대원군 이전의 조선의 역사를 비판하면서, 조선 정신이 사상적으로는 동학, 정치적으로는 대원군의 대내 정책으로 분출되었다고 독해했다. 이후 이선근은 1930년대 여러 국제 기

사를 쓰며 국제정세의 추이 속에서 일본 제국의 팽창이 지속되리라 파악했고 일본 제국 안에서의 ‘조선 정신’을 추구했다. 이때의 조선 정신은 제국 내의 최대 한의 위상 확보를 의미했다.

해방 이후 이선근은 세계사의 변화와 조선 정신이라는 자신의 구도 속에서 조선 정신의 역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38선을 통한 한반도의 분단이 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 정신을 재소환했다. 이 결과물이 바로 『화랑도연구』(1949)이다. 이 책에서 이선근은 신채호와 자신을 직접 연결했고, 신채호의 고종세사 해석과 자신이 다룬 최근세사 해석(동학-독립운동-3·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을 계보적으로 이어낸다. 이와 같은 이선근의 역사 해석의 서사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보증해주는 지식 권력의 역할을 했다.

주제어: 이선근, 대원군, 화랑도, 조선 정신

Daewongun, Hwurangdo and Korean Spirit: Lee Seon-geun's Interpretation of Korean History during the 1930~1940s

Ok Changjoon

This article attempts to read Lee Seon-geun's work through the lens of the history of ideas. The main subjects of this article are Lee Seon-geun's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朝鮮最近世史研究』) and *Studies on Hwarangdo*(『花郎道研究』). Until now, these two works were understood as opportunistic political activities of Lee Seon-geun rather than reflections of Lee Seon-geun's ideas.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was Lee Seon-geun's effort to understand the era of Daewongun. Lee Seon-geun, who explored Russian literature and Western history, grasped the history of Korea from a specific perspective. In particular, he saw that the contemporary history of East Asia began in the shock of the expansion of Western forces. Lee Seon-geun's main interest and focus was examining the overall response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forcibly thrown out

of the modern era due to external shocks. An interesting point i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is that it refers to the “Korean spirit” as a criterion for evaluating Korean response. Lee Seon-geun idealized the Korean spirit amid criticism of the entire Korean history and read that even in recent periods, the “Korean spirit” was ideologically expressed as Donghak(東學) and politically Daewongun’s policy. Writing various international articles in the 1930s, Lee Seon-geun figured out that the expansion of the Japanese empire would continue amid the trend of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pursued the “Korean Spirit” within the Japanese empire. At this time, the “Korean spirit” meant securing the maximum status within the Japanese empire.

After liberation, Lee Seon-geun began to emphasiz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Korean spirit” through Hwarangdo.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38th parallel, Lee Seon-geun again summoned the “Korean spirit”. This result was *Studies on Hwarangdo*. In this book, Lee Seon-geun directly connected himself with Shin Chae-ho. This grand narrative of Lee Seon-geun’s interpretation of history served as a knowledge power that historically guaranteed the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Keywords: Lee Seon-geun, Daewongun, Hwarangdo, Korean Spirit

1980년대 리영희의 핵 인식과 반핵

—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핵 불감증 비판, 군사 주권의 회복

이행선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I. 머리말: 미·소의 핵군비 경쟁
- II. 레이건의 무제한 군사대결과 한반도 핵전장화 우려
- III.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체르노빌, 핵 불감증과 남·북의 군사력
- IV. 맺음말: 반핵, 반미, 군축, 평화 지향의 인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미·소의 핵군비 경쟁

이 글은 언론인이자 교수, 사회운동가였던 리영희(李泳禧, 1929.12.2~2010.12.5)의 반핵을 1980년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리영희는 1980년대 중후반 한국의 반핵운동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이기 때문이다.¹ 1980년대는 인류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반전·반핵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 중 하나에 속한다. 이 무렵의 상황을 살펴보면, 1977년 소련이 최신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SS-20을 서유럽을 조준해 배치했다. 상당한 수준으로 개량된 핵미사일의 배치에 대해 미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은 사전 경고도 듣지 못했다. 이 사건은 NATO의 미국 미사일 배치를 촉발했다. 1979년 카터 행정부는 서유럽 내 선택 지점에 퍼싱II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배치 계획을 세웠다. 퍼싱II미사일은 소련의 SS-20보다 15배는 더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파행이 있었는데도 카터와 브레즈네프는 1979년 6월 비엔나에서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II조약에 서명했는데, 미 의회의 반대로 심사가 지연되었다. 동년 12월 초 NATO 동맹국은 투표를 통해 퍼싱II와 순항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국면에서 12월 27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²

* 투고: 2023년 9월 10일, 심사 완료: 2023년 11월 8일, 재심사 완료: 2023년 11월 30일, 게재 확정: 2023년 12월 1일

- 1 “이영희 선생이 전쟁 반대의 입장에서 펼치는 ‘핵문명 경고’는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한반도는 강대국의 핵 볼모가 되려는가」, 「핵은 확실히 죽음을 보장한다」는 소논문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전개한 반핵의 논리는 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으로 하여금 반핵운동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다.” 김승국, 1989, 『겨레의 칠성판 核』, 황토, 170쪽.
- 2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1978년 군사 독재자를 전복시킨 아프가니스탄의 공산당 정부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정부가 추진한 급진적 사회 개혁(농업 집단화, 여성 부르카 관습의 폐지 및 교육, 영향력 있는 종교지도자 공격 등)이 이슬람의 반란을 자극하고 이슬람 봉기라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아

이 여파로 카터 대통령은 상원에서 SALTⅡ조약을 철회하고 소련에 곡물과 기술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그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의 모스크바 올림픽(1980) 불참을 발표했다. 카터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세계 석유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디딤돌³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⁴ 198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카터를 누르고 압도적으로 승리한 레이건은 1981년 취임사에서 “테탕트는 지금 까지 소련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이용한 일방 통로였다”면서 그 목적은 바로 “세계의 공산화”라고 못 박기도 했다. 레이건 집권 직후 카터 행정부 때 소련과 협상을 벌였던 SALTⅡ조약은 완전 중단됐다.⁵ 1981년 11월 18일 미국은 소련이 SS-20 미사일을 전부 해체하면 퍼싱Ⅱ와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제시했다. 미국은 미사일을 철수하는 대가로 소련이 미사일 1,100개를 제거하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는 애초에 소련이 거절할 것을 예상한 제안이었다. 소련의 거절을 명분으로 미국은 새 미사일을 유럽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 핵 동결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서유럽에서 반핵 시위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NATO의 새 미사일 배치가 진행되었다.⁶

프가니스탄 정부는 거듭 소련의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국제여론은 소련의 침공을 소련 팽창주의의 징후로 간주했다.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그 자신의’ 동유럽 제국의 범위를 넘어서 직접 군사력을 사용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식민지 이후의 세계에서 ‘민족 해방’을 위한 세력으로서 구축된 소련 이미지는 침공이라는 소련 ‘제국주의’의 증거에 의해서 퇴색된 것이다. 니콜라스 V. 라자놉스키·마크 D. 스타인버그 저, 조호연 역, 2011, 『러시아의 역사』, 까치, 850쪽.

- 3 소련군이 소련과 이란 사이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사실상 소련은 여러 해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1978년 4월부터는 지배 세력이었다. 앨런 브링클리 저, 황혜성 외 역, 2011,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3』, 휴머니스트, 505쪽.
- 4 존 루이스 개디스 저, 정철·강규형 역, 2010, 『냉전의 역사』, 예코리브르, 276~296쪽.
- 5 정옥식, 2012, 『핵의 세계사』, 아카이브, 289쪽.
- 6 존 루이스 개디스 저, 정철·강규형 역, 2010, 앞의 책, 306쪽.

게다가 1983년 3월 8일 레이건은 공산주의가 “국가 지상주의를 전파하고 개인에 대한 무소불위의 힘을 선언하며 궁극적으로 이 지구상의 만백성을 지배 하리라고 예고하고 있는 한, 그들은 바로 현대 세계에서 악의 중심”이라고 지적 하면서 “이길 수 있는 핵전쟁”의 전략으로 전략방위구상(SDI, 스타워즈)을 제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는 1980년에 비해 1985년 두 배로 늘어났다. 신 냉전이 절정에 달한 1986년에는 두 나라의 핵무기 보유량이 7만 개에 육박 했다. 미·소의 핵 군비경쟁이 격화하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반핵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유럽에서는 퍼싱II미사일의 유럽 배치 반대운동이 주요 대도시를 휩 쓸었다. 당황한 NATO의 회원국은 레이건 행정부에 핵미사일 배치를 재검토하 고 소련과의 핵군축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⁷

이러한 세계적인 반핵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1982년 5월 3일에 설립된 최열의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1984년부터 ‘반핵’의 의제를 개진하기 시작했다. 이 환경운동단체는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 고를 환기하며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용을 비판하고 한반도 핵무기 배 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⁸ 또한 공해문제연구소는 1985년 6월 7일 작성해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85반공해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⁹ 특히 1986년 4월 28일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 김세진과 반전반핵평화옹호투쟁위 원장 이재호(정치학과 4학년)가 ‘반전·반핵·양기 고희’, ‘반미자주화 반파쇼민

-
- 7 정옥식, 2012, 앞의 책, 288~292쪽;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핵 배치 동결 제의에 때맞춰 서독과 영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1985년 4월 8일 미제 핵 무기의 유럽 배치에 항의하는 대대적인 반핵시위가 벌어졌다. 「西獨·英 대규모 反核시위」, 『동아일보』, 1985.4.9, 4쪽.
 - 8 최열, 2009, 『환경운동과 더불어 33년』, 생각의 나무, 28쪽; 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4.6, 「한국의 공해현실에 대한 우리의 주장-제12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 여」, 『공해연구』 제5호; 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5.11,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문 제점」, 『공해연구』 제9호.
 - 9 이 선언문 안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 운행중단 사고 31건 발생, 고리원자력 발전소 일대 해조류 감소 등 안전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5.7, 「85반공해 선언」, 『공해연구』 제10호.

주화 투쟁 만세’ 등을 외치고 분신자살을 기도하면서 한국에서 반핵운동이 확대되었다.¹⁰ 게다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4.26.)도 있었다. 1980년대 후반 민족해방운동, 한국의 민주화, 환경운동과 결부되어 핵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좀 더 본격화된 것이다.

분단과 군사정부하에서 현실적으로 반핵운동은 제약받았지만 반전과 반핵을 주장하는 선구적인 반핵운동가, 지식인이 존재했다. 특히 표문태, 박수복, 리영희가 대표적이다. 1984년 세계비핵지대화운동 국제협의회한국지부 대표가 되어 한국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한 표문태,¹¹ 오랫동안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핵의 아이들: '86 한국 원폭피해자 2세의 현장』(1986) 등을 출간한 방송작가 박수복,¹² 유명한 평론서를 통해 한국사회에 깨달음과 지적 자극을 준 리영희의 반핵의 논리와 활동을 고찰하는 것은 분단-정전국가인 한국 사회의 핵무기 인식과 실상을 역사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박수복과 표문태에 대해서는 최근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리영희를 다루고자 한다. 미군사고문단의 통역장교로서 한국전쟁을 체험하고 기자로서 베트남 전쟁을 겪기도 했던¹³ 리영희의 반핵사상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되었다. 서보혁은 리영희의 평화사상을 ‘반핵 평화주의, 동아시아 분단체제론, 한반도 평화체제 이론’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시도했다¹⁴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다만 방대한 양을 다루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리영희의 사상을 정리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핵 인식의 변화 과정이

10 서울대 반전반핵평화투쟁위원회는 1986년 3월 18일 〈민족의 생존과 변명을 위한 반전 반핵 투쟁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제작해 배포하였다.

11 1980년대 표문태의 반핵운동에 대해서는 이행선, 2021, 『『핵전쟁』(랩, 램프 E)의 번역(1970)과 문학자 표문태의 반핵 운동』, 『한국학』 통권 164호, 87~123쪽 참조.

12 이행선, 2022, 『한국 핵 피폭자운동의 선구자 박수복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북아역사논총』 제77호, 343~384쪽.

13 김동춘, 2017,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리영희」,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 돌베개, 309~320쪽.

14 서보혁, 2017, 「리영희의 반전반핵 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집 2호, 121~155쪽.

없다는 뜻이다. 주지하듯 운동의 논리와 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의 축적과 시대 국면의 영향에 따라 변화하고 재구성된다.

내가 69년에 램프 E. 램의 「핵전쟁(Kill and Over, Kill)」을 번역, 출간했을 당시 한국에서는 반핵의 의미도 모르던 때였다. 나는 램의 저서를 통하여 오늘을 사는 지구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핵에너지’를 거부하는 일임을 배웠고, 그 후로 힘 들고 외로운 자리에서 아무런 호응도 없는 반핵운동을 해오면서 미국의 램을 위시하여, 미국 일백만 반핵시민의 워싱턴행진과 미국 반핵의료인들의 평화운동에서 힘을 얻었고 격려의 말을 들었던 것이다. 미국의 원자물리학자인 램프 E. 램은 언제나 나의 곁에 있어서 나를 가르쳐 주었다. …

미국 일백만 시민의 워싱턴을 향하는 반핵행진은 나를 격려하며 말했다.

“미국을 핵의 성역화하기 위하여 세계 각 지역에 핵기지를 확산하고 무력한 아시아와 태평양제도의 국민들에게 미국 대신에 핵전쟁의 제물이 되게 강요하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양심이나, 미국적 자유의 본질이나”고.

미국의 반핵 의료인들은 항상 나에게 반핵의 길을 말해주었다.¹⁵

가령, 표문태는 1987년 말 『아시아를 비핵지대로』를 출간하면서 자신이 핵에 관해 지식을 넓히고 운동의 동력을 얻는 과정을 설명했다. 1970년 한국에 『핵전쟁』을 번역한 그는 이 책의 저자인 물리학자 램 박사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1980년대 접어들어 미국 백만 반핵시민 워싱턴 행진, 반핵의료인의 평화운동으로부터 새롭게 자극받았다. 이 외에도 그는 이 글에서 핵합선의 입향을 일체 거절하고 비핵선언을 한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 반핵정책 채택의 배후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뉴질랜드 국민, 국민들의 열렬한 반핵압력에 못 이겨 반핵반기지 정책을 공약한 영국 노동당, 1982년 서독에서 개최된 세계반핵평화문

15 표문태, 1987.12, 「편집자의 변」, 표문태 외, 『아시아를 비핵지대로』, 일월서각, 3~4쪽.

학자 케론회의, 1983년 7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처음 열린 아시아국제반핵문화인 히로시마회의, ‘일본 1,000인 반핵위원회’, 김세진 등을 열거했다. 표문태는 이처럼 “전 지구인이 전개하고 있는 반핵반전반기지 운동은 모든 정치적·문화적 사상과 이데올로기, 인종과 국경, 강대국 및 약소국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전 지구인의 지구운동(自救運動)이며, 핵보유 강대국들의 핵기지가 된 후진 약소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민족자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지식인을 비롯하여 소위 반체제 인사들 및 사회동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기독교인마저도 나의 반핵운동을 경원하며 반미가 아닌가 하고 의심”¹⁶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처럼 1970년의 표문태는 10여 년이 지나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반핵운동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반핵의 정당성과 논리를 재구축해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대 리영희의 핵 인식을 구체화할 때 시기와 정세의 국면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리영희의 생애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숙지가 필수적이다.

리영희는 1929년 평북 운산군 북진면에서 출생해 1942년 경성공립공업학교에 진학했고 1946~1950년 국립해양대학을 다녔다. 경북 안동공립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그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7월 군에 입대하여 1957년까지 7년간 복무(육군 유엔군 연락장교단 후보생 교육 후 통역장교)했다. 1957~1964년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재직하고 1960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신문대학원에서 연수를 한 그는 1964년 10월~1971년 『조선일보』, 합동통신 외신부장으로 일했다. 그는 1972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고 1974년 한양대 부설 중국문제연구소를 설립하는데 1976년 제1차 교수재임용법으로 강제 해직되었다(1980년 봄 복직, 여름 다시 해직). 이어 1977년 박정희 정권은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우상과 이성』을 반공법으로 엮어 리영희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6 표문태, 1987.12, 위의 글, 4쪽.

박정희 대통령 피살 후 리영희는 1980년 1월 광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여 동년 3월 4년 만에 복직했다. 그러나 5월 16일 광주항쟁이 일어나고 다음 날 그는 ‘광주폭동 배후조종자’의 한 사람으로 날조되어 구속되었다. 7월 석방되었지만 한양대 교수직에서 다시 해직(제2차 교수직 강제해직) 되었다. 1984년 가을 그는 다시 4년 만에 한양대에 복직했다. 1985년 1학기 일본 도쿄대학 초청으로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공동연구를 하고 2학기는 서독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보낸다. 그는 198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아시아학과 부교수로 있으면서 특별강좌를 강의(1987.8~1988.3)한 바 있다. 1989년 리영희는 『한겨레』 창간기념 북한 취재기자단 방북기획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 기소되어 제1심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60일 만에 석방되었다. 그는 1995년 한양대에서 정년퇴직했고 1998년 53년 전 헤어진 형님과 둘째 누님의 생사 확인을 위해 북한 당국의 개별 초청으로 방북했으며 2010년 81세에 사망했다.¹⁷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등 당대를 풍미한 평론집의 저자이자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해직을 여러 번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수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한국인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리영희는 1980년 감옥에서 출옥한 직후 『우상과 이성』 증보판을 내면서 이 책이 아직도 독자의 환영을 받는 것은 “이 사회에 가면을 벗지 않은 많은 우상이 버티고 서 있다는 증거라 하겠다. 그러한 까닭에 진정한 인간해방과 진실이 지배하는 사회를 바란”¹⁸다고 적고 있다. 이제 누구보다 전쟁을 잘 알고 있는 전쟁세대로서 저널리스트이자 학자인 리영희가 포착한 핵의 ‘진실’은 무엇이고 그의 반핵의 인식과 논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17 김상웅, 2010, 『리영희 평전』, 책으로보는세상, 592~595쪽.

18 李泳禧, 1980.3, 『偶像과 理性: 李泳禧 評論選』, 한길사, 34쪽.

II. 레이건의 무제한 군사대결과 한반도 핵전장화 우려

국면의 변화에 따른 핵 인식을 고찰하기 위해 시기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1985년 리영희는 1년 동안 일본과 서독에 있었고 1986년 한국에 돌아왔다. 당시 대외적으로는 1985년 3월 11일 소련공산당 정치국원이며 중앙위원회에서 농업 문제를 담당하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체르넨코의 뒤를 이어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 엄청난 군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고르바초프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 행동을 중단했고, 미국에 핵무기를 50퍼센트 이상 감축하자는 제안을 한 후 1986년 1월에는 2000년까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이 발생하면서¹⁹ 고르바초프는 핵군축 제안과 협상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리영희의 신상과 핵을 둘러싼 세계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1986년 즈음을 경계로 시기 구분을 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1986년 이전 1980년대 초중반의 리영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시기 리영희의 출판 상황을 살펴보면, (증보판)『偶像과 理性: 李泳禧 評論選』(1980.3), 『누군가 말해야 한다』(1984.2), 『80年代 國際情勢와 韓半島』(1984.7), 『핵전쟁의 위협』(1984.9, 감수자), 『분단을 넘어서』(1984.10), 『핵전략의 위기적 구조』(1984.11), 『핵문제입문』(1985.5)이 있다. 『핵전략의 위기적 구조』와 『핵문제입문』은 책 제목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1984년에 책 출판이 집중된 점이 확인하다. 리영희는 1980년 초 출소하여 4년 만에 복직하게 되지만 5월 17일 ‘광주폭동 배후조종자’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었다가 7월 석방과 동시에 다시 해직당했다. 그가 다시 4년 후 1984년 7월에야 복직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무렵 그의 책은 1984년 복직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출간된 책을 살펴보면 리영희의 핵 관련 발언이 1983년부터 본격화하

19 정육식, 2012, 앞의 책, 293~297쪽.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환시대의 논리』와 『이상과 이성』을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를 한국 독자에게 알려준 리영희에게 1977년 12월부터 1980년 1월 9일 까지의 수감생활은 국제 흐름을 직접 목도할 수 없는 공백의 기간이었다. 이후 그가 국내외 정세를 다시 파악하고 핵무기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1983년 관련 발언을 시작하는 데 3년여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살상을 넘어 문명을 파괴하는 위력을 지닌 핵무기는 단순한 전략무기가 아니라 미·소 냉전과 군비경쟁의 가장 핵심적 쟁점이었다. 한국에서 핵무기를 논한다는 것은 미·소의 패권 다툼과 그것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파장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1984년 리영희의 첫 책이자 공저인 『누군가 말해야 한다』(1984.2)의 첫 글 제목이 「한반도 주변 정세의 질적 변화와 우리의 과제」이다. 이 글에서 그는 “우리 민족·국민은 조상들이 되풀이해온 비극을 우리의 세대에서는 결코 재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복잡하게 조성되는 주변 정세에 대한 정확하고도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 인식을 안내역으로 삼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농간에 말려들지 않고 이 민족의 생존을 유지할 지혜가 필요해진다. 그리고 그 인식을 지혜로 바꾸어 다시 그 예지를 무기삼아 굳은 의지로써 강대국 위주의 상황 조성에 대처하고 작용해나가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²⁰라고 적고 있다. 그가 이 무렵 국제정세의 흐름과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한 일반 독자의 인식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리영희가 포착한 국제정세의 질적 변화를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그의 국제정세 인식을 먼저 파악해야만 한다.

리영희는 『전환시대의 논리』(1974)의 「한·미 안보체제의 역사와 전망」에서 한국의 국가적 안보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1970년을 기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그가 중요한 논거로 제시한 것은 첫째, 1969년 7월 25일 닉슨이 발표하고 1970년 2월 외교백서 「평화를 위한 새 전략-1970년대의 미

20 李泳禧, 1984.2, 「한반도 주변 정세의 질적 변화와 우리의 과제」, 함석헌 외, 『누군가 말해야 한다』, 三民社, 209쪽.

국 대외정책」을 통해 세계에 공표된 닉슨 독트린, 둘째, 닉슨-사토 공동성명(1969.11.21.)과 미·일 안보조약의 자동연장(1970.6.23.), 셋째 1970년 7월 6일 윌리엄 포터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정부에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 결정을 정식 통고한 사건이었다. 닉슨 독트린은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직접적 무력 개입을 축소하고 국제적 협조 시대로 나아가는 신호였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전후시대가 끝나고, 미국의 핵무기독점체제 및 군사적 지배시대가 지났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닉슨 독트린의 ‘아시아 및 극동정책’은 “동맹관계 국가이거나 미국 및 지역 전체의 안보에 절대 필요한 국가의 안전에 대한 핵국가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전력의 방패를 제공한다”는 노선이 결정되었다. 미국의 아시아·극동 전략구조가 각국 지상배치군 및 재래식 무기 위주에서 ‘핵력기동군’ 중심구조로 수정된 것이다.²¹ 이 때문에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하기는 했지만 리영희는 서구 열강의 대탕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는 “일남전쟁 종결 후의 최대의 분쟁 예상지”가 되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미일 정부의 극동 및 한반도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구상에 따라 일본이 참가하여 형성된 한미일 3국의 한국안보협력체제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미묘했던 대중소 관계의 재조정 노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평양-북경-모스크바의 안보협력체제가 동시에 강화되었다. 당시 극동지역의 정치 및 조약 체제 구조상 휴전선을 넘는 남북한 간의 대규모 공격은 어느 쪽에 의한 것이든 한미일 대 북소중의 독립적인 연합군사체제 간의 무력충돌로 확대될 소지가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리영희는 한반도의 정세는 1970년대에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의 상태가 될 거라고 진단했다.²²

21 참고로, 원래 ‘비핵국의 핵보호’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조약)의 기본 내용으로 미국의 특정한 군사전략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미국을 포함해 모든 핵보유 국가들은 비핵국의 핵위협 위기에 핵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정치에서는 이러한 조약의 의무와 별개로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간 안보정치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리영희의 당대 인식을 이해해야 한다.

22 리영희, 2006, 「한·미 안보체제의 역사와 전망」(『合同年鑑』, 1971), 『전환시대의 논리』(1974), 창비, 491~545쪽.

이와 같이 1970년을 민족사의 중요한 변혁의 시기로 조명한 리영희는 1983년 8월 『기독교사상』에 발표한 「한반도 주변 정세의 질적 변화와 우리의 과제」에서 1980년대 초의 국제정세의 추이를 다시 한번 질적 변화로 규정했다. 이는 ‘1970년대의 10년’이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의 지난 ‘30년’간의 상황과 다를 정도로 큰 질적 변화였다. 그 근거는 첫째, 한국의 국민경제의 능력과 한계와는 상관없이 ‘무제한’ 군비경쟁이 강요되고 있다. 둘째, 해방된 지 37년 만에 남한과 한반도에 다시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될 것 같은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81년까지 25년에 걸쳐 5회의 5개년 군비 증강계획을 마치고 명실 공히 군사대국이 되어 있었다. 셋째 일·미·한 3국 군사동맹 체제가 급속히 굳어지고 있다. 전 지구적 및 전 우주적 대소 전면 공격 구상을 기본 전략개념으로 하는 미국은 한국과 한반도에 국한해 전쟁책임의 ‘상당 부분’을 일본 군대에 위임하려 하고 있다. 여태까지는 일본과 미국이 ‘일·미 안보조약’으로, 한국과 미국이 ‘한·미 방위조약’으로 연결되어 마치 미국을 점점으로 하는 한·일 간의 간접적 군사동맹 체제였지만 미국이 직접적 군사동맹 관계로 한국과 일본을 엮으려 하고 있다. 넷째, 한반도가 미·소·일·중 주변 4대 강국의 ‘핵전장’이 될지 모른다는 위험성이다.²³

1983년 8월의 시점에서 이러한 리영희의 한·미·일 군사동맹 인식은 당대 역사에 비추어 맞지 않지만,²⁴ 그가 집필 당시 1980년대 초 상황을 한국전쟁 이

23 이러한 인식은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당대 국제정치의 학술적 논의라기보다는 리영희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전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4 1980년대 초 레이건 정부가 소련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일본에 대해 안보적 측면의 기여를 확대하도록 요구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군사적 기여에는 소극적 자세를 취했으며 대신 경제적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러한 일본의 경제적 기여를 한국에 대한 경제 협력의 확대라는 형태로 구체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두환 정부는 1981년 4월 일본정부에 총 100억 달러의 대규모 공공차관 제공을 타진했다. 협의 끝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1983년 1월 한국을 방문하여 총액 40억 달러의 공공차관을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경제 협력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조세영, 2014,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후 30년 만에 가장 위협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 냉전사 및 반핵운동사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1983년 3월 23일 레이건이 전국 TV 연설에서 말한 전략방위구상(SDI, 별칭 스타워즈)이다. 이는 기존의 핵무기 ‘상호 확실 파괴 개념’에 기초한 전쟁억지력과 미·소 핵균형을 무너뜨리고 우주 레이저 시스템 개발을 천명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소련은 SDI를 미국의 핵전쟁 준비 계획과 동일시했다.²⁵ 그런데 흥미롭게도 1983~1984년 리영희는 이 사건을 그의 글에 직접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한반도 주변 정세의 질적 변화와 우리의 과제」에서도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세계적으로 선언한 군비 증강 및 군비 경쟁정책은, 제2차 대전 종결 후의 ‘제한적’ 군사 대결과는 달리 정치·경제·군사·사상적으로, 즉 종합적 및 전면적으로 「소련이 굴복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군사적 대결을 강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도로 설명했다. 과거 그가 닉슨 독트린이 서구에 미친 영향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변화에 더 주목한 것처럼, 1983년 리영희는 레이건의 SDI 발표 이전에 이미 레이건 정부 출범(1981.1.)과 함께 이루어진 핵군비 강화 천명과 미·소 군사적 대립을 주목하고²⁶ 이것이 한반도와

90~93쪽.

- 25 정옥식·강정민, 2008, 『핵무기』, 열린길, 40쪽. 미국은 중요한 재무장 계획에 착수했다. 1981년 8월 레이건은 중성자 폭탄을 비축하겠다고 선언했다. 1982년 11월에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을 위반하고 MX미사일 체제를 발표했으며, 다섯 달 뒤에는 전략방위계획(SDI, 스타워즈)을 선언했다. 소련은 전략방위계획이 탄도탄 요격미사일협정(ABMT)을 위반했다고 항의했는데, 이 주장은 근거가 확실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메리카에 대한 공식적인 군사 원조와 은밀한 지원도 꾸준히 증가했다. 1985년 미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분은 6퍼센트로 평화 시기 치고는 전례 없이 높았다. 토니 주트 저, 조행복 역, 2019, 『전후 유럽 1945~2005』 2, 열린책들, 251~252쪽.
- 26 레이건 대통령은 대소 강경 전략만 취한 것이 아니라 평화경쟁선언을 발표(1984)하기도 하고 미소정상회담을 제안(1985)하는 등 냉온전락을 동시에 전개했는데, 이와 관련해 시기 구분을 하면 일반적으로 임기 1기 레이건은 핵미사일이라는 창과 SDI라는 방패를 양손에 쥐고 세계의 지배자를 꿈꿨고, 임기 2기 레이건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했다고 평가된다. 레이건 정부의 임기 2기 출범은 공교롭게도 1985년 3월 체르넨코의 사망과 고르바초프의 등장 시점이다. 비록 그가 1984년 평화경쟁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대외적 발언과 별개로 미국과 소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했다.

그는 이 글을 비롯해 이후 1984년까지 나온 모든 책에 한반도의 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세 가지를 지목하여 자신의 독자에게 한국이 처한 위기상황을 환기했다. 레이건의 전략방위구상(1983.3.23.) 대신 그가 실질적인 한국의 안보 위기로 지적한 것은 첫째, 1983년 1월 16일, 미국 자신의 언론에 폭로되어 공개 보도된 기밀문서 「국방지침 1984~88 회계년도 계획」 속 레이건 정부의 구상, 둘째, 1983년 2월에 밝혀진 미국 국방장관 와인버거의 「83년 국방보고서」, 셋째 방한한 미국 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마이어 대장의 1983년 1월 23일 서울발(發) AP, UPI 통신 회견이다.

첫 번째의 기밀문서는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선제공격으로 사용하고, 여러 개의 전선에서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을 동시에 계속할 능력을 구축한다고 적고 있다. 이와 같은 핵무기의 선제공격과 ‘동시다발’ 전쟁 개념에 의한 무제한 군사경쟁은 소련에 경제·사회·군사 전면에 걸쳐 압력을 가해 마침내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전략 구상인 것이 드러났다. 또한 「83년 국방보고서」는 소련이 중동 산유지역에 개입할 경우, 미국은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하고 석유자원 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²⁷으로 동북아의 동맹국과 함께 북한을 공격하고 핵 공격까지 감행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방문한 미 육군참모총장은 한국에서의 핵무기 사용 여부의 결정은 15개국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북대서

런 모두 1986년까지는 방위비나 핵무기가 증가했다(정육식, 2018, 『핵과 인간』, 서해문집, 287~297쪽). 이에 비추어 리영희도 SDI나 평화경쟁선언과 관계없이 레이건 정부 임기 1기 핵무기 정책을 미·소 군사적 대립과 군비 강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7 참고로 서론에서 카터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세계 석유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비판했듯이, 1970~1980년대 핵무기 확산이 미국의 주요 정책 사안이 된 이유도 미·소의 군사적 대립뿐만 아니라 석유 생산국들을 상대로 지정학적 영향력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미국은 석유 카르텔 깨기 전략의 하나로 원자로 판매를 독려했다. 제이콥 햄블린 저, 우동현 역, 2022, 『저주받은 원자-미국의 핵기술 도박이 만들어낸 현재진행형 지구사』, 너머북스, 353~354쪽.

양조약기구(NATO)의 경우보다 훨씬 덜 복잡한 문제이며 북한에는 아직 핵무기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발언했다.²⁸

이 세 가지는 미국의 소련과의 핵전쟁 결심과 한반도 핵전쟁화하의 현실화를 나타낸다. 리영희는 한반도의 민족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중동과 그곳의 석유원을 확보하기 위해 몇만 리 떨어진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하고 핵폭탄으로 초토화한다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로 인식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연합군 사령관이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주권이 없는 현실이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높였다. 이와 같은 리영희의 국제정세 분석은 국제정치적 이해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부족에서 야기된 지나친 (핵)전쟁 시나리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중독자에게 한반도와 핵무기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진실을 드러내는 효과가 일부 있었다. 미국이 핵무기를 통해 남한을 보호해준다는 관념에 균열이 생기고, 미국의 이해관계와 미소관계에 따라 언제든 한국이 전장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리영희는 독자가 ‘한국이 강대국의 핵 볼모가 되어 있는 현실’을 자각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군축에 공헌해 1982년 10월 13일 노벨평화상에 선정된 알바 뮈르달의 저서 『핵전쟁의 위협』 번역 출간에 감수자로 참여한 리영희는 “사람들이 자신의 치참한 파멸의 위험성에 대해서 백치에 가까우리만큼 무감각한 상태임을 보”면서 “오늘날 전 세계의 인류는 불행하게도 강대국들을 움직이는 그 같은 복합체들의 자기이익 추구의 논리에 마취되어버린 상태이다. 막강한 종합적 권력을 장악한 강대국들의 ‘군사적 숭배자’들의 이론 조작으로 약소국가들의 지도자나 민중들도 군사적 숭배자가 되어 버렸다. 평화는 군사력으로써 유지되고, 강력한 군사력만이 국가와 세계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무서운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이러한 현실을 자각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핵무기·핵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지

28 李泳禧, 1984.2, 「한반도 주변 정세의 질적 변화와 우리의 과제」, 앞의 책, 206~230쪽.

않은 곳이 없었다. 오직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핵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핵전쟁을 바라고 있다는 감마저 주는 것이 이 나라의 대중이었다. 언젠가 제주도를 외국의 핵기지로 제공 운운한 일이 있다. 자기 나라 영토를 남의 나라 초강대국의 핵기지로 제공하는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감각에 없는 것이 이 나라 국민의 현실”²⁹이었다.

실제로 리영희는 여러 저서에 당시 세계의 반핵운동을 예시했고, 한국 언론도 1980년대 초중반 미국과 유럽, 일본 기타 등등의 지역에서 펼쳐지는 반전·반핵운동을 다수 보도하고 있었다.³⁰ 유럽에서는 1981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비교적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반핵운동이 순식간에 서독과 영국을 포함한 서구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0월 10일에는 서독의 수도 본이 30만 명의 데모대에 묻혀버렸다. 서독에서 반핵에 앞장선 것은 회원 500만의 서독 최대의 청년단체 독일연방청년평의회(DBJR)이며 독일 신학계의 최고봉인 마르틴 니메라 목사 등이었다. 니메라 등 프로테스탄트계의 교회에서는 1980년 가을 크레펠트선언에 참가하여 모든 사람에게 반핵을 호소했다. 유럽에서 1981년 가을의 반핵시위 참가자는 일찍이 유례가 없는 연 200만 명을 기록했다. NATO의 본거지인 브뤼셀에서 20만 명, 런던에서 15만 명, 로마에서 20만 명을 기록했다. 브뤼셀에서는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등 3국의 반핵연대조직인 ‘스칸디르크스’가 조직되기도 했다. 반핵의 물결은 1982년에 접어들자 미국과 일본까지 확산되었다.³¹ 1982년 5월 23일 전세계적으로 핵무기의 생산과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일본 사상 최대 규모(약 40만 6,000명)의 반핵평화시위가 도쿄,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일본 전역에서 일어났다.³² 동년 8월에는 ‘비핵시민 선언·요코스카(도쿄만에 위치한 군항) 운동’이

29 李泳禧, 「감수자의 말」(1984.8), 알바 뮌달 저, 동서군축문제연구소 역, 1984.9, 『핵전쟁의 위협』, 동광출판사, 11~14쪽.

30 리영희의 후배 언론인격인 기자의 책도 나왔다. 고승우 외, 1985.5, 『核과 韓半島』, 아침.

31 李泳禧 외, 1985.5, 『핵문제입문』, 세계, 250~251쪽.

있었다. 동년 미국에서도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뉴욕시 센트럴파크에 모여 핵 동결을 지지했다.³³ 동년 서독에서도 ‘세계반핵평화문화학자 케론회의’를 개최했고 10월 군축에 기여한 뮌헨이 노벨평화상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1983년 1월 13일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동서 양 진영이 유럽에서 중거리핵미사일이나 전술핵무기들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³⁴ 1983년 7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처음으로 ‘아시아국제반핵문화학자 히로시마회의’가 열려 표문태가 초대를 받기도 했다.³⁵ 핵전쟁방지구제의사회(IPPNW, 1980년 설립)는 세계적인 반핵 평화운동의 공을 인정받아 1984년도에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1985년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5년에도 반핵시위는 지속되었지만³⁶ 미·소 강대국 간 핵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1985년 11월 11일 미 육군이 퍼싱Ⅱ미사일 서독 배치를 완료했다.

이처럼 반핵인식이나 운동이 미비했다는 한국에서도 1980년대 접어들어 지식인과 언론인에 의해 세계적인 반전반핵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리영희의 지적처럼 한국은 군부정권과 국가보안법, 소련에 적대적인 미군이 존재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핵무기 철수를 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반핵은 반미와 친북, 반정부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쉬웠다. 그럼에도 리영희는 본토의 전쟁을 피하고 동맹국의 핵전장화 군사전략을 취하는 미국의 이기주의와 핵 불모의 조건에서 벗어나 정세변화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중은 “군사력 숭배사상”, “군비증강병”, “핵무기 숭배사상”, “힘의 숭배”에 매몰되지 말고

32 「日 전역서 反核 시위」, 『경향신문』, 1982.5.24, 4쪽.

33 앨런 브링클리 저, 황혜성 외 역, 2011,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3』, 휴머니스트, 526쪽.

34 「바條約기구 國防相 회의 유럽配置 核무기완전除去를 촉구」, 『경향신문』, 1983.1.14, 4쪽.

35 「아시아 문학자 대회에 표문태 씨 초청받음」, 『조선일보』, 1983.7.19, 1쪽.

36 「西獨·英 대규모 反核시위」, 『동아일보』, 1985.4.9, 4쪽; 「美·日·그리스 反核운동」, 『동아일보』, 1985.8.6, 4쪽; 「原爆투하 40주년 곳곳서 反核시위」, 『경향신문』, 1985.8.7, 4쪽.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핵지대화가 “남·북에 갈라진 민족의 평화적 생존과 그리고 나아가 어느 날엔가의 통일을 기약하는 ‘80년대적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했다.³⁷

정리하면 1980년 풀려난 리영희는 1983~1984년 무렵부터 핵에 대한 발언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그의 핵인식에는 ‘핵무기’만이 핵심이었다. 한국의 원전이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발언은 없다. 당시 1980년 11월부터 1986년 10월까지 한·일 정부 차원의 피폭자 도일 치료가 이루어고 있었다.³⁸ 1975년 이우정이 창비에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를 쓰고 출판을 했으며,³⁹ 방송작가 박수복이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한국 원폭피해자 30년의 기록』(1975)⁴⁰과 『핵의 아이들』(1986)⁴¹을 내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보고서』(1986)⁴²를 간행하지만, 리영희는 핵의 위험과 피해 사례를 제시하는 데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활용하지 않았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의 위력만 거론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반핵운동가 표문태도 마찬가지였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겪은 리영희, 표문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핵전쟁의 형태로 재발하는 것을 가장 염려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독자에게 강조하고 환기하기 위해 그는 1983년 한국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을 지목했고 미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37 李泳禧, 1984.10, 『分斷을 넘어서』, 한길사, 5~6쪽.

38 「한국原爆重患60명 渡日 치료합의」, 『동아일보』, 1979.11.29, 7쪽; 「原爆피해자 10명 治療 위해 곧渡日」, 『경향신문』, 1980.11.1, 7쪽;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 위원회 편, 2011,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181쪽.

39 이우정, 1975.3,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 『창작과 비평』35호(봄호), 211~238쪽; 이우정, 1975, 『한국 원폭피해자 실태보고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40 박수복(朴秀復), 1975,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韓國原爆被害者 30年の記録』, 創元社.

41 박수복, 1986, 『핵의 아이들』, 한국기독교교가정생활사.

42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편, 1986,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보고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입장을 드러냈다. 이 단계에서 리영희는 정치학자나 군사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핵전쟁화 위험성 증가, 한국인의 군사력(핵무기) 숭배사상, 국가안보 주권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한 셈이다.

Ⅲ.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체르노빌, 핵 불감증과 남·북의 군사력

1980년대 중후반 리영희의 핵사상과 활동은 1985년 일본과 서독 체류부터 1990년 6월 15일 서울 수유리크리스찬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 군축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통일·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등 포괄적인 통일방안을 남북한과 미국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⁴³에 참여하기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이에 1985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다. 리영희가 1987년 8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국 버클리대에 있을 때는 12월 8일 미·소 중거리 미사일(INF, 중거리 미사일 폐기조약)협정 서명을 목도하는 경험을 했고, 한겨레 북한 취재기자단 방북기획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9년 4월 14일 체포되어 10월 초 석방되는 일도 겪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경험 속에서 리영희는 『역설의 변증』(1987.3.), 『핵전쟁과 인류』(1987.6.), 『반핵』(1988.8.), 『自由人, 자유인』(1990.8.) 등에 글을 실었다.

세계 국제정세의 변화와 성격에 민감한 리영희는 서독을 다녀오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다루는 데 서독도 포함했다. 동서독 통일 이전에 이미 서독이 그의 시야에 포착된 것이다. 이는 당국의 영향도 있다. 남한 정부가 1982년 1월 22일 남북기본관계잠정협정(南北基本關係暫定協定)의 체결을 북한에 제의했는데 이

43 「평화협정·불가침선언 촉구」, 『한겨레』, 1990.6.16, 1쪽.

협정안은 1972년 11월 8일에 정식 조인된 ‘독일연방 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을 바탕으로 삼아 한반도를 동서독관계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구상이었다. 이를 두고 리영희는 “동서독의 조약은 독일민족의 국가적 통일의 이상과 목표가 역사적·현실적 조건으로 불가능하다는 상호 인식하에, 분단을 합법화·국제화·제도화한 조약이다. 따라서 그것은 ‘독일 통일방안’이 아니라 ‘독일 불통일방안’이다. 분단합법화방안이다”⁴⁴라고 단정했다. ‘동서독관계 기본조약’은 동서독의 평화적 공존관계를 규정한 것이지 불통일 방안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리영희는 분단 유지의 조건의 하나로 본 것이다. 여기에 더해 리영희는 「한반도의 전쟁위협과 동북아의 평화」(1986.4.)에서 한반도에는 “독일을 4개 전승연합국이 안정되게 분할관리하기로 했던 1944년의 ‘런던합의’도 없었고, 현재 유럽 전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서유럽과 지역국가들이 빠짐없이 참여·조인한 ‘헬싱키협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한반도의 2개의 국가 사이에는 분단된 독일의 두 부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관리하면서 정치적 차원의 관계를 확립한 ‘양독간(兩獨間) 기본조약’의 한반도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반도는 40여 년 동안 반도상에 설치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오고간 사람은 없다. 한반도상에 존재하고 지배하는 것은 오직 ‘군사’뿐이며 ‘정치’는 없다”⁴⁵라고 분석했다. 그는 독일과 한반도를 동일시하는 관점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리영희가 봤을 때 한반도 군사분계선의 군사력 집중배치는 ‘세계 최고 밀도’였다. 남·북한 쌍방에서 끊임없이 진행된 군사체제의 강화와 군사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민족구성원들의 생활 전반을 ‘군사화’했다. 남·북 내에서의 억압적 제도는 그 예이다. 북한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반공주의’가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역대정권의 탄압을 정당화·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작동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이익’을 최상위로 삼는 국가가치는

44 李泳禧, 1987.3, 「『독일식』 한반도 통일방안 비판」, 『역설의 변증: 統一과 戰後世代와 나』, 두레, 73쪽.

45 李泳禧, 1987.3, 「한반도의 전쟁위협과 동북아의 평화」(1986.4), 위의 책, 78쪽.

분단된 민족의 두 부분 사이의 민족적 화합과 통일의 민중적 열망에 우선하고 있다. 이 경향은 미국에 레이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현저해졌다.⁴⁶

열강의 국가이기주의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주체적·능동적으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과 북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 북한에서 1984년 초부터 한반도 영구적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제의와 함께 대화를 시도해왔다. 이때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한 북한 구상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조인당사자로서 지연되어온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것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평화조약 협상과정의 의제로 삼아도 좋다는 신축성 있는 태도를 표명하였다. 이 미국과의 제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면 같은 민족인 남과 북이 상호불가침선언을 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민족회의 개최까지 진전 심화시켜나가는 것이다. 북한은 그후 더욱 태도를 완화하였다. 즉, 미국이 북한의 진의를 의심해서 평화조약 체결이 어렵다고 한다면, 북한은 군사적 행동을 부인 방기한다는 성의의 표시로서 먼저 남북한 사이에 불가침선언(협정)을 선행해도 좋다고 했다.⁴⁷

리영희는 북한의 이런 제의를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을 신뢰하지 않은 남한과 미국은 거부했다. 이때 리영희는 동북아시아의 이해관계국 중 미국을 가장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은 남한의 독일식 분단고착화 통일방안과 함께 한반도의 영구적 분단고착화와 군사적 대결주의를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이 무렵 리영희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라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안에 더 공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현재의 군사질서와 전쟁구조가 영구적 평화질서로 대체되기를 갈망했다.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이상주의적 인식으로 저널리스트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해 평화와 통일국가를 염원하는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리영희의 열망

46 李泳禧, 1987.3, 위의 글, 80쪽.

47 李泳禧, 1987.3, 위의 글, 90~91쪽.

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이러한 입장의 글(「한반도의 전쟁위협과 동북아의 평화」)을 1986년 4월에 썼는데 같은 달 26일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영향을 받은 리영희는 동년 여름 「핵은 확실히 ‘죽음’을 보장한다」를 써서 『역설의 변증』(1987.3.)에 실고, 『핵전쟁과 인류』(1987.6.)에도 동일한 글을 수록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시점에서 리영희는 핵무기 외에도 원전의 문제를 핵 문제로 포함하여 독자에게 설득하기 시작했다.

「핵은 확실히 ‘죽음’을 보장한다」에서 리영희는 체르노빌을 통해 핵에네르기화의 파괴성을 자각했다고 썼다. 그럼에도 “바로 체르노빌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또 수억 달러를 요하는 2개의 핵발전소 건설을 미국의 회사와 계약하였다. 이미 가동 중인 고리(古里)발전소를 비롯한 핵발전소들에서 방사 유출되는 공해 작용으로 주민과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되는 일이 없다. 핵에네르기의 평화이용은 화약의 평화이용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인류의 문명적 성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각별히 문제되는 점이 허다했다.” 리영희는 당국의 원전 건설 방침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발견했다. “핵발전소는 공중 공격에 약하다.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고 가상했을 때 그 많은 핵발전소의 몇 개라도 폭격당하면 방사능 확산으로 말미암은 인명피해와 국토의 반영구적 오염은 거의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몇 해 전 이란 공군의 이라크 원자로 폭격을 생각해 한다. 남침이 확실하다면 핵발전소의 계속적 건설은 중지돼야 하고, 핵발전소의 계속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남침이 없을 것이라는 중요한 판단근거라면 그것도 국민에게 알려져야 할 것이다.”⁴⁸

하지만 한국인에게 원전은 한국 경제발전의 토대이자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1983~1984년 무렵 리영희는 한국인의 군사력 숭배사상, 핵무기 숭배사상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1980년대 중후반에는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무지를 체계화해서 질책했다. 그는 핵숭배를 국가적 미신으로 간주하고 한국인이

48 李泳禧, 1987.3, 「핵은 확실히 ‘죽음’을 보장한다」(1986), 위의 책, 98~100쪽.

핵에 무지하게 된 원인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① 민족 내부문제의 군사적 해결정책, ② 맹목적 반공이데올로기, ③ 핵무기의 위험성과 핵전쟁의 종말성에 대한 무지, ④ 미국 국가이익 위주의 선전의 결과, ⑤ 외국의 핵기지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착오.⁴⁹ 그러면서 리영희는 반복적으로 한반도에 핵이 배치될수록 안전하다는 ‘상식’을 타파할 것을 역설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철수 시위에 이어 체르노빌의 영향으로 1987년 4월 25~26일 체르노빌 1주기 때 소련, 체코, 서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 세계적으로 반핵 시위가 일어났다.⁵⁰ 핵 문제 정보공개 요구와 원전 위험성을 강조하는 시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고르바초프도 체르노빌의 영향을 받아 핵무기 군축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⁵¹ 동년 9월 18일 미·소 양국이 중·단거리 핵미사일 철폐를 위한 INF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하자 서독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퍼싱미사일 72기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⁵² 리영희가 미국에 있을 때인 동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3차 정상회담(고르바초프-레이건)에서 양국은 전술 핵무기에 해당하는 INF협정(중거리미사일 폐기조약)에 드디어 서명했다. INF협정은 특정 무기를 모두 폐기하기로 한 미·소 간 최초의 합의로, 사정거리 500~5,500킬로미터의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했다.⁵³

49 李泳禧, 1987.3, 위의 글, 96~97쪽.

50 「세계 곳곳서 反核시위」, 『경향신문』, 1987.4.27, 4쪽.

51 “1986년 4월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원자에너지마저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교훈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는 소련 전체와 세계 전체에 공개되었다. … 이 사건은 단 하나의 원자로 때문에 발생했었다. 체르노빌은 단 하나의 핵 폭발로도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차 없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저, 이봉철 역, 1988, 『페레스트로이카』, 중원문화, 274~275쪽.

52 「西獨, 퍼싱미사일 모두 폐기」, 『경향신문』, 1987.9.19, 4쪽.

53 정옥식, 2012, 『핵의 세계사』, 아카이브, 298쪽.

이처럼 세계적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1987년 9월⁵⁴ 민주당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안을 100대 국정개혁안으로 제시했지만 바로 미국이 반대했다. 한국 정부의 국방부장관이나 통일원 장관도 핵무기 철수⁵⁵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⁵⁶ 서구와 동아시아의 정치지정학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리영희는 1988년 8~9월 유명한 2개의 글을 제시했다. 「핵무기 신앙에서의 신앙」은 『반핵』(1988.8.30.)과 『창작과비평』(1988.9.)에 동일하게 실렸고,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 연구」(『사회와 사상』, 1988.9.)는 사회에 더 큰 충격

54 참고로 1987년 9월에는 동독의장이 서독을 방문해 독일 재통합에 획기적인 장을 열었으며 동베를린에서 비핵지대 지지를 위한 촛불행진을 했다. 통일운동과 비핵지대운동이 함께 이루어진 셈이다.

55 1970년대 말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려고 했던 카터 행정부의 시도는 실패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단거리 핵무기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983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의 단거리 핵무기 보유 수량은 총 249개였는데, 이는 카터의 취임 이전보다 6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것이었다. 특히 그동안 주한미군에 배치되었던 핵탄두 장착용 지대지미사일은 모두 철수·폐기되었다. 2년 후인 1985년에는 주한미군 소속 단거리 핵무기가 151개로 더욱 축소되었다. 1987년에는 루이스 메네티리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이 요구되는 군사적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1990년대 초부터 가시화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도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배치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효용성을 재고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9년과 1990년 미국과 프랑스의 위성을 통해 촬영된 평안북도 영변 지역 사진은 플루토늄 생산능력을 갖춘 5메가와트 흑연감속형 원자로,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방사화학 실험실, 핵탄두의 성능 향상을 위한 고폭 실험장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의 핵무기 배치가 지속될 경우 북한에 핵무기 개발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다. 1990년 무렵 주한미군이 보유한 단거리 핵무기는 약 100개에 달했는데 대포와 항공기를 이용해 탑재·발사하는 2종류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1년 9월 27일 조지 허버트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해외 기지에 배치된 모든 지상 및 해상 배치형 단거리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철수·해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동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핵무기 부재(不在) 선언’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김재엽, 2017, 『한국의 핵무장』, 살림, 28~32쪽.

56 김승국, 1988, 『반전반핵 양키고함』, 아침, 224쪽. 참고로 1987년 말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백기완 대통령후보 진영에서도 비핵지대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래서 한국 선거 사상 최초로 선거유세장에서 비핵지대화가 유권자에게 호소되었다.

을 주었다. 전자는 핵무기와 관련한 한국인의 ‘사무삼과(四無三過)’를 질타하는 것이었고 후자는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였다.

전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리영희가 지적한 ‘한국인의 핵 의식’ 논의는 1983년의 군사력 승배사상에서 1986년 ‘한국인이 핵에 무지하게 된 원인’으로 발전했고 1988년 ‘사무삼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인의 사무(四無)는 핵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민족적’인 것을 말한다. ‘무지’는 외국의 핵무기가 많이 들어와 있을수록 그만큼 자기가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며, ‘무감각’은 미국과 정부와 군부의 말을 하도 오랫동안 따르다보니 핵무기의 두려움에 대해서 길들여져버린 현상이다. ‘무관심’은 고르바초프가 미국에 대해 핵무기 폐기를 제안하는 등 핵무기 관계 중대 변화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지칭한다. ‘무민족적’은 동포에 없이 북한을 핵에 의한 절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삼과(三過)는 ‘인간 이성’을 과신하고 ‘기계의 정밀성’을 과신하고 ‘군사력’을 과신하는 것을 뜻한다. 리영희는 미국의 군사전략이나 국익을 간과하고 미국의 호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과신을 우려했다. 또한 선진기술을 지나치게 믿다보니 복잡하고 관리하기 힘든 기계일수록 우발적 사고 위험이 큰 것을 간과하는 인식 수준이 두 번째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군사력 과신병’은 모든 갈등은 무기와 군사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군사력 과신병이 남북 간 가능한 대화와 평화를 얼마나 방해하고 지연시켜왔는지 자각할 필요가 있었다.⁵⁷ 이 사무삼과란 용어 정립은 한 번에 말하기 쉽고 기억도 용이했기 때문에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이 이후 자주 거론할 만큼 사회에 확산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1988년 북한바로알기운동과 통일운동이 활발하고 핵 관련 서적도 다수 나오면서 국민의 핵불감증이 지적될 때 리영희의 사무삼과가 자주 언급되었다. 당대 리영희의 영향력이 확인된다.

57 이영희, 1988.8, 「핵무기 신앙에서의 신앙」, 이영희·임재경 편, 『반핵: 핵위기의 구조와 한반도』, 창작과 비평사, 271~274쪽.

또한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 연구」(『사회와 사상』, 1988.9.)는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과 달리 남·북한의 군사력 및 종합적 전쟁능력 비교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최초의 연구였다. 전두환 정권 몰락 후에 활발해진 남·북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가 1988년 8월 4일에 연 공청회에서 요약된 형식으로 제시하고 한 달 후에 이 글은 월간 『사회와 사상』(9월)에 처음으로 완전한 형태로 게재 공개되었다. 정부는 이 논문의 발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회반응을 무마하기 위하여 3개월 뒤인 12월에 대한민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편찬하여 사회에 내놓았다. 국방부의 『국방백서』(1988.12.)에는 리영희와 반대로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력이 월등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⁵⁸

리영희가 이 글을 쓴 의도는 고정관념화되어버린 북한의 전쟁감행(남침전쟁)론을 타파하기 위해서였다. 남한이 미국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람들에게 각인된 ‘북한의 남침 가능성’, 안보위기감을 불식시켜야만 했다. 단순히 남북의 군사력 비교가 아니었다. 이 작업은 남한 군대 단독의 국방능력을 가늠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반도 핵전쟁을 막고 통일을 위해서는 미군 철수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미군 없이 국방 자위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리영희는 이 글에서 ‘있다’는 결론을 내려 한국사회에 충격을 준 것이다.

먼저 북한이 단기적 속전방식으로 승리를 하려면 공격군은 병력·화력·기동력 등 종합전력이 남한에 비해서 최소 2배 내지 3배가 되어야 하지만, 1975년부터 남한의 무기·장비 구입비가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다. 중요한 결론은 주한미군과 그 핵군사력을 제외하고서도 남·북한의 군사력은 ‘균형(parity)’상태라는 사실이다. 북한의 단기적·장기적 군사

58 『국방백서』에는 병력, 부대수, 지상·해상·항공 군사장비가 남북한 비교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북한이 남한보다 월등히 앞선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1989.12,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147~151쪽을 살펴볼 것.

력과 국가적 전쟁자원, 그리고 민간부문의 군사적 전환효과 등이 남한보다 훨씬 열세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1961년에 체결된 중·조, 소·조우호협력(방위)조약도 한·미방위조약과 마찬가지로 먼저 무력 침공하는 군사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반대하고 있었다. 북한의 남침행위에 대해서는 중국도 소련도 지원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아무리 ‘의지’가 있더라도 북한(지도자나 국민대중)이 전쟁을 감행하려거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종합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리영희는 앞으로 남·북에 요청되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무의미하고 낭비적인 군사대결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군사력의 감축을 서두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⁵⁹ 앞에서 본 「핵무기 신앙에서의 해방」에도 이 군사력 얘기가 일부 들어가 있다. ‘북한군사력우위설 및 남침전쟁위기설’은 거짓이며 남한이 종합적 군사능력이 훨씬 우월하고 자체 방위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핵무기는 떠나도 된다는 말까지 언급되어 있다.⁶⁰ 이러한 리영희의 주장은 당대의 역사적 관점에서 봐도 타당하다.⁶¹

59 李泳禧, 1990.8,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한반도 평화토대의 구축을 위한 모색」(『사회와 사상』, 1988.9.), 『自由人, 자유인』, 범우사, 101~133쪽.

60 이영희, 1988.8, 「핵무기 신앙에서의 신앙」, 이영희·임재경 편, 『반핵: 핵위기의 구조와 한반도』, 창작과 비평사, 287쪽.

61 재래식 무기의 양적 팽창에 매진하던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궁핍과 국제적 고립,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화생무기 같은 전략 무기체제로 전환을 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남한에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대북 압박의 명분을 위해서는 남한에서 핵무기가 철수되어야 했다. 또한 핵무기 철수를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 군사력 우위가 증명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남한 핵무기 철수 움직임은 이를 암묵적으로 확인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 <북한 군사력의 증강 추이> (출처: 이민룡, 2004,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황금알, 108쪽)

구분	병력(만 명)	전차(대)	야포/방사포(문)	미사일(기)
1970년대	50	1,500	3,000	없음
1980년대	75	2,200	5,000	생산 시작
1990년대	100	3,500	11,000	400
1999~2000	110	4,000	13,000	600

리영희는 이듬해 1989년 4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탈출예비·찬양고무동조)으로 체포되어 10월 초 석방되는데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면서 냉전체제가 서서히 와해되고 동유럽에서 민족주의 열기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이때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이 동독 같았으면 남북한 문제가 잘 풀릴 텐데”라는 발언을 했다. 리영희는 이 논리를 역으로 적용하여 ‘남한이 서독 같았으면…’ 하는 자기비판적 사유를 진지하게 자문해야 할 세계사적 국면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국가의 인격 또는 민족정기의 문제다. 과거를 청산한 국가(서독)와 안 한 국가(남한)는 그 덕성과 인격이 같을 수가 없다. 둘째, 서독은 동독을 ‘괴뢰’나 ‘반란집단’ 등으로 대하질 않는다. ‘국가보안법’ 같은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셋째, 서독에서는 정부에 의한 이데올로기 교육이 없다.⁶² 넷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서독에는 사회주의 정당이 있고 세계 최고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노동자·농민·빈민대중에게 고루 부를 분배해 서독 국민이 동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서독의 군사적 주권은 어느 외국에 양도돼 있지 않다. 서독은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도 큰 발언권을 갖는다.⁶³

어찌됐든 세계가 급변하면서 남한도 동년 12월 유고슬라비아와 수교하고 이듬해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이 본격화되었다. 1990년 4월 미군은 주한미군의 3단계 축소계획이 담긴 동아시아전략 구상을 채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리영희는 동년 6월 15일 서울 수유리크리스찬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 군축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민간 차원의 첫 움직임인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에 동참했다.⁶⁴

62 독일은 동독과 교류하면서도 초당파적으로 철저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실시했다. 이 민주시민교육과 리영희가 지적하는 정부에 의한 이데올로기 교육은 다르다. 리영희가 지적하는 것은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이기 때문이다.

63 李泳禧, 1990.8, 「남한이 서독 같았으면야…」(1989.12.3.), 『自由人, 자유인』, 범우사, 266~268쪽.

64 「평화협정·불가침선언 촉구」, 『한겨레』, 1990.6.16, 1쪽.

정리하면 1985년 일본과 서독을 다녀온 리영희는 독일과 북한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세인식과 핵담론에 포괄하면서 사유를 확장했다. 또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아 리영희는 원전 문제까지 시야를 확장하여 한국 독자를 설득하는 데 활용했다. 무엇보다 미·소 중거리미사일(INF)협정이 이루어진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전환기에 한국인의 ‘핵무기 신봉과 안전’ 믿음을 타파하기 위해 한국인의 핵 관련 국민의식을 ‘사무삼과’로 체계화했으며, ‘북한의 군사력 우위설 및 남침 가능성’을 타파하기 위해 남·북 군사력을 실증적으로 비교하고 미군의 핵무기 철수의 논거를 구축했다. 군사 주권을 강조한 리영희가 1980년대 초부터 사회를 향해 발언해온 핵 문제는 1980년대 중후반 학생운동의 반전 반핵, 1987년 민주화 이후 통일운동과 자주적 민주화의 상관성을 파악한 한국 사회 그리고 1988년 12월 5일 한국 원전지대 핵폐기물 문제로 전라남도 영광, 경상남도 고리, 경상북도 월성에서 동시 시위가 일어나며 원전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사건⁶⁵ 등과 맞물리면서 한국인의 핵불감증을 자각하는 데 일부 기여했다.⁶⁶

다만, 이 시기에도 리영희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조명하지 않았다. 당시 도

65 니시나 겐이치·노다 교우미 저, 육혜영 역, 1991, 『한국공해리포트: 원전에서 산재까지』, 개마고원, 17~19쪽.

66 1980년대 한국인의 핵인식의 변화를 간접적이지만 일부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있다. 1978년 6월 23일 중앙대학교 신문사가 실시한 학생의식조사에서 89%가 “한국이 핵무기를 소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1986년 11월 17일 한국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기도와 선언」에서 “우리는 한반도가 인류가 소망하는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는 평화운동의 중심지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핵무기와 핵전쟁에 대한 반대요구를 이단시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라고 발표했다. 리영희는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의미심장한 반성과 발전이라고 평가했다(李泳禧, 1987.3, 「핵은 확실히 ‘죽음’을 보장한다」(1986), 앞의 책, 108쪽). 또한 1988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행한 ‘청년학도의 통일 의식 설문조사’(전국 대학생, 총12,489부)의 결과는 미국의 핵무기 ‘명백히 철수되어야 한다’(46%), ‘위험은 따르나 어쩔 수 없다’(33.9%),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4.7%), ‘관심 없다’(4.7%)였다. 전대협 통학추, 1988.5, 『우리는 결코 돌일 수 없다』, 南風, 212쪽.

일치료가 중단되자 1987년 11월 30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주한일본대사관에 재한 피폭자의 손해보상으로 미화 23억 달러를 요구했다.⁶⁷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큰 관심을 갖지 않던 표문태가 재한은 아니지만 재일조선인 징용피폭자의 목소리를 일부 담은 『버림받은 사람들』(1987.12.)을 번역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1980년대 리영희의 반핵 인식은 1980년대 자민투(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 계열의 학생운동의 반전반핵 담론에 가깝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환경운동의 성장과 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인식은 생태주의적 반핵운동과 달리 반제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외세의 핵무기 한반도 배치를 비판하는 데 집중이 되는 기능주의적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

IV. 맺음말: 반핵, 반미, 군축, 평화 지향의 인간

1990년 7월 리영희는 『自由人, 자유인』(1990.8.)의 서문에 “나는 유신독재정권이 신문·방송·잡지 등 공공보도기관에 시달한 집필불허(執筆不許) 인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학살정권의 몰락까지 10여 년 동안 어떤 신문에건 글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었다”⁶⁸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그의 글은 미디어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대신 그는 여러 평론집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대중독자에게 전하고자 했다. 이 ‘의지’는 그의 모든 시기의 책 머리말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간단히 말해 우상의 파괴와 진실의 전달이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첫 평론집의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나는 좌·우의 어떤 정치·이데올로기적 권력이건 진실을 은폐·날조·왜곡하려는 흉계에 대항해서 진실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른 모습대로 세상에 밝혀내는 것을 글 쓰는 목적으로 삼고 일관하였다. 광적인 반공·냉전·전쟁애호·반평화통일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

67 「被爆者 日에 23億달러 보상 요구」, 『동아일보』, 1987.12.1, 11쪽.

68 李泳禧, 1990.8, 『自由人, 자유인』, 범우사, 6쪽.

에 특히 그러했다. ‘진실’은 균형 잡힌 감각과 시각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 균형은 새의 두 날개처럼 좌(左)와 우(右)의 날개가 같은 기능을 다할 때의 상태이다. 그 것은 자연의 법칙에 맞고, 인간 사유의 가장 건전한 상태이다.”⁶⁹

이러한 맥락에서 리영희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의 나의 관심은 두 가지 측면에 집중되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40년이 되려는 시점에서의 한·일관계의 참모습에 대한 것이 그 하나이고, 초강대국들이 ‘무제한 군사대결’의 결의를 선언하고 나선 국제관계,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의 한국과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하나이다”⁷⁰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이 당시 리영희의 글쓰기란 1980년대 미·소 핵미사일의 군사정치학이 한반도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 및 정치지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진실’ 구명(究明)과 대중화 작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작업은 1983년 미국 정부의 국가이기주의와 남한 지역 군사전략을 대중에게 가시화하면서 국제정치의 냉혹함과 국제질서의 현실을 잘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병영국가하에서 수십 년에 걸쳐 굳어진 한국인의 안보의식, 안보위기감을 타파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냉전-분단체제하의 남한 국민은 오랫동안 군사력 강화와 우위전략만이 북의 남침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간주했다. ‘북한의 선제남침 가능성 및 군사력 우위설’은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정당화했다. 냉전 시대 남한의 국민은 북한뿐만 아니라 배후에 중국과 소련이 항상 의식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우산에 편입하여 군사적 안전을 꾀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졌다.

69 리영희, 1994.7,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두레, 6쪽.

70 李泳禧, 1984.10, 『分斷을 넘어서』, 한길사, 5쪽. 레이건의 미국은 군비경쟁의 공간적 무제한(‘우주전쟁’구상), 시간적 무제한(소련이 항복할 때까지), 금전적 무제한(군비예산의 사상최고 수준의 지속), 정치적 무제한(소련 및 사회주의 ‘악의 제국’을 전 세계적으로 포위·타격 강화) 정책으로 그 목표를 달성했다. 참고로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 장거리 폭격기를 뜻한다.

그러나 리영희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 한반도가 열강의 대리전장이 되고 핵전쟁이 발발하는 사태를 극도로 우려했다. 미·소 대탕트 시기에도 동북아시아의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1980년대 남과 북이 모두 통일방안을 제시했지만 남한과 미국 정부는 모두 북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거부했다. 리영희가 봤을 때 군사정부와 미국은 분단을 영구적으로 고착화하고 오직 군사대결만 지속하는 정치세력이었다. 리영희는 군사승배사상을 깨뜨리기 위해 1980년대 후반 남북의 군사력 비교를 통해 남한의 군사우위를 처음으로 실증했다.

무엇보다 그가 주장하는 핵무기 반대는 반전의 문제를 넘어 냉전시대와 남북한 대치라는 현실하에서 미국의 실체를 한국인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자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1980년 광주항쟁 이래 미국은 한국의 군부정권을 지지하고 분단체제를 영속화하며 레이건 이래 무기의 대량구입을 더욱 강하게 강제하는 반공국가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도 광주학살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책임과 미국의 지원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이 여러 번 있었고 1987년 1월 글라이스틴 전 대사가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광주’를 말했다. 리영희는 1988년 5월 릴리 주한 미국 대사와 이와 관련된 논쟁을 펼치기도 했다.⁷¹

이처럼 리영희는 국제적 정치 정세 분석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군사안보의 현실을 구명하면서 한국사회에 핵무기 위험성뿐만 아니라 미국과 주한미군, 남한의 군사정부가 암묵적으로 퍼트려온 군사이데올로기를 실체화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반공군사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온 대다수 한국인의 핵승배사상, 핵불감증, 군사력승배사상, 사무삼과, 북한의 군사력 우위설 및 선제남침설, 선악론(미=선, 소=악) 등을 무너뜨리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주장은 체르노빌 사건이나 1980년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 반미,⁷²

71 李泳禧, 1990.8, 「리영희 교수-릴리 대사 한미관계 공개논쟁」(1988.5.27), 『自由人, 자유인』, 범우사, 161~185쪽.

민주화 이후 통일운동과 자주화 노력 등과 결부되어 강화되고 지지받았다.

그래서 리영희는 “지난 40년간은 분단과 대치의 상황이 우리의 의식을 조건 지었었다. 우리는 그 조건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상황에 구속되지만 않아도 좋을 만큼의 물질적·정신적·사상적 성장을 했다고 믿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국민이 해야 할 과제는 스스로의 의식으로써 객관적 조건을 풀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⁷³고 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되어야 했다. 그는 독일 통일을 부러워하는 당대인을 보며 국가보안법이 있는 남한의 현실을 먼저 직시하라고 했다. 우리 사회의 내부와 개개인의 의식에 내재해 있는 ‘분단’의 자주적 타파를 위해서는 군사적 대결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구성원인 북한 사람들과 공존하는 의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가 그토록 국제정세를 인식하라고 강조한 것은 단순히 열강 정치질서가 남한에 미치는 영향만 분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란 환상을 깨뜨리듯 올바른 정치의식과 정치적 이성을 갖추고 증오와 적대감을 버리며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자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한의 남북대화와 군사적 안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리영희는 1980년대 말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하여 역설적으로 ‘남한의 군사력 우위설’을 증명해야 했다. 남한인의 전쟁공포를 벗기기 위해서는 역으로 남한의 군사력 우위를 증명해 안심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리영희는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떠나도 된다고 주장했으며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같은 민간교류가 아니라 ‘군축’만이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지하듯 1992년 접어들면서 북한 핵무기 개발이 큰 국제적

72 ‘반미감정’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반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미=민주화운동’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반미란, 미국에 대한 우호적 또는 제한적 비판이 아닌, 국가로서의 미국과 미국이 대표하는 정책, 문화, 가치, 그리고 이념에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감정, 의사, 또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기획, 신명순 엮음, 2016,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한울아카데미, 359~360쪽.

73 李泳禧, 1984.10, 『分斷을 넘어서』, 한길사, 6쪽.

이슈로 부상하게 된다. 1990년 그는 다른 지식인과 함께 군축과 통일을 위한 민간 차원의 선언에 동참했지만 ‘북핵 위기’로 인해 민간의 정치적 공간은 급격히 폐쇄되고 만다. 1980년대에는 남한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북한에는 없었는데, 이제 남한의 주한미군 핵무기가 철수하고 북한이 핵개발에 나서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리영희가 그토록 강조한 ‘군축’이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리하면, 리영희는 1983년 이래로 일관되게 미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그의 세부적인 핵 인식 및 논의는 1983년(군사력 숭배사상, 핵무기 숭상), 1986년(한국인이 핵에 무지하게 된 원인, ‘핵무기 안전보장론’), 1988년(사무삼과와 남북한 군사력 비교-북한의 남침 가능성론 타파)를 각각 변곡점으로 하여 계기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했다. 다만, 리영희가 국제정치학자나 군사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국제 정세 인식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분단국가이자 군부정권하의 저널리스트이자 약소국의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한국과 한반도를 염원하기 때문에 일부 지나치게 이상적인 주장이나 전망이 있을 수 있다.⁷⁴ 그럼에도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붕괴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핵전략자산 확충에 열중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가능성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핵전쟁 발발의 공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1980년대 핵불감증과 한반도의 핵전장화를 우려하고 군사 주권을 강조한 리영희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

74 참고로 리영희의 ‘실천으로서의 국제정치비평’이 추구했던 현실 비판과 그에 기초한 미래 기획은, 약소국가 중심적 사고를 토대로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을 지향하는 ‘국제정치이론’이라는 평가가 있다. 구갑우, 2017, 「리영희의 ‘비판’과 ‘실천’으로서의 국제정치이론: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길」, 『한국정치연구』 26권 1호, 75~99쪽.

참고문헌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창작과 비평』, 『한겨레』.

알바 뮌르달 저, 동서군축문제연구소 역, 1984.9, 『핵전쟁의 위협』, 동광출판사.

李泳禧, 1980.3, 『偶像과 理性: 李泳禧 評論選』(증보판), 한길사.

_____, 1984.10, 『분단을 넘어서』, 한길사.

_____, 1987.3, 『역설의 변증: 統一과 戰後世代와 나』, 두레.

_____, 1988.3, 『歷程: 나의 청년시대』, 창비.

_____, 1990, 『自由人, 자유인』, 범우사.

_____, 1994,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두레.

_____, 2006, 『전환시대의 논리』(1974), 창비.

李泳禧 외, 1984.11, 『핵전략의 위기적 구조』, 세계.

_____, 1985.5, 『핵문제입문』, 세계.

李泳禧 편저, 1984.7, 『80年代 國際情勢와 韓半島』, 동광출판사.

이영희·임재경 편, 1988.8, 『반핵: 핵위기의 구조와 한반도』, 창작과 비평사.

함석헌 외, 1984.2, 『누군가 말해야 한다』, 삼民社.

李泳禧, 1987.6, 「핵'은 죽음을 보장한다」, 핵전쟁방지 국제의사회 엮음, 황상의 역,

『핵전쟁과 인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의사들』, 미래사.

_____, 1988.9, 「핵무기 신앙에서의 해방」, 『창작과비평』 16권 3호, 창작과비평사.

단행본

고승우 외, 1985, 『核과 韓半島』, 아침.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1989,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김상웅, 2010, 『리영희 평전』, 책으로보는세상.

김승국, 1988, 『반전반핵 양키고함』, 아침.

- 김승국, 1989, 『겨레의 칠성판 核』, 황토.
- 김재엽, 2017, 『한국의 핵무장』, 살림.
- 니시나 겐이치·노다 교우미 저, 육혜영 역, 1991, 『한국공해리포트: 원전에서 산재까지』, 개마고원.
- 니콜라스 V. 라자놉스키·마크 D. 스타인버그 저, 조호연 역, 2011, 『러시아의 역사⑧』, 까치.
- 미하일 고르바초프 저, 이봉철 역, 1988, 『페레스트로이카』, 중원문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신명순 엮음, 2016,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한울아카데미.
- 앨런 브링클리 저, 황혜성 외 역, 2011,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3』, 휴머니스트.
- 이민룡, 2004,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황금알.
- 전대협 통학추, 1988, 『우리는 결코 돌일 수 없다』, 南風.
- 정옥식, 2012, 『핵의 세계사』, 아카이브.
- , 2018, 『핵과 인간』, 서해문집.
- 정옥식·강정민, 2008, 『핵무기』, 열린길.
- 제이콥 햄블런 저, 우동현 역, 2022, 『저주받은 원자-미국의 핵기술 도박이 만들어낸 현재진행형 지구사』, 너머박스.
- 조세영, 2014,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존 루이스 개디스 저, 정철·강규형 역, 2010, 『냉전의 역사』, 에코리브르.
- 최열, 2009, 『환경운동과 더불어 33년』, 생각의 나무.
- 토니 주트 저, 조행복 역, 2019, 『전후 유럽 1945~2005』 2, 열린책들.
- 표문태 외, 1987, 『아시아를 비핵지대로』, 일월서각.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찬위원회 편, 2011,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논문

- 구갑우, 2017, 「리영희의 ‘비판’과 ‘실천’으로서의 국제정치이론: 탈식민·탈패권·탈분단의 길」, 『한국정치연구』 26권 1호.
- 김동춘, 2017,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리영희」,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 돌베개.
- 서보혁, 2017, 「리영희의 반전반핵 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집 2호.

- 이행선, 2021, 「『핵전쟁』(랩, 랠프 E)의 번역(1970)과 문학자 표문태의 반핵 운동」, 『한국학』 통권 164호.
- _____, 2022, 「한국 핵 피폭자운동의 선구자 박수복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북아 역사논총』 제77호.

1980년대 리영희의 핵 인식과 반핵

—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핵 불감증 비판, 군사 주권의 회복 —

이행선

이 글은 언론인이자 교수, 사회운동가였던 리영희(李泳禧, 1929~2010)의 반핵을 1980년대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1977년 소련이 최신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SS-20을 서유럽을 조준해 배치하고 1979년 12월 27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1980년대 초중반 미·소의 핵군비 경쟁이 극심하게 전개된다. 이에 따라 1980년대는 인류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반전·반핵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적인 반핵운동의 흐름 속에서 분단-정전국가인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반공국가인 미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군부정권이 지배하는 남한에서 반핵은 반미·친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반미 및 반핵의 목소리는 1980년대 중후반 즈음 되어서야 조금씩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반핵운동이 미약했지만 리영희처럼 반전과 반핵을 주장하는 반핵운동가, 지식인이 존재했다. 그가 주장하는 반핵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시대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되는 리영희의 반핵 논리를 구명(究明)하고자 했다.

주제어: 레이건, 핵무기, 고르바초프, 체르노빌, 북한

ABSTRACT

Lee Young-hee's Nuclear Awareness and Anti-Nuclear in 1980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riticism of Nuclear Insensitivity, Restoration of Military Sovereignty

Lee Haengseon

This article aims to consider the anti-war of Lee Young-hee(1929-2010), a journalist, professor and social activist, focusing on the 1980s. In 1977, the Soviet Union deployed the latest mid-range nuclear warhead missile SS-20 to Western Europe and invaded Afghanistan on December 27, 1979, leading to fierc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the early and mid-1980s. As a result, the 1980s was also the most active anti-war and anti-nuclear movement in the world in human history. What position did South Korea take in this global anti-nuclear movement? In South Korea, where the two Koreas confronted and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South Korea, which is an anti-communist country, and dominated by the military regime, anti-nuclear weapons were feared to be considered anti-U.S. and pro-North Korea. Indeed,

anti-American and anti-nuclear voices did not begin to emerge until the mid to late 1980s. Although the anti-nuclear movement was weak, there were anti-nuclear activists and intellectuals who argued for reversal and anti-war like Lee Young-hee. What was the anti-nuclear argument he made? This article seeks to research Lee Young-hee's anti-nuclear logic, which was reconstructed according to changes in times and circumstances.

Keywords: Reagan, Nuclear Weapons, Gorbachev, Chernobyl, North Korea

자료소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쟁 속에서 일상화된 강제동원을 읽는다

— 『每日新報로 본 강제동원』

김윤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 I. 신문에서 강제동원 읽어내기
- II. 중일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가총동원(1938~1940)
- III. 태평양전쟁에 동원되는 사람들(1941~1945)
- IV. 자료집의 의의와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신문에서 강제동원 읽어내기

『毎日新報로 본 강제동원』은 2023년 3월 동북아역사재단의 ‘일제침탈사 자료 총서84’로 발간된 자료집이다. 강제동원편 중 하나인 이 자료집은 강제동원의 일상을 보여주는 가장 현재적인 자료로 신문을 선택했다. 『매일신보』라는 신문을 통해 강제동원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이용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발행되던 신문은 한국어 일간 신문인 『매일신보』, 일본어 일간 신문인 『경성일보』, 영어판 『The Seoul Press』가 있었다. 이 중 1910년 8월 30일 창간된 『매일신보』는 전쟁으로 물자가 부족했던 1940년대에도 중단되지 않고 35년간 발간된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선전수단이자 식민지 언론의 전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일제강점기의 실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 『매일신보』에서 강제동원을 어떻게 읽어볼 것인가. 먼저 강제동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란 일본이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권력으로 실시한 인적 동원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현행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특별법 제2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다.¹ 위안부 동원을 제외한다면 1938년 국가총동원법 제정부터 1945년까지를 강제동원 시기로 규정한다.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6,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요약본』, 25쪽.

이에 따라 『毎日新報』로 본 강제동원』은 1938~1945년 강제동원에 관련한 기사를 선별하여 수록했다. 편역한 『매일신보』의 기사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형태, 동원방법, 동원기관, 동원법령, 동원정책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안배했다.

첫 번째 동원지역은 국내, 일본, 사할린, 남양군도, 만주 등지로 구분했다. 국내, 즉 한반도 내의 동원은 가장 많은 수를 점한다. 일본으로 동원은 1939년 일본 탄광의 노동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서 ‘모집’이라는 형태로 지역별 할당을 하면서 대규모로 시작했다. 남양군도로 동원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점령지였던 남양군도를 일본이 위임통치하면서 농업이민의 일환으로 1939년 8월 시행했다. 사할린은 1939년 화태개척근로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기사가 확인되며 1941년 탄광 개발을 위해 성인남자를 동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동원방법은 모집, 관알선, 징용, 징병, 지원병 등 다양한 방식의 사례를 소개했다. 모집, 관알선, 징용은 주로 노무자로 동원하는 방식이지만 징용에는 일부 군속도 포함했고, 징병과 지원병은 군인으로 동원하는 방식이었다. 이 외에도 해군징용공원규칙, 육군군속선원취급요령, 군수회사징용규칙, 선원징용령, 의료관계자징용령 등 보완법령이나 세부법령을 계속 제정하였으므로 동원방법이 다양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동원형태를 담았다. 각종 봉사대, 근로보국대, 근로정신대, 조선농업보국청년대, 산업보국대, 특별근로보국대, 만주국책이민, 만주개척청년의용대, 만주건설봉사대, 홍아청년근로보국대, 사할린개척근로보국대 등의 형태가 등장했다. 군인과 군속의 경우 징병, 해군지원병, 육군지원병, 포로감시원, 학도지원병, 작업애국단, 소년비행병 등으로 동원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동원관계 기관에 대한 기사를 선별했다. 조선총독부 노무과와 사회과의 변화, 외곽 단체인 토목건축협회와 노무협회의 설립과 운영, 국외동원에 필요한 남양척식주식회사와 만주척식주식회사의 주요 정책과 운영방침은

강제동원의 구체적인 동원 카르텔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다.

다섯 번째는 동원관계 법령을 살펴보았다. 국가총동원법을 비롯한 징병제, 육군특별지원병제, 근로보국대 실시요강, 국민징용령, 선원징용령, 의료관계자 징용령,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여자근로정신령,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 국민근로동원령, 국민의용대 조직 요강, 군수회사징용규칙,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요강 등의 제정과 시행 내용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직접적인 법령 이외에도 동원 배경과 정책에 관련한 기사를 선별했다. 조선의 연령별·직업별·지역별·성별 노동력에 대한 조사, 전반적인 배치와 필요 상황에 관한 것이다. 노무조정령, 직업소개령, 노동력 조사, 기류제도, 복선개척, 만주개척 등에 대한 기사도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제국 영역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현지에서 동원되는 피해 사례도 검토했다.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 시행으로 조선 내에서 동원은 다반사였고, 일본·사할린·남양군도·만주·중국 등지로도 조선인들을 보냈다. 한편으로 조선에 있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 만주, 중국, 남양군도, 사할린 등에 있었던 조선인도 동원 관련 법령에 따라 동원되고 있었다. 강제동원이라고 하면 조선에서 다른 나라로 동원되는 것을 우선 떠올리지만, 실제 일본 ‘제국’의 식민지와 점령지 내에 있던 조선인들은 그 지역의 법과 운영체계에 따라 동원 대상이 되었다는 점도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했다.

II. 중일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가총동원(1938~1940)

『毎日新報로 본 강제동원』에는 654건의 신문기사가 편역되어 있다. 자료집은 책장을 넘기며 보통의 책처럼 읽는다면 강제동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분량이 많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제를 달아 해제만 읽어도 강제동원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자료집은 1938~1945년을 기간으로 하여 연도별로 구분했지만 이 글에서는 1941년 태평양전쟁을 기준으로

나누어 소개하겠다.

첫째 시기는 1938~1940년이다.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난징(南京)에 이어 한커우(漢口)와 우한(武漢)을 점령하며 승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대본영과 일본인들의 기대와 달리 지구전에 접어들었다. 속전속결로 중국을 점령하고, 육군을 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하겠다는 대본영의 구상은 어렵게 되었다. 중국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져 장기화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본은 물자, 인력 등 모든 체계를 수정해야 했다.

둘째 시기는 1941~1945년이다. 1941년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다. 태평양전쟁은 중일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시작한 것으로 전장의 범위가 수배로 확장됨에 따라 완전히 다른 동원체제와 정책이 필요했다. 일본은 1945년 전쟁 말기 최후의 선택으로 ‘본토결전’을 결정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기에 이른다.

• 1938년

1938년 강제동원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법령은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국가총동원법」, 조선인들의 정신동원을 위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근로보국대, ‘황국신민’으로 일본군에 동원하는 「육군특별지원병령」이다.



그림 1 「국가총동원법의 출발」, 『매일신보』, 1938.5.10.

1937년 7월 7일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단기간에 끝날 전쟁으로 예상했지만 해를 넘어서 전장은 더욱 확대되어 장기전을 준비해야 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대량살상과 장기지구전을 전제로 한 ‘총력전’ 개념과 체제를 도입하여 국가총동원라고 칭했다. 이것을 법령화한 것이 1938년 4월 1일 공포한 「국가총동원법」이다. 조선에서는 5월 3일 시행했다. 국가총동원을 통해 이루려는 국가총동원체제는 전쟁동원 시스템이지만 평시에 전시체제를 준비하고, 광범위하게 자원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동원계획을 수립·동원·통제·배분하는 것이다.

국가총동원을 위해서는 조선인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야 했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동원뿐 아니라 ‘정신’ 동원과 통제에 나섰다. 1938년 7월 1일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을 하달하여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아래 근로보국대를 편성했다. 근로보국대는 근로를 통해 국가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12~40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노동봉사 부대였다.

일본은 노무동원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군인동원도 고려했다. 중일전쟁 이후 전선이 확대되고 장기전을 준비할 상황이 되자, 조선 청년들을 군인으로 동원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처음부터 대규모 징병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원병이라는 형태를 채택했다. 육군특별지원병, 해군특별지원병, 학도지원병이 그러하다. 1938년 2월 22일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여 보통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17세 이상인 조선인 남자 가운데 지원에 의해 전향 후 육군 현역 또는 제1보충역으로 입영하여, 6개월 이상 지원병훈련소에서 예비교육을 마친 후 일본군에 입대하도록 했다. 이들이 훈련한 곳은 「육군특별지원병훈련소」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시훈련소였다. 훈련을 받은 조선인들은 1939년 제19사단에 소속되어 회령과 평양으로 배치되었다. 한편, 해군은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1943년에 가서 「해군특별지원병제」를 시행했다.

• 1939년

1939년 강제동원 관련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을 시행하고, ‘반도노무자’라는 이름으로 일본·만주·남양군도·사할린 등에 동원했으며,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조선 내 노동이 가능한 인력을 조사하고 배치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1939년 7월 8일 「국민징용령」을 제정하고 10월 1일 조선에 시행했다. 「국민징용령」에 따라 동원되는 조선인들은 전쟁에 출정하는 병사와 같다고 선전하며 산업전사로 표현했다. 1차 징용은 10월 일부에 국한하여 시행하고 일본으로 동원했다. 징용대상자와 작업장을 확대한 제2차 개정은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과 동시에 진행했으며, 조선인 대부분이 대상이었던 제3차 개정은 1943년 7월이었다. 이 외에도 선박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940년 10월 21일 선원징용령,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1941년 12월 16일 의료관계자 징용령을 시행했다. 기술직 노무자들에 대해서는 1939년 5월 15일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라 ‘국민등록’ 제도를 실행했다.

징용령 일부 시행과 함께 1939년부터 조선 외로 동원을 대규모로 시행했다. 첫 번째는 일본이다. 조선총독부는 9월 1일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향 취급요강」을 각 도지사에게 하달하고, 홋카이도(北海道)와 규슈(九州) 지역의 탄광에 대해 조선인 노무자 모집을 허가했다. 두 번째는 만주다. 조선총독부는 만주국으로 국책이민을 계획했고, 각 도마다 만주개척부대, 만주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명의 이민을 추진했다. 홍아근로보국대와 만주건설근로봉사대를 조직해서 단기 동원도 진행했다. 세 번째는 남양군도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령과 그 주위의 섬을 차지한 일본은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며 집단농장을 꾸렸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남양군도에 비행장과 항만을 건설하기 위해 조선에 노동력 동원을 요청했다. 네 번째는 사할린이다. 1939년 사할린 개척근로대가 안성에서 출발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기사가 확인되며 동원된 조선인들은 철도공사, 제지공장, 토목공사장, 탄광에 배치되었다.

이처럼 국내외로 강제동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조선총독부는 노동력 재배

치, 식량과 천연자원 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무자원 조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농촌의 인력을 잉여 또는 과잉 노동력으로 설정하고 각 도와 군별 인원을 파악해서 군수공업을 비롯한 생산력 확충 부문 등 총동원 업무에 투입 또는 배치하려는 목적이었다. 조선 내에서 많은 노동력이 급하게 필요했던 곳은 ‘북선개척’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조선 북부지역이었다. 조선 남부는 농업중심으로 북부는 공업중심으로 재편성하여 남부의 노동력을 북부 지역에 알선하는 방식으로 공장, 각종 토목공사장, 탄광과 광산에 노동력을 공급했다.

• 1940년

1940년 주목할 강제동원 관련 기사는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해서 각종 통제령을 시행하는 한편, 정신동원을 위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서 국민총력운동으로 재편했으며, 선원과 해군 작업애국단 등의 군속 동원을 시행했다는 점이다.

각종 통제령은 1938년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에 기반해서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을 시작으로 1939년 국민직업능력신고령, 종업자고입제한령, 공장취업시간제한령, 임금통제령, 학교기술자양성령, 공장사업장기능장양성령, 국민징용령, 임금임시조치령, 청소년강제고입제한령 등을 실시했다. 1940년 종업자 이동방지령, 조선해운통제령 등도 제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통제령 시행은 수급조정과 인력배치를 철저히 정부의 통제와 관리에 넣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통제와 후방 지원을 위해 일본은 행정조직과 일치하는 노동조직을 만들었다. 그동안 운영했던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1939년 10월 16일 국민총력연맹으로 개편하여 조선 내 동원의 기본조직으로 저변에 확대시키려고 했다. 일본은 강제동원에 관여한 관변기관으로 직업소개소와 조선노무협회를 두었다. 직업소개소는 1940년 1월 20일 「조선직업소개소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대전·광주·청진·경성·대구·부산·평양·신의주·함흥 등 주요 도시에 국영직업소개소를 설치했다. 1939년 조선 외 노무자 송출을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해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법만 있을 뿐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실효성이 없었다.

일본으로 집단이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1940년 일본 농가로 조선농업보국 청년대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가 ‘내선일체’와 ‘선진영농법 습득을 통한 조선농촌갱생’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실시한 노동력 동원으로, 남녀청년들을 1~2개월간 일본 전역의 농가에 배치해 농번기에 모내기과 추수작업에 동원했다. 만주에는 개척민으로 집단 이주가 시행되는 가운데, 만주개척청년의용대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만주로 동원했다. 이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며 집단촌의 중견인물로 활동하게 했다.

1940년은 군속동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군속은 ‘군부’로 칭하기도 하고 고원(雇員), 용인(傭人)이라 불리기도 했다. 기타 군속은 문관, 운전수, 간호부, 포로 감시원 등이 있었다. 군속 동원은 해군징용공원규칙, 국민징용령, 육군군속선원취급요령, 군수회사징용규칙, 선원징용령, 의료관계자징용령 등을 관련 근거로 했다. 조선인 군속의 대표적인 사례는 선원이었다. 1939년 선원직업신고령, 사용통제와 급여 등에 관한 시행령을 공포하고 1940년 10월 선원징용령을 통해 선원을 징용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선박과 선원은 턱 없이 부족해지자 1943년 7월 육군군속선원신분취급요령을 통해 민간 선박도 총동원업무에 동원하고 선박의 선장과 선원도 ‘군속 선원’으로 동원하기 시작했다. 해군도 대규모 군속동원을 시작했다. 1940년 11월 19일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해군징용공원규칙」에 따라 1941년 12월 8일 해군의 작업애국단을 남태평양의 군사기지 건설에 파견하는데, 표면적으로는 1942년부터 2년 계약을 조건으로 내걸어 일본과 조선에서 동원했다.

Ⅲ.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사람들(1941~1945)

• 1941년

1941년 12월 3일 일본은 하와이를 침공하여 태평양전쟁을 시작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과 전쟁을 감행한 것이다.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하는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 일본은 법령과 제도들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1941년 강제동원에 관련된 기사는 노무자 이동방지를 위해 「국민노무수첩령」을 실시한 점, 모든 조선인은 노동을 해야 한다는 국민개로(國民皆勞)의 원형인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을 시행한 점, 조선 외 동원을 위해 조선직업소개소를 대신해 조선노무협회를 결성하고 운영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했다.

먼저 1941년 3월 7일 공포하고, 7월 21일 시행한 「국민노무수첩법」을 통해 공장광산이나 기타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신분, 경력, 기능 정도, 임금 등을 기재한 국민노무수첩을 소지하도록 하고 국민직업지도소에 등록해서 배치상황을 명시하도록 하여 기술자와 노동자의 사용 및 취업에 필요한 규제를 시행했다. 수첩을 소지해야 하는 대상은 14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로 공원, 광업, 토목 건축, 교통, 운수업, 화물취급업과 통신사업 종사자였다. 대략 노무자 약 600만 명을 예상했다.

기능을 가진 노동력 조사와 확보에 이어 조선인 전반의 노동력 확보라는 목



그림 2 「국민개로에 총동원, 『매일신보』, 1940.9.21.

적으로 ‘국민개로(國民皆勞)’를 내세워 근로보국대를 조직하고 동원했다. 국민개로는 모든 국민을 노동부대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함의한 용어였다. 근로보국대를 구체화하여 법령으로 규정한 것은 12월 1일 시행한 「국민근로보국협력령」으로, 14~40세 남성과 14~25세 미만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규정하며 그 외 연령도 경우에 따라서 동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들도 학교연맹을 단위로 학교근로보국대 조직에 포함되었다. 국민개로의 의미는 모든 국민이 노동을 한다는 것으로 제외 대상이 없어야 했다.

1941년은 국외동원을 재정비하는 시기였다. 1939년 ‘집단이입’으로 일본에 동원되었던 노무자들의 2년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일본은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가족 이주 권장 등으로 노무자들을 잡아두는 한편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인 집단노무자 이입’을 확대했다. 한편 이 시기 일본은 만주로 국책이민을 시작했다. 1937~1941년 일본인 30만 명을 만주로 이주시켰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귀향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조선인들을 이민 대상에 포함시켰다. 1942년 제2기 5개년계획에서는 조선인 개척민 5만 호 송출 계획을 포함했다.

• 1942년

1942년 강제동원과 관련한 기사의 특징은 공장, 사업장 노무자의 통제를 강화하는 「노무조정령」을 실시하고, 일본과 만주동원에도 변화를 보이며, 조선기류령을 시행하여 군인동원을 준비하고 포로감시원이라는 군속동원을 시행한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목전에 두고 1941년도 노무동원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다. 1941년 12월 8일 「노무조정령」을 제정하고, 1942년 1월 10일 공포, 시행했다. 「노무조정령」은 종업자가 다른 공장에 취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존의 「노동력 통제법」을 보완하여 종업자가 자신의 퇴직은 물론 다른 방면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이었다.

각종 통제법령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동원은 확대시켰다. 1939년 일본으

로 ‘집단이입’되었던 조선인 노무자들의 귀환이 다가오자 일본은 1942년 2월 20일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을 발표했다. 이른바 ‘관알선’이다. 조선인들의 계약을 연장하기 위함이었다. 만주로도 많은 조선인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1942년 조선인으로 구성된 1만 호를 만주로 송출한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만주개척단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대륙개척전사’의 이미지로 신문지면에 공개했다. 이때부터 조선인들이 배치된 곳은 만주 남부 지역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국경지대였다.

1942년은 징병제 시행도 예고했다. 징병제를 앞두고 10월 15일 「조선기류령」을 제정하여 징병 적령자의 거주지 파악을 위해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기류계를 제출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병역, 납세, 선거, 기타 행정 목적을 위해 일정한 행정구역 내 조선인의 인구 동태를 밝히려는 것이었다. 「조선기류령」 제정 직후 「조선청년특별연성령」을 공포하여 징병 대상이 되는 17~21세 중 초등학교 초 등과를 수료하지 못한 조선 청년을 대상으로 조선청년특별연성소에서 교육을 받고, 현역 징집이 예상되는 청년들은 군무예비훈련소에서 최종적인 훈련을 받도록 했다.

대규모 군속동원도 1942년 확인된다. 군속동원은 국민징용령에 근거하여 1939년 시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포로감시원이다. 일본은 ‘반도청년의 광영’이라는 휘장을 두르고, 20세에서 35세 미만의 남성들에게 “근무기간 2년, 월 급여 50원”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신문지면에 광고했다. 징용과 징병의 선택 길에 있었던 조선의 청장년들이 응모하였고, 1942년 5월 최종 3,200여 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1942년 6월 부산 서면 소재 임시군속교육대에 입소하는데, 『매일신보』에 따르면 총 3,223명이다. 두 달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8월 10일 말레이시아와 자바포로수용소로, 8월 21일 태국포로수용소로 출발했다.

• 1943년

1943년 강제동원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조선인들을 ‘유휴노동력’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긴급대책요강」을 실시한다고 조선총독부는 발표했다. 동시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징용령」을 개정하여 ‘몽땅동원’을 실시하며, 해군은 「해군지원병제령」을 시행하고 육군은 「징병제」를 준비했다.

1943년 8월 20일 다나가 총감은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역설하면서 “일할 수 있는 젊은 남녀가 놀고 먹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것이 당시 일본의 인식이자 조선인들을 동원하는 명분이었다. 노동 가능한 인력은 모두 동원한다는 「근로긴급대책요강」을 발표하여 국민징용제도를 강화하고, 국민동원의 대상을 종래 노동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했다. 이제까지 징용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여성을 대상에 포함시켜 여성노동력을 적극 동원하겠다는 기사를 배포했다. 10월 「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요강」에서도 부인동원 강화를 주요 사항으로 명시했다.

1943년 강제동원의 또 다른 특징은 징용령이다. 국민징용령 3차 개정으로 종래 직업소개 기관이나 기타 방법으로 확보할 수 없을 때 실시한다는 방침에서 ‘국가의 요청’으로 수정하여 국가의 적극적 동원을 명시했다. 피징용자의 호칭을 ‘응징사’로 채용한다는 점, 고용주도 징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전황은 계속 악화되었고,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해지자 1944년 2월 18일 4차 개정을 시행했다. 40세까지 징용 연령을 50세까지 확대하고, 포함하지 않았던 여성은 ‘12~20세 미만 여성은 할당제와 인가제’로 동원하기로 했다.

징용에 이어 징병도 확대 시행했다. 1943년 6월 3일 일본 해군성은 「해군지원병모집요강」을 발표하는데, 조선인에 대해서는 징병이 아닌 지원병제를 시행했다. 경남 진해에 설치된 조선총독부 해군지원자훈련소에 10월 1일부터 1기 생이 입소했다. 이 시기 특별한 사례는 여학생들의 군속지원이다. 육군은 10월 20일 「육군특별지원병 채용시행규칙」을 공포하여 학도지원병 동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징병제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입영이 연기되었던 전문학교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군인동원을 시작한 것이다. 11월 8일 문과계 대학과 전문, 고등

학교 재학생으로 학도지원병에 지원하지 않은 적령자 및 졸업생에게 징병장을 발급했다. 이들을 ‘학도징용’, ‘응징학도’라 지칭했다.

• 1944년

1944년은 국민징용령과 징병제 동원에 관련한 기사가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물자 공출이 계속되고, 부족한 노동력의 대안으로 여자근로 정신대 등 ‘후방부대’가 된 여성동원이 전면에 드러난다.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노동 현장으로 가고, 이외에도 만주신부, 수형인동원 등 다양한 형태가 기사화 되어 있다.

1944년은 인력뿐 아니라 물자 공출도 극심했다. 물자 공출은 「국가총동원법」에 따르면 군용 물자, 피복, 식량, 음료, 사료, 위생용 물자, 운수용 물자, 통신물자 토목건축용 물자, 조명용 물자, 연료(석탄과 광물자원) 및 전력 등을 대상으로 했다. 공출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농업, 공업, 광업 부분에 생산책임제를 적용했다. ‘농업생산책임제’의 경우 쌀, 보리, 채소, 말, 돼지 등 주요 식량을 급속히 증강시키기 위해서 수량을 할당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한 제도였다. 공동작업을 통해 생산물을 얻어야 하는 구조로 농업추진대를 결성해서 농업생산을 전담하는 청년단원을 집중 결성시키는 마을별 역할을 강조했다.

일본이 공출한 것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었다. 석유 수입이 중단되자 소나무 가지를 채취해서 기름을 짠 송탄유를 군수물자의 하나로 대체하기 위해 학생은 물론이고 지역민 전체를 동원하여 생산량을 할당하기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가마니, 도토리, 고사리, 피마자 등 일상품의 공출로 조선인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일본은 동원된 남성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여성과 아동을 대안으로 설정하고 1944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을 실시했다. 정신대(挺身隊)란 ‘일본국가를 위해 출전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의미로 인력동원을 하기 위해 만든 용어였다. 주로 미성년 여성들이 조선에서 일본 군수공장으로 동원되

었다. 학생들도 1943년 6월 결정된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을 통해 동원을 교육과 연성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유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근로동원’을 강화한다고 천명했다. 군사능력을 증강하고 학교보국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학도동원이 이때 국민동원계획에 처음으로 편입되었다.

강제동원의 형태는 이 외에도 신문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알 수 있다. 1944년 10월 27일 『매일신보』 1면에 ‘군위안부 급모’(19~30세 이하 대상) 광고가 실려 있고, 만주에 대륙신부를 보낸다는 기사도 있다. 만주 개척전사의 배필로 신부를 보내는 정책인데, “만주에서는 색시를 구하고 있습니다”라며 17세 이상 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는다고 했다. 만주 개척민으로 보낸 조선인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도록 결혼을 추진하는 것이다. 1944년 수형자 동원도 시작했다. 조선 각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들을 정신보국대라는 이름하에 조직하여 부족한 노동현장에 투입했다. 특히 항구에 배치해서 화물 운반에 동원했다.

• 1945년

1945년은 더 이상의 동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행한 극한의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인력동원령을 통합한 「국민근로동원령」 시행, 식량 공급의 위기에서 「농촌근로동원대책요강」 결정과 농업요원 지정, 국민은 모두 군인이라는 「국민의용대조직요강」, 군수회사의 현원징용 시행 기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1945년 3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었던 일본은 ‘본토결전’을 선언했다.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하고, 일본 본토에 매일 미군의 공습이 이어지자 조선을 후방이 아니라 일본의 작전 영역에 넣고 전장화시켰다. 조선에 일본군 배치를 급격히 증가시키며 주둔시설과 방어시설을 구축해야 했는데, 이 모든 전장에 필요한 물자를 조선에서 생산, 공급해야 했으므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본은 「국민근로동원령」을 공포했다. 1945년 3월 5일 공포, 3월

10일 일본에서 시행, 4월 1일 조선에서 시행한 「국민근로동원령」은 일본 본토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동원을 이끌어내려는 법령이었다. 기존의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국민징용령, 노무조정령,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여자정신근로령 등 모든 법령은 폐지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서 「국민근로동원령」은 준비단계에서 중지되었다.

한편으로 전쟁터로 장병들이 동원되자 농사지를 인력이 없었다. 식량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2월 16일 농업요원 지정제를 통해 인력 통제와 관리를 시도했다. 농업요원으로 지정되는 자는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 관할선 노무자 선발에서도 제외했지만, 단 2개월 이내의 근로보국대 동원 대상에는 포함했다. 농사를 계속하던 사람으로 농축산물의 생산능력이 있는 남자가 자격 대상으로 하며 1호당 1명만 지정했다. 이들은 밭이나 논을 경작하거나, 과수원, 양·돼지·소 등의 축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조선이 전쟁터가 되면서 징용과 징병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조선을 지켜야 한다면서 고안해낸 것이 국민의용대였다. 일본은 국민의용병역법안을 의회에 통과시키면서 6월에 「국민의용대 조직요강」을 발표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되는 ‘국민개병’의 시작으로 전투대원에 포함되는 대상은 남자 60세, 여자 40세까지였다. 국민의용대는 일본이 패전하면서 시행되지 않았지만, 전쟁의 가장 참혹한 현장까지 갔던 것을 목도하는 법령이었다.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도 동원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945년 2월 조선비행기 공업주식회사에서 「군수회사법」에 따라 현원징용을 개시했다.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은 신규징용과 현원징용으로 나뉘는데, 현원징용이란 현재 근무 직장에서 징용령이 발동되어 동일 직장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1945년도 기사에서는 극한의 상황에서 인적·물적 동원을 시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자가 없다 보니 1945년도 발행 『매일신보』는 글자를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잉크와 종이의 질이 떨어진다. 또한 4면을 겨우 맞추어 발행했고 가독성이 아주 낮을 뿐 아니라 신문기사의 양도 적었다.

『매일신보』의 외형적인 변화만 보아도 당시 물자, 인력의 고갈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쟁의 승리를 보도하며 인적·물적 동원을 독려하고 있었다. 일본은 패전을 기록하지 않았다.

IV. 자료집의 의의와 과제

신문을 통해서 당대를 읽어내는 것이 용이한 일이나 한발 더 나아가면 어려운 일이기도 한다. 『매일신보』를 사료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기사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과 집단의 의도가 투영되어 있어 프로파간다를 통한 선전효과를 얻으려는 노골적인 기사가 많다. 『매일신보』에는 조선 총독부와 매일신보사의 운영 목적이 반영되어 있어 기사 이면의 실제 전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매일신보』는 일본이 각 지역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왜곡 보도를 일삼으며 조선인들의 후방 지원을 강요하는 기사를 계속해서 쏟아냈다. 각종 강제동원 법령 소개와 성공적인 시행을 바란다는 선동, 이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좌담회, 간담회, 각종 격려대회 등을 알리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된다. 한편으로 징용, 징병, 근로보국대 등의 동원을 피하려는 사례가 많으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또한 ‘미담(美談)’ 기사도 한동안 신문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인으로 동원되는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어머니의 담담함을 칭송하거나, 근로보국대로 동원 중 자식의 사망 소식을 접하지만 귀향하지 않고 맡은 일을 다 하고서야 돌아갔다는 기사도 있다. 한편, 군속이나 군인으로 동원된 사람들의 사망 소식도 구체적인 주소와 함께 신문에 게시했다. 명예로운 죽음으로 칭하며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는 영광을 기뻐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사에 유의하여 『매일신보』를 통해 강제동원을 읽어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하나의 신문으로 당시를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일본어

신문인 『경성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부산일보』 등 당대의 신문과 병행해서 살펴본다면 더 깊이 있는 읽기가 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강제동원 관련 연구서와 자료집은 가장 최근의 성과물이다.² 강제동원에 대해 정부의 조사가 시작된 것은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2016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활동을 완료하기까지였다. 위원회는 피해조사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별 조사보고서를 출간하여 공개함으로써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렸다.³ 위원회는 2016년 11년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을 마무리했다.⁴ 정리되지 못한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회고와 의미를 담은 저서를 간행했다.⁵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는 연구사업으로 매년 조사보고서를 간행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유용한 성과물들이다. 마쓰시로대본영건설, 오사카 지역 군수공장, 아소광업, 사할린, 홋카이도 가야누마 탄광, 유해유골 봉환 등을 주제로 한 저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국립강제동원역사관은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운

- 2 2021년 발간된 저서로는 『조선민중이 체험한 ‘징용’』, 『죽어서도 쉬이 못 오는 귀향』, 『일제 말기 여성동원 선전 논리』, 『역사는 길 위에 있다』, 『조선인 노동자 위령비를 찾아서1』, 『전시 노동력 동원 번역자료집(1)』, 『전시 노동력 동원 번역자료집(2)』 등이 있다. 2022년 발간된 대표적인 저서는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과 일본의 제국 운영』,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전시동원 기구와 제도(1)』 등이다. 동북아역사재단 교양총서로는 2019년 간행된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을 주목해야 한다.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다수여서 최근 저작만 소개하면 『함께 쓰는 역사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2020), 『비판적으로 읽는 일본군인 회고록 속 ‘위안부’』(2021),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Ⅳ)』(2023) 등이다.
- 3 조사보고서는 국회도서관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 4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6,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 5 허광무·정혜경·오일환, 2020, 『일제 강제동원 정부가 중단 진상규명-11년의 비판적 회고』, 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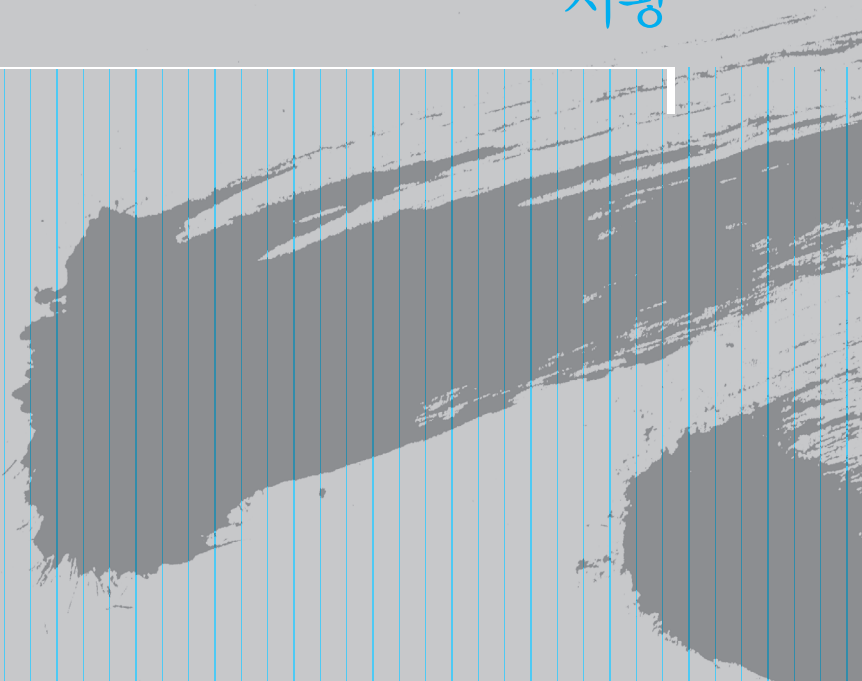
영하고 있다.

강제동원은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유가족들이 다시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제국’ 일본의 영역에 동원된 많은 사람들의 유해와 유골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유족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본 정부가 전후 일방적으로 2만 1,000여 명의 조선인을 합사했다. 해결되지 못한,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에 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현해탄을 건너는 태평양 횡단 비평

— 『냉전의 폐허: 미국의 정의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태평양횡단 비평』(리사 요네야마 저, 김려실 역, 부산

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홍종욱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 I. 리사 요네야마의 작품과 사상
- II. 『냉전의 폐허』의 문제 의식과 주요 내용
- III. 현해탄을 건너는 ‘태평양 횡단’ 비평
- IV. 전쟁 책임과 식민 지배 책임: 번역에 대하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리사 요네야마의 작품과 사상

『냉전의 폐허』는 리사 요네야마의 *Cold War Ruins*(2016)¹를 번역한 책이다. 저자 리사 요네야마(Lisa Yoneyama, 米山リサ)는 1959년에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 일본 교토에서 자랐다. 일본 조치(上智)대학에서 배운 뒤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포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UC샌디에이고에서 가르쳤고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대학 아시아학부 교수이다.

『냉전의 폐허』 부제에는 ‘태평양 횡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네야마의 가족과 교육 배경이야말로 태평양 횡단적이다. 그는 기억의 정치학, 폭력, 정의에 관한 책을 써왔다. 그의 연구는 전쟁과 식민주의, 젠더와 군사주의, 트랜스내셔널리즘, 신식민주의, 핵 그리고 냉전과 포스트 냉전기 미국과 아시아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²

요네야마의 첫 책은 1999년에 나온 *Hiroshima Traces*(일본어판, 『히로시마: 기억의 정치학』)³였다. 이 책은 식민주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 히로시마 원폭을 둘러싼 일본의 기억과 망각의 정치학을 다뤘다. 도시 공간, 원폭 폐허, 생존자 증언, 민족과 식민과 젠더 서사 등을 탐구했는데, 한국인 원폭 위령비에서 촉발되어 민족의 기억과 식민의 기억을 다룬 하나의 장도 포함되었다. 요네야마는 이 책을 피해와 가해라는 이항 대립을 넘어 글로벌한 관점에서 히로시마를

1 Lisa Yoneyama, 2016, *Cold War Ruins: Transpacific Critique of American Justice and Japanese War Crimes*, Duke University Press.

2 토론토대학의 교원 소개 페이지(<https://www.eas.utoronto.ca/people/directories/all-faculty/lisa-yoneyama-%E7%B1%B3%E5%B1%B1-%E3%83%AA%E3%82%B5>)

3 Lisa Yoneyama, 1999, *Hiroshima Traces: Time, Space and the Dialectics of Mem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米山リサ 著, 小沢弘明・小澤祥子・小田島勝浩 訳, 2005, 『広島: 記憶のポリティクス』, 岩波書店.

둘러싼 기억의 계보를 풀어낸 역사 철학이라고 자임했다.⁴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서장
- 제1부 기억의 지도 작성법
 - 제1장 기억 경관의 순치
 - 제2장 폐허의 기억·기억의 폐허
- 제2부 스토리 텔러들
 - 제3장 증언 활동
 - 제4장 기억의 우회로
- 제3부 기억과 위치성
 - 제5장 에스닉한 기억·콜로니얼한 기억: 한국인 원폭 위령비를 둘러싸고
 - 제6장 전후 평화와 기억의 여성화
- 맺음말

요네야마의 두 번째 책은 일본어로 발표된 『폭력·전쟁·리드레스(redress): 다문화주의의 정치학』(2003)⁵이다. 이 책은 일본의 진보적 미디어인 『세카이(世界)』, 『시소(思想)』, 『겐다이시소(現代思想)』 등에 실은 글을 모았다. 주제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폭격기 이놀라 게이(Enola Gay) 전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도쿄에서 열린 여성 국제전범법정, 정의의 미국화와 리드레스(redress) 문제, 9·11 이후 벌어진 폭력과 전쟁 등을 포함했다. 요네야마는 다문화주의에 잠재한 폭력성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4 일본어판 출판사인 이와나미쇼텐의 책 소개 페이지(<https://www.iwanami.co.jp/book/b261345.html>)

5 米山リサ, 2003, 『暴力・戦争・リドレス: 多文化主義のポリティクス』, 岩波書店.

머리말

제1부 지(知)의 정치성을 묻는다

제1장 ‘비판적 다문화주의’라는 사고방식

제2장 변혁적 지를 위하여: 타자성의 학(學)으로서의 문화연구

제2부 트랜스 내셔널리티와 문화연구의 가능성

제3장 기억과 역사를 둘러싼 다툼: 스미스소니언 원폭 전시와 문화전쟁

제4장 비판적 페미니즘 계보와 여성 국제전범법정

제5장 떠도는 기억·감염되는 정의: 세계 정의의 미국화와 리드레스

맺음말: 포스트 냉전의 종결과 9·11 이후

이 밖에도 요네야마는 여러 공저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왔지만, 여기서 다룰 *Cold War Ruins*(2016)는 단독 저서로는 그의 세 번째 책이다. 요네야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식민주의와 냉전, 특히 역사 인식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놓고 태평양 횡단적 비평을 꾀해왔지만,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주목해왔다. 그의 연구는 한국에도 많은 독자가 있고 스스로 한국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그의 글은 제한적이었다.⁶ 이번에 그의 최신작이자 대표작⁷이라 할 *Cold War Ruins*가 『냉전의 폐허』(2023)로 번역됨으로써, 한국의 학계는 물론 역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사회 운동에도 큰 자극이 되리라 기대한다.

2022년 요네야마는 일본의 한국사 연구자인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와 함께 램지어 논문을 비판하는 대담을 가졌다.⁸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 램지어(John

6 요네야마 리사, 2007, 「오락·유머·근대: ‘모던 만자이’의 웃음과 폭력」, 요시미 순야 외 저, 연구공간 수유+너머 역, 『확장하는 모더니티: 1920~30년대 근대 일본의 문화사』, 소명출판; 리사 요네야마, 2016, 「국민사와 냉전: 범아시아적, 범태평양적 비평으로」, 『아시아리뷰』 11.

7 이 책은 2018년에 Association for Asian American Studies에서 Best Book Award in Humanities and Cultural Studies를 수상했다.

Mark Ramseyer)는 2021년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발표해 물의를 빚었다. 요네야마는 미국과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공진(共振)’하는 모습을 지적했다. 역사 인식에 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적 논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II. 『냉전의 폐허』의 문제 의식과 주요 내용

이 책은 “1990년대 초부터 역사적 정의에 대해 유례없는 강도와 범위의 새로운 요청이 목격되고 있다.”(20)는 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포스트 1990년대 전후 보상(redress) 문화’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집행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총체적 부실을 조명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한다. 저자는 서문과 서장에서 이 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밝혔는데, 이를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역사적 정의를 위한 기획은 탈식민화의 장기 지속 속에 놓여야 한다.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식민지 노동력과 플랜테이션은 인간의 보편적 자유에 대한 유럽 철학을 가능케 한 조건이었다. 탈식민화가 이러한 비대칭을 시정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이라면 역사적 정의는 특히 ‘보편적 인권 담론의 지적 폭력’(42)에 유의해야 한다.

전후 보상 자체도 장기지속적이다. 탈식민화된 정의로운 세계를 향한 급진적 열망을 배제해버리고 냉전이 형성되었고, 1990년대 포스트 냉전 아래 희생자와 생존자를 위한 역사적 정의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접두사 ‘포스트’는 그것이 언급하는 조건이 수정되거나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을 의미

-
- 8 米山リサ·板垣竜太, 2022a, 「対談 共振する日米の歴史修正主義：ラムザイヤー論文という事件(上)「被害者有責論」の生産・流通構造」, 『世界』 952; 米山リサ·板垣竜太, 2022b, 「対談 共振する日米の歴史修正主義：ラムザイヤー論文という事件(下)リベラリズムの陥穽を超えて」, 『世界』 953.

한다.

한국 사례도 언급한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 배상과는 다른 식민 지배에 대한 특별한 국가배상을 일본에 요구했다. 자기 식민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영국은 식민지 원상회복 배상이 쟁점화되는 것을 막았다. 미국과 그 동맹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식민지, 신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 배상으로 식민지 보상을 덮어버렸다.

둘째, 미국과 일본이 얽혀 있는 태평양 횡단적인 역사적 폭력을 직시해야 한다. 저자는 탈식민과 ‘전후 보상’이라는 문제를 미일 관계라는 구체적인 조건에서 살핀다. 과도기 정의의 첫 국면은 미일 두 제국 사이의 복잡한 역사적 폭력을 은폐했다. 아시아학, 미국학, 아시아계 미국학 등 태평양 횡단적 지식과 권력이 유착한 결과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이 인종 및 식민주의 문제에 미칠 영향에 주의했다. 1938년에 노벨상을 받은 작가 펄 벅은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차별 때문에 일본에 대한 선전 전쟁에서 미국이 지고 있다고 우려했다(56). 그렇지만 전후 미국의 냉전 연구는 일본의 반식민주의, 반인종주의 담론을 은폐했다. 아시아에 근대성을 가져다주었다는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무의식이 작동한 결과였다. 진주만 기습공격 서사는 하와이가 미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편리하게 지운다.

셋째, 정의의 사법화를 넘어 정의의 재정치가 필요하다. 저자는 ‘도구화된 정의의 곤경’(43)을 고발한다. 전후 보상 문화의 주체는 합법적인 말하는 주체로 취급받기 위해 먼저 이용 가능한 사법, 입법, 기타 과정에 그 자신을 종속시켜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을 헤게모니적 질서로 도구화하고 동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정의의 나머지 부분도 노출된다. 정의의 사법화는 보편 인권 담론의 비대칭성, 그리고 실제로 미국 법정으로 몰려드는 전후 보상의 요구라는 점에서 정의의 미국화이기도 하다.

사법화된 정의는 배상 불가능의 영속 체제를 낳는다. 펠드먼이 말한 “인종, 젠더, 성, 민족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폭력의 장기지속”(49)이다. 과도기 정의는

한 사회가 일단 자유주의적 조직과 형식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과도기가 아니라고 전제한다. 포스트 1990년대 전후 보상 문화는 폭력과 폭력 이후의 경계선을 넘는 재정치화 과정이다.

이 책은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장 태평양 횡단적 냉전의 형성과 전후 보상의 (불)가능성

제1부 점령 공간

제1장 경계적 정의: 오키나와

제2장 포위된 해방: 일본 여성

제2부 초국적 기억의 경계들

제3장 주권, 사죄, 용서: 수정주의

제4장 퍼져나가는 정의: 아시아계/미국

제5장 공모된 망각: 변혁 가능한 지식을 위하여

에필로그

제1장은 「경계적 정의: 오키나와」이다. 2009년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을 누르고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뤘다. 그러나 이듬해 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냉전체제 붕괴를 두려워하는 도교와 워싱턴의 초국적 세력이 정치 공작을 벌인 결과였다고 평가된다. 오키나와는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점령된, 폭력 이후 세계에 남겨진 폭력 공간이었다.

2010년 6월 하토야마 뒤를 이어 총리에 오른 민주당의 간 나오토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소설 류큐처분』(1968)을 언급했다.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가 쓴 이 소설은 근대 일본이라는 식민지 제국이 출현하여 류큐 왕국을 합병한 19세기 말을 다뤘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화제가 된 상황에서 같은 곳에 대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언급한 것은 명백히 미국의 오키나와 처리에 드러나는 식민주의를 환기하려는 의도였다.

『냉전의 폐허』 제1장에서는 오시로 다쓰히로의 소설 『칵테일 파티』(1967)를 다룬다. 일본에서 명망 있는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소설에는 네 명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한다. 중국 본토에서 일본군으로 싸운 경험을 가진 오키나와인 주인공, 미군 방첩대원 밀러, 일본 본토에서 온 기자 오가와, 중국 본토가 공산화한 뒤 탈출한 쑤이다. 미군 점령하의 오키나와라는 복잡한 시공간을 상징하는 인물 구성이다.

소설은 일본과 미국 모두 제국으로서의 군사 확장, 영토 합병, 식민화라는 유사한 19세기 중반의 역사를 거쳐 근대화되었다는 인식 위에 선다. 그리고 해방이 미국의 침략의 일부인 것처럼, 오키나와의 근대화가 일본의 식민화에 필수 부분이었다는 점이 형상화된다. 폭력의 원점인 미군 기지 안에서 벌어지는 칵테일 파티는 이러한 식민지 근대를 상징한다.

딸이 미군에게 강간당하는 비극을 경험한 주인공은 “결국 내가 규탄하는 것은 미국인의 범죄만이 아니라 칵테일 파티 그 자체”라고 외친다. 식민지의 명과 암 모두, 즉 식민지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소설은 주인공의 입을 빌려 오키나와의 군사-식민 지배를 지탱하는 생명 정치적 공모와 망각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냉전의 폐허』는 오키나와어로 “생명이야말로 보물”이라는 유명한 반전 슬로건을 통해 사법-정치 범주를 넘어선 “인간 그 자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143).

제2장은 「포위된 해방: 일본 여성」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사악한 과거의 적인 일본을 성공적으로 회복시켰다는 점령 이미지를 통하여, 미국의 정의에 바탕한 냉전적 합의를 만들어냈다. 그러한 이미지의 중심에는 일본 여성에 대한 해방이 있었다. 1990년대 이라크 점령 당시 미국은 젠더 정의와 여성 문제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 여성이 이라크의 모델이라고 선전했다.

실제로 일본 점령기에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는 여성 참정권을 5대 개혁의 첫머리에 올려두었다. 점령군은 일본 여성의 참정권과 총선거에서 여성의 가시성을 점령 아래 삶의 총체적 향상을 측정하는 지표로 간주했다. 저자는 전시기교전국에서 전후 비군사화된 평화 국가로 일본의 국가조직 변화를 여성화 과정

으로 평가했다.

저자는 미국의 젠더 정의를 ‘냉전 페미니즘’(152)이라고 규정한다. 냉전 페미니즘은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반면, 양성평등과 자율성 등에 가치를 둔다. 점령한 일본 여성 참정권의 과잉 가시성은 과거 식민지 출신자의 시민권에 대한 박탈의 비가시성을 대가로 한 것이었다. 또한 냉전 페미니즘은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희생자를 인지하는 데도 실패했다.

제3장 「주권, 사회, 용서: 수정주의」는 일본의 수정주의를 새역모(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논리, NHK의 방송 프로그램 조작, 헌법 9조에 대한 공격 등 세 가지 국면에서 살폈다. 저자는 일본의 수정주의를 전후 미일 관계에서 속국의 지위에 놓인 일본의 정치적 무의식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담론으로 간주한다. 태평양 횡단 전선에서 냉전 종식이 임박했다는 불안감도 수정주의 발흥에 기여했다.

새역모가 비판한 ‘자학 사관’은 2014년에는 자민당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서 공식적으로 정강에 포함되기에 이른다. 새역모의 지도자인 니시오 간지(西尾幹二)는 2005년에 「역사와 민족에 대한 책임: 남녀 공동 참여와 종군위안부에 공통되는 병」이라는 글을 발표한다. 니시오는 가부장적 민족주의를 지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국영기업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폐지를 촉진하는 국가정책을 병리로 간주했다.

공영방송국 NHK는 2001년에 <전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20세기 말에 나타난 역사적 정의를 위한 새로운 국제 법규의 고찰을 목표로 하는 3부작이었다. 저자 요네야마는 제2편과 제3편의 스튜디오 해설자로 출연했다. 제2편은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도를 심판한 ‘여성 국제전범법정’을 다뤘다. 그런데 보수파의 개입으로 방송 직전에 여성 법정의 생생한 사실을 지우는 개찬이 일어났다. 전후 중국에 억류된 일본군이 학살, 강간 등을 참회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었지만 역시 수정되었다. 자민당 등의 압력에 굴복한 일본 근대 언론의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없는 검열이었다.

1999년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일본의 공식 국기와 국가로 인정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어 ‘보통 국가’를 향한 수정주의자의 욕망은 일본의 평화 헌법, 특히 전쟁을 금지하는 제9조에 대한 공격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카이 나오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헌법 제9조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을 재무장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자는 일본의 정상화를 추구하기보다 미국의 냉전과 포스트 냉전 기지 제국을 비판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4장은 「퍼져나가는 정의: 아시아계/미국」이다. 미국에서는 1965년 「이민 및 국적법」에서 민족과 인종 쿼터를 폐지한 이후 아시아계 이민-시민-주체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대의정치에서 그들의 중요성이 커졌다. 1999년 캘리포니아주는 제2차 세계대전 노예노동의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나치 정권’만이 아니라 ‘그 동맹국 및 동조자’까지로 확대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희생자들이 구제 대상이 되었다(248).

캘리포니아주의 새 법이 효력을 지녔던 동안 아시아계 이민이 중심이 되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많은 소송과 입법 조치가 미국에서 벌어졌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에 대한 기억과 역사적 정의의 미국화라는 새 국면이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은 미국인 전쟁 피해자의 익숙한 이미지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범주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주류 언론의 보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법 개정이 바로잡으려 한 식민주의, 인종주의, 제국주의로 뒤엉킨 역사, 역사적 정의의 첫 실패를 다시금 모호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미국의 담론은 국가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바탕한 근대성, 자유주의, 식민주의로 이루어져 있다. 아시아계/미국인은 필연적으로 정의의 미국화를 비판하고 급진적 정치화를 주장하는 역할을 맡았다. 미국의 법정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소송을 “재판에 회부할 수 없는 정치적 질문”으로 만들었다(262). 아울러 이 책은 2013년 한국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본 기업에게 미지급 임금과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역사적 평결로 평가했다.

제5장은 「공모된 망각: 변혁 가능한 지식을 위하여」이다. 미국 스미스소니

엔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1994년에서 1995년에 걸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을 기념하여 히로시마 원폭에 사용되었던 폭격기 이놀라 게이(Enola Gay) 전시를 준비했다. 그러나 원자폭탄 사용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 정치지도자, 학자, 군대 지휘관들 사이에 있었던 토론의 세부사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물질적 피해와 인명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 뒤이은 원자 시대의 발전과 핵무기 확산에 관한 고찰 등이 삭제되었다. 승리를 기념하는 데 방해되는 역사가 가려진 것이다.

원폭 투하가 미국인만이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 국민의 생명을 구했다는 설명은 국가폭력을 정당화한다. 반면 히로시마 지상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은 ‘일본인’의 관점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스미스소니언 논쟁은 역사 인식의 차이가 반드시 국가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드러냈다. 미국의 보수파는 친미 냉전 정권을 적대시해 일본의 진보주의자처럼 일본의 전쟁이 아시아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침략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의 초국적 뒤틀림’(286)이 일어난 것이다.

스미스소니언 논쟁은 국가에 의해 공통적·객관적으로 공유되는 공공역사와 기억의 생산이 가능한가라는 의문도 던졌다. 애국적 장소에 대한 수정주의자의 침입을 비판하는 미국 보수파는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역사에 대한 현재주의적 관점을 비판했다. 유럽사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공화당 소속의 보수파 정치인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는 “이놀라 게이 투쟁은 사실상 일부 문화 엘리트가 미국인은 그들의 역사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인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거듭 단언한 것을 두고 벌어진 투쟁”(311)이라고 정리했다. 일본 보수파의 자학 사관 비판을 연상시킨다.

Ⅲ. 현해탄을 건너는 ‘태평양 횡단’ 비평

여기서는 이 책의 문제의식에 의해 촉발된 생각의 단편을 몇 가지 적어 보겠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초점을 맞춘 ‘태평양 횡단’ 비평이 현해탄을 건널 때, 즉 두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공모가 탈식민 국가로 넘어올 때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이 책을 읽을 한국 독자를 위한 사고의 능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포스트 1990년대가 지닌 태평양 횡단적 동시대성이다. 한국에서 친일 행위 청산이나 강제 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늘 마주치는 비판이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이고 식민 통치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타령이냐는 소리이다. 이러한 비판에 마주친다면 실은 이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문제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1993년 8월 반민족문제연구소(현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친일파 청산’ 관련 심포지엄에서 사회를 맡은 박찬승은 “이러한 성격의 토론회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몇 년 전만 해도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⁹라고 말했다. 냉전체제 아래 억눌렸던 탈식민 과제가 탈냉전, 민주화 이후 비로소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냉전의 폐허』에서는 1990년대 미국과 일본에서 새롭게 분출한 역사적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에 주목한다. 그리고 ‘포스트 1990년대 전후 보상 문화’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냉전 의식 속에 집행된 과도기 정의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설명한다. 1990년대 시작되어 21세기 들어 본격화한 한국 사회의 탈식민 노력 역시 세계적인 탈냉전과 어우러진 태평양 횡단적 동시대성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탈식민 흐름에 대한 일종의 백래시도 거세다. 학계로만 한정하더라도 탈냉전, 민주화 이후 자리 잡은 역사 인식을 좌파 민족주의로 비판하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2006)이 있었고, 한국 민족주의를 전근대적

9 박찬승 외, 1993, 「8·15 기념 학술토론회: 한국현대사와 친일파 청산문제」, 『계간 반민족문제연구』 겨울호.

이고 야만적인 종족주의로 비난하는 『반일 종족주의』(2019)도 나왔다. 『냉전의 폐허』는 1990년대 전후 보상 노력과 역사 수정주의를 태평양 횡단 냉전 질서의 노모스에 비롯된 같은 역사적 궤적의 양면으로 파악했다(227). 21세기 한국 사회의 탈식민, 탈냉전을 둘러싼 갈등을 이해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반공에 더해 반페미니즘이 한일 보수 동맹의 새로운 깃발이 되었다. 이 책에서는 새역모 지도자 니시오 간지에게서 낡은 냉전 의식과 고리타분한 반페미니즘의 결합을 본다. 그리고 일본 수정주의에서 “남성성은 핵심 개념이자 모순되고 궁지에 몰린 기표”(191)라고 파악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나라(奈良) 시내에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충에 맞아 사망했다. 범인은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관계가 깊어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본 보수 정치가 통일교라는 한국의 한 측면과 깊이 연관된 사실을 일본 사회도 한국 사회도 새삼스레 깨닫고 놀랐다.

통일교는 국제승공연합이라는 외곽단체를 통해 일본 보수 정치와 깊은 유대를 맺어왔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교가 과거 국제승공연합을 앞세웠다면 지금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가정의 가치를 중시하여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부정적이다.

통일교가 한국 사회에서 가진 존재감과 별도로 일본의 한국 표상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20세기 진보의 깃발이 사회주의였다면 21세기의 그것은 페미니즘이 아닐까. 통일교라는 기묘한 고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냉전 세력이 예전 반공으로 뭉쳤다면 지금은 반페미니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셋째, 한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탈식민 국가이다. 일본 여성의 ‘해방’을 내건 미국의 성공적인 일본 점령 이미지는 냉전적 합의 형성을 도왔다. 미국의 후원 아래 한국이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 역시 국제 냉전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의

10 홍종욱, 2022, 「일본을 만든 것은 한국이다」, 『일본비평』 27.

위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반면 한국과 같은 민족이면서 미국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북한이 처한 곤경은 한미일 진영의 성공 신화를 부각하기 위한 음화로 작용한다. 냉전 시대 태평양 횡단적 공모는 쉽게 현해탄을 건너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상대방의 제국주의 폭력을 서로 감추어주는 관계라면, 한국은 식민 통치를 경험하고 탈식민을 지향하는 국가이다. 포스트 1990년대 ‘전후 보상’ 문화의 대두는 공통되지만, 한국은 예컨대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가 내건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 알 수 있듯이 때로는 정부가 탈식민 과제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책에서는 2013년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미지급 임금과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한 역사적 판결을 언급했다. 나아가 역주에서 언급했듯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판결했다. 이럴 때 보면 한국은 북한과도 이미지가 겹치는 어쩔 수 없는 탈식민 국가이다.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횡단적 공모는 38선이 아니라 현해탄에서 멈추고 만다.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탈식민의 향방을 둘러싼 고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초국적 사상과 운동의 정치적 뒤틀림이 지닌 의미를 깊이 따져봐야 한다. 이 책은 미국의 보수파와 일본의 진보파가 비슷한 인식을 보이는 초국적인 정치적 뒤틀림을 지적한다. 이러한 뒤틀림은 물론 한일 관계에도 존재한다. 한국 반공 보수 정권의 탈식민 지향이 일본의 혁신 세력의 주장과 연동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조금 다른 측면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일본 여성의 ‘해방’을 내건 미국의 논리를 ‘냉전 페미니즘’이라고 경계한다. 다만 냉전이라는 접두사를 붙인다고 해서 미국 발 페미니즘이 일본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책은 보편 인권 담론의 비대칭성을 지적하고 사법화된 정의가 배상 불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보편 담론에 기댈으로써 피해자는 주체로 설 수 있고, 법정 투쟁을 통해 피해자는 가시성을 확보한다.

21세기 한국에서 쿠퍼 수용성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쿠퍼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낼 때 미국 대사관에는 무지개 깃발이 펄럭인다. 한국의 친미 보수 세력을 실망시키는 미국 대사관의 진보적 태도에 대해 미국 사회의 보수 세력은 어떤 입장일까. 초국적 뒤틀림의 구조도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자본의 문명화 작용은 혹시 자본 스스로를 자본답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IV. 전쟁 책임과 식민 지배 책임: 번역에 대하여

리사 요네야마의 단독 저서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처음이다. 기억과 언어를 다루는 내용을 다시 다른 언어와 기억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산대학교 냉전문화 연구팀의 일련의 성과와 번역자 김려실 님의 지난했을 작업에 경의를 표한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어로 된 지식에 풍성함을 더해주었다.

여기서는 번역에 대해 한두 가지 의견과 감상을 덧붙임으로써 요네야마의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의 핵심어인 ‘포스트 1990년대 전후보상 문화’라는 표현이 조금 걸린다. ‘전후보상’은 ‘redress’의 번역이다. 요네야마가 생각하는 ‘redress’, 즉 역사적 정의의 핵심은 탈식민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전후보상’이라는 말로 표현됨으로써 전쟁 책임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 쪽으로 끌려가는 감이 있다.

전쟁 책임과 구분되는 식민 지배 책임을 어떻게 역사적 정의로서, 나아가 국제법으로서 입증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요네야마는 이타가키의 연구를 빌려 전쟁 배상이 식민 지배 보상을 가려버린 역사를 비판한다(72). 다만 이 부분 번역에서 ‘eclipse’를 ‘가리다’, ‘대체하다’가 아니라 ‘겹쳐지다’로 옮긴 것도 모호한 이해를 낳는 데 일조한 듯하다.

‘redress’는 시정 혹은 회복이라고 옮기는 것이 저자가 생각하는 뜻에 가깝다고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을 통한 시정, 회복의

뜻을 담아야 했다면, 전쟁 책임과 더불어 식민 지배 책임까지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냥 ‘보상’ 혹은 ‘보상 운동’이라는 단어를 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원문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채 덧붙이는 의견이다. 실제 표현을 바꾸고 말고를 떠나 요네야마가 쓰는 ‘redress’라는 개념을 통해 전쟁 책임과 구분되는 식민 지배 책임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한다.

그 밖에 단순한 오류도 몇몇 눈에 띈다.¹¹ 그러나 이 모두는 지난한 번역 작업에서 피하기 어려운 난점이며 번역에 바쳐진 수고에 비하면 대수로운 것은 아니다.

11 ‘15년 전쟁’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에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등 일본 연구자가 제기한 것이므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25쪽). 원문의 ‘interim governmen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하지만 1948년에 세워진 이승만 정부를 ‘임시 정부’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71). ‘아시아 인민재판’, ‘국제인민법정’ 등에서 ‘인민’은 ‘민중’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75). 오시로 다쓰히로의 소설 『각테일 파티』가 발표된 것은 1969년이 아니라 1967년이다(94). 간 나오토 총리는 자민당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다(95).

오보가 만들어낸 대학살, 사라지지 않는 오보

— 『관동대지진, 학살 부정의 진상』(와타나베 노부유키 저,
이규수 옮김, 삼인, 2023)

조현제 | 專修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 역사학석사 졸업

- I. 머리말
- II. 본서의 구성과 내용
- II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관동대지진이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경, 요코하마에 있는 사가미만을 진원지로 하여 매그니튜드 7.9의 강진이 일어나 관동 일대의 여러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강진이 끝나고 나서도 여진이 계속 발생하여 추가로 피해를 주었고 건물 붕괴와 함께 대부분 목조로 되어 있던 일본 가옥 등은 금방 불에 타버려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 불꽃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다른 장소에까지 연쇄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관동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동시에 상상치도 못한 ‘인재(人災)’에 의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재해에 의한 혼란 속에서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에 관한 ‘유언비어’가 퍼지며, 이에 휩쓸린 일본인들이 수많은 조선인,¹ 중국인,² 일본인³을 살해하였다.

조선인 학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 유언비어는 일본 내의 언론보도에 의해

- 1 학살당한 조선인 수에 대해서는 조사기관 및 연구자에 따라 그 수가 상이하게 다르다. 당시 상하이에 있던 독립신문사는 6,661명이 학살되었다고 보도하였으며 일본 사법성은 233명, 조선총독부는 832명, 일본의 우익단체 흑룡회(黑龍會)는 722명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동대지진 연구로 저명한 강덕상은 한세복이 조사한 6,000여 명의 피해자 수가 실제 수에 상당히 가까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으며(강덕상, 2005,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독일 외무부 자료 「MASSACRE OF KOREANS IN JAPAN」에는 2만 3,058명, 북한 학계에서는 1980년 이후 2만 3,000여 명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선인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으나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본서에서는 한일학회 등에서 많이 통용되는 6,000여 명을 기재하였다.
- 2 700여 명이 살해되었다. 중국의 경우 당시에 조선과 달리 중국 정부가 존재하였기에 정부 및 중국인 노동자공제회 등의 피해자 조사를 통해, 한국에 비해 보다 정확한 피해자 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많은 유족도 찾을 수 있었다.
- 3 일본인의 경우는 조선인으로 오인을 받은 일본인, 사회주의자(甘粕事件, 亀戸事件, 福田・田中村事件 등) 등이 살해당했다.

여러 지역의 더 많은 일본인에게 정보가 퍼져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불과 일주일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 수천 명의 조선인이 민간인, 경찰, 군대에 의해 보이는 족족 살해를 당하였다. 이처럼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내보낸 기사에 의해 근현대사상 보기 드물고, 생각지도 못한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또한 학살 사건 이후 조선인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국에 있는 유족들도 자기 가족이 살해당한 사실도 모른 채 그저 행방불명되었거니 생각하며 지내왔다. 더욱 아쉬운 점은 국내의 관련 연구나 진상규명 활동이 일본보다 적다는 것이다.

필자도 학살희생자 신상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확실한 희생자 수 및 신상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며 유족들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어렵게 찾은 소수의 유족이 힘겹게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낮은 관심도와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진상규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과 국내 등지에서 ‘유언비어 속의 조선인 범죄는 실제로 있었다’, ‘학살 사건에 일본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 ‘조선인 학살은 정당방위였다’, ‘조선인 피해자 수가 부풀려졌다’ 등의 ‘학살 부정론’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또한 학살 부정론을 들며 계속해서 보내오던 추도사를 거부하고 있다. 부정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부정확함에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관동대지진 연구에 아직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군대, 경찰, 민간인에 의해서 죄 없는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한 사건은 여러 연구, 증언, 사료를 통해서 확실히 입증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서의 저자 와타나베 노부유키(渡辺延志, 이하 저자라고 함)는 40여 년간 『아사히신문』의 기자이자 한일 역사 관련 조사, 취재 등의 활동을 해온 언론인으로서, 2013년에 관동대지진 취재를 시작으로 조선인 학살 사건에 의문을 가지고 오랜 기간 이 사건을 조사해왔다. 그러던 도중 위안부 논문으로 논란이 된

오보가 만들어진 대학살, 사라지지 않는 오보

—『관동대지진 학살 부정의 진상(와타나베 노부유키 저, 이규수 옮김, 삼인, 2023) | 451

마크 램지어 교수⁴가 경찰 민영화와 관동대지진 관련 논문⁵을 썼는데 그중에 학살 부정론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해당 논문에 의문을 느낀 저자는 이에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통해 램지어의 논거를 반박하는 글을 쓰게 되었다. 본서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중 일본 언론에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머리말 및 맺음말 등을 제외한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램지어 교수의 논문 읽기

- 1 치안이라는 정상재正常財
- 2 조선인 범죄의 검토
- 3 전후 일본의 경비 산업

제2장 논거 자료를 확인하다

- 1 범죄가 없었다는 자료
- 2 램지어 교수의 논거 자료

제3장 논거가 된 신문 기사를 읽다

- 1 조선인 폭도 보도
- 2 우스이 고개의 폭탄 테러 계획

제4장 10월 20일 전후의 신문기사

- 1 조선인과 관련된 보도 해금

4 위안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이외에도 일본 내 부락민, 4.3사건 등의 발언과 논문도 논란이 되어 여러 학자의 검증 대상이 되었다.

5 J. Mak Ramseyer, 2019.6, *PRIVATIZING POLICE: JAPANESE POLICE, THE KOREAN MASSACRE, AND PRIVATE SECURITY FIRMS*,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2 시민의 반응

3 정부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허위 보도

제5장 도쿄대학 신문연구소의 연구

1 전후의 연구

2 인용된 〈가호쿠신보〉 기사

3 보도가 늘어난 이유

제6장 학살은 왜 일어났을까?

1 학살의 실상

2 귀환병들의 경험

부록으로 관동대지진 관련 사진 자료 87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국내에 출판된 다른 서적과 비교해봐도 많은 자료이며, 부록 이외에 본서에 수록된 사진 자료까지 합하면 90여 장이 넘는다. 부록에 수록된 사진 자료에는 관동 일대 피해 지역의 사진, 군, 경찰, 자경단 관련 사진, 학살을 당한 조선인의 사진,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조선인의 사진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의 참상에 대해서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다.

필자 또한 한일 언론사, 통신사, 통신 기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자로서 이 책이 번역된 것이 기뻐으며, 언론인의 시각에서 당시 언론을 둘러싼 문제점, 언론사의 상황에 따른 기사 내용과 보도에 대한 설명 및 분석 등을 보는 것도 재미 있는 부분이었다.

II. 본서의 구성과 내용

이 장에서는 본서의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성과, 의문점 및 보충 설명을 하고

자 한다. 본론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서 제1장은 램지어의 논문
에 대한 설명이고, 제2, 3, 4, 5장은 램지어가 제시한 논거 반박 및 신문 기사
분석에 대한 내용이며, 제6장은 학살 사건에 대한 고찰에 관해서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본서를 내용별로 나누어서 하기와 같이 서술하고자 한다.

1. 램지어 교수의 논문 읽기

제1장은 램지어의 논문을 번역해놓은 부분이다. 논문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
면 「경찰 민영화: 일본의 경찰, 조선인 학살, 그리고 민간 경비 업체들」이다. 해
당 논문은 민영화를 주제로 한 책에 수록되었다. 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
면, 공공 치안은 규모의 경제⁶를 동반한 비배제성⁷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인 경우가 많으며, 정상재(正常財, Normal Good)⁸이기도 하다. 기능부전
(機能不全)의 사회에서는 정권 및 치안 기관이 치안 장치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
해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기능부전의 사회에서는 치안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
인 치안(민간 경비)을 구입한다. 이러한 원칙을 ‘일본의 근대적 경찰 조직의 발
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전후 민간 경비 업체의 발전’이라는 사례
를 통해 설명한다고 적혀 있다.

우선 I. Public Goods(공공재)에서 II. Protection and Predation(보호와 약
탈)의 B. Dysfunctional Government(기능부전의 정부)까지의 내용을 살펴보
면, 공공치안과 공공재, 메이지 유신 이후 군대 및 경찰 창설의 역사, 일본 및 해
외의 민간 경비 산업 등에 대해 적혀 있다. 해당 파트의 요지는 상기에 설명한
논문 요지를 참조해도 좋을 것이다.

관동대지진에 관한 부분은 II의 C. 1920s Japan(1920년대의 일본)에 서술

6 투입 규모 및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주는 현상.

7 공공재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것.

8 불변의 조건에서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는 재화.

되어 있다. 해당 파트에는 자경단이 결성된 원인, 조선인 범죄에 대한 유무, 조선인 희생자 수에 대한 의문점, 조선인 학살이 발생하게 된 정치,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해 적혀 있는데 해당 파트의 내용과 의문점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해보겠다.

전통적으로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결속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지진에 의해 기능부전에 빠진 사회에서 민간 집단이 결성되었다고 한다. 그중 “조선인이 많이 살던 지역에서 유난히 일본인 희생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사망자 수가 제일 많았던 가나가와현이나 도쿄의 경우 직접적인 지진 피해가 심해 자연재해에 의한 화재, 건물 등의 파괴에 의한 피해도 심했으며, 일본인 수나 조선인 수가 비슷했던 지바현과 사이타마현의 경우 지바의 재해 피해가 더 컸고 그만큼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⁹ “당초 경찰은 조선인을 조심하라고 주민들에게 경고했다”고만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에 경찰이 자경단에게 무기를 주며 조선인 학살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역사가들은 조선인 범죄를 기정사실로 다루지 않는다고 의문점을 제시하며 ‘인구통계학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으로 나누어 조선인 범죄는 있었다고 설명한다. 인구통계학적으로는 ‘1923년 당시 재일조선인 중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 ‘젊은 남성은 전 세계 어디서나 범죄율이 높은 집단이며 젊은 조선인은 일본에서 범죄율이 높은 집단’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여러모로 의문점이 생기는 근거이다. 간단히 말해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는 법학자로서 타당한 논거인지 의문이 든다.

정치적 상황에서는 지진 전부터 반일 조선인 무장파는 대부분 테러리스트나 파괴 활동을 하였고 대부분 한반도에서 이루어졌으나 한반도가 아닌 지역도 있었다. 박열 검거 사건, 지진 후 일본인 아나키스트의 히로히토 암살미수 사건(난

9 『第四十二回 日本帝國統計年鑑』, 統計局, 1924; 田村紀之, 2011.3, 「植民地期の内地在住朝鮮人世帯と常住人口」, 『國際政經論集』 第17号; 中央防災會議, 2006.7, 『1923關東大震災報告書 第1編』, 中央防災會議災害教訓の繼承に関する専門調査會 등을 참조.

바 다이스케 사건)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조선인의 범죄를 사실로 하려고 한 측의 조선인 무장단체나 조선인들에게 폭동을 일으키게 시킨 일본인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는가? 1923년에 일본에 있었던 조선인 무장단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는가?

집계된 조선인 범죄의 수가 적은 것에 대해 경찰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범죄가 추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본인의 범죄가 더 많이 집계된 이유, 현재까지 일본인 범죄에 대한 증언은 많은 데 비해 조선인 범죄에 대한 증언은 없는 이유, 결국 조선인 폭동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과 조선인 폭동을 규명할 수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문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¹⁰

본서에는 조선인 범죄 및 자경단의 학살이 잔학하게 보도된 이유가 일본의 선정주의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 사진 자료나 증언¹¹을 봐도 그 잔학성은 입증된 사실이다. 램지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적힌 부분이 많다.

추신에서는 전후에도 좌파 재일조선인이 단체를 결성하고 일본공산당, 북한 등의 힘을 얻어 일본 내에서 여러 폭력 사건을 일으켰다고 서술한다.

III. Security as a Normal Good(정상재로서의 치안)에서는 일본 민간 경비업체의 현황과 미소라 히바리(美空ひばり), 이이지마 이사무(飯島勇)¹²의 사례를 들며 범죄 단체가 민간 경비업을 한 사례 등에 관해서 서술하였다.

결론을 간략히 보면 치안 유지의 수요는 소득 수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에 따라 미국처럼 시민이 직접 관여해 치안 수준을 결정하고, ‘일본처럼 결과적으로 생기는 불평등을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중앙 집

10 이에 대한 근거는 하기의 (2) 저자의 논문 분석 및 비판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11 본서의 부록에 수록된 사진 자료나 니시자키 마사오의 증언집 『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記録－東京地区別1100の証言』(現代書館, 2016.9.) 외 다수의 사진 및 증언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2 본서에는 사메지마 이사무(鮫島勇)라고 적혀 있는데 오타인 것 같다. 본서와 논문을 보면 이이지마에 대한 내용이다.

권적인 경찰 활동을 벌이는 곳도 있다’. 어느 나라든 부유한 시민들은 시장에서 구입한 민간 서비스로 공적인 치안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결론 안에는 관동대지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일본 치안에 대해서는 상기의 내용 뿐이다. 방대한 관동대지진에 대한 언급에 비해서 결론은 너무 짧다. 해당 논문의 본론은 총 1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관동대지진에 관한 부분은 9페이지 반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램지어의 논문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민간 경비 산업의 발달과 논문에서 서술한 관동대지진 관련 논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본서에 해당 논문을 적으면서 동시에 제시한 언론 자료 이외의 관동대지진 사례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자세한 설명이나 생각이라도 적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 저자의 논문 분석 및 비판

램지어는 조선인 범죄가 없었다는 점, 학살당한 조선인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에 의문을 제시하며, 학살은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주장한다. 우선 램지어가 제시한 공문서 자료를 살펴보겠다.

조선인 범죄가 있었다는 이유로 『현대사 자료 6 관동대지진과 조선인』(이하 『현대사 자료 6』이라 함)¹³에 수록된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문서를 제시한다. 그 내용은 ① ‘조선인 좌파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말하며, 상해에서 그들은 지진 재해를 기뻐했다. 조선총독부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 함’,¹⁴ ② 조선에서 좌파가 솔직하게 공적¹⁵으로 주장했다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혁명을 위해 불을

13 姜徳相・琴秉洞, 1963.10, 『現代資料集(6)關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14 姜徳相・琴秉洞, 1963.10, 「国外の形勢に鑑み査察警戒を厳密ならしむる件」, 『現代資料集(6)關東大震災と朝鮮人』, 551쪽.

지르고 참여의 기회를 기다린다'¹⁶라는 것이다.

저자는 해당 근거에 대해 ①은 해당 문서 중 6번째 내용을, ②는 ‘一、關東地方震災の民心に及ぼしたる状況’의 ‘(二) 朝鮮人’을 인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저자는 이러한 자료만으로 조선인 범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을 나타낸다.

필자가 해당 문서 전체를 보고 첨언하자면, 중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조선인 무장단체가 지진 재해를 기회로 삼아 폭거, 선전 선동을 하려 한다고 적혀 있으며, 이들이 계획을 짜고 있다는 날짜도 지진 이후이다. 지진 이후에 소식을 들은 중국에 있는 조선인이 어떻게 관동지방까지 가서 유언비어 속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다른 자료를 찾아볼 것도 없이 해당 자료에 적힌 것만 확인해봐도 지진 이후에 도항자에 대해 한층 면밀히 사찰했다. 조선인 좌파가 자신들의 성과라고 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선동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정보들의 확보(確否)를 돌연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왜 설명이 없는가? ②의 경우에도 인용 자료 어디를 보고 공적을 주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는 『현대사 자료 6』에 수록되어 있는 지진 직후 내무대신이 된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문서 중 사법성 조사 자료¹⁷를 인용하여, ① ‘지진 이후 도쿄에서 5일간 8건의 방화 중 3건은 조선인이 저질렀다’, ② ‘9월 1~3일 사이 살인 2건, 살인 시도 4건, 살인 계획 6건, 강도 6건, 강간 3건, 절도 17건, 횡령 3건, 폭발물 규칙 위반 4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15 논문에는 ‘Responsibility’라고 적혀 있는데, 본서에는 ‘공적’이라고 해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영어 해석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 영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16 姜徳相·琴秉洞, 1963.10, 「治安狀況 秘」, 『現代資料集(6)關東大震災と朝鮮人』, 489쪽.

17 姜徳相·琴秉洞, 1963.10, 「震災に於ける刑事事犯及之に關聯する事項調査書 秘」, 『現代資料集(6)關東大震災と朝鮮人』, 371쪽.

저자는 상기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일본 내각부(内閣府)에서 펴낸 『1923 관동대지진 제2편』¹⁸을 들며 이 보고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는 내용을 제시했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에서도 고토 신페이의 문서를 예로 들며 ‘조선인 범죄자는 대부분 미상이며 피해자도 미상이다’, ‘조선인의 범행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한다. 당시의 ‘임시 진재 구호사무국 경비부’ 또한 조선인 범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¹⁹ 즉, 방화 및 유언비어 속 범죄를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우며, 자료를 통해서 요코하마에서는 방화조차 없었다고 주장한다.

고토 신페이의 문서를 보면 일본인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과연 일본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 침언을 하자면 신상 불명의 경우 다수가 살인, 살인미수, 방화, 강도, 강간, 유언비어 유포 등의 중범죄이고, 신상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범죄는 절도, 횡령, 장물운반, 폭발물, 총기, 화약 단속 위반(불명 혹은 사살당한 경우도 있다) 등이 있으며, 기소 수속을 받는 자가 12명이라고 한다. 일본인 범죄자의 기소, 재판, 선고에 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 등이 보다 상세하고 여러 자료²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조선인이 기소를 받고 재판, 선고를 받았다는 자료는 왜 제시하지 않는가?

이 외에도 저자가 제시한 유아사 구라헤이(湯淺倉平) 경시총감, 미나미타니 치테이(南谷知悌) 검사정(檢事正)이 유언비어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에 치안 당국도 조선인이 중대 범죄는 저지르지 않

18 中央防災会議災害教訓の継承に関する専門調査会, 2008.3, 『1923関東大震災報告書 第2編』.

19 中央防災会議災害教訓の継承に関する専門調査会, 2008.3, 위의 책, 207~208쪽.

20 姜徳相·琴秉洞, 1963.10, 앞의 책, 420~442쪽, 山田昭次の『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裁判資料』(緑蔭書房, 2004.5.)에서 다룬 조선인 학살 관련 재판자료, 이외 여러 신문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설령 범죄가 있더라도 절도와 같은 가벼운 것으로, 이는 혼란 속에서 어떤 민족을 불문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서술한다.

유언비어가 사실무근이라는 자료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경시청 자료에서 폭탄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조사해보니 파인애플 통조림이었고, 독약인 줄 알고 조사해보니 설탕이었으며, 방화를 저지르는 줄 알고 조사해보니 소고기 통조림과 맥주였다. 이와 같은 오인이 퍼지며 유언비어가 점점 발전해갔다고 한다.²¹

램지어가 많이 인용한 당시 일본의 신문 기사에 대한 반박도 상기의 근거를 통해서 가능하나, 저자는 해당 기사의 정보원, 어떠한 환경에서 취재 및 보도가 되었는지를 통해 조선인 범죄가 풍설임을 입증해본다.

램지어가 제시한 『오사카 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에는 조선인이 요코하마를 거쳐 하치오지(八王子)를 향해 방화를 저지르고 폭발물을 옮기고 있다고 한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전보를 발송한 지역을 분석함으로써 하야카와 이사무(早川勇)라는 기자가 도쿄에서 고슈카이도(甲州街道)를 통해 고후(甲府)로 가던 중 하치오지에서 해당 유언비어를 듣고 고후에서 전보를 보냈다고 분석한다. 더불어 오사카에서는 해군 송신소의 전보를 감청하여 조선인 폭동에 대한 자료를 얻었으며, 공문서였기에 사람들이 더욱 사실로 믿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상기의 근거를 토대로 이 기사에 적힌 방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첨언하자면 정부 문서를 보면 해당 기사에 나온 지역에서 방화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또한 해당 기사를 취재했다고 예상되는 날에 해당 지역에서 일본인 고용주가 조선인 노동자를 인솔하여 피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자경단이 조선인 습격이라고 오인하여 공격했다는 자료가 있다.²²

21 姜徳相·琴秉洞, 1963.10, 「三, 流言の發展」(警視庁), 『現代資料集(6)関東大震災と朝鮮人』.

22 姜徳相·琴秉洞, 1963.10, 위의 글, 42쪽.

저자는 시오노미사키(潮岬) 등 무전국에서 확인했지만 소용없었고 도쿄 근교에서 유일하게 통신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치바현의 후나바시 해군 무선전 신소라고 하는데, 지진 직후 시오노미사키 전신국은 1시경부터 요코하마에 있던 선박(선박내의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통신을 주고받았다), 치바현의 초시(銚子) 무선전신국의 전보를 방수(傍受)하여 오후 3시에 오사카 중앙 전신국에 발신하였다. 이처럼 지진 직후부터 관서(關西)지방은 관동대지진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고 이 정보들은 척신국이나 신문사에 전해져 보도되었다. 물론 당시 통신이 혼잡해 전달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오사카 아사히신문』은 호외를 보도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지에 정보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당시 도쿄에서 오사카로 정보를 전달하러 갔던 『아사히신문』 기자 9명이 4개 팀으로 나누어 이동하였는데, 그중 도카이도(東海道)로 향한 후쿠마켄조(福馬謙造)팀은 9월 1일에 출발하여 9월 3일에 오사카로 갈 수 있는 스소노역(裾野駅)에 도착하였는데 거리가 약 120km였고, 가는 길에 교통시설이 파괴되었으나 운 좋게 가던 도중 차를 빌려 탈 수 있었다. 하야카와의 경우 9월 2일에 출발하여 9월 3일에 고후에 도착하였는데 거리가 약 130km였고 교통상황 또한 파괴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갈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다음은 『나고야신문(名古屋新聞)』의 「우스이(碓氷) 고개 위에서 열차 폭파를 시도하다」라는 기사이며 마쓰이다(松井田)역에서 체포된 조선인이 우스이 고개에서 폭탄테러를 기획했다고 자백했다는 내용이다. 학살 부정론을 주장하는 ‘산들바람(そよ風)’이라는 일본의 단체가 군마현이 발행한 소책자에 적힌 유언비어를 실제로는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말에 반박하기 위해 쓴 기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기사의 말미에는 우스이 고개에 숨어든 조선인의 행방은 알 수 없다고 적혀 있다.

해당 기사는 정보원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자는 해당 기사와 내용이 비슷한 다른 신문을 찾아서 정보원과 기사가 어떻게 와전됐는지 분석한다. 여러 자료를 통해 기사에 적힌 지역인 군마현에도 유언비어가 퍼졌고 수상해 보이는 조선인이 살해당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및 해당 지역을 향하는 열차 안에

서는 조선인에 대한 조사가 엄격했으며 자경단도 조선인을 수색하고 다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소동이 일어났고 정보는 철도통신을 이용하여 여러 지역에 퍼졌다고 분석한다. 다만 여기서도 정보원에 대해서 단일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언론 기사 중 조선인의 폭행에 대한 기사가 많았던 『가호쿠신보(河北新報)』에 대해서는 미카미 순지와 오하타 히로시의 「관동대지진 하의 「조선인」 보도와 논조」라는 논문²³의 설명과 함께 분석한다. 램지어가 제시한 『가호쿠신보』의 기사에 나온 조선인 범죄도 상기의 설명을 통해 사실무근인 점을 알 수 있다. 『가호쿠신보』는 조선인 범죄가 가장 많이 보도된 신문이며, 특히 도쿄에서 온 피난민의 담화가 많았고 도호쿠(東北)지방에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도쿄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철도는 피해가 적었으며 복구도 빨랐기에 많은 피난민이 동북 지방으로 몰렸으며, 이들의 정보를 다른 지역에 비해 쉽고 빠르게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가호쿠신보』에 제2사단 관련 기사가 많이 실린 것을 보고, 『가호쿠신보』가 제2사단에 취재하러 가서 조선인 폭동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을 것이고, 제2사단이 조선인 문제 때문에 출동한다는 기사를 본 제2사단 주둔지의 지역민들은 조선인 폭동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점은 관련 분야의 관심이 적어서 간과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신창우 교수도 제2사단 관련 연구는 적었다고 하지만,²⁴ 마쓰오 쇼이치(松尾章一)나 신창우 등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므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에 조선인이 ‘암호’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23 三上俊治・大畑裕嗣, 1986, 「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報道と論調(上)」, 『東京大学新聞研究所紀要』第35号; 三上俊治・大畑裕嗣, 1987.3, 「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報道と論調(下)」, 『東京大学新聞研究所紀要』第36号.

24 愼蒼宇, 2002.7, 「朝鮮「暴徒」像の形成—義兵戦争と日本の郷土新聞」,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765, 31쪽.

이 있는데 이 암호에 대해서는 사법성 조사 자료²⁵를 통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램지어가 제시한 신문 중 다른 의미로 의문스러운 것은 「대지진 후의 도쿄는/불탄 자갈밭과 같다」라는 기사인데 램지어는 논문에 도쿄 주민들이 ‘고(故) 야마가타 아리모토(山縣有朋)’ 총리의 저택으로 피난했다고 적었으나 실제 기사에는 이와사키(岩崎) 남작의 저택이라고 적혀 있다. 이와사키 남작은 미쓰비시(三菱) 재벌인데 미쓰비시 교수가 왜 이렇게 적었는지는 정말 의문이다.

램지어가 제시한 근거 등을 보면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거나 반박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상기 기사의 공통점은 이후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오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램지어가 제시한 자료를 이용해 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을 보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램지어가 사용한 자료 중 『현대사 자료 6』은 방대한 양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학자이자 교수로 살아온 자라면 여러 자료를 비교, 분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또한 상기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법학 전공자로서 다른 사건에서도 저 정도의 근거와 주장으로 유죄를 단언할 수 있는가? 램지어의 학살 부정론 주장은 흔히 다른 부정론자가 말하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며, 색다른 논거도 없다.

저자의 분석은 신선하고 흥미롭다. 그러나 의문점은 유언비어의 정보를 얻은 기자가 해당 지역에서 얻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단순히 풍설만 들은 건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는지 의문이다. 해당 부분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면 확실히 유언비어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전달 루트 등의 정보원에 대해 너무 단일적으로 주장하는 점도 아쉽다. 또한 해당 논문에는 조선인 희생자 수를 둘러싼 여러 조사 및 연구, 램지어가 추산한 수에 대해서도 적혀 있으나 저자는 이에 대해서는 책의 주제에 벗어나기에 파고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제는 램지어의 논문 안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한다.

25 姜徳相·琴秉洞, 1963.10, 앞의 책, 411~420쪽.

3. 해금 이후의 또 다른 언론통제

지진 직후 유언비어에 의해 학살 피해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언론통제를 하게 된다. 그러나 학살 사건의 소문은 퍼지게 되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자정단의 재판이 시작되는 등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10월 20일부로 통제를 해금한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 및 해외에도 이 사건이 알려져 비판받을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또 다른 잘못된 정보로 사실을 가리고자 한다.

저자는 신문 기사의 분석을 통해 사례를 설명하는데, 어떠한 보도로 숨기려고 했는지 간략히 알아보면 ‘일부 불온한 조선인에 의한 범죄’, ‘관헌의 범죄를 자정단에게 전가’, ‘관헌이 조선인 학살을 막으려고 했다는 내용’ 등을 통해 관헌이 잘못을 숨기고, 학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다.

10월 20일 이후 사법성의 조선인 범죄에 대한 조사자료를 보도하나, 11월 15일 사법성 문서를 보면 조선인에 의한 중범죄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해금했다고 하지만 사법당국은 ‘조선인 범죄 중 일부만 한정해 해금’, ‘당국이 인정한 사실 이외에는 보도 금지’ 등의 또 다른 통제를 한다.

결국 해금이 되었어도 정보는 또다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실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허울뿐인 통제 해금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학살에 대한 고찰

제6장에서는 신문 기사를 통해 학살의 실상과 이렇게 잔인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고찰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자정단이 경찰, 군대에 조사, 검문, 보호, 호송을 받던 조선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내용과 무기고를 털어 학살하려고 한 자정단의 내용, 주민들 중에도 무서움에 떠는 자들도 있었다고 설명하며 자정단의 잔인함을 서술한다. 그러나 본서의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는 학살 부정론을 설명하기 위해

서는 군대,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사례²⁶도 같이 설명하는 편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고찰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정신이상자, 의심의 기색도 없이 보도한 기사, 사실을 모호하게 만드는 가짜뉴스, 자경단 속의 재향군인 등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특히 재향군인회는 진재 이전 조선이나 중국 등지에서 조선인과 전쟁을 벌인 경험이 있는 자들로 유언비어를 사실로 받아 들였을 거라 주장하는데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주장되었다.

지진 이후에도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는 없어지지 않고 되살아나서 조선인들이 살해당하거나 학대를 받는 일은 계속 자행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 의문점이 있고 서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나, 지면 제한상 이상으로 끝내기로 하겠다.

III. 맺음말

크나큰 비극을 만들어낸 유언비어를 더욱 확산시킨 언론 보도의 영향력 및 위험성과 램지어 논문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서를 통해 유언비어가 사실무근에 더 가깝다는 것과 정부가 조선인학살에 동조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언비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와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램지어의 논문에 대한 여러 의문점에 대해서 보충 설명과 비판도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본서에 제시된 근거나 인용 자료 등에 대한 주석 사용과 램지어가 논거한 순서대로 구성을 짜서 글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통신시설, 취재와 보도 상황 등을 통한 학살 부정론 반박 및 기사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저

26 龜戸, 荒川, 習志野収容所, 小松川 등지에서 일어난 사건들

서만큼 다른 것을 보지 못했고, 따라서 신선하고 다양한 시각과 발상을 제시해주는 좋은 저서임이 틀림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일반인이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직접 보지 못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타인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1차적으로 제공된 정보에도 어느 정도 개개인의 해석이 들어가고 오류도 섞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가공되어 제공받은 정보는 공급받은 자에 의해서 2차 가공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번씩 재해석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날 수 있다.

하물며 사회시스템의 변화 및 인터넷 등의 발달로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생기고 글과 사진만이 아닌 음성, 영상물 등으로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지금도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다. 여러 가지가 발달한 상황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학문의 자유와 다양성, 새로운 시각과 발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행해져야 된다. 다른 학문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사건,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서로 비판하고, 토론함으로써 더 나은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근거와 자료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램지어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논문을 썼다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의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여러 비판과 더불어 문제점과 의문을 제기받고²⁷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국이

27 「하버드 램지어, 간토 조선인 학살도 부정 ... “사망자수 따져봐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7031700072?input=1195m>). 이 진희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일본 우익 서적과 온라인 블로그에서 인용된 잘못된 자료를 여과 없이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日 역사부정 실제]④ “조선인은 범죄 집단” ... 램지어 논문은 ‘혐오 백화점’」, 『KBS

개정을 요구하며 비판한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도 없이 논란이 된 내용을 없앴 논문²⁸을 재고하였다. 역사학, 일본학, 법학을 전공한 학자가 썼다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의문이 남는 논문이며, 행동이었다.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고 멋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를 숨기고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더욱 키우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닐까?

이와 더불어 저자는 관동대지진 사건에 대해 사회의 낮은 관심도, 숨기려고 하는 정부, 한정된 연구 테마의 영역에 의해 확장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고 하였는데 이는 필자도 공감한다.

2021년 작고하신 강덕상 교수께서 손수 모아온 방대한 관동대지진 관련 자료를 제자이자 본서의 역자인 이규수 교수와 동농재단이 기증받아 많은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DB화 및 전시에 힘을 써주고 있다. 이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며, 국내의 많은 연구자도 고대하던 일일 것이다. 좀처럼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서적의 발행에 따라 연구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사실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뉴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160907&ref=A>). 조경희 성공회대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글은 선행연구의 축적을 무시하고 당시 유언비어를 21세기에 재생산해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학자 “램지어의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부정, 독선적”』,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0830106200005?input=1195m>).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센슈대 교수는 램지어의 논문에 대해 “이는 종종 보이는 학살 부정론, 학살의 정당화를 모방한 것으로 실증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에 합치되는 서술이나 이론은 이것저것 인용하면서도 그에 반하는 연구나 자료는 무시한다”, “논문의 형식에 대해서도 방대한 참고문헌이 열거됐으나, 어디에서 인용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럽 출판사, 램지어 재일교포 논문 조사 착수...』 심각한 사안』,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0224012000072?input=1195m>).

- 28 램지어가 개정한 논문은 J. Mark Ramseyer, 2021.8, “On Privatizing Police, with Examples from Japan”, *The Cambridge Handbook of Privatization* 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언,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선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허 란 동북아역사재단 출판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2호(2023. 12)

초판 1쇄 발행 2023년 12월 30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